

학교도서관 활용 활성화를 위한

# 교과연계 도서목록

## 중·고등학교



## 책을 펴내며...

학교도서관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의해 열악했던 학교도서관 시설 및 환경이 나아지면서, 학교도서관이 자원기반활용학습의 중요한 공간으로 인식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학교도서관의 교수-학습 활동은 표준화된 교과 내용을 보완하고, 교과에서 다루기 어려운 풍부한 사례와 깊이있는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아이들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발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수-학습 활동이 가능해지려면, 학교도서관은 교수-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고, 교사와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 서비스 체제를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책은 현재 각 시·도의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를 통해, 개별 학교의 정보를 관리하는 “디지털자료실”(DLS)에서 서비스되는 교과연계 도서목록을 인쇄 자료 형태로 발간한 것입니다. DLS 사업이 정보의 공동 활용이라는 목적하에 진행되는 만큼 양질의 목록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그 목록이 교과, 단원, 학습주제와 어떻게 연계되며, 그것을 교수-학습활동에 어떤 형태로 적용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에 수록된 도서들은 교과별, 학년별, 단원별, 학습주제별 그 도서와 연계된 교과 정보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특히 책을 소개하는 내용은 아동도서 분야의 현직, 전직 선생님들이 꾸며주신 것으로 아이들에게는 어려운 일반 서평과는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학교도서관에서 꼭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는데 귀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지속적으로 정보를 확보하고, 수정하고, 갱신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03년 12월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원 장 김 영 찬

## ☞ 이 책은 이렇게 보세요...

1. 이 책은 7차 교육과정의 교과별, 단원별, 학습주제 분류에 기준을 두고 중·고등학교 기본 교과인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영어, 국사 등 11개 교과와 관련된 도서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국어 교과의 경우, 생활국어 교과에 해당하는 추천도서를 추가하였습니다. 고등학교 과학 교과의 경우,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등의 세부 교과들과 연계된 도서목록을 순서대로 제시하였으며, 지리(한국지리, 세계지리) 교과에 해당하는 도서목록을 추가하였습니다. 단, 도덕 교과는 중학교 단원, 학습주제에 추천된 도서들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 고등학교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모두 특정 교과와는 연계되지 않지만 교양 도서로서 참고하면 좋을 도서들을 일반 영역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이 책에 수록된 교과연계 도서목록은 약 3,400건으로, 학교급, 학년별 독서 수준에 맞는 도서를 교과 정보와 연계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2. 중·고등 학교급을 기준으로 각 학교급의 해당 교과별 추천도서목록을 학년, 학기별로 안내하였습니다. 학년과 학기 기준은 제7차 교육과정 ‘교과별 단원별 학습주제 목록’ 기준을 따랐습니다.
3. 각 교과의 추천 도서목록은 교과정보, 도서정보 및 도서에 대한 설명(추천사유 및 활용방안)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단, 추천도서는 도서의 내용에 따라서 같은 혹은 다른 교과의 단원이나 학습주제에도 동일하게 추천될 수 있습니다.
  - 교과정보 : 교과명, 학년, 학기, (대)단원(학습주제)
  - 도서정보 : 저자, 출판사, 출판연도, 쪽수, 가격
  - 도서설명 : 도서에 대한 개괄적인 소개글
4. 교과정보 중 대단원, 단원, 학습주제는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습니다.
  - 각 페이지의 원편은 (대)단원, 학습주제 등의 교과정보 안내
  - 표기방법 : 대단원(로마자), 단원(아라비아 숫자), 학습주제(반가로)
  - 교과정보는 대단원이 있는 경우 대단원, 단원, 학습주제로 표기하되, 대단원이 없는 경우는 단원, 학습주제로 표기함. 단, (대)단원만 표기된 것은 동일한 단원에 해당하는 학습주제들 모두에 적용 가능함을 의미함
    - ※ 중학교 영어과목의 경우 출판사가 상이하여 교과정보에 출판사명(예: 두산, 천재 등)을 추가한 경우가 있으며, 고등학교 영어과목 추천도서의 경우 특정 단원과 학습주제에만 적용되지 않아 교과정보는 생략함
  - 본 도서목록집 같은 페이지내에 추천도서의 교과정보가 동일한 경우는 새로운 교과정보가 처음 소개되는 추천도서에만 표기함
    - ※ 각 추천도서의 원편 교과정보 표기란의 공란은 앞줄의 추천도서와 동일한 교과정보가 적용됨을 의미함

5. 도서안내 보는 법

1. 삶과 도덕  
2. 개성신장과  
인격도야

대단원

단원

**책제목** : 이야기로 익히는 논리 학습 1-3

**저자** : 기철 / 사계철

**출판사 / 년도 / 쪽수 / 가격** : 1992년 / 206쪽 / 6,000원

**기철 / 사계철 / 1992년 / 206쪽 / 6,000원**

어려운 논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각각의 이야기를 분석하여 논리의 개념을 하나씩 익혀 가도록 만든 책이다. 논리적 사고와 개념을 단순 암기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알맞은 이야기를 통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원리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논리란 무엇일까?, 생각이란 무엇일까?, 개념의 뜻과 바르게 쓰기, 바르게 판단하기’ 등의 내용을 흥미롭게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판단의 관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했다. 논리의 기본적인 내용들-귀납추리와 연역추리, 오류와 거짓말, 아니면 반대 관계와 모순 관계의 차이 등이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짧은 이야기 속에서 논리에 대해 배우고 생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책이다.

1.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

1) 황소개구리와  
우리말

단원

학습주제

**책제목** : 국어의 풍경들

**저자** : 고중석

**출판사 / 년도 / 쪽수 / 가격** : 문학과 지성사 / 1999년 / 300쪽 / 8,000원

**고중석 저 / 문학과 지성사 / 1999년 / 300쪽 / 8,000원**

이 책은 실증적 사실 관계가 분명치 않은, 이데올로기에 휩쓸린 한국어사 서술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서슴지 않으며, 음성·음운·형태소·단어·문장·의미·통사·화용·한국어사·언어사회학 등 학교 문법에 일반적으로 담긴 내용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상적인 언어를 위해 규범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언어의 용법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말이 과연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운용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한다.

원편 교과정보란에 (대)단원(학습주제)명이 없는 것은 앞 추천도서와 동일한 교과정보가 적용됨을 의미함

1.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

1) 황소개구리와  
우리말

단원

학습주제

**책제목** : 국어의 풍경들

**저자** : 고중석

**출판사 / 년도 / 쪽수 / 가격** : 문학과 지성사 / 1999년 / 300쪽 / 8,000원

**고중석 저 / 문학과 지성사 / 1999년 / 300쪽 / 8,000원**

이 책은 실증적 사실 관계가 분명치 않은, 이데올로기에 휩쓸린 한국어사 서술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서슴지 않으며, 음성·음운·형태소·단어·문장·의미·통사·화용·한국어사·언어사회학 등 학교 문법에 일반적으로 담긴 내용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상적인 언어를 위해 규범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언어의 용법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말이 과연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운용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한다.

### ☞ 이 책은 이렇게 활용하세요...

- 학교도서관의 도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학생들에게 올바른 독서교육을 안내하기 위한 안내 자료로 활용
-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도서관 활용 수업시 참고 자료로 아이들에게 안내

### ☞ 교과연계 도서목록 온라인 서비스

- 이 책의 도서목록 정보는 각 시·도별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웹 사이트의 “도서목록”  
→ “교과관련자료” 메뉴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DLS를 활용하여 학교도서관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학교에서는 학교홈페이지의  
“디지털도서관(또는 디지털자료실)” 메뉴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각 시·도별 디지털자료실지원센터 웹 사이트 주소

서울	<a href="http://210.102.100.43">http://210.102.100.43</a>
부산	<a href="http://dls.busanedu.net">http://dls.busanedu.net</a>
대구	<a href="http://dls.tgedu.net">http://dls.tgedu.net</a>
인천	<a href="http://dls.ice.go.kr">http://dls.ice.go.kr</a>
대전	<a href="http://dls.tenet.or.kr">http://dls.tenet.or.kr</a>
울산	<a href="http://210.102.100.43:30000">http://210.102.100.43:30000</a>
경기	<a href="http://dls.kglib.or.kr">http://dls.kglib.or.kr</a>
강원	<a href="http://dls.keric.or.kr">http://dls.keric.or.kr</a>
충북	<a href="http://dls.cbcsr.or.kr">http://dls.cbcsr.or.kr</a>
충남	<a href="http://dls.cise.or.kr">http://dls.cise.or.kr</a>
전북	<a href="http://dls.cein.or.kr">http://dls.cein.or.kr</a>
전남	<a href="http://dls.jeri.or.kr">http://dls.jeri.or.kr</a>
경북	<a href="http://dls.gyo6.net">http://dls.gyo6.net</a>
경남	<a href="http://dls.gnedu.net">http://dls.gnedu.net</a>
제주	<a href="http://dls.jje.go.kr">http://dls.jje.go.kr</a>

## 목 차

### 중 학교

국어 .....	3
생활국어 .....	73
도덕 .....	87
사회 .....	117
수학 .....	123
과학 .....	145
기술·가정 .....	161
체육 .....	167
음악 .....	171
미술 .....	175
영어 .....	183
국사 .....	209
일반 .....	219

### 고 등 학교

국어 .....	243
사회 .....	265
수학 .....	271
과학	
물리 .....	281
화학 .....	288
생물 .....	295
지구과학 .....	301
기술·가정 .....	311
체육 .....	333
음악 .....	337
미술 .....	355
영어 .....	371
국사 .....	383
지리	
한국지리 .....	423
세계지리 .....	436
일반 .....	439

중 학교

국어 / 3~71

생활국어 / 73~85

도덕 / 87~115

사회 / 117~122

수학 / 123~144

과학 / 145~160

기술·가정 / 161~166

체육 / 167~169

음악 / 171~174

미술 / 175~182

영어 / 183~208

국사 / 209~217

일반 / 219~239

# 국 어

## ▣ 1학년 1학기

### 1. 문학의 즐거움

#### 7년간의 실수

김주환 / 나라말 / 1999 / 287쪽 / 7,200원

일상의 이야기나 자신의 생각을 담아내는 글에서부터 '신문을 이용한 글쓰기', '조사해서 글쓰기', 그리고 시나 소설, 수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아이들의 글쓰기는 제대로 이끌어만 준다면 우리 친구들 모두는 훌륭한 글쟁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거창한 이야기나, 문맥적으로 매끄러운 글들이 아닐지라도 살아 숨쉬는 자신만의 이야기와 느낌들을 오롯이 담아낸 책 속의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써낸 글들은 '글쓰기'란 무엇이며,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작은 해답을 우리들 앞에 내어놓고 있다.

창의적 사고력이 살아있는 중학생들의 이 글 모음집은 학생들에게는 또래 친구들의 생각과 살아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교사들에게는 훌륭한 읽기 자료, 쓰기 자료가 되어줄 것이다.

### 1. 문학의 즐거움

#### 1) 새봄

####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 포올러스(김명우) / 소담출판사 / 2002년 / 142쪽 / 4,500원

짓밟거나 짓밟히는 살벌한 현실을 벗어나 참 자아를 발견하는 길을 알려 주는 나비의 이야기, 아니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다. 짧지만 긴 감동을 가진 이야기. 참 자아를 발견하는 길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이것을 이겨내게 해 주는 힘은 희망과 사랑임을 깨닫게 해준다. 수백 마리의 애벌레들은 남이 하면 그 끝도 모르면서 무모하게 시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다. 나에게 그들과 다른 희망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않고 말이다.

사람에게 다 희망이 있다. 내가 남들보다 좀 뒤쳐지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내가 남들과 너무 다른 삶을 살아간다고 불안해하는 아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제목을 <○○에게 희망을> 이라고 바꾸어서 선물해도 참 좋은 책이다.

#### 사계절의 기도

이애인 / 분도출판사 / 2001 / 432쪽 / 10,000원

독자들에게 낭송용이나 선물용 카드에 적어 주는 글귀로 사랑받게 될 것이다. '기도할 때 내 마음은', '길이신 이여 오소서', '당신이 오신 날 우리는'을 비롯한 150편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 할아버지 요강

임길택 / 보리 / 1995 / 135쪽 / 5,500원

오랫동안 농촌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온 임길택 선생님이 아이들과 학교생활, 마을과 자연, 그리고 사람 사는 이야기를 따사로운 시선으로 그려낸 시들이 실렸다.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마주 앉아 보기 좋은 이 동시집에는 어려운 표현이 한 줄도 나오지 않는다. 시와 잘 어울리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그림들이 실려 있어서, 시골생활과 자연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는 도시아이들도 그림을 보면서 시의 감동을 전해 받을 수 있다.



## 1. 문학의 즐거움 1) 새봄

### 가자 가자 감나무

편애문 / 창작과비평사 / 1998 / 152쪽 / 12,000원

제2회 '좋은 어린이 책' 원고 공모 비창작 부문 대상을 받은 책. 전국을 발로 뛰며 얻은 소중한 우리의 전래동요가 가득 담겨 있다. 「신나게 어울려 놀며」, 「동무들 놀리며」, 「한바탕 재미있게 웃고 즐기며」, 「새 소리를 따라하며」, 등 아이들이 노는 모습에 따라 노래를 엮고 해설을 붙였으며, 초등학생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부른 생생하고 재미있는 노래를 CD에 함께 담아 펴냈다

## 1. 문학의 즐거움 2) 아버지의 유물

### 아버지와 아들

이영민 / 인간과자연사 / 2003년 / 300쪽 / 8,000원

이 책은 만 5세에 백혈병 진단을 받은 한 아이의 생사의 기로를 넘나드는 처절한 몸부림의 기록이다. 아이는 그런 기나긴 투병과정을 기적적으로 극복하고 이제는 완치된 상태이지만, 그 과정 중에 보여주었던 아이 자신의 의연한 모습과 부모와 가족 등 주변의 헌신적인 모습들을 사실감 있게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특히 현혈을 하고 성금을 모아주었던 학교공동체의 또 다른 힘은 소아암은 곧 한 가정의 파멸이라는 위기에서 위로하고 격려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작가는 난치병에 시달리는 많은 아이들 환자에 간한 한 국가 의료제도의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할 있는 현실을 크게 안타까워 하면서 이 병상생활에서의 가감없는 기록이 현재도 투병중인 많은 소아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다소나마 힘이 되어 주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다.

### 아버지와 아들

이반 투르게네프(편집부) / 신원문화사 / 2001년 / 360쪽 / 6,900원

이 책은 대학을 졸업한 아르카디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1859년 봄에 친구인 바자로프를 데리고 아버지가 계신 니콜라이의 농장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도착한 후에 기성 세대와 신세대의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해서 바자로프는 니콜라이의 형인 파벨과 여러 분야에 대한 논쟁을 벌이게 된다. 어느 날 바자로프와 아르카디는 어느 저택의 무도회에서 오딘초와라는 아름다운 미망인을 만나게 되는데 바자로프는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녀도 사랑하고 있지만 그만 주저해 버린다. 상처를 받게 된 바자로프는 늙은 부모에게 돌아와 버리는데 어느 날 죽은 농부를 해부하다가 손에 상처를 입고 자신이 죽게될 거라는 불길한 예감을 하게 된다. 그는 정말 죽어가게 되고 오딘초와가 찾아와서 사랑을 고백하게 된다. 결국 바자로프는 죽고 만다. 아버지와 아들로 대표되는 구시대와 신시대 사이에서 빚어지는 신념과 견해의 차이를 다루었다. 하지만 이 작품이 지닌 진정한 가치는 그런 문제의 취급이나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공 바자로프를 통해 당시의 전형적인 지식계층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소설이다.

### 감자반지 - 이미애의 행복한 동화 세상

이미애 / 은행나무아이들 / 2002년 / 166쪽 / 8,500원

아이들과 어른이 함께 읽어도 감동 받을 수 있는 이야기 24편. 꿈과 희망을 갖게 하는 행복한 이야기이다.

“단단하고 매끈한 유리구슬처럼 여간해서 더러워지지 않는 아이의 마음과 또 그런 동심을 긴 세월 굽히지 않고 깨지지 않게 간직하며 살아가고픈 어른의 마음, 정말이지 그런 ‘늙지 않는 마음’과 만나기를 갈망했다.”는 작가의 말에서, 엄마가 읽고 아이에게 읽어 줄 수 있는 동화, 누구나 두루 읽어도 좋을 무궁해 유산소 같은 동화임을 금세 알 수 있다.

이 글을 읽다 보면, 무심코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초등학교 때 소중하게 간직했던 엽서 나부랑이며, 전학간 친구에게 보내려던 편지 한 장, 알록달록한 생일선물들을 만나 단박에 어린 시절의 ‘나’로 돌아가게 된 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짧은 동화와 동시들이지만, 오래 동화를 써 온 작가의 시적 감수성과 탄탄한 구성력을 느낄 수 있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꿈을 잃지 않고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희망으로 빚어낸 동심의 세계가 아름답다.

## 1. 문학의 즐거움

### 3) 어린 날의 초상

#### 선생님의 밥그릇

이정준 / 다림 / 2002년 / 176쪽 / 7,000원

이정준이 쓴 어린이들을 위한 단편집으로 <선생님의 밥그릇>을 비롯한 다섯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선생님의 밥그릇>은 이제는 어른이 된 옛 반 친구들이 선생님을 모신 자리에서 중학 시절을 회상하는 이야기다. 1950년대 6.25 이후, 보릿고개가 서럽던 때의 기억이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건강을 염려해서 도시락을 싸 오라고 하지만, 싸 오고 싶어도 못 싸 오는 아이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청소라는 벌을 내린다. 그래 한 아이는 빈 도시락통을 가지고 다니며 벌을 면한다.

그러나 빈 도시락통이라는 것을 확인한 선생님은 매끼 밥그릇의 절반을 덜어 놓고 먹기로 작정한다. 37년 뒤의 은사회식에서조차 절반을 덜어 놓고 먹기로 작정한다. 잔잔한 여울처럼 울음이 파고드는 속마음을 형상화했다. 이쁨도 때론 아름다움의 표현이 된다.

#### 아홉 살 인생

위기철 / 청년사 / 2001년 / 264쪽 / 8,000원

지은이가 스물 아홉 해 살아오면서 느끼고 배웠던 인생이야기를 아홉 살짜리 주인공을 통해 정리한 책이다. 가파른 세상을 오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유머와 재치로 삶의 의미를 전한다.

지은이는 욕망은 찬란하고 현실은 끔찍하지만, 사람은 그 현실 속에서 살 수 밖에 없으며 욕망도 그 속에서만 실현된다고 말한다. 그는 이 사실을 사람들과의 부대끼 속에서 깨닫고 아홉 살 꼬마의 입을 통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누구나 순간 순간이 자기만의 인생이듯이 인생은 결코 혼자 걸어가야 할 외로운 길이 아님을, 나는 아홉 살 그 때 배웠다.” 아홉 살은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니다. 그렇다고 많은 나이도 아니다. 아홉 살이었을 때를 생각해 보자. 우리도 아홉 살이었고, 우리도 안다.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참된 모습을 그려 주고 있다.

#### 하나의 나뭇잎이 흔들릴 때

이여령 / 문학사상사 / 2002년 / 296쪽 / 10,000원

자전적 성격이 강한 저자의 에세이집이다. 유년시절의 기억을 더듬고 있는 ‘유년 시절의 기행’을 비롯한 자전적 에세이와 <문학사상>의 권두언 일부를 추려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 암울했던 일제 시대에 보낸 어린 시절, 부모님의 배려,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 등이 소설처럼 펼쳐진다.

#### 자전거 도둑

박완서 / 다림 / 1999년 / 184쪽 / 7,000원

우리는 살다보면 진정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이며 참된 행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자주 한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 소년 수남이를 통하여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에 접근할 수 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보다 조금은 지저분하고 누추하더라도 정말 가치있는 것들이 따로 있음을 깨닫고,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 어려움을 이겨내는 참된 힘은 어디서 오는지 깊게 생각하게 된다. 수남이가 자전거를 타지 않고 옆구리에 끼고 질풍같이 달리면서도 검부러기처럼 느낀 이유를 알고 싶다면 지금 바로 읽어보자.

#### 슬픈 나막신

권정생 / 우리교육 / 2002년 / 244쪽 / 7,000원

1940년대 초반, 세계 2차대전이 한창이던 일본 도쿄를 무대로 이야기는 펼쳐진다. 다닥다닥 잇대어 지어진 나가야 집에서 일본 사람과 조선 사람이 함께 섞여 사는 동네 혼마찌는 초등학교 3학년 준이가 사는 곳이다. 때로, 조선 사람, 일본 사람으로 편을 갈라 싸우기도 하지만 곧 아이들은 싸운 것을 잊어버리고 함께 논다.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펼쳐진다. 동생 스즈코를 고아원에 두고 부잣집에 수양딸로 온 하나코, 흰 눈이 오는 날 영구차에 실려간 에이코, 조선에는 무조건 나쁘다며 때리는 히로시, 술장사를 하는 엄마에게 매일 두들겨 맞는 분이. 아이들은 폭격을 맞아 폐허가 된 땅에서 내일을 기다린다.

전쟁 때문에 폭격은 계속되고 언제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때로는 어른들처럼 조선 사람, 일본 사람 편을 갈라 욕하고 싸우다가도 본능적으로 서로를 위로하면서 어울려 지내는 아이들의 이야기가 절절하게 펼쳐진다. 과장됨 없이 담담하게 전쟁의 슬픔을 이야기하고 있다.

1. 문학의 즐거움  
3) 어린 날의 초상

### 안네의 일기

안네 프랑크(김재천) / 소담출판사 / 2002년 / 288쪽 / 5,000원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는다. 어쩌면 좋은 일보다는 슬프고 힘든 일을 더 많이 겪으면서 좌절과 패배감을 느끼기도 한다.

제 2차 세계대전 중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나치스에게 학살되어야 했던 13세 소녀의 생생한 고발이 담겨 있는 이 작품은 전쟁의 참혹함과 인간의 존엄성을 일깨워 주고 있다. 13세 소녀의 한 개인의 기록이 지금까지도 전 세계인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은 한 유대인 소녀 가족의 불행과 함께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공포와 외로움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잃지 않은 깨끗한 인간정신이 드러나 있으며 죽음의 문턱에서도 빛을 잃지 않은 사춘기 소년의 아름다운 감성과 지혜, 용기가 잘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일기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고 동시에 자신에게 닥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용기와 지혜를 학생들에게 한 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 까망머리 주디

손연자 / 지식산업사 / 1998 / 224쪽 / 8,000원

많은 우리 어린이들이 해외로 입양되어 살고 있다. 이 책은 이렇게 해외로 입양된 아이들이 이야기를 다뤘다.

미국 입양아 주디는 자상한 양부모 밑에서 자신이 입양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며 산다. 어느 날 같은 반 남자 친구인 로빈과 첫 데이트를 하러 나가며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다. 그 머리를 본 로빈이 '노란 원숭이'라고 부르는 소리에 주디는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된다. 주디의 심리묘사가 섬세하다.

### 강릉 가는 옛길

이순원 지음, 한수임 그림 / 다림 / 2002 / 168쪽 / 7,000원

주인공 수호가 초등학교 때의 친구 경주의 전화를 받는 것에서 이야기가 시작한다. 경주는 초등학교 때 담임이었던 '이관모 선생님'의 죽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수호는 '관모'가 죽었다는 소식에도 그에 대한 미움이 앞서서 것을 느낀다. 선생님과 아이들, 그로 인한 아이들과 아이들 사이의 갈등을 풀어냈다. 가장 공경해야 하지만, 오히려 약자에게 가혹하게 대했던 한 선생의 모습을 통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이들의 갈등에 슬프고 아프면서도, 이런 소설이 있기에 아직 희망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는 좋은 소설이다.

1. 문학의 즐거움  
4) 이해의 선물

### 몽실언니

권정생 / 창작과비평사 / 2001년 / 256쪽 / 7,500원

우리 민족의 아픔을 잘 나타낸 권정생의 대표작으로 해방 이후의 어지러운 시대와 전쟁의 상처를 곳곳이 견뎌 내는 몽실이는 곧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몽실언니는 온갖 슬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왔다. 아버지를 버리고 새아버지를 맞이하였다. 하지만 새아버지 때문에 절름발이가 되었다. 그리고 또 새어머니를 맞이하였다. 바로 북촌택이었다. 북촌택은 몽실이를 친자식처럼 길러 주었다. 하지만 난남이를 낳고 병으로 돌아가셨다. 둘은 고아가 되었다. 그리고 난남이는 커 갈수록 얼굴이 예뻐졌다. 그러나 불쌍하게도 어머니처럼 병에 걸려 고생하게 된다.

온갖 어려움 속에서 몽실이가 겪는 현실은 가슴이 아프게 다가온다. 그러나 언제나 건강한 마음을 잃지 않는 몽실이의 순수한 마음은 여러번 보아도 항상 감동적이다. 한번 읽고 나면 꼭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런 책이다.

## 2. 읽기와 쓰기

### 1) 마음으로 쓰는 편지

#### 꽃삽

이해인 / 샐터사 / 2000년 / 262쪽 / 3,500원

이해인 수녀님은 그루터기에 나란히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고 싶은 분이시다. 그래서인지 그분의 글은 항상 맑고 따스한 느낌을 준다. 날마다 먹어도 물리지 않는 밥처럼 오래오래 듣고 싶은 말씀들이다.

제 1~3장에서는 작가의 생활 면면들을 알 수 있고, 제4장은 침대들을 위한 조언, 마지막 제5장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작가에게 편지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한 회답이다.

현실에 급급해서 미처 생각지 못했던 내 자신에 대해서도 돌아볼 수 있을 것이며 조그만 여유가 생길 것이다. 바쁘고 들뜨게 사는 친구가 있으면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살라고 선물로 쥐어도 좋겠다.

외에 <향기로 말을 거는 꽃처럼>, <두레박> 등의 산문집과 <외딴 마을의 빈집이 되고 싶다>, <민들레의 영토>, <다시 바다에서> 등의 시집도 읽어보기를 권한다.

## 선생님 이 옷 입고 오페라 가세요

임정아 / 사람의 향기 / 2002 / 272쪽 / 8,700원

전국 국어교사모임 권장도서이기도 한 이 책에는 학교를 무대로 선생님과 아이들의 살가운 대화와 노력이 담겨 있다. 중학교 2학년이지만 벌써부터 어른 흉내내기 바쁜 학생들을 측은하게 바라보다가 휴대폰 문자 보내는 방법을 짐짓 물어보는 방법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는 일화를 보면 선생님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마저 든다

## 선생님의 밥그릇

이창준 / 다림 / 2000 / 176쪽 / 7,000원

이창준이 쓴 어린이들을 위한 단편집으로 <선생님의 밥그릇>을 비롯한 다섯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선생님의 밥그릇>은 이제는 어른이 된 옛 반 친구들이 선생님을 모신 자리에서 중학 시절을 회상하는 이야기다. 1950년대 6.25 이후, 보릿고개가 서럽던 때의 기억이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건강을 염려해서 도시락을 싸 오라고 하지만, 싸 오고 싶어도 못 싸 오는 아이들이 있다. 그런데 이런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청소라는 벌을 내린다. 그래 한 아이는 빈 도시락통을 가지고 다니며 벌을 면한다.

그러나 빈 도시락통이라는 것을 확인한 선생님은 매끼 밥그릇의 절반을 덜어 놓고 먹기로 작정한다. 37년 뒤의 은사회식에서조차 절반을 덜어 놓고 먹기로 작정한다. 잔잔한 여울처럼 울음이 파고 드는 속마음을 형상화했다. 아픔도 때론 아름다움의 표현이 된다.

## 2. 읽기와 쓰기

### 2) 어머니의 우산

#### 그리운 메이 아줌마

신시아 라일런트(햇살과나무꾼) / 사계절출판사 / 1999년 / 127쪽 / 5,000원

<그리운 메이 아줌마>는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 남겨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 절망감과 괴로움을 이기고 살아가는가에 대한 소설이다.

작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상처와 아픔을 바깥으로 쉽게 내뿜지 못하는 서머의 감정을 격렬하게 내뿜지 않고 절제하며 보여 준다.

상처는 삶을 황폐하게 만들지 만은 않는다. 생체기를 감싸안는 법을 터득하여 오히려 슬픔의 무게를 사랑의 무게로 바꾸어 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소박하지만 아련한 문장으로 전하고 있다. 고아인 서머는 친척집에서 얌전히 살다 메이 아줌마 눈에 띄어 아줌마의 양녀가 된다. 편안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던 서머는 메이 아줌마가 돌아가시자 자신이 또 버림받을까 두려워하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안으로만 숨긴다. 청소년들에게 죽음에 대한 문제와 삶의 모습을 생각하게 해주는 작품이다.

## 2. 읽기와 쓰기 2) 어머니의 우산

### 엄마냄새

김재진 / 그림같은세상 / 2002년 / 211쪽 / 8,000원

시인·소설가·동화작가·방송프로듀서 등으로 일하고 있는 저자의 작은 이야기 모음집이다. <엄마 냄새>에는 신체적 장애 때문에 입양됐다 버려진 아이에게 정을 쏟는 우편집배원 아저씨, 각자 미국의 입양 가정으로 헤어져야 했던 남매, 어른스레 엄마에게 편지를 남기고 불치병으로 죽은 아들 이야기 등 눈물겨운 동화들이 등장한다.

어느 날 문득 우리가 삶에 치여 무너지고 싶을 때, 그리운 마음에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삶이 산 같아서 아무것도 더 지고 갈 수 없을 때 입 속으로 가만히 불러 보는 이름. 세월이라는 깊은 우물에서 소박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사랑을 쉽 없이 걸어 올려 우리에게 퍼부어 주는 이의 이름이 바로 '어머니'다. 우리의 가슴을 꽂꽂 얹어매고 있는 현실이라는 사슬을 잠시나마 풀고, 가난했지만 정감 넘쳤던 지난날의 방문을 살그머니 열어 주는 작가 특유의 가슴 저미는 감성적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훈훈하면서도 포근한 엄마 품속을 떠올리게 된다.

### 엄마 어렸을 적엔...

이승은 외 / 이레 / 2001년 / 212쪽 / 9,000원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이승은-허헌선 부부의 인형전이 열렸고, 그 인형사진과 더불어 시인 권대웅씨가 상황별로 당시를 추억하는 글을 곁들인 내용이다. 중국집에서 아이들만 자장면을 시켜 주고 엄마는 구경만 하는 모습도 아름답고, 사람 없는 한적한 중국집이지만 자장면 두 그릇밖에 못 시켜 먹어서 미안한 마음에 구석자리에 앉는 겸손한 어머니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비록 가난했지만 희망과 낭만이 있었던 1960-70년대가 샴터에 물 고이듯이 머리와 가슴으로 즐줄줄 고여 든다. 옛 세대의 낭만과 없었지만 행복한 삶의 여유를 함께 젖어 볼 수 있다.

## 2. 읽기와 쓰기 3) 국물 이야기

### 그대에게 던지는 사랑의 그물

이외수 / 동문선 / 1998년 / 280쪽 / 7,000원

신기한 사람, 멋진 사람, 오랫동안 기억되는 사람. 서서히 혀속에 감겨서 오랫동안 향이 지워지지 않는 단어를 쓰는, 험난했던 만큼 진솔한, 그래서 자존심도 자만심도 강한 이외수 이 책에는 그가 겪은 참담했던 젊은 시절 이야기, 치열했던 광기를 받아주었던 주변 사람들과 인간과 우주 대자연에 대한 남다른 애정, 문학도로서의 수련 과정 등 작가의 삶이 녹아 들어있다. 그의 철학 아니, 그의 일상이 들어 있다. 사실 그대로 재미있으면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주는 이야기들. 우리들에게 기인으로 알려진 이외수를 인간 이외수로 만나게 될 것이다.

### 밥이 끊는 시간

박상철 / 사계절 / 2001년 / 240쪽 / 7,000원

[밥이 끊는 시간]은 "사계절 1318문고" 가운데 하나이다. "사계절 1318문고"는 청소년들을 위한 문학작품 시리즈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청소년 문학이라는 말조차 낯설다. 그만큼 청소년들이 읽을 만한 문학작품이 없다는 뜻이다.

물론 세계명작이나 고전을 청소년들이 읽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 작품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쓴 작품은 아니다. [밥이 끊는 시간]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쓴 작품이고, 청소년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구나 청소년 문학의 기반이 취약한 우리 현실에서 [밥이 끊는 시간]은 나름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낼 것이다.

### 주고 싶은 소중한 이야기들

이원광 / 뿌리와 날개 / 2000 / 262쪽 / 7,000원

이 책은 깊이가 있고 진한 이야기들을 모아 놓은 글이다. 딱딱한 교훈적인 글과는 달리 감동을 주는 이야기로 훨씬 더 가슴에 와 닿았다. 세상이 각박하고 삭막하다고 걱정을 하고 있다. 마음이 황폐해져 '우리'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눈앞의 진리마저 몰라보게 되었다.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10대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그러한데 그들이 읽기에 안성맞춤인 것 같다. 여기엔 삶의 이정표가 될 행동의 지침이 들어있다. 비록 짧은 이야기이지만 결코 무시할 작은 이야기가 아니다. 마음을 살찌게 하고, 삶의 지혜를 터득하게 하고, 그리고 깨달음을 일깨워주는 이야기들이다. 오늘을 사는 우리 10대 청소년들의 가치관 정립에 큰 보탬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 2. 읽기와 쓰기

### 3) 국물 이야기

### 사람 사이에 삶의 길이 있고

도중환 / 사계절출판사 / 1997 / 238쪽 / 6,500원

이 책은 청소년들을 위한 수필을 모아 엮은 책이다. 작가와 시인은 물론 사회 각분야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글이 다양하게 실려 있다. 이 책은 지금 우리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문제에 실마리를 던져줄 수 있는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글, 이런 글이라면 우리 청소년들이 관심을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글, 또 글이 담고 있는 아름다움과 진실을 청소년들이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 싶은 글들을 엄선하여 엮은 것이다.

## 3. 문학과 의사소통

### 손도끼

게리 폴슨 / 사계절출판사 / 2001 / 186쪽 / 6,000원

낮선 곳에서의 모험 이야기는 언제나 아이들에게 인기가 있다.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뉴베리상을 받은 작품 <손도끼>도 그런 모험 이야기이다. 그러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일 뿐 아니라, 한 아이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며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 3. 문학과 의사소통

### 1) 스스로 터득한 지혜

### 80일간의 세계일주

질 베른(홍은주) / 창작시대 / 2000년 / 306쪽 / 14,000원

언제나 똑같은 일과 시간에 맞춰 생활하는 한 영국인사 포그가 친구들이 한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80일 안에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다는 것에 2만 파운드를 걸고 하인 파스파르투와 함께 세계 여행을 떠나는 이야기이다.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면 80일 만에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다.’는 잡지 기사에 힌트를 얻어 써어진 것으로 모험과 사랑, 세계 각지의 인정과 풍물 소개, 여러 민족의 성격이 풍자적으로 묘사되어 있는 이야기로 재미 뿐 아니라 각 국에 대한 풍부한 지식까지 전해 준다. 꼼꼼하게 덧붙여진 해설과 그림, 그리고 사진 자료 덕분에 그 시대의 생활상과 크고 작은 역사적 사건들이 온전히 복원되어 소설을 읽는 맛 외에도 한편의 기록 영화를 보는 듯한 생생하고 색다른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 마지막 잎새

오헨리(조신권) / 신원문화사 / 2001년 / 255쪽 / 5,000원

이 작품은 오헨리의 1905년 작품이다. 뉴욕 그리니치 빌리지의 아파트에 사는 무명의 여류화가 존시가 심한 폐렴에 걸려서 사경을 헤맨다. 그녀는 삶에 대한 희망을 잃고 친구의 격려도 아랑곳 없이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담쟁이덩굴 잎이 다 떨어질 때 자기의 생명도 끝난다고 생각한다. 같은 집에 사는 친절한 노화가(老畫家)가 나뭇잎 하나를 벽에 그려 심한 비바람에도 견디어낸 진짜 나뭇잎처럼 보이게 하여 존시에게 삶에 대한 희망을 준다는 이야기이다.

삶이 무엇이며 자신의 재능을 통해 남에게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어려움 중에도 희망을 가지고 생활한다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주는 작품이다.

### 마지막 한 번을 더 용서하는 마음

도중환 / 사계절 / 2000년 / 220쪽 / 7,500원

시인이자 중학교 교사인 도중환의 교육에세이로 학교교육에 관한 스무 가지 단상들을 담은 책이다. 저자에게도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가 보다. “존나 밥맛 없다”고 선생님을 욕하는 아이들, 수업시간에 선생님에 대한 욕을 적은 노트를 돌리는 아이들 앞에서 인내심은 바닥나게 마련이다. 자신의 아들마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부끄럽게 된다. 그러나 저자는 책 속에서 계속하여 ‘그래도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아이들을 ‘길들이는 것’이 아니라 ‘기르는 것’이 교육이라고 마음을 다잡고 되려 자신의 종아리를 때리는 것이다. 다행히, 책 속에 풀어놓은 저자의 경험 보따리를 보노라면, 이런 노력은 작으나마 결실로 돌아오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한 번을 더 용서하는 마음’, 선생님의 마음이 행간에 뜨겁게 살아 있다. 생생한 교실에서의 경험이 살아 있어 가르치는 이들에게 큰 공감을 일으킬 만하다.

### 3. 문학과 의사소통 1) 스스로 터득한 지혜

#### 이솝 우화

이솝 / 해누리 / 2002 / 342쪽 / 8,700원

인류 역사상 최고로 꼽히는 지혜서 『이솝우화』. 강자만 통하는 정글의 법칙에서 살아남는 지혜와 처세술 374가지가 들어 있다. 특히 J. J. 그랑빌과 <걸리버 여행기>의 삽화를 맡았던 구스타프 도레의 삽화 100장이 함께 수록되어 있어 읽는 재미를 더한다.

#### 한국 고전 명수필선

손광성 편역 / 을유문화사 / 1999 / 376쪽 / 8,000원

설총, 최치원, 이규보, 이수광, 정약용 등 우리 역사상 뛰어난 문인들의 작품 82편을 수록, 선인들의 지혜와 멋을 담고 있다. 이 수필집은 우리가 익숙한 서구식 수필과는 달리 간결한 표현미와 사물을 보는 관조적인 시각과 문장의 리듬에 대한 감각이 빼어나 고전수필만이 가지는 독특한 맛과 리듬감을 느낄 수 있게 한다.

### 3. 문학과 의사소통 2) 현이의 연극

#### 아직 끝나지 않은 길

박이문 / 민음사 / 1999 / 196쪽 / 6,500원

[아직 끝나지 않은 길]은 일 년 반 동안 '포스코신문'에 연재해 오던 짧은 수필 형식의 글들을 모아 펴낸 것이다. 노철학자의 맑은 시선과 숨결, 소박하고 솔직한 어조, 그 속에 녹아든 철학적 사색의 깊이가 총4부로 나뉘어진 이 에세이집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 에세이집은 [악의꽃]의 시인 보들레르의 작품들처럼 철학적이면서 가볍고, 어두우면서 아름다운 산문시들을 써보고 싶었다는 저자의 말처럼, 시적 기법을 사용한 간결하고 투명한 문체가 돋보인다.

보통 수필집처럼 신변잡기를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특유의 문체를 통하여 우수 속에서의 인간의 존재적 의미를 탐구하면서 동시에 '물질과 의식의 통합, 자연과 인간의 조화, 무의미와 의미의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 모랫말 아이들

황석영 / 문학동네 / 2001년 / 150쪽 / 6,500원

"아이들에게 내 유년 시절을 이야기 해주려고 썼다"는 작가의 말에서 이 작품의 피치 못한 무거움이 이해된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 서울 한강변의 '모랫말'. 아직 전쟁의 상흔이 짙게 남은 그곳에서 작가의 분신으로 보이는 소년 수남이가 화자가 되어, '모랫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암울한 시절, 질곡의 현대사로 남겨진 그 시절에도 사람들은 존재했고, 척박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구는 삶은 여전히 따뜻했다고 지은이는 말하고 있다. 오늘을 사는 우리를 진정한 우리이게 하고, 내일을 희망할 수 있게 하는 힘은 바로 그 그늘진 세월을 뚫고 밟고 건너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우리를 가슴 설레게 했던 모든 것들, 우리의 놀라움과 기쁨, 사랑의 경이, 그리고 무언가를 알게 된 순간의 슬픔과 은밀한 눈빛... 이 비밀스런 것들이 아이를 키우고 어른을 지탱하고 사람을 사람이게 한다. 황석영의 <모랫말 아이들>은 그런 비밀 보따리의 하나이다. 거기서 우리는 마치 처음인 것처럼 우리 자신을 다시 만날 수 있다.

#### 어린왕자

생텍쥐페리(칙복현) / 책이있는마을 / 2002년 / 300쪽 / 9,000원

전 세계의 독자들에게서 한결같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앙투안 드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 '사랑'과 '관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일깨워 주는 책이다.

어린 학생뿐 아니라 일반인 모두에게 영원한 고전으로 남아 있는 작품을 한국어 및 영어 번역본, 프랑스어 원본을 동시에 읽을 수 있게 꾸며 한국어 번역을 통해 맞볼 수 없는 느낌을 직접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게 구성했다. 번역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예사체'(~어요)로 윤색했다는 점. 아이들의 눈 높이에서 읽히기 위해서 이처럼 부드러운 어조를 선택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은 맛의 강도는 더욱 깊어만 가는 글이다. 삶을 한 단계씩 나아가면서도 우리는 왕자의 자세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

### 3. 문학과 의사소통 2) 현이의 연극

#### 어린 별

한승원 / 문학동네 / 1999년 / 214쪽 / 6,500원

이 작품은 순수과 빛의 상징인 하늘 나라 어린 별 공주가 지상으로 유배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지상의 섬들을 여행하면서 하나씩 깨우침을 얻어 가는 '깨달음의 길 찾기' 구조를 바탕으로 마흔 세 개의 단락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지상에서 처음 만난 꿀벌이 일러주는 삶의 고통을 이겨내는 법에서부터 양과 아주머니로부터 진실이란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속에 있는 것이라는 것까지 깨달은 어린 별은 세상살이의 지혜를 터득하고, 유배가 풀린 후에도 궁극엔 지상의 땅에서 정착하기를 택한다.

이 작품은 말 그대로 한 편의 아름다운 동화이다. 하지만 이 동화에서 얘기하고 있는 방식은 자연과 생명과 우주의 섭리에 따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읽고 나면 오랜 여운이 남는다. 이 작품을 읽어 가면 문득문득 생각을 멈추고 저 황홀한 말들의 환영에 행복하게 사로잡히게 된다.

### 3. 문학과 의사소통 3) 호수

#### 정지용 전집1 詩

정지용 지음 / 민음사 / 1999 / 238쪽 / 7,000원

이 아름다운 시들이 묶여 있던 시절을 간직한 우리네 역사... 가수 이동원이 정지용의 시 향수에 곡을 붙임으로써 멀리서 우리말의 고유한 미적 순수와 정서를 토해내던 그의 시를 가깝게 여기게 되었으며 해금과 동시에 그에 대한 활발한 연구는 계속되어 그의 작품을 읽는 관련서도 봇물처럼 출간되었다. 이 책에는 그의 시와 산문이 실려 있다기보다는 어려 있다. 읽는 이를 꿈엔들 잊을 리 없는 시의 세계로 초대하는 것이다.

#### 강 같은 세월

김용택 / 창작과비평사 / 1995 / 164쪽 / 5,000원

이 땅의 사람들과 산천에 대한 극진한 사랑으로 무너져 가는 농촌의 모습을 그리고 그 고통을 함께 앓으면서도 천진난만한 익살과 건강한 웃음을 잃지 않는 그의 시편들은 사람의 본성과 자연이 하나되는 행복한 모습을 일깨워준다. 그리고 작가 김용택은 1948년 전북 임실에서 태어나 순창농고를 졸업했다. 1982년 창비 21인 신작시집 <꺼지지 않는 햇불로>에 『섬진강 1』의 8편을 발표하면서 작품활동을 시작했다.

### 4. 메모하며 읽기

#### 성산 장기려

이기환 / 한결음 / 2000 / 336쪽 / 8,000원

이 책은 경향신문 기자인 저자가 장기려 박사 주변사람의 회고와 자료를 모아 엮은 전기다. 돈 없는 환자들에게 제 호주머니를 털어주고 그래도 모자라면 밤중에 몰래 뒷문을 열어 가게 해줬던 일화, 춘원 이광수의 <사랑>의 모델이 됐던 사연, 79년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한 얘기, 그의 사랑의 원천이었던 종교생활 등이 담겨 있다.

그는 또 북에 두고 온 아내를 생각하며 평생 혼자 지낸 것으로도 유명했다. 남북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있던 한 때, 한 일간신문에 절절한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신기도 했다.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 때 북으로 가는 의료진으로 참석해 어머니를 만나고 온 장가용 서울의대 교수가 바로 그와 함께 일남했던 차남이다.

#### 삼국지

나관중 / 동해 / 2000 / 504쪽 / 12,000원

동양인의 원초적 사고와 처세의 기본이 담겨있는 새로운 시각의 삼국지. 한나라 멸망 후 펼쳐지는 무수히 많은 영웅호걸들의 쟁투와 죽음, 전쟁, 음모와 지략을 들려주는 책.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결의부터 술밭처럼 셋으로 나누어진 촉, 오, 위나라가 하나로 합쳐지기까지 조조, 손권, 제갈공명, 사마의, 조자룡 등 수많은 영웅호걸들이 펼치는 흥미진진한 역사적 내용을 풀어냈다. 한 권으로 독파하는 삼국지. '황건적의 난에 도원결의한 삼형제'부터 '천하대세는 나날 지 오래면 반드시 합한다'까지 삼국지 전체를 83개장으로 엮었다.



#### 4. 메모하며 읽기 2) 하회 마을

### 아름다운 고향

**이주홍 / 창작과비평사 / 1990년 / 214쪽 / 6,000원**

일제 시대의 비극적인 상황을 그린 소설이다. 고난의 역사를 견뎌 온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꽃꽂이 모습이 자랑스럽게 펼쳐진다.

일제 치하에서 자유를 빼앗기고 살았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름다운 고향의 꿈을 잃지 않고 살아가던 이야기. 독립 만세 운동을 주도하는 서당 훈장 죽당 선생님, 종의 자식으로 태어나 수모를 받으며 자라지만 훌륭한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고향에 남아 교육에 힘쓰는 현우 등 일제 시대를 다룬 아동문학 작품 가운데 수작으로 꼽히는 작품이다.

일제의 억압과 악독한 지주들의 횡포에 시달리며 잡초처럼 끈질기게 살아 온 사람들이지만 꿈을 간직하고 나라를 아끼는 한 민족의 모습들이 담겨 있다.

### 한티재 하늘 1-2

**권정생 / 지식산업사 / 1998년 / 284쪽 / 7,500원**

<몽실언니>의 동화작가 권정생(61)씨가 첫 본격소설 <한티재 하늘>을 펴냈다. 경북 안동남쪽의 한티재라는 화전민 마을을 배경으로 삼은 소설은 1896년에서 1937년까지 고난의 근대사를 민중의 삶을 통해 그려낸다.

이 소설의 가장 큰 특징은 한 명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점이다. 의병에 나갔다가 전사한 길수, 아들 문에 순검들에게 끌려가 죽은 아버지,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한 삼대독자로서 소작쟁의를 주도한 뒤 그 역시 세상을 바로 잡겠다며 집을 떠난 서억이, 문동병에 걸려 소박테기가 된 분옥이를 색시로 데려간 떠돌이 동준이... 등, 이 모두가 다 나름의 운명과 맞서 싸우는 주인공들이다.

이들 모두가 실존했던 인물들이라는 것 또한 특기할 만하다.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서 들은 고향 사람들 얘기를 소설로 옮겼을 뿐이라는 것이 작가의 설명이다. 안동 지방의 생생한 사투리와 함께 여름지기(농민),결벼생이(거지),암끼(질투)따위의 토속어가 '악으로 버티는' 백성들의 삶을 잘 느끼게 해 준다.

###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조은수 / 창작과비평사 / 1997 / 160쪽 / 8,000원**

옛날 모습을 잘 알려주는 풍속화를 한 쪽 면에 담고, 그 옆의 다른 한쪽 면에는 그림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당시의 모습도 이야기해주는 글을 담았다. 놀이, 구경거리, 농사일, 옛장인들의 모습, 장사꾼의 모습, 마을 풍경 등 총 9개의 장으로 나누어 엮었다.

이웃과 정답게 지내고, 자연 속에서 놀이와 즐거움을 발견하는 옛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할 책이다. 아울러 풍속화를 그린 화가들의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함께 얻을 수 있다.

#### 4. 메모하며 읽기 3) 가정 교육의 어제와 오늘

### 꿀찌에게 보내는 갈채

**박완서 / 세계사 / 2002년 / 312쪽 / 9,500원**

초판에 있었던 "원태 간직하거라, 엄마가"라는 현사가 외동아들의 죽음으로 지워졌다. 대신 '내가 걸어온 길'에서 아들을 잃은 애통함을 실어 독자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다.

대표작 <꿀찌에게 보내는 갈채>를 비롯하여 45여 편의 작품이 실려 있다. 우리 주위에서 스러져가는 소박한 자연 풍경, 다사로운 정이 가득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노라면 격렬하지 않으면서도 쉽게 떨칠 수 없는 슬픔과 안타까움을 오래오래 생각하게 된다.

각 글마다 마지막에 표기된 발표연도를 참고하여 우리 사회가 고민하고 변화해 온 모습을 들여다보자. 아마 독자들은 저자의 날카로운 해안과 따뜻한 인정을 맞볼 수 있을 것이며, 세상사는 이치를 속 깊게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겪지 못한 어떤 것에 대한 신비감과 또 '내 부모님의 기억 속에도 이런 추억들이 자리잡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으로 뭔가를 알았다는 그 기쁨, 이제는 엄마를 이해할 것 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5. 삶과 갈등

### 0에서 10까지 사랑의 편지

**수지 모건스톤 / 비룡소 / 2002 / 206쪽 / 7,500원**

<조커, 학교 가기 싫을 때 쓰는 카드>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수지 모건스톤의 책. 1996년 출간되어 프랑스 토렘 상, 벨기에 베르나르 베르셀 상, 미국 밀드레드 L. 베첼더 아너 상을 받았다.

설정에서부터 재치가 넘쳐흐르는 책. 한 인간이 다른 인간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도 묵직하다.

## 5. 삶과 갈등

### 1) 소설 동의보감

#### 소설 동의보감(상,중,하)

이은성 / 창작과비평사 / 2001년 / 364쪽 / 7,500원

소설 동의보감은 모 TV에 드라마 '허준'의 원작으로 시청률 60%를 넘나드는 드라마 때문에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이한 책이다. 이 책은 드라마와 다른 점들도 종종 눈에 보이지만 대부분의 이야기는 같기에 정말 재밌고 드라마를 보지 않으셨거나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신 분 모두가 이 책을 아주 재밌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의학에 크게 의존하던 조선시대에, <동의보감> 저술을 통해 우리 강산과 문화, 체질에 맞는 의학체계를 정립한 허준의 일대기를 극작가 특유의 숨막힐 듯한 속도감으로 써 내려간 소설이다. 반전을 거듭하는 극적인 전개와 역사에 근거한 인물과 사건에 대한 섬세한 묘사가 독자를 압도한다.

#### 소설 동의 보감(상, 중, 하)

이은성 / 창작과비평사 / 1990 / 364쪽 / 7,500원

중국의학에의 의존을 타파한 민족의학의 보고 <동의보감>을 탄생시킨 의성(醫聖) 허준! 내 나라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까지 사랑하는 민족애, 병들어 고통받는 민초에 대한 무한한 애정과 헌신, 천침의 자식이라는 신분의 질곡과 온갖 간난신고를 극복해 가는 동앗줄과도 같은 허준의 집념! 그 허준의 뒤에는 제자를 위해 자신의 몸을 해부용으로 내놓기까지 한 살신성인의 스승 유의태, 천수관음의 화신 같은 인의(仁醫) 김민세가 있었다.

극작가 특유의 숨막힐 듯한 속도감, 반전을 거듭하는 극적인 전개는 읽는 이를 압도한다. 독자를 사로잡는 소설적 재미 속에서 우리는 선조 중에 허준 같은 성스러운 의사가 있었음에 뿌듯한 자긍심을 느끼면서 생활의 궁박함에 내몰려 있어가던 민족의 뿌리를 되새긴다.

#### 검은 여우

베치 바이어스 / 세계집출판사 / 2002 / 172쪽 / 6,500원

엄마와 아빠가 두 달동안 유럽 자전거 여행을 떠나면서 톰은 이모 집으로 가게 된다. TV도 없는 지루한 생활에 질려갈 때쯤 톰은 들뜬에서 우연히 검은 여우를 만난다. 푸른 언덕배기에서 자유롭게 경주중 뛰어다니는 검은 여우. 톰은 한 눈에 여우에게 반해 버린다.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모부와 검은 여우의 숨바꼭질을 통해 긴박감을 더해간다. 톰은 이모부를 따라다니면서 검은 여우가 있는 곳을 피해가려고 하지만, 베테랑 사냥꾼인 이모부는 톰의 농간에 넘어가지 않는다. 마침내 검은 여우의 새끼를 잡아와 어미를 유인한다.

베치 바이어스가 1968년에 발표한 책이다. 그토록 오래 전에 씌어졌어도 여전히 깊은 감동을 준다. 한 소년이 어느 여름에 경험한 설레임과 아름다움을 간결하지만 재치 있는 문체로 풀어 간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더욱 아름답게 하는 것은 어린 톰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심정을 헤아려주는 이모와 이모부의 따뜻한 배려의 마음이다.

## 5. 삶과 갈등

### 2) 육체미 소동

#### 감자배따라기

김동인(고봉준) / 청동거울 / 2001년 / 238쪽 / 6,500원

이 책은 단순히 논술이나 수능에 대비하기 위한 책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꼭 알아야만 하는 김동인 문학의 가치와 의의를 스스로 읽어 가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자연주의적인 경향의 <감자>, <명문>, 유태주의적 정신이 유감 없이 발현된 <광염 소나타>나 <광화사>를 비롯하여 민족주의적 의식을 고취시키는 <붉은 산>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조의 작품을 골고루 수록해 두었으므로 우리나라 단편소설의 양식을 정립시킨 김동인 문학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권말 부록에는 <십대들을 위한 감상의 길잡이>가 실려 있는데, 문학평론가 고봉준이 김동인의 문학 세계를 알기 쉽게 정리한 해설과 작품에서 이해하기 힘든 어휘와 문학 용어를 쉽게 풀이해 놓은 <김동인 문학사전>, 그리고 가려 뽑은 <논술 포인트 10>까지 담겨 있어 청소년들이 김동인의 문학세계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아빠, 찰리가 그러는데요

우르줄라 하우스 / 해너루 / 2002 / 277쪽 / 8,000원

독일 라디오 방송에서 3년간 방송됐던 대본을 책으로 엮었다. 초등학교 아들과 국제청 공무원으로 일하는 아빠 사이에 오가는 35편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다. 빈부 격차와 남녀평등, 이웃간의 배려, 노인 문제, 환경 문제 등 다양한 주제를 유쾌한 톤으로 다루고 있다. 1991년 고려원에서 같은 제목으로 출판된 적이 있다.

## 5. 삶과 갈등 2) 육체미 소동

### 당나귀 귀

세르주 베레즈 / 문원 / 2000 / 166쪽 / 6,000원

세계 청소년 화제작 시리즈 3권. 부모, 선생, 친구로부터 학대받고 따돌림당하는 한 아이의 섬세한 내면을 통해 위선과 부조리에 가득 찬 어른들의 세상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당나귀 귀', '이별처럼', '난 죽지 않을 데야' 등 3부작으로 이루어졌고, 이 책은 그 중에 첫 편에 해당한다.

이 소설은 이른바 '문제야'라고 자리매김된 한 소년의 독백을 통해 우리 삶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가감없이 냉소적인 문체로 고발하고 있다. 사람보다는 사회의 방식을,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씨보다는 똑똑하고 머리 좋은 아이들만을 원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을 통렬하게 보여줌으로써, 세상의 위선적인 모습들을 남김없이 보여준다.

### 겹쟁이

이상린 지음, 유진희 그림 / 시공주니어 / 2001 / 194쪽 / 6,000원

이 책은 소심하고 겁이 많던 아이가 두려움을 이겨내고 힘차게 성장하는 이야기를 그렸다. 엄마와 단둘이 사는 수민이는 다리를 절고 뱀을 무서워해 또래 아이들로부터 왕따를 당한다. 아이들은 꽃뱀으로 수민이를 더욱 괴롭히고, 놀란 수민이는 무심결에 꽃뱀을 작대기로 때려 기절시킨다. 하지만 꽃뱀의 복수를 두려워 한 수민은 정성 끝에 꽃뱀을 살려낸다. 이후 꽃뱀은 밤마다 수민의 꿈 속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서서히 수민은 뱀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간다.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던 아이들 때문에 한바탕 어려움을 겪지만 친구를 감싸안는 모습을 보인다.

생태작가의 작품답게 뱀의 생태가 잘 나와 있어, 도시 아이들에게는 또 다른 선물이 될 성싶다. 연필화로 그린 본문 그림도 작품의 느낌을 보다 신중히 잘 나타낸다.

## 6. 언어의 세계 (2) 문자의 역사

### 문자의 역사

조르주 장 저/이종인 역/ 시공사 / 1996 / 215쪽 / 7,000원

화려한 컬러도판과 함께 인류문화를 주제별로 다룬 디스커버리총서 시리즈 제1권. 문자의 역사, 그것은 메소포타미아에서 황하에 이르기까지의 문화가 담긴 장대한 파노라마이자 영감에 가득 찬 예술세계이다. 신의 발명품인 문자의 역사에서 알파벳 혁명, 출판업과 문자 해독자까지를 써 내려갔다.

## 7. 문학과 사회 1) 흥길동전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 다림 / 1998년 / 158쪽 / 6,000원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에 수록되어 화제가 된 이문열의 작품으로 시골 초등학교의 반장인 엄석대의 독재에 맞서는 서울에서 전학 온 한병태의 시선을 통해 어른 세계에서 벌어지는 정치적인 권모와 술수를 통렬하게 빗대서 비판하고 있다.

권력의 형성과 몰락 과정을 초등학교 교실이라는 공간 안에서 형상화했다. 왕따를 당하는 아이와 가하는 아이의 심리, 불의에 저항해 보지만 무관심한 선생님, 당하는 아이가 처절한 굴종과 패배감을 안고 어른이 되었을 때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 진정한 영웅의 모습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 괴도 뽀빠 : 기암성

르블랑 / 대일출판사 / 2001 / 252쪽 / 5,500원

뽀빠는 비록 큰 도둑이기는 해도 인정 많고 정의감 넘치며 의리에 불타는 사나이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강하였다. 뽀빠의 뛰어난 변장술, 놀라운 재치, 기막힌 숨씨 앞에 세계의 수많은 독자들이 감탄과 찬사를 보내고 있다.

## 7. 문학과 사회

### 2) 30년 전의 그날

#### 매잡이

이창준 / 민음사 / 1996년 / 392쪽 / 8,000원

소설가 지망생이던 민태준의 자살과 그가 남긴 매잡이 비망록이자 유언 같은 그의 부탁에 따라 '나'는 그의 행적 조사 겸 매잡이에 대한 취재길을 나서게 된다. 민형이 지정한 전라도 산골 마을에 도착한 '나'는 밤중에 그곳의 음산한 사랑방에서 낯선 대상과 만난다. 호롱불이 켜 있는 방의 벽에 앉아 있는 매잡이와 병어리 소년 중식이다. 매잡이는 얼마 전에 꿩 물이를 하다가 모처럼 배를 채운 매가 탄 동네로 날아가 버린 일이 있었다. 그 매를 돌려 받을 돈을 요구할 적에 옛날 주인대인 서영감이 다시는 매 부릴 생각을 말라는 꾸지람이 짐작되기에 헛간에 누워 일주일 남짓 굶고 있었다. 결국 하루는 사나흘 굶긴 매를 데리고 '나'와 소년 중식은 직접 사냥에 나서기에 이른다.

진실의 언어화가 폭력 앞에서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창준은 그의 주인공들의 상처를 통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임을 확인해 주고 있다. 고개를 돌리지 말자. 어렵지만 진실을 찾아가자. 삶의 중요한 지표 하나를 제공해 주는 소설이다.

#### 우리 누나

오카 슈조 / 용진닷컴 / 2002 / 178쪽 / 7,000원

아이들이 타인의 아픔을 아는 진정한 '인간'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는 단편집. 여섯 가지의 이야기는 모두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주요 인물로 등장한다. 그들과 정상적인(아니, 사실은 편의대로 그렇게 부르곤 하는)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그려냈다.

이미 사회에 길들여진 어른들은 장애인을 드러내놓고 차별하거나 괴롭히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 규율에 묶이지 않은 아이들은 자신과 모습이나 행동이 다른 아이들을 심하게 괴롭히거나, 반대로 한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여곤 한다. 이 책은 그 양편에서 있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가며 솔직한 마음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살아가는 세상을 지향한다.

#### 문제아

박기범 / 창작과비평사 / 1999 / 186쪽 / 6,000원

불량배들과 싸움을 벌이다 얼떨결에 문제아로 낙인찍혀 버린 아이, 집에는 입을 책이 하나도 없어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를 지어내 독후감 숙제를 하는 아이,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선생님들의 편견에 마음 아파하는 아이 등 이 작품의 주인공들은 실제 학교와 사회에서 애정을 받지 못하고 소외된 아이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주위 환경에 대해 불만에 가득 차 있거나 파괴적인 행동으로 반항하지 않는다. 오히려 자신들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른들의 허물과 고민을 넉넉한 동심으로 껴안음으로써 어른들을 부끄럽게 만들곤 한다. 제3회 '좋은 어린이 책' 공모 창작부문 당선작품이다.

## 7. 문학과 사회

### 3) 옥상의 민들레꽃

#### 모범경작생

박영준 / 범우사 / 1991년 / 162쪽 / 2000원

이 소설은 작품 제목인 모범 경작생이라는 뉘앙스가 주는 어감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친일적 행동을 보여주는 한 인간을 통해서 그 시대적인 상황과 이에 맞서는 농민들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소설에서는 고통의 당사자는 바로 농민이다.

지주와의 갈등을 겪는 소작인의 모습에서 자신의 살길만을 찾는 길서의 모습을 과연 누가 맞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다. 믿음직한 길서의 모습을 보았던 농민들이 길서의 본모습을 깨닫게 되기까지 그들이 느껴야 했던 근원적인 시대적 부조리를 우리가 한 번 생각 해봐야 할 것이다. 논이 풋말과 말뚝이 깨어진 것을 보고 불안함을 느낀 길서의 모습도 볼만한 대목이다. 각 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모습도 찾아 낼 수 있다.

## 7. 문학과 사회

### 3) 옥상의 민들레꽃

#### 괴상한 녀석

남잔숙 / 창작과비평사 / 2000 / 174쪽 / 6,000원

천재 소년으로 소문난 석이라는 아이와 친구가 되기를 바라는 엄마의 강요에 못이겨 시작된 찬이와 석이의 관계는 석이의 비밀—학교공부를 따라가지 못하고, 아이들에게 따돌림을 받아 학교 측의 권유로 휴학을 하게 된—이 밝혀지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찬이랑 같은 반이 된 석이는 순진하고 엉뚱한 생각들 때문에 이번에도 왕따가 된다. 찬이는 그런 석이가 불쌍하기도 하고, 도와주고 싶기도 하지만, 반 아이들한테 자기 역시 따돌림을 받을까봐 외면한다. 그러다가 학교 수련회에서 아이들의 지갑이 없어지는 소동이 벌어지고, 범인으로 자기가 몰려 찬이 역시 '왕따' 체험을 하게 된다. 이러한 집단따돌림의 문제가 단지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기성관념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킨 어른들의 책임임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 속삭임

박완서 / 샘터사 / 1997 / 214쪽 / 7,000원

마음속의 별을 잃어버린 아빠가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 방안의 벽지를 밝고 아름다운 것으로 바꾸고 고장 잘 나는 장난감은 없나, 해로운 그림책은 없나 하며 주변의 작은 사물들을 고쳐나가는 소박한 이야기. 어머니의 나직나직한 속삭임을 듣는 듯하다.

비겁한 속임수를 싫어하는 자연의 마음을 헤아리라는 '산과 나무를 위한 사랑법', 마음의 기쁨, 슬픔, 바람 등을 나타내는 말을 모으며 가슴이 울렁거리는 사람과 만나길 원하는 시인을 그린 '시인의 꿈' 등 11편이 실려 있다.

#### 가만 있어도 웃는 눈

이미옥 지음, 원유미 그림 / 창작과비평사 / 1999 / 174쪽 / 6,000원

아버지의 실직으로 위기를 맞은 중산층 가정의 이야기. 새롭고 낯선 풍경에서 기죽지 않고 오히려 열린 세상을 발견해 나가는 두 형제의 맑은 동심의 세계를 그렸다.

#### 세상에서 가장 사랑 받는 200가지 이야기3

조안나 코올 / 현대지성사 / 1999 / 344쪽 / 8,000원

전 세계를 11개 문화권으로 분류, 총 2백편의 동화를 수록했다. 「신데렐라」, 「알라딘과 마술램프」 등 잘 알려진 것은 물론 국내에 거의 소개되지 않았던 북유럽과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이야기도 담고 있다. 여러 문화권의 동화를 비교해가며 읽는 재미를 느낄 수 있다.

#### 강아지 똥

권정생 글, 정승각 그림 / 길벗어린이 / 1996 / 30쪽 / 6,800원

<강아지똥>이 있기 전까지 우리 어린이들은 대개 왕자가 되거나 공주가 되는 이야기만을 즐겨 읽어 왔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똥>의 세계는 이런 왕자나 공주가 사는 환상의 세계와는 전혀 딴판인, 그 반대되는 세상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아동문학을 대표할 만한 작품 <강아지똥>이 우리 옛그림의 아름다움을 살려 그림책을 그리는 정승각 선생님의 그림과 만나,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그림책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림책 <강아지똥>은 깊은 감동과 함께 보는 즐거움도 줄 것입니다.

## 7. 문학과 사회

### 생각 넓히기

#### 잠자 반지 - 이미애의 행복한 동화 세상

이미애 지음, 정인현 외 그림 / 은행나무 / 2002 / 166쪽 / 8,500원

<꿈을 찾아 한 걸음씩>을 쓴 동화작가 이미애가 온가족이 읽을 수 있는 열두 편의 동화와 동시를 모아 한 권의 책으로 펴냈다. 가난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진 가족들의 이야기가 따뜻하게 그려진 동화들이다. 사과나무가 되고 싶었던 나무 의자와 먼 바다를 여행할 수 있는 배가 되고 싶었던 나무 의자가 각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길을 떠나고 다시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담은 '꿈꾸는 나무의자', 녹녹한 서울의 반지하 방을 벗어나 서울 근교의 샘골에서 새로운 행복을 발견하는 연두네 가족 이야기를 담은 '붕어빵 별' 등 꿈을 찾고,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짧은 동화와 동시들이지만, 오랫동안 동화를 써온 작가의 시적 감수성과 탄탄한 구성력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이다. 부모와 아이가 함께 꿈을 잃지 않고 사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희망으로 빛어낸 동심의 세계가 아름답다.

7. 문학과 사회  
보충 심화

## 가끔씩 비오는 날

이가을 / 창작과비평사 / 1998 / 206쪽 / 6,000원

지은이는 장애인, 버려진 강아지, 쓸모를 찾지 못한 못 들에 소중한 의미를 부여한다. 표제작 「가끔씩 비 오는 날」의 주인공은 주변 친구들로부터 쓸모없다고 구박받으며 지내는 콘크리트 못이다. 다행히 새로 이사온 주인 아저씨가 이 못을 쓸모 없다 하여 그냥 뽑아 버리지 않고, 어느 비 오는 날 화초를 못에 걸어 비를 맞게 해준다. '가끔씩 비오는 날 쓸모가 있는 못이 되는 나는 아주 행복합니다. 언제나 쓸모 있는 못이 모르는 행복입니다.'라고 하는 주인공 못의 마지막 말이 깊은 울림으로 다가온다.

## ■ 1학년 2학기

1. 능동적으로 읽기  
1) 화가 이중섭

## 금시조 - 다시 읽는 이문열

이문열 / 맑은소리 / 2001년 / 254쪽 / 5,000원

우리가 예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건 과연 무엇일까? 아름다움의 추구만이 진정한 의미의 예술 구현인가? 아니면 예술 작품 속에 작가의 진정한 혼이 녹아 있어야 완성되는 것일까?

이 작품은 이문열이 1981년 중편소설로 발표했던 것이었으나 고성원 화백의 삽화를 추가하여 예술이라는 그 어려운 세계를 청소년들이 조금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시 편집했다.

<금시조>는 이문열이 그 동안 탐험해 온 예술가의 내면세계에 대한 소설, 즉 '예술가 소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고죽과 석담은 제자와 스승의 관계이지만, 서로 다른 예술관 때문에 물과 기름처럼 서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저자는 스승 석담의 예술관을 비판하는 고죽의 생각을 통해 '예술 그 자체로서만 파악되는 예술'에 대한 바람을 나타내고 있다. 다르면 틀린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우리들의 현재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 이중섭

오광수 / 시공사 / 237쪽 / 12,000원

격정적인 삶을 살다간 천재화가라는 수식어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화가 이중섭. 이 책은 이중섭에 대한 삶보다는 그의 예술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의 작품을 연구한 책이 부족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저서이기 때문이다. 작품에 표현된 주제에 따라 작품을 분석하고 150여점의 이중섭 작품을 컬러 도판으로 소개한다.

## 이중섭평전

이석태 / 돌베개 / 2000년 / 296쪽 / 15,000원

피폐했던 고난의 시대를 건디며 삶과 예술에 철저히하고자 했던 화가 이중섭의 불꽃같은 삶과 죽음, 그리고 예술 세계를 조명한 책. 한국 근대미술의 선구자라 불리는 이중섭의 고난에 찬 생애를 복원하고, 전통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표현기법의 자기화를 이룩한 그의 작품을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이중섭 신화'의 진면목을 파헤친다. 특히 이중섭의 드라마틱한 생애와 그 시절에 태어난 작품들을 동시에 보여주면서 작품의 내면 풍경과 그의 치열한 예술혼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1. 능동적으로 읽기  
2) 먹어서 죽는다

## 아낌없이 주는 나무

셀 실버스타인(편집부) / 선영사 / 2002년 / 63쪽 / 5,000원

처음 읽었을 때보다 두 번 세 번 읽었을 때 더 큰 감동을 주고 배움을 주는 책이다. 홀로 서 있는 나무에게 한 소년이 찾아와 친구가 되면서 나무는 소년을 사랑했고 소년은 나무를 사랑해서 나무는 참 행복해 했다. 시간이 흘러 소년이 자라면서 나무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쉬기만을 원하는 노인이 되어서 돌아온 소년에게 늘어버린 자신의 밑둥에서 쉬게 할 수 있게 되어 기뻐한다. 아무 것도 받는 것 없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것에 그저 기뻐하는 나무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우정이나 사랑의 의미를 느낄 수 있다. 친구를 괴롭히고 점점 이기적이고 정이 메달라 가는 현실에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사랑과 우정을 나누고 싶은 학생들에게 한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 1. 능동적으로 읽기 2) 먹어서 죽는다

### 빼딱하게 보고 뒤집어 생각하라

김슬옹 / 미래M&B / 2000년 / 263쪽 / 9,000원

김슬옹씨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썼다는 책이다. 원래 제목을 '문제가 되라 또물또'라고 붙이려고 했는데, '또물또'는 또 묻고 또 묻는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 청소년들에게 붙이고 싶은 애칭이란다.

이 책은 또물또와의 대화, 편지를 나누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우리 사회의 거의 모든 문제는 제대로 묻고 따지는 사람이 적어서일 것이다. 개성과 비판력이 강한 문제아를 키워야 하지 않을까?

이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집요하게 묻고 늘어지면서 역사, 철학, 문학, 예술 등 다양한 학문의 영역을 넘나들었고 영화, 만화, 노래 등 우리 일상 생활의 매체를 통해 제대로 묻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묻고 늘어졌다.

작가는 이 땅의 청소년들에게 고기 낚는 방법보다는 왜 고기를 낚아야 하는가를 같이 생각해 보고 싶었다고 한다.

### 다른 옷은 입을 수가 없네

이애인 / 열림원 / 1999 / 147쪽 / 5,000원

수녀이자 시인인 저자가 그 특유의 맑고 깨끗한 서정으로 이루어낸 기도집. 함께 발간한 <외딴 마을의 빈집이 되고 싶다>에는 깊고도 순결한 영혼의 자유를, 기도 시집 <다른 옷은 입을 수가 없네>에서는 신을 향한 수행자로서의 섬김과 봉사의 삶, 그리고 1월부터 12월까지의 주제기도를 담았다.

## 2. 문학의 아름다움 1) 바다가 보이는 교실

### 바다가 보이는 교실

정일근 / 창작과비평사 / 1997년 / 144쪽 / 5,000원

진해남중학교 재직할 적이 필자가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하며 남으로 호수 같은 남해 바다와 뒤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장복산을 마음속에 담아 참으로 맑은 시로 풀어낸 시집이다.

『야학일기』, 『바다가 보이는 교실』 연작과 『마산의 참깨나무』 등에서 보듯, 작가의 고난받는 이웃들에 간곡한 애정의 눈길을 느낄 수 있는 시집이다. 자신을 키워준 마산과 주변 세계에 대한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깔고 소외된 이들에 다가가고자 하는 젊은 시인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 바다가 보이는 교실

이중기 외 / 한국문원 / 1996 / 214쪽 / 3,500원

『야학일기』, 『바다가 보이는 교실』 연작과 『마산의 참깨나무』 등에서 보듯 정일근은 고난받는 이웃들에 간곡한 애정의 눈길을 보낸다. 자신을 키워준 마산과 주변세계에 대한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소외된 이들에 다가가고자 하는 젊은 시인의 정제된 시편들.

### 아이들의 풀잎노래

양정자 / 창작과비평사 / 1993년 / 118쪽 / 5000원

그의 시에는 많은 아이들이 등장하여 각각 한 편의 시가 되고 있다. 교육체험에 바탕을 두고, 말쑥꾸러기요 꿀치거러이기도 한 아이들의 세계를 깊고 따뜻한 애정으로 감싸고 있는 만큼 그의 시도 따뜻하고 정겹다.

## 2. 문학의 아름다움 2) 소나기

### 소나기

황순원 / 청동거울 / 2001 / 224쪽 / 6,500원

시대적 난류 속에서 흔들림 없이 순수성과 완결성의 문학을 가꾸어 온 한국 현대문학의 거장 황순원의 대표 소설선. 청순한 소년과 소녀의, 차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가 조심스러운 그 애뜻하고 미묘한 감정적 교류를 잘 끌어담고 있는 <소나기>를 비롯해 <독 짓는 늙은이>, <황노인>, <이리도> 등 9편의 단편을 담았다. 아울러 청소년을 위해 황순원 문학 자세히 읽기 및 눈술 포인트를 수록했다.

2. 문학의 아름다움  
2) 소나기

## 키다리 아저씨

진 웨스터 / 느림표 / 2002 / 248쪽 / 8,900원

‘매달 첫째 주 수요일은 정말 끔찍한 날이다.’로 시작하는 씩씩한 고아 소녀 제루사 애벗의 이야기 <키다리 아저씨>는 많은 사람들에게 꾸준히 사랑 받는 스테디셀러. 슈디의 재치 있는 편지, 그녀를 돕는 근사한 키다리 아저씨, 로맨스, 즐거운 대학 생활, 유쾌한 친구인 샬리와 줄리아, 언제 읽어도 미소짓게 하는 이야기다.

## 토토의 눈물

구로야나기 테즈코 / 작가정신 / 2002 / 304쪽 / 8,500원

<장가의 토토>로 유명한 구로야나기 테즈코가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만난 어린이들의 이야기. 자신의 슬픔을 구태여 감추려 하지 않는 지은이의 어조가, 간명하면서도 강한 호소력을 지닌다.

TV 화면이나 통계수치 등을 통해서만 알아왔던 아이들의 고통이, 지은이의 증언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된다.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르완다, 인도, 이라크, 보스니아... 기아와 분쟁으로 얼룩진 나라들을 돌아다니면서 목격한 가혹한 현실이 가감없이 그려진다.

지은이는 이렇게 말한다. ‘한 아이의 목숨을 구하는 일조차 너무나 힘들기만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 목숨이라도 구할 수 있다면 절망하기엔 아직 이른 것 아닐까요?’ 이 책의 수익금 중 일부는 유니세프에 기부되어 아이들을 위해 쓰여질 예정이다.

## 동백꽃

김유정 / 소담출판사 / 2001년 / 222쪽 / 6,700원

폐결핵에 시달리면서 29세를 일기로 요절하기까지 불과 2년 동안의 작가 생활을 통해 30편에 가까운 작품을 남길 만큼 문학적 열정이 남달랐던 김유정의 작품이다.

청소년 또래가 주인공이 되어 있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전해지는 이야기.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표현이 일상화된 시대에 이렇게 은근하고 수줍음 많은 소년소녀의 이야기는 슬그머니 웃음을 일게 한다.

점순이가 준 감자를 안 받아먹으면서부터 순박한 시골 소년 ‘나’와 ‘나’의 닭은 점순이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점순이의 속마음을 조금이라도 눈치 챌더라면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점순이의 괴롭힘에 약이 오를 대로 오를 ‘나’는 닭싸움에 이기기 위해 닭에게 고추장까지 먹인다. 소설 끝에서 알싸하고 향긋한 동백꽃 냄새와 함께 모든 것이 해결되지만…….

토속적 배경과 구수한 말씨들, ‘나’와 점순이의 순진하고 풋풋한 사랑이 우리의 입가에 웃음을 머금게 하는 소설이다.

## 첫사랑

투르게네프(김상훈) / 대일 / 2002년 / 252쪽 / 5,500원

순수한 동경으로 연상의 여인인 지나이다를 사랑하게 되는 소년 페트로비치. 그러나 그녀가 사랑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아버지였다.

소년에서 어른으로 성장해 가면서 겪게 되는 마음 속의 갈등과 사랑을 세밀하고 아름답게 표현했다. 누구에게나 첫사랑의 경험이 있다. 아프기도 하지만, 달콤하기도 한 첫사랑. 이 작품에서는 첫사랑을 통하여 러시아의 3대 문호인 투르게네프의 내면 세계와 진실한 사랑과 행복을 깨달을 수가 있다.

## 봄봄

김유정 / 다림 / 1999년 / 166쪽 / 6,500원

요즘 젊은 처녀들은 얼굴이 못나거나 뚱뚱해서 취직을 못한다는데 이 작품의 점순이는 키가 안 커서 결혼을 못한다.

<봄봄>은 순박한 하층민들의 삶을 일상적 언어를 통해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는 김유정의 단편 소설으로서 점순이와 결혼하기 위해 약속된 머슴살이를 하는 어리숙한 나와 탐욕스런 장인과의 무척이나 재미나게 그렸다.

<동백 꽃>은 순박한 산골 남녀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단편인데 ‘감자’를 계기로 사랑의 쟁취를 위하여 저돌적으로 대시하는 점순이의 모습이 앙증맞다. 뻔할 듯도 한 남녀 사랑이야기는 노란 동백꽃 배경과 어우러져 한층 로맨틱해진다.. 이 책에는 두 작품 외에 두 편이 더 실려 있다.



## 2. 문학의 아름다움 2) 소나기

### 봄바람

박상률 / 사계절 / 1997년 / 216쪽 / 6,500원

물질 문명의 발달로 인간다움을 상실한 현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졌다고 해도누구나 가슴 한 구석에나마 동심을 지니고 살았으면 좋겠다.

<봄바람>은 열세살 짜리 소년 훈필이를 주인공으로 순수한 동심의 세계를 그린 성장소설이다. 작가의 고향인 진도를 배경으로 주인공 소년이 사춘기 시절에 겪는 현실적 체험과 가출, 사랑과 추억, 희망과 성공을 흥미 있게 써 내려간 소설이다.

물기 없는 생활에 스트레스를 느끼는 독자들이 이 작품을 읽으면서 가슴 깊이 봄의 훈풍을 느껴봤으면 한다.

### 소나기

황순원 / 청동거울 / 2002년 / 240쪽 / 6,500원

사람은 누구에게나 유년시절의 추억이 있으며 그 추억을 간직하면서 성장하며 어른이 되고 나서도 어린 시절의 추억을 아름답게 간직하고자 한다. 이 책은 이와 같은 유년기의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고 있거나 유년기의 통과 의례적인 아픔을 통하여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길목에 서 있는 사람에게 잔잔한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해 준다.

때묻지 않은 시골 소년과 예쁘고 귀여운 도시 소녀의 만남, 조약돌과 호두알로 은유 되는 감정의 교류, 소나기를 만나는 장면, 그로 인한 소녀의 병세 악화 그리고 소녀의 비극적인 죽음이라는 스토리 속에서 소년과 소녀 사이의 미묘한 사랑의 감정이 목가적인 배경과 시적인 문체 속에서 애잔하게 전개되며 특히 소녀의 죽음과 유언은 독자에게 많은 아쉬움과 함께 소설적인 여운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인 '소나기'는 소설의 배경적 기능과 함께 가슴 저린 사랑의 순간적 일회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성숙의 징검다리를 건너는 아픔을 겪을 수 있는 많은 청소년들에게 짧지만 아름답고도 애뜻한 이 작품을 권한다.

### 로미오와 줄리엣

셰익스피어(김재남) / 신원문화사 / 2001년 / 207쪽 / 5,000원

이 작품은 셰익스피어 극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운명적 연애비극으로서, 청년극작가 셰익스피어의 명성을 일시에 떨치게 한 대표작이다. 내용은 베로나의 몬티규가(家)와 캐플렛가(家)의 서로 반목 질시하는 명문가 사이의 이야기이다. 캐플렛가의 무도회에 간 몬티규가의 아들 로미오는 뜻밖에 캐플렛가의 딸 줄리엣을 사랑하게 된다. 집안의 반대와 두 남녀의 사랑이 비극적으로 결말을 맺는다.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작품으로 삭막해져 가는 현대인이 반드시 읽어보아야 할 작품이다.

## 2. 문학의 아름다움 3) 섬진강 기행

### 거짓말쟁이와 모나리자

E. L. 코닉스버그(갯살과나무꾼) / 사계절 / 2000년 / 164쪽 / 6,500원

이 작품은 실제 인물들과 자료 등을 바탕으로 신비에 싸인 모나리자의 탄생 배경을 재구성한 소설이다.

이상을 높은 데에 두고, 언제나 완벽해지려고 노력하는 다빈치는 자의식과 진지함으로만 가득 차 있어 격렬함과 인간적인 매력이 부족하다. 이와 반대로 견습생 살라이는 거짓말쟁이에 줌도둑, 무례하면서도 무책임한 인간이지만 다빈치의 삶과 작품에 활력을 불어넣는 살아 있는 인물이다. 그리고 베아트리체는 못생긴 외모로 항상 뒤쳐졌지만 삶의 진실과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안목을 가진 인물이다. 그녀는 다빈치에게 그의 부족한 부분을 충고해 주고, 살라이와 다빈치는 그녀의 통찰력을 통해 그녀가 가진 내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해 간다.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획일화되어 가는 요즘, 이 작품은 독자들로 하여금 진정한 아름다움, 진정한 예술작품, 진정한 삶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며, 르네상스 시대 삶과 예술의 대한 단면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 2. 문학의 아름다움

### 3) 섬진강 기행

#### 삼포 가는 길

**황석영 / 장작과비평사 / 2000년 / 356쪽 / 8,500원**

황석영의 소설은 어느 것이나 그 배후에 불길이 어른거린다. 그것은시대의 참상과 무죄한 사람들의 희생에 대한 아픈 분노의 불길이자 혁명과 유토피아로 상징되는 더 나은 세상에 대한 타는 듯한 열망이다. 그것은 그러나 선불리 바깥을 향해 번져가며 즉각적인 화력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내연하며 오래도록 타오르는 은근함이 있다.

이 책 <삼포 가는 길>은 산업화로 인해 뿌리 뽑힌 자들(영달, 정씨, 백화)이 등장하는 여로 소설이다. 산업화의 물결에 휩쓸려 도시로 갔다가 뿌리 뽑힌 그들은 정씨의 고향인 삼포로 향하지만 그곳도 이미 그들이 머물 곳은 못 된다.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오늘날도 작품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문명의 발달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지리적 고향을 잃는다 해도 정신적 고향을 잃어서야 되겠는가?

일상에 지쳐 피곤함을 느낄 때 지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누일 수 있는 그곳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러려면 우선 나도 누군가의 동지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 작가 작품의 고향을 찾아서 떠나는 즐거운 문학수업

**김양희 / 성림 / 2001년 / 370쪽 / 12,000원**

책상 앞에 앉아서 문학책에 나온 시를 외우고 수필과 소설들을 읽지만, 사실 입시 준비를 위한 것이 대부분인 뿐 진정한 문학으로써의 가치에 대해 깨닫는 학생들은 드물 것이다. 작가와 작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들의 성장 환경과 삶의 터전을 찾아 떠나는 문학 기행은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느끼는 즐거움만큼이나 큰 즐거움을 줄 것이고, 또한 이 글을 읽는 독자도 마찬가지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여행에 그치지 않고 여행에서 보고 배운 것을 기록할 수 있는 체험학습 보고서도 학생들이 자신들의 체험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 보름간의 문학여행 - 한국편

**강예원 / 동녘 / 1998년 / 234쪽 / 6,000원**

대표적인 우리 문학 작품 15편을 지은이와 독자가 함께 읽으면서 작가의 생애, 작품 세계, 작품의 시대적 배경까지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몄다. 우리 문학 작품의 해석을 통해 청소년들이 사회 과학적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철학적 의미도 찾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이 글을 읽으면 다소 멀게만 여겨졌던 문학가들이 그들 특유의 체취를 풍기면서 우리들 곁으로 친근하게 한 발짝 더 다가옴을 은연중에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고향을 지키는 아이들

**박상규 / 장작과비평사 / 1990 / 226쪽 / 2,000원**

세상에는 지금도 피롭고, 외롭고, 슬프고, 쓸쓸하고,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아름다운 정을 나누며 살아가도록 위안과 용기와 희망을 주고 싶다는 작가의 바람이 나타난 총 16편의 짧은 이야기가 실렸다.

## 2. 문학의 아름다움

### 4) 옛 이야기

#### 마당을 나온 암탉

**황선미 / 사계절 / 2000년 / 200쪽 / 7,800원**

이 책은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작품에 나오는 동물 중 하나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한다. 뭘 할 것인가. 어떤 역할을...

처음엔 그 아카시아 나무가 있는 마당을 그리워했다. 그리고 또 하나, 앞쪽에 가장 큰 희망은 자신이 직접 생명을 잉태하여 병아리를 품어 보는 것이었다. 간절히 바라던 이루어진다고 했던가? 청둥오리인 나그네의 알이지만, 그것을 품게 되고, 부화시킨다. 여기서 또 나그네가 압권이다. 자신의 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날마다 푸둑 대며 사냥꾼의 접근을 막고, 결국엔 자진하다시피 하여 스스로 사냥꾼의 먹이가 된다.

어린이를 위한 동화이지만 시대 문제를 정면으로 끌어안는 작가의 비전과 철학을 담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를 벗어난 사람들에게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어머니의 사랑과 참됨을 느끼게 해주는 동화이다.

## 2. 문학의 아름다움

### 4) 옛 이야기

#### 붉은산

김동인 / 신원문화사 / 2002년 / 263쪽 / 5,000원

삶에 대한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중학생이라면 꼭 읽어야 할 명작만을 골라, 읽고 난 후의 솔직한 느낌을 논리적·체계적으로 쓸 수 있고, 중학생들의 독후감 작성에 따르는 부담을 덜어 주도록 구성하였다.

이 책을 통해 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 힘과 작가의 일생을 알고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여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호가 금동(琴童)인 김동인(金東仁 1900-1951년)은 진정한 자연주의 경향의 문학을 확립한 작가로, 본격적인 단편소설에 기반을 세운 작가로, 유머와 위트 패러독스(paradox)를 단일한 구성 속에 도입하고 문장을 혁신한 작가로 평가를 받는다.

당시 유행하던 이광수류의 계몽주의 문학을 비판하고 순문학 지향의 단편소설을 많이 창작하였다. 대표작으로는“약한 자의 슬픔”, “배따라기”, “감자”, “광염(狂炎) 소나타”, “광화사(狂畫師)” 등이 있으며, 장편에“젊은 그들”, “운현궁의 봄” 등이 있다.

## 2. 문학의 아름다움

### 보충 심화

#### 팽이부리말 아이들

김중미 / 창작과비평사 / 2001년 / 275쪽 / 8,500원

이 작품은, 6·25 직후 가난한 피난민들이 모여 만든 인천 만석동 달동네 팽이부리말에서 서로 위로하고 의지하며 끈끈하게 성장해 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작가 김중미씨의 생생한 경험이 담겨 있는 이 작품은 초등학교 5학년인 숙자와 숙희 쌍둥이 자매를 중심으로 가난한 달동네의 구석구석을 착실하게 그려 나갔다. 화려한 성장의 그늘에 가려져 보이지 않는 이 아이들을 돌아봐 주는 것, 사춘기 아이들의 절실한 고민, 성장기에 겪는 갖가지 갈등과 좌절을 뛰어난 현실감각으로 그려낸 이 작품은 중학생 독자들을 위한 훌륭한 읽을거리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일러스트레이터 송진현씨가 거친 듯하면서도 따뜻한 감정이 묻어 나는 연필 선으로 그린 주인공들과 팽이부리말 주변 풍경은 아무래도 이러한 풍광에는 익숙하지 못한 독자로 하여금 작품에 몰입할 수 있게 하는 좋은 안내자가 되어 줄 것이다.

## 3. 판단하며 읽기

### 1) 혼민정음 완성

#### 되다

####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말 바로 쓰기

이수열 / 현암사 / 1999년 / 496쪽 / 12,000원

이 책은 한글 바로 쓰기 지침서이다.‘입학 원서를 접수시킨다’‘전투기를 격추시킨다’‘환경을 개선시킨다’등은 기형적 서술어의 대표사례로‘접수하다’‘격추하다’‘개선하다’ 등으로 바꿔 써야 한다. ‘변화되어져야 한다’‘이야기되어지고 있다’ 등 피동형의 남발 등의 예를 들며, 신문,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엉터리 표현을 오용이라 지적한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말 바로 쓰기’는 신문 글(기사, 논설, 해설, 기고, 광고), 방송 말(뉴스, 일기 예보, 해설, 드라마 대사, 리포트, 강의), 문예작품, 고교 교과서, 국어사전, 대한민국 헌법 등에서 우리 어법에 어긋나게 쓴 것을 들추어 바르게 고친 책이다.

#### 우리글 바로 쓰기 1-3

이오덕 / 한길사 / 2000년 / 450쪽 / 11,000원

온통 남의 말글의 홍수 속에 떠밀려 사는 우리들, 오늘날 우리가 그 어떤 일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은 외국 말과 외국 말법에서 벗어나 우리말을 살려 쓰는 일이다.

이 책은 우리말을 죽이고 있는, 우리글에 섞여 있는 다른 나라 말과 글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우리말과 글을 바르게 지키는 마음을 다짐하게 만드는 책이다.

말을 보면서 세상에 감춰진 이치를 보고, 우리 역사의 밑뿌리에 무엇이 얽혀있는가를 들여다 보면서 우리 겨레가 올바르게 살아갈 길을 찾게 될 것이다. 모두 1,2,3권으로 나와 있다.

## 3. 판단하며 읽기

### 2) 우리 꽃 산책

####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법정 / 샘터사 / 1996 / 346쪽 / 7,000원

저자는 이 책에서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화두로 삼아 현대문명에 비판의 칼을 들이대고 있다. 그에게 현대 문명은 흙과 물과 나무와 공기의 공덕을 모른 채 마구 더럽혀 인과응보를 불러들인 철부지다. 정복제일의 현대문명에게 저자가 던지는 일갈은 단호하다. 이듬하여 「생명사상」저자가 말하는 「생명사상」은 어느 환경론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다.

### 3. 판단하며 읽기 2) 우리 꽃 산책

#### 아이들의 풀잎 노래

양정자 / 창작과 비평사 / 1993년 / 116쪽 / 5,000원

<중이 비행기> 아침마다 보충수업 끝난 후 화단 앞을 걸어가노라면 화단에 여기저기 하얗게 떨어져 있는 중이 비행기를 몇 개 주위 유심히 살펴보니 방금 내가 수업한 프린트 교재도 있지 않은가 얼마나 공부에 지긋지긋 염증 났으면 수업 끝나자마자 저렇게 미련 없이 날려 버릴까. 부러진 아이들의 상한 날개 추락한 아이들의 꿈을 보는 것 같아 한없이 애처로운 저 중이 비행기

그의 시에는 많은 아이들이 등장하여 각각 한 편의 시가 되고 있다. 교육체험에 바탕을 두고, 말쑥꾸러기요 골칫거리이기도 한 아이들의 세계를 깊고 따뜻한 애정으로 감싸고 있는 만큼 그의 시도 따뜻하고 정겹다. 힘들고 괴롭게 홀로 공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학생이지만, 그들을 바라보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도 그것을 다 알고 있다. 학생들을 향한 따뜻한 필자의 마음을 함께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4. 시의 세계 1) 봉선화

#### 국화 옆에서

서정주 / 민음사 / 2002년 / 126쪽 / 5,000원

우리 언어와 우리 마음의 신화를 알고자 한다면 서정주의 시를 읽어보아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거장 서정주의 명시 모음집이다. 겨레의 시인이라는 찬사가 아깝지 않을 만큼 서정주 시인은 한국시의 든든한 주춧돌이었다. 출간한 시집만 해도 15권으로 그 시적 생명력의 왕성함에서는 물론 그가 이루어 낸 시적 경지에서 볼 때도 이는 아무나 넘볼 수 없는 위대한 것이다.

그 중에서도 여기에는 첫 시집 <화사집(1941년)>에서 4편, <귀족도(1946)>에서 8편, <서정주 시선(1955)>에서 8편, <신라초(1960)>에서 5편, <동원(1968)>에서 6편, <질마재신화(1975)>에서 6편, <떠돌이의 시(1976)>에서 8편, <학이 울고 간 날들의 시(1982)>에서 2편, <안 잊히는 일들(1983)>에서 3편, <노래(1984)>에서 1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다.

미당의 이 시집 한 권만으로도 절제할 수 없을 만치 빠른 속도로 앞을 향해 치닫고 있는 우리네 삶에 잠깐의 충분한 휴식이 되리라 생각한다.

####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 이야기

정민 / 보림 / 2002 / 192쪽 / 12,500원

중국 사람들도 죽을 때까지 다 배우지 못한다는 한자. 그 글자로 쓴 한시는 어른에게도 ‘어렵고 재미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어려운 한시도 좋은 가이드를 만나 호두같이 딱딱한 한자의 껍질을 깨고 맛보는 감동은 기대 이상이다. ‘아. 이래서 고전이 좋구나’하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한시를 읽는 즐거움은 무엇보다도 ‘언어의 묘미’를 깨닫게 된다는 데에 있다. 한시 속에는 사물을 다르게 보는 방법, 돌려서 말하는 은근함, 상상력을 불러 일으키는 언어의 공백, 마음을 울리는 여운, 삶을 충만하게 하는 향기로 충만하다. 어린이와 청소년 뿐만 아니라, 한시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어른들을 위한 입문서로도 훌륭할 정도이다.

### 4. 시의 세계 2) 들담에 속삭이는 햇발

####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림다

류시화 / 푸른숲 / 2002년 / 110쪽 / 5,000원

뛰어난 서정성과 환상적 이미지로 삶의 비밀을 섬세하게 풀어낸 류시화 시인의 첫 시집.

내 안에 있는 이여 //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림다...

이 시집 첫 머리에 시인은 자신의 얘기를 나무, 까마귀, 거미가 아닌 우리가 들어보라고 말한다. 모든 자연의 매개물을 통한 나의 정체성과 돌아갈 수 없음을 알아 버린 시인 자신, 또 세상의 끝에 다다르게 될 인생의 허무를 말하려 한다. 붉은 잎, 나무, 새, 거미, 소금인형, 곤충 이 모든 것들은 지극히 순수한 매개체다. 그와 대비되는 나 자신은 과연 무엇인가? 끊임없는 나에 대한 물음 속에 돌아온 삶의 그리움을 그리워하게 하는 시들.

그의 시가 가진 또 다른 미덕은 탁월한 낭송시라는 것이다. 소리내어 읽을 수 없는 시들이 양산되는 이즈음 그의 소리내어 읽을 수 있는 이 시들은 특별히 감동적이다.

### 4. 시의 세계 3) 어떤 마을

#### 그대에게 가고 싶다

안도현 / 푸른숲 / 1991 / 129쪽 / 6,500원

‘그대 창가에 오랜만에 별이 들거든 긴 밤 어둠 속에서 캄캄하게 띄워보낸 내 그리움으로 여겨다오’ 안도현의 사랑의 시들은 ‘거리’의 운명을 ‘길’로 관통하려는 목소리들이다. 그 시속의 사랑은, 구체적 대상인 너에 대한 사랑을 시계 속으로 확대시키기도 하고, 세상에 대한 사랑을 구체적 대상 안으로 응축시키기도 한다.

#### 4. 시의 세계 3) 어떤 마을

### 풍경

원성 / 이레 / 1999 / 206쪽 / 8,000원

해맑은 미소와 눈망울로 막 산을 내려온 듯한 원성 스님은 자신의 모습과 흡사한 동자승의 일상을 그려 국내는 물론 뉴욕, 도쿄, 밀라노 해외 등지에서 25차례의 개인전을 가질 정도로 널리 알려졌다. 이 작품집에는 특유의 어리광과 순진무구, 장난기 어린 글의 리듬이 그대로 배어 읽는 이로 하여금 새로운 맛을 느끼게 해준다. 동자승의 모습과 글이 잘 어우러진 책.

그의 그림은 정규적인 전문 미술 교육을 받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작품 표현에 구애를 받지 않은 강점으로 살아나 디테일의 세밀함은 현대의 일러스트레이션을 뛰어넘고, 여백을 살린 다양하고 독창적인 묘사와 기법의 구현은 보는 이들에게 가슴이 저릴 정도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두레박

이매인 / 분도출판사 / 1990년 / 240쪽 / 6,000원

이 책을 읽으면 아주 작은 것,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말하는 것들을 조심스레 돌아보게 된다. 신에 대한 찬미와 사랑이 주된 내용을 이루고 있으나 이러한 내용이 독자들에게 편견을 갖게 하진 않는다. 그것은 이 책이 개인적인 감정에 얽매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쉬운 서술도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시대의 흐름이라든가, 유행에 따르는 정서나 사상을 옮겨 놓은 책이 아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나 정서들과 일상에 대해 소박하게 말하고 때론 그것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안타까워하기도 한다.

사교나 가치관에서 의미를 찾는 일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오늘날 우리의 삶을 '시대가 그렇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러하므로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지 않는 작가의 모습은 의연하기까지 하다. 내가 특별하게 뛰어나지 않아서 초라하게 느껴질 때 작가가 쪼그리고 앉아 들여다보는 돌 틈의 노란 민들레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될 지도 모른다.

### 선생님과 함께 읽는 우리 시100

최성수 외 / 실천문학사 / 2000년 / 254쪽 / 6,500원

학생들은 시를 어렵다고 한다. 시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으나 우선 시 감상의 기회가 부족하고 또한 시 창작의 기회나 의욕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따라서 시에 대한 공포심을 벗어 던지는 길은 많이 읽고 많이 써 보는 것이 아닌가 한다.

<선생님과 함께 읽는 우리 시 100>은 현직 선생님들이 교단에 서서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하는 가운데 꼭 읽히고 싶다고 추천한 시들을 묶은 책이다. 우리 근현대시 99편, 김소월, 한용운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시인들의 삶과 정신이 살아 숨쉬는 시편들은 독자들과의 시심을 깨우는 훌륭한 시 창작 교과서가 될 것이다.

#### 4. 시의 세계 4) 우리가 눈발이 라면

### 국어 시간에 시 읽기

전국국어교사 모임 / 나라말 / 2000년 / 191쪽 / 5,500원

이 책에는 현장의 교사가 아이들과 함께 읽고 감상하며 고른 140여 편의 시들이 수록되어 있다. 재미 위주의 시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삶과 역사를 생각해 보게 하는 시들까지 고루 선정되어 있다. 책의 끝 부분에는 이 시들을 고르고 뽑은 배창환 선생님이 '시 수업 사례'를 덧붙여 놓았으므로 시를 시답게 감상하는 방법을 스스로 익힐 수 있다. 한 편 한 편이 작은 것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알면서도 잊고 사는 소중한 것들을 생각하게 한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재미있고도 좋은 시는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학생들의 눈 높이에 맞는 좋은 작품을 고르려고 애쓴 선생님의 따뜻한 시선까지 느껴질 것이다.

#### 4. 시의 세계 4) 우리가 눈발이 리면

### 중학생이 알아야 할 시

구인환 / 신원문화사 / 1995년 / 310쪽 / 7,000원

신문학기의 작품에서부터 현대 작가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되거나 중학생이라면 꼭 읽어두어야 할 시들이 실려 있다.

각 작품마다 '읽기 전에'가 있어서 시의 요점이 제시되어 있고, 작품 뒤에 '작가 소개', '구조와 표현', '작품 해설'을 더하여 자연의 신비와 아름다움, 희비로 점철된 삶을 투시하게 하여 미적 황홀함의 세계를 흥미하게 하였다.

작품의 끝에 '문제'와 '해답'을 더하여 이해와 감상을 확인하도록 했으며, 작품을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도록 시의 기법과 용어에 대해 각주(脚註)를 달아 설명을 더하고 있다.

중학생이 읽어 상상력과 사고력이 신장될 수 있는 작품들이 많이 실려 있어 작품들을 읽는 동안 사물을 보는 눈이 깊어지고 다양해지며, 대상에 대한 이해력이 신장될 것이다.

#### 5. 글의 짜임 1) 설화 속의 호랑이

### 레디메이드 인생

재만식 / 하서 / 2000년 / 312쪽 / 5,000원

1934년 <신동아>지(誌)에 발표한 이 작품은 그의 풍자적 수법으로 쓴 초기 작품 중에서 가장 성공한 것으로, 그 작품 배경인 30년대의 우리 역사적 정황이 참으로 생생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일제하의 심각한 불황 속에서 지식인이 겪었던 취직난과 생활난이 해학적으로 그려져 있다. 세계적인 경제 공황기에 실직 중인 P는 이력서를 들고 이곳 저곳 찾아다니지만 모두 거절당하고 나서 자신이 인텔리인 것을 원망, 책을 잡혀 친구들과 선술집·카페·색주가로 돌아다니며 실업자의 울분을 터뜨린다. 아들만은 자신과 같은 인텔리 실직자를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보통 학교도 안 마친 애를 잘 아는 인쇄소에 맡기고 돌아오면서 "레디메이드(기성품) 인생이 비로소 임자를 만나 팔리었구나"라고 P는 혼자 중얼거린다.

지식인 실업자의 생태와 당시의 사회상을 풍자적으로 그린 작가의 대표작이다. 시대와 삶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읽어보기 바란다.

### 중학생이 알아야 할 동서양 고전-서양문학 1-2

성낙수 외 / 신원문화사 / 1998년 / 375쪽 / 7,000원

1권에는 <로미오와 줄리엣>,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파름 수도원>, <대위의 딸>, <사춘누이 베트>, <몽테크리스트 백작>, <노트르담의 꼽추>, <전쟁과 평화>, <노인과 바다> 등 18편을, 2권에는 <로빈슨 크루소>, <검은 고양이>, <제인 에어>, <백경>, <대지>, <어린 왕자>, <동물농장>,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반 테니소비치의 하루> 등 18편을 담았다.

중학생 독자에게는 논리적 사고력과 풍부한 어휘력을 길러줄뿐 아니라 문해 학습에 친근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믿어진다.

### 모래톱이야기

김정한 / 범우사 / 2002년 / 156쪽 / 2,800원

우리의 농민이야기이다. 학교 선생님인 주인공은 어느날 출석하지 않는 학생 때문에 그 동네를 찾아가게 되고, 그 곳에서 힘없이 자신들의 땅을 빼앗기게 되는 농민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 농민을 소재로 한 다른 소설들처럼 이 이야기 역시 우리 농민들은 힘없이 당하기만 한다. 저항을 해보지만 언제나 끝에는 결말이 좋지 않다. 나병 환자들이 왔을 때는 그들과 싸우기까지 한다.

자본주의의 횡포 속에서 순수함을 지켜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 삶의 중요한 지표를 보여 준다. 사라져 가고 있지만 결코 사라져서는 안 되는 우리의 본질을 한 번 더 생각하게 해 주는 소설이다.

### 칼릴라와 디나

바이디바 / 강 / 1998 / 360쪽 / 5,600원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아랍문학의 최고 고전이며 <천일야화(아라비안 나이트)>와 함께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작품이다. 종교적인 가르침에 바탕한 교훈과 지혜를 담고 있어 아랍세계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이 작품은 다른 동물우화와는 달리 등장 동물들이 어떤 특정한 성격을 나타내기보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상징성을 지니는 것이 특징이다. 또 이들은 주로 통치자와 관료의 속성을 풍자하는 정치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5. 글의 짜임

### 1) 설화 속의 호랑이

#### 한국 대표 설화(상, 하)

이만기 / 빛샘 / 1997 / 302쪽 / 7,000원

국어, 문학 18종 교과서에 나오는 우리나라의 대표설화를 수록한 책. '신성과 질서의 세계' '위안과 평등으로의 길'로 나누어 <국조단군>, <수로왕과 구지가>,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등 76편의 내용을 실고 감상의 길잡이, 해석의 지평 등으로 엮었다. 전 2권.

## 5. 글의 짜임

### 2) 도편수의 궁지

#### 국어 시간에 수필 읽기

전국국어교사 모임 / 나라말 / 2000년 / 230쪽 / 6,000원

중학생이 보는 책에는 중학생의 글도 실려야 한다. 왜냐하면 또래 아이들의 생활과 감정을 알고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감동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책의 글들은 현학적이지 않다. 평범한 글, 솔직한 글이어서 '나도 쓸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어 읽는 이가 더 편하고 즐거운 책이다. 생활 속에서 일어난 잔잔한 이야기들이라 단번에 다 읽어 내릴 수 있는 책이다. 기성 작가들의 글은 편안하고도 세련된 맛을 느끼게 하고, 아이들이 쓴 글은 또 그 나름대로 신선한 감동을 준다.

제목이 '국어 시간에 수필 읽기'이므로 처음에는 공부를 목적으로 의무감에서 찾지만 한 편 한 편 속에는 그 어떤 책보다 재미있고 훈훈하고 깨달음까지 얻게 되어 손에서 내려놓을 수가 없다.

#### 천국의 열쇠(상, 하)

조셉 크로닌(유희명) / 청목사 / 2002년 / 269쪽 / 5,000원

'천국의 열쇠'에서는 두 청년의 삶을 비교하고 있다. 그 둘은 같은 성직자의 길을 가면서도 늘 가난한 자의 편에서 검소하게 사는 '프렌치스'와 명예와 부를 추구하는 '안셀모'이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인생을 볼 때, 늘 존경받는 쪽은 '안셀모' 쪽이다. 사람들은 항상 '프렌치스'에 대해 못마땅히 여겼고, 그의 진심을 잘 알아주지 않았다. 신학교에서도, 중국에서도,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도 말이다. 그렇긴 해도, '프렌치스'와 어렵게 친해진 사람들은 그를 잊지 못한다. '프렌치스'의 순수한 모습들이 언제나 그들의 생각에 묘한 여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순수하게 서로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리라. 바로 '프렌치스'가 갖는 진심이 이런 부분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천국의 열쇠는 '프렌치스'가 갖는 순수한 진심 - 바로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의 해답일 것 같다.

#### 사람 사이에 삶의 길이 있고

강예원 / 사계절 / 1997년 / 240쪽 / 6,500원

작가의 생활 경험이 녹아 있어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생활 수필집이다.

이 책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며 함께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지하게 삶을 생각해 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 보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게 하면 좋을 것이다.

#### 사금파리 한 조각2

린다 수 박 / 서울문화사 / 2002 / 152쪽 / 7,000원

때는 12세기 고려 시대, 장소는 도자기 마을 줄포. 목이는 어려서부터 자신을 돌봐 준 두루미 아저씨와 단들이 다리 밑에서 살아간다.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쓰레기더미를 뒤지는 게 하루 일과이지만 두 사람은 자기 손으로 먹을 것을 구한다는 데 자긍심을 가지고 산다. 그러나 목이는 도공이 되고 싶다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다. 마을 최고의 도공 민 영감을 몰래 훔쳐 보던 어느 날, 목이는 민 영감의 도자기를 깨뜨린다. 며칠 동안 일해 빛을 갚기로 약속한 목이는 도자기 만드는 과정을 계속 돕게 된다.

목이가 여러 고난을 딛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과정을 그려냈다. 아름다운 고려청자의 세계와 그런 청자를 빚어내기 위한 도공들의 장인 정신이 인상적인 동시에, 한 아이가 자신의 꿈을 이뤄가는 과정을 그린 성장동화이다.

## 5. 글의 짜임

### 2) 도편수의 궁지

### 노란 손수건

오천석 / 샘터사 / 2000 / 268쪽 / 3,500원

1975년에 처음 단행본으로 묶였던 <노란 손수건>은 문교부 장관을 지냈던 故 오천석 박사가 30여년간 외국서적을 읽으면서 골라내고 번역한 작은 이야기들을 모은 책이다. 처음 출간된 이래 120만부라는 기록을 세웠던 스테디셀러다. 마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처럼 감동적인 이야기 모음집인 셈이다.

나뭇가지에 노란 손수건을 수십개 매달아 남편을 환영한 이야기 '노란 손수건', 2차대전 중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날 한 오두막에서 이루어진 독일군과 미국군의 휴전 이야기 '숲속의 휴전', 시인 엘리자베트 바레트와 브라우닝의 사랑 이야기 '불멸의 로맨스' 등 20편의 실화가 실려있다.

### 할아버지 요강

임길택 / 보리 / 1995 / 135쪽 / 5,500원

아침마다/할아버지 요강은 내 차지다/오줌을 쏘다 손에 묻으면/더럽다는 생각이 왈각 든다/내 오줌이라면/옷에 쓱 닦고서 떡도 집어먹는데/..... 아이들의 시선에서 본 어른들의 모습과 일상 생활이, 삶의 진실을 알려준다. 금새라도 웃음이 터질 듯한 동시부터 가슴 뭉클한 어머니의 이야기까지 한 편을 읽고 하늘 한 번 올려다보게 한다

## 6. 문학과 독자

### 1) 흰 종이 수업

### 국어시간에 소설읽기 1-2

전국국어교사 모임 / 나라말 / 1998년 / 244쪽 / 5,800원

중·고교 국어 교사들이 올바른 국어 교육의 실현을 위해 결성한 자주적 연구·실천 모임인 전국 국어교사모임에서 펴낸 이 책에는 동화작가 권정생의 <강아지똥>과 김유정의 <동백꽃>을 비롯하여 국내 작품 10편과 외국의 단편 6편, 총 16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부록으로 제시된 '나의 소설 읽기 수업'이라는 글은 소설을 이해하고 바르게 감상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며, 소설 수업을 하기 전에 이 책을 읽는다면 소설에 대한 흥미를 한층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짧게 실린 이야기의 전문을 읽어보는 재미도 있으며, 가격이나 분량 면에서도 부담이 적어 실용적이다. 특히 중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하여 작품을 선별하였으므로 읽기 활동이 강화될 것이라 생각한다.

### 선생님과 함께 읽는 우리 소설 1-2

권순궁 외 / 실천문학사 / 2000년 / 330쪽 / 6,500원

이 소설집은 청소년들에게 읽기 적당한 우리의 근현대소설작품들을 모은 것이다. 최근 그릇된 출판물의 범람으로 잘못된 글읽기에 빠져 그저 달착지근하고 감각적인 작품 읽기에만 몰두하는 것에서 벗어나 올바르게, 의미 있는 문학작품 읽기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은 주로 7,80년대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 문학의 흐름을 되짚어 볼 수 있다.

### 국화

김정희 지음, 우중택 그림 / 사계절출판사 / 2002 / 170쪽 / 7,800원

아버지가 징용에 끌려가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뒤, 국화는 한동안 외갓집에서 살았다. 하지만 끼니조차 잇기 힘든 형편 때문에 기어이 부잣집에 수양딸로 들어가게 된다. 대숲 한가운데에 을썩느라 풍경이 딸랑거리는 기와집이 앞으로 국화가 살아야 할 곳이다.

일본에 나라를 빼앗기고 해마다 보릿고개와 피고개를 힘겹게 넘기던 시절을 배경으로 '국화'라는 한 소녀가 겪는 전쟁 후의 스산한 일들이 묘사된 이야기다.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은 모두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역사의 풍랑 속에서 나름의 상처를 간직하고, 그것을 극복하려고 애쓴다.

시대 상황을 꿰뚫는 전형적인 인물 묘사와 탄탄한 구성력, 그리고 구수하고 맛깔스러운 사투리는 아이들을 단번에 끌어당기는 흡인력을 발휘한다. 구겨진 한지로 탁본을 찍어내는 듯한 기법을 사용한 일러스트는 한없이 슬픈 등장인물들의 구부러진 어깨를 쓰다듬는 듯한 포근함과 따뜻함을 자아낸다.



## 6. 문학과 독자

### 1) 흰 종이 수염

#### 중학생을 위한 문학 이야기

**생기조 / 한국문화사 / 1997년 / 244쪽 / 7,000원**

우리는 문학 작품을 좋아하면서도 작품을 이루고 있는 요소에 대해 궁금증을 느꼈을 때 어려운 전문서적이 대부분이라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 책은 현대문학을 전공한 저자가 학문적 입장에서 문학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비롯해 문학의 기능, 문학과 경험, 시의 본질 및 내용과 기능, 시의 구성, 소설의 배경과 갈등 구조, 등장인물과 성격 등을 중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문학의 세계를 쉽게 풀어놓았다.

#### 종이비행기

**정채봉 / 현대문학북스 / 2001년 / 180쪽 / 7,500원**

우리나라 대표적인 동화작가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생을 마감하신 정채봉 선생님의 동화선집이다. <종이비행기>를 비롯해 20여 편의 동화를 아름다운 그림과 함께 담았다.

듣지 못하는 환이가 사랑하는 강과 다람쥐와 돌들의 이야기, 웅이의 소원을 담고 날아가는 종이비행기, 네거리 신호등에 새끼를 낳은 제비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풀꽃 부케를 들고 시집가던 고아원 보모 선생님, 따뜻하고 가슴 뭉클한 우리네 이웃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가슴을 말갭게 행구어 줄 것이다. 섬세하고 따뜻한 색감이 돋보이는 고광삼 화가의 그림은 정채봉 선생님의 동화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 우리는 영혼을 팔지않았다

**포리스터 카터(김옥수) / 아틀드리미디어 / 1999년 / 412쪽 / 7,500원**

이 책은 아파치 인디언 전사 제로니모의 투쟁과 사랑을 그린 작품이다. 종교적 탄압을 피하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이주해 온 청교도인들과 인디언들과의 치열한 투쟁사를 압축적으로 다룬 미국 작가의 소설로서 자연과 더불어 평화롭게 사는 인디언들의 삶을 침략자인 백인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았는지, 잡아온 인디언들을 노예로 부리지만 그들의 육신만 잡고 있을 뿐 영혼의 자유를 갈망하는 인디언들의 정신을 왜 잡아 가둘 수 없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제로니모라는 특출한 역사적 인물을 통해 인디언의 삶과 철학의 정수를 보여주며, 진한 감동을 주는 책이다.

#### 흰 종이 수염 - 하근찬 단편집

**하근찬 / 다림 / 2002년 / 163쪽 / 7,000원**

<수난 이대>의 작가 하근찬의 대표 단편 3편을 아동용으로 편집한 단편집이다. <흰 종이수염>은 6.25 전쟁의 피해로 가난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의 삶의 모습과 애환을 어린 동길이의 눈을 통해 풀어가고 있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동길이가 감당해야 할 가난에서 6.25 전쟁의 제 2의 피해자인 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가짜 흰 종이수염을 달고 영화 선전 극장일을 하는 아버지 역시 전쟁의 수명적 피해자임을 알게 된다.

6.25 등 이 시대 청소년들이 미처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의 우리 모습들이 파스텔톤 일러스트와 함께 접근하기 쉽도록 꾸며 놓았다. 뿐만 아니라 곳곳의 각주는 작품 이해 및 어휘력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 6. 문학과 독자

### 2) 숨쉬는 영정

#### 나무야 나무야

**신영복 / 들베개 / 1996 / 158쪽 / 6,500원**

이 책은 신영복 교수가 단절의 공간으로부터 벗어나 세상살이를 경험하고 나서 선보이는 사색의 글모음이다.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무기징역형을 받고 20년을 복역 후 가석방된 저자가 전국의 사연있는 곳을 두루 답사 하면서 느낀 점들과 국토와 역사에 대해 사색한 24편의 글을 그림, 사진을 곁들여 엮었다. 역사와 현실이 살아 숨쉬는 이 땅 곳곳을 직접 발로 밟으면서 적어간 글들은 사회와 역사를 읽는 진지한 성찰로 가득 차 있다.

## 6. 문학과 독자

### 2) 숨쉬는 영정

#### 무기여 잘 있거라

**헤밍웨이(황중호) / 장편소설 / 1989년 / 406쪽 / 6,000원**

미국 소설가 E.헤밍웨이의 대표적 장편소설. 제1차 세계대전 때의 이탈리아와 스위스를 배경으로 전쟁과 사랑과 죽음을 묘사한 걸작으로 1929년에 간행됐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고전하는 이탈리아군의 군의관으로 지원 입대한 미국 청년 프레더릭 헨리는 영국인 지원 간호사 캐서린 버클레이와 열렬한 사랑에 빠지게 된다. 유명한 <카포레트의 총퇴각>에 연루된 헨리는 불합리하고 비참한 전쟁, 그것을 떠받치는 공허한 대의명분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임신한 캐서린과 함께 스위스로 탈주하는데, 그곳에서의 행복한 나날은 캐서린의 사산과 돌연한 죽음으로 파국을 맞는다.

전쟁이란 슬픈 현실 속에서의 사랑이라 그런지 그들의 사랑 또한 슬프기 그지없다. 어렵게 맺어진 그들이지만 운명은 끝내 그들을 갈라놓고 헨리를 외롭게 만든다. 헨리는 아내를 잃고 외로움과 허무함을 느낀다. 전쟁의 참담함과 슬픔이 유려한 문체 속에서 담담하게 드러나는 헤밍웨이의 수작이다.

#### 불꽃

**선우휘 / 민음사 / 2000년 / 462쪽 / 8,500원**

역사의 급격한 변동기, 분단시대를 그려낸 최고의 작품으로 손꼽히는 <불꽃>이 들어있는 선우휘의 작품집이다. 3·1 운동부터 한국 전쟁에 이르는 30여 년 간의 세월을 배경으로 주인공 '현'의 일대기를 다룬 장편 소설적 구성 방식을 취한 중편 소설이다.

작품의 표제인 '불꽃'은 어떤 의미일까? 그것은 주인공 '현'의 새로운 생명 의식, 즉 현실 참여로 자기 개혁을 시도하는 새로운 행동의 제시라 할 만하다. 그것은 기존의 왜곡된 삶을 버리고 본연의 가치로 돌아가는 깨달음인 것이다.

나는 사회로부터 아니면 본연의 나 자신으로부터 이탈한 이방인이 아닌지, 좀더 현실 속에 뛰어들어가 현실 세계의 중심에서 현실을 개혁하려는 치열한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한다.

#### 압록강은 흐른다(상,하)

**이미륵 / 다림 / 2000년 / 182쪽 / 7,000원**

작가가 고향인 해주에서 보낸 어린 시절부터 3·1운동 이후 압록강을 건너 독일에 망명 유학하는 자전적 일대기를 담고 있다.

엄하지만 따뜻한 아버지와 투박한 몸매 속에 모성을 숨긴 어머니가 있고, 주먹다짐하며 우정을 쌓은 동무가 있는 시골 마을 풍경이 맑은 수채화 속에 피어난다. 사촌 수암과 함께 보낸 고향에서의 추억, 가정과 학교생활, 구식교육과 신식 교육, 압록강을 건너 독일 생활이 시작되는 이야기까지를 담은 장편소설이다.

어린 시절과 역사적인 사건들이 교체되는 가운데 한 인간이 발전적으로 성숙해 가는 과정을 밀도 깊고 유려한 문장으로 묘사했다. 고국을 떠나 독일에서 작품활동을 해야 했던 작가의 고국에 대한 그리움이 잘 느껴진다

#### 한국 단편 소설 베스트 30

**김동인 외 / 혜문서관 / 2002년 / 624쪽 / 12,000원**

이 책은 중고생을 위한 것으로 현대 소설사의 흐름에 따라 반드시 읽어야 할 작품들만을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진정한 의미에서 현대소설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김동인의 <배따라기>에서부터 1950년대 전후소설 <오발탄>까지를 그 범주로 하였으며 근래에 와서 수능과 논술에서 작중인물의 성격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에 따라 인물의 성격을 일일이 분석하여 밝혔다.

대체로 현대소설은 쉽다는 선입견 때문에 주석에 대한 배려가 고전소설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감이 있었다. 그러나 수능이나 논술고사를 대비하여 읽어야 하는 많은 현대소설들이 요즘 청소년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외래어와 사투리, 전문 용어 등을 담고 있어 이해와 감상에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데, 이 책은 특별히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석을 상세히 첨부함으로써 읽는 데 막힘이 없게 되어 있다.

## ■ 2학년 1학기

### 1. 감상하며 읽기 1) 문학작품의 감상

#### 중학생이 알아야 할 동서양 고전-한국문학

성낙수 외 / 신원문화사 / 1998년 / 384쪽 / 7,000원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임진록>, <토끼전>, <적벽가>, 이광수의 <유정>, 김영랑의 <영랑 시선>, 김동리의 <바위>, 이태준의 <해방 이후>, 허준의 <속 습작실에서>, 강신재의 <젊은 느티나무> 등 한국문학의 주요 작품들을 간략히 소개했다.

작품 첫머리에 <읽기 전에>가 있어 작품을 감상할 때 꼭 읽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예시되어 있고, <작가 소개>는 작품 발표의 계기가 되는 작가의 주변 상황이나 시대적 배경까지도 두루 실어 작가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작품 해설>에서는 작품 경향, 주제, 구성 및 배경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작품의 이해와 내용 파악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 좁은 문

앙드레 지드(오현우) / 문예출판사 / 2002년 / 244쪽 / 7,000원

좁은문은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앙드레 지드의 대표작으로서 인간이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신학적 완성으로서의 사랑을 제롬과 알리사의 신교도적 사랑을 통해 그려낸 작품이다. 오로지 알리사의 <덕>에 견줄 만한 청년이 되기 위해 제롬은 속세의 온갖 즐거움을 내버리고 성서에서 가르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괴로움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이 작품을 읽어나가면서 욕망을 자기 회생의 실천으로써 극복하려는 알리사의 내적 고뇌를 통해 도덕적 편견에 대한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괴테(정홍택) / 소담출판사 / 1991년 / 228쪽 / 5,000원

18세기 후반 독일에서 '질풍노도 시대'를 이끈 괴테의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이다. 작가 자신의 쓰라린 연애 경험을 바탕으로 불과 14 주 만에 완성했다고 한다. 괴테의 정열과 생명력이 이 작품을 탄생시켰으며, 로테에 대한 헌신적이고도 애절한 사랑을 이루지 못해 목숨을 끊은 베르테르의 열정은 시대와 인종을 초월하여 공감을 준다.

이 작품을 통해 주인공이 청소년기에 겪는 우정, 사랑, 방황과 갈등에 공감하며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극복할 수 있는 해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이상한 나라의 리씨

모니카 펠츠(김경연) / 한겨레신문사 / 2000년 / 168쪽 / 6,000원

이 책은 기발하고 자유로운 판타지가 주는 재미가 참으로 남다르다. 현실을 보는 눈이 날카롭고 이를 판타지로 형상화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저자의 작품으로, 이 작품은 빈 청소년 문학상을 받은 바 있다. 다른 세계로 떨어지는 것에서 시작해서, 공작 부인, 하트의 여왕, 토끼 등을 잇달아 만나며, 몸이 커졌다가 다시 작아지고, 괴상한 파티에 참석하고, 티무니없는 재판의 증인이 되는 리씨의 재미있는 이야기이다.

####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1-2

잭 랜필드 외(류시화) / 푸른숲 / 1997년 / 240쪽 / 7,000원

이 책은 삶에서 일어난 생동감 넘치는 일화들을 모은 글로 유명한 사람들이나 평범한 사람들의 실제 일화들을 사랑과 배움, 꿈의 실현, 가르침, 부모노릇하기 등의 재료들로 나누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이야기, 감동적인 이야기, 지혜가 담긴 일화 56 편을 담았다.

세상에는 진정한 용기와 사랑의 힘, 그리고 꿈·희망·집념 등으로 '불가능'을 뛰어 넘은 일들이 많다. 그러한 아름다운 이야기와 삶의 지혜를 담고 있는 책,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가 변화와 속도에 지친 우리들의 삶과 영혼을 위로하고 있다.

1. 감상하며 읽기  
1) 문학작품의 감상

### 모모

미아엘 엔데(안미희) / 비룡소 / 2001년 / 362쪽 / 8,500원

다분히 그로테스크하고 싸늘한 도시의 정경, 하지만 그 안에 따뜻하게 살아 숨쉬는 등장인물들. 마치 현대사회의 작은 한 귀퉁이에도 치열하게 머리를 내미는 작은 싹 같은 모습이다. 모모의 친구들은 시간을 앗아가는 회색 신사의 방문을 받은 후 돈을 벌기 위해, 혹은 뭔가 중요한 인물이 되기 위해 점차 차갑고 삭막한 사람들이 되어 간다. 진정한 행복을 모르고, 늘 시간이 없다고 투덜대며 서둘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회색 신사에게 물들여진 모습이다.

모모는 보통 동화로 알려져 있지만 거기에 담긴 주제의식은 결코 가볍지 않다. 이것 또한 엔데가 가진 장점 중의 하나인데, 어린이의 눈으로도 어른의 눈으로도 모두 그만큼의 무게를 지닌 채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제의식이 깊지만 어린이가 보더라도 어렵지 않다.

###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미치 앨 블(궁영희) / 세종서적 / 2002년 / 248쪽 / 8,500원

계속 죽어 가고 있는데도 모리는 인내할 줄 알고 유머가 넘치며 따뜻한 눈으로 남을 바라봐 주었다. 누구나 60대로 향하는 것을 '늙는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모리는 '성장한다'라고 한다. '모든 나이가 다 나의 속에 있다'. 아주 공감된다. 10대가 20대가 되는 것을 성장한다고 하듯이, 60대가 되는 것도 엄연한 성장일지 모른다.

나이를 먹어 가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버리자. 오고 가는 것은 우리 삶의 본질이다. 삶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뀌게 하는 한번 읽고 또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그런 소설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살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써 서로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관계야말로 진정한 친구이자 정신적인 동반자라고 부를 만하지 않을까.

미치 앨블은 에미상을 수상한바 있는 방송가이자 칼럼니스트이다.

### 말괄량이 길들이기

세익스피어(진용우) / 정독사 / 2002년 / 254쪽 / 5,000원

이 소설에서 나오는 말괄량은 구제불능의 아가씨였다. 이 아가씨는 얼굴도 예쁘고 집안도 부자였다. 유일한 단점은 행동이 사나운 말괄량이 라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한 남자가 이 말괄량을 길들이려는 내용이다.

이 책은 남성 중심적 사회를 보여주고 있다. 말괄량이가 길들어진다라는 의미는 남성 중심적 사회에 맞게 남자 말 잘 듣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맨 마지막에 비앙카의 남편과 호렙소가 누구의 아내가 말을 더 잘 듣는가를 내기하면서 이 이야기는 끝을 맺는다.

주인공들의 대사, 행동들이 너무나 익살스럽게 표현되어 있다. 세익스피어의 현란한 언어 구사 속에 당대 사회의 한 단상이 잘 드러나 있다. 세익스피어의 작품은 언어의 위력을 잘 보여 준다. 언어의 위트 속에서 당대 사회의 분위기도 함께 느껴 볼 수 있는 책이다.

### 거꾸로 보는 전래동화

우리누리 / 중앙M&B / 1996 / 172쪽 / 6,000원

옛이야기에 숨어있는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짚고 오늘의 가치관에 맞게 다시 써 보는 책. 원래의 줄거리 가운데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을 골라 정리한 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다시 써 보도록 이끌어 준다. 2편 『거꾸로 보는 전래 동화』에서는 가치를 살리려고 구렁이를 쏘아 죽인 선비의 행동은 정말 옳은 것일까?라는 등의 의문을 던져 전래 동화 10편의 내용을 재미있게 고쳐 써 보도록 한다.

### 거꾸로 보는 이솝우화

우리누리 / 중앙M&B / 1996 / 172쪽 / 6,000원

옛이야기에 숨어있는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짚고 오늘의 가치관에 맞게 다시 써 보는 책. 원래의 줄거리 가운데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을 골라 정리한 다음, 그것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다시 써 보도록 이끌어 준다. 1편 『거꾸로 보는 이솝 우화』에서는 쥐들이 감쪽같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면? 등의 13편의 우화를 통해 의문들을 떠올리고 답을 구해 보도록 한다.

## 1. 감상하며 읽기

### 1) 문학작품의 감상

#### 죽은 시인의 사회

툼 슐만 / 시간과 공간사 / 1998 / 278쪽 / 7,000원

숲 속에 있을 때보다 숲 밖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쉽게 숲의 모양을 알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해 있는 교육 현실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보다는 우리의 교육 현실을 한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책은 우리에게 한 걸음 떨어진 자리에서 우리 교실의 모습을 보게 하는 책이다.

신입 교사 키팅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그간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진실이 아닐 수도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진실의 모습을 찾아 떠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교실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하는 책이 될 것이다.

#### TV동화 행복한 세상1-3

박인식 / 샐터 / 272쪽 / 2002 / 9,000원

이 책은 내용면에서 잭 캔필드의 『마음을 여는 101가지 이야기』와 같이 분류될 만한 책이다. 그러나 'TV 동화'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영상 매체와 동화 장르의 장점을 십분 활용한 덕분에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다. 2~3쪽 분량의 짧은 이야기 첫 머리마다 큼직한 그림을 짧은 문장 하나로 제시한 다음, 징검다리 식으로 건너뛰는 서술들이 자그마한 그림들과 함께 소개되는 서술 방식이 이채롭다. 파스텔 톤의 그림들이 부드럽게 그려져 푸근한 느낌이 들어서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 창가의 토토

구로야나기 테즈코 / 프로메테우스출판사 / 2000 / 240쪽 / 7,500원

주인공 토토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의 소중함과 참된 교육을 깨닫게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 전세계 31개국 이상의 나라에 번역 소개되어 감동과 웃음을 선사한 화제작이다. 엄마 손을 잡고 처음 입학한 학교에서 산만하다는 이유로 퇴학을 당한 토토는 망가진 전차를 학교로 꾸며놓은 도도에 학교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공부하는 학교, 자신의 일에 책임질 줄 아는 학생으로 이끄는 선생님. 주인공 토토는 점차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게 되고...

#### 홍부전, 조웅전

작자미상(전규태) / 범우사 / 2002 / 303쪽 / 6,000원

판소리계 소설의 하나인 <홍부전>은 고대소설 중 <춘향전>과 더불어 가장 널리 읽히는, 우의소설의 명편이다. 해학과 풍자를 통해서 참다운 윤리적, 도덕적 기풍과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한 유교적 선을 펼쳐 보인다. 중국을 배경으로 한 영웅소설 <조웅전>은, 전반부는 남녀 주인공들의 결연담으로 후반부는 영웅담으로 이루어져 있다.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때마다 독자로 하여금 가슴 죄게 하는 기발한 구성의 소설적 기교가 불만하다.

#### 독일인의 사랑

막스 뮐러 (자명아) / 2000 / 144쪽 / 4,500원

이 작품은 여느 낭만주의 작품과 마찬가지로 순수한 사랑을 그리면서 그 순수한 사랑 이상의 것을 우리들에게 안겨주는 데 성공했다. 이 작품이 문학작품으로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은 우선 언어의 활용이 어느 작품보다 우수하여 단어 하나 하나가 문장 속에 살아 진동하며, 지은이의 풍부한 지식을 동반한 비유가 독자를 먼 상상의 세계로 데려갔다가는 다시 현실로 데려오는 신비감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이 책은 희생과 사랑과 환희에 대한 의미가 명료하게 담겨져 있는 이 책은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감동과 함께 인생의 의미를 새삼 깨우쳐줄 것이다.

1. 감상하며 읽기  
1) 문학작품의 감상

### 교실밖 국어여행

강예원 / 사계절출판사 / 1999 / 288쪽 / 7,000원

수많은 문학작품을 접할 수 있는 국어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는 학생들은 아주 드물 것이다. 딱딱하게 읽어 내려가는 선생님의 목소리와 그 작품의 주제를 말하고 부분부분을 설명하는 수업방식은 이제 더 이상 아이들에게 그 어떤 도움도 주지 않는다.

이 책은 재미있는 이야기와 화설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므로 수업을 하는 교사나 중·고등학교 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부분 부분 나타나 있어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1. 감상하며 읽기  
2)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 그리운 것들은 산 뒤에 있다

김용택 / 창작과비평사 / 1999년 / 224쪽 / 6,500원

소박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참 예쁜 이웃의 이야기, 자연과 더불어 '인간의 삶'을 더디게 그러나 행복하게 가꾸며 살았던 작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다. 여기에는 순리를 거역하지 않으며 살아온 이웃들의 소박한 모습살이와 결 고운 마음, 기억 저편에서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아련한 추억들이 있다.

이 순간에도 소중한 것들이 사라지고 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추억과 회한과 아쉬움이 있을 뿐 대안은 없다. 시간은 단순히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세계화를 외치는 사람들에게 '농촌공동체는 '꿈'일뿐이다.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어이'하고 손 흔들며 불러 세워 진메 마을 느티나무에서 잠시 쉬었다 가라고, 끝없는 경쟁에 지친 사람들을 불러 시원한 막걸리 한 잔 권하는 마음, 그것이 이 책의 미덕이다.

### 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2 -틈새내기

편집부 / 또하나의문화 / 1997년 / 302쪽 / 8,000원

이 책은 아이와 더불어 성장하는 어른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른과 아이라는 단순한 이분법을 넘어서 새로운 삶의 공간을 열어가는 이야기이다.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려는 어른들, 아이들에게 권력을 행사하지 않으려는 어른들, 어른을 피하지 않고 함께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해 애쓰는 아이들이 풀어나간 세기말 문제의 해법을 이 책에서 만나 보자.

이번 호에서는 입시 위주의 교육제도 하에서 설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삶의 자리에 조그마한 변화라도 일으키려는 어른들과 아이들의 대안 모색 과정을 [틈새내기]라는 주제로 묶고 있다.

### 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1 -아이들이 없다

편집부 / 또하나의문화 / 1997년 / 302쪽 / 7,000원

이 책은 '아이들이 없다'는 부제가 암시하듯 그들이 '가버린 곳'들을 찾아 그 속에서 무언가 일을 꾸미고 벌이는 청소년들의 이야기들을 모은 것이다. 이 글들 속에서 스스로를 '어른'들과 구분해 내려는 아이들의 갖가지 '문화 게릴라작전'을 본다. 아이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면서, 이제 아주 새로운 눈으로 새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임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새로 쓰는 청소년 이야기1>은 아이들이 없다, 그들이 가버린 곳이라는 마당 아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노래 불러라, 영상 속으로, 사이버 공간 등의 작은 마당을 두고 다양한 형식으로 된 청소년과 어른들의 글을 들어왔다.

###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1-3

잭 랜필드 외(류시화) / 이레 / 1996년 / 238쪽 / 7,000원

강하고 때로는 부드러운 영혼이 아름다운 여자들의 이야기. 수다쟁이 이웃집 아줌마거나 새침테기 여학생이거나 황혼을 즐기는 할머니거나 세계를 주름잡는 커리어 우먼의 목소리로 여자들의 생각, 여자들의 지혜, 여자들의 경험을 들려준다.

딸이면서 아내이고 엄마인 여자들은 아들이면서 남편이고 아버지인 남자와도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 다만 성(性)과 그에 따르는 생리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얘기한다.

1권은 사랑, 삶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본 이야기와 가족과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2권은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와 끝없는 배움과 가르침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 삶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엮었다. 3권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현실로 이루어진 경우를 소개했다. 마지막 장은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통해 삶과 죽음이 서로 맞붙어 있음을 이야기한다. 특히 3권에서는 '이것을 생각해 보자'는 꼭지를 마련해 여러 불가능한 조건 속에서 어떻게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보도록 했다.

1. 감상하며 읽기  
3) 소음공해

### 기분 나쁠 때 읽는 책

**조정옥 / 철학과연실사 / 251쪽 / 7,000원**

지금 그대의 영혼은 어떤 날씨입니까? 영혼의 먹구름, 소낙비를 그대로 맞고 게실 겁니까? 그 소낙비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생각을 바꾸면 됩니다. 행-불행은 해석하기 나름이죠. 긍정적 가치관을 갖는 것이 인생을 보다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이다. 이 책은 기분이 완전히 가라앉아 버렸을 때, 나에게 모든 일이 꼬인다는 생각이 자꾸 들 때 마음을 정리해 줄 만한 책이다.

### 술꾼의 아내

**오정희 / 작가정신 / 1993 / 309쪽 / 5,500원**

이 책에 담은 짧은 소설들은 대체로 올안의 이야기들이다. 그만그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의 좁작한 골목길을 걸어가다가 무심히 목을 빼어 낮은 울 안쪽을 기웃거리면 거기에는 여자와 남자, 그리고 아이들이 어울려 빚어내는 정경이 펼쳐져 있기 마련이다. 서로에게 위안이자 슬픔이고 연민의 관계들, 그것들이 때로 돌출하고 부딪치고 어우러지는 삶의 무늬들이 뭉뚱그려진 인생이라 불러주는 추상성의 단면들을 그리고 있다.

1. 감상하며 읽기  
생각 넓히기

### 누가 내 치즈를 훔겼을까

**스펜서 존슨(이영진) / 진명출판사 / 2000 / 128쪽 / 7,000원**

스니퍼, 스커리라는 작은 생쥐와 햄과 허라는 꼬마 인간이 이 이야기의 등장 인물이다. 미로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창고 속에 있는 치즈. 그러나 그 치즈가 어느 날 사라지면서 이들은 새로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 스니퍼와 스커리는 재빠르게 새로운 치즈를 찾아 나서지만, 햄과 허는 안주의 유혹에 발목이 잡혀 쉽사리 움직이지 못한다. 하지만 곧 허는 '변화'라는 험난한 여정을 떠난다.

“새로운 치즈를 마음 속으로 그리면 치즈가 더 가까워진다.” “과거의 사고방식은 새로운 치즈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 ‘허’가 미로의 벽에 남기기 시작한 글귀들은 우리들에게 변화의 중요성과 변화에 임하는 자세를 가르쳐준다.

### 책상은 책상이다

**페터 빅셀, 이용숙 역 / 예담 / 2001 / 104쪽 / 6,800원**

이 소설은 자신의 무료함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책상을 양탄자라 부르고, 침대를 사진이라 부르고 신문을 침대라 부르는 식의 ‘자기 언어’를 창조했다가 결국 이웃과 의사소통 불능 상태에 빠지고 마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이 이야기는 인터넷이다 휴대폰이다 뭐다 해서 의사소통의 기회는 많아졌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들만 늘어놓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일종의 경고를 내리고 있는 듯하다. 서로에게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 한 진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임을 이 책을 통해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 포올러스 / 소담 / 2002 / 142 / 4,500**

한 마리 작은 줄무늬 애벌레를 통해, 참다운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지침서이며, 절망과 좌절을 딛고 내일을 위해 굳건히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동화 형식의 이야기이다.

저자 자신도 책머리에, “이 이야기는 자신의 진실을 찾기 위하여 온갖 어려움을 겪어 온 한 마리 애벌레의 이야기입니다”라고 밝혔듯이, 저자는 비록 하찮은 애벌레 한 마리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뚫고 한 마리의 나비로 우화(羽化)되기까지의 과정을 생동감 있고 적나라하게 펼쳐 보임으로써 우리에게 삶의 의미와 희망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찾게 해 주고 있다.

1. 감상하며 읽기  
보충심화

### 미시령 큰바람

**황동규 / 문학과지성사 / 1993 / 120쪽 / 5,000원**

시인은 ‘극서정시’라는 틀을 완성하면서 또 한차례의 조용한 변신을 맞이한다. 전신이 동원된 변신, 삶 자체가 형이상학이 되는 세계로의 진입이다. 그것은 살아 있음의 격렬한 확인을 통해, 시간과의 새로운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

1. 감상하며 읽기  
보충심화

## 선생님과 함께 읽는 우리수필

나희덕, 이상 / 실전문학사 / 2000 / 383쪽 / 6,500원

고등학생을 위한... 하는 책들을 보면 대부분 문학책에 나오는 지루한 글들을 모아놓은 것이 대부분이다.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책들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입시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청소년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면서도 수준이 있는 우리나라의 수필들을 모아 놓은 책이다. 특히 재미있게 읽었던 것은 유달영의 '누에와 천재', 신영복의 '청구회 추억'이었다. '누에와 천재'는 누에를 먹으면 천재가 된다는 말을 끝이곧대로 믿고 커다란 누에를 생으로 삼켰던 체험담이 유머러스하게 그려지고 있다.

## 꽃감과 수필

윤오영 / 태학사 / 2000 / 246쪽 / 6,000원

태학산문선 시리즈 중 한국현대산문 첫 번째 권으로 윤오영의 수필 55편을 모은 책.

이 글에서 저자는 글과 인생, 사회의 면면들을 자신의 독특한 색채로 풀어낸다. 미세 검을 파는 아나베들의 모습에서 점점 각박해지는 세태의 한 단면을 꼬집기도 하고 다락의 조그만 창문으로 자연풍경을 감상하며 일상의 작은 행복과 여유를 즐기기도 한다.

또 가난에 쪼들려 틀니 대신 잇몸으로 밥을 드셨던 어머니를 떠올리는 글에서는 “담배를 피워 물며 손으로 머리카락을 움켜쥐다”는 표현으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자책감을 절절히 표현해낸다. 특히 깎두기나 양잠 등의 소재를 통해 글과 수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펼쳐낸 부분들은 독창적인 비유와 표현의 전범이 될만하다.

## 감자, 배따라기

김동인 / 청목사 / 2000 / 221쪽 / 5,000원

한국 근대 단편소설의 효시라 할 수 있는 낭만주의적 경향의 『배따라기』, 여성의 심리를 추적한 『감자』, 탐미주의적인 작품 『배회』를 비롯하여 각 작품마다 독특한 예술적 향기를 풍기는 『광염 소나타』, 『광화사』 등 주요작품 10편이 수록되어 있다.

## 2. 어떻게 읽을까

## 교과서 미술읽기

최일주 / 용진닷컴 / 1999 / 170쪽 / 6,500원

<교과서 미술 읽기>는 어린이들이 미술을 '읽기'하는 게 아니라 느낄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책이다. 작품을 앞에 놓고 차근차근 설명해주듯, 또는 할머니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듯 유명한 미술품들을 자상하고 마음에 와닿게 이야기해준다.

교과서에 실린 작품들 가운데 어린이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을 가려 뽑아 가장 핵심적인 요점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작품이 탄생하기까지의 작가의 삶과 고뇌, 시대 배경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자세히 다룬다.

이 책에는 유명 작가의 대표적인 작품들뿐 아니라 민화와 풍속화, 숯대와 장승, 단청과 석굴암 등등 동양과 서양, 옛것과 지금껏, 회화와 건축물, 공예물까지 모두 아울러 다루는 영역에 있어서도 하나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 알고 나면 미술박사

가나아트갤러리 편집부 / 가나아트갤러리 / 1999 / 190쪽 / 10,000원

자녀들과 함께 미술관을 찾고 싶어도 미술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탓에 선뜻 내키지 않는 초심자를 위한 책. 소리와 글자는 직접적이고 명확한데 비해 미술의 이미지는 다소 모호하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약간 어렵다. 그러나 직설적, 상징적, 해석적, 상상적인 것 등 다양한 미술작품의 이미지를 구분할 안목을 키우기만 하면 미술도 자연스레 친숙해진다고 한다.

전시관람 요령, 작품 감상법, 외설과 예술의 차이 등을 설명하고, 키치·콜라주·트리엔날레·타블로·포스트모더니즘 등 미술용어를 해설했다



## 2. 어떻게 읽을까 1) 읽기란 무엇인가

### 고치고 더한 수필로 배우는 글 읽기

적시안 / 문학과지성사 / 2001년 / 296쪽 / 8,500원

청소년들의 읽는 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그것을 체계적으로 기르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읽기의 기초 훈련에 가장 알맞은 수필을 대상으로 기본원리를 세우고 그에 따라 실제 연습을 하도록 마련되었다.

작가는 이 책을 통하여 읽기가 무엇이고 왜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것이 중요한지를 밝히고 또 어떻게 해야 제대로 읽을 수 있는 지 읽기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읽기를 싫어하고 읽는 힘이 부족한 초보자들에게 읽는 법을 친절하게 알려준다.

처음에는 읽기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 지식과 이론적 배경을 제시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책 읽는 방법을, 마지막에는 이론적으로 익힌 내용을 실제로 적용해 보는 독해 문제를 제시하여 앞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확인, 강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저절로 책읽기의 길을 찾아내어 누구나 그 방법을 내면화할 수 있다.

신세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표현 기법들을 가지고 설명을 시도하고 있으며, 실생활과 관련된 예화를 적절한 대구표로 만들어 명확하게 대비시킴으로써 누구나 필자가 의도한 바를 쉽게 간파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 중학생이 알아야 할 동서양 고전 - 사상 편

성낙수 외 / 신원문화사 / 1998년 / 394쪽 / 7,000원

이 책은 동서양의 철학 고전을 간략하게 해설한 다이제스트로, 명심보감, 순오지, 순암집, 완당전집, 면암집, 나의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효경, 예기, 손자병법, 소학, 처세론, 행복론, 명상록, 통치론, 이것이나 저것이나, 인생론, 아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인간의 확장 등 동서양 고전 18 편이 담겨 있다.

작품 첫머리에 <읽기 전에>를 두어 작품을 감상할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해 주었고, <작품 해설>에서는 작품 경향, 주제, 구성 및 배경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작품의 이해와 내용 파악이 쉽도록 되어 있다.

### 점득이네

권정생 / 창작과비평사 / 1990년 / 252쪽 / 6,000원

이 책은 <강아지똥>으로 유명한 권정생의 창작 동화이다.

만주에 살던 점득이네는 해방이 되면서 고향을 찾아 돌아오지만 고아가 된다. 점득이 남매는 먹고살기 위해 석탄 장사를 하고, 노래를 불러 돈을 모아 만주로 되돌아가려 하지만 휴전선에 막혀 가지 못한다. 이 책에 나오는 점득이 가슴에 맺힌 한은 우리 겨레의 한이기도 하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는 분단으로 고통받는 우리 민족의 한을 통일된 세상으로 하루 빨리 풀어야 함을 절실히 깨달을 것이다.

### 책 읽는 소리

정민 / 마음산책 / 2002 / 256쪽 / 9,000원

<돌 위에 새긴 생각>, <와당의 표정> 등 독특한 글쓰기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젊은 한문학자 정민 교수의 고전 독서 에세이.

이 책은, 옛 글 속에서 볼 수 있는 선인들의 내면 풍경을 온전히 되살려내는데 성공하고 있다. 옛 사람들은 지식이 아닌 지혜를 얻기 위해 책을 읽었다. 세상을 보는 안목과 통찰력은 모두 독서에서 나왔다. 현재의 우리들 역시 선인들의 이러한 독서관을 본받음으로써, 어떠한 상황에서도 맥락을 짚어낼 줄 아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이 지은이의 생각이다.

### 어느 게으름뱅이의 책읽기

이권우 /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 2001 / 203쪽 / 8,000원

스스로 '도서평론가'라 일컫는 (저자가 아마 이렇게 쓴 이유는 '도서평론가'라는 직함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자리잡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전『출판널』편집장인 이권우의 독서일기. 그가 책동네에 몸담고 있으면서 썼던 글을 모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다.

저자가 제시하는 책읽기의 방법은 크게 '겹쳐 읽기'와 '깊이 읽기'이다. 겹쳐 읽기는 책을 허술히 읽지 않고 성실하게 읽기 위해 그가 제안하는 방법으로, 공통분모를 찾아볼 수 있는 책 두 서너 권을 겹쳐 읽는 것이다.

## 2. 어떻게 읽을까 1) 읽기란 무엇인가

### 80일간의 세계 일주

질 베른 / 두산동아 / 2001 / 152쪽 / 5,500원

1873년에 발표된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베른의 작품 중에서도 독자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베른의 작품은 과학적인 상상력이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데,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과학보다는 지리적인 지식들로 가득 찬 독특한 작품입니다.

포그 씨의 세계 여행은 비행기를 이용하는 오늘날의 여행보다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풍속, 문화, 지리, 역사가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 여행이니까요. 또한, 전형적인 영국 신사 포그씨와 낙천적이고도 자유스런 기질을 가진 프랑스인 하인 파스파르투가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용기와 지혜도 즐거움을 더해 줍니다.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어떤 어려움이라도 과학적인 사고와 지식, 그리고 모험심으로 이겨 낼 수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 주는 작품입니다.

### 생명시대

김소희 / 학고재 / 1999 / 310쪽 / 15,000원

이 책은 다큐멘터리 전문 프로덕션 인디컴이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굵직굵직한 환경문제를 취재하고 만들어 KBS TV에서 1997년 10월부터 6개월간 방영한 시리즈 『생명시대』의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감 넘치는 자료와 사진·삽화를 덧붙여 만든 지구생태 종합 보고서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에는 지구 온난화, 치명적인 생화학무기를 뿌려대는 현대전쟁, 전쟁으로까지 번질 물 부족 사태 하천과 숲 파괴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인간과 동식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생명 복제, 갯벌 파괴가 과연 인간에게 이로운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또한 ‘원시적’이지만 자연에서 쓰고 자연으로 돌려주는 환경 친화적인 소규모 프로젝트들, 예를 들면 생태공동체로 다시 태어난 작은 도시, 아이들을 자연의 일부가 되도록 교육하는 대안학교, 생명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고 사는 토착민들의 지혜,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을 찾아 실용화한 합리적인 사고방식 등 서서히 결실을 얻어가고 있는 본보기도 보여 준다.

## 2. 어떻게 말할까 2) 재미와 말한다

### 뇌

베르나르 베르베르 (이세욱) / 열린책들 / 2002 / 301쪽 / 8,500원

열 두살 무렵부터 재미를 관찰했고, 그때부터 재미만 가지고 20여 년의 세월을 보냈으며, 재미에 관한 소설을 쓰기 위해 12년 동안 컴퓨터와 씨름한 프랑스의 천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오히려 프랑스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작가이다.

과학 발달로 컴퓨터가 인간을 물리치고 체스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획득한다는 설정으로 시작되는 이 작품은 뇌에 대한 최근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인간 한계의 새로운 지평을 추리형식으로 풀어간다.

### 개미제국의 발견

최재천 / 사이언스북스 / 1999 / 146쪽 / 15,000원

여왕개미, 수캐미, 일개미 등이 건설한 개미제국의 이야기를 통해 비록 몸집은 작지만 지구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는 개미사회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 부제는 ‘소설보다 재미있는 개미사회 이야기’다.

저자는 개미사회를 통해 인간의 모습을 엿보며, 우리 스스로의 삶을 돌이켜보게 한다. 저자가 재미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된 것은 하버드 대학원 시절 1984년 여름 중남미 열대림에서 열대생물학을 수강하면서였다고 한다. 그후 10여 년을 중남미 열대림에서 보냈다. 미국 곤충학회로부터 젊은 과학자상(1989)을 받기도 했다.

## 2. 어떻게 읽을까

### 3) 축복받은 성격

### 성자가 된 청소부

**바바 하리다스(류시화) / 정신세계사 / 1999년 / 330쪽 / 7,500원**

이 책은 “침묵의 성자”로 온 세계에 알려진 인도의 영적 스승 바바하리다스가 작은 칠판에 글로 써서 전한 일곱 편의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를 엮은 것으로서 세속적인 삶 속에서 마음의 평화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다.

이 책에 실린 글들은 히말라야 지방에서의 자신의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씌어진 그의 대표적 인 작품들이다. 소설의 형식을 빌려 이 작품들은 청소부로 살다가 성자가 된 사람, 감자 농사를 짓다가 생의 집착에서 벗어나 해탈한 사람, 온갖 삶의 역경을 거쳐 비로소 자기 내면에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의 평화를 얻은 사람들의 진술하고도 의미 깊은 이야기들이다.

이 책은 그런 뜻에서 단지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문학 작품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진실에 대한 깨달음과 마음의 평화를 얻는 길을 가르치고 있는 종교 서적이라 할 수 있다.

### 자기대로 삼시다

**이시형 / 풀잎 / 2001 / 282쪽 / 7,500원**

정신과의사 이시형 박사가 3천명의 보통 한국사람과 2백여 명의 저명인사를 직접인터뷰,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삼아 쓴 이 책은 당신의 당면한 성격문제를 명쾌하게 풀어 줄 것이다. 성격문제에 관한 명확한 해답을 주고 있다.

### 19세

**이순원 / 세계사 / 1999 / 250쪽 / 7,000원**

한 소년의 열세 살에서 열아홉 살까지 삶의 기억을 담은 작가의 자전적 성장소설. 어른 세계로의 입사식(入社式)을 무사히 치러내기 위한 통과제의로서의 교육과정, 우리들의 푸르른 그 시절의 꿈을 바치는 소중한 앨범과도 같은 책이다.

대사가 생생히 살아있어, 마치 옆방에서 두런두런 나누는 이야기를 듣고 있거나 저자거리의 싸움판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 이 소설의 특징이다.

## 3. 우리 고전의 맛과 멋

### 1) 서동요

### 옛아이들의 노래와 놀이읽기

**편애문 / 박이정 / 2002년 / 292쪽 / 12,000원**

책은 크게 연구 편과 자료 편으로 나뉘어 있는데, 연구 편에서는 옛 아이들의 노래와 놀이의 분류와 놀이를 하는 동기를 꼼꼼히 찾고, 하나 하나의 노래와 놀이가 지닌 현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바로 잡아 준다. 자료 편에서는 현장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들은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아 참고할 수 있게 하였다.

안동 지역을 현장 답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노래를 그 기능과 노래 주체의 인식을 분류 갖대로 삼아 구분하였으며, 일반적으로 대립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요소들이 공존하는 양상을 살펴보고 있다. 아이들 노래 이외에도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불렀던 ‘아이 어르는 노래’와 ‘아이 재우는 노래’도 함께 수록하였다.

### 얼굴 빨개지는 아이

**장 자크 상베(김호영) / 열린책들 / 2002년 / 122쪽 / 7,500원**

하얀 백지에, 검은 펜으로 그려진 사람들, 하얀 얼굴을 한 군중 속에 누가 봐도 한번에 알아볼 만큼 유독 새빨간 얼굴을 한 주인공. 그리고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재채기에 정신 없는 그의 친구. 마르셀랭과 르네는 서로 닮은 모습을 보면서 그때까지 아꼈던 서로의 특징들을 우정 안에서 즐거움과 신나는 낯날로 이어간다. 즐거움도 잠시뿐, 르네가 이사를 가고 마르셀랭은 다시 혼자 되어 다른 친구들과 사귀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어른이 돼서 우연히 다시 만난 이 둘은 더욱 깊은 우정을 느낄 뿐이다.

이 책은 글을 읽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그냥 그림만 보고도 대충 즐거움을 알 수 있을 만큼 실제적인 묘사를 해대는 삽화들은 넘기기가 아쉬워 자꾸 앞 책장을 뒤적지게 만든다. 마치 그림동화 같이 읽으면서 보고, 느끼는 재미를 한꺼번에 주는 책이다. 쉽지만, 가볍지 않고 따뜻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얀 백지에 검은 펜으로 그려진 사람들이 인상에 남는다.

3. 우리 고전의  
맛과 멋  
1) 서등요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고전 1-8

**김선아 외 / 현암사 / 2000년 / 136쪽 / 6,000원**

흔히 '고전'이라고 일컫는 작품을 대할 때 누구나 그 내용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고전을 읽어 본 사람은 드물다. 제대로 된 고전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고전' 시리즈는 원작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쉽고 친근하게 다시 써 독자 누구나 쉽게 우리 고전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 책은 각 작품마다 그림을 그려 넣어 원작의 분위기를 최대한 살리고 책을 읽는데 흥미를 더하고자 했다. 청소년은 물론이고 일반인도 우리 고전을 제대로 읽고 올바르게 알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1-2

**이윤기 / 용진닷컴 / 2001년 / 351쪽 / 12,000원**

기존의 신화 관련서는 서구의 사회 문화적 풍토와 배경 하에 서양 시각과 안목에서 해석, 집필된 '그리스 신화'가 주종을 이룬다. 이는 신화가 배태된 문명권 내의 필자들의 저작이 보다 본질적인 신화 원형에 접근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되지만, 기독교 문명과 서구적 시각으로 편중되는 단점이 있었다.

또 서양문명권에서 성장하지 않은 우리 독자들에게는 낯것으로 노출되어 거부감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필자에 의한 '신화로의 접근'은 신화 자체를 우리식 정서와 상상력, 안목으로 익혀내 우리들에게 '신화 이해'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것이다.

중학생이 알아야 할 고전

**구인환 / 신원문화사 / 2000 / 358쪽 / 7,000원**

고전 속에는 그 나라 민족의 기질과 전통이 녹아 있기 마련이다. 우리 나라의 고전 문학 작품 역시 5천년 열이 마디마디마다 진하게 배어 있지 않은 것이 없다. 향기 높은 고전 문학은 선인들의 삶을 그려보고, 교양을 살찌우는 마당이 될 것이다.

삼국유사

**일연 / 을유문화사 / 2002 / 624쪽 / 18,000원**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더불어 우리 고대 사적(史籍)의 쌍벽을 이루는 최고(最古)의 역사서인 <삼국유사>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삼국사기>가 기록하지 않은 고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과 가락국의 역사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또한 단순 신화를 비롯한 우리의 신화와 설화들의 원형, 정형 시가의 가장 오래된 형태인 향가 14수, 방대한 불교 자료와 민속 신앙, 일화 등이 실려있어 국문학뿐만 아니라 지리, 사상, 종교, 민속 등의 연구에도 소중한 가치를 지닌 문화 유산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미 <사기열전> <정관정요> <삼국지> 등의 번역을 통해 고전과 독자들의 거리를 좁혀놓았다는 평가를 받는 김원중 교수의 번역을 통해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대중들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우리 고전의  
맛과 멋  
2) 슬건설

재미가 솔솔 나는 우리 옛 이야기

**돋움자리 / 시공주니어 / 1999 / 208쪽 / 6,000원**

화왕계, 임춘의 공방전, 이곡의 죽부인전, 식영암의 정시자전, 이규보의 국선생전, 임제의 서옥설과 화사, 서대주전, 금방울전, 금섬전 등의 이야기 등 신라, 고려, 조선 초의 훌륭한 문인들이 쓴 가전체 소설들과 고대소설 가운데 수작을 가려 뽑은 이야기 책이다.

각 이야기마다 은유와 상징이 뛰어나 학생들이 옛 문학의 향기를 느끼기에 적당하다. 무엇보다도 학생들 눈 높이에 맞게 쉽고 재미있게 썼다는 점이 이 책을 돋보이게 한다.

### 3. 우리 고전의 맛과 멋

#### 2) 슬건설

#### 옛 시 읽기의 즐거움

**이집이슬 / 2002 / 206쪽 / 9,000원**

선인들의 시 50편을 쉽게 풀이해 놓은 책이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옛 시를 읽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지은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토대로 옛 시를 우리 일상사와 엮어내 '과거의 유물'이 아닌 '현재의 감동'으로 되살아나게 한다.

1부에서는 안빈낙도를 지향하고 대장부로서의 삶을 실천한 선인들의 이야기를, 2부에서는 선인들이 평상심을 유지하는 비결에 대해 살펴보았다. 3부에서는 세속과의 인연을 끊고 깨달음을 위해 정진한 스님들의 내면 세계를 담아냈다.

이 책을 통해 선인들의 장쾌하고 호방한 기상, 가슴속에서 꿈틀거리는 열정, 그리고 고뇌와 한숨을 가까이 느껴보길 바란다.

### 3. 우리 고전의 맛과 멋

#### 3) 토끼전

#### 중학생이 알아야 할 고전

**구인환 / 신원문화사 / 2000년 / 358쪽 / 7,000원**

고전 속에는 그 나라 민족의 기질과 전통이 녹아 있기 마련이다. 우리나라의 고전 문학 작품 역시 우리 민족의 얼이 구절구절마다 진하게 배어 있다.

이 책에는 동명왕 신화(신화), 공무도화가(고대가요), 조신몽(설화), 현화가(향가), 모죽지랑가(향가), 정과정(고려속요), 청산별곡(고려속요), 국선생전(가전), 도산십이곡(시조), 오우가(시조), 매화가(시조), 상춘곡(가사), 속미인곡(가사), 일동장유가(가사), 화전가(가사), 홍길동전(소설), 사씨남정기(소설), 양반전(소설), 원생몽유록(소설), 조웅전(소설), 심청전(소설), 유충렬전(소설), 박타령(판소리), 계축일기(국문수필)가 실려 있다.

향기 높은 고전 문학은 선인들의 삶을 그려보고 교양을 살찌우는 자양분이 될 뿐만 아니라 중학교 국어 교과서와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이 대부분이므로 수업과도 직접 관련되므로 꼭 읽어두어야 한다.

#### 토끼전. 옹고집전. 장끼전. 배비장전 외

**작자 미상 / 범우사 / 2001 / 227쪽 / 6,000원**

우리 고대소설 중에서 풍자적인 작품을 골라 한 권으로 묶었다.

이 가운데 <토끼전>, <두껍전>, <장끼전>은 동물을 인간처럼 다루어 인간과 같은 언동을 부여, 인격화시킨 의인체의 우화소설이고, <옹고집전>, <이춘풍전>, <배비장전>은 예사 풍자소설인데, 대부분 판소리계 소설들이다. 우리에게 진솔한 웃음을 자아내게 하는 한편 위선과 허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이 해학과 풍자 넘치는 소설들은, 조선 후기 서민들의 정서와 체취를 흠뻑 맛볼 수 있게 한다.

#### 하늘빛 한국신화

**이명덕 / 김영사 / 2001 / 165쪽 / 3,900원**

우리 나라 역사 속의 인물 10명을 뽑아 소개한다. 나라를 세운 시조로 알려진 단군에서부터 고구려를 세운 주몽, 신라를 세운 박혁거세, 가야국을 세운 김수로 그리고 고려를 세운 왕건 등이 등장한다. 다른 역사책들과는 달리 일기, 편지, 신문 기사, 만화의 형식을 적절히 섞어가며 설명하기 때문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각 단락의 끝에는 '알짜 상식' 코너를 두어 해와 달 이야기와 같은 전래 동화나 역사적 사실들도 소개한다.

### 4. 삶과 문학

#### 1) 가정

#### 49일간의 비밀

**작크 팡스텐(박은영) / 문원 / 1996년 / 206쪽 / 6,000원**

프랑스판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감동을 주는 이 책은 <그 날 저녁이 오기 전에>의 시나리오를 소설화한 책으로 세계 청소년 화제작으로 평가된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갑작스럽게 고아가 된 마르탱이 고아원에 가지 않기 위해 고아가 된 사실을 어른들에게 비밀로 하고, 열 한 명의 친구들과 어른들 몰래 살아가는 법을 찾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이야기다. 열 두 살 또래들이 죽음이라는 무거운 현실을 우정, 사랑, 용기로 헤쳐 나가는 모습이 읽는 이에게 감동을 준다.

이 소설은 청소년 시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게 한다. 또래 집단이 갖는 비밀이 얼마나 아이들을 결속시키고 의젓하게 만드는 요소인지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의미, 친구의 우정, 문제 해결을 위해 서로 도와 가는 모습들이 빈틈없이 묘사되어 있으며 권위와 획일적인 어른들의 생각을 무너뜨리는 유쾌함이 있다.

#### 4. 삶과 문학 1) 가정

### 가만있어도 웃는 눈

**이미옥 / 장작과비평사 / 1999년 / 174쪽 / 6,000원**

아버지의 실직으로 위기를 맞은 중산층 가정의 이야기로 새롭고 낯선 풍경에서 기록지 않고 오히려 열린 세상을 발견해 나가는 두 형제의 동심을 그렸다. 실직을 새로운 기회로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을 가진 부모와, 엄마의 나약한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위로해 주는 아이들. 서로 친구 같은 관계를 건강한 가족의 표상으로 설정하고 있다.

투명 우주캡슐을 탄 것 같은 기분이 들던 강변아파트 17층에서 어둡고 눅눅한 반 지하 집으로 이사한 세록이·초록이 형제는, 이 동네에서 새롭게 알게 된 푸근하고 친근한 사람들의 얼굴에서 '가만히 있어도 웃는 눈'을 가졌다는 공통점을 발견한다.

하루아침에 거지가 된 왕자 같은 기분을 느끼는 아이들에게 “세상은 한 권의 책이라는 말이 있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린 새롭고 낯선 동네라는 책을 읽고 있는 거야. 늘 넓은 아파트와 좋은 환경만 읽으면 재미없잖아. 편식하면 안 되는 것처럼 세상을 골고루 읽어보렴.”하고 말하는 엄마의 마음이 무척 감동적이다.

### 새

**오정희 / 문학과지성사 / 1996년 / 154쪽 / 5,000원**

노동자인 아버지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어머니가 집을 나간 뒤 남동생 우일과 함께 친척집을 전전하던 나날, 아버지가 데려온 술집 여자와 달동네의 단칸방을 얻어 꾸리는 생활, 그 과정에서 엮본 이웃사람들의 슬픈 삶, 술집 여자마저 집을 나가고 그 여자를 좇느라 아버지도 돌아오지 않는 가운데서 맞이한 동생의 죽음 등의 경험이 우미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아름다운 꿈을 꾸는 한 남매가 있다. 그러나 부모에게서, 세상 사람들에게서 절저히 외면당하고 소외되어 자신들의 꿈을 이루는 일이 힘에 부친다. 누이는 아우를 위해 엄마가 되고 누나가 되고 선생님이 돼주지만 아우는 불행한 죽음을 맞는다. 누이는 생전에 새가 되어 푸른 창공을 날고 싶은 꿈을 꾸던 아우를 위해 그 아이의 꿈을 실현시킨다.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서 아우는 새가 되어 날아간다.....” -KBS 드라마 계시판에서-

### 내가 사랑하는 사람

**정호승 / 현대문학북스 / 2000 / 130쪽 / 5,000원**

어른들을 위한 동화 『모닥불』로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지퍼주었던 작가 정호승. 이번 작품은 시인인 정호승의 30여 년에 걸친 그의 시작활동의 결과물들을 담아 내고 있다. 낯익은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와 낯선 느낌과 감동으로 많은 독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의 이번 작품 역시 익숙한 느낌의 시작으로 독자들은 그들만의 독특한 시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신경림 / 우리교육 / 1998 / 352쪽 / 8,000원**

정지용, 조지훈, 김영랑, 김수영, 천상병 등 한국문학사에 큰 줄기를 이루는 시인들의 삶과 시를 신경림 시인이 자신과의 인연을 회고하며 쓴 시 해설서. 정지용의 시 '향수'에 나오는 실개천이 있는 마을 옥천, 김영랑에게 시의 물줄기를 제공해 주던 우물을 간직한 강진의 영랑 생가 등 이미 작고한 시인 22인의 생가, 의 배경이 된 곳 등을 여행하며 시와 함께 엮어, 시가 내포하는 참된 의미를 생생하게 전달해 준다.

얼마전 느낌표라는 MBC 방송국 프로그램에서 추천도서로 소개하여 더 유명해진 책으로 부담없이 한번 읽어 볼만한 책이다.

### 국어 시간에 시 읽기

**전국국어교사모임 / 나라말 / 2000 / 191쪽 / 5,500원**

학생들의 정서를 움직일 수 있는 시를 모아 엮은 자료집. 학생들의 애송시 100여 편을 가려 뽑아 시를 읽는 재미, 세계의 중심, 가족 이웃 삶, 작은 발견 큰 기쁨, 지혜, 혹은 삶의 깊이, 시 역사의 꽃 등 8부에 나눠 수록했다.

#### 4. 삶과 문학 2) 기억 속의 들꽃

###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박완서 / 용진닷컴 / 1995년 / 294쪽 / 7,000원

개성 박적골에서의 어린 시절과 전쟁으로 혼란한 서울에서의 20대까지 모습을 그린 작가의 자전적 성장소설이다. 너무나 한국적인 어머니의 심리와 고향에 대한 묘사가 뛰어나다. 10대에 일제 강점기, 해방, 6·25전쟁을 겪으며, 어린 눈으로 바라본 그 시절 사회와 사람들의 모습이 감칠맛 나는 문체로 쓰여졌다.

평온했던 어린 시절, 전쟁을 치르고 분단이 된 민족사 안에서의 지은이 자신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쓴 가족사이긴 하지만 분단과 이데올로기 전쟁을 겪은 민족사와 그 시대 민초들이 당해야만 했던 고난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이 책은 6·25 전까지의 얘기를,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는 6·25와 그 이후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40년대에서 50년대로 들어서기까지 우리의 사회상, 풍속, 인심 등을 자료로서 정형화된 것이 아닌 자상하고 진실된 인간적인 증언으로 알게 될 것이다.

###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박완서 / 용진닷컴 / 2001년 / 323쪽 / 7,000원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후속 편으로 마음 설레며 읽기 시작한다. 기대가 크면 실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책에서는 그런 걱정은 전혀 필요가 없다.

오빠의 죽음을 시체 썩는 냄새로 기억해야 했던 암울한 시절과 먹고살기 위해 철면피로 살았던 인공 치하 서울 생활. 인간이라면 이럴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런 세월이 정녕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박완서가 그 시절 삶의 무게를 그대로 소설에 부려 놓고 있다.

1951년부터 1953년 결혼할 때까지의 이야기를 그린 이 소설은 가치관의 혼란과 정신적인 파탄을 안겨다 준 참혹한 전쟁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는 주인공의 삶이 담겨 있으며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이십대의 예민한 감수성이 드러나 있다. 공부에 전념하기에 유혹이 너무 많은 시대, 적절한 결핍이 우리에게 더 큰 동기 부여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

### 인연

피천득 / 샘터사 / 2002년 / 271쪽 / 8,000원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수필문학의 대가 피천득씨의 수필집으로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애독한 가슴저림으로 만났던 수필 '인연'을 필두로,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일상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우게 하는 '플루트 플레이어' 등 주옥같은 명수필 80여 편을 모아 엮었다.

이 수필들을 읽어 나가면서 우리는 이 시대가 진정으로 원하는 모범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 저자 피천득은 다정하며, 욕심이 없으며, 현명하며, 이타적인 사람이다.

### 인생은 지나간다

구효서 / 마음산책 / 2002년 / 222쪽 / 7,500원

이 책은 <강통따개개 없는 마을>, <메벌> 등 서정적 이야기를 담아낸 소설들로 사랑받는 구효서의 추억이 깃든 산문집이다. 흑백사진과 함께 엮어낸 이 글을 읽다보면 이제껏 지나온 삶의 여정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옛 기억의 편린들에서 우리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또한 물동이, 세고비아 음반, 젓가락, 전화, 종이, 주걱, 이튿만 들어도 정겨운 사물들에 시선을 주는 길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도 부드러워짐을 느끼게 된다.

#### 4. 삶과 문학 생각 넓히기

### 나와 조금 다를 뿐이야

이금이 / 푸른책들 / 2000 / 179쪽 / 6,000원

영무가 정서 장애라는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수아를 이해하는 과정을 그린 장편동화. 수아는 영무나 성남이와는 조금 '다른' 아이이다. 제멋대로 행동하고,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그대로 표현한다. 그래서 항상 말썽이 일어난다. 아이들은 수아를 못살게 굴기도 하지만, 전학을 간 수아의 빈자리를 보며 그리워한다. 아이들의 심리를 세밀하게 짚어내는 지은이의 묘사력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행동을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지은이는 정서 장애를 앓고 있는 수아와 함께 생활하면서 조금씩 변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통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소중한 마음을 보여준다.

4. 삶과 문학  
생각 넓히기

## 선생님과 함께 읽는 김소월

도중환 / 실천문학사 / 2001 / 182쪽 / 6,500원

소월은 역시 소월입니다. 소월의 시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시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할 때도 그렇고 우리 시의 진정한 출발을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사회현실에 대한 과학적 인식으로 접근해 온 시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많은 일들 때문에 앞으로 치달려만 왔다면 소월의 정서에서부터 다시 눈을 돌려 변증법적인 질적 발전을 해나갈 수 있다면 하는 욕심이 들어서입니다.

소월은 논리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시란 역시 인간의 삶에 대한 정서적 접근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월 시가 걸여온 길과 죽음, 그리고 그 뒤의 여백 위에 지금 우리 시가 새롭게 출발해야 할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 선생님과 함께 읽는 정지용

도중환 / 실천문학사 / 2001 / 182쪽 / 6,500원

이 책은 한국 근대문학사가 왕따 시켰던 정지용과 그의 시를 통하여 그가 살았던 시대를 더듬고자 하는 흔적으로 채워졌습니다. 정지용의 시를 거울로 삼아 그가 살았던 시대와 지금의 시대를 비추어봅시다.

4. 삶과 문학  
보충심화

## 김소월 시집

김소월 / 학서 / 1999 / 225쪽 / 5,000원

우리 나라 최고의 시인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비롯한 시 121편을 수록하였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작품 26편을 골라 국문학 박사의 자세한 해설과 함께 소월의 생애 등을 조명해 보았다.

##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신석정 / 창작과비평사 / 1998 / 174쪽 / 5,000원

발문에서 시인 이광웅이 말했듯 신석정시인은 시에 대한 생활력으로 삶을 뛰어나간 분이다. 어려운 시대를 깨끗하게 살면서 투명한 서정성의 세계를 성취한 신석정 시의 대표작을 시집 간행 순서로 부를 정해 제1부 촛불, 제2부 슬픈 牧歌, 제3부 氷河, 제4부 대바람 소리로 묶었다. 한편 시집으로 묶지 못한 작품 20편을 찾아서 제5부로 수록하였다.

## 0교시 문학시간

이남익 / 나라말 / 1999 / 248쪽 / 7,000원

이 책은 한마디로 중·고교생을 위한 문학 입문서라 할 수 있다. 현직 교사인 저자가 오랫동안 현장에서 쌓아온 문학 수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써나간 이 책은, 아직도 섬세한 감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젊은 여성생님이 마치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얘기하듯이 친절하고 쉽게 문학의 여러 이론과 실제에 대하여 풀어가고 있다.

따라서 국어시간을 따분히 여기던 많은 청소년들이 흥미를 갖고 스스로 문학에 대한 소양을 쌓기에 적당한 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양하고 예쁜 삽화를 넣어 더욱 학생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꾸민 것도 이 책의 큰 매력이다.

## 할머니

페터 헤르틀링 (박양규) / 비룡소 / 1999 / 124쪽 / 5,500원

독일 청소년 문학상 수상작. 사고 방식이 달라 티격태격하던 할머니와 손주가 차츰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을 그렸다.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꼬마 칼레는 혼자 사는 할머니의 집으로 들어간다. 할머니는 목소리가 크고 정의감이 강하며 누구에게든 지는 법이 없다.

칼레와 할머니는 같은 집에 살면서 서로 삶의 방식이 달라 사사건건 부딪친다. 할머니는 옛날 이야기 하기를 좋아하지만 칼레는 관심이 없다. 칼레가 동무와 놀다가 바지가 찢어지자 할머니는 ‘범인’을 찾아내 변상을 요구하려 하지만 칼레는 거기에 반대한다.



4. 삶과 문학  
보충심화

## 몽실언니

권정생 / 창작과비평사 / 2001 / 256쪽 / 7,500원

해방 직후부터 50년대까지를 배경으로 삶이 피폐해진 생활 속에서도 착한 마음을 잃지 않는 몽실이와 동생 난남이가 겪는 세상살이를 담은 장편동화. 아버지와 엄마, 새아버지와 새엄마, 인민군 언니들과의 만남과 이별을 통해 성장해 가는 몽실이의 모습을 담담하게 그렸다. 한쪽 다리를 다쳐 절름발이가 된 몽실이의 눈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가를 알려준다.

<작가의 말> - 이 이야기에 나오는 몽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한 것과 나쁜 것을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탄 데 시집을 간 어머니도 나쁘다 않고 용서합니다. 검둥이 아기를 버린 어머니를 사람들이 욕을 할 때도 몽실은 그 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나무랍니다. 몽실은 아주 조그만 불행도, 그 뒤에 아주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몽실은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자라나면서 몸소 겪기도 하고 이웃 어른들에게 배우면서 참과 거짓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조그마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모두 몽실 언니한테서 그 조그마한 것이라도 배웠으면 합니다. - 권정생

## 5. 글과 사전

1) 사전을 찾아가  
며 읽는 즐거움

## 무엇을 어떻게 쓸까

이오덕 / 보리 / 1995년 / 238쪽 / 6,000원

말이나 생각처럼 잘 쓰여지지 않는 글, 어떻게 하면 쉽게, 제대로 글쓰기에 접근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을 이오덕 선생님께서 해 주신다. 이 책은 이오덕 선생님이 청소년과 중·고등학생들에게 주는 글쓰기 길라잡이 책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수단으로서의 글쓰기가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 말을 찾으며 저마다의 삶을 찾을 수 있는 길이 되는 글쓰기를 일러준다. 여러 가지 갈래에 따른 글쓰기 방법, 글쓰기와 문학의 관계를 밝히고 학생들이 쓴 시와 시인들이 쓴 시의 문제점을 밝히고 있으며 우리말을 살려 쓰는 길도 가르쳐주고 있다.

## 나는 만화에서 철학을 본다

이주향 / 명진출판사 / 2000 / 225쪽 / 8,700원

80년대의 이현세, 강철수, 황미나, 신일숙의 작품에서 90년대의 천계영, 양영순, 박희정, 유명 일본 작가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총 스물 다섯 편의 만화를 통해 현재의 모습을 조명한 책.

철학이란 무엇인가. 철학의 사전적 의미는 '세계나 인생의 근본 원리에 대한 견해'라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만화에서 뿐만 아니라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철학을 볼 수 있다. 심지어는 휴지통이나 찌그러진 강통에서도 철학을 볼 수 있다. 우리 주변의 어느 것에서도 찾으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도구로서 만화를 선택하여 풀어가고 있다.

## 5. 글과 사전

## 2) 잠은 왜 잘까

## 중학생이 알아야 할 수필

구인환 / 신원문화사 / 2001년 / 342쪽 / 7,000원

수필은 우리의 세계를 보는 시각을 넓히고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상을 확대하고 교차시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한다. 이 책은 이러한 수필의 이해와 감상을 위해 중학생에게 알맞은 수준의 수필들-<어린이 예찬>, <청춘 예찬>, <석남꽃>, <신록 예찬>, <생활인의 철학> 등 주옥같은 수필 51편-을 모아 수필 감상의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다

작품마다 '읽기 전에'를 두어 놓치기 쉬운 주요 부분이나 주제 속에 숨어 있는 메시지를 제시하였으며, 수필 감상의 극대화를 꾀하였고, '작가 소개'에서 작가의 삶의 여정을 살피고, '작품 해설'을 더하여 작품을 폭넓게 이해하고 감상하며, 인생을 깊고 넓게 바라보는 시각을 기르도록 하였고,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어려운 구절이나 단어에는 세세히 주를 달아 학습에 유용하도록 하였다.

## 인연

피천득 / 샘터사 / 2002 / 272쪽 / 8,000원

애뜻한 느낌을 전해주는 피천득의 시 같은 수필집이다. 정갈하고 단아한 문체의 수필이 80여 편 실려있다.

"그리워하는데도 한 번 만나고는 못 만나게 되기도 하고, 일생을 못 잊으면서도 아니 만나고 살기도 한다. 아사묘와 나는 세 번 만났다. 세 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오늘 주말에는 춘천에 갔다오려 한다. 소양강 가을 경치가 아름다울 것이다."

이 부분은 <인연>의 끝대목이다. 몇 번이고 되뇌게 만드는 애뜻함이 가슴을 가득 채운다. 이 책을 통해 추억의 책갈피를 들춰보는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

## 5. 글과 사전 2) 잠은 왜 잘까

### 뇌에 관해 풀리지 않는 의문들

김중성 / 지호 / 2000 / 287쪽 / 10,000원

인간의 뇌는 현대과학이 아직까지 속시원히 규명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 중 하나이다. 이 책은 캐면 갠수록 놀랍고 신비로운 사실이 속속들이 밝혀지는 우리의 뇌에 관해 국내외 저명한 신경과 전문의인 김중성 박사가 흥미롭게 서술한 책이다.

7백만 년 전 영장류에서 갈라져 나온 인간은 사자가 이빨을 날카롭게 하고, 기린이 목 길이를 늘이는 동안 오로지 대뇌를 크고 무겁게 진화시켜왔다. 이 책은 이러한 진화론적 발상으로 시작하여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실들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생존 경쟁의 결과라고 이야기한다.

저자는 의학과 관련된 진화론적 이야기인 ‘늡으면 왜 병에 걸리는가’, 우리 뇌가 어떻게 변해 가고 있으며 뇌가 망가지면 어떠한 증세가 나타나는가를 재미있게 풀어 쓴 ‘인간의 머리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가’, 그리고 남녀의 뇌의 차이와 그 이유를 밝힌 ‘남자와 여자의 뇌는 다른가’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 국어 시간에 수필 읽기 1-2

전국국어교사모임 / 나라말 / 2000 / 230쪽 / 6,000원

중학생이 보는 책에는 중학생의 글이 실려야 한다. 또래 아이들의 생활과 감정을 알고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감동은 시작되는 것이다. 좋은 글은 잘 쓴 글, 현학적인 글이 아니라 평범한 글, 솔직한 글이어서 읽는 이에게 “이 정도는 나도 쓸 수 있겠다”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다.

### 초대

김태길 / 샐터사 / 2000 / 232쪽 / 7,000원

수필이란 “마음가는 대로, 붓 가는 대로 쓰는 산문이다”라고 말한다. 다른 문학 장르에 비해서 형식적 규제가 심하지 않다는 뜻일 것이다. 그렇다고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쓰는 것이 수필은 아니다.

원로 철학자이자 수필가인 김태길 선생의 수필집 『초대』를 보면, 수필이 형식이 자유로운 만큼 미학적 통제나 마음의 절제가 얼마나 필요한 양식인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저자는 표현하고 싶은 욕구를 누르고 눌러서 단아한 형상의 글을 빚어낸다. 절제와 욕구가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 『초대』의 수필들이 놓여 있다.

## 6. 작품 속의 말하 는 이 1) 나룻배와 행인

###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 신원문화사 / 2001년 / 253쪽 / 5,000원

전편에 시적(詩的) 정서가 흐르는 산뜻하고도 애뜻한 명작소설이다. 왼손잡이요 곰보인 허생원은 재산마저 날려 장터를 돌아다니는 장돌뱅이가 된다. 그 허생원이 붕평장이 서던 날 같은 장돌뱅이인 조선탄을 따라 충주집으로 간다. 그는 동이라는 애송이 장돌뱅이가 충주댁과 농탕치는 것에 화가 나서 뺨을 때려 쫓아버린다. 그러나 그날 밤 그들 셋은 달빛을 받으며 메밀꽃이 하얗게 핀 산길을 걷게 된다. 늙은 허생원은 냇물을 건너다 발을 헛디더 빠지는 바람에 동이에게 업히게 되는데, 허생원은 동이 모친의 친정이 붕평이라는 사실과 동이가 자기와 똑같이 왼손잡이인 것을 알고는 착잡한 감회에 사로잡힌다. 혈육에 대한 애뜻한 감정이 잘 드러난다.

시처럼 표현한 아름다운 소설을 감상하려면 한번 읽어 볼만한 소설이다.

### 별

알퐁스 도데(신예선) / 책만드는집 / 2002년 / 146쪽 / 6,800원

사람이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 파스함, 사랑, 연민, 눈물로 가득한 알퐁스 도데의 주옥 같은 단편들을 그림들과 함께 엮었다. 더 이상 프랑스어를 가르칠 수 없는 선생님과, 배우고 싶어도 더 이상 배울 수 없는 학생들과 마을 사람들의 가슴 정한 이야기를 담은 ‘마지막 수업’, 프로방스 튀브롱 산맥에서 양을 돌보는 목동의 순수한 사랑 이야기인 ‘별’과 ‘스갱 씨의 염소’, ‘코르뉴 영감의 비밀’, ‘시인 미스트랄’, ‘황금벼를 가진 남자 이야기’ 등 10편이 실려 있다.

특히 목동과 스테파네트 아씨와의 지극히 순수한 사랑을 다룬 <별>과, 황순원 님의 <소나기>를 견주어가면서 읽어보면 흥미가 배가될 듯하다.

## 6. 작품 속의 말하 는 이

### 1) 나룻배와 행인

#### 별

황순원 / 문학과학사 / 2000년 / 242쪽 / 5,000원

황순원(1915~2000)은 초기에는 단편 소설의 완결성과 단일성에 걸맞는 개인의 문제에, 장편 소설을 발표하면서부터는 삶의 총체적 인식에 주력하여 많은 문제작을 남겼다. 대표작에 <독짓는 늑은이>, <학>, <카인의 후예>, <인간 접목> 등이 있다.

그 중, <별>은 어렸을 때 여윈 어머니의 아름다운 이미지를 찾아 헤매는 소년이 등장한다. 소년은 현실 속에서 어머니의 영상을 찾으려는 강한 집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것은 실현될 수 없는 꿈이다. 그러다가 동네 사람들이 누이와 닮았다는 말을 듣고 못생긴 누이와 어머니는 절대로 닮았을 리 없다고 생각하고 마칩내는 누이를 미워하게 된다. 미움의 대상이 되던 누이의 죽음을 계기로 누이의 참사랑을 인식하게 된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소년의 의식의 그만큼 성장했음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 작품은 '성장 소설'인 것이다.

<별>처럼 모성고착에 의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은 김동인의 탐미주의적인 작품인 "광화사(狂畫師)"도 있으니 같이 비교해 가면서 읽으면 한층 더 흥미롭고 의미 있게 작품을 읽을 수 있을 듯하다.

#### 사반의 십자가

김동리 / 민음사 / 1995년 / 406쪽 / 10,000원

예수와 사반의 대립을 통하여 모순된 존재로서의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를 추구한 작품으로, 이러한 모순은 영혼과 육체의 조화에 의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김동리는 이 소설을 통해 이러한 조화의 가능성이 새로운 동양 문화 속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장편 소설은 성경의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작가가 상상적 허구로 만들어낸 인물들(사반, 예수)을 통해 암담한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형상화했다.

특히 사반은 유대민족을 투쟁이란 방법을 통해 구원하려고 비밀 행동 결사대를 만드는 인물이며,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하는 인물이다. 그에 대해 예수는 사반과 적대 관계를 보이는 인물로 인류의 메시아 역할을 한다. 동양적, 한국적 샤머니즘에 바탕을 둔 작가의 세계관이 기독교적인 내용을 결합함으로써 다소 모순을 엿보이기도 한다.

#### 성채

크로닌 / 하서출판사 / 2002년 / 452쪽 / 7,000원

인간 영혼의 성장과정을 보여주는 교양소설로 크로닌을 일약 세계적인 작가로 명성을 떨치게 한 작품. <천국의 열쇠>와 함께 작가의 대표작으로 손꼽는다.

의대를 갓 졸업한 재능 있는 청년의사 앤드루 맨슨은 인도주의적이고 낭만적인 꿈을 안고 의사로서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만 인간의 무지와 탐욕, 무기력에 직면하여 절망하면서도 휴머니즘으로 그것들을 극복해 가며 인간적으로 성숙해 간다.

크로닌의 다른 소설인 '천국의 열쇠'도 마찬가지지만 이 소설 속에는 종교적인 느낌이 가득 풍긴다. 기독교적인 경건함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할까. 아마 이 소설이 주는 따뜻한 분위기는 그러한 종교적 경건함에서 오는 것이 아닐까 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들에게 따스한 위안과 용기를 주는 작품이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권한다.

#### 턱낫한의 사랑법-첫사랑은 맨 처음 사랑이 아니다.

턱낫한(이현주) / 나무심는사람 / 2002년 / 165쪽 / 7,500원

이 책은 한 여승을 사모한 턱낫한 스님의 첫사랑 이야기이다. 총 열 다섯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랑 이야기와 경전 이야기가 한번씩 번갈아 가며 써어 있다.

이 속엔 사랑의 아픔과 거친 감정의 파도, 그리고 사랑의 본질을 수행의 바탕으로 삼은 명징한 깨어 있음이 들어 있다. 그리고 이야기 사이사이의 '금강경'과 '화엄경' 등 대승경전의 핵심을 놀랍도록 단순한 언어로 요약해 놓고, 그것을 통해 존재하는 모든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잘 설명하고 있다.

"사랑에 빠지는 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사랑에 빠진다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함정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일은 참으로 뜻밖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무엇보다도 나는 젊었고 그 사람 또한 젊고 예뻐했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사랑의 마음'에 물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과 희망이 되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다.

6. 작품 속의 말하  
는 이  
1) 나룻배와 행인

님의 침묵(한국대표시인100인 선집4)

한용운 / 미래사 / 2002 / 150쪽 / 6,000원

불교사상, 독립사상, 문학사상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문학의 특징을 가진 만해 한용운의 시집.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과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아아 님은 갔습시다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제 곱조를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 / 신원문화사 / 2001 / 190쪽 / 5,000원

식민지 지식인의 슬픔과 고통, 절망과 고독이 어떻게 그처럼 아름답게 빛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바로 윤동주 시의 핵심이다. 그것은 그의 섬세한 감수성과 순결성,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동심적 순결성을 지키려는 결연함으로 직조된 시정신이다.

6. 작품 속의 말하  
는 이  
2) 사랑손님과  
어머니

무영탑

현진건 / 두산동아 / 2002년 / 551쪽 / 7,000원

경주 여행을 하면서 거의 빼놓지 않고 들르는 곳, 불국을 형상화했다는 절 불국사, 그 마당에 나란히 풍우를 맞으며 서 있는 다보탑과 석가탑, 작가의 또 다른 글, '불국사 기행'에서, 현진건 님이 다보탑을 한껏 차려 입은 성장 미인에, 석가탑을 수수한 차림의 담장 미인에 견준 바 있듯이, 그토록 정교하고 화려하며 장엄한 구조물들을 보면서 저 탑에는 과연 어떠한 사연이 깃들어 있을까 생각해 본 사람들이 꽤 있을 듯하다. 이 책을 읽어보면 구구절절히 가슴을 헤치고 들어오는 탑에 얽힌 애절한 사연을 알 수가 있다.

'무영탑'에는 석가탑과 다보탑에 얽힌 전설, 아사달 아사녀의 애절한 사랑이야기와 함께, 일제 식민 통치가 극에 달했던 시기에 당시의 사회상을 우회적으로 비판되어 있고, 새로운 이상 사회로 나아가고자 하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

무정

이광수 / 신원문화사 / 2001년 / 493쪽 / 7,000원

한국 최초의 현대 장편소설인 '무정'은 우리 나라 초기 현대문학의 거장 이광수의 매일신보에 연재했던 소설이다. 이 책은 중학생이 읽고 독후감을 쓸 수 있도록 엮은 것인데, 형식, 병욱, 영채, 선형 등 네 명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신시대적인 사랑과 계몽주의적 사상을 담은 <무정>을 소개하고 독후감 길라잡이를 덧붙였다.

작품의 주제를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용해시키지 못하고 생경하게 겉으로 노출시켜버린 아쉬움은 있으나, 발표 당시 근대 문명에 대한 동경, 신학문에의 향학열, 자유 연애에 대한 찬양 등으로 신문명을 전하는 복음서 구실을 했다.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면서 1920년대 우리 민족이 처했던 시대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시대적 과제를 더불어 엿볼 수 있다.

백치아다다 외

계용득 / 하서 / 2002년 / 335쪽 / 6,000원

현실적이고 경향적인 작품 세계를 보이다 1935년 <백치 아다다>를 발표하면서부터 인생과 적, 예술적 작품세계를 고정시켜간 작가의 단편들을 모아 엮은 책이다. <백치 아다다>는 낭만주의적 바탕 위에 사실주의적 기법을 가미한 계용득의 출세작으로, 병어리에다 백치인 아다다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결코 물질이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해 주고 있다. <병풍에 그린 닭이> <별을헨다> 등 26편의 대표 단편을 함께 실었다.

## 6. 작품 속의 말하 는 이

### 2) 사랑손님과 어머니

## 사랑손님과 어머니

주요섭 / 소담출판사 / 1995년 / 186쪽 / 4,000원

주요섭의 중요 단편 10 편이 들어있는 책이다. <사랑 손님과 어머니>는 여섯 살 난 여자 아이, '옥희'의 눈으로 본 어른들의 세계가 그려져 있다. 아이의 눈을 통하다 보니 어른들이 느끼는 감정의 미묘한 변화를 표현하는 것이 어설프지만 오히려 그런 투박함이 자못 식상하기 쉬운 어른들의 사랑 문제에 신선함을 불어넣는다.

여자가 재가하는 것을 터부시했던 이 작품 당시와는 달리, 이혼율이 거의 선진국 수준에 이르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의 여성 재혼 문제를 같이 놓고 작품을 읽으면 훨씬 유익할 듯하다.

## 젊은 느티나무

강신재 / 민음사 / 2000년 / 361쪽 / 7,500원

1960년 <사상계>에 발표된, 강신재 특유의 섬세한 여성적 필치가 돋보이는 낭만적 소설이다. 금지된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 정서는 한없이 신선하고 아름답게 다가온다. 전처 소생의 아들과 후처가 데리고 온 딸, 그들 사이엔 아무런 혈연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남들처럼 평범한 사랑을 나눌 수도 없는 사이이다. 여기서 이들 남녀의 견디기 힘든 고뇌와 반민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 작품은 사회 규범상 용납될 수 없는 사랑에 빠진 청춘 남녀의 갈등을 윤리적 차원에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인물들이 그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소해 가는가에 초점을 두고, 사회 규범을 초월하는 사랑의 순수성을 보여 주고 있다.

## 제인 에어

살럿 브론테(유혜경) / 소담출판사 / 2002년 / 323쪽 / 5,500원

이 책은 지극히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의 언어가 바로 그려져 있는 작품으로 주위의 편견과 오해를 뒤로 한 채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쟁취한 여인 제인 에어의 시대를 초월한 감동과 사랑을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남녀간의 로맨스 정도로 알고 있지만 좀더 치밀하게 읽어 나가면 빅토리아 시대 당시 억압적인 가부장적 사회제도에 당당하게 맞서서 자신의 의지에 의해 스스로의 삶과 사랑을 선택하는 강인한 여인, 제인에어를 향해 박수를 보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B사감과 러브레터

현진건 / 신원문화사 / 2001년 / 207쪽 / 5,000원

이 책에는 중학생 독후감 필독선 시리즈 제 12권. 즉, <운수 좋은 날>, <빈처>, <술 권하는 사회>, <까막잡기> 등 현진건의 작품 7편을 실려 있다.

그리고 <작품 알고 들어가기>, 내용 훑어보기, 작품 분석하기, 작가 들여다보기, 시대와 연관 짓기, 작품 토론하기, 독후감 예시하기의 <독후감 길라잡이>, 책을 읽기 전에, 책을 감상하는 방법, 독후감이란 무엇인가의 <독후감 제대로 쓰기>의 코너를 통해 쉽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작품을 이해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 꽃보다 먼저 마음을 주었네

곽재구 / 열림원 / 1999 / 120쪽 / 5,500원

우리 시대의 삶과 사랑을 서정성 짙게 노래해 온 시인 곽재구씨의 시집. 곽재구 씨는 맑은 바람과 물살이 지척인 섬진강변의 한 작은 마을에 오두막집을 지어놓고 이들 시를 하나하나 엮어왔다. 다시 말해 섬진강은 김용택씨에 이어 또 하나의 노래꾼을 품에 안고 있는 게다.

그의 시에서는 해맑은 영혼으로 부르는 사랑과 그리움이 끈적하게 묻어나온다. 곽씨는 섬진강을 처음 만났을 때 강에는 바람이 불고 흰빛의 꽃들이 지천으로 피어 있었다고 회고한다. 그리고 이들 꽃을 보았을 때 이름보다 그것이 지닌 추억을 생각했다. 눈감으면 바람결에 수북하게 밀려오는 꽃향기에 취해 그는 저절로 시정의 늪에 빠져들었다.

그는 이 강변에서 낚은 나뭇배 하나로 강을 오르내리며 찾아오는 이들을 태워주기도 한다. 바람, 고동어장수, 안개, 비 등이 그에게 세상 이야기와 하늘 이야기를 전해주는 손님들인 셈이다. 수제비를 쪄서 이들과 나눠 먹기도 하고 시를 읽어주기도 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6. 작품 속의 말하  
는 이  
2) 사랑손님과  
어머니

**동백꽃**

**김유정 / 청동거울 / 2001 / 240쪽 / 6,500원**

‘동백꽃’, ‘봄봄’, ‘금 따는 콩밭’ 등으로 잘 알려진 김유정은 스물아홉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지만, 1930년대 가난한 우리 농촌의 현실을 때로는 해학적으로, 때로는 현실적으로 형상화낸 작가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모두 열 편의 이야기를 실었으며 시리즈의 다른 책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김유정 문학 자세히 읽기’, ‘김유정 문학사전’, ‘논술 포인트 10’을 부록으로 첨가하여, 단순한 소설 모음집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특히 이 책의 엮은이기도 한 문학평론가 오태호가 쓴 ‘김유정 문학 자세히 읽기’는 김유정의 소설 전반에 흐르는 흐름을 짚어내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준다.

**사랑손님과 어머니**

**주요섭 / 맑은소리 / 1999 / 126쪽 / 5,000원**

과부 어머니와 사랑방에 든 손님과의 사연을 한편의 수채화처럼 잔잔하게 그려낸 『사랑손님과 어머니』 외 『아네모네의 마담』, 『대학교수와 모리배』, 『인력거꾼』 등의 단편 모음집이다.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여섯살짜리 어린아이의 눈을 통해 본 과부인 어머니와 사랑손님과 그의 미묘한 애정심리를 한 폭의 동양화처럼 차분하게 묘사해 놓은 단편문학의 백미. 읽을 수록 정교한 서술과 사랑의 아픔에 가슴이 저리는 이 작품의 매력은 어린아이의 시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데 있다.

**우리 나라 전설**

**모봉구 / 두레미디어 / 2002 / 344쪽 / 12,000원**

성을 화두로 풀어본 우리나라 전설 이야기. 스스로의 꿈을 분석한 약 4000여장의 기록을 갖고 있는 저자가 용화산 전설, 바보온달, 공무도하가, 흥부와 놀부, 신립장군 이야기, 도미 설화 등 우리 전래의 갖가지 전설들을 심층심리학을 활용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한다. 특정 저자 없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온 전설에 숨겨진 인류의 심층 의식, 성 심리 등을 동서양의 설화를 넘나들며 밝혀냈다.

**나는 아름답다**

**박상률 / 사계절출판사 / 2000 / 203쪽 / 6,500원**

박상률의 성장소설 <나는 아름답다>는 청소년들의 복잡하고 미묘한 심리-성적 호기심, 이성애의 동경, 자신의 실존 문제, 고독과 불안 등을 그들의 입장에서 바라본 작품이다. 기왕의 성장소설 <봄바람>과 연장선상에 놓이면서도 훨씬 더 복잡하고 성숙된 청소년기의 특질을 풍부하게 보여주는 이 책은, 청소년들의 생활이나 세대상 같은 외적 현상보다는 이면에 감추어진 사춘기의 불안과 내적 심리, 자신에 대한 성찰, 세상을 보는 관점 등 청소년기의 의식과 정서를 차분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나는 아름답다>는 어머니의 부재와 외로운 객지 생활, 짝사랑의 열병, 담임 선생님과 또래 아이들로부터의 따돌림으로 인해 학교 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갈등과 방황을 거듭하는 고등학교 2학년생 남선우가 자기 정체성을 찾고 자신의 길을 개척해 가는 과정을 그려냈다.

6. 작품 속의 말하  
는 이  
보충심화

**국어 시간에 소설 읽기1**

**전국국어교사모임 / 나라말 / 1998 / 244쪽 / 5,800원**

중학생들을 위한 소설 모음. 권정생의 <강아지똥>, 황순원의 <송아지>, 김유정의 <동백꽃>, 박완서의 <마지막 입급님>, 오 헨리의 <사랑의 심부름꾼>, 헷세의 <공작나비> 등 16편을 묶었다.

## □ 2학년 2학기

### 1. 작가와 작품

#### 1) 옥중에서 어머니께 올리는 글월

#### 백범일지

김구 / 신원문화사 / 2002년 / 381쪽 / 7,500원

백범 김구 선생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떠받치며 민족독립과 조국 통일이 라는 민족의 지상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 힘쓴 분이다. 호에서까지 '자주 독립'을 염원한 독립투사의 절절한 애국심의 편린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선생이 자식들에게 유언대신 남긴 선생의 험난한 항일투쟁 기록과 뜻 깊은 삶의 이야기를 통해 민족의 어제와 오늘을 되돌아보게 된다. '자자의 말'을 시작으로 상, 하권으로 나뉘어 있고 '나의 소원'도 함께 실려 있다.

#### 반 고흐, 영혼의 편지

빈센트 반 고흐 / 예담 / 1999년 / 256쪽 / 9,800원

영혼의 화가, 태양의 화가인 반 고흐(네덜란드, 1853- 1890). 불후의 명작을 남겼지만 지독한 가난에 시달렸던 그는 후원자인 동생(테오)에게 오랜 세월 편지를 주고받았다(668통). 그가 동생과 어머니, 여동생, 고갱 등에게 보낸 편지 중 일부를 엮은 책이다.

어찌하여 고흐는 '주체할 수 없는 광기'로 자신의 귀마저 잘랐을까? 편지 내용을 보면, '미치광이 반 고흐'는 사려 깊고 철학적인 사람이었다. 또한 자신에게 굉장한 엄격한 성격이고 불후의 명작을 남기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였다. 물감도 못 살 정도의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그림에 대한 확신과 신념은 저버리지 않는다.

특히 가난에 찌들리다 못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라면 동생에게 보상을 하기 위한 마음으로 '자신의 영혼까지도 주겠다'라고까지 단언하는 부분과 점점 정신 착란증에 시달리면서 '발작'을 일으키는 것을 스스로 의식하고 괴로워하면서 '고통은 광기보다 강하다'라고 얘기한다.

#### 흙

이광수 / 하서 출판사 / 2002 / 544쪽 / 7,000원

1932년 동아일보 편집국장으로 있던 당시 동아일보가 벌이던 브나로드 운동을 돕기위해 발표한 소설이다. 이때는 6·10만세사건, 광주학생사건 등 계속적인 우리 민족의 일제항거운동으로, 식민지정책이 더욱 강화되어 농촌의 생활은 그야말로 피폐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식층이 중심이 된 농촌계몽운동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의해서 『흙』은 농촌계몽을 목적으로 창작되었다고 춘원(윤은)은 '작가의 말'을 통해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흙』은 부자연한 우연의 남발, 작가의 비현실적 세계관, 지나친 목적성을 지닌 계획물이라는 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 삼대

염상섭 / 실천문화사 / 2000 / 510쪽 / 10,000원

이 책은 서울에 사는 삼대에 걸친 가족사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시대의 모습과 갈등을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주변인들을 통해 부침 많은 시대를 살아가는 개개인의 각기 다른 삶의 행로를 생생하게 파헤치고 있다. 또 조의관, 조상훈, 조덕기로 이어지는 삼대를 중심으로 한 수직구조와 김병화, 홍경애, 수원집 등으로 구성되는 수평구조는 개화기에서 일제에 이르는 당대 서울 역사를 면밀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정약용 (박석부) / 창작과 비평사 / 2001 / 296쪽 / 8,000원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는 다산 정약용이 귀양살이를 하면서 아들과 형님 그리고 그의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들을 엮은 산문집이다. 대학자라는 수식어가 딱 어울리는 다산의 여러 저술에서 느낄 수 있는 사고의 깊이가 각 서간문에도 적절히 배어 있어 읽는 이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

학문을 하는데 있어 기본이 될 만한 태도와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간의 관계는 어떤 야 하는가, 어떤 학문을 할 것이고, 어떻게 나라를 위할 것인가 등등 다산의 모든 사상을 접할 수 있다. 한번쯤 읽은 후에 다산의 다른 저서들을 읽는다면 다산의 사상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 작가와 작품  
1) 옥중에서 어머니께 올리는 글월

## 아버님 전상서

김경연 외 / 문이당 / 1997 / 320쪽 / 7,000원

‘아버지 신드롬’을 불러 일으켰던 소설 <아버지>의 100만부 돌파 기념행사로 실시한 ‘아버님께 편지쓰기’ 당선작 모음집이다. 김정현의 장편 소설을 통해 IMF 시대 어깨 처진 우리 아버지들에게 관심을 갖게 해 준 책이다. 우리의 관심에서 소외되어 있던 아버지들이 정당하게 평가되고 한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되찾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항상 의연한 듯 우뚝 선 아버지의 내면에 숨겨진 가족에 대한 깊은 사랑을 재삼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글들이다.

아버지의 고마움을 잘 모르겠다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아버지의 감춰진 사랑을 찾아야 한다는 면에서 읽기를 권한다.

## 새의 선물

은희경 / 문학동네 / 1996 / 396쪽 / 8,500원

제1회 문학동네 소설상 수상작이다. 열두 살 계집아이의 눈을 통해 우리네 삶의 허위를 해학적인 문체로 그려낸 수작으로 평가받는다.

외할머니와 철없는 이모와 함께 사는 어린 소녀는 삶이 자신에게 별반 호의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에 열두 살에 성장을 멈췄노라고 고백한다. 조숙하고 영악한 소녀의 눈에 사로잡힌 어른들은 모두 위선적이고 우스꽝스럽게 비취진다. 그러나 이런 인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운 것만은 아니다. 날카로운 시선 사이사이에 인간에 대한 애정이 숨어 있다.

이 소설은 1960년대 산업성장시기의 모습도 사뭇 진지하게 펼쳐놓는다. 이 책을 읽는 독자는 다양한 인생사와 ‘그때 그 시절’의 모습을 보는 즐거움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구운몽

김만중 / 범우사 / 2001 / 298쪽 / 6,000원

서포 김만중이 수차례에 걸친 유배생활과 장자를 잃은 슬픔으로 외롭게 살아가는 어머니를 위로하고 즐겁게 하기위에 쓴 책. 주인공 성진은 육관대사의 제자였는데 팔 선녀와 놀아난 죄로 유배되어 양소유라는 이름으로 이승에 태어난다. 그는 어린시절에 재주가 뛰어나 소년등과한 후 하북의 세진, 토번의 난을 진압시키고 그 공으로 승상이 되고 부마가 되는데....그는 세상을 영화롭게 지내다가 뒤늦게야 인생이 무상함을 느끼던 중, 불교의 설법을 듣고는 깨달은 바가 있어 팔선녀와 함께 불문으로 돌아와 극락세계로 들어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멸치

김주영 / 문이당 / 2002 / 270쪽 / 8,500원

<홍어>의 작가 김주영의 신작 장편소설이다. 모성에 대한 그리움, 가족의 의미가 성장기 소년의 입을 통해 서정적으로 그려진다.

‘나의 어머니는 실속 없는 멧돼지 사냥꾼인 아버지에게서 환멸을 느끼고 집을 나갔다. 외삼촌 달구는 유수지에서 움막을 짓고 살아가며 이복누이인 ‘나’의 어머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 외삼촌뿐만 아니라 나도 아버지도 모두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한 가지 소망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서로 의심하고 분개하며 반목한다. 하지만 그 반목에서 오는 긴장감은 이들을 결속시킨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한 소년의 성장일기가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보게 한다.

## 그 날이 오면

심훈 / 신라 / 1999 / 126쪽 / 4,500원

암울했던 일제 압박 속에서 ‘그날 한강물이 뒤집혀 웅솟음 칠 그날이 오면 기뻐서 더듬실 춤이라도 추겠다’던 <상록수>의 작가 심훈의 시집으로 그가 죽은 지 15년 만에 유족들에 의해 발간되었다. 조국의 독립과 계몽의 정신이 깃든 40여 편의 시와 수필, 옥중서한을 함께 수록하고 있으며 나도향, 홍사용의 대표시도 함께 묶었다.



1. 작가와 작품  
1) 옥중에서 어머니께 올리는 글월

### 광야

이육사 / 미래사 / 2002 / 90쪽 / 3,500원

육사의 비극정신이란 어떠한 위험과 고난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으려는 내 길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자기희생을 스스로에게 요구하는 노력이다. 그와 같은 정신의 소유자인 육사가 쓰는 시는 금강석처럼 굳은 그의 기백의 소산이며 유연을 대신하는 삶의 최종적인 언어인 것이다.

1. 작가와 작품  
2) 장유야, 다화야, 내일도 학교에 오너라

### 그래도 학교는 아름답다

최해수 / 영림카디널 / 2002년 / 344쪽 / 9,000원

최해수 선생님이 자신의 학급 학생들과 3년 간 함께 하면서 겪은 경험을 차곡차곡 모아 펴낸 책이다. 세상과 교육 현실이 많이 변하여, 비록 '보람이 없고, 학생들이 두려워진다, 또 교사로서의 대접을 받을 수가 없다.' 등 교사의 지위가 땅 끝까지 내려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 하더라도, 학교는 여전히 아름다운 곳이며, 청소년들은 여전히 빛나는 존재들이라는 선생님의 믿음이 담겨 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 청소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고민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도와주어야 하는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펼쳐진다. 과외 활동, 학습 방법, 부모님과 원만하게 지내는 법, 청소년기의 일탈 행동, 이성 교제 등 실제 학급에서 아이들과 부딪치면서 겪은 현직 교사의 생생한 경험담이 진솔하다.

### 잡초는 없다

윤구병 / 보리 / 1998년 / 261쪽 / 6,800원

이 책은 한 마디로 농사꾼이 된 철학교수와 실험학교 터를 일구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학교보다는 일터가 더 좋은 배움터다' '항아리와 장독대' '한 배에서 태어난 쌍둥이' '해내기 농부의 마음가짐' 등 변산에서 공동체 학교를 운영하는 저자의 생활과 교육, 사람들의 이야기 69 편이 수록되어 있다.

독자들은 철학 교수가 아닌 새끼를 꼬고 돌맹이와 망초꽃으로 뒤덮인 묵은 밭을 일구고, 온갖 풀들과 싸우다 화해하는 법을 터득하면서 자연과 사람을 함께 살리는 진짜 교사로 거듭나고 있는 농사꾼 윤구병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일등도 꼴지도 없고 학교와 일터의 구분도 없는 새로운 학교를 보게 될 것이다.

### 사랑으로 매긴 성적표1

이상석 / 자인 / 1997년 / 286쪽 / 4,000원

이 책의 작가에게는 불같이 타오르는 교육에 대한 정열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앞에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잘 흘리는 눈물, 섬세한 감정, 흔히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이처럼 대할까 싶은, 아이들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이상석 선생님의 교육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사랑과 믿음이라 하겠다. 이분의 온몸이 사랑의 덩어리란 느낌이 든다. 사랑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교육의 성공도 있으리라. 교육이 상업이 되고, 참담한 혼란이 되어 버린 이 삭막한 현실에 오직 사랑과 믿음만이 참된 교육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

적시안 / 문학과학지성사 / 1996년 / 206쪽 / 6,500원

청소년 주인공들의 욕망과 시선, 우정과 애정, 고독 그리고 삶에 대한 성찰이 <구름 그림자>,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 <반성문을 쓰는 시간> 등 연작 5편을 통해 그려지는 현직 교수의 소설.

청소년 때 누구나 한번쯤 가졌음직한, 불안한 '나'로 가득 채운 일기장을 들여다보는 듯한 소설이다. 다시 읽어보면 잘 정리가 되지 않는 그런 일기장 말이다. 가장 진실한 시각과 독백이 담겨 있는 주인공의 다섯 가지 연작 이야기를 통해 청소년 시절 삶에 대한 고민과 방황, 고독,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공감해 갈 수 있다.

스스로 하는 자아성찰 속에서 성숙해 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동질감을 함께 느낄 수 있는 소설이다.

1. 작가와 작품  
2) 장유야, 다희야,  
내일도 학교에  
오너라

##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아이타니 겐지로(햇살과나무꾼) / 양철복 / 2002년 / 312쪽 / 8,000원

17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한 뒤, 교실에서 접했던 어린이들의 생명력이 그대로 살아난 이 책은 '아이들에게 배운다.'는 그의 확고한 철학이 작품으로 남은 것이다. 세상 누구보다 맑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아이들과 그들을 지켜 주려는 선생님의 노력이 무척 아름답게 그려져 있다.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으며 말도 않고 글도 쓸 줄 모르고, 오직 파리를 기르는 데에만 강한 집착을 보이는 데쓰조를 이해하게 되면서, 그 아이의 숨겨진 천재성을 발견한 고다니 선생님은 비로소 쓰레기처리장 아이들을 교화의 대상이나 동정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살아 있는 소중한 존재, 그 자체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또 정신지체아인 미나코를 평범하고 순수한 학생으로 받아들여 아이들에게 변화를 주기도 한다.

교사와 학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 것인지 어떻게 서로를 이해해 가는 것인지 생각하게 한다.

## 그리운 장날

김용택 / 눈빛 / 2001 / 158쪽 / 12,000원

전국 시골장의 모습과 함께 5일장에 얽힌 작가의 어린시절을 회상하고 있다. 어느 농부가 만든 한 개의 도리깨나 갈퀴가 상품이 된다는 것은 경제활동의 평등을 의미한다. 제 맘대로 흘러가는 것 같은 이러한 시장질서는 농촌 경제활동을 늘 활기차게 했던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건강한 기능은 시골 마을의 모든 생활에 건강한 활기를 불어넣는 곳이었다. 단지 물건을 사고 파는 건조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라 상거래 속에 인간관계를 폭 넓게 해주는 기능까지 아울러 있었던 것이다.

## 섬진강 이야기 1, 2

김용택 / 열림원 / 1999 / 218쪽 / 7,000원

농촌공동체의 전형이자 시인이 태어나고 청춘을 보낸 진매마을을 배경으로 함께 어울려 살았던 사람들의 일과 놀이, 아름다운 섬진강의 사계, 사라져 가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 등을 시골사람들의 질박한 사투리와 꾸밈 없는 말투로 담아낸 산문집이다. 사진작가 황현만의 120여 컷에 이르는 사진들이 섬진강 시인 김용택의 세밀한 필체와 어울려 사실감과 감동을 더해준다.

특히 도시생활에 익숙한 현대의 중학생들이 시골을 이해하도록 일독을 권한다.

##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안톤 슈낙(자경야) / 문예출판사 / 1998 / 205쪽 / 7,000원

낭만과 서정성을 담은 시적이고 리듬 있는 화려한 문체와 인생을 바라보는 달관된 시선을 지닌 독일 최대의 산문 작가 안톤 슈낙의 대표 수필 모음집. 지난 날의 추억, 고향에 대한 향수, 젊은 날의 사랑과 방황, 자연에 대한 친밀한 애정 등을 향기와 음향 그리고 촉각에 이르기까지 모든 감각을 동원하여 치밀하고 섬세하게 그려냄으로써 그것들을 환상의 경지로까지 승화시킨 이 책은 오랜 세월을 통하여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따뜻하고 영원한 마음의 양식이 되고 있다.

## 그리운 것들은 산 뒤에 있다

김용택 / 창작과 비평사 / 1997 / 224쪽 / 6,500원

섬진강의 시인 '김용택'의 산문집이다. 시인은 자연을 거역하지 않으며 살아온 이웃들의 소박한 모습살이와 절고운 마음, 기억저편에서 떠오르는 어린 시절의 아련한 추억들을 오늘의 현실에 섬세하게 반추한다. 자연과 더불어 '인간의 삶'을 더디게 그러나 행복하게 가꾸며 살았던 한 작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시정 넘치는 정겨운 문장에 담았다.

초등학교 분교 선생님인 김용택의 글은 사람 냄새가 난다. 어려운 내용 없이 쉽게 읽을 수 있으면서 서정적이다. 모두가 농촌을 떠나지만 휴가철에는 고향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김용택은 농촌에 살면서 농촌의 아름다움을 말한다. 몸에서 배어 나는 생활의 기록이다.

1. 작가와 작품  
2) 장우야, 다희야,  
내일도 학교에  
오나라

## 시가 내게로 왔다

김용택 / 마음산책 / 128쪽 / 5,500원

시인 김용택이 사랑하고, 감동하고, 회고하고, 전율하는 시들이다 김용택 시인만의 독특한 글이 어우러진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외국시 한 편과 우리나라 근대 서정시의 본령이라 할 수 있는 김소월, 이용악에서부터 박용래와 김수영, 서정주와 고은을 거쳐 장석남, 유하에 이르기까지 근 1세기 동안의 한국시사를 가로지르는 우리 시인들의 마흔 여덟 편의 시에 대해 이야기한다.

## 그 여자네 집

김용택 / 장작과비평사 / 1998 / 106쪽 / 5,000원

김수영문학상과 소월시문학상을 수상한 섬진강의 시인 김용택 시집. 이웃마을에 살던 한 여자의 마음과 일상을 서정적으로 그려낸 '애인'을 비롯하여 생각하면 그리울고 바라보면 정다웠던 집 '그 여자네 집' 등 45편을 수록했다.

## 그대 거침없는 사랑

김용택 / 푸른숲 / 2002 / 130쪽 / 6,500원

체대로 된 연애시집이 한권 나왔다. 김용택 시인의 여섯번째 시집 <그대, 거침없는 사랑>이 그것이다. <접시꽃 당신> 이후로는 시집장사도 수지타산이 맞을 때문인지. 기초적인 문장력도 갖추지 못한 아마추어 시인(?)들의 말장난에 불과한 시집이 중 고등학교 여학생들 상대로 활개를 치고 있다. 지나치게 시를 어렵게 쓰는 기성시인에게도 책임의 일단을 돌릴 수 있겠으나, 우리 청소년들에게 주어진 열악한 독서환경을 탓할 도리밖에 없다.

<섬진강> 연작을 통해서 농민 정서의 탁월한 시적 승화를 이루어 냈던 김용택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섬진강> 연작보다는 세번째 시집이자 습작기의 시 모음인 <누이야, 날이 저문다>의 분위기를 짙게 풍겨 주고 있다.

## 촌놈, 김용택 극장에 가다

김용택 / 이름 / 2000 / 200쪽 / 7,000원

영화를 좋아하는 김용택 시인의 평범한 영화 이야기다. 이 책에는 영화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비판은 없다. 대신 된장찌개와도 같은 구수한 영화 이야기가 펼쳐진다.

저자는 일반적인 작품성만으로 영화를 평가하지는 않는다. 그저 재미있고 감동적이면 그것이 바로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희생>과 <다이하드>가 동등하게 취급되기도 한다. 그리고 시인은 영화를 통해 내면의 풍경을 들려준다. 자신이 살아온 삶, 영화의 재미와 감동, 현실에 대한 비판 등을 솔직하게 풀어놓는 것.

겸손한 자세로 '촌놈'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긴 했지만, 그리 녹록하지 않은 많은 시인의 영화 보기가 영화를 보는 또 다른 방법을 제시해 준다.

## 학교종이 팽팽팽

김예련 / 미래M&B / 249쪽 / 7,500원

이 책은 여성신문에 『지금 교실에선』이라는 이름으로 1년(98. 5 - 99. 5) 동안 연재된 교육 에세이로, 연재되는 동안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로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끌었으며, 인기 드라마 '학교'에 많은 소재를 제공한 화제의 책이다. 현직 교사가 바라보는 방황하는 아이들과 분노하는 교사들의 교육현장이 그대로 드러난다.

## 섬진강

김용택 / 장작과비평사 / 1999 / 200쪽 / 5,000원

작은 시골마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시인 김용택이 진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했던 추억을 글과 사진으로 기록했다. <아 그리운 우리 진메>, <고기도 밤에는 잠을 잔다> 등 마을의 자연과 풍속이야기. 부박한 시대에 보기 드문 맑은 서정과 따뜻한 마음씨, 그리고 거기에서만 우리나라를 수 있는 강인한 가락으로 해체되어가는 오늘의 농촌공동체를 아프게 투시하는 젊은 시인의 첫시집.

1. 작가와 작품  
생각 넓히기

## 꿀찌에게 보내는 갈채

박완서 / 세계사 / 2002 / 311쪽 / 9,500원

25년이란 긴 세월이다. 그 동안 출판사 사정에 의해 판권이 판 데 넘어간 적도 있고, 시대에 맞게 새롭게 단장하느라 표지나 판형을 바꾸면서 책의 무피도 늘리려고 원고를 대폭 보탠 적도 있다. 그러나 초판본 때의 내용은 지금 읽어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적도 있었던가 잘 믿어지지 않는 것들도 이 책의 중요한 골격이라고 생각해서 늘 그대로 유지해왔다. 그 대신 글 말미에는 꼭 그 글을 쓴 연대를 표기하기로 했다. 소설도 아닌, 산문이 그것도 매우 시사성이 강한 토막글들이 25년 동안이나 한 번도 절판됨이 없이 꾸준히 젊은 독자들과 만나왔다는 걸 과분한 복으로 알고 늘 고맙게 여기고 있지만 내가 증언한 세월들이 요새 젊은 이들에게는 지나간 시대의 풍속사쯤으로 읽힐 생각을 하니 내 나이가 새삼 무안해진다.

(작가의 말) 표제작 '꿀찌에게 보내는 갈채'를 비롯하여 45여편의 산문이 수록되었다.

## 무소유

법정 / 범우사 / 2002 / 159쪽 / 6,000원

이 작품은 작자의 직접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의 괴로움과 번뇌는 어떤 것에 집착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소유욕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말하고 있는 수필이다. 인간의 소유욕은 무한하여 자신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을 가지려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욕심에 의해 괴로움과 번뇌가 생겨나고, 소유함으로써 그것에 얽매이고 만다. 인간의 역사는 자기 몫을 위해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소유사(所有史)처럼 보이기까지 하는 것이다.

작자는 소유욕을 버림으로써 그것보다 더 큰 마음의 평정과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담담하게 서술함으로써 독자 스스로 사색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 평범한 마음 자세 가운데 삶의 깊은 진리를 스스로 터득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는 글이다.

## 한비아의 중국견문록

한비아 / 푸른숲 / 2001 / 331쪽 / 8,800원

저자는 7년에 걸친 세계 여행과 국토 종단을 마치고 오로지 중국어 공부만을 위해 중국으로 건너갔다. 그리고 학원이나 책으로 만나는 중국인이 아닌 생활에서 느끼는 중국 민족을 1년간의 유학생활에서 깨닫고 있었다. 중국의 사계 속에서 느끼고 겪은 가깝고도 따뜻한 일들과 중국을 만나면서 깨달은 저자의 이야기가 가득 담긴 문화체험서이다.

늦은 나이에 중국어를 공부하기 위해 밤을 새우는 한비아가 중국에서 보는 한국의 모습은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어서도 좋지만 공부하면서 만난 중국 사람들과 인정 넘치게 살아가는 모습도 아름답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정말 권하고 싶은 책이다.

##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오미라미쓰여(양윤옥) / 북하우스 / 2000 / 266쪽 / 7,500원

어른이 된다는 세상은 늘 아름답고 행복한 곳만은 아님을 알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자신의 뜻대로 되는 일은 없고 행운의 여신은 지체 높으신 분들에게만 찾아가는 듯하다. 그래서 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 이 책의 주인공은 당신보다 더 괴로운 삶을 살아온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왕따, 야쿠자 두목의 부인, 호스티스, 그리고 사법고시 합격. 우리는 그녀보다 더 질곡많은 삶을 살아온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녀가 들려주는 희망의 이야기.

## 소설 동의보감 상·중·하

이은성 / 창작과 비평사 / 2001 / 364쪽 / 7,500원

조선 중엽, 동의보감을 저술한 명의 허준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이다. 작가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완결되지는 못했다.

소설 속에서 그려지는 허준은 매우 매력적인 인물이다. 미친한 신분에 대한 울분으로 명의를 되찾겠다는 집념을 불태우고, 이를 성취해 나가는 모습은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드라마로 유명해졌으나, 드라마보다 더 긴박하고, 더 감동적이며, 더 흥미진진하다. 신분이라는 높은 벽을 뛰어넘어 꿈을 성취한 '허준'의 삶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세를 배우자.

1. 작가와 작품  
보충심화

## 팽이부리말 아이들

김중미 / 장작과 비평사 / 2001 / 275쪽 / 8,500원

<팽이부리말 아이들>은 참으로 성실하게 씌어졌습니다. 숙희, 숙자 쌍동이 자매를 중심으로 가난한 달동네의 구석구석을 착실하게 그려 나갔습니다. 동준이, 동수 아버지는 돈을 벌어오겠다고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숙자네는 술주정꾼 아버지 때문에 친정에 갔던 어머니가 다시 돌아왔지만 아버지가 공사판에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명환이네 형제는 재개발로 집을 잃고 ... 팽이부리말은 경제성장의 뒷안길에 밀려난 힘없는 사람들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 갈매기의 꿈

리처드 바크 / 문예 출판사 / 2000 / 120쪽 / 6,000원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는 것은 그 어려움을 어떤 방식으로 맞이하느냐의 차이일 것이다.

그래서 바닷 갈매기 조난단 리빙스턴 시걸의 도전은 우리에게 역시 도전으로 다가온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현실적 어려움을 우리는 피하기만 할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주인공 조난단 리빙스턴 시걸은 이에 대한 해답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책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도전의 진정한 가치를 생각해 보길 바란다.

## 오체 불만족

오토다케 히로타다 / 장애 / 2002 / 326쪽 / 9,000원

사람이 어려움과 장애 앞에서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 것일까? 자신의 처지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얼마나 견뎌낼 수 있는 것일까? 오토다케 히로타다는 오늘 우리에게 극복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팔다리가 모두 없는 그에게 애초부터 팔다리는 사치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는 팔다리 없이도 보통 사람들이 해내는 일들을 모두 해냈다. 아니 보통 사람 이상으로 잘 해냈다. 그리고 그에겐 소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온전한 팔다리를 돌아보며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다.

## 내 생애 단 한번

장영희 / 샐터 / 2000 / 227쪽 / 7,500원

영문과 교수가 생활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편하게 보여주는 수필집이다. 글쓰기는 어려서부터 다리가 불편해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으며 자란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에 가지 못할까봐, 그러면 자기 인생은 끝날까봐 필사적으로 시험준비를 한다. 영문학자인 아버지의 영향으로 영문학도의 길을 걸으면서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며 배운다.

글쓰기는 작은 일 하나에서도 꼼꼼하게 삶을 돌아보는 겸손한 사람이다. 자신이 장애를 갖고 있기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깊게 들여다볼 줄 알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읽어보면 좋은, 삶의 깊이가 느껴지는 책이다.

## 허균평전

허경전 / 양장본 / 424쪽 / 13,000원

시대를 앞선 개혁사상과 예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했던 조선시대 비운의 지식인 교산 허균. 그는 소외된 백성의 입장에서 정치관과 학문관을 피력해 나간 시대의 선각자였으며, 당대 조선인의 삶과 정서를 아름답고 독특한 문체로 표현해 낸 뛰어난 문장가였다.

이 책에서는 시대를 거역했던 자유인 허균의 파란만장한 삶의 궤적을 생생하게 그려내는 한편, 남아 있는 논설과 한시·소설 등의 문학작품을 통해 조선의 대문장가 허균의 정치 개혁사상을 재조명하고 있다.

1. 작가와 작품  
보충심화

## 허균, 최후의 19일

김탁환 / 신국판 / 1999년 / 전2권 / 1권-8,500원, 2권-8,000원 /

조선 중엽 명문가의 자손이자 최초의 한글소설<홍길동전>의 작가로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허균의 마지막 삶을 그린 소설.

시인이자 문장가로, 팔도를 주름잡던 한량이자 반항아로, 또 탁월한 외교관이자 정치가로 전방위적 삶을 구가하던 허균은, 권력의 양지에서 승승장구하던 1618년(광해군 10년) 반역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아흐레 만에 능지처참 당했다. 작가 김탁환은 이 같은 허균의 삶에 '이상'과 '혁명'이라는 20세기의 꿈을 대입해 한 세기를 보내고 다음 세기를 맞은 우리들의 '지금, 여기'를 돌아보고 있다.

당대의 정치, 사회, 궁중 풍속 등에 대한 꼼꼼한 취재를 바탕으로 조선 중기의 역사를 만만치 않은 시선으로 담아내는 작가의 성실성은 독자들에게 모처럼 '소설다운 소설'을 읽는 감동을 선사한다.

## 매월당 김시습

이문구 / 양장본 / 1992 / 380쪽 / 10,500원

역사인물소설이 범람하는 가운데에서도 그 문학적 성과가 두드러졌던 『매월당 김시습은』은, 1960년대 이후 구수한 토속어 구사로 독보적인 문체를 확보한 이문구가 해박한 한학 지식과 익숙한 구어체로 매월당의 삶과 문학을 담아낸 작품이다.

매월당의 기행을 과장하거나 현대적으로 표현하여 당시의 상황을 야담거리로 만들지 않고, 난세를 사는 한 지식인의 전형과 내면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다른 역사소설과 차별화된다. 또한 소설의 갈피갈피에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저항시인 매월당의 인간적 고뇌와 갈등을 한시(漢詩)를 통해 대변해 줌으로써 작품의 향기를 더하고 있다.

작가는 매월당의 일생을 역사의 소용돌이가 빛은 희생적 비극의 일막이 아니라, 흐름의 분류에 뒤섞여 흐르기를 거부하고 독창적인 삶과 문학을 창출함으로써 역사의 또 다른 흐름을 주도한 문학적 비판의식의 효시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새롭고도 파격적인 의식과 주제와 방법을 제시한 문인으로서, 선구적 저항시인으로서, 자유로운 예술혼의 원형으로서 매월당의 격정적 삶을 엿볼 수 있다.

2. 이야기의 구조  
1) 이야기장수  
우투리

## 스무살이 넘어 다시 읽는 동화

웬디 페리스(변용란) / 명진 / 2002년 / 198쪽 / 8,000원

신데렐라, 인어공주, 미녀와 야수 등에서 사랑과 인간관계의 법칙을 발견한 색다른 동화책이다. 어렸을 때 누구나 접했던 신데렐라, 잭과 콩나물 등의 재미있는 동화들. 하지만 이 책은 그런 인물들을 심리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그리고 기가 차지 않는 그런 웃음이 나올 뿐이다. 그 정도로 이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동화들을 아주 색다른 면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데렐라에게는 불행을 당연시하지 않고 기회가 왔을 때 도망가지 않는 긍정성을 배우고, 인어공주에게는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자신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함부로 포기하지 않아야 함을 배운다.

예쁜 그림과 함께 스토리를 그대로 소개하고, '스무살이 넘어 다시 읽는다면,' 코너를 통해 각 동화를 현대적 시각으로 다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각 동화에서 배우는 '인간관계의 법칙' 코너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준다.

## 황토기, 무녀도 외

김동리 / 하서 / 2001년 / 378쪽 / 5,000원

전통적 삶을 탐구한 작가 김동리의 작품이 실려있다. 김동리의 작품은 우리의 고유한 토속적 삶 속에 도사려 있는 비극적 전통을 조명하고 그 초월의 몸부림으로 작품을 창작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이야기의 진행에는 서술자, 화자가 이야기의 내용을 천명해 주는 준 액자형의 틀을 가지고 있다. 내용을 펼침에 있어 주제나 의미에 깊게 관여된 관건적 묘사나 특정한 사물의 시적 묘사에 의해 독자의 인상을 심화시키는 기교를 쓰고 있음도 보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숨은 모순의 미학을 들추어 전통적 삶의 인식을 찾기에 평생을 바쳐 탐구한 한 작가의 문학 세계를 깊이 있게 읽어볼 수 있다.

## 2. 이야기의 구조

### 1) 이야기장수 우투리

#### 한국의 민담 1-2

최운식 / 시인사 / 1999 / 452쪽 / 18,000원

민담이라는 것은 각 고을마다 사람들의 입으로 퍼져서 알려진 옛날 이야기이다. 옛날 옛적에  
로 시작되는 좀 다듬어진 전래동화 이전의 아직은 어설피고 제대로 체계화되지 않은 그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만 구전되어진 이야기...

이 책에는 그런 민담들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의 특징이라면 앞부분에 표준어로 된 간략한  
이야기의 줄거리가 나오고 전체적으로는 구술자의 말씨를 그대로 살려 잘 이해하기 힘든 사투리를  
그대로 옮겨 놓았다는 것이다. 읽고 있으면 마치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처럼  
구어체를 아주 잘 살려내고 있다.

#### 21세기 @ 고전에서 배운다 1-2

박용하 / 하늘연못 / 2000 / 517쪽 / 12000원

현재 한국문학을 이끄는 183인의 문인들이 꼽은 278인의 저작 396권 양서들과 그 책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 '고전'이라 불리는 이 책들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 우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우리 삶에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해답과 함께 고전을 접할 때 효과적인  
독서법, 좋은 책을 고르는 안목을 제시한다. 지난 세기 인류의 기록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조망해 본다.

#### 강의실 밖 고전 여행1-3

이강엽 / 청민사 / 1998 / 330쪽 / 9,000원

우리의 고전문학은 왜곡되고 편협하게 전해진 내용이 많아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작품이 허다하다. 이 책은 고전문학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풍부한 자료와 재담으로 성실하게 풀어  
내고 있다. 고전문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독자들은 우리의 전통과 사회, 문화에 대한 깊은  
혜안을 갖게 될 것이다.

#### 걸리버 여행기

조나단 스워프트 / 해누리 / 2001 / 496쪽 / 12,000원

<걸리버 여행기>는 전 인류의 통치세력들과 문명사회의 부패, 탐욕, 위선을 통쾌하게 풍자  
비판한 영원한 고전 명작이다.

어린이들은 항해가의 모험담으로 상상력과 모험심을 심어 주고 어른들에게는 이야기 뒤에 숨  
은 인간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정치 풍자와 문명 비판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작품이다. 특히 이  
책은 1972년 초판본의 국내 최초 완역판으로 오리지널 삽화 400장을 완전 수록하고 있어 걸리버  
여행기의 참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해준다.

#### 금오신화

김시습 / 청목 / 2001 / 254쪽 / 5,000원

생육신의 한 사람인 매월당 김시습이 31세 되던 해에 경주 남산에 정착해 7년만에 완성한 작  
품.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로 알려진 작품이며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등 현존하는 금  
오신화의 작품 5편을 실고, 이밖에 <장국진전>, <전우치전> 등의 작품을 덧붙였다.

#### 중당, 고당을 위한 동서양 고전 읽고 쓰고 생각하기

/ 세종서적 / 2002 / 354쪽 / 9,500원

흔히들 고전은 두고두고 묵상해야 하는 책이라고 한다. 그리고 인류의 지혜와 다양한 인생  
철학을 담고 있는 보고라고 한다.

이 책은 이러한 고전의 세계를 좀더 깊고, 좀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  
플라톤의 <국가>,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 장자의 <장자>, 박지원의 <열하일기> 등 동서양의  
고전을 아우르며, 고전이 지니는 보편적 가치와 현대적 의미를 살핀다. 또 저자의 생애와 사상, 집필  
의도, 시대적 배경 등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 고전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책을 통해 고전 속에 담긴 위대한 정신과 마주해 보길 권한다.

## 2. 이야기의 구조

1) 야기장수  
우투리

## 세계 신화 이야기

세르기우스 글로빈 / 이기숙 / 까치 / 2001 / 304쪽 / 36,000원

천지창조에서부터 최후의 심판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전 역사를 총망라한 책. 모든 민족과 문화들이 각 시대마다 자신의 존재와 삶을 이해하고 설명할 때 동원되었던 신화 이야기를 원색그림과 함께 흥미진진하게 소개했다.

## 2. 이야기의 구조

2) 현명한 아내,  
만카

## 금오신화

김시습 / 청목사 / 2001년 / 254쪽 / 5,000원

고전소설이라 무슨 재미가 있을까 생각하겠지만 허무맹랑한 상상은 오히려 현대소설에서 보지 못하는 더 큰 즐거움을 맛볼 수 있게 한다.

<만복사저포기>, <이생규장전>, <취유부벽정기>, <남염부주지>, <용궁부연록>의 5편으로 이루어진 단편소설집인 셈인데, 현실에서 이를 수 없는 어떤 상황을 가상으로라도 실현시키고 싶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당시의 사람들이 지향하는 바를 어렵듯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소설에서 주인공은 부처님이랑 율놀이를 하기도 하고, 용궁을 유람하기도 하고, 저승에 가서 판관이 되기도 하고 귀신과 사랑을 나누기도 한다. 고전이라 읽기를 시작하는 것이 두렵다면 우리나라 환타지 소설의 출발이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보자.

## 테스

토머스 하디(이호규) / 예원 / 2001년 / 472쪽 / 7,500원

하디는 19세기 영국 문학사의 거목으로 20세기 영국 문학의 새로운 길을 연 선도적인 작가이다. 『테스』는 하디의 선천적인 순수한 양심 세계와 심오한 도덕적 진지성이 짙게 배어있는 작품으로 사회적 인습 등으로 인해 처참해진 테스의 운명을 통해 타락한 상류계급과 도덕적 잠재력을 잃어가는 기독교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한 뛰어난 작품이다. 원제는 '더버빌가의 테스'로, '순결한 여성'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여주인공 테스는 몰락한 농가의 딸이다. 명문가의 후예라고 자칭하는 청년 알렉에게 유혹되어 사생아를 낳지만 죽는다. 타향으로 도망가 농장에서 짓는 일을 하며 갱생의 길을 찾는데, 농장 경영을 지망하는 목사의 아들 엔젤과 사랑하게 되어 그와 결혼한다. 결혼 첫날 밤, 남편이 자기의 과오를 고백하자 테스도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나, 엔젤은 테스를 용서하지 않고 그녀를 버리고 브라질로 가버린다. 그 후 테스는 부모 형제가 마을에서 쫓겨나자 이들을 구하기 위해 알렉을 다시 만나 동거하게 된다. 그 때 뜻하지 않게 엔젤이 돌아오고 걱정에 사무친 테스는 알렉을 살해하고 처형된다.

## 증기기관차 미카

안도현 / 문학동네 / 2001년 / 127쪽 / 6,800원

안도현(40)씨가 쓴 '어른을 위한 동화'이다. 디젤기관차의 등장으로 모습을 감춘 증기기관차. 그 증기기관차를 운전하던 증기기관사가 손자와 함께 철도 박물관에 가면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처음에 미카는 디젤기관차의 빠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밀려나는 수치를 당하면서 쫓겨나게 된 자신을 비판하였지만,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느리다는 것의 의미를 깨닫는다.

작가는 미카의 말 중에서 '느리게 달려야 꽃을 볼 수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현대 생활의 신속성만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느리게, 천천히 달리면 꽃도 보이고, 세상의 아름다움도 보인다는 것이다.

## 사씨남정기, 서포만필

김만중 / 범우사 / 2001 / 273쪽 / 6,000원

『사씨남정기』는 조선왕조 숙종 때 김만중이 지은 풍간 소설로, 당시 숙종이 장희빈에게 미혹되어 인현왕후를 폐출한 것을 풍자하여 쓴 것이다. 사씨가 교녀의 모함으로 폐출된 후 모진 고생을 하면서도 정철과 부덕을 지켜 시택으로 돌아가 부귀영화를 누린 반면, 교녀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다가 효수당한다는 내용으로 매우 교훈적이다.

『서포만필』은 고금의 사적, 성현의 말씀, 시문에 대해 논평한 김만중의 문집이다. 정철의『관동별곡』 등을 '동방의 이소'라고 평가한 내용이 실려 있어 우리 나라 문학평론집의 고전이라 평가되고 있다.



## 2. 이야기의 구조

### 2) 현명한 아내, 만카

#### 고전문학의 향기를 찾아서

정병헌 · 이지영 / 들베개 / 1998 / 356쪽 / 9,500원

이규보, 김시습, 이황, 정철, 허균, 윤선도, 정약용, 신재효 등 한문학과 국문학의 주요 작가 13인의 생애, 철학, 주요 작품, 해설 등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한 책이다.

정약용과 강진, 윤선도와 보길도, 김시습과 남원의 만복사 등 작가의 작품 활동과 깊은 관계가 있는 장소(생가, 묘소, 유배지 등)를 소개함으로써 고전문학이 현재와 단절된 것이 아니라 현재에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작가를 알고 작품을 읽는다면 훨씬 작품 이해가 쉽다. 고전문학이 현재에도 이어짐과 아울러 문학 작품을 공부하기 위해서 일독을 권한다.

#### 개미1-3

베르나르 베르베르 (이세욱) / 열린책들 / 2001 / 461쪽 / 8,500원 /

『뉴벨 옵세르바퇴르』등에서 과학 담당 기자로 활동하면서 곤충 등 생물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개미 같은 곤충이나 화학 분야의 신발명 등 자연과학에 파고들면서 ‘아프리카의 개미 이야기’로 보도상을 받기도 했다. 일곱 살부터 단편소설을 쓰기 시작한 베르나르는 120번의 개작을 거치면서 12년 여 동안 한 작품 『개미』에 몰혀 보내며 소설을 완성했다. 직접 집안에 개미집을 들여다 놓고 개미를 기르며 그들의 생태를 관찰한 것은 물론이고, 아프리카 마냥개미를 탐구하러 갔다가 개미떼의 공격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했다.

사랑과 반역, 생존을 위한 투쟁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기상천외한 개미의 세계를 개미의 시각으로 흥미있게 그린 스테디 셀러 장편소설로 작품 집필에만 12년이 걸렸으며, 책으로 추리적 기법을 가미해 개미의 생태를 세밀히 묘사한 흥미진진한 역작이다.

#### 우리문화의 수수께끼1

주강현 / 한겨레신문사 / 1996 / 291쪽 / 7,500원

이 책은 서구적 사고와 서구 문명에 대한 우월주의가 만연해 있는 현실에서 우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씌어졌다. 우리 민족의 의식과 생활 속에 가장 원초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문화 현상 15가지(남근과 여근, 금줄, 흰옷, 개고기, 숫자3, 돌하루방, 배꼽, 동성동본 불혼, 풍뎉지 등)에 대해 다루었는데 저자의 익살과 입담이 걸쭉하게 녹아 있다.

책을 읽는 중에 깔깔거리며 웃을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기대해도 좋다.

## 2. 이야기의 구조

### 보충심화

#### 툑툑튀는 1318 세대를 위한 명심보감

청소년을위한고전연구소 / 지원북클럽 / 2002 / 190쪽 / 7,000원

명심보감은 조상들이 생활 속에서 지켜간 윤리이자, 규범을 모아 놓은 책이다. 여기에는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와 삶의 자세가 담겨 있다.

## 3. 문학의 표현

### 1) 지각

#### 관촌수필

이문구 / 문학각지성사 / 2002년 / 399쪽 / 9,000원

문체의 아름다움에 있어서 ‘북에 흥명희, 남에 이문구’라는 찬사를 듣게 한 이문구의 대표작인 이 소설은 작가의 고향인 충남 보령 관촌마을을 배경으로 한 자전소설이다.

작가의 소설적 분신인 민구네 집안의 수난, 그 집 부엌데기 출신인 웅점이의 행로, 고색창연한 이조인 할아버지의 초상 등을 회고하는 작가의 어조는 담담하지만, 그 안에 담긴 스토리는 비극적이고도 절박하다.

이 책은 내가 살아온 시대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서 흘러 들었던 아무개 내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혹은 우리 어머니 할머니들이 살아온 삶 같기도 해서 동시대를 살아 내지 않은 우리들에게도 이질감을 갖게 하진 않는다.

고향이라 해도 떠올릴 것이라곤 고작 아스팔트로 포장된 도로와 빌딩뿐일지도 모를 우리 청소년들에게 고향에 대한 자욱한 향수 그리고 잃어버리고 살았던 인간냄새를 느끼게 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 3. 문학의 표현 1) 지각

#### 스스로를 비둘기라고 믿는 까치에게

김진경 / 푸른나무 / 2000년 / 247쪽 / 6,500원

현직 교단에 있던 저자가 점수 위주, 입시 위주로 병들어 있는 우리 교육 현실을 고발하고, 가슴 아픈 자기성찰 기록했다. 저자 나름의 아이들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잘 나타나 있다.

전체를 3부로 나누어 제1부에서는 학생과 교과에 대한 글들, 제2부에서는 교사·교육의 문제를 다룬 글들, 제3부에서는 역사의식, 세계관, 그리고 작가의 못 다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교사는 완전함을 기준으로 학생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조언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는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은 학생들이 각자의 좁은 경험의 폭과 생각의 틀을 넘어서 진실로 나아가는데 좋은 조언자가 되어 줄 것이다.

### 3. 문학의 표현 2) 들판에서

#### 꽃감과 수필

윤오영 / 태학사 / 2000년 / 246쪽 / 6,000원

<방망이 깎던 노인> <마고자> 등의 수필을 국어 교과서에서 배웠던 세대라면 윤오영이라는 이름이 그리 낯설지는 않을 것이다.

일상의 작은 소재에서도 깊은 울림을 이끌어 내어, 군더더기 없이 정갈한 그의 글은 허투루 읽고 넘겨 버릴 수 없는 무게를 지녔다. 시간이 흘러도 퇴색하지 않는 그의 수필은 오래 먹어도 물리지 않는 꽃감이다. 한국적인 색채와 품격을 고루 갖췄으면서도 일체의 규격에서 벗어나 있으며, 글 안에 담긴 정신이 옛 선비의 카랑카랑한 음성을 듣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의 글에는 함축과 여운이 유장하다. 말은 다 끝났는데 마음속의 울림은 종소리의 과장처럼 쉬 가시질 않는다. 밥상의 각두기처럼 일상에서 보고 듣고 느낀 지극히 평범한 것들과 재래에 있던 여러 방법에서 소재를 취하였으되 전에 맛보지 못한 전혀 새로운 맛을 만들어 낸다.

####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전우익 / 현암사 / 1993년 / 130쪽 / 6,500원

저자는 청년운동을 하다가 사회안전법에 연루되어 6년 간 수형 생활을 했으며 출소 후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부자유스런 삶을 살았다. 현재는 고향인 봉화 구천마을에서 홀로 농사를 지으며 생활하는 그는 누구를 만나든 농사꾼으로 자처하며 시종 농사짓는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다고 한다. 쉽사리 듣기 힘든 이 농사이야기 속에는 하나의 우주가, 삶에서 길어 올린 지혜가 빛나고 있다.

농촌에서 도시로 보내는 12편의 편지글. 말없이 농사짓던 그가, 세상 사람들에게 편지를 띄우게 된 것은 무슨 까닭일까? 질그릇처럼 투박하나 질리지 않은 이야기이다. 그의 글은 담담하게 당신의 생활 언저리를 그리고 있을 뿐이지만, 무시무시한 자본주의의 속도전에 휘말려 정신 없이 사는 우리들에게 잠시 주변을 돌아보게 한다.

#### 연어

안도현 / 문학동네 / 1996년 / 134쪽 / 6,000원

‘연어’는 우리 인간의 삶과 존재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답을 동시에 잔잔한 감동의 파문으로 일깨워 주는 작품으로서 맑고 깨끗한 세계를 바라보는 시인의 투명하고 섬세한 감수성이 아름답게 피어나는 소설 같은 동화, 동화 같은 소설이다.

모친 회귀라는 존재 방식에 따른 성장의 고통과 아프고 간절한 사랑을 깊이 있게 표현하고 있으며 은빛연어가 동료들과 함께 떠나면 모친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누나연어를 여의고 눈 맑은 연어와 사랑에 빠지고 폭포를 거슬러 오르며 성장해간다는 이 작품은 숨지기 직전 산란과 수정을 마치는 연어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운명이 시적이고 따뜻한 문체 속에 감동적으로 녹아 있어 독자를 그윽한 세계로 이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모친으로 거슬러 오른다는 것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것-꿈을 찾아간다는 것이고 그것은 힘겹지만 아름다운 일이며 나 아닌 것들의 배경이 됨으로써 지금 여기서 너를 감싸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는 은빛연어의 깨달음은 겸허한 삶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하기도 한다.

이 책은 자신의 삶과 존재의 본질 그리고 겸허한 삶이 주는 아름다움을 느끼려는 학생들에게 권하고 싶다.

### 3. 문학의 표현 2) 들판에서

#### 천변풍경

**박태원 / 빛샘 / 1999년 / 415쪽 / 8,000원**

이 작품에는 이렇다할 큰 줄거리는 없지만, 1930년대 청계천변에 사는 서민들의 삶이 50 개로 구분돼 여러 사람들의 각기 다양한 삶의 양태를 그리고 있다. 이 작품에는 5 전짜리 동전을 잃어버리고는 주인에게 말도 못하고 전전공공하는 한약국집 종업원 창수, 거울을 보며 세월을 한탄하는 돈 많은 사법서사 민주사, 호된 시집살이에 고민하는 다방 여급 하나코 등 다양한 인간 군상이 등장한다. 2 월부터 이듬해 정월까지 사계절을 거치며 벌어지는 사건들 가운데 단락마다 변화해가는 화자의 심리 묘사와 세밀한 관찰이 압권이다.

월탄 박종화는 이 소설에 대해 “난숙한 솜씨로 서울의 풍속과 언어를 묘사했다”고 평했다

#### 그곳에선 나 혼자만 이상한 사람이었다

**말로 모간(류시화) / 정신세계사 / 2001년 / 260쪽 / 7,800원**

인류학자에게도 충분히 흥미로운 경험이었을 원시로의 모험, 소박하지만 정직한 메시지이며 그녀가 초대에 응하면서 벌어지는 저자의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다.

지은이 말로 모간은 질병을 예방하는 연구를 통해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려고 노력하는 미국인 여의사다. 호주 의사들의 요청에 따라 질병 예방 일을 하던 모간은 호주 원주민들의 삶이 궁핍한 것을 보고 그들을 돕기 시작한다. 호주 오지의 원주민 ‘참사람’ 부족이 이 소식을 전해 듣고 그녀를 그들의 여행에 초대한다. 그녀가 이 여행에서 겪은 다채로운 모험의 기록인 동시에 ‘참사람’ 부족이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그것은 바로 식물·동물·인류, 즉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이 똑같이 이 세상의 중요한 한 부분이며 물질 문명이 반드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깨달음이다.

책을 따라 모험을 거치고 나면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떻게 산다는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켜보게 될 것이다.

####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가렛 미첼(김중진) / 정독사 / 2000년 / 286쪽 / 5,500원**

작가 마가렛 미첼(Margaret Mitchel, 1905-1949)은 ‘에틀란타 저널’에 입사해 5년 동안 인터뷰 기사 등을 담당하면서 훗날 거작의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는 자질을 키운다. 10년 동안의 조사와 집필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완성한 것이다.

크라크 게이블과 비비안 리가 주연한 영화로도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는 제목은 폭풍처럼 몰아쳤던 남북전쟁의 패배로 남부인 <스칼렛 오히라>의 문화와 명예와 자부심이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롯데높은 방년 16세의 아름다운 대지주의 딸인 <스칼렛 오히라>는, <애슐리>를 좋아하지만 그가 자기 사촌 <멜라니>와 결혼하려하자 복수심에서 멜라니의 오빠인 <찰스>와 결혼하나, 그는 전쟁에 나가 전사하고 가난 속에서 <프랭크>와 결혼하고 그가 결투 중에 죽자, 레트 버틀러와 재혼한다. 그러나 <애슐리>를 못 잊어 하자 레트도 떠나고 끝내 <애슐리>가 자기를 거부하자 스칼렛은 비로소 자신이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레트였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비록 다 잃었지만 이제 성숙해지고 강인해진 스칼렛은 자신의 땅 타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하고 떠난다.

#### 가시고기

**조창인 / 밝은세상 / 2000 / 285쪽 / 7,500원 /**

백혈병에 걸린 어린 아들을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가시고기와 같다. 결국 자신의 몸이 망가지는 것조차 모르고 아들에게 아픔을 주지 않기 위해 아이를 멀리 떠나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의 관점과 구분하여 사실감 있게 묘사해, 보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지독하게 슬픈 소설이다.

초중고생을 막론하고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도 입소문으로 모두 알고 읽고서 그 슬픈 감동을 주체할 수 없어 하는 소설이다.

### 3. 문학의 표현 2) 들판에서

#### 봉순이 언니

공지영 / 푸른숲 / 1998 / 208쪽 / 6,000원

작가의 고향인 서울 아현동 언저리를 배경으로 막 다섯살난 '짱아'가 식모인 '봉순이 언니'와의 만남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삶에 눈떠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 아름다운 작품이다. 60~70년대 고도 성장의 뒷골목에서 한없이 짓이겨지고 추락하면서도 삶에 대한 낙관을 버리지 않는 <봉순이 언니>의 삶을 반성 어린 눈길로 감싸 안으며 그 속에서 끝끝내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의 메시지를 건져 올리고 있다.

#### 멀리 가는 길

말콤 보세 (김옥수) / 이글리오 / 2000 / 405쪽 / 9,800원

청소년을 위한 성장소설로 1994년 미국 도서관협회 선정 '올해의 청소년 도서'와 퍼블리셔스 위클리 선정 '올해의 좋은 책'으로 추천된 도서이다. 16세기 명나라를 배경으로 첸과 홍 두 형제의 진한 형제애와 자신 앞에 놓인 역경을 헤쳐나가는 이야기를 잔잔하게 그리고 있다.

정체성과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은 청소년 시기에 이 책은 자신이 누구이며, 미래의 꿈과 계획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다.

#### 괴테 고전주의 대표 희곡선집

괴테(윤도중) / 집문당 / 1996 / 358쪽 / 10,000원

황금만능주의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지면서 존재의 미인 인간성이 파괴되고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은 황량한 삶에 인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독일 고전주의 문학인 괴테의 [에그몬트] [이피게니에] [타쏘] 등 고전주의 운문희곡들을 수록 소개했다.

#### 가슴이 따뜻해지는 좋은 이야기 170가지

이득형 / 진리탐구 / 2000 / 320쪽 / 8,000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다 할 수 있는 생을 살아감에 있어 좌절을 겪어 지쳐있을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이나 성공한 사람들의 훈훈한 사연을 짙막하게 엮은 이 책은 읽는 순간 단비처럼 독자들의 가슴에 감동을 느끼게 해 줄 것이다.

#### 까라마조프 씨네 형제들1-2

도스토예프스키 / 열린책들 / 2002 / 696쪽 / 9,500원

2000년 <열린책들>에서 펴낸 <도스토예프스키 전집>의 수록 작품들을 다시 교열, 대조하여 날권으로 펴낸 도스토예프스키 명작. <까라마조프의 형제>는 존속살해법을 주제로 신과 인간의 문제를 정면으로 대결시키고 있다. 까라마조프 일가, 곧 육욕적인 아버지 표도르와 3형제 - 야성적 정열과 순수함을 갖춘 장남 드미트리, 무신론자에다 냉엄한 지성의 소유자인 차남 이반, 배타적이고 순결무구한 삼남 알료샤 거기에 사생아인 막내아들 스페르자코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부자간 및 형제간의 애육을 그렸다.

역자 해설, 작품평론, 줄거리 등을 함께 실었다.

#### 아버지의 우산

이명인 / 신국판 / 1999 / 280쪽 / 7,500원

1920년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한국전쟁 등 역사적 과도기를 겪으면서 강해질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모습을, 1950년대에 태어나 경제성장기를 살아온 아들이 아버지가 된 뒤에 되돌아보는 내용의 소설.

1970~80년대 경북 예천이라는 소도시를 배경으로 시장의 싸전에서 함께 일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삶을 대칭점으로 놓으면서 '우리에게 아버지는 무엇인가'라는 근원적 질문을 던진다.

자식들을 책임져야 하는 삶의 무게와 시대적 아픔으로 모든 것을 가슴에 묻고 강하게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아버지. 우리는 이 소설 속에 살아 있는 전형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가슴속에 아버지라는 커다란 기둥을 다시 세우게 된다.

### 3. 문학의 표현 2) 들판에서

#### 어머니

김정현 / 신국판 / 2001 / 320쪽 / 8,000원

가족이 흩어지고 무너져 내린 자리에서 어머니가 끈질긴 사랑의 힘으로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가족을 불러 모으는 내용을 담은 소설.

이 소설에서 작가의 시선과 관심은 '아버지'에서 '어머니'으로, 나아가 가족 전체으로 확대되었으며, 우리네 가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독자들 앞에 풀어내고자 한다. 이 소설은 작가의 시선이 '아버지'로부터 가족 전체으로 확장되었다는 점에서, 『아버지』를 뛰어넘는 가족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아버지』가 '아버지'라는 인물에 한정된 '아버지' 중심적인 소설이라고 한다면 『어머니』는 이제 가족들 개개인 사이의 관계에 중심을 두려는 관계 지향적인 소설이다. 또한 그 감동의 물결은 『아버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독자들의 가슴을 더없이 뭉클하게 만들고 있다. 가족 간의 사랑과 믿음이 이 시대에도 역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수'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준다.

### 3. 문학의 표현 보충 심화

#### 아버지

김정현 / 문이당 / 1996 / 302쪽 / 6,500원

작가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하자.

아버지, 그 가슴 뭉클한 이름에서마저 향기를 잊어버리고 산 것이 얼마인가. 가로등만이 초라한 골목길에서 휘청거리는 발길을 내딛는 굶은 그의 등을 본 적이 있는가? 몹시 술에 취한 어느 날, 들고 온 과일 바구니를 내려 놓으면서도, 누군가를 향한 불만을 그치지 못하던 그 비오던 밤을 당신은 기억하는가? 잠든 당신의 곁에 지켜서 흐뭇하게 머금던 그의 미소를 잠결에서나마 보았던 적은 없었는가?

35 신화의 주인공, 굶은 의지와 허심으로 폐암의 병마를 이겨내고 계신 또 한분, 그리고 그런 분들의 따뜻한 마음과 아름다운 사랑을 훔쳐 썼을 뿐이라고 작가는 말한다.

### 4. 교과서 어떻게 공부할까?

#### 1) 국사 교과서 읽기

#### 소설 목민심서1-5

황인경 / 삼진기획 / 1992 / 301쪽 / 7,000원

작고한 베트남의 호치민은 일생 동안 머리맡에 <목민심서>를 두고 교훈으로 삼았다고 한다. 또 유럽이나 일본에서도 다산 연구가 활발하다고 한다. 작가 황인경은 마거릿 미첼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란 한 권의 소설을 쓰고 절필했으나 풀려치상까지 뒀다고 비장한 각오로 이 책을 집필했음을 머리말에서 밝히고 있다.

이런 다산을 소재로 역사소설을 쓰고자 다산의 자료를 200여 권이나 독파했고 다산에 대해선 털끝만한 것까지도 놓치지 않으려고 애쓴 작품이다. 다산의 삶을 소설로 써서 다산의 사상을 쉽게 접하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다산 사상에 접할 수 있는 좋은 소설이라 꼭 읽기를 권하는 책이다.

#### 우리 문화의 길라잡이

국립국어연구원 / 학고재 / 2002 / 479쪽 / 25,000원 /

우리말을 연구하는 단체인 국어연구원의 학예연구사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철저한 감수를 받아 집필한 책으로 우리 문화를 알고자 하는 일반인을 위한 종합 문화 지침서이다. 지나치게 전문적인 용어는 피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써서 청소년이 읽기에도 무난하도록 엮었다.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233가지를 음식·복식·주생활·세시풍속·민속신앙·문학·음악·미술·춤·놀이·무예·특산물·상징 등 13개 분야로 나눠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각각의 문화 요소와 관련된 속담을 소개하고 있어 읽는 재미를 더한다. 한국 음식 중의 하나인 '죽'을 설명하면서 '식은 죽 먹기'같은 속담을 소개하는 식이다. 어휘의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어휘의 기본 정의, 특징, 유래, 역사, 관련 설화, 어원, 속담 등을 간결하고 재미있게 서술하였고 그 어휘와 관련된 옛 그림이나 생생한 사진을 곁들여 시각적인 즐거움을 준다.

#### 4. 교과서 어떻게 공부할까? 1) 국사 교과서 읽기

### 중요 무형문화재1

문화재연구원 / 대원사 / 175쪽 / 6,000원

서양의 것에만 익숙한 우리들에게 새로운 것을 재창조할 수 있는 발판으로서의 의미를 갖는 중요무형문화재 1백3종이 책 다섯권으로 묶어 나왔다. 중요무형문화재를 특성에 따라 음악과 무용, 연극과 놀이, 의식, 음식, 무예, 공예기술 1,2로 나눠 각 문화재의 기원과 특성, 전수 현황 등을 자세 히 소개하고 있다. 비교적 쉬운 글과 다양한 사진자료로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폭넓게 읽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역사신문

역사신문편찬위원회 / 사계절 / 1996 / 135쪽 / 9,500원

학생들이 역사라는 과목을 인식할 때는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암기해야하는 어렵고 재미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오늘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깝게 접하는 신문 형식을 빌어 먼 과거의 이야기들을 생동감과 현장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원시시대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5천년의 우리 역사를 6권의 책으로 펴냈는데, 주로 1면에는 해당 시기의 주요 사건에 관한 보도 기사를, 2면에는 해설성 기사와 만평을, 3면에는 1면의 관련기사나 생활, 경제 기사를, 4면에는 문화 관련 기사와 해외 소식을 주로 실었다.

###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1

전국 역사교사 모임 / 휴머니스트 / 2002 / 271쪽 / 12,000원

교과서는 그 자체가 한 권의 역사책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나라에서 정해진 교과서만을 읽어왔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내일을 준비하는 청소년들에게 교과서가 하나 뿐이었던 교실도 이제는 요구를 맞추어 주어야 할 때이다. 가르치는 교사의 뜻에 따라 새롭게 구성될 수 있고, 배우는 학생들은 저마다 다채롭게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이 교과서의 의미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다.

### 세상의 절반 여성이야기

출판부 위음 / 우리교육 / 1993 / 286쪽 / 5,000원

우리 사회에 뿌리 박혀 있는 성차별의 문제점을 짚어낸 청소년을 위한 여성 이야기. 조선시대 보다 고려시대의 여성이 더 자유로웠다는 역사적 사실에서부터 오늘날 TV에서 그려지는 여성상의 문제점 등을 폭넓게 다루었다. 또한 토론 주제를 제시하여 우리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지적하고, 그 해답을 찾고 있다.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예를 들었고, 그에 대한 여러 활동을 제시한 점이 돋보이는 책이다. 이 책을 통해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는 기회를 가지기를 청소년들에게 권한다.

### 로빈슨 크루소 따라잡기

박경수, 박상준 글. 이우일 그림 / 뚝인들 / 1999 / 184쪽 / 78,500원

무인도에 남겨 된 대학생 노빈슨이 살아남기 방법을 보여주면서 일상에서 익혔던 생활 과학 상식을 자연스럽게 풀어낸다. 재미있는 이야기와 일러스트, 다양한 과학원리가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정수의 과학적 원리, 나침반의 원리와 별자리의 유래, 고립된 상황에서 겪는 심신장애 등 식물학·의학·진문학 다방면에 걸친 과학 상식을 풀어낸다. 독자는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코너를 통해 과학적 원리를 생활에 적용시켜보는 재미도 느낄 수 있다.

과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노빈슨이 떨어진 거대한 '자연 실험실'안으로 들어가 보길 권한다.

### 조선시대 생활사2

한국고전문서학회 / 역사비평사 / 2000 / 341쪽 / 12,000원

각종 고문서에 나타난 개인의 일상을 분석, 이를 통해 조선사람들의 생활사를 복원한 저서. 조선시대의 풍습과 당대인들의 사고를 보다 생생한 느낌으로 접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다. 기존의 역사서적이 시대사 위주로 개괄적인 서술 방식을 취해왔다면 이 책은 아주 세세한 부분을 묘사하면서 그 시대를 되살리는 역사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다.

#### 4. 교과서 어떻게 공부할까? 1) 국사 교과서 읽기

### 다시 읽는 하멜 표류기

**강준식 / 용진닷컴 / 2002 / 312쪽 / 10,000원**

17세기에 제주도에 표류해 13년 동안이나 조선에서 억류되어 있다가 극적으로 탈출해 조국 네덜란드로 돌아갔던 선원 '하멜'이 풀어놓는 조선 이야기. 이 책은 기존 <하멜 표류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재구성했다.

17세기 조선왕조의 생생한 역사와 조선인의 세계관, 끔찍한 형벌제도, 정성을 다하는 손님 대접 등 조선 사회의 모습이 다방면에서 펼쳐진다. 물론 자신을 억류한 나라에 관한 서술이라 우리 민족에 대한 평가가 그리 긍정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서양인의 눈으로 바라본 17세기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이 시선을 끈다. 네덜란드인 하멜이 풀어놓는 한국사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보자.

### 세계 최고의 우리 문화 유산

**이종호 / 펼쳐라인 / 2001 / 336쪽 / 13,000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과학적인 측면에서 밝혀나간 책이다. 저자는 고대 문화, 과학 문화, 생활 문화, 예술 문화 등 네 주제로 나눠 사진자료와 함께 위대한 우리 문화 유산을 소개한다.

저자는 미학적 내지 고고학적인 접근 대신, 과학적인 접근방법을 이용하여 문화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테면 신라 귀족의 연회장 '포석정'에 담긴 신비를 풀어내는 방식이 그러하다. 술잔이 흘러갈 때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술잔의 흐름이 다양한 것은 신라인이 이미 유체이동에 대해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방증해 준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고인들의 별자리에서 고대인의 높은 천문지식,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는 영원불멸의 사상을 읽어낸다.

이 책은 점차 잊혀져 가는 과거 우리 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 태백산맥 1-10

**조정래 / 해냄 / 1995 / 334쪽 / 8,000원**

이 책은 여·순 반란사건을 축으로, 한과 이데올로기의 세계를 형상화한 대하소설이다. 상놈 출신의 주인공 염상진과 무당 소화, 하대치, 김범우 등, 등장인물들의 사랑과 갈등이 어우러진 80년 대 분단문학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전 1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장편 소설이다.

분단 이후, 우리 사회에 실존했으나 서서히 기억에서 잊혀지고 있는 우리의 분단 역사를 생생하게 재현해 놓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념이라는 자를 객관적으로 사용하여 이 작품을 한 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 청소년을 위한 한국사

**백유선 등저 / 두리미디어 / 508쪽 / 12,000원**

학교에서 사용하는 국사 교과서는 어렵고 재미가 없다.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역사 교양도서들은, 청소년이 읽기에는 너무 어려운 어휘 및 개념들을 사용하고 있다. 간혹 쉽고 재미있는 책이 있기는 하나 지나치게 주변적인 이야기에 머무르거나, 흥미성에 치중한 나머지 역사를 왜곡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 책은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관심의 분야와 깊이, 그들의 언어수준 등을 감안하여 만들었다. 그래서 글도 전문 역사가들이 아니라 청소년과의 역사수업 경험이 가장 풍부한 현직 역사 선생님이 직접 썼다.

### 나의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상)

**유홍준 / 중앙M&B / 2000 / 275쪽 / 9,000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로 답사 열풍을 일으켰던 유홍준 교수가 1997년 9월, 12일 동안의 북한 답사를 끝내고 중앙일보에 연재했던 '유홍준의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를 묶은 것으로, 평양과 묘향산을 중심으로 하는 관서지방을 다루었다.

평양의 을밀대, 부벽루, 연광정, 대동강 등 대동강가의 유명한 정자와 성문, 진파리고분, 동명왕릉, 강서지역의 고분, 고인돌들을 거쳐 4대 명산의 하나로 꼽히는 묘향산의 보현사 등 오랜 역사의 비밀들이 유홍준 교수의 발길과 손길을 거쳐 소개 된다.

4. 교과서 어떻게 공부할까?  
1) 국사 교과서 읽기

### 나의 문화 유산 답사기1-3

유홍준 / 장작과 비평사 / 1997 / 384쪽 / 8000원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유행시킨 유홍준 교수의 답사기이다. 우리가 무심히 지나칠 뿐 별다른 의미를 못 느끼는 유적들을 꼼꼼히 답사하면서 저자는 진주를 캐내듯 산하에 스민 역사의 자취와 누대의 숨결을 발굴하여,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이야기 솜씨로 풀어 놓는다.

이 책은 몇 천 년 동안 잠든 보물들을 깨어내 찬란한 잔치를 벌이게 만든다. 기행을 하다 보면 흔히 이 책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만난다. 값진 문화 유산을 고답적으로 풀이하지 않고 정겨운 이야기기로 이 강산 방방곡곡을 풀어낸다. 문화 유산의 역사성과 예술성을 바라보는 시각도 새롭다. 추천하지 않아도 스스로 찾는 책이다.

4. 교과서 어떻게 공부할까?  
2) 과학 교과서 읽기

### 정재승의 과학 콘서트

정재승 / 동아사이 / 2001 / 256쪽 / 9,000원

복잡한 사회 현상들을 과학적으로 명쾌하고 흥미 있게 풀어낸 과학도서.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문화, 음악, 미술, 교통, 역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해박한 지식과 참신한 시각으로 과학적 사고 능력을 키워준다. 이를테면, 머피의 법칙을 필연이라고 과학적으로 증명한 로버트 매튜스를 소개하면서 확률과 사고에 대해 자연스럽게 생각을 유도한다. 즉, 비가 온다는 기상예보가 설령 80% 정확도를 자랑해도 실상 비가 오는 경우는 30%도 안 된단다. 무슨 소리? 자연스럽게 일기예보와 확률, 정확도, 나아가 일기 예보와 사회적 효용성 등에 대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하게 된다.

### 우리 생활 100년 : 옷

고부자 / 현암사 / 2002 / 392쪽 / 20,000원

근대 100년 동안 우리의 의생활은 서양 복식 도입으로 인해 근본적인 변혁을 거쳤다. 한복이 서양 복식으로 급격히 교체되었고, 의관정제를 사람됨의 근본으로 알았던 우리는 이제 의상은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

이 책은 우리의 전통 복식사를 연구하는 지은이가 구한말의 의제 개혁, 일제 강점기 등을 아우르고, 해방 후 전장을 거치면서 구호물자로 옷을 해 입던 시절부터 패션과 첨단 유행을 추구하게 된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난 한 세기 우리 의생활 문화의 시대별 변천사를 풍부한 사진 도감과 함께 제시하였다.

###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바퀴 반 1-4

한비아 / 금토 / 2002 / 376쪽 / 9,000원

오지 여행가 한비아씨(40)가 5년간의 세계여행을 끝내고 쓴 책이다. 여행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으로는 자신과 자신의 갈 길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광고회사 간부로 있다가 퇴직금 2,500만원을 밑돈으로 여행에 나선 이래 온갖 사람들과 술한 일들을 경험했다. 나도 한번쯤... 하고 꿈꾸는 일들이 이 한편의 책 속에 고스란히 녹아있다.

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중남아메리카, 알래스카, 인도차이나, 남부아시아, 몽골, 중국, 티벳 등을 여자 혼자 여행한 기록이다.

4. 교과서 어떻게 공부할까?  
보충 심화

### 로마인에게 묻는 20가지 질문

시오노 나나미 (김석희) / 한길사 / 2000 / 275페이지 / 8,000원

로마인 이야기를 꾸준히 내오고 있는 시오노 나나미의 고대 로마사 이야기. 고대 로마에 대해 저자가 갖고 있고, 독자들이 궁금해 할 만한 의문 사항 20가지를 추려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로마 문화와 그리스 문화의 관계, 로마인의 도시 계획과 그토록 융성했던 제국이 어떻게 해서 무너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들어 있다.



#### 4. 교과서 어떻게 공부할까? 보충 심화

### 하늘과 땅과 바람의 문명

김지희 / 세종서적 / 2002 / 360쪽 / 13,000원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세계사를 가르치고 싶은 마음에 방학 때마다 세계 곳곳을 누빈 현직 고등학교 교사의 세계 문명 탐방기. 1권에는 이란과 파키스탄, 실크로드, 중국을, 2권에는 이집트, 레바논, 터키, 이스라엘, 그리스, 이탈리아를 담았다. 생생한 현장감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사진과 여행지에서 겪은 경험담은 이 책을 읽는 재미를 더한다. 특히 정치적 이유나 무관심으로 잊혀져 있던 곳들을 둘러보고, 우리 역사와 깊은 인연을 풀어놓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 책을 통해 생생한 세계사 체험을 접하고, 타문화를 바로 이해하는 태도를 갖자.

### 어린이 경제신문

서울경제신문사기획특집팀 / 글읽는세상 / 158쪽 / 9,000원

‘경제가 딱딱하고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깬 이 책은 오히려 ‘경제는 재미있고 쉽다’는 인식을 강렬하게 심어주고 있다. 우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현상과 경제활동을 재미있고 쉽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초등학교생부터 중학생까지 부담없이 읽을 수 있다.

###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 신화를 이해하는 12가지 열쇠

이윤기 / 용진닷컴(용진.com) / 2000 / 351쪽 / 12,000원

‘신화의 지형도를 바꾼다.’ 신화 전문가이자 작가인 이윤기가 인문학적 시각으로 풀어낸 ‘그리스 로마 신화’. 미로를 빠져나온 아리아드네의 실타래를 시작으로 나무에 대한 예의- 다프네 이야기, 플루토스의 보물창고, 에로스와 프쉬케까지 그리스 로마신화를 이해하는 12개의 열쇠가 총 2백여 컷의 컬러사진과 함께 담겨있다. 시공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신화의 세계를 우리네 정서와 상상력으로 풀어낸 흥미있는 책이다.

### 바람의 딸, 우리 땅에 서다

한비아 / 신국관 / 1999 / 312쪽 / 7,900원

바람의 땅 한비야가 800Km에 이르는 우리 땅을 두 발로 걸어다니며 쓴 49일간의 여행기. 지난 6년 간 현대 문명의 손길이 닿지 않는 전세계 65여 개국의 오지를 찾아다녔던 저자가 전라남도 해남 땅끝마을에서 강원도 통일전망대까지 200여 리에 이르는 한반도를 두발로 걸어다니며 써내려간 글이다.

전세계가 하나의 커뮤니티로 연결되는 국제화 시대를 살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여권이었던 것처럼 세계 무대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한국인임을 확실하게 두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결국 나의 중심은 자신을 태어나게 한 이 땅에 있으며, 더 큰 원을 그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축을 단단히 세우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여행에서 새삼 깨닫는다.

#### 5. 창작의 즐거움 1) 딸에게 온 연애 편지

### 개선문

레마르크(홍영호) / 범우사 / 1999년 / 561쪽 / 12,000원

이 책은 표면적으로 망명 의사인 라빅과 3류 여배우 조앙 마두와의 사랑을 그린 연애 소설이다. 그러나 단순히 사랑을 담은 연애소설이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전야의 파리를 무대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의 희생물이 되어 쫓기는 망명객들의 삶을 치열하게 그린 소설이다.

나찌의 강제 수용소를 탈출하여 파리에 불법 입국한 40대의 외과 의사 라빅은 누구보다 뛰어난 의술을 갖고 있지만 망명자란 이유 때문에 환자가 마취된 사이에 몰래 수술을 마치고 명성은 다른 의사에게 넘겨야 하는 처참한 처지다. 사랑하는 여자에게 안정된 미래도, 확실한 사랑도 약속하지 못하고 그 여자가 다른 남자들을 전전하는 것을 슬프게 바라봐야 하는,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지 못하는 전쟁중의 인간군상을 대표한다.

줄거리가 비극적이고 우울한 분위기가 지배적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무력무력 피어오르는 레마르크의 휴머니즘이 독자의 마음을 호뭇하게 해준다.

### 국어의 맞춤법 표기

이중훈 / 세창 / 1998 / 531쪽 / 15,000원

한글 맞춤법 표기 해설서. ‘가’에서부터 ‘히죽이’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맞춤법 용례를 가나다순으로 정리하고 맞춤법 표기에 관한 규정을 함께 정리했다.

5. 창작의 즐거움  
1) 딸에게 온 연애 편지

### 한국의 명시

김희보 / 중문서적출판 / 2000 / 511쪽 / 12,000원

이 책은 신체시 이후 20세기 말까지의 근 100년에 발표된 한국의 시들 중에서 명시를 정선하여 연대순으로 배열하였다. 그리고 작품마다 감상을 위한 해설을 붙였다. 따라서 이 책을 통독하면 한국 시의 흐름을 알 수 있게 하였다.

### 한국 현대시를 찾아서

김홍규 / 푸른나무 / 2002 / 400 쪽 / 8800원

시를 배운지 벌써 10년이 다 되어가도 시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고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참 많다. 그런데 이 책은 시의 기본적인 특성은 물론이고, 작품 자체를 꼼꼼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전체적인 내용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시의 세계를 찾아서>로 '1. 시의 이해, 2. 시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3. 한국 현대시의 흐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작품 해설>로 '1. 삶의 소망과 고뇌, 2. 풀과 나무와 새, 3. 그리움의 목소리, 4. 사회와 역사'이다. 세 번째 부분은 <한국 현대시 산책>이다.

5. 창작의 즐거움  
2) 비누 인형

### 눈 먼 아이가 그린 풍경

조원진 / 아이에듀테인먼트 / 2001년 / 140쪽 / 9,000원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두 권의 책을 묶었다. 두 권 모두 독특하면서도 정감 있는 일러스트레이션과 짧은 글 사이에 담긴 풍부한 생각이 돋보인다. 어쩌면 개성 있는 그림만으로도 내용을 짐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아니, 글보다 오히려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그림들이다.

<눈 먼 아이가 그린 풍경>은 눈과 눈 사이의 간격이 먼 아이가 본 세상에 대한 짧은 단상을 그림과 함께 엮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길 원한다면 조금 뒤로 물러서서 자신의 목적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라고 권한다. 거기엔 거창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내게 던지는 두려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할 뿐이다.

전작과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아도 좋을 <내 안으로 흐르는 바람>은 좀 더 내면 속으로 들어가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그렸다. 책을 넘기다 보면 한 호흡 쉬고 가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게 된다. '나'에게 이름, 외모, 성격이 아닌 '다른 것'을 입혀 보는 재미가 만만치 않다.

### 문제아

박기범 / 창작과비평사 / 1999년 / 186쪽 / 6,000원

99 좋은 어린이 책 원고 공모 창작부분 대상 수상작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밝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려고 애 쓰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어린이들의 이야기 10 편을 모았다. <손가락 무덤>, <독후감 숙제>, <김미선 선생님>, <문제아> 등 10 편을 삽화와 함께 실었다.

일기체의 단편 10개로 꾸며진 동화집 [문제아]는 서민아이들의 눈을 찌르는 딱딱한 현실에 대한 이야기이다. 달동네 아이들은 철거강제와 마을어른들 싸움을 보며 예전의 "별밭 같은 마을 불빛"을 그리워한다. 정리해고로 서먹해진 큰아버지와 아빠에게서 지난날 술친구였던 두 어른의 밋지 않은 술 노래를 기억하며, 오토바이 탄다고 문제아로 찍는 선생님들은 정말 싫다고 언더리 친다. 독재정권을 꾸짖으며 몸을 불사른 고 박래전씨 무덤을 찾는 조키는 삼촌 마음이 겨울 꽃이란 말에 "내 마음 속에 어떤 꽃씨가 잠자고 있을까"를 생각한다.

### 어린왕자

생텍쥐페리 / 민중출판사 / 2002 / 153쪽 / 7,000원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생 텍쥐페리의 소설. 살고 있던 별에 사랑하는 장미를 두고 떠난 어린왕자는 지구에서 여우와 뱀을 만나게 된다.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장미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 꽃에 바친 시간 때문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길들인 것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여우에게 배우게 되는데..... 비행기 조종사였던 지은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쓰여진 이 작품은 상상과 환상으로 가득찬 한 편의 시와 같다.

## 5. 창작의 즐거움 2) 비누 인형

### 아랑은 왜

김영화 / 문학과 지성사 / 2001 / 288쪽 / 7,500원

‘엘리베이터에 낀 그 남자는 어떻게 되었나’의 작가 김영화의 장편추리소설. 16세기 명종 시절을 배경으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나비가 되어 원한을 풀게 되는 아랑의 이야기를 그린 <아랑전설>을 소재로 여러 판본들을 살피면서 서로 다른 시점과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의 빈틈들을 추리해 나가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 있다. 단지 아랑전설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설은 현재와 오버랩되면서 액자소설화되기도 하며 다양한 형태의 변환을 시도한다. 추리소설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에게 권한다.

### 나무들 비탈에 서다

황순원 / 문학 사상사 / 1986 / 351쪽 / 8,000원

민족상잔의 비극인 6·25를 다룬 최초의 본격 장편소설. ‘수난을 통해 구원’으로 이르는 사도 바울적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 준 <나무들 비탈에 서다>는 황순원 문학의 창조적 정력이 절정으로 표출되던 40대 중반기의 대표작이다. 비탈에 선 나무처럼 6·25라는 민족 최대의 비극에 상처받고 몸부림치면서도 끝까지 구원의 삶을 갈망했던 젊은이들의 희생과 수난의 기록이다.

### 그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박완서 / 용진닷컴 / 1995 / 323쪽 / 7,000원

박완서 소설가의 자전적 소설이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후속편. <그 많던 싱아는>이 유년시절부터 청소년기까지의 성장 과정을 그리고 있다면, 이 소설은 스무 살부터 결혼할 때까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작가의 나이 스무 살, 대학교 1학년, 가슴 시리게 아름다운 시절, 전쟁은 지울 수 없는 생체기를 가슴에 남긴다. 전쟁으로 집안의 기둥인 오빠가 처참하게 무너져갔고, 자신은 먹고살기 위해 올케와 함께 월장도 서슴지 않았다. 살얼음을 걷는 것 같았던 인공치하의 서울 생활도 견뎌내야 했다. 그러면서 생에 대한 집념으로, 가족에 대한 책임감으로 강해져 간다.

아픈 만큼 성숙해 진다고 했던가. 뼈아픈 상처를 감싸 안고 점차 강인한 여성으로, 성숙한 영혼을 지닌 한 작가의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마지막 잎새

헨리 (이성호) / 예원 / 1997 / 262쪽 / 4,500원

헨리라는 필명으로 널리 알려진 윌리엄 시드니 포터는 미국이 낳은 위대한 단편작가로 날이 갈수록 인기를 더해가는 세계적인 소설가이다. 그는 미국의 여러 지역과 중남미를 배경으로 가난하고 불쌍한 하층민들의 성실한 삶 속에 뛰어들어가 그들의 삶을 밀도 있는 구성과 함께 풍부한 어휘와 놀라운 위트를 구사하면서 간결한 문장으로 묘사하여 깊은 감명을 안겨준다.

그의 작품 속에서는 아기자기한 유머와 따뜻한 인정을 지닌, 지혜롭기 그지없는 인물들을 만나게 된다.

### 좁머씨 이야기

파트리크 쥐스킨트 (유혜자) / 열린책들 / 2000 / 121쪽 / 6,500원

땅 빈 배낭을 짊어지고, 길다랗고 이상하게 생긴 지팡이를 손에 쥐고 뭇가 사이에 쫓기는 사 람처럼 짊어짐으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묵묵히 걸어나다니기만 하던 좁머씨는 어린 소년의 마음 속에 깊이 각인되며 꿈속에까지 나타나 궁금증을 잔뜩 불러넣어 주는데..... 그 어린 소년이 더 이상 나무를 탈 수 없게 되었을 때, 수수께끼 같은 좁머씨는 사라져 버린다. 한 소년의 눈에 비친 이웃 사람 좁머 씨의 기이한 인생을 담담하면서도 섬세한 필치로 그려 나간 한 편의 동화वाद 같은 소설이다.

“나를 좀 제발 놔두시오.” 좁머씨의 독백은 아직도 가슴을 울리는 대사로 남아 있다. 동화처럼 그림이 나오는 소설로 읽기에 부담이 전혀 없으며 읽고 나서 진지하게 생각할 거리를 주는 책으로 권할 만하다.

## 5. 창작의 즐거움 2) 비누 인형

###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박완서 / 용진닷컴 / 1992 / 300쪽 / 7,000원 /

유년시절부터 6.25를 겪는 스무살까지의 정신적, 육체적 성장과정을 그린 자전적 소설이다. 분단과 이데올로기 전쟁을 겪은 민족사와 그 시대 민초들이 당해야만 했던 고난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

시골고향의 천지에 널리 주린 배의 헛헛함을 채워주던 싱아가 낯설은 도시의 뒷언덕에는 감쪽같이 사라진 것을 환경이 바뀌고 도시화가 되었으니 싱아가 자랄 수 없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어린아이의 호기심에 반짝이는 눈망울을 상기시키며 “아이참, 누가다 먹은거야?”하고 독자에게 반문하는 것은 지극히 박완서 씨다운 선택이다.

### 마이너리그

은희경 / 창작과 비평사 / 2001 / 250쪽 / 7,500원

1998년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던 중편소설을 장편으로 새로 고쳐 쓴 작품. 1958년 개미 동창생 네 친구의 얽히고 설켜 25년여 인생을 추적하면서 ‘마이너리그’란 상징어로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역정을 그린 소설이다. 김형준, 배승주, 장두환, 조국은 고교시절 물리 숙제를 안한 까닭으로 벌을 받은 뒤 운명처럼 ‘만수산 4인방’으로 엮이게 된다. 이들의 삶을 농담처럼 가벼운 터치로 그리고 있지만 이들의 모습이야말로 산업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화상인 것이다.

소설을 좋아하고 시작하려는 친구들이 한번은 꼭 읽어봐야 할 책이다.

### 영혼의 새벽(1, 2)

최인호 / 문학과 지성사 / 2002 / 286·210쪽 / 8,000·7,000원

『상도』이래 2년 만에 내놓은 최인호의 신작 장편 소설.

이 책은 학생운동에 몸담았던 주인공이 과거 자신을 괴롭혔던 고문기술자를 다시 만나면서 분노와 증오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인간적인 고뇌에 빠지게 되는데, 예전의 동료에게 건네 받은 책 한권, 한국전쟁 당시 북한군에게 붙잡혀 참혹한 고통을 겪은 실제 인물 마리 마들렌 수녀의 수기를 읽으면서 시대와 이데올로기를 뛰어넘는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친다는 내용이다.

소설을 좋아하고 최인호의 소설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부담없이 읽어볼만한 책이다.

## 5. 창작의 즐거움 보충심화

### 나의 문학 이야기

박경리 외 16인 / 문학동네 / 2001 / 341쪽 / 9,000원

우리 문단의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고백하는 ‘나의 문학 이야기’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글 쓰기의 내밀한 풍경을 들여다볼 수 있다.

문학에 빠져들게 된 계기, 창작의 즐거움과 고통을 맛보았던 신인시절, 그리고 지금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작가들의 ‘자기 고백’은 진한 여운을 남긴다. 농촌 생활 중 불쑥 시를 쓰게 되었다는 신경림 시인, ‘즐거운 편지’가 연상의 여인을 향한 연애시임을 밝힌 황동규 시인 등 이들이 풀어놓는 이야기는 솔직하고 담백하다.

이 책을 통해 문학에 대한 안목을 기를 수 있기를 바란다.

### 아무에게도 하지 못한말

한국 글쓰기 연구회 지음 / 보리 / 2001 / 192쪽 / 6,500원

어서 학교를 마치고 취직을 해서 동생 공부시키고 엄마 편히 모셔야겠다는 아이. 동무가 공책 필기해 준 것에 고마움을 간직하는 아이. 관광객들로 오염되는 동네를 안타까워하는 아이 등 중학생들의 이야기를 모아 엮은 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삶과 생각을 읽을 수 있는 44편을 수록했다.

이 책은, ‘한국글쓰기연구회’선생님들이 십 년 넘게 중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삶을 가꾸는 글쓰기’교육을 하면서 거둔 글들에서 또래 중학생들이 불 만한 글들만 뽑은 책이다



# 생활국어

## ▣ 1학년

### 1. 생각과 표현

#### 1) 창의적인 생각과 표현

#### 거꾸로 보는 걸리버 여행기, 닐스의 신기한 여행

조나단 스워프트 외 지음 / 교학사 / 2001 / 155쪽 / 6,000원

세계 명작 이야기들을 두 편씩 묶어 논술과 창의력을 함께 길러낼 수 있도록 꾸민 동화 학습서. 명작을 읽기 위한 준비부터 내용 파악하기, 감상문쓰기, 내용을 되돌아보기 등으로 꾸며 놓았다.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독서 안내 : 명작을 읽기 전에 알아 둘 점이나 생각할 일들을 미리 안내하여 보람있는 독서가 되도록 이끌어 주는 길잡이이다 / 명작동화 내용 넣기 : 명작의 뿌리를 찾아서, 내용 되돌아보기, 생각을 넓고 깊게 독서 감상문 쓸 수 있도록 안내한다. / 논술 쑥쑥! : 이야기를 토대로 논술문제와 보기글을 실었다. / 재미있는 낱말 맞추기 : 명작의 이름이나 주인공, 그 밖의 여러 낱말을 '십자말풀이'로 실어놓았다.

#### 교양 아줌마

오경임 지음, 송진희 그림 / 창작과비평사 / 2001 / 160쪽 / 6,000원

전업주부인 엄마와 달리, 교양이 철철 넘치는 모습이 매력적인 윗층 아줌마. 그러나 그 아줌마가 겉모습만 요란한 워선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교양 아줌마'에서는 어른의 표리부동함에 대한 아이의 익살스럽지만 야무진 비판이 돋보인다. 가슴에 '휘이의 교이교이' 우는 새 한 마리를 키우는 잠녀 할머니. 바위같이 살고 싶었던 할머니의 삶을 제주도의 독특한 향토적 풍경 속에서 빚어낸 '숨비소리'는 슬프지만 잔잔한 감동이 담겨 있다. 이야기 속 가족의 모습은 따뜻하다. 그리고 아이들이 세상을 보는 눈은 예리하고 맑다. 다양한 소재의 이야기가 모두 제각각의 빛깔과 목소리를 가지고 있지만, 읽은 후에는 가마솥으로 지은 고분방 한 그릇을 비운 든든한 느낌이 드는 동화들이다.

### 1. 생각과 표현

#### 1) 창의적인 생각과 표현 연습

#### 광수 생각 1, 2, 3

박광수 / 소담출판사 / 1998 / 180쪽 / 8,500원

조선일보에 연재한 만화 '광수생각'을 묶은 단행본. 갈수록 늘어나는 실직한 아버지들, 그만큼 늘어난 '흔들리는' 가정. 이러한 현실 속에서 <광수생각>은 우리의 무관심을 크게 한번 뒤흔들어 놓는다. 우리 이웃이 느끼는 서러움, 삶의 버거움, 가족에 대한 사랑과 희망을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들로 풀어낸다. 특히 신문이라는 지면에 게재할 수 없었던 예민한 정치 이야기, 노골적인 발언들, 거침없는 현실 비판들, 편집자에 의해 수정되었던 만화들의 원본, 만화보다 더 재미있는 뒷얘기들은 단행본에서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묘미다. 황당하고 기상천외한 그의 친구들을 하나 둘 만나고 사귀어 가면서, 힘들고 버거운 세상살이로 지친 마음에 사랑과 위로와 따스함을 얻는다. 짜장면을 다 먹은 후에 오는 기분 좋은 포만감처럼.

#### 감성 사진

이희수 / 동승동 / 2001 / 222쪽 / 6,500원

제목은 딱딱하게 사진이라 붙어 있지만 책을 들추어보면 곧 그것이 여느 사진과 많이 다를게 알게 된다. 작가정신의 요체를 드러내 보이는 산문집의 범주에 든다 하겠다. 예를 들어보면 '엽서-조용한 마음의 창틀' 그런 식이다. 작가를 사랑하는 독자, 습작하는 사람들이 흥미롭게 읽겠다.

3. 정보 수집하기  
1) 정보 수집 방법

우리 집 가족 신문

고은경·송경호 / 그린비 / 1999 / 104쪽 / 9,500원

초등학교 방학과제로 자리잡은 가족신문. 귀찮고 막막해서 고생했던 사람이라면 이 책을 보고 도움을 받자. 의무감을 떠나 즐거운 마음으로 가족대화의 장으로서 함께 머리를 맞출 수 있다면 오히려 가족신문에 고마움을 느낄지도...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와 짜임새있는 계획을 필요로 한다. 이 책에서는 가족신문의 의미, 소재, 작성과정, 신문 꾸미기 등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실제로 하나네 가족의 12달 가족신문의 예를 실어 이해를 도왔다.

4. 국어 생활의 반성  
1) 외래어, 은어, 비속어, 유행어

당신의 우리말 실력은?

이기문 / 두산동아 / 1990 / 299쪽 / 6,000원

다양한 우리말의 예를 들면서 우리말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책이다.

4. 국어 생활의 반성  
2) 국어 생활 반성하기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 사전

베르나르 베르베르 / 열린책들 / 1996 / 230쪽 / 8,500원

이 책은 개미들의 문명에서 영감을 얻고 만들어진 것으로, 박물학과 형이상학, 공학과 미술, 수학과 신비 신학, 현대의 서사시와 고대의 의례가 어우러진 독특한 작품이다. 현자의 돌에 담긴 비밀과 빵의 비밀, 야비하기 이를 데 없었던 전제군주의 기도,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웠지만 헛된 꿈으로 끝나 버린 유토피아들, 쥐의 세계에 노예제도가 생성되는 과정 등이 담겨있다.

5. 내용 선정하기  
1) 내용 선정 방법

과학 콘서트

정재승 / 동아사이 / 2001 / 254쪽 / 9,000원

제목에서 연상시키듯 이 책은 때론 '매우 빠르고 경쾌하게 Vivace molto', 때론 '느리게 Andante' 펼쳐내는 과학의 교향곡이다. 2년 전 <물리학자는 영화에서 과학을 본다>를 통해 이미 과학과 인문학, 대중문화를 넘나드는 폭넓은 조예를 보여주었던 그가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글쟁이로서의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심지어 우리가 즐겨 듣는 음악까지도 높낮이를 분석하여 패턴으로 치환시켜버리는 물리학자들의 연구에서는 그들 특유의 오만방자함(?)이 엿보이기도 하지만, 이 역시 무척 흥미롭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튼 그가 가진 해박한 지식과 위트 있는 글솜씨가 과학책 읽는 즐거움을 한층 풍부하게 해주었다.

6. 상황에 맞게 말하기

대중 매체 읽고 쓰고 생각하기

1) 상황에 맞게 말하는 방법

송재희 / 세종서적 / 1999 / 374쪽 / 9,000원

청소년들의 삶을 다룬 영화 '위험한 아이들', 조관우의 노래 '모래성', 만화 '달의 요정 세일러문'을 비롯해 신문과 잡지, 문학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을 가지고 인간과 문화 환경과 과학 등 여러 주제에 걸쳐 토론한 논술교재.

교양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옛 이야기 백 가지

서정오 / 현암사 / 1999 / 496쪽 / 12,000원

책에 실린 백 가지의 옛이야기에는 각 나름의 의미가 있어, 날카로운 풍자에 무릎을 치기도 하고, 웃음 속에 날카롭게 드러난 현실의 삶과 삶의 지혜가 단출하게 이야기된다. 어릴 때부터 늘 들어왔던 이야기도 실제로 처음부터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의외로 온전하게 기억하는 이야기가 몇 없을지 모른다. 여기에는 그런 익숙한 이야기에서부터 민담의 언저리에 숨어 있던 이야기까지 두 권에 걸쳐 종종걸음으로 백 걸음을 걷는다.

그 옛날 공동체 사회와 같지는 않을 테지만, 입에서 입으로 우리를 정서적으로 묶어주었던 한 두름의 구수한 입담들은, 이제 책으로 묶여져 글에서 글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나간다.

■ 2학년 1학기

1. 즐거운 언어 생활

돌다리

1) 경험한 일 말하기

이태준 / **다림(도)** / 2000 / 191쪽 / 7,000원

이태준은 작품 속에서 일제 시대의 상황을 현실 인식이 강한 날카로운 어른의 시각으로도 담아 냈고,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노력하는 순수한 아이의 입장에서 그려냈다. 따라서 이태준의 작품에 대해 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이야기'라고 평가하고 싶다.

1. 감상하며 읽기

1) 문학작품의 감상

거꾸로 보는 신데렐라와 백설공주

김용규 / **교학사** / 2000 / 132쪽 / 6,000원

날마다 구박을 받으며 집안일만 하던 천덕꾸러기 소녀 신데렐라가 선녀의 요술로 아름다운 아가씨로 변신하여 왕자와 결혼한다는 <신데렐라>와 하얀 눈송이처럼 곱고 예쁜 백설공주는 심술궂은 새 왕비의 시샘으로 죽을 고비를 당할 때마다 일곱 난쟁이의 도움으로 살아나고 왕자와 결혼한다는 <백설공주> 이야기를 실었다. 아울러 명작을 읽기 전에 알아 둘 점이나 생각할 일들을 미리 안내하는 <독서안내>를 비롯해 <명작의 뿌리를 찾아서>, <내용 되돌아보기> 등을 함께 실었다.

에스메이의 일기

에스메이 코델 / **세종서적** / 1999 / 256쪽 / 9,000원

<에스메이의 일기>는 에스메이 코델이라는 여교사가 선생님으로서의 첫해, 부임 1년간 겪은 일들을 일기로 엮은 책. 읽어나가다 보면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에 1년을 365일로 날 날이 쪼개놓았구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책 한 권이 정말 무궁무진한 에피소드로 가득 차 있다. 스물네 살이라는 젊은 나이, 순수한 열정으로 푹푹 뭉친 첫해였기에 에스메이는 다른 사람이 3년이 걸려도 못해낼 일들을 한해 동안 정신없이 이루어놓았다. 무모하리만큼 혈기 왕성한 여교사가 1년 동안 겪은 수많은 일들. 바로 그 속에 그리운 추억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다.

웃음이 묻어 나는 편지 1

MBC라디오극 편 / **밀알** / 1997 / 355쪽 / 7,500원

출판저널 : MBC라디오 프로그램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에 소개된 편지를 엄선했다. '아무도 못 말리는 웃음보따리' '추억이라는 이름의 웃음여행' '가족을 화목으로 짜는 웃음베를' '생활 속에 피어나는 웃음안개' 등 4개의 장으로 나누어 모두 68편의 이야기를 수록...

출판저널 :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MBC지금은 라디오 시대'의 코너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를 모은 2권. 1권보다 더 많은 편지가 선별됐으며 방송에서 차마 하지 못한 이야기도 엮어 총 61편을 실었다...

1. 즐거운 언어 생활

운수 좋은 날

2) 책 읽고 이야기 하기

현진건 / **글승이** / 2000 / 239쪽 / 7,000원

현진건의 대표작을 중심으로 5편의 작품이 들어 있다. 이중인격자인 B사감, 무기력한 지식인, 외모에 좌우되는 속 빈 청년들, 하층민들의 비극적 삶 등을 그리고 있는 현진건의 작품은 어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나름대로 작품을 해석하여 표현한 화가의 아름다운 그림들이 작품을 읽는 즐거움을 더해 준다.

문학성이 뛰어난 단편소설을 줄기차게 발표하여 한국문학사의 주요소설가로 위치하고 있는 현진건은 민족주의적 색채가 짙은 사실주의를 개척한 작가이자, 김동인과 더불어 우리나라 근대 단편소설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 1. 즐거운 언어 생활

## 2) 책 읽고 이야기 하기

## 광해군

한명기 / 역사비평사 / 2000 / 312쪽 / 9,000원

자신의 눈에 장점이 다른 이들에게 단점일 수 있는 것처럼 한 인물에 대한 평가가 늘 같을 수만은 없다. 어떤 때는 너무나 상반되어 오히려 혼란스럽기조차 하다. 저자가 이야기하려는 광해군 역시 마찬가지다. 광해군은 쿠데타로 왕위를 빼앗기고 죽은 뒤에도 '폭군' '패륜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물인 동시에 명·청 교체기, 혼란의 시대에 탁월한 외교정책을 펼친 군주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 봄봄

김유정 / 신원문화사 / 2002 / 278쪽 / 8,000원

김유정 단편 선집. 특별한 문학적 장치나 의도적 드라마 대신 해학적이고 골계적인 질펀한 웃음을 통해 일제 강점기의 농촌의 궁핍한 삶, 결국 따라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농민들의 현실을 풍자하고 있는 그의 대표적인 단편 “금 따는 콩밭”, “봄봄”, “동백꽃” 등 총 13편의 작품을 수록했다.

“봄봄”에서 데릴사위인 ‘나’는 고심 끝에 장인에게 점순이와의 혼인을 정식으로 따지려 든다. 그것이 결국 점순이의 꾀에 빠진 ‘나’의 어리석음이다. 그래서 결국 장인과 한바탕 소란을 피우고, 장인과 대판 싸우면 좋아할 줄 알았던 점순이는 오히려 ‘나’에게 역정을 든다.

“금 따는 콩밭”은 물질을 탐하는 인간 욕심의 허탈함을 그린 소설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 영식에게 동네 어른들은 미친 짓 그만두라고 한다. 왜냐하면 영식이 자신의 콩밭에서 금맥이 있어 파면 금이 나올 것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파봤자 금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영식은 그날 밤 도망칠 것을 마음속으로 다짐한다는 내용이다.

## 깨가 쏟아지는 우리 선인들 이야기

이훈중 / 뜨인돌 / 1997 / 284쪽 / 6,500원

해박한 민속학 지식으로 풀어낸 우리 선인들의 정취와 해학. 평양에 사는 황진사의 절제있고 독특한 고집을 들려주는 <고집통이 황진사> 등 57편의 이야기를 실었다. 맛깔스럽게 풀어낸 선인들의 삶 속에 여유와 재치, 의기와 기상이 가득 담겨있다.

## N세대 퍼즐독서

이영숙 / 도서출판 성림 / 2000 / 282쪽 / 8,500원

퍼즐을 맞추면서 근현대 명작소설에 대한 상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된 새로운 형식의 퍼즐 맞추기... 단편소설 ‘감자’를 예로 들면 작가 김동인과 줄거리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작품 속에 등장하는 낱말만을 재료로 퍼즐을 꾸몄다

## 그 섬에 가고 싶다

임철우 / 살림 / 1991 / 284쪽 / 8,000원

<봄날>의 작가 임철우의 가장 아름답고 중요한 작품. 작은 섬에 몰아닥쳤던 전쟁과 분단의 소용돌이가 어떻게 사람들을 바꾸어놓는지, 사람들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이며 동시에 따뜻한 존재인지 담담히 얘기한다.

작가 자신의 경험이 녹아있기도 한 이 소설은 마치 전쟁 이후 사람들이 겪었던 모든 종류의 아픔을 축약시켜 놓은 듯 하지만 여전히 아름답다. 상처극복의 열쇠로 보여지는 인간에 대한 믿음은 광주민중항쟁을 다룬 <봄날>에도 여전하다. 박광수 감독에 의해 동명의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 수필로 배우는 글 읽기

최시한 / 문학과 지성사 / 2001 / 296쪽 / 8,500원

수필을 통해 읽기의 원리와 방법을 제시한 책. <삼등석>, <딸각발이>, <현이의 연극> 등 수필 자료들을 훈련 과정과 읽는 능력의 단계에 맞추어 뽑아 배열하고 읽기의 원리와 방법을 제시 하면서 연습문제를 수록하여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1. 즐거운 언어 생활  
보충심화

아들과 함께 걷는 길

이순원 / 해냄(네오북) / 2002 / 230쪽 / 8,000원

이 책은 현대 사회의 문제점인 부권 상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소설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세대를 뛰어넘어 느낄 수 있는 교감, 그리고 따뜻한 가족애를 느낄 수 있다. 이 책은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걸어가면서 나누는 이야기들이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길을 걷는다. 꼭 걸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한 방식도 길이 될 수 있다. 이런 길을 가면서 우리는 어떤 길이 좋은 길이요 나쁜 길인지 잘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책에서는 평소에는 이야기를 잘 나누지 못하는 아들과 아버지의 대화를 써 놓으면서 우리에게 아버지 또는 어머니 부모님과 대화의 만들어 줄 수 있는 책이다.

2. 토론하여 내용  
마련하기

토의토론과 회의

1) 토론한 내용으로  
말하기

전용우 / 집문당(도) / 1996 / 349쪽 / 10,000원

일상 언어생활에서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는 토론, 토의, 대화, 회의 등의 이론과 실체를 쉽게 서술한 책. 문학박사인 저자는 활발한 토론과 토의는 과학적 사고와 논리적 표현능력을 키워 준다고 강조했다.

2. 토론하여 내용  
마련하기

꼭 읽어야 할 세계 단편 1 : 프랑스편

2) 토론한 내용으로  
글쓰기

송승환 / 타임리크 / 1999 / 343쪽 / 7,000원

수능, 논술, 독서감상으로 꼭 읽어야 할 세계 단편-프랑스편. 샤를르 루이 필립의 『알리스』, 베르코르의 『바다의 침묵』, 앙드레 모로아의 『예기치 못한 일』 등 13편의 단편을 신고 작가와의 만남, 작품 해설, 줄거리, 독서토론 등을 담았다.

블루백

팀 윈튼 / 놀악 / 2000 / 160쪽 / 7,000원

1998년 와일더니스 소사이어터 환경상 수상 작품. <블루백>은 한 남자의 어린 시절과 삶, 그리고 그의 바다에 대한 사랑을 그린 매혹적인 이야기이다. 또한 이 책은 한 여인이 자신의 삶의 터전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서 그 삶의 터전을 파괴하려는 여러 사건에 맞서 지켜내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할말이 많아요

존 마스틴 / 섬 / 1999 / 166쪽 / 6,000원

고등학교 영어 교사 출신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예민한 소재를 다양하게 다룬 소설을 연달아 발표해온 호주 작가의 첫 번째 작품. 가족들과 헤어져 낯선 기숙학교에서 지내게 된 열 다섯 살 소녀의 일기 형식을 취하고 있다.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세상이 두려워 말문을 닫아버렸으면서도, 끊임없이 그 세계를 그리워하는 주인공이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감동적이다. 그 과정에서 섬세하게 그녀를 보살피는 선생님과 친구들의 모습도 따스하다.

청소년들의 이야기를 진솔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이 작품은 또래 아이들이 겪는 갈등과 고민거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한국의 청소년들도 충분히 공감할 만하다. 특히, 자신의 상처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가지 못해 외로운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과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2. 토론하여 내용  
마련 하기  
보충심화

삽 한 자루 달랑 들고

장진영 / 내일을여는책 / 2000 / 214쪽 / 6,000원

장진영의 <삽 한 자루 달랑 들고>에는 잔잔한 붓 선으로 그린 시원한 나무그늘에 농사일의 고단함과 신기함, 고통과 기쁨이 담겨 있다. “건달 농부”를 자처하는 장진영은 강화도로 내려가 농사 지은 지 7년 정도 되었다. 타지에서 온 이방인이 시골에 정착하는 것, 그리고 땅과 대화를 하기가 지의 어려움, 도시에서 손과 머리만 쓰다가 온몸을 땀으로 범벅해야 하는 육체노동 등 자신의 시골 생활을 그대로 만화 속에서 재현하고 있다.

2. 토론하여 내용  
마련 하기  
보충심화

물리학자는 영화에서 과학을 본다

정재승 / 동아시아 / 2002 / 336쪽 / 12,000원

수많은 영화에 등장하는 과학적 오류를 지적한 책. 스타워즈에 나타나는 광선검은 난센스이며 아마겟돈은 코미디에 가깝다. 갖가지 영화 사례를 들어 우주여행의 실상을 설명하기도 하고 화면과 전생의 문제를 다루기도 한다. 영화를 색다르게 볼 수 있는 과학 에세이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과학은 우리에게 더욱 밀접하게 다가오는 것 같다. 과학이 우리 생활에 많이 적용된다는 이야기도 되지만 그 만큼 과학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도 될 것이다. '물리학자는 영화에서 과학을 본다'라는 책은 영화에 과학을 적용시켜 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과학적인 시각을 갖출 것인가를 어렵지 않게 배우게 해 준 것 같다. 미흡하기는 하지만 과학적 안목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얻은 만큼 내 사고도 더 커진 것 같아 책을 덮으면서의 내 마음은 너무 뿌듯했다.

상계동 아이들

노경실 / 시공주니어 / 1999 / 188쪽 / 6,000원

서울의 변두리 상계동. 그곳에서 상처 입고 살아가는 아이들의 순수한 동심을 투명한 언어로 그려낸 동화. 작가의 실제 경험이 잘 묻어나 있다. 주인공은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어린이들. 엄마가 무당이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없기도 하고, 아니면 아이 스스로가 장애아이기도 하다. 그들은 고층건물보다 더 높은 곳, 상계동 골목길에서 놀고 싸우면서 그들의 꿈을 키워나간다.

이 책은 원래 도서출판 산하에서 출간했었다. 이번에 시공사에서 새로운 일러스트와 함께 다시 내놓았다.

3. 국어의 언어적  
특징과 음운

옛 시조 감상

1) 국어의 언어적  
특징

김중오 편 / 장신세계사 / 1998 / 380쪽 / 10,000원

겨레의 얼이 담겨있는 옛시조를 모아 놓은 책. 이전까지의 시조 감상이 문학적, 교육적 가치의 측면에서만 다루어졌지만 이른바 '잡스러운 것'(평민들의 시조)까지 포괄하여 한국 시조 전반을 개괄하고자 한 책이다.

3. 국어의 언어적  
특징과 음운

못난 것도 힘이 된다 1

2) 국어의 음운

이상석 / 자인 / 2001 / 216쪽 / 7,000원

작가 이상석의 자전적 소설. 지금은 우등생, 열등생, 모범생, 불량학생 모두를 가르쳐야 하는 교사지만 청소년기에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저자의 아픈 경험을 솔직 대담하게 이야기 하고 있다. 어린 시절 시골에서 보낸 아련한 추억과 청소년기 자신의 일기장을 소개하여 바뀐 환경으로 인해 반항을 시작하기까지 마음의 상태를 섬세하게 그리고 있다.

4. 내용 구성하여  
쓰기

나의 산에서

1) 문장 연결하여  
쓰기

진 크레이그 헤드 조지 / 비룡소 / 1995 / 304쪽 / 6,500원

뉴베리 상 명예상 수상작. 꿈과 호기심이 많은 소년 샘 그리블리가 혼자 힘으로 산 속에서 의식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험 생활을 흥미진진하게 그린 이 책은, 1959년에 출판된 이래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뉴베리 상을 받은 이 작품은 미국 도서관 협회의 추천 도서로 선정되었고, 영화로까지 만들어졌다. 특히, 국내에서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원구가 번역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세상에서 네가 제일 멋있다고 말해주자

최은숙 / 문학동네 / 2000 / 246쪽 / 7,500원

시골 작은 중학교 선생님인 저자의 교실일기. 학교한 아이들은 책가방 짊어던지고 놀러나가고, 학교 선생님은 이웃집 아주머니나 별반 다를 것 없는 시골 학교라서인지, 이 '학교현장 보고서'에는 체념이나 격정보다는 여유와 희망이 더 많다. 물론 저자도 여름방학 보충수업을 강요하지 말자고 한마디 했다가 '짜가지 없는 짬'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는 "학교는 끔찍하지만 그 속에서도 울고 웃고 자신을 발견해내고, 삶을 통째로 나누는 그들이 있으므로 절망의 접점이 곧 희망"이라고 말한다. 또 '어떻게 하면 리얼하게 병가를 내고 하루 쉬어볼까' 궁리하는 서른이 훌쩍 넘은 철없는 사회인으로 선생님을 다시 보는 것도 웃음나는 일이다. 저자의 남편은 소설가 한창훈. 전업주부를 자임하며 아내를 든든히 뒷받쳐주고 있는 소설가의 안 생활을 들여다 볼 수도 있다.

4. 내용 구성하여 쓰기

당진일기

1) 문장 연결하여 쓰기

엄정식 / **하늘재** / 2001 / 320쪽 / 9,500원

서강대 철학과 엄정식 교수가 몇 년 동안 써온 일기를 엮은 독특한 에세이집으로, 저자가 충남 당진의 작은 농가에서 빚어낸 사색적인 이야기들이 사진들과 함께 실려 있다. 은곡재(隱谷齋)라는 이름처럼 야트막한 산자락에 숨어 있는 그 집에서, 저자는 논밭일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글을 썼다. 그 글속에는 낯선 산골 마을에 홀로 들어와 적응하고 생활하며 느끼고 사유하는 저자의 삶의 모습이 여과 없이 기록되어 있다.

저자가 이곳에서 얻은 것은 우선 자기 자신과의 만남이다. “나는 나 자신의 행방이 묘연해지면 느닷없이 정신을 가다듬고 이곳에 달려온다. 이곳에 오면 비로소 산골 마을과 아늑한 자연의 품속에 안기는 나 자신을 만난다.”라는 고백처럼 저자는 이곳에서 ‘자아 인식’이라는 가장 중요한 철학적 주제에 다가간다.

안내견 탄실이

고정옥 / **대교출판(주)** / 2000 / 187쪽 / 6,800원

시각 장애인 예나의 눈이 되어준 안내견 탄실이 이야기를 통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는 창작 동화. 화가의 꿈을 키워가던 예나는 어느 날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된다. 예나에게 세상은 이제 어둠과 두려움뿐이고, 마음속에는 절망만이 가득하다.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길이 막혀 버린 예나에게 새로운 길을 찾아 준 안내견 탄실이. 복잡한 세상의 길에서부터 마음으로 통하는 보이지 않는 길에 이르기까지, 한 몸 한 마음이 되어 걸어가는 이들의 이야기는 어린이들에게 고난을 극복하는 힘과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아 주는 기회를 제공한다.

4. 내용 구성하여 쓰기

작문 문단 쓰기로 익히기

2) 내용 연결하여 쓰기

캐슬린 E.셀리번 / **삼영사** / 2000 / 284쪽 / 9,000원

본 책은 글쓰기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좋은 글쓰기 지도를 위한 지침서로서 활용할 수 있다. 작문의 시작에서부터 글의 서론, 본론 및 결론을 구성하는 법이나 일관성있게 글쓰기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담겨있다.

글의 목적을 살펴보면, 작문의 시작/ 문단쓰기/ 중심 문장 연습/ 형식과 구성의 기본 문제들/ 문단의 이해/ 형식과 구성의 세부 문제들/ 주제 문장/ 본론의 구성/ 단편의 서론, 결론, 제목 등을 구성하기로 나뉘볼 수 있다.

글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승훈 / **문학아카데미** / 1999 / 296쪽 / 10,000원

글짓기의 이론과 실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글에 대한 정의로부터 명제의 중요성, 글의 구조, 문장의 조건, 낱말의 조건, 문체, 글의 유형, 글의 모형에 이르기까지 글과 글짓기의 일치를 주제로 삼았다.

따라서 소주제를 확장하는 열두가지 방법, 서두를 시작하는 열두가지 방법, 본론을 구성하는 열한가지 방법, 결말을 맺는 열가지 방법 등을 중점 기술하고 있다.

문장 바로쓰기

인터넷국어교육연구소 / **국어닷컴** / 2000 / 322쪽 / 9,000원

글을 쓰기 위한 기초적인 요건들을 정리한 책. 틀리기 쉬운 말을 발췌하여 바로 잡은 <잘못된 말 바로잡기>, 정확하고 효과적인 문장을 작성하기 위한 <잘못된 글 바로잡기>, 맞춤법에 대해 설명하고 혼동하기 쉬운 어휘들을 제시한 <맞춤법 익히기>, 한글 맞춤법의 띄어쓰기 규정과 띄어쓰기 관례를 설명한 <띄어쓰기 익히기>, 문장 부호 사용법을 이해하고 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한 <문장 부호 익히기> 등 총 5장에 걸쳐 문장 바로 쓰기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했다. 부록으로 표준어 규정을 같이 실었다.

#### 4. 내용 구성하여 쓰기

##### 보충심화

###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석 / 정독 / 2001 / 202쪽 / 6,700원

1928년 <조선지광>에 <도시와 유명>을 발표하면서 <기우>와 <행진곡> 등 빈곤하고 불행한 하층민들의 삶의 문제를 작품화한 이효석.

그는 1942년 뇌막염으로 36년의 짧은 생을 마감할 때까지 현실과 근원적인 생성의 힘, 그리고 서정적인 삶의 인식으로 작품세계를 넓혀나갔다. 이 책은 그의 대표작 <메밀꽃 필 무렵>을 비롯해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치료를 못받는 가난한 모자를 통해 도시는 성장하지만 빈민층이 유명처럼 늘어나는 사실을 고발한 <도시와 유명>, 이상주의를 지향하는 청년상을 제시한 <약령기> 등 7편의 단편소설을 실었다.

### 모퉁이를 돌면 무엇이 나올까

이정숙 / 산악문화 / 2001 / 284쪽 / 15,000원

<사람과 산> 테마산행 시리즈1.

수백 년의 세월 동안 고갯마루를 저 홀로 지켜온 당집이나 당나무들, 낡은 옛 주막집, 전설이 내려오는 기이한 바위 등 저자가 직접 넘어 다닌 옛 고갯길 20개를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 특히 거길, 광산길, 소금길, 보부상길, 유배길 등 '옛길'에는 선인들의 갖가지 삶의 모습과 사연들이 녹아 있다. 이 책은 바로 그 옛길들을 테마로 삼아 역사와 문화의 길라잡이를 해주는 인제 곶배령, 평창 철목령, 강릉 대관령, 영주 마구령 등 강원도와 경상북도의 고갯길 20곳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등의 계절별로 나눠 소개하고 있다.

### 마음을 구름에 묻고

성기조 / 한국문화사 / 1999 / 260쪽 / 8,000원

시인 겸 소설가로 활동하는 교수의 기행문집.

수양버들과 한글간판, 잊혀져 가는 유적들, 천안문 광장과 북경, 피렌체와 르네상스 등 중국과 유럽을 여행하고 쓴 느낌을 62편의 글에 담았다.

#### 5. 목적에 맞는 말과 글

##### 1) 조언하기

### 사람과 말하는 것이 즐겁다

이정숙 / 글읽는세상 / 1999 / 256쪽 / 7,800원

스피치 컨설턴트로 활동 중인 저자가 의사소통의 다양한 이론과 재미있는 사례들을 곁들여 성공 화법을 들려준다. 찬상찬하 유아독존형, 반대만을 위한 반대형, 난 몰라형, 그게 뭐니까형, 왜 사냐면 웃지요형, 나를 따르라형, 죽집게형, 동서화합형, 아이디어뱅크형, 바람잡이형 등으로 말하는 유형의 유형을 나누어 자신이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평가하도록 했다.

### 세상의 모든 곰벵이들에게

리타 엠렛 / 최정미 / 뜨인돌 / 2001 / 231쪽 / 8,000원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게으른 사람들에게 '인생의 비전'을 제시하는 책이다. 저자는 일을 미루는 사람들의 내면 심리를 분석하여 '지금 바로 실천하기'가 왜 유익한지 알려주고, 게으른 습관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60분에 타이머를 맞추어 놓고 그 일에 집중하기, 일을 끝내면 스스로에게 보상하기, 일을 끝내기 전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 참기 등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는 아이디어가 가득 들어 있다.

이 책은 해야 할 일을 지금 당장 함으로써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원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권한다.

###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

김명근 외 / 아침이슬 / 2000 / 256쪽 / 7,500원

지난 3년 동안 월간 『말』에 연재되었던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를 한 권으로 묶은 책이다. 김명근, 유시춘, 임수경, 김창수, 안철수, 함세웅, 최열, 손석희, 이인영, 이형모, 김창현, 김정환, 박용길 등 모두 28명의 치열했던 삶과 묻어둔 이야기들이 소복히 담겨있다. 그들이 여전히 든든하게 현실을 버티고 꾸러나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조금은 엿보이기도 한다. 이 책의 기획자들은 "독자들이 이들의 '성공'에 주목하기보다는 '마음'에 주목하기를 바랐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유력한 힘은 사랑이며 그 사랑은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한다. 그 바램에 어긋나지 않게 마음을 담아 성실히 책을 엮어낸 수고스러움이 곳곳에 배어있다.

5. 목적에 맞는  
말과 글  
1) 조언하기

될 수 있다 - 시리즈

권역중 / 청년사 / 1999 / 259쪽 / 8,000원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거나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지는 직업들을 모은 <될 수 있다> 시리즈. 여기에 나오는 직업들은 하나같이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봐서 되는 것들이 아니다!

보통 청소년 책들처럼 직업을 소개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그 직업에 이르는 법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색이다. 직업현장을 취재하고, 그 직업을 얻기 위한 방법인 대학 혹은 학원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그 직업의 전문가를 인터뷰한 내용도 실었다.

총 6권으로 각권의 내용은 연예/가요편, 영화/애니메이션/만화, 요리편, 컴퓨터편, 디자이너편, 자유직업편으로 되어 있다.

5. 목적에 맞는  
말과 글  
2) 자기 소개서  
쓰기

간판스타

이희재 / 글는그림발 / 2001 / 276쪽 / 9,500원

만화평론가가 선정된 해방 이후 좋은 우리 만화 1위. 절판되어 오랫동안 인구에 회자만 되었던 작품을 복간하였다.

한국 만화 최고의 리얼리즘 작가로 불리는 이희재는 (만화가 박재동의 헌사에 따르면) '90년 만화사에 처음으로 몽상의 안개를 걷어내고 현실의 세계로 우릴 데리고 간, 그리하여 만화를 예술의 지위로 단박 올려 놓은 만화가'이다. 그래서 그는 우리를 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릴 깨운다.

사실적인 그림체에 등장인물들의 구성진 대사, 그것에 한국 현대사가 남긴 묵직한 주제의식을 실었다. 이 책은 <부자의 그림일기>와 함께 만화가 사회를 담아낼 수 있고, 그것이 매우 적절한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이다.

5. 목적에 맞는  
말과 글  
보충심화

탈무드

김영림 / 느낌이 있는책 / 2002 / 286쪽 / 9,000원

유태인의 지적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지혜·사랑·교훈을 담은 내용으로 사랑 받아왔다.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지닌 <탈무드> 수백 년에 걸쳐 완성된 유태인의 지혜서인 동시에 사람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우쳐 주는 철학서이기도 하다. 탈무드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가르침을 주는 지혜로운 삶을 위한 지침서인 셈.

삶과 행복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학생에게 <탈무드>라는 지혜의 바다에 빠져보기를 권한다.

6. 바르게 쓰기  
1) 바른 문장 쓰기

우리 말글 바로 알고 옳게 쓰자

정재도, 김병규 공저 / 윤정주 그림 / 창작과비평사 / 181쪽 / 7,000원

<우리 말글 바로 알고 옳게 쓰자>는 한글학자 정재도와 동화작가 김병규가 '소년 한국일보'에 연재되었던 내용들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말과 글을 뽑아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띄어쓰기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말, 헛갈리는 맞춤법, 잘못 쓰기 쉬운 말, 뜻은 다른데도 정확한 쓰임새를 모르고 혼동해 쓰는 말 등 우리말의 다양한 용례와 대안을 제시해 주고 있다.

유혹하는 글쓰기

스티븐 킹 / 김영사 / 2002 / 357쪽 / 9,900원

발표하는 소설마다 베스트셀러가 되고 바로 영화화되는 비결은 무엇일까?

누구나 아는 체 하지만 그 누구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한 글쓰기, 독자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글쓰기의 핵심과 기법.

창작에 처음 눈을 뗀던 어린 시절부터 첫 장편 《캐리》를 내놓기까지 힘들었던 젊은 시절, 출간하는 소설마다 베스트셀러, 죽음 직전에서 글쓰기에 대한 열망으로 건강을 회복했던 사건 등.

독자를 즐겁게 하는 글을 쓰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스티븐 킹 자신의 경험과 연륜을 한 권의 책에 담았다.

이미 글을 쓰고 있는 작가, 이제 막 글을 쓰기 시작한 초보자들은 이 책에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글쓰기의 비밀과 자신감, 독자를 매료시키는 실제적인 방법을 얻게 된다.

6. 바르게 쓰기  
2) 올바른 국어 생활

우리말 바로 쓰기

이수열 / 현암사 / 494쪽 / 12,000원

한글 바로 쓰기 지침서 ‘입학원서를 접수시킨다’ ‘전투기를 격추시킨다’ ‘환경을 개선시킨다’ 등은 기형적 서술어의 대표 사례.

‘접수하다’ ‘격추하다’ ‘개선하다’ 등으로 바꿔 써야 한다. ‘변화되어져야 한다’ ‘이야기되어지고 있다’ 등 피동형의 남발 등의 예를 들며, 신문, 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엉터리 표현의 오용을 지적한다.

2학년 2학기

1. 보조 자료 활용하기

날씨 토픽

반기성 / 명진출판 / 2000 / 254쪽 / 8,800원

‘앞으로 10년동안 지구촌의 가장 큰 문제는 날씨가 될 것’이라는 문제는 비단 기상학자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다. 최근 20년간의 날씨 변화를 살펴 보면 그것은 변화라기 보다는 차라리 이번이 가깝다.

이 책이 지나는 의미는 우리의 일상 생활, 지구의 미래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개념인 날씨 이야기를 보다 재미있고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석구석 인체탐험 - 앓 이렇게 재미있는 과학이 6

닉아놀드 / 김영사 / 1999 / 164쪽 / 3,900원

과학교과 과정에서 생명분야에서 초등 6학년 과정인 『우리 몸의 생김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소화와 순환, 호흡과 배설, 자극과 반응에 대해 설명하면서 골격, 근육의 구조, 혈액, 피부, 각종 감각 기관, 내장 기관의 모양과 기능 등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요즘은 각종 매체들을 통해 인체에 대한 지식이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막상 자신에게 심장이 어느 쪽에 있는지, 간은 얼마만한지, 더 나아가 암세포와 정상 세포는 어떻게 다른지 물어 보면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렇게 자신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유용한 지식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좀더 실제적으로 알기 쉽게 가르쳐 주었으면 하고 늘 생각하던 중에 이 책을 만나게 되었다. 찬찬히 뜯어볼수록 이 짝딱하고 익살맞은 책에 들어 있는 엄청난 정보의 양과 높은 수준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 그래도 전혀 어렵거나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최고의 정성을 들여 쉽고 재미있게 꾸몄기 때문이리라.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오랫동안 사랑받을 책이다.

3일만에 읽는 몸의 구조

윤소영 / 서울문화사 / 2001 / 248쪽 / 7,800원

하루 종일 땀폭질이 맺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이 사실인가, 운동선수들은 경기 도중 왜 껌을 씹을까, 인간의 척추가 S자로 휘어진 이유 등 우리 몸과 관련된 다양한 구조와 기능, 질병, 대처 방법을 1백여점이 넘는 도표와 삽화를 통해 알기 쉽게 해설한 교양과학서이다. 외부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머리와 얼굴의 구조부터 소화기관 등의 각종 몸의 구조를 망라하였다.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한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2. 낱말 형성법과 국어의 관용어  
1) 낱말 형성법

재미있는 어원 이야기

박갑천 / 을유 문화사 / 1995.9 / 315쪽 / 5,500원

말의 근원과 그 변화의 흔적들에 관해 다양한 견해를 펼쳐보이는 책이다. 예를 들어, ‘가시버시’는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부부’의 낮춤말이지만 저자는 중세어로 거슬러 올라가 ‘아내’를 일컫는 말인 ‘갓’과 ‘가시’를 찾아낸다. 현재 북한에서 쓰는 ‘갓나이’(여자)가 이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라는 것이다.

## 2. 낱말 형성법과 국어의 관용어

### 2) 국어의 관용어

#### 고사성어

**이창훈 / 지원북클럽 / 2000 / 272쪽 / 6,000원**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의 산물 고사성어도 알고 실용한자를 깨우치는 일석이조의 책!

#### 두물머리

**이윤기 / 민음사 / 2000 / 296쪽 / 7,500원**

이윤기의 소설들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정보들을 접하게 된다. 아마존의 어원이 유방이 없는 이라든가(아마존들은 활을 잘 쓰기 위해서 한쪽 가슴을 도려내야 했다는 것), 양수리의 본래 이름이 두물머리라든가, 함지산이 함지박을 뒤집어놓은 모양의 산을, 증산은 떡시루 모양의 산을 가리킨다든가, 터키의 과목칼레에 있는 허연 돌덩어리를 사르코파스라고 하는데, 이는 본래 그리스어로 살을 먹는 것이란 뜻이고, 그래서 석관(石棺)을 의미하게 되었다든가 등등.

그것은 작가의 백과사전적 지식의 폭을 느끼게 하며, 인식의 즐거움을 준다. 물론 작가가 우리에게 단순히 재미있는 읽을거리로서 이러한 지식을 나열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 우리문화의 수수께끼1

**주강현 / 한겨레신문사 / 1996 / 291쪽 / 7,500원**

이 책은 서구적 사고와 서구 문명에 대한 우월주의가 만연해 있는 현실에서 우리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씌어졌다.

우리 민족의 의식과 생활 속에 가장 원초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문화 현상 15가지(남근과 여근, 금술, 환우, 개고기, 숫자3, 돌하루방, 배꼽, 동성동본 불혼, 풍뎉지 등)에 대해 다루었는데 저자의 의식과 입담이 걸쭉하게 녹아 있다.

책을 읽는 중에 낱낱거리며 웃을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기대해도 좋다.

## 3. 재구성하여 말하기

### 1) 요약하여 말하기

#### 백범일지

**김구 (도진순 주해) / 돌베개 / 1998 / 456쪽 / 9,500원**

우리 나라에서 백범 선생을 민족의 위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이다. '나의 소원'이란 글로 많이 알려진 민족주의자 백범 선생의 마음과 정신과 일생의 삶을 기록한 책이다. 티끌만한 사심도 없이, 오로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다 바친 민족적 지도자에게서 강건한 의지와 불굴의 정신은 또하나의 감동이다. 따뜻한 인간성과 울퉁한 인간을 만나는 기쁨이 크다. 하층민에서 국가 최고 지도자로 성장한 한 인간을 통해 우리는 격조 높은 인간 승리를 본다.

진정한 지도자를 필요로 하는 시대에 정신적 지주로 백범 김구 선생이 자서전으로나마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는 것으로도 개인에게 영광이며 우리 민족에게는 민족의 자산이다.

####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달라이 라마 (궁영희) / 문이당 / 2000 / 272쪽 / 7,000원**

생불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티베트 불교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의 명상록이다. 원제가 '평온으로 가는 길 - 매일의 명상'인 이 명상록은 365개의 짧은 단상들이 일기 형식으로 묶여진 책이다.

달라이 라마는 '억압받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세계 평화와 자유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사람들'을 기꺼이 대신하고자 하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 스승의 하나이다.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책으로 매일 한 두개의 단상을 읽어 봄직하다.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버릴 때 평온이 온다는 진리를 또 다시 깨우치게 한다.



3. 재구성하여 말하기

질문의 7가지 힘

2) 들은 내용 전달하기

도로서 리즈 (노혜숙) / 더난출판사 / 2002 / 288쪽 / 10,000원

이 책은 일상생활 속에서 적절하게 던지는 질문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뒤바꿔놓을 수 있는지 질문의 7가지 힘을 설명하면서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질문방법을 알려준다.

저자에 따르면 질문을 통해 생각할 기회를 갖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며, 생각을 자극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 1. 왜 질문이 중요한가. 2.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온다. 3.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 4. 질문을 하면 정보를 얻는다. 5. 질문을 하면 통제가 된다. 6.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한다. 7.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한다. 8.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이 된다. 9. 질문은 조직을 변화시킨다. 10. 가족의 결속력을 다지는 질문. 11. 질문의 재발견 : 호기심 되찾기. 12. 50가지 현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갈수록 질문을 하지 않는 현대의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김영섭) / 김영사 / 2002 / 469쪽 / 11,900원

자기 개발 컨설턴트 스티븐 코비 박사가 자신의 삶과 일에서 승리한 사람들을 집중 추적, 분석하여 밝혀낸 성공을 만드는 7가지 행동 방식과 그 습득 방법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코비 박사는 습관을 지식, 방법, 동기를 내포하는 것으로 파악하면서, 우리의 성품은 습관의 복합체라고 규정하였다.

공부에는 왕도가 있다

전정재 / 한국방송 출판 / 2001 / 326쪽 / 9,000원

일반 학습법 책과 다르게 대상을 상당히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나이에 따른 학습법, 각 과목에 적합한 학습법,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보편적인 문제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저자가 독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모든 학습의 기본이 되는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 그리고 독서가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다.

4. 글쓰기와 다듣기  
1) 정확하게 쓰기

갈래별 글쓰기

반숙희 / 나라말 / 2000 / 287쪽 / 10,000원

이 책은 두 선생님이 그간의 실제 수업을 정리한 것이다. 다양한 갈래의 쓰기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단순히 여러 갈래의 제시에만 그치지 않고 글감잡기에서부터 평가의 방법까지 글쓰기 지도의 전과정을 상세히 제시하고 있어 초보 교사라도 글쓰기 수업을 어렵지 않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한다.

교사에게는 활용가치 높은 지도서가, 학생에게는 재미있고 뜻깊은 글쓰기 수업의 방법을 알려주는 친절한 안내자가 될 것이다.

갈래별 학생 글모음

반숙희 / 나라말 / 2001 / 313쪽 / 12,000원

5년동안 4개의 중학교 학생들이 국어 시간에 다양하게 활동한 결과를 모아서 엮었다. 시, 수필, 소설, 희곡, 전기문, 기행문, 논설문, 보고서로 갈래를 나누어 각 갈래마다 간략한 글쓰기에 대한 안내글과 학생들의 글을 실었다. 친구들의 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읽으면 더욱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글쓰기를 두려워 말라

박동규 / 문학사상사 / 1998 / 398쪽 / 8,500원

좋은 글쓰기의 이론과 실재를 수록한 현직 교수의 글쓰기 지침서. 좋은 글의 요건부터 언어의 바른 의미를 이해하는 길, 주제와 소재로 들어가는 길, 일기문, 기행문 등 글의 성격에 따른 글쓰기 실재를 담았다.

4. 글쓰기와 다듬기  
1) 정확하게 쓰기

한승원의 글쓰기 교실

한승원 / 문학사상사 / 1998 / 224쪽 / 8,000원

이 책은 한승원 선생이 오랜 세월 닦아온 글쓰기 실력과 지도를 통해서 터득한 비결을 담고 있다. 이 책을 따라 노력한다면, 누구나 반드시 좋은 글쓰기 실력을 갖출 것이다.

기사 취재에서 작성까지

김숙현 / 범우사 / 1994 / 222쪽 / 6,000원

다른 책들에 비해 전문성이 돋보였다. 취재기자가 되기 위한 사람들이 많은 예문과 자세한 설명을 통해 한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된다.

5. 발화의 기능과 표현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존 그레이 / 친구미디어 / 2000 / 360쪽 / 9,000원

결코 같아질 수는 없지만, 한 행성에서 공존해야 하는 두 성(性), 남자와 여자. 작자는 이 두 성의 '공존을 위한 이해'를 시도한다.

남자는 화성, 여자는 금성에서 천체를 관측하다가 서로를 발견한다. 이들은 강한 이끌림으로 중간지점인 지구에 정착하지만, 사랑이 진행되면서 사사건건 충돌한다. 이는 소망의 차이, 사고 방식의 차이, 표현의 차이 등을 서로 몰랐기 때문. "남자가 동굴이라면 여자는 우물이다. 남자는 고민이 생기면 혼자만의 공간에서 해결점을 찾지만 여자는 누군가에게 고민거리를 털어놓으면서 기분을 회복한다." (본문내용 중) 이런 차이를 안다면 충돌 횟수를 줄일 수 있을 터. 이성애 눈 떠가는 청소년들에게는 이성을 이해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 도 덕

## ■ 1학년

### I. 삶과 도덕 1. 삶의 의미와 도덕

#### 생각에도 길이 있다

강예원 / 우리교육 / 1993년 / 232쪽 / 5,000원

이 책은 교훈적인 이야기를 엮어서 스스로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꾸민 책으로, 스스로 생각하게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삶의 지혜를 구하는 88가지 철학 이야기를 통해 올바른 생각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 경전, 고전, 역사책 등에서 선정된 88편의 다양한 우화들이 청소년들에게 살아가는 힘과 지혜를 보여준다.

‘지혜란 어떤 것인가, 이런 일에 부닥쳤을 때 어떻게 풀어야 할까,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등 다양하게 제시되는 삶의 질문에 대해 깊이 있고 합리적인 사고로 대담하게 하는 책이다.

엮어내는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곧고 아름다운 삶과 맞닿아 있으며, 생각의 길이란 바로 삶의 길이라고 이야기하며, 가치 있고 빛나는 이야기들을 통해 삶의 물음을 푸는 길을 찾게 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이 잘 정리되지 않고 머리가 혼란스러울 때 읽으면 좋은 책이다.

#### 수레바퀴 아래서(Unterm Rad)

헤르만 헤세 지음, 김이섭 옮김 / 민음사 / 2001년 / 278쪽 / 5,600원

헤르만 헤세의 자전적 경험이 듬뿍 녹아 들어간 성장소설로 신학교에서의 체험을 토대로 썼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에게 담담하게 자신을 성찰해 보도록 하는, 그래서 결국 암담한 현실에 억눌리지 않도록 하는 구름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같은 책이다.

#### 유전자가 세상을 바꾼다.

김훈기 / 궁리 출판사 / 2000년 / 222쪽 / 7,500원

생명공학이 가져다 주는 미래에 대해 장미빛 미래인지 암울한 전망인지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생명공학의 결과물들은 우리들에게 끊임없는 선택을 요구한다. 이 책을 통해 학생들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발견되는 문제 의식에서 출발하여 계몽 프로젝트, 복제, 유전자 조합 식품이 우리 인간의 참다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균형감각을 가지고 생각해 보게 할 것이다.

#### 공자 노자 석가

모로하시데츠지 지음/ 심우성 역 / 동아아시아 / 2001년 / 267쪽 / 12,000원

집안 내력과 공부 과정부터 음식이나 음악 등의 취향, 그리고 그 심오한 철학의 세밀한 비교까지 공자, 노자 석가 세 성인이 함께 토론을 벌이는 형식으로 동양사상을 한권으로 집약해 소개했다. 이 책은 대 석학의 해박하고 폭 넓은 시선을 깊이 있지만 어렵지 않게 설명해주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1. 삶과 도덕  
2. 개성 신장과  
인격 도야

이야기로 익히는 논리 학습 1-3

위기철 / 사계철 / 1992년 / 206쪽 / 6,000원

어려운 논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각각의 이야기를 분석하여 논리의 개념을 하나씩 익혀 가도록 만든 책이다. 논리적 사고와 개념을 단순 암기식으로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알맞은 이야기를 통해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올바르게 판단하는 원리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논리란 무엇일까?, 생각이란 무엇일까?, 개념의 뜻과 바르게 쓰기, 바르게 판단하기’ 등의 내용을 흥미롭게 전개하고 있으며, 여러 판단의 관계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했다. 논리의 기본적인 내용들-귀납추리와 연역추리, 오류와 거짓말, 아니면 반대 관계와 모순 관계의 차이 등이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다.

짧은 이야기 속에서 논리에 대해 배우고 생각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책이다.

꼭 같은 것보다 다 다른 것이 더 좋아

윤구병 / 푸른나무 / 1998년 / 228쪽 / 5,800원

“이 세상에 모든 여자가 클레오파트라와 코에다 퀴리 부인의 머리예다 황진이와 김소월의 가슴을 타고 나서, 이 세상의 모든 남자가 아인슈타인의 두뇌에 다 아랑드롱의 용모예다 이만기의 몸집을 지니고 있다면 어떨까? ‘이 땅의 모든 아이들에게 주는 생활 속의 철학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나래, 민주, 대학교수 아빠 사이에 오고 가는 편지글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문화, 빈부의 문제, 성차별, 교육 현실, 공해 등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모색하고, 글마다 왜곡된 의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함을 깨우치고 있다. 즉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재미있는 책이다.

아무도 인생의 정답을 가르쳐 주지는 않는다

가미코 다다시 저 / 박재익 옮김 / 이커데미하우스 / 1996년 / 270쪽 / 5,000원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도 하고 방향도 많이 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바로 사춘기에 해당하는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이다. 그러나, 자신의 고민에 대해 속시원하게 대답을 듣기란 결코 쉽지가 않다. 인생에 있어서는 참고서는 있지만 지침서는 없다는 말이다. ‘문득 세상이 어렵게만 느껴질 때 사마천의 모범답안을 본다’라는 책표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생을 살다가 답답함을 느낄 때 한번 볼 만한 책이다.

햄릿

윌리엄 셰익스피어, 최중철 번역 / 민음사 / 1998년 / 222쪽 / 6,000원

엘리자베드 시대의 대표적 비극 작품으로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이다. 권력을 향한 인간의 탐욕과 사악함, 그리고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인간의 나약한 심리가 잘 묘사되어 있다.

햄릿은 뛰어난 감성과 이성에 비해 의지의 나약함이 결국은 모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비극을 낳았음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책이다.

100년의 인생, 또 다른 날들의 시작

소노 아야코 지음 / 이현기·오경순 옮김 / 영풍문고 / 1999 / 364쪽 / 8,000원

인생은 예측 불가능의 다양함 때문에 매력적이고 흥미롭다. 어느 누가 주저 없이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싶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청소년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평등부부 반쪽이네의 가족일기 2

글·그림 최정현 / 김영사 / 2001년 / 235쪽 / 6,500원

신중남자 반쪽이와 씩씩한 암탉 제란이의 평등전쟁, 행복실험! 이라는 부제가 설명하듯이 이 책은 성역할의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21세기의 진정한 남녀평등에 관해 알기 쉽게 만화형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재미있는 책이다. 흔히 성(性) 정체성을 획득해나가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이 책을 읽음으로써 바람직한 성(性)관념을 가질 수 있고, 나아가 진정한 평등에 대해 사색해보고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1. 삶과 도덕  
2. 개성 신장과  
인격도야

### 천국의 열쇠(세계문학 29)

A.J. 크로닌 / 하서출판사 / 2002년 / 421쪽 / 6,500원

불우한 청소년기와 실연의 아픔을 지닌 채 사제의 길로 들어선 프랜체스 치섬 신부가, 중국의 두메산골에 부임하여 사제생활 20년간을 질병과 내전, 기근 등의 역경에도 불구하고, 용기와 인내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는 모습을 감동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헤르만 헤세 / 용진닷컴 펴냄 / 2000년 / 192쪽 / 6,500원

헤르만 헤세의 유고 산문과 편지, 그의 대표작들에서 39편의 명문장들만을 뽑아 모은 것이다. 진정한 사랑, 꿈을 이루어 가는 것, 나만의 것을 지키는 것, 죽음과 삶 등의 주제 등을 통해 삶의 의미와 자신의 가치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인생의 안내서이다.

### 소설 동의보감(전 3권)

이은성 / 창작과비평사 / 2001년도 / 976쪽 / 22,500원

1988년에 타계한 극작가 이은성이 「동의보감(東醫寶鑑)」의 저자 허준(許浚)의 불꽃보다 더 뜨거운 생애와 집념을 그린 장편소설이다. 극작가 특유의 속도감 넘치는 극적인 전개가 독자로 하여금 책에서 손을 뗄 수 없게 만들며, 1990년 출판기자단 선정 올해의 책, 문화부 추천도서, YWCA 선정 청소년도서로서 청소년, 어른 모두에게 유익한 책이다.

### 성공하는 사람들의 아름다운 습관...나눔

박원순 / 중앙M&B / 247쪽 / 2002년 / 8,000원

인권 변호사인 저자 박원순은 이 책에서 '내가 가진 1%만 나눠도 세상이 따뜻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려 한다. 지위, 재물, 명성만이 성공의 기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되묻고 있는 책이다.

### 생각하는 나무

미국어린이 철학개발원 저, 황경식 옮김/ 철학과 현실사/ 1993년/ 278쪽/ 3,500원

청소년을 위한 철학소설인 생각하는 나무는 윤리적 탐구가 부제로 되어 있으며, 윤리 문제에 있어서의 추리 방법을 다루고 있다. 여기에는 좋음, 옳음, 공정과 같은 기본 개념들이 제시되어 있고 일관성, 진리, 논리적 관계 등과 같이 윤리 문제를 자율적으로 생각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추리 방식들이 소개되고 있다.

###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김대중 / 김영사 / 1998년 / 344쪽 / 7,500원

김대중 대통령이 정계 은퇴시절,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연구생활을 하던 도중 틈틈이 쓴 자전예세이다. 유권자를 의식하지 않고 쓴 글이기에, 인간 김대중의 내면을 가장 솔직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하다.

### 모랫말 아이들

황석영 / 문학동네 / 2001년 / 150쪽 / 6500원

전쟁이 훑고 지나간 폐허에서 살아지낸 이야기들이 아프지만 아름답게 그려지는 이 책은 황석영의 자전적 회고담처럼 이어지는 열 편의 동화가 각각 다른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인간군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다.

- 1. 삶과 도덕
- 2. 개성신장과 인격 도야

### 돈키호테

**미겔 데 세르반테스 / 범우사 / 1998년 / 548쪽 / 12,000원**

이 이야기는 결코 단순한 익살이나 풍자소설이 아니다. 그가 갈망했던 정의로운 기사도는 그가 정의를 구현하고자 하는 행위에 이성이 상실됨으로써 이루어진 투쟁은 항상 무모함으로 끝을 맺는다. 정의로운이란 정의감만으로 실현되지 않으며 이성과 의지가 조화를 이루었을 때 이루어짐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 데미안

**헤르만 헤세 지음, 전영애 옮김 / 민음사 / 2000년 / 239쪽 / 7,000원**

<데미안>은 독일어로 씌어진 가장 뛰어난 성장소설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소설이 아니라 차라리 하나의 거울이다. 질풍노도와 같은 청춘의 시기를 통과하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는 진지한 질문 앞에서 서 있는 사람에게, 참 자아를 발견하고자 고뇌하고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내면의 거울로 이 한 권을 권장한다.

### 너만의 명작을 그려라

**마이클 린버그 / 한연 펴냄 / 2002년 / 265쪽 / 9,800원**

우리 모두가 자기만의 독특한 재능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그것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재능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개발하여 작은 힘이나마 세상에 공헌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나만의 재능을 찾을 수 있는지, 50개의 이야기로 풀어 설명한 책이다.

###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조수미 / 창해 펴냄 / 1997년 / 320쪽 / 7,500원**

신이 주신 목소리로 전 세계인의 가슴을 울린 프리마돈나 조수미의 음악 인생과 사랑, 세계적인 성악가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은 자전적 에세이이다. 한 음악가로 성장하기까지 끊임없이 자신을 단련하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왜 그녀가 세계적이며, 세계 유명한 지휘자들의 찬사를 한 몸에 받았는지를 알 수 있다.

### 나를 위한 인생 12장

**안병욱 / 자유문학사 / 2000년 / 280p / 7,000원**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원로 철학자 안병욱 씨가 인생에 대한 지혜를 12가지로 나눠 담은 에세이집이다. 지상에서 가장 소중한 목숨을 비롯해 도와 학문, 일과 사랑, 자기와의 싸움, 건강, 자아실현과 기, 자기 수련과 만남 등 12가지 항목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삶의 지침이 될 것이다. 청소년들이 가까이 하면 더욱 유익할 것 같다.

###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오미라 미쓰요 지음 / 북하우스 펴냄 / 2000년도 / 266p / 7,500원**

중1 때 왕따를 당해 행복자살에 실패한 후 비행을 일삼다 16살에 야쿠자 보스와 결혼한 여인, 하지만 이혼 후 호스티스 생활 등 밑바닥 인생을 청산하고 갖은 노력끝에 변호사가 되기까지 저자의 처절했던 시련과 성공적 삶을 이야기한 자전적 에세이이다. 스스로 운명을 헤쳐나가는 '인간의 가능성'이 감동으로 다가오는 책이어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권하고 싶다.

1. 삶과 도덕  
3. 인간다운 삶의 자세

## 나무를 심은 사람

장 지오노(김명은) / 두레 / 1997년 / 286쪽 / 8,000원

평생 동안 황무지에 나무만을 심어온 한 양치기 노인의 숭고한 삶을 통해, 인간의 위대함과 자연의 정직성을 감동적으로 전해주는 책이다.

전쟁 후 파괴된 자연을 수십 년 동안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묵묵히 복구하려고 노력하는 엘제아르 부피에의 삶을 감동적으로 그리고 있다. 거대한 황무지에서 홀로 나무를 심고 또 심어 푸른 숲을 남기고 떠나는 그의 모습을 통해, 한 개인의 꾸준한 노력이 세상을 아름답고 유익하게 해 줌을 절실히 느낄 수 있다.

이 작품은 공동의 선을 위해 일하면서도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는 고결한 인격을 지닌 한 사람의 불굴의 정신과 실천이 기적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 오늘날과 같은 병든 물질문명의 시대에, 생명을 사랑하며 그것을 가꾸가는 숭고한 한 인간을 통해, 오늘의 절망을 넘어서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고 있다.

##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 마틴 루터 킹 자서전

클레이븐 카슨 역음(이순희) / 바다 / 2000년 / 496쪽 / 15,000원

우리가 아직도 스스로에 대한 위선과 사람과 인종에 대한 편견과 우리만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M.L.킹의 투쟁과 꿈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이 책은 자유와 정의를 염원하는 흑인 인권지도자 마틴 루터 킹의 자서전으로, 1955년, 26세에 버스 내 흑백차별에 항의하여 보이콧 운동을 시작한 이후 35세에 노벨상을 받고 1968년 39세로 암살당하기까지 킹의 생애와 사상이 담겨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미국사회의 실상을 읽을 수 있으며, 한 인권운동가의 삶을 통해 바람직한 가치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노란 손수건 1-3

오전석 / 샐터 / 2002년 / 230쪽 / 6,000원

외국 잡지에 실렸던 여러 가지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번역, 소개한 실화집으로, 특히 중·고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많이 권하는 책이다.

이 책은 우리의 삶이 결코 혹독하고 힘든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는 책이다.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모아 엮어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늙은 노부부의 이야기나 어린 아이들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한 죄수의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등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같이 따뜻한 친밀감을 느끼고 그 감격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그리하여 이 책을 읽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어둡지만은 않다는 것과, 삶에 대한 희망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 다이고로야 고마워

오타니 준코(구혜영) / 오늘의책 / 2001년 / 160쪽 / 7,000원

이 책은 기형 꼬마 원숭이와 그를 가족처럼 돌보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팔다리가 거의 없는 중증 장애 원숭이인 다이고로가 오타니 씨 가족을 만나 2년 4개월간 함께 생활하다가 폐렴으로 죽어 가족을 떠나게 되기까지 생활을 담은 실제 기록으로, 아름다운 흑백사진과 글이 함께 실려있는 에세이집이다. 중증 장애를 안고서도 필사적으로 살아가려 한 다이고로의 모습과 친자식처럼 사랑으로 돌본 한 가족의 추억이 애정 어린 사진과 문장 속에 담겨 있다.

오타니 씨 가족들은 장애를 가졌지만, 나날이 강해졌던 다이고로에게서 용기를 배웠다고 말한다. 다이고로를 통해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불어 사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과 가족의 의미, 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자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1. 삶과 도덕  
3. 인간다운 삶의 자세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틱낫한(류시화) / 김영사 / 2002년 / 292쪽 / 9,500원

틱낫한은 달라이 라마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영적 스승으로, 그의 글은 평안하면서도 명쾌하며, 아름답다. 이 책은 틱낫한 스님의 저작 20여권을 발췌·번역한 것이다.

숨을 쉬는 기쁨, 존재를 확인하는 기쁨, 그리고 우리를 둘러싼 자연과 교호하는 기쁨, 그 모든 것을 만끽하며 걷는 기쁨 등. 이 기쁨들은 틱낫한의 '실천' 속에서 더욱 참신한 문학성으로 빛난다. 숨을 자각하고,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하는 작은 행위들에 깨어 있으라고 말하는 그의 가르침은 너무 거창한 것에 몰두하는 우리를 깨우쳐 준다. 그는 오로지 단순함을 추구하면서, 그 단순함에서 진리, 사랑, 연민 등 수많은 것들을 이끌어낸다.

그가 추구하는 단순함에서 오는 마음의 평화는 항상 바쁘게 살아가며 인간미를 잃어 가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아닐까.

맨발의 겐 1-10

니키자와 케이지(김승이 외) / 아름드리미디어 / 2000년 / 256쪽 / 5,000원

원폭을 실제로 체험한 필자가 사람들에게 핵의 파괴력, 인류를 전멸케 하는 핵의 공포를 알리기 위해 내놓은 작품으로서 반전, 반핵, 평화를 주제로 하는 만화이다. 아버지와 누나, 동생이 집채에 깔린 채 불길에 휩싸여 죽어 가는 것을 지켜보아야 했던 저자의 체험을 통해 원폭의 실제 상황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지고 있다.

아버지가 반전주의자라는 이유로 '비국민'(매국노)으로 몰려 학대받는 겐의 가족과 대일본제국이라는 허울 아래 전쟁에 미쳐가는 소시민들의 모습을 통해 자식의 목숨마저 천황을 위해 바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비인간성, 아시아를 침략한 일본의 죄상을 낱말이 보여준다.

절절한 경험이 그 바탕에 깔려 있지 않고는 결코 그려낼 수 없는 진실들이 어린 소녀 겐의 친견난만한 모습을 통해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반전, 반핵, 평화의 중요성을 무게 있게 느끼게 해준다.

바보와 천재 - 중고생을 위한 철학 에세이

강영계 / 답게 / 2001년 / 268쪽 / 7,000원

“바보와 천재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이다”라는 말이 있다. 근대까지만 해도 괴테나 쇼펜하우어 등이 “천재론”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서 “천재론”은 더 이상 지지 받지 못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천재는 대부분 사회적 환경과 개인의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모차르트가 우리나라의 어느 두메산골에서 태어났더라면 과연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가 될 수 있었겠는가? 또 괴테가 아프리카 우간다의 어느 마을에서 태어났더라면 과연 “문호” 괴테가 되었겠는가? - 본문 중에서 -

전 14장으로 구성- 진정한 사랑의 모습, 공부의 의미와 공부 잘하는 비결, 짧은 날을 어떻게 아름답게 보낼 것인가, 정의, 자유, 평등, 미래에 대한 도전, 환경문제, 지혜로운 삶, 남성과 여성의 본질, 친구, 고향 등 자신과 사회 그리고 세계를 보는 안목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하고 유익한 주제들을 저자 특유의 일화, 체험담 등을 실어 중고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의 책이다.

생각의 정복자들 - 탈레스에서 사르트르까지

박영규 / 들녘 / 2001년 / 383쪽 / 10,000원

탈레스, 데모크리토스 등 이오니아의 자연철학자들로부터 현대 철학자들까지 서양 철학자 41명의 삶과 사상의 요체를 짧은 이야기로 엮은 책. 서양철학사를 통사적으로 크게 배열해놓고, 그 아래에 시대별 중심 철학자들을 모아 그들의 삶을 이야기한다.

2,500년 동안 이어져 온 서양 철학의 핵심 코드를 밝힌다! 재미있고 명쾌한 서양철학 이야기.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탈레스에서 현대 실존주의자 사르트르에 이르는 서양 철학자 41명의 삶과 사상의 요체를 짧은 이야기로 엮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나 있었을법한 사건을 소설 기법으로 재현하여 핵심 사상을 쉽고 재미있게 풀고, 저자의 부연 설명을 덧붙였으며, 시대적 배경과 철학자의 사생활, 주변 인물들을 함께 담았다.

1. 삶과 도덕  
3. 인간다운 삶의 자세

### 손 끝으로 느끼는 세상

존 헐(강순원) / 우리교육 / 2001년 / 248쪽 / 8,000원

영국 버밍엄 대학교 종교교육과 교수, 존 헐이 시각장애인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시각장애인이 된 후의 삶을 기록했다. 정상인이 '시각장애인'이 되는 과정에서 느끼는 상실감, 열패감, 불안감이 섬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더불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통찰하게 되는 기쁨과 새 삶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기까지의 어려움이 솔직하게 나타나 있다. 우리 삶에 닿아 있는 것들을 새롭게 감각하는 그의 경험은 읽는 이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전해 준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은 누구나 일종의 장애를 가진 존재이다. 이 책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한계를 가진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만나게 하고, 그러한 자신과 화해하고 포용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리하여 우리가 삶에서 향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진심으로 경건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

### 작은 씨앗을 심는 사람들

폴 플라이쉬만(김희정) / 정어람미디어 / 2001년 / 190쪽 / 7,000원

이 책은, 세계 각 국에서 저마다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모여들었지만 미국 사회에서 소외돼 도시 빈민가에 살고있는 다양한 인종의 이민자들-시골 출신, 노인, 병자, 불량청소년 등-이 모두 '나'의 시점에서 자신들의 불행했던 사연들을 담고 있다. 이 사연들은 쓰레기장 공터에 뿌린 씨앗 몇 알로 계속 이어지는 독특한 형식으로, 한 이야기에 다른 이야기가 맞물리는 독특한 구조로 13명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다. 이들 사연 많은 이민자들이 하나씩 들쭉 댕발 가꾸기에 참여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고향을 생각하고 가슴속 상처를 치유해 가는 아름다운 작품이다. 자꾸만 소외되어 가는 현대인의 인간 관계를 씨앗 하나가 유기적으로 이어주는 모습은 잔잔한 감동을 준다. 가볍게 읽히면서도 우리가 잊고 지내는 따뜻한 인정을 상기시켜 주는 책이다.

### 조화로운 삶

헬렌 니어링(이석태) / 보리 / 2000년 / 220쪽 / 7,500원

헬렌 니어링과 스코트 니어링 부부는 서구 문명이 그 누구에게도 안전한 삶을 보장해주지 못한다고 생각해 뉴욕을 떠나 버몬트라는 시골로 들어간다. 그들은 자연 속에서 서로 돕고 기대며, 자유로운 시간을 싣기 누리면서 저마다 좋은 것을 생산하고 창조하는 삶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한 원칙을 세운다. "삶은 만족감을 얻어야 한다."는 원칙을 기준으로 삼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땅에서 얻는다는 건강한 철학을 끝까지 잃지 않았다. 단순하면서 충족된 스무 해의 삶의 기록이 각박하고 인공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신선한 충격을 던져주는 책이다.

###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미치 앨봄 / 세종서적 / 2002년 / 239쪽 / 8,500원

모리라는 노은사와 함께 나는 지상에서의 마지막 시간들을 제자 미치 앨봄이 정리한 글이다. 화요일마다 만나는 모리의 사랑, 일, 공동체 사회, 가족이 나이든다는 것, 용서나 후회의 감정, 결혼과 같은 인생에 대한 사려 깊은 강의를 듣다보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완결편) 1

잭 캔필드 외 / 이레 펴냄 / 2001년 / 251p / 8,000원

사랑과 삶, 그리고 가족과 아이들에 대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101편의 이야기를 통해 사랑과 삶에 대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삶의 커다란 축을 이루는 가족과 아이들의 소중함을 성찰하며, 성숙한 삶을 깨우쳐 가게 된다.

###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달라이 라마 / 김영사 / 2001년 / 351쪽 / 9,500원

전세계인들의 지성을 일깨우고 마음을 열어준 달라이 라마의 행복론. 이 책은 티벳의 영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와 미국의 심리학자이며 정신과 의사인 하워드 커틀러가 나눈 행복에 대한 토론이 담긴 책이다. 진정한 행복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1. 삶과 도덕  
3. 인간다운 삶의 자세

느리게 산다는 것의 의미

**피에르 상소, 김주경 옮김 / 동문선 / 2000년 / 231쪽 / 7,000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찾아주는 책. 빠른 변화에의 적응이 곧 발전이라는 요즘 사회의 보편적 룰을 벗어나 '느림'의 철학을 주장하는 저자의 반론은 도태나 일탈이 아닌 '여유로움'이라는 내적 통찰이다.

녹색시민 구보씨의 하루

**존 라이언 워 / 고문영 / 그물코 / 2002년 / 138쪽 / 8,000원**  
중산층에 속하는 평범한 서울 시민 '구보씨'의 하루 동안의 삶을 통해 우리가 무관심하게 소비하는 각종 생활용품들의 이면에 감춰진 생태학적 문제들을 추적한 책. 평범한 사람이 하룻동안 사용한 일상용품이 얼마만큼의 지구 환경을 파괴한 대가인지를 기록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러 면모들을 합쳐서 그려낸 가상 국가의 산업 평균 수준, 생산 경향 등의 폭넓은 자료 연구에 기초해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다.

노박씨 이야기

**슈테판 슬로페츠키 지음 / 조원규 옮김 / 열린책들 / 1999년 / 7500원**  
재치 있는 이야기 사냥꾼의 마법 같은 사랑 이야기.  
꿀 탄 우유처럼 따뜻해서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노박 씨 이야기는 상큼한 바람 한줄기를 선사한다. 어린아이의 눈으로, 또 어른은 어른의 눈으로, 저마다 다른 눈으로 읽어도 결국 모두의 이야기가 된다.

내 영혼이 따뜻했던 날들

**포리스터 카터 저 / 조경숙 옮김 / 2002 / 331쪽 / 6,500원**  
주인공 '작은 나무'는 5살 때 고아가 되어 체로키 인디언의 혈통을 이어받은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게 된다. 숲에서 생활하면서 '작은나무'는 자연의 이치를 할아버지로부터 배우게 된다. 단순하지만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디언의 모습은 지금의 우리 모습을 되돌아 보게 한다. 이 책에서 우리는 대자연의 위대함과 동시에 생명 존중의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를 갖게 된다.

TV동화 행복한 세상

**KBS한국방송 / 샘터사 / 2002년 / 272쪽 / 9,000원**  
소중한 것이 그리워질 때, 조용히 꺼내 보고픈 보물 상자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책은 너무 슬프고 너무 아름다워 마치 동화 같은 실화들을 한아름 모아 놓은 책이다.

화 - 화가 풀리면 인생도 풀린다

**틱낫한(Thic Nhat Hanh), 적용학 역 / 2002년 / 230쪽 / 8,900원**  
우리의 마음의 밭에 있는 긍정의 씨앗과 부정의 씨앗 중 어떤 씨앗에 물을 주어 피울지는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면서 모든 불행의 근본인 화를 다스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였다. 타인과의 사이에 얽혀 있는 모든 매듭을 풀어서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는 책이며, 화를 다스릴 때마다 삶이 조금씩 즐거워진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전우익 / 현암사 / 2002년 / 130쪽 / 6,500원**  
자연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도시인을 향한 지은이의 안타까운 마음을 엿볼 수 있으며, 훈훈한 감동도 느낄 수 있는 책이다. 책의 제목과 같이 혼자만의 삶보다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자연을 벗헤 사는 인간다운 모습과 삶의 자세를 배울 수 있다.

1. 삶과 도덕  
3. 인간다운 삶의 자세

### 향기로 말을 거는 꽃처럼

이매인 / 샐터 / 2002년 / 284쪽 / 8,500원

아름다운 감성과 정갈한 글로 독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이해인 수녀의 산문집이다. 사색과 묵상을 통해 얻은 자연과 일상에 대한 깨달음이 담겨 있으며, 세상을 바라보는 저자의 따뜻한 시선이 묻어난다.

###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은 50가지

니카타니 이키히로 저, 홍영의 옮김 / 도서출판 북피아 / 1998/ 218쪽/ 5,800원

일반적으로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청소년 시기는 부모의 품을 떠나 독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기이다. 아울러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의 경험을 통해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때 학교에서의 경험과 더불어 사회에서의 경험을 쌓고 자신이 살아갈 인생철학을 세우는데 매우 도움이 되는 책이다.

### 폭풍의 언덕

에밀리 브론테 저, 권영미 역 / 삼성출판사 / 2001년 / 199쪽 / 5,000원

‘폭풍의 언덕’은 1847년 에밀리 브론테가 남긴 단 한 편의 소설이다. 18세기말 요크셔의 황야를 무대로 두 집안에서 벌어지는 사랑과 증오를 다룬 작품이다. 청소년기의 사랑에 본보기가 되는 작품이다.

### 크리스마스 캐럴

찰스 디킨스 저, 유정화 역 / 삼성출판사 / 2001년 / 199쪽 / 5,000원

디킨스는 이 작품에서 스크루지를 단순히 욕심 많은 구두쇠로만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세명의 유령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냉혹함에 가려져 있던 선한 마음을 되찾게 해준다.

### 지금 이순간을 살아라(The Power Of Now)

에크하르트 톨레 지음, 노혜숙, 유영일 옮김 / 양문출판사 / 2001년 352쪽 / 8,500원

저자가 세미나와 명상수업, 개인 상담에서 나왔던 질문을 문답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책의 목적은 독자 스스로 깨달음의 참맛을 느끼도록 하는데 있으므로,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자유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만 생각을 집중하라.

### 조화로운 삶(Living the Good Life)

헬렌 니어링 외 지음, 류시화 옮김 / 출판사 / 2000년 / 220쪽 / 7,500원

니어링 부부의 삶은 현재 도시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충격을 준다. 무엇보다도 도시의 삶(성공과 출세를 위한 삶)을 버리고, 자신들의 삶에 대해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희망을 품고 그 희망을 위해 자신들에게 온전히 시간을 부여했다는 점들이 청소년들에게 자아성찰의 기회로 제공 될 것이다.

### 제인에게어

살럿 브론테 저, 한상남 역 / 삼성출판사 / 2001년 / 199쪽 / 5,000원

한 소녀가 자라면서 사랑에 눈 뜨는 과정,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당당한 한 인간으로서 성장해 가는 과정을 그린 이 작품은 새로운 여성의 모습을 제시한 작품으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1. 삶과 도덕  
3. 인간다운 삶의 자세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요한 볼프강 괴테 지음, 정진숙 역 / 삼성출판사 / 2001년 / 189쪽 / 5,000원

괴테는 25세 때 이미 약혼자가 있던 샤로테 부프라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 후 괴테는 친구 예루살렘이 남편이 있는 부인을 사랑하다가 괴로운 나머지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신의 경험과 친구의 이야기를 합하여 구성한 것이 이 책이다. 사랑의 열병을 휘몰아치듯 그러나 이 소설은 아직까지도 많은 젊은이들이 통과의례처럼 읽는 작품이다.

장발장

빅토르 위고 저 / 신윤덕 역 / 삼성출판사 / 2001 / 199쪽 / 5,000

<장발장>의 원제는 '레 미라제블'로 '불쌍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이 작품에는 당시의 프랑스 상황이 잘 담겨 있다.

프랑스의 공화당이 낡은 사회 제도를 버리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고 했듯이, 그는 이 작품에서 정해진 틀에 얽매이지 않고 인간의 감정뿐만 아니라 사회 제도나 현상들도 자유롭게 표현했다.

이타적 유전자

맷 리들리, 신작섭 옮김 / 사이언스 북스 / 2001년 / 396쪽 / 12,000원

전문서라기보다는 보다 이타적이고 아름다운 사회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교양서로 특히나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인 리처드 도킨스 이후 널리 퍼진 유전자 결정론적 입장에 크나큰 충격과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와 청소년들에게 아직 세상은 아름답고 인간은 선한 존재라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는 환영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들을 제시해 줄 것이다.

주홍글씨

나다니엘 호오든 지음, 윤영준 옮김 / 신원문화사 / 2001년 / 359쪽 / 6,500원

17세기 미국의 어둡고 준엄한 청교도 사회를 배경으로, 죄지은 자의 고독한 심리를 묘사한 걸작으로 청소년시기에 한번쯤 인간의 원죄와 윤리의 문제로 고민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정약용 지음 / 박석무 역 / 장작과비평사 / 2001년 / 296쪽 / 8,000원

다산 정약용의 글 모음집으로 그가 1801년 유배지에서 그의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 26편을 비롯해, 아들 학연에게 내려주는 교훈 9편, 형님에게 보내는 편지 13편 등 모두 52편의 인생 교훈 지침글을 수록했다.

옥중서신

김대중 / 새빛문화사 / 1992년 / 336쪽 / 6,000원

김대중 대통령이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육군교도소와 청주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부인 이희호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에게 보낸 옥중서신 20통을 묶은 책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투쟁의 기록이다.

왕따와 은따

강영계 / 탐계 출판사 / 1999년 / 299쪽 / 7,500원

왕따와 은따를 단순히 학교와 아이들 사이의 문제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그 영역을 보다 세분화시켜 왕따가 나타나는 현상과 발생 원인, 해결책을 실례를 들어가며 제시한 책이다.

사회적인 동물이라는 인간의 특성상 왕따와 은따가 생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따돌리는 자, 따돌림당하는 자 모두가 건전한 정신의 소유자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1. 삶과 도덕  
3. 인간다운 삶의 자세

###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투시화 / 열림원 펴냄 / 1996년도 / 110쪽 / 5,000원

일년의 절반은 히말라야 산 자락에 가서 명상을 하고, 좀더 착하게 살기를 갈망하는 시인은, 낮익은 속에 들어있는 낯설음, 그리고 평범한 단어의 범상치 않은 뜻을 잠언과 명상적인 언어로 들려준다. 마음과 영혼을 적셔주는 시어들이 읽는 이들을 사랑과 삶, 자연에 관한 명상의 숲으로 초대한다.

### 연어

안도현 / 문학동네 / 2001년 / 136쪽 / 6,000원

은빛연어 한 마리가 동료들과 함께 머나먼 모천으로 회귀하는 과정에서 성장해가는 내용의 <연어>는 숨지기 직전 산란과 수정을 마치는 연어의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운명이 시적이고 따뜻한 문체 속에 감동적으로 녹아 있어 그윽한 세계로 우리를 이끈다.

###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장승수 저 / 김영사 / 1996 / 245쪽 / 5,800원

우리 주위의 많은 청소년들이 나름대로의 상황에 대해 열등의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막노동꾼 출신이면서 서울대 수석합격자인 장승수의 살아온 이야기는 자칫 절망감에 빠지기 쉬운 중고등학생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것이다.

### 철학은 내 친구 - 철학 길들이기

위기철 / 청년사 / 2002년 / 335쪽 / 8,000원

철학을 전공한 적이 없는 저자가 모든 사람이 철학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으로 써 낸 책이다. 처음 철학을 접하는 이들에게 철학에 쉽게 접근하는 법과 넓은 세계관을 가질 수 있는 능동적인 사고방법 등을 알려준다. 대화를 하듯 써 놓은 글을 읽어나가다 보면 어느새 철학이 가깝게 느껴지게 된다.

현실의 모든 문제는 구체적인 데 반해, 철학이 말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얘기라 어렵게 여겨지지만,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세계와 자신에 대한 고민을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본문 전체를 철학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친근감 있는 말투를 사용하여 꾸미고 있다. 본문에 나오는 '나'는 '철학'을 의미하고, 우리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는 기분으로 읽어가면 된다.

이 책은 청소년들이 철학에 관한 흥미와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책이다.

1. 삶과 도덕  
4. 청소년기와 중학생 시절

### 10대에 운명을 개척하는 70가지 삶의 지혜

사토 에이분(오근영) / 창작시대 / 2000년 / 255쪽 / 5,500원

20년 넘게 여학교 선생님이로 재직하던 저자가 현장에서 부딪힌 10대 청소년들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보편적인 관점에서 제시한 책이다. 내용은 평범하지만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고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 있으며, 새로운 시작을 열어줄 희망의 메시지들도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는 한 번뿐인 인생에서 자기 삶의 주인으로 당당히 살기 위해 10대에 운명을 개척할 수 있는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는 얼마나 잘 사느냐가 중요하다. 터무니없을 정도로 큰 꿈을 가져라. 시간 도둑은 바로 자신이다. 세상에 가치 없는 것은 없다, 어차피 해야 하는 공부, 최선을 다하자.' 등 상식적이지만 소홀하게 여기는 일들을 풀어서 담담하고 설득력 있게 써내려 가고 있다.

이 책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나아갈 길을 잡아주는 길라잡이를 발견할 수 있다.

### 네 꿈과 행복은 10대에 결정된다.

이민규 / 더난 / 2002년 / 296쪽 / 10,000원

심리학자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며 자녀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선물! 이 책은 부모와 교사가 먼저 읽고 10대들에게 권하는 책이며 꿈을 잃은 청소년들에게 벽한 자신감을 주는 지침서가 되기에 충분한 책이다. 왜냐하면 부모가 본다면 아이에게 이렇게 말해주어야겠다는 해법을, 아이에게는 후회하지 않을 10대를 보낼 수 있는 보배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무한경쟁의 입시전쟁터라는 우리 현실에서 이 책의 가치는 더욱 빛난다. 특히 이 책은 학교공부와 관련해서 유용한 조언을 지루하지 않게 들려주고 있다.

1. 삶과 도덕  
4. 청소년기와  
중학생 시절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박진식 / 시대의창 / 2002년 / 228쪽 / 7,500원

‘돌이 되어 죽어 가는 시인의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 이 책은, 저자가 체내에 칼슘이 너무 많이 형성되는 희귀병 ‘석회화증’과 20년 동안 투병한 과정을 보여 준다. 꿈 많은 소년 시절 갑자기 몸 속에서 과잉 생산된 칼슘이 과잉 축적돼 몸이 석회석처럼 굳어 가는 희귀병(갑파 석회화증)과 20여년간 싸워온 저자는 이 책에서 오히려 독자를 위로한다. 굳어버린 두 손에 볼펜을 끼어 24개월 동안 컴퓨터 자판을 눌러 쓴 서른 두 살의 삶은 숙연한 ‘인간승리’의 기록이다.

삶의 과정에서 절망이라는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다. 다만 넘어진 그 자리에서 어떤 자세를 갖는가에 따라 절망과 희망의 주인공이 판가름된다. 이 책은 절망이라는 이름의 다른 편이 희망임을 알려주는 소중한 책으로, 건강한 삶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한다.

작은 일에도 쉽게 절망하는 사람들이 꼭 읽어보았으면 하는 책이다.

조금만 눈을 들면 넓은 세상이 보인다

윤구병 외 / 사계절 / 1997년 / 230쪽 / 6,000원

자기의 삶을 치열하게 산 사람들이 청소년들에게 들려주는 체험과 당부의 글을 실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젊은이여, 청소년이여’, ‘살아 숨쉬는 땅과 사람들’, ‘역사의 물굽이를 헤쳐 가는 우리 민족’,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 땅에서 느끼는 사랑과 감회, 역사의 물줄기를 헤쳐 가는 우리 민족의 발자취, 어려운 이웃들의 애환, 정의를 위해 힘쓰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실려 있어 세상을 보는 안목을 길러준다. 진솔하고 다양한 내용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우리의 청소년들이 삶의 자세를 가다듬는 데서 더 나아가 더 넓은 세상을 함께 생각하는 데 소중한 길라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이 책은 우리의 삶에 대해 보다 더 폭넓은 시야를 가지고 감싸안으며 보다 높은 안목을 지닐 수 있도록 해 준다.

갈매기의 꿈

리처드 바크 / 문예출판사 / 2000년 / 120쪽 / 6,000원

우리에게 보다 명확하게 삶에 도전하고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말라고 말하며,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룬다는 희망을 주는 책이다.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본다.”는 이 평범한 말속에 많은 뜻이 담겨져 있으며 자신이 도전하고자 하는 목표와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소피의 세계[합본]

요슈타인 가이너 / 현암사 / 2002년 / 752쪽 / 19,500원

철학에서 느껴지는 딱딱하고 어려운 인상은 소피의 세계에 함께 들어가면 이내 그저 우리들의 일상과 마주 대하는 삶의 철학으로 되살아난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양 철학을 한데 모아둔 세 권의 철학서는 아름답고 간결한 대화체 문체로 우리들에게 편안히 다가갈 수 있도록 풀어 놓았다.

세상의 모든 굼벵이들에게

엠렛 리타 / 뜨인돌 퍼낸 / 2001년도 / 231쪽 / 8,000원

대개의 사람들에게는 미루는 습관이 있다. 그러나 좋지 않은 습관이다. 그래서 이 책은 이같은 미루는 습관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 뿐 아니라, 자신의 목표와 추구하는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주요 특성들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

슨 코비 / 김영사 / 1999년도 / 330쪽 / 9,900원

길을 알고 가는 사람과 모르고 가는 사람은 인생이라는 긴 경주에서 큰 차이를 갖는다고 한다. 10대라는 특별한 시기는 이 긴 경주를 위한 힘을 비축할 수 있는 좋은 시기이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청소년들이 이 책을 꼭 읽어볼 만한 책이다.

## 1. 삶과 도덕

### 4. 청소년기와 중학생 시절

#### 성공을 위해 밀줄 긋고 싶은 말들

**발타자르 그라시안 지음 / 김영근 옮김 / 예가 / 2000 / 334쪽 / 6,800원**

사춘기에 해당하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인관계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수많은 청소년들이 자기와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정립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는 있지만, 이에 알맞은 대답을 얻기란 쉽지가 않다. 이 책은 우리에게 정치, 경제, 사회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계몽적인 처세술을 현대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 생명시대

**김소희 / 학고재 / 1999년 / 310쪽 / 15000원**

환경문제를 주제로 12명의 PD들이 세계를 다니며 취재해 KBS에서 방영한 다큐멘터리를 자료, 사진을 더해 엮은 지구환경생태 현장보고서이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느끼게 한다.

#### 거꾸로 읽는 세계사(개정증보판)

**유시민 / 푸른나무 / 2002년 / 372쪽 / 9000원**

드레퓔스 사건, 피의 일요일, 러시아 10월 혁명과 미완의 혁명 4.19 등 기존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색다른 시각에서 평가하고 있는 교양 역사서이다.

#### 상식속의 철학 상식밖의 철학

**이진경 / 샛길 / 2001년 / 207쪽 / 7,500원**

상식에서 출발해 상식 속의 사고를 다룬다. 아주 당연한 것에 질문을 던지는 데서 철학은 시작한다. 이 책은 철학자들이 즐겨 쓰는 개념과 명제를 비유나 우화, 에피소드를 통해 알기 쉽게 소개한 현대 철학 입문서이다.

#### 살아있는 한 우리는 절망하지 않는다

**알프레드 램상 / 뜨인돌 출판사 / 1994년 / 328쪽 / 8,500원**

철학자의 리더십과 포기하지 않는 인내력을 알 수 있고, 항해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과 욕망을 통해 비록 남극횡단에는 실패하였지만 자아실현을 위해 도전하는 정신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배울 수 있다.

#### 사랑으로 매긴 성적표

**이상석 / 자인출판사 / 2002년 / 286쪽 / 8500원**

이상석 선생의 글은 인간미가 넘친다. 가지각색의 다양한 성향의 아이들에게 그들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 뛰어다니는 선생님의 모습은 참사랑의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또한 공동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이상석 선생님의 학습운영 방법이나 수업 방식은 다른 선생님 혹은 부모들에게도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는 글이다.

####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 지음 / 조한중 옮김 / 좋은 생각**

삶의 의미와 인간의 소명, 구원의 참뜻을 이야기한 톨스토이의 작품들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지금까지도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특히 이 작품에는 인생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이들의 손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인생의 새로운 항로를 개척해나가는 청소년들에게 삶의 진리를 제공한다.



1. 삶과 도덕  
4. 청소년기와  
중학생 시절

###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공지영 / 푸른숲 / 2001년 / 325쪽 / 7,500원

페미니스트로 불리는 공지영의 가장 페미니즘적인 책이다. 착한 여자'에 대한 환상과 '똑똑한 여자' 혹은 '능력 있는 여자'에 대한 편견, 그리고 이윤배반적인 이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요구받고 있는 여성들의 혼란과 고통을 치열하고 생생하게 말하고 있는 소설이다.

### 무소유

법정스님 / 범우사 / 1999년 / 160p / 6,000원

법정스님의 소유와 집착에 대한 깨달음을 기록한 수필집으로, 35편의 주옥같은 글들이 실려 있다. 강원도 산골에서 화전민이 살던 오두막을 빌려 '선택한 가난의 삶'을 살고 계신 스님은, 침묵과 무소유의 철저함으로 이 시대의 가장 순수한 정신으로 손꼽히고 있다. '소유'와 '절제'의 의미, 그리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는 좋은 책이어서 권하고 싶다.

### 모두 아름다운 아이들

최시한 / 문학과 지성사 / 2001년 / 206쪽 / 6,500원

청소년기에 누구나 한번쯤 가졌음직한 불안한 '나'로 가득 채운 일기장을 들여다보는 듯한 소설. 가장 진실한 시각과 독백이 담겨있는 주인공의 5가지 연작 이야기를 통해 청소년시절 삶에 대한 고민과 방향, 고독,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공감해 갈 수 있다.

### 마당을 나온 암탉

황선미 글, 김환영 그림 / 사계절 / 2000년 / 199쪽 / 7,000원

많은 친구들이 읽어 너무 유명한 책, 아직 읽지 않았다면 자유로운 영혼 암탉을 만나보자. 왜 암탉은 마당을 나왔으며, 어떻게 관계를 헤쳐 가는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를 멋진 은유로 풀어놓은 책이다.

### 당나귀 귀

세르쥬 베레즈 / 도서출판 문원 / 2000년 / 166쪽 / 6000원

작가의 시선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생각하는' 소설. 당나귀 귀 3부작은 어린이의 내면을 통해 들여다 본 어른들의 위선적인 세계를 냉소적인 문체로 풍자하고 있어 작품성과 재미를 동시에 획득하고 있는 작품이다.

### 단순하게 살아라

베르너 티키 퀴스텐마어 / 김영사 / 2002년 / 298쪽 / 9,900원

번잡하고 고된 삶을 사는 현대인에게 난마처럼 얽힌 삶의 실타래를 정리하고 단순 명쾌하게 사는 법을 전한다. "마음가짐을 이렇게 가지라"라는 수행승의 잠언이 아니라 책을 어떻게 정리하고 돈과 시간, 건강 관리를 어떻게 단순화 할 지 방법론을 알려주는 게 이 책의 묘미다.

### 누가 내 치즈를 옮겼을까?

스펜서 존슨 / 진명출판사 / 2002년 / 124쪽 / 7,000원

앞으로 일어날 생활의 변화에 대해 적응하는 방법을 햄과 허, 스니프와 스커리의 이야기를 통해 가르쳐 주고 있다. 햄과 허, 스니프와 스커리와 함께 치즈를 찾아 복잡하고 어려운 미로를 통과하며 변화에 적응하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 1. 삶과 도덕

### 4. 청소년기와 중학생 시절

#### 노자의 웃음

진현중 / 용진닷컴 펴냄 / 2000년 / 208쪽 / 7,000원

옛 선현들의 이야기를 모은 책이다. 유가와 불가, 도가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선현들의 사상이나 이론 대신 그분들의 이야기 속에 담긴 삶에 주목하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이 삶에 대한 소중한 가르침을 얻고,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책이다.

#### 노인과 바다

에망웨이 / 외국 도서

진정한 용기는 겸손에서 시작된다는 교훈을 주는 책이다. 노인과 물고기의 싸움에서 노인이 승리를 거둔 가장 큰 이유는 인내와 용기 덕일 것이다. 노인에게 있어 바다는 삶의 의미 그 자체였다. 노인은 바다를 동경했지만 싸워서 이길 줄은 몰랐다. 이제 노인은 적이었던 그 큰 물고기를 존경 어린 눈빛으로 바라본다.

#### 네 꿈과 행복은 10대에 결정된다

이민규 / 더난출판사 / 2002년 / 296쪽 / 10,000원

‘심리학자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부제에서 보듯이, 10대 두 아이의 학부모이기도 한 저자가 부모로서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담았다. 부모가 본다면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해주어야겠다는 해법을, 아이들에게는 후회하지 않을 10대를 보낼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들을 전해준다.

#### 내 친구에게 생긴 일

미라르베 / 크레용하우스 / 2002년 / 216쪽 / 7,500원

매 맞는 아이 하인리히를 보며 올리아는 그 누구도, 부모일지라도 함부로 아이들을 때릴 권한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모두가 외면하는 가운데 희망은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올리아는 하인리히를 돕기 위해 노력한다. 소외된 한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재조명하며 문제의 방향과 해결책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 내 인생을 바꾼 스무살 여행

브라이언 트레이시 저 / 강주현 옮김 / 도서출판 작가정신 / 2002 / 311쪽 / 9,800원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무한히 많다. 중학생 시절에, 특히 미래의 도덕생활과 관련하여 배우거나 지녀야 할 중요한 것들을 이 책에서는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에세이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 꿈이 사람을 만든다

오토타케 히로타다 지음, 전경빈 옮김 / 장애 출판사 / 2002년 / 294쪽 / 8,000원

팔다리가 없는 장애인이지만 스포츠 뉴스캐스터로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저자가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다. 이 책은 풍족한 삶 속에서도 사랑과 희망이 끊겨져있는 우리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는 메신저역할을 하리라고 믿는다.

#### 공부기술

조승연 / 중앙M & B / 199쪽 / 2002년 / 6,400원

이 책은 머리로 하는 공부가 아닌 테크닉으로 하는 공부법 설명서이다. 정답 찍는 기술 익히기, 주워들은 지식 이용하기 등 예상을 뒤엎는 방식들이 이 책에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읽어 보면 보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라는 것을 곧 깨달을 수 있다.

책상 앞에는 앉았으나 무얼 해야 할는지 막막할 때 듣고 싶은 선배의 격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1. 삶과 도덕  
4. 청소년기와  
중학생 시절

### 희망의 이유

제인 구달 저, 박순영 역 / 궁리 / 2000년 / 350쪽 / 10,000원

과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여성 동물학자제인 제인 구달의 자서전이다. <타잔>을 즐겨 읽던 소녀가 우연한 기회에 아프리카 케냐로 가게 되고 거기서 고생물학자 루이스 리키와 함께 침팬지 연구를 시작하게 된 사정이 기록되어 있다. 그녀의 결정과 그에 따른 헌신적인 사랑을 따라 읽다보면 제목이 자연스럽게 이해된다.

### 휠체어를 타는 친구

줄프리트 틱 / 보리 출판사 / 2001년 / 216쪽 / 6,000원

평범한 아이가 불편한 몸의 아이를 만나 서로가 생각하는 세상과 서로의 다른 생각과 느낌을 나누고 도와가면서 아름다운 우정을 그려 가는 내용이다.

청소년기에는 또래와 함께 할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 또래간의 진정한 우정을 쌓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21세기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

최양숙 / 대교출판 / 2000년 / 168쪽 / 6000원

21세기는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빠른 속도로 생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한히 많은 정보와 지식이 인터넷 등을 비롯한 컴퓨터로 확산되고 있는 정보 사회이며, 지식 기반 사회이다.

현대사회는 정보화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급되고 있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정보와 지식의 홍수 속에서도 자기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친구라는 소중한 선물

림벌리 커버거 외 지음, 유은영 역 / 좋은생각 / 2002년 / 208년 / 8,000원

우정에 관한 십대들의 생각 모음집으로 미국 십대들이 보내온 수천 통의 편지와 웹 사이트에서의 토론을 통해 십대들의 가장 큰 고민인 친구 문제와 우정에 관한 그들 자신의 가장 솔직한 생각과 일화들을 묶었다. 누구나 한번쯤 겪었을 상황, 행동, 이야기, 감정들을 통해 행복과 우정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임을, 우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다.

### 초승달과 밤배 (上, 下)

정채봉 / 까치글방 펴냄 / 1998년 / 256쪽 / 8,000원

주인공 난나가 1957년 1월에 남해안의 한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수도자의 길을 가게 되는 1970년대 말까지의 20여 년간의 삶의 과정을 한 작은 집안의 비극을 배경으로 그린 성장소설이다. 청소년들이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성장 과정을 되돌아보고, 어느 시대에도 아픔은 있으며, 아픈만큼 성숙해진다는 삶의 진실을 공감했으면 한다.

### 청소년을 위한 철학 에세이

강영계 / 해냄 / 2001년 / 276쪽 / 6,500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아의 문제, 진로, 사회적 성공, 세계의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 식으로 들려주는 교양 철학서. 인생의 근원적인 것들에 대해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해설했다.

### 지상에 손가락 하나

현기영 / 실천문학사 / 1999년 / 390쪽 / 8,000원

더 이상 그 시절은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그 시절이 있었기에 현재의 '나'는 존재한다. 한 사람의 성장과정이 정성스럽게 만든 한편 한편의 단편 영화처럼 펼쳐진다. '나'에 대해 곰곰이 들여다 보고싶은 청소년 시절에 마주 대할만한 가치가 충분한 책이다.

1. 삶과 도덕  
4. 청소년기와  
중학생 시절

### 잡초는 없다

윤구병 / 보리 / 1998년 / 261쪽 / 6800원

정말 잡초가 없는지, 세상 모든 것은 다 귀중한 것인지? 나도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만, 이렇게 온몸으로 시골에 내려가 농사짓고 살수는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풀어서 쓴 책.

### 자아를 되찾은 딤스

버지니아 M.액슬린 / 보성 / 2002년 / 312쪽 / 8,000원

유아교육계의 고전으로 자리잡은 명저로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신뢰, 긍정적인 격려, 인내라는 자녀 교육의 세 가지 교훈을 가르쳐주는 책이다.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있던 어린이가 자신 속에 있는 건강하고 강한 성품을 발견해 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한 편의 소설처럼 써 내려간 딤스의 이야기이다.

###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7가지 생활습관

웨인 W. 다이어 지음 / 박광중 옮김 / 기원전 / 1998 / 254쪽 / 6,500원

단순한 개인 차원의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혹은 국가나 사회에서의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청소년들이라면, 그리하여 자신과 남에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그들을 리드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 인디언 숲으로 가다

오이예사 저 / 장성희 역 / 지식의 풍경 / 2000년 / 265쪽 / 7,500원

이름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자연을 친구로 삼은 어느 인디언의, 황야에서 인디언으로 지낸 어릴 적 15년의 세월과 백인들의 문명 세계에 막 발을 들여놓는 순간까지의 일대기를 담고 있다.

###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 민음사 / 1996년 / 215쪽 / 5,500원

우리는 청소년기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은 발달과업상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이 시기를 잘 보내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일생의 결정되기 때문이다. 청소년기의 갈등과 방향을 잘 극복한 자는 성년기에 잘 적응을 할 것이다. 더욱이 학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책을 통해 알 수 있다.

### 이대로 어른이 된다면

김형도 / 쪽지 펴냄 / 2000년 / 251쪽 / 7,000원

이대로 어른이 된다면 난 어떤 모습이 될까? 청소년의 시기에는 아직 인생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때이므로 작은 일도 큰 고민으로 다가오고, 심리적으로 불안할 때이다. 바로 이러한 청소년들의 처지와 어려움을 잘 이해하며, 그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하듯이 도와주는 다정한 지침서이다.

###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조은수 / 창작과 비평사 / 2002년 / 159쪽 / 8000원

우리나라 옛그림에 담겨진 놀이, 풍속, 사람들을 숨쉴듯 풀어쓴 책. 별로 어렵지 않게 역사와 미술, 문학의 향기를 맡을 수 있으며, 혹시 어렵다면 그냥 그림만 봐도 되는 책이다.

1. 삶과 도덕  
4. 청소년기와  
중학생 시절

###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잭 캔필드, 마크 빅터 한센 공저 / 궁경희 옮김 / 도서출판 해냄 / 2002 / 284쪽 / 8,000원

닭고기 수프(chicken soup)는 미국에서 예로부터 전해 오는 민간요법의 하나로서, 감기 몸살에 걸렸을 때 할머니 혹은 어머니가 끓여주는 전통음식이다.

이 책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의 저자인 잭 캔필드, 마크 빅터 한센 이 두 사람의 40년에 걸친 경험을 바탕으로 삶에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영양을 제공하고 있다.

### 앙리에트의 못말리는 일기장

필립 뒤뤼, 사를 베르베리앙 공저, 신선영 역 / 문학동네 / 2000년 / 55쪽 / 7,800원

평범한 열세 살 사춘기 소녀 앙리에트가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느끼고 생각하는 것들을 유머 넘치는 언어와 일기 형식의 작품으로 명쾌하게 그려내고 있다. 아이들에게는 동감과 교훈을, 어른들에게는 열세 살 시절의 그리움으로 젖어들 수 있게 만드는 작품이다.

### 압록강은 흐른다

이미륵 / 다림 출판사 / 2000년 / 182쪽 / 7,000원

단문 위주의 담백한 문체로 된 성장소설이며 구한 말 시대를 배경으로 선조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곳에서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어려운 조건을 이겨내려는 노력과 주어진 조건을 탓하지 않고 능동적이고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려는 모습이 발견되는 책이라 할 수 있다.

###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

안미란 / 창작과 비평사 / 2001년 / 180쪽 / 6,000원

가상의 미래를 배경을 씨앗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암투를 다룬 책으로 아이들에게 자본의 논리와 생명의 논리를 생각하게 해주는 동화다. 단순한 공상과학소설로 치부해 버리기에는 이 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크다. 자연과 생명을 왜곡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가 감당할 몫이라는 사실 말이다.

### 아들아, 머뭇거리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

강현구 / 한·언 / 2000 / 287쪽 / 9,800원

우리의 인생을 위해 정말로 소중한 것이지만,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이야기가 많다.

꿈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의 젊은이들, 한 번 뿐인 자신의 소중한 인생을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좋을지 몰라 목말라 하는 이들에게 이 책은 사막의 오아시스일 것이다.

### 시련없는 성공은 없다.

김남길 글/ 조은숙 그림 / JDM(주)중앙출판사 / 2002년 / 155쪽 / 6,500원

사람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만큼 삶과 고난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제목에서 암시하듯이 시련없는 성공은 없다는 것을 실제의 인물인 현대그룹의 회장이었던 정주영씨의 삶을 통해 전달하고자 한다.

###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정주영 저 / 현대문화신문사 / 1992 / 347쪽 / 비매출

가난한 촌부의 아들에서 한국 제일의 갑부이자 재벌로 성장한 정주영의 인생회고록을 통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용기를 잃고 힘없이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인생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살면서 아울러 자신이 살아갈 인생철학을 세우는 데 매우 도움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1. 삶과 도덕  
4. 청소년기와  
중학생 시절

### 창가의 토토

구로야나기 테츠코 / 프루메테우스출판사 / 2000년 / 240쪽 / 7,500원

‘창가의 토토’에 나오는 도모에 학원의 50여명의 학생들은 ‘정상적인 사회’가 내친 아이들이었다. 신체적 조건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나누어 차별하는 우리 사회에 많은 생각을 시사해주는 책이다.

1. 삶과 도덕  
인물학습

### 장애를 딛고 선 천재화가 김기창

심경자 / 나무숲 / 2002년 / 48쪽 / 9,000원

김기창 화백은 최악의 비극과 운명을 최고의 행복과 영광으로 바꾼 의지의 인물이었다. 그의 삶을 통해 인간은 자기보다 불행한 사람에게 사랑을 기울여야 함을 청소년들이 깨달았으면 한다.

1. 삶과 도덕  
인물학습

### 자 떠나자 원효 찾으러

장위옥 / 시공사 / 1999년 / 226쪽 / 7,000원

원효는 우리나라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으며 많은 업적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청소년들에게 의미있는 교훈을 남기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그의 삶과 사상을 보다 알기쉽게 접하고 현대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 오체불만족

오도다케이로타다 / 장애 / 2001년 / 287쪽 / 8,000원

‘오체 불만족’은 일반인들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뛰어넘어 닫혔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는 책이다. 비록 팔다리가 없이 태어나 전동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불굴의 의지와 용기로 장애를 극복하고 누구보다 밝고 건강하게 사는 오도다케 히로타다에게 경의를 표하고 싶다.

II. 가정 이웃 학교  
생활 예절  
1. 행복한 가정

###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삶의 황금률

이상각 / 책이있는마을 / 2002년 / 222쪽 / 8,500원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소중한 아들딸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의 글! 인생의 시계 태엽은 단 한 번만 감겨진다. 시계 바늘이 언제 멈출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지금은 너에게 주어진 유일한 시간이다. 뜻을 가지고 살아라. 사랑하라. 일하라. 오늘 할 일을 내일 하려고 걱정하지 말라. 내일이 찾아오기 전에 시계 바늘이 멈출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중한 내 아이에게 사랑과 용기를 주는 25가지 제안. 이 책은 저자처럼 아버지들의 이율배반적인 잔소리를 듣고 자라날 우리 아이들에게 던지는 참회록이다. 여기에서 저자는 부모의 잔소리란 결국 사랑의 삭정이란 것을 일깨워주려고 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당당히 태양을 향해 곧게 뻗어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책을 구성하였다.

### 아우야! 세상엔 바보란 없단다

안익정 / 밝은세상 / 2002년 / 152쪽 / 7,000원

이 책에는 눈물처럼 맑은 영혼을 일깨우는 진한 감동의 가족사랑 이야기 2편이 실려 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순수한 어린 아이의 눈에 비친 바보 형아와 주변 가족들의 모습을 그린 동화같은 이야기이고, 두 번째 장은, 미국으로 입양된 앤지라는 소녀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가족들이 보여준 눈물겨운 사랑을 담았다.

사랑으로 뭉쳐진 두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각박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또한 어려운 때일수록 사람들이 기대어 안식을 찾을 곳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밖에 없으며, 사랑이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내 이웃의 아픔을 함께 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독자들은 큰 감동과 함께 값진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

## II. 가정 이웃 학교 생활 예절

### 1. 행복한 가정

#### 햇볕 따뜻한 집

조 은 / 창작과비평사 / 2001년 / 204쪽 / 6,000원

엄마와 아빠를 잃고 동희네 집으로 입양된 장애아 솔이가 새로운 가정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과 솔이의 생명을 살려내기 위해서 땀흘리는 동희 부모님의 노력을 아름답게 그려낸 이야기이다. 가정은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믿는 가운데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따뜻한 보금자리임을 일깨워 주고 있다.

#### 아버지

김정현 / 문이당 / 1997년 / 302쪽 / 6,500원

우리는 부모와 자녀간의 도리를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너무나 당연해서 부모님의 노고를 모르고 지나칠 때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IMF를 계기로 해서 가정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무척 힘들다. 처자를 부양해야 하는 우리 시대의 가정에 대해 이 책은 슬픈 메시지를 제공하고 있다.

#### 아우야! 세상엔 바보란 없단다

안익정 / 밝은세상 펴냄 / 2002년 / 152쪽 / 7,000원

이 책은 사랑으로 단단히 뭉쳐진 두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차갑게 움츠러든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각박한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워준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독자들은 가슴 뭉클한 감동과 함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우동 한 그릇

구리 료헤이 / 정조사 / 2001년 / 138쪽 / 6,800원

원작가 구리 료헤이는 이 책을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을 지낸 어른들과 고생을 모르고 부유하게 자란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라고 소개하고 있다.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에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꿋꿋이 살아가는 세 모자의 이야기를 실은 이 책은 물질 만능과 편의주의에 물들은 현대인에게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되새겨 주고 있다.

#### 종이밥

김중미 / 낮은산 출판사 / 2002년 / 106쪽 / 7,800원

동생을 생각하는 철이의 송이에 대한 사랑과 따뜻하고 훈훈한 감동을 주는 이 책은 형제 자매간의 우애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빈민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이웃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 일깨워 주는 책이다.

#### 등대지기

조장인 / 도서출판 밝은세상 / 2001년 / 312쪽 / 8,000원

작가가 오랜 시간 등대를 찾아다니며 고된 취재 끝에 완성한 작품으로, 외딴 섬 등대지기의 외롭고 고단한 삶과, 일상 속에 감추어진 미움과 갈등, 화해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잘 보여주고 있다.

#### 목수 아버지

케니렘프 / 인텍스 출판사 / 2002년 / 170쪽 / 7,800원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그리고 있는 이 책을 통해 가족의 중요성과 자애와 효도의 정신을 엿볼 수 있다.

II. 가정 이웃 학교  
생활 예절  
1. 행복한 가정

## 가족

라이동진 / 이투파 출판사 / 2002년 / 288쪽 / 8,500원

가난한 가정에서 불우하게 성장했지만 가정의 소중함과 사랑으로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냄으로써 성공한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다. 좌절하지 않고 불행을 이겨내며 깨끗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를 가르쳐 준다.

II. 가정 이웃 학교  
생활 예절  
2. 친족 간의 예절

## 관혼상제전서

최윤석 / 동양서적 / 1980년 / 297쪽 / 4,200원

우리 조상들은 일종의 통과의례로 관혼상제 의식을 중요한 것으로 여겨왔다. 일종의 성년식인 관례, 결혼식인 혼례, 장례식인 상례, 죽은 조상을 기리는 제례 등이 그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조상들의 정신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책을 통해 조상의 숨결을 더듬고자 한다.

## 백범일지

김구 / 범우사 / 1991년 / 275쪽 / 2,000원

백범일지는, 김구 선생이 손수 쓴 유언적 자서전으로 그 시대의 배경이나 상황이 솔직하게 담겨져 있다.

백범 선생은 일제의 침략에 대하여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효과적인 투쟁의 방법으로 불가피하게 폭력의 수단을 동원한 것일 뿐이며, 오히려 참으로 진실된 인간적인 사랑과 자비를 몸소 실천하였다.

## 미국분, 미국인, 미국놈1

백현락 저 / 도서출판 도솔 / 1994 / 262쪽 / 5,000원

현재 우리 나라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 중에 미국을 제외시킬 수 없다. 단순히 미국에 대해 반미의식을 갖는대거나 무조건 미국을 싫어하기보다는 보다 객관적이고 실제적으로 미국을 알아야 할 것이다.

II. 가정 이웃 학교  
생활 예절  
3. 이웃 간의 예절

##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최일도 저 / 동아일보사 / 1996년 / 270쪽 / 5,000원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동시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쉽 없이 도와주면서 살아가야만 한다. 서울 사회에서 가장 폄박받고 설움 받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면서 살아가고 있는 최일도 목사의 행적을 봄으로써, 우리 주위의 불쌍한 사람을 돕는 계기로 삼아보자.

## 팽이부리말 아이들

김중미 / 창작과 비평 / 2001년 / 274쪽 / 8500원

팽이부리말이라는 도시 변두리의 가난한 동네를 터전으로 고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아이들의 고통스런 생활을 따뜻한 마음씨에서 우러난 숨씨로 들려준다. 이 책에서처럼 슬픔으로 인한 감동과 그것에서 얻어지는 재미, 그리고 슬픔 뒤에 반드시 찾아오는 희망과 기쁨의 빛... 이것들은 물질적 풍요와 안이하게 살아가려는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점을 발견하게 해 줄 것이다.

## 봉순이 언니

궁지영 / 푸른숲 / 2002년 / 208쪽 / 6,000원

이제 막 다섯 살이 된 '짱야'가 식모인 '봉순이 언니'와의 만남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삶에 눈뜨가는 과정을 그린 소설. 작가는 60~70년대 고도성장의 뒷골목에서 한없이 짓이겨지고 추락하면서 삶에 대한 낙관을 버리지 않는 '봉순이 언니'의 삶을 반성어린 눈길로 감싸안으며 그 속에서 끝끝내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의 씨앗을 건져올린다.



II. 가정 이웃 학교  
생활 예절  
3. 이웃 간의 예절

신세대를 위한 예절 길라잡이

임예경 / 호미 / 2001년 / 328쪽 / 10,000원

‘이럴 땐 이렇게 대처해야 한다’라는 등의 직장에서 꼭 필요한 예절 방법과 멋쟁이 신세대를 위한 옷차림과 화장법, 어디서 누구 만나든 기죽지 않게 하는 식생활 예절법,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결혼 준비와 절차 등 예절의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아홉 살 인생

위기철 / 청년사 / 2001년 / 264쪽 / 8,000원

아홉 살이라는 나이를 배경으로 그 해에 일어난 일을 인생 전체에 빚대어 표현한 이 책에서는 친구들간의 우정을 그려내기도 하고, 이웃 간에 서로 돕고 사는 모습도 담아냈다. 아이의 평범한 말투가 우리 주변의 친근한 이웃 간의 정을 더 돈독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

희망을 파는 가게

스기 미키코 / 지원북클럽 / 2002년 / 208쪽 / 9,000원

지은이가 살고 있는 마을 근처에 ‘기쁨의 다리’가 있었던 추억, 그리고 조금 커서 다리 이름이 가까운 절과 관계가 있다는 것까지 마을에는 아직도 그들이 품고 있는 많은 이야기가 묻혀 있다. 그리움과 추억을 남긴 이웃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의 의미와 이웃간에 서로 돕고 사는 길, 지켜야 할 예절들이 잘 묘사되어 있다.

연탄길

이철환 / 삼진기획 / 2001년 / 243쪽 / 7,500원

‘가슴 정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라는 부제목을 달았다. 수년 동안 서울 영등포구 노량진에서 학원 강사로 지내면서 학생들을 통해서 듣고, 자신이 직접 보았던 이야기들을 사실적인 묘사로 그려냈다.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실제 인물들. 글로 차마 표현할 수 없는 것은 그림과 카메라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예절과 이미지

이연주 / 중문화사 / 2002년 / 151쪽 / 8,800원

‘예절과 이미지’는 예비숙녀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고 또 업무상으로 성취감을 얻으려면 꼭 갖추어야 할 것을 기본으로 썼다.

매일 부딪치는 상황을 새로운 자신의 시각으로 해석하려는 노력, 바꾸어가려는 시도가 희망찬 미래를 열어 줄 것이다.

하이파이프

켄 블랜차드 · 셀튼 보울즈, 조전제 외 / 21세기북스 / 2001년 / 196쪽 / 9,000원

능력은 탁월하지만 팀 플레이를 못해서 회사에서 해고당한 주인공 앨런이 만난 팔찌인 리버 밴드의 초등학교 아이스하키팀을 맡아 최강의 팀이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그린 책으로 그 과정에서 ‘팀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 준다.

II. 가정 이웃 학교  
생활 예절  
4. 학교 생활 예절

나는 선생님이 좋아요

아이타니 겐지로 / 양철북 출판사 / 2002년 / 312쪽 / 8,000원

이 글의 주인공인 데쓰조는 파리를 기르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사는 아이다. 고다니 선생님의 헌신적인 사랑과 노력으로 데쓰조는 차츰 마음의 문을 열어가고, 말도 하고 웃을 줄 아는 아이로 바뀐다. 아이들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잘 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존재라는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소중한 아이들을 관심과 사랑으로 키워내는 선생님의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펼쳐진다.

II. 가정 이웃 학교  
생활 예절  
4. 학교 생활 예절

## 내게는 아직 한쪽 다리가 있다

송방기 / 파랑새어린이 출판사 / 2001년 / 196쪽 / 7,500원

만 아홉 살에 소아암으로 짧은 생을 마친 대관이가 암과 싸우며 쓴 시들을 모아 엮은 책으로, 대관의 이야기를 통하여 가족에 대한 사랑과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뜻 깊은 자세를 엿볼 수 있다.

## 사랑의 학교

에드문드 데 아마치스 저, 김경미 역/ 삼성출판사/ 2001 / 199쪽 / 5,000원

‘사랑의 학교’는 어린이들에게 교훈이 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만, 그 속에는 훈훈한 사랑과 열정이 살아 숨쉬고 있다. 여러 부류의 소년들을 등장 인물로 하고 있는데 이는 귀족과 평민, 부자와 가난한 이의 화합을 꾀하는 작가의 의도를 잘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을 훌륭하게 만드는 것은 신분이나 재산이 아니라 성실과 용기임을 보여 준다.

## 작은 친절

이영미 / 리수 출판사 / 2002년 / 215쪽 / 8500원

중학교 교사인 지은이가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 그리고 작은 인연으로 만난 사람들과 엮어낸 는 나눔의 이야기이다. 학교 생활에서 학생들이 지켜야 할 규칙과 배워야 될 예절들을 풀어나가는데 봉사하는 마음, 소중한 은인에 대한 바른 마음 자세, 그리고 기부의 의미까지 작은 이야기를 통해 큰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존 그레이 / 친구미디어 / 2002년 / 400쪽 / 9,000원

여자와 남자의 끊임없는 싸움의 원인은 바로 이해 부족이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이해한다면 불필요한 논쟁과 이로 인한 상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이성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청소년 시기에 꼭 한번쯤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책이다.

II. 가정 이웃 학교  
생활 예절  
인물학습

## 신사임당

송원희 / 계몽사 / 1987년 / 125쪽 / 3,000원

훌륭한 여성들이 많지만, 신사임당만큼 우리들의 가슴속에 살아 있는 분은 드물 것이다. 남녀의 차별이 심하던 봉건 사회 속에서도 스스로의 덕망을 닦고 소질을 계발한 신사임당이야말로 모든 여성들의 귀감이 될 만한 분이라 할 수 있다.

전 단원

## 우동 한그릇

구리 료케이(최영혁) / 정조사 / 1998년 / 131쪽 / 6,800원

먼저 ‘우동 한그릇’은 아버지의 빛을 갚기 위해 고생하고 있는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는 선달 그믐에 아이들을 위해 뭔가 특별한 걸 먹이고 싶은 맘에 우동 가게에 들어와 세 명이서 우동 한 그릇을 시켜먹는다. 주인은 그 여자가 거북스러워 할까봐 3인분을 주고 싶지만 주지 못하고 일인분 하고 반만큼을 더 넣어두어 그 다음해에도 그 여자는 찾아왔고, 그리고 다음해에 찾아옵니다. 이제 주인은 그 모자가 다시 오길 기다리지만 십 년이 지나도록 오지 않는다. 그리고 잊혀질 때쯤 그 모자가 찾아오는데 이제 좀 넉넉하게 살게 되어서 세상에서 가장 사치스런 일을 하려다면서 우동을 3그릇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일본 문학의 특징인 잔잔한 매력을 잘 살리는 책이다. 어쩌면 아주 작은 이야기로부터 이 책의 큰 감동이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책의 내용은 읽어보지 않은 이라고 할지라도 어디선가 한번쯤은 들었던 듯한 이야기일 것이다. 우동 한 그릇이 물질적으로나 심적으로나 빈곤을 느끼던 이들에게 얼마나 큰 힘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이 책을 읽어본 사람만이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잔잔하면서도 진한 감동을 느낄 수가 있다.

## ■ 2학년

- 1. 사회 생활과 도덕
- 1. 현대 사회와 전통 도덕

### 하룻밤에 읽는 목민심서

정약용 지음, 이지영 역 / 사군자 / 2002년 / 212쪽 / 8,000원

목민심서는 치민(治民)에 관한 도리를 말한 것인데, 다산이 신유사옥으로 전라도 강진에서 18년이 넘게 유배 생활하는 동안 자신의 생각과 경륜을 다 바쳐 지은 것이다. 이 책은 다산이 가장 학문적으로 원숙한 시기에 이룩한 민생 관련 저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셈이고, 다산의 정점이며 핵심이 되는 책이다.

###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 / 청동거울 / 2002년 / 200쪽 / 6,500원

윤동주 시인의 시집. 이 시집에 실린 윤동주의 시 작품은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에 수록된 것과 미수록분 및 동시를 모두 모았으며, 주요 시 작품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편저자의 해설을 달아 놓았다.

### 맞아죽을 각오를 하고 쓴 한국 한국인 비판

이케하라 미모루 / 중앙M&B / 1999년 / 251쪽 / 7,000원

한국계 일본인이 한국과 한국인에게 던지는 쓴소리이다. 총체적 비리의 한국, 무질서하고 몰염치한 한국인의 행태를 날카롭게 지적해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한다. 독자들에게 복잡한 사회문 화현상을 단순하게 축소시켜 이해를 도운 것은 좋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화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기 쉽다.

### 모리와 함께 한 화요일

미지 앨블(궁경희) / 세종서적 / 2002년 / 247쪽 / 8,500원

이 책은 시한부 생명을 살고 있는 모리 슈워츠와 그의 제자 미치가 모리가 세상을 떠나기 전 서너 달 동안 매주 화요일에 만나 인생을 주제로 가진 수업 내용을 적은 글이다.

사회학과 교수로 사지를 쓰지 못하다가 결국 숨쉬기도 힘들어지는 루게릭 병이라는 희귀한 병을 앓으면서 죽음을 앞둔 환자 모리는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살아있음의 의미, 죽어감의 의미를 들려준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리를 통하여 진정한 삶의 가치, 훌륭한 삶으로의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으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이 얼마나 진지하고 의미있는가를 깨우칠 수 있다.

누군가의 스승이고자 하는 사람, 인생의 길을 밝혀줄 스승 한 분을 모시고 싶어하는 사람,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큰 깨우침을 주는 책이다.

- 1. 사회 생활과 도덕
- 2. 현대 사회의 시민윤리

### 세 개의 사과 이야기

도덕윤리교육연구회 / 푸른나무 / 1994년 / 255쪽 / 4,800원

'논리적 사고를 위한 토론자료집'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이 책은,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토론하며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모두 4부로 구성하여, 1부는 세계 인식에 초점을 맞춘 기본적인 관점의 문제, 인식의 문제를 다루고, 2부는 가치관과 삶의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문제를, 3부는 사회의 각 부분별 현상 및 문제점을 놓고 함께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4부는 희망찬 내일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담았다. 여러 분야의 각기 다른 주제의 글을 예문으로 제시하고, 그 예문을 중심으로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몇 개의 토론거리를 덧붙였다. 예문 앞에는 주제 파악에 도움을 주는 간단한 길잡이를 넣고, 함께 이야기해 보는 부분도 있다.

이 책은 토론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1. 사회 생활과  
도덕  
3. 민주적 생활  
태도

###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조세희 / **이성과 힘** / 2000년 / 352쪽 / 8,000원

난장이인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와 영수·영호·영희는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도시의 소외 계층이다. 난장으로 상징되는 못 가진 자와 거인으로 상징되는 가진 자 사이의 대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우리 시대의 불행과 행운, 질곡과 신생의 역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연작 소설이다.

### 땅에 그리는 무지개

손준익 / **창작과 비평사** / 2000년 / 220쪽 / 6,000원

가난한 그 시절에도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무지개를 꿈꿨다는, 어찌 보면 구태의연한 우리 부모님 세대 이야기지만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큰 감동을 줄 것이다. 또한 시궁창 속에서도 하늘의 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심어줄 것이다.

###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앤터니 스티븐 위음 / **이매인 수녀 옮김** / **황금가지** / 1999년 / 174쪽 / 7,000원

기도에 관한 마더 테레사의 주옥같은 말씀을 담은 묵상집.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비롯해 침묵으로 시작하기, 작은 어린이처럼, 마음을 여는 것, 침묵 안에 마무리하기, 기도의 열매 등을 주제로 모아 엮었으며 끝에 테레사 수녀를 향한 추모의 마음을 담았다.

### 못난 것도 힘이 된다(1, 2)

이상석 / **자인** / 2001년 / 216쪽 / 7,000원

지은이의 성장 소설. 자연의 품에서 마음만은 넉넉하게 자란 어린 시절, 꼴통이라 불리며 문제 학생으로 찬란하게 추락해가던 10대, 만화가 박재동과의 운명적인 만남, 군대에서의 온갖 험프닝 등에 대해서 썼다.

### 생각은 힘이 세다

위기철 / **청년사** / 2001년 / 176쪽 / 7,500원

창조적인 사고능력이 필요한 시대에 이 책은 바로 창의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법을 조언하고 있다.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상식의 틀을 깨라고 말하며, 사물을 뒤집어서, 옆에서, 곡선적으로 바라보라고 조언한다.

### 할머니를 따라간 메주

오승희 / **창작과비평사** / 2000년 / 174쪽 / 6,000원

모두 7편의 단편 동화가 실려 있다. 요즘 도시 아이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겪는 고민을 잘 드러낸 사실 동화로서, 뚜렷한 사건 설정, 일상에 대한 현실감 있는 묘사, 섬세한 심리묘사 등이 돋보인다.

1. 사회 생활과  
도덕  
(도덕 공동체  
구현)

### 물과 원시림 사이에서

알베르트 슈바이처 / **문예출판사** / 1999년 / 251쪽 / 7,000원

1913~1917년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 랑바레네에서 의료활동 체험을 기록한 에세이이다. 장황한 일대기보다 진솔한 에세이 한편이 슈바이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는 책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작품이다.

I. 사회 생활과  
도덕  
(도덕 공동체  
구현)

사랑의 기술

에리히 프롬 / 도로서 / 2003년 / 181쪽 / 4,500원

현대의 미성숙한 사랑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진정한 사랑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에리히 프롬의 에세이이다. 그는 사랑을 지식과 노력이 요구되는 '기술'이라 정의하며, 사랑의 문제를 '사랑 받는다' 것에서부터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혹은 조건'의 영역으로 이동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신영복 / 도로서 / 1998년 / 399쪽 / 9,800원

자신을 돌이켜 보고 싶을 때 신영복씨가 20년 동안 검열의 선을 넘어 가족과 친구들에게 휴서며 엽서에 철필로 또박 또박 써 보낸 편지들은 짧은 글이었지만, 큰 고통 속에 있는 인간이 가슴 가장 깊은 곳에서 걸어 올린 진솔함으로 긴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만화에서 철학을 본다.

이주향 / 명진출판사 / 2000년 / 225쪽 / 8,700원

이 책에서 만화를 철학과 연결하고자 하는 지은이의 시도는 신선하다.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만화를 청소년 문제(Sreet Generation), 여성문제+가부장적 사회 구도(아르미안의 네 딸들, 물의 검), 문화(미스터 초밥왕, 맛의 달인), 출세, 결혼+성(性)문제(악의 꽃, 발바리의 추억, 밤사쿠라, 누들누드), 치부, 명예, 향락을 위한 무한 경쟁 사회 문제(Our Wonderful World, 반디, 오디션, 레드문, 공포의 외국인단) 등과 연관지어 말하고 있다.

만화에 대한 학생들의 열망은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만화에 대한 열망을 한 단계 올려 줄 수 있는 책이다.

손도끼

게리슨 / 사계절출판사 / 2001년 / 186쪽 / 6,000원

키와 함께 마음도 훌쩍 클 수 있도록 쓰여진 성장소설이다. 이혼한 부모 사이를 오가며 생활하는 13세 브라이언이 뜻밖의 비행기 사고로 겪는 극적인 이야기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모든 것이 준비된 현대적인 도시의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존의 법칙을 터득해 가는 사이에 어느새 훌쩍 성숙해지는 10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간디 자서전

간디 / 한길사 / 2002년 / 646쪽 / 15,000원

간디의 자서전은 인도의 한 위대한 성자가 자유로운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과 마음 자세를 보여 주는 책으로서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간디의 투쟁 모습보다 조그만 실수에도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내면에서 요구하는 진실에 귀 기울이는 고집스럽고 순수한 간디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II. 바람직한 국가·  
민족생활

박물관 밖의 문화유산 산책 1-2

1. 민족의 발전과  
민족 문화 창달

김영원 외 / 녹두 / 1998년 / 216쪽 / 8,000원

이 책은 문화유산 애호가일 뿐 아니라 이십 년 이상 박물관과 대학에서 우리 문화와 문화유산에 대해 학술적으로 연구해 온 전문 고고학자와 미술사학자들이 모여 일반인과 초학자를 위한 입문서 수준으로 문화유산 전반에 걸쳐 다루었다. 따라서 한 사람의 특정 학설에 편중되지 않고 각 장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분야별 주제를 쉽고 재미있게 서술하였다.

우리 주변이 모두 조상들이 남긴 유산이며, 이 유산을 계승할 수 있는 힘을 이 책을 통해 얻으면 한다.

## II. 비람직한 국가·민족생활

### 1. 민족의 발전과 민족 문화 창달

#### 세계 최고의 우리 문화유산

**이중호 / 펼쳐라민 / 2001년 / 335쪽 / 13,000원**

저자가 '세계 최고'라 제시하는 19가지 한국 문화유산을 소개한 책. 프랑스 빠삐냥 대학에서 열역학 및 유체이동 연구로 과학 국가 박사 학위를 받은 이중호씨가 포석정을 비롯해 석굴암, 고인돌 등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밝힌 책이다.

다른 문화권과 비교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 뛰어난 청동기 문화를 꽃피웠던 우리의 고대문화를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물이자, 세계에 자랑할 만한 위대한 유산 <고인돌>부터 고구려가 중국과 교류하면서 불교를 비롯한 종교와 문화를 수입한 후 자신의 문화로 흡수시킨 궁지를 드러내기 위해 축조한 <고구려 벽화>까지를 고대문화, 과학문화, 생활문화, 예술문화 등 네 주제로 나눠 풍부한 사진자료와 함께 소개했다.

####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 1-2

**주강현 / 한겨레신문사 / 2000년 / 291쪽 / 7,500원**

우리 민족의 의식과 생활 속에 가장 원초적으로 자리잡은 문화현상에 대해 그 풍습과 의미를 적은 책으로, 각 주제를 뒷받침하는 사진을 많이 수록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고고학과 민속학을 꾸준히 연구해 온 저자는 폭넓은 자료 수집을 통해, '미륵의 손가락에 숨은 뜻은', '똥댈지의 내력은', '장승은 어디서 왔는가', '우리 민족은 왜 흰옷을 입었는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저자가 이 책을 소개할 때 '금줄 없이 태어난 세대를 위한 우리 문화 길잡이'라고 말할 정도로, 청소년들이 우리 문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이 책은 선입견을 가지고 미신이라 치부하며 저속하게 보던 무당에 대한 문화사적 의미를 밝히는 등, 우리 주변의 삶에 섞여 있던 우리 것들과 우리 문화에 대해 알게 하며 관심을 가지게 해준다.

#### 이이화의 역사 풍속 기행

**이이화 / 역사비평사 / 1999년 / 313쪽 / 9,000원**

우리는 흔히 전통을 말한다. 그 속에서 삶의 지혜를 얻기도 하고 오늘을 반성하는 소재를 찾기도 한다. 그래서 오늘날의 거울이 되기도 한다. 전통을 존중한다고 해서 무조건 외래문물을 배격하자는 것이 아니다. 전통의 바탕 위에서 이를 주체적이고도 개성 있는 태도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다. <역사풍속>이란 인간 삶의 방식에 따라 이루어진 풍속들, 그 시대적 전통적 가치를 규명하는 것이다.

이 책은 우리의 전통문화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어떻게 생활에 작용해 왔는지를 살핀 전통 생활문화서. 풍수설, 당산나무, 초가, 설날과 추석, 가밭, 족보, 과거제도 등 35개 분야로 나눠 각 풍속의 유래와 형태, 종류 등을 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 통일은요 - 처음으로 읽는 통일 교과서

**박현희 외 / 푸른나무 / 2001년 / 244쪽 / 7,800원**

통일이 되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할까? 북한에도 스타가 있을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왜 영화를 좋아할까? 북과 공작원의 진실은 무엇일까? 우리 마음 속에는 분단 장벽이 없을까? 통일과 북한에 대한 구체적 질문과 대답을 통해 통일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북한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처음으로 읽는 통일교과서'다.

통일이 되면 말든 별 관심이 없는 현대인들에게 들려주는 통일 이야기. '통일이 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달라질까'와 같은 통일에 대한 궁금증 이모저모를 자세히 풀어냈다. 아울러 북한 사람들의 생활과 북한의 권력 구조에 대해 서술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책이다.

####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 2, 3

**유홍준 / 창작각비평사 / 2001년 / 8,000원**

우리 문화 유산을 찾는 사람들 자신의 풍성한 답사 기록이며, 동시에 문화 유산에 관심을 갖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지적 입장권이요 정서적 초대권이다. 글쓴이는 우리 조상들의 숨결과 이 땅의 역사를 흠내음을 흠뻑 느끼게 해 주는 문화유산 답사에 독자들을 어느 틈에 끌어들이며 지적으로 충격을 주고 정서적인 공감을 나누고 있다.

## II. 비람직한 국가·민족생활

### 1. 민족의 발전과 민족 문화 창달

#### 천상의 두나라

니코스 카잔차키스 저, 정영문 역 / 예담 출판사 / 2002년 / 344쪽 / 9,800원

그리스의 유명 작가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1935년 중국과 일본을 여행하고 쓴 여행기. 이 책을 통해 중국과 일본의 오랜 역사와 문화에 대하여 저자의 깊은 관심과 탁월한 안목을 느낄 수 있으며, 반세기 전 서양인의 눈에 비친 동양의 모습이 어떠 했는지 되새겨 보게 한다.

#### 조선시대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국역사연구회 지음 / 청년사 / 1996년 / 280쪽 / 8,000원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조선시대 민중들의 생활상을 다룬 교양서로 교과서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던 문제들, 그러나 우리의 삶을 알아가는 데 꼭 다가가고 싶었던 것들을 일반 독자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에서 기획된 역사서이다.

#### 우리 문화의 수수께끼(1, 2)

주강현 / 한겨레 신문사 / 1996년 / 292쪽 / 7,500원

우리 민족의 의식과 생활속에 가장 원초적으로 자리잡은 문화 현상 15가지를 소재로 하고 있다. 특히 생생한 사진이 많이 실려 있어서 책을 읽으면서 전혀 지루함을 느끼지 못할 것이며, 우리 문화에 숨겨진 뜻을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선비

정옥자 / 현암사 / 2002년도 / 424쪽 / 25,000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이나 정약용에서부터 조금 낮은 조선 후기의 선비들 김윤식, 유인석, 민영환 등을 돌아보고 그들의 삶에서 우리 선비의 정신들을 엿본다.

저자에 의하면 서양의 지식인이 권력자의 참모 역할에 그친 반면에 동양의 지식인들은 사회를 이끌어 간 주체가 되었다고 한다.

#### 신도불이 우리 문화유산

이중호 / 한문화 / 2003년 / 312쪽 / 15,000원

과학으로 우리 유산을 보는 저서로 저자의 10여 년에 걸친 탐구 작업의 결실이다. 이 책은 세계 최초의 과학영농 온실을 국내 최초로 비중있게 다루었다. 저자는 금속활자, 측우기 등 여러 종류의 세계 최초들이 있지만 세종 때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 온실이 과학성을 감안한 세계 최초의 온실이었다는걸 강조한다.

#### 세계 최고의 우리 문화유산

이중호 / 컬쳐라인 펴냄 / 2001년도 / 335쪽 / 13,000원

프랑스 페삐냥 대학에서 열역학 및 유체이동 연구로 과학국가박 학위를 받은 이중호씨가 포석정을 비롯해 석굴암, 고인돌, 온돌, 막걸리, 김치 등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과학적인 측면에서 밝힌 책이다.

#### 삼국유사

일연 지음, 김원중 옮김 / 을유문화사 / 2002년 / 622쪽 / 9,000원

『삼국유사』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와 더불어 우리 고대 사적의 쌍벽을 이루는 역사서로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삼국사기』가 기록하지 않은 고조선, 기자조선, 위만조선과 아울러 가락국 등의 역사까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 II. 바람직한 국가·민족생활  
2. 국가의 중요성과 국가발전
- 중국견문록**  
한비아 지음 / 푸른숲 / 2001년 / 332쪽 / 8,800원  
중국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순서대로 펼쳐진다. 꼬박꼬박 일기를 적은 덕분에 이야기가 생생하다. 중국어를 배우며 겪은 일들이며 베이징 사람들에게서 느낀 점, 한비아 특유의 친화력으로 사귄 친구들 이야기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중국을 볼 수 있다.

- II. 바람직한 국가·민족생활  
4. 남북 통일과 통일 실현 의지
- 통일 나라 북한 여행**  
이찬행 / 아이세움(대한고과서) / 2002년 / 224쪽 / 8,000원  
북한의 학교, 북한의 말과 글, 스포츠, 신문방송 통신, 가족 제도, 민속, 의식주 등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으로 꾸며진 책이다. 많은 사진자료가 실린 이 책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해 보다 더 깊은 관심과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수 있으며, 북한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는 느끼게 될 것이다.

###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백기완의 통일이야기

- 백기완 / 청년사 / 2003년 / 479쪽 / 15,000원  
저자는 통일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의 통일은 우리만의 통일이 아니라 '세상을 새롭게 빛어내는 문명사적 환관 뒤집기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분단의 원인과 미국의 실체, 통일의 진정한 의미,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순우리말과 곱결한 어조를 통해 들려준다.

### 북한의 민족생활풍습

- 주강현 / 민속원 / 1999년 / 688쪽 / 25,000원  
북한에 대한 잘못된 시각들을 이 책을 읽음으로써 조금은 깎 수 있을 책이다. 북한 생활풍습 50년사를 의생활 풍습, 식생활 풍습, 주생활 풍습 등으로 나눠 해방이후 90년대까지 북한의 생활 풍습을 설명했다.

### 나의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 (上)

- 유홍준 / 중앙 M & B 펴냄 / 2000년 / 276p / 9,000원  
북한의 문화유적지 답사와 북한사람들의 순박함을 담고 있다. 통일 세대이어야 할 우리 청소년들이 북한을 바로 이해하고, 통일에 대한 열망을 키울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 사 회

## ■ 1학년

### I. 지역과 사회 탐구

#### 1. 지역의 지리적 환경

#### 교실 밖 지리 여행

노용희, 박병석 / 사계절 / 1994년 / 310쪽 / 8,500원

현재 지리 교과에서 배우는 50가지의 주제를 그 배경이나, 우리들의 생활문제 또는 다른 사회·자연 현상과의 연관 속에서 이해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엮은 책이다.

이 책은 지리에서 다루는 주제들을 재미있는 일화나 생활 이야기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접근하여 자연스럽게 지리에 관한 주제들을 이해하도록 하였으며,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지리적인 사고력(생활 공간에 대한 이해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준다. 그리고, 일제의 식민지 침략에 의해 왜곡된 지리학을 바로 잡고 우리 조상들이 오랜 세월 이 땅 위에 살아오면서 고유하게 가꾸어 온 우리 지리학의 본령을 되찾기 위해 노력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우리 땅과 문화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정당한 자긍심을 가지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 사라져가는 오지 마을을 찾아서

이용환 / 실천문학사 / 1998년 / 290쪽 / 10,000원

우리에게 지금 고향은 존재하는 걸까? 오지마을을 여행한다는 것은 잃어버린 우리의 고향을 찾아가는 것이다. 질박한 서민문화를 보듬고 껴안고 어루만지며 지켜가야 할 우리네 원형을 찾아서 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하나의 오지마을이 사라지고 있을지 모른다.

이 책은 물이 아름다운 마을이라 할 수 있는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가수리를 비롯해 산골 구석에 자리한 오지마을을 여행하면서 경험한 마을 주민들의 후박한 인심과 자연 풍광, 시골마을의 풍습과 특징을 상세히 소개한 저서이다. 강원도를 비롯해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의 사라져 가는 마을을 안내했다. 점점 사라져 가는 우리네의 토속적인 삶의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진 책.

### II. 중부지방의 생활

#### 3. 관광자원이 풍부한 관동지방

#### 자전거 여행

김훈 / 생각의나무 / 2000년 / 332쪽 / 9,000원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자전거로 쓴 기행문이다. 저널리스트이자 탁월한 에세이스트요, 소설가인 저자가 1999년 가을부터 2000년 봄까지 '풍류'이라 이름 붙인 자전거 하나에 의지해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을 비롯, 국토의 구석구석을 순례한 기록이다.

국토 곳곳을 누비며 자신만의 독특한 감성으로 자연과 인간을 포착한 글들이 사진작가 이강빈씨의 아름다운 사진과 함께 수록되었다. 작가는 책에 나온 사진의 아름다운 풍경처럼 그렇게 오랜 역사 속에 더불어 살아온 인간과 자연을 찍어낸다. 저자는 자연의 법칙, 이유 등을 굳이 설명하려 들지 않는다. 그저 자전거 페달을 돌려 길을 밟으며 본대로 느낀 대로 꾸밈없고 거짓 없는, 세상을 감싸주고 치유해주는 의연한 모습의 자연을 그렸다.

이 책은 여행을 하는 사람에게 좋은 여행안내서가 될 것이며, 여행을 갈 수 없는 형편인 사람에게 책을 통한 간접여행의 체험을 하게 해 준다.

### III. 남부지방의 생활

####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 577 1-2

권삼윤 / 정아 / 2002년 / 299쪽 / 14,500원

이 책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 577점을 모두 수록한 책이다. 세계문화유산이란 세계 각 국에 있는 여러 문화유산 가운데 유네스코에 의하여 현저하게 보편성이 있다고 인정된 것으로, 이 책에는 문화유산 554점과 복합유산 23점에 대한 설명과 사진을 담고 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의 문화유산을 담은 1권과, 유럽, 구소련 권, 오세아니아의 문화유산을 담은 2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우리나라의 경주와 중국의 진시황릉, 이집트의 아부 심벨 신전, 멕시코의 아즈텍 유적 등 다양한 나라의 문화유산들을 한 눈에 접할 수 있게 해준다. 곳곳에 피어나는 이야깃거리는 우리가 지키고 보존해야 할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한층 더 돋보이게 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세계 문화의 다양성을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또한 여행의 길라잡이로 삼을 수도 있다.

### V.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생활

#### 나는 박물관에서 인류의 꿈을 보았다

권삼윤 / 고래실 / 2002년 / 342쪽 / 17,000원

이 책은 세계 곳곳의 박물관을 순례하며 느낀 감동과 '알 거리'를 두루두루 담은 기행문이자 문명 비평서이다.

20년 전, 외국 출장길에 들른 영국 자연사박물관에서 충격을 받아 박물관 마니아가 되었다는 저자는 지금까지 손발품을 들여 찾아다녔던 세계 각지의 박물관 중 인상이 깊었던 곳에 대한 기록을 사진과 함께 풀어 놓는다.

런던의 자연사 박물관에서부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 터키와 다마스쿠스의 박물관, 인도, 중국, 멕시코의 박물관 등 220컷의 칼라 사진으로 화려하게 펼쳐지는 세계의 박물관들을 지금까지 나온 어느 책보다 다양하고 폭넓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또한 각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들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담았고, 또 그러한 정보 속에서 얻은 저자의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어 책을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 반쪽이 세계 오지를 가다

최정현 / 한겨레신문사 / 1999년 / 230쪽 / 6,000원

삶의 또 다른 활력소를 주는 반쪽이의 오지기행 · 이색 문화체험!

“야, 천국이 따로 없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곳. 나는 바로 그런 곳에 다녀왔다. 여행의 힘은 일상 생활을 탈피해서 다른 지역의 문화를 보고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그 차이와 같음을 확인하고 우리의 삶의 지표를 때로는 수정하고 곧추세워보는 것이 아닐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쉽 없이 나오는 현장에서 나는 이삭을 줍듯이 여행이 준 선물을 조금씩 챙겼다.

반쪽이와 함께 떠나는 세계 오지의 문화와 이색탐험을 재미있는 만화로 그린 책. 10여 컷 안팎의 만화 속에 색다른 풍경이 담겨있는 책이다.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해 도미니카 공화국, 아마존강, 브라질, 피지와 뉴질랜드, 베트남,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세계를 여행했다

### IX. 인류의 기원과 고대 문명의 형성

#### 역사의 혼 사마천

### 2. 중국과 인도의 고대 문명

전통성(김은희 외) / 이글리오 / 2002년 / 480쪽 / 16,000원

남성을 거세당하는 궁형의 치욕을 이겨내고 천년을 얻은 사나이, 사마천의 파란만장한 일대기! 엄밀한 사료 분석과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학술성과 예술성을 융합한 소설 형식으로 생생하게 복원한, 사혼 사마천의 파란만장한 일대기. 사마천은 동양 역사학의 아버지이며 문학 거장이자 문화 거인이다. 3천년 중국 역사를 다룬 그의 대작 [사기]는 이제 시공을 초월한 진리의 보고요 인류의 고전으로 칭송 받는다.

이 책은 사마천이 밭을 일구며 출세를 꿈꾸던 어린 시절부터 한 시대의 문화 거장이 되어 가는 흔적을 따라 한무제, 강태공, 백이와 숙제, 관중과 포숙, 항우 등 일련의 역사적 인물을 함께 묘사하여 당시 정치 문화적 상황을 입체적으로 재현해 놓았다.

## □ 2학년

### 1. 유럽세계의 형성

#### 세계사 신문 1-3

세계사신문편찬위원회 / 사계절 / 1998년 / 192쪽 / 12,000원

다양한 기사 형식과 숨가쁜 보도로 생생한 역사현장의 숨결을 입체적으로 전하는 신문 형식에 인류 역사 만 년을 담은 책이다. 만화와 광고를 포함하고 현장감 넘치는 기사 형식도 갖추고 있는데, 신문의 기본 형식 외에 각 시대를 배경으로 삼은 외국 영화들이 돌출광고 형태로 소개되고, 관련 정보를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도 적혀 있으며, 취재수첩, 독자투고, 인터뷰, 시사만화에 광고 형식까지 도입해 재미를 더한다. 또한, 평면적인 서술을 피하기 위해 타임머신, 망원경 등 시공의 제약을 뛰어넘는 별도의 난을 마련해 입체적인 역사 공부도 되도록 배려했다. 전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럽 중심의 세계관을 극복하려고 했으며, 동·서양을 균형 있게 바라보려고 노력하였다.

이 책을 재미있게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류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역사책이다.

### 1. 유럽세계의 형성

#### 1. 고대 지중해 세계

#### 하룻밤에 읽는 세계사 1-2

미야자키 마사카즈(이영주 외) / 중앙M&B / 2000년 / 360쪽 / 9,500원

세계 역사 5천년의 흐름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세계사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인류의 등장으로부터, 4대 문명, 유라시아의 세계, 대항해 시대와 유럽의 세계 제패, 그리고 세계 대전과 글로벌 혁명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각 시기의 주요한 소주제를 잡아 설명하여, 전체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했다. 어느 한 대륙에 치중하기보다는 동양과 서양을 아우른 '세계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역사적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구성하였다. 각 장을 2쪽 내에서 소화하고 재미있는 제목을 붙였으며, 수많은 도표와 지도, 그림을 통해 복잡한 내용을 단순화시켰다. 그리고, 각 장의 끝부분에는 칼럼을 넣어 역사의 흥미진진한 에피소드를 담았다.

중학생부터 고등학생, 그리고 세계사를 빠른 시간 안에 훑기를 원하는 일반 독자에게 적합하다.

#### 세계사 100장면

박은봉 / 실천문학사 / 1998년 / 456쪽 / 8,000원

진정한 역사 읽기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역사는 진보한다. 그 동력은 진실이다. 거짓이 우세한 듯 보이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항상 승리하는 쪽은 진실이다. 왜냐하면 보다 나은 삶, 보다 행복한 삶을 바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행복의 내용은 자유와 평등이다. 인간의 역사는 좀 더 많은 자유와 좀 더 공정한 평등을 향해 달려왔다. 이 책은 인류의 등장부터 현재까지의 역사 사건 중전기를 이루었다고 생각되는 100가지 사건을 골라 간단히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불의 발견에서부터 만리장성과 분서갱유, 다이어나이트와 노벨상, 침잠하는 20세기 사회주의까지 세계사 의 주요사건을 정리 소개했다.

### 1. 유럽세계의 형성

#### 1. 고대 지중해 세계

#### 문명 속으로 뛰어든 그리스 신들 1-2

강용천 / 사계절 / 2000년 / 300쪽 / 12,000원

이 책은 그리스 신화를 우리의 입장에서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책이다. 특히 '문명'에 초점을 맞추어 그리스 신화가 유럽 문명을 포함한 현대 문명 속에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지 잘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신화 미술관'을 개설하여 그리스 신화를 주제로 하고 있는 미술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데다가 그림에 대한 자세한 해설까지 들을 수 있어, 그림을 단지 보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그리스 신화를 신들의 시간(철학), 영웅 시대(역사), 인간과 신화(문학, 비극) 등으로 묶어주고 있어 그 동안 토막으로 알고 있었던 그리스 신화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전체적인 조망을 통해 전개하고 있어 체계적인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다.

## 청소년을 위한 세계사(서양편)

이강우 / 두리미디어 / 2002년 / 366쪽 / 12,000원

시야를 넓혀주는 세계 역사 이야기.

청소년을 위한 세계사 서양편. 선사시대에서부터 시작해 고대사회, 중세사회, 근대사회에 걸쳐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그림과 사진 삽화를 풍부하게 수록하여 일목요연하게 기술했다.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가르친 경험을 바탕으로 대안교과서의 성격으로 씌어진 세계사이다.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 및 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역사적 사실들의 사전적인 나열을 지양하고 사건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 인류 이야기 1-3

앤드릭 빌렘 반 룬(박성규) / 아이필드 / 2002년 / 200쪽 / 10,000원

청소년을 위해 쉽게 풀어쓴 세계사 책이다.

이 책은 우리의 아득히 먼 선조들이 웅얼거리면서 의사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선사시대에서부터 이슬람의 문제, 인간답게 살 권리 등 지나치기 쉬운 감성의 문제까지 수록되어 있다. 또한 반 룬의 탁월한 문체와 직접 그린 그림, 지도, 그림 연대기 등을 시대의 사건과 인물에 숨결을 불어넣어 생생하게 볼 수 있게 엮었다.

1권은 인류의 탄생부터 십자군 전쟁까지, 2권은 중세부터 미국의 독립전쟁까지, 3권은 프랑스 혁명부터 제1차 세계대전까지를 다루고 있다.

## 슈테판의 시간 여행 1-6

막스 크루제(이희재) / 이글리오 / 1998년 / 296쪽 / 7,500원

청소년을 위한 '소설로 읽는 서양문명사'로, 이 책은 역사적인 사건을 시대별로 설명하거나 단편적인 사건의 나열에 그친 기존의 세계사 책들과 구분되는 소설적 서술형식을 취한 것이 특징이다. 역사의 중요한 주제들을 놓치지 않고 끄집어내어 세계사의 흐름을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돋보인다.

고등학교 슈테판, 베레니카, 로만은 어느 날 우연히 '진화공원'이라는 가상공간에 들어갔다가 세덱스라는 신사에게서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그리스, 중세, 근대, 현대까지 서양문명이 지나온 길을 안내받게 된다.

회의주의, 여성주의, 낭만주의의 입장에서 문명사를 판단하며 서로 다른 질문과 토론을 하는 세 사람의 대화를 통해, 독자들은 다양한 시각에서 사건을 조명할 수 있게 되고, 세계사의 중요한 주제들과 접하며 그 흐름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다.

1. 유럽세계의 형성
2. 유럽세계의 성립과 발전

## 새 먼나라 이웃나라 1-9

이원복 / 김영사 / 2002년 / 290쪽 / 7,900원

풍부한 정보와 간단하고 명확한 설명, 빼어난 그림 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애독되고 있는 교양만화이다. 서유럽 주요 국가들 및 일본, 우리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압축해서 보여준다. 1~6권은 유럽의 여섯 나라-독일,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를 다루고 있으며, 7~8권은 일본, 9권은 우리나라를 다루고 있다. 1~6권에서 다루고 있는 유럽 편에서는, 흔히 단일 문화권으로 여겨지는 서유럽 국가들의 독특한 문화를 부각시켰고, 7~8권에서는 섬나라 일본의 독특한 생활 습관과 풍물을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엮었으며, 9권에서는 한국인의 의식과 사고방식을 비평하고 정리했다.

'세계 역사를 가장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책', '세계와 유럽의 다양한 문화와 풍물을 담은 국제화 시대의 필독서' 등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책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한 다양한 지식을 접할 수 있다.

1. 유럽세계의  
형성  
2. 유럽세계의  
성립과 발전

신의 나라 인간 나라 - 세계의 종교 편

**이원복 / 두산동아 / 2002년 / 260쪽 / 10,000원**  
 세 권으로 구성된 '세계 정신 문화의 뿌리를 찾아가는 여행' 시리즈의 첫번째 책이다. 인류 문명의 정신적 뿌리인 종교를 다룬 이 책은 모두 여덟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시 종교에서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 유교로 대표되는 현대 종교까지 그 성립과 변천과정, 주요 내용 및 현대 문명에 끼친 영향을 간결하게 알려준다.  
 종교 그 자체에 대한 설명보다는 종교가 어떻게 인간의 의식을 변화시키고, 문명을 움직였는지에 초점을 맞춰, 종교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와 문화, 정치와 역사를 익힐 수 있다. 종교의 교리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정리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균형 잡힌 종교관을 형성하고, 타 종교를 이해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르게 한다.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내용이 빈약하지 않고 충실한 종교에 대한 개괄서라고 할 수 있다.

II. 서양 근대 사회  
의 발전과 변화

교실 밖 세계사 여행

**김성환 / 사계절 / 1998년 / 288쪽 / 8,000원**  
 단순한 지식의 나열에 치중한 교과서적 해석에서 벗어나 세계사에 대한 폭넓은 관점과 사실을 제공하고 있는 역사서이다. 이 책은 무엇보다 세계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시각에 기초하여 서양 중심의 왜곡된 세계사 인식을 지양하고 있다. 또한, 정치·경제사 일변의 역사 인식에서 벗어나 문화적 관심을 부각시키고, 근·현대 사회에서의 문화의 중요성을 고려해 몇 개의 장을 할애해 문화적 변화와 역사의 관계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히고 있다.  
 이 책은 그 동안 단편적 지식으로 인식해왔던 역사적 사실들에 의문을 던지고, 그 배경과 의미를 논리적으로 풀어주고 있어 세계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한다. 그리고 많은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역사의 모습을 함축하여 보여줄 수 있는 주제를 골라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 세계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올바른 관점을 제시해 준다.

유시민과 함께 읽는 유럽 문화 이야기 1-2

**유시민 / 푸른나무 / 1998년 / 160쪽 / 8,500원**  
 이 책은 영국 Oval Project Ltd.에서 개발한 <제노포보스 가이드> 시리즈를 번역한 책이다. 분량은 그리 많은 편은 아니지만, 단순한 문화 기행이나 외국 문화 소개서가 아니라, 책 한 권을 읽으며 세계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한 유럽 문화 안내서이다. 1권은 영국, 프랑스, 독일 문화 이야기, 2권은 이탈리아, 스위스, 오스트리아 문화 이야기를 묶었다. 영국인의 예절과 특징을 시작으로 각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적 문화, 노동 문화, 대화와 제스처의 특성, 각 나라의 자랑거리, 레저와 오락 등을 사진과 함께 흥미 있게 기록하고 있다. 작가의 해박한 지식과 함께 여행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유럽의 문화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교양을 쌓을 수 있으며, 살아 있는 산 교육의 장이 되어 줄 수 있는 책이다.

II. 서양 근대 사회  
의 발전과 변화

거꾸로 읽는 세계사

1. 서양 근대  
사회의 시작

**유시민 / 푸른나무 / 2002년 / 372쪽 / 9,000원**  
 열린 사고와 열린 시각으로 열린 사회를 이룩하고자 하는 저자의 열망이 담긴 생산적인 제안의 교양 역사서이다. 드레퓌스 사건, 피의 일요일, 러시아 10월 혁명과 미완의 혁명 4·19 등, 기존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통해서 세계사의 흐름에 대한 일관성 있는 분석과 해명,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를 시사하고 있다.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 체제 붕괴와 독일 통일에 대해서도 저자 나름대로 그 사건이 20세기 인류 역사에서 가지는 의미를 저자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다. 국가권력 앞에 한 개인의 인권이 어떻게 철저하게 무시되고 짓밟히는지 보여주는 드레퓌스 사건 등에서, 우리가 알지 못했거나 혹은 잘못 알아왔던 역사의 진실성을 탐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게 해 준다.  
 역사에 대한 올바른 해석, 책의 제목은 거꾸로 읽는 세계사이지만, 읽고 난 후에는 세계사를 제대로 읽었다는 느낌을 주는 책이다.

IV. 현대 세계의 전개  
2. 제2차 세계대전과 전후의 세계

쥐 1-2

**아트 슈피겔만(권희섭 외) / 아름드리미디어 / 2002년 / 160쪽 / 6,000원**

2차 대전 당시 나치의 유대인 학살의 참혹함과 그 비극의 한복판을 걸어온 유대인의 고통스런 삶을 그린 만화이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난 아버지가 뉴욕에 거주하는 만화가 아들에게 들려준, 그 극한의 고통과 참혹한 역사가 남긴 후유증을 전후세대인 아들은 치밀하고 끈질기게 13년 동안 만화로 기록했다.

나치에게 학대받던 시절의 여러 생활 이야기와 강제수용소에서 벌어지는 억압받는 이들끼리의 많은 불신과 믿음, 속임수와 몰인정과 인정을 잘 묘사했고, 아버지와 전쟁을 겪지 않은 아들과의 갈등도 잘 나타나 있다.

유대인을 쥐로, 나치를 고양이로 상징한 이 만화는 나치의 광기 어린 인종주의, 살아야 한다는 본능으로 인해 인간이기를 포기했던 유대인들, 그 역사의 그림자가 벗어낸 후유증을 세밀히 묘사하여, 엄숙하리만큼 감동을 주는 작품이다.

IV. 현대 세계의 전개  
3. 현대 사회의 변화와 시민 생활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1-3

**한국역사연구회 / 역사비평사 / 1998년 / 282쪽 / 9,000원**

지난 100년 동안의 우리 삶을 생활사적으로 접근하여 각각의 주제에 따라 생생하게 풀어낸 사회문화사.

1권 - 삶과 문화 이야기 편 : 근대적인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던 때부터 오늘날까지 지난 100년 동안을 역사 연구자들의 손으로 그린 책.

2권 - 사람과 사회 이야기 편 :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근대를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해왔으며, 어떻게 건설해왔는가. 또 이를 이루려는 과정에서 잃은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인가. 근대적 시간의 등장, 만석꾼의 형성과 몰락 등 18개 장. 자료 사진을 다수 실었다.

3권 - 정치와 경제 이야기 편 : 권력, 명예, 부를 보장하는 고시, 계현의회 이후 부정시비로 얼룩진 선거, 정적탄압에 악용된 반공주의 등 20세기의 갈등과 긴장이 담겼다.

전 단원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 1-4

**한비아 / 금토 / 1990년 / 376쪽 / 9,000원**

오지 여행가로 유명한 저자가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동 등지를 5년간 여행하며 남긴 기행문이다.

세계의 애정 있는 마을, 따뜻한 인간을 찾아 '걸어서 홀로여행'에 나서서 6년 간 전 세계 65여 개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맨몸으로 겪은 다양한 지구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남부 아시아에 깊숙이 빠졌다가 북미 끝 알래스카에서 남미 끝 칠레까지 여행하고, 동아프리카와 중동,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살살이 누비는 등, 가능하면 비행기를 타지 않고, 현지인과 똑같이 생활하며 현지 문화를 체험한다는 원칙 아래 '진짜백이 여행'을 다녀온 생생한 기록이 강한 여운을 남긴다.

여행에서 얻은 가장 큰 수확은 자신과 자신의 갈 길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저자와 함께 여행을 떠나 세계에 대한 견문과 시야를 넓혀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전 단원

하늘과 땅과 바람의 문명 1-2

**김지희 / 세종 서적 / 2002년 / 350쪽 / 13,000원**

KBS <세상은 넓다>의 명해설자 김지희 선생이 13년 간의 답사 끝에 내놓은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이다.

우리 문화와의 오랜 인연을 간직한 이란, 파키스탄, 실크로드, 중국... 잘못된 선입견과 오해로 가려져 있는 찬란한 진짜 얼굴을 만난다.

이 책을 통해 세계 속의 한국의 위상을 발견할 수 있으며, 세계문화와 한국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수 학

## ■ 1학년 1학기

### 1. 집합과 자연수

#### 부끄러워서 물을 수 없는 수학의 의문 64

니카다 노리오 저 / 자음과 모음 / 2001년 / 227쪽 / 8500원

중, 고등학교 수학의 내용 가운데 7개 영역에 걸쳐 64가지 의문을 정리한 안내서. 학생들의 의문, 기문, 진문, 우문, 자주받게 되는 질문 등을 설정하고 「복권 당첨의 꿈과 기대값 사이의 불가사의」, 「왜 시간과 각도를 측정할 때 60진법을 쓰는가?」 등 각 질문에 대해 강 박사를 선생님이로 뒤 질문과 그에 대한 답으로 이야기를 진행시키는 문답형식으로 구성했다.

### 1. 집합과 자연수 3) 집합의 연산

#### 수학공부 개념있게

고중숙 / 푸른나무 / 2000년 / 296쪽 / 10,000원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수학의 근본 원리가 무엇인지, 각각의 개념들이 수학 전체에서 혹은 우리의 논리적 사고에서 가지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기 쉬운 '수식'들의 개념에서부터 '수(數)'라는 것의 분류, 시간과 공간, 차원의 관계, 수학의 구조를 설명하며, 각각의 중요한 정의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수학은 따분한 과목 중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연관된 원리들을 알아 가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책에서 수학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수학의 원리를 이해함으로써 보다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자신의 사고력으로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책이다.

### 1. 집합과 자연수 5) 공약수, 공배수

#### 수의 비밀

앙드레 주에트(김보현) / 이지북 / 2001년 / 336쪽 / 12,000원

보통 수학하면 복잡한 계산이나 읽기조차 어려운 수식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그것은 수학의 일면에 지나지 않는다. 수학은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면의 세계를 보여주는 도구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좀처럼 경험하기 힘든 수의 또 다른 세계로 우리를 안내한다.

이 책은 재미와 실용을 한꺼번에 추구한다. 통계학, 천문학, 측량과 힘, 속도와 무게, 시간 계산, 백분율과 이율 등은 일상적 삶을 사는 모든 이들에게 실용적인 부분이다. 그런가 하면 아주 큰 수들 속에서 여행하기, 복권, 마권 등 모든 운과 우연의 게임에서 당첨될 확률 평가하기, 게임, 수수께끼 등이 다양하게 펼쳐져 있다. 이 책을 읽으려면 기본적인 계산 능력이 필요하다. 중간중간 지루함을 달래고 머리를 회전시키기 위한 재미있는 수학 문제가 실려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문제와 숫자놀이를 적절히 곁들여 쉽고 재미있게 수의 세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1. 집합과 자연수  
6) 십진법, 이진법

0의 발견-수학은 어떻게 문명을 지배했는가

요시다 요이지(정구영) / 사이언스북스 / 2002년 / 186쪽 / 9,000원

<0의 발견>은 1939년 처음 일본에서 출간된 이래 현재까지 널리 읽히고 있는 수학대중서의 원조 같은 책이다. 이 책의 2가지 주제는 0(영)이라는 숫자의 '발견'과 연속성 문제 및 0이라는 숫자의 도입이 현대수학을 얼마나 발전시켰는가 하는 데 있다.

이 책은 우리 생활 속에서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그냥 지나치기 일쑤인 숫자 0에 담긴 수학적·인류문화사적 의미를 파헤치며 0이 유입되기 이전에는 필산 기능을 갖추지 못한 유렵인들의 계산법과 그들의 기록, 0~9까지 10개의 숫자로 모든 자연수를 표기하는 '자리잡기 기수법'이 인도에서 태어난 과정, 위대한 문명을 건설한 그리스인들이 숫자 0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도 추적한다.

미술사들이 만들어 낸 수학

모리 조요시(한은미) / 이지북 / 2001년 / 200쪽 / 8,500원

이 책은 일본 NHK 교육방송의 <인간대학>에서 '수학, 문화, 인생'이라는 주제로 한 방송강좌의 내용을 엮은 것이다. 이 책에서는 흥미로운 수학의 역사를 소개하며 그 속에서 인류의 문화와 삶의 단면을 끄집어낸다.

수학을 공부하면서도 얼마든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음을, 수학이 결코 우리 삶에 쓸모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책은 머리를 좋아지게 만들어 주거나 천재를 꿈꾸는 이들을 위한 수학책이 아니다.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밀도 있게 '수학을 배경으로 하는 인간 풍경'을 그린 책이며 수학을 공부하면서 얼마든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체험하게 함으로써 수학이 결코 우리의 인생에 쓸모 없는 것이라는 선입견을 벗게 해줄 만한 흥미로운 책이다.

수학문화사

안재규 / 일월서각 / 2000년 / 350쪽 / 12,000원

이 책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순수 과학이며, 모든 학문의 기초인 수학의 발생, 발전 과정을 통해 수학이 인류의 모든 지적활동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밝히는 수학역사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원시시대 수학의 시초부터 로마제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수학이라는 학문이 그 시대의 세계관과 경제, 문화,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수학이 인류의 진보에 어떻게 힘을 실어 주었는가를 진단함으로써 수학에 대한 우리의 고정된 편견을 깨뜨리는데 도움을 준다.

언뜻 생각하기엔 현실세계와 동떨어진 학문으로 분류되었던 수학의 세계를 역사와 문화의 흐름에서 풀어낸다.

수학은 아름다워 1-2

육인선 외 / 동녘 / 2002년 / 218쪽 / 7,700원

현직 수학교사가 교단에서의 경험을 살려 쓴 알기 쉬운 수학이야기를 두 권의 책에 나누어 담았다. 수학이 의외로 쉽고 재미있으며, 논리적인 사고를 발달시켜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매력 있고 유익한 공부임을 인식시키고 이에 대한 흥미와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책이다.

제1권은 수학을 통해 논리적인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꾸며진 수학 교양서이며 제2권은 집합이야기, 항등원과 역원의 세계, 변환의 미술, 통계와 진실의 네 부분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생활 주변의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자연스럽게 수학의 중요한 개념과 원리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각 단원에 관계된 수학자의 일생, 일화 등 흥미로운 읽을거리와 100여 점의 재치 있는 삽화가 책의 재미를 더한다.

수학의 발견

정한영 저 / 한국수학영재연구소 / 2001 / 240쪽 / 8,500원

수학을 공부하면서 '답답했던 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바꾸어 주는 책이다. 많은 사람들이 수학을 공부하여 얻은 지식을 실생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못한 것은 수학을 이해하기보다는 단순 암기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저자가 25년 동안 현장에서 학생들과 호흡하면서 독창적으로 발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 수와 신비주의

**존 킹(김량국) / 열린책들 / 2001년 / 384쪽 / 12,000원**

수에 초월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숫자를 인격화 또는 물화시킨 것을 수비학(數秘學)이라고 하는데 저자인 존 킹은 수비학의 배경부터 차근차근 설명하며, 영터리 수비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안내한다.

이 책이 의도하는 방향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수의 아름다움과 수가 가진 시(詩)적 정취를 독자들이 음미하게끔 하는 것이다. 둘째는 고대 문화가 수에 내재한 마술적인 힘을 사용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대적인 수학 개념을 수비학에 적용하여 독자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실용 수비학을 시도해 보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연적이면서도 필연적인 수의 신비를 보다 멋지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 0을 알면 수학이 보인다.

**찰스 사이프 저 / 나노미디어 / 2000년 / 256쪽 / 8000원**

고대 시대의 0의 탄생에서부터 동양에서의 성장, 유럽에서 받아들여지기 위한 투쟁, 서양에서의 그 전성기 그리고 0의 현대 문화에 대한 끊임없는 위협 등을 다루었다. 아울러 0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애써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0'은 고대 바빌론에서 처음 출현, 동양에서는 위력을 발휘했지만, 서양에서는 사상적·신앙적 편견에 의해 오랜 세월을 배척받았다.

## 수학기호 다시보기

**박교식 / 수학사랑 / 2000 / 146쪽 / 7000원**

수학에서는 많은 기호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학적 기호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나름대로 그 발전의 역사와 배경을 가지고 있다. 이 책에서는 특별히 초·중·고등학교 수학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학교 수학 기호의 배경을 다루고 있다. 누가, 언제,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 그러한 수학 기호를 만들게 되었는지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아하! 바로 그거야.

**마틴가드너 지음 / 이 중 호 옮김 / 1990년 / 277쪽 / 4,000원**

아하! 직관은 생각을 빨리 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생각이 느린 사람도 생각을 빨리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문제를 푸는 데 즐거움을 느낄 수 있으며, 더군다나 전혀 예상 밖의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데 더 뛰어난 재질을 보일 수도 있다. 이 책은 유머감각이 있고, 퍼즐을 이해할 수 있는 독자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책이다.

## 0의 발견

**요시다 요이치 / 청구영역 / 사이언스북스 / 2002 / 186쪽 / 9000원**

이 책은 5세기경 어떤 인도인의 획기적인 착상에서 출발한 0이 우여곡절 끝에 유럽인들의 손에 들어가 수학을 고도로 발전시키게 된 역사적 과정을 추적한다.

## 웃다가 꿀꺽 삼킨 수학

**이철영 역음 / 세손교육 / 2000 / 198쪽 / 7,000원**

이 책은 경직되고 수동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수학을 흥미롭고 능동적인 학문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만들어졌다. 좀더 쉽게, 좀더 편안하게 수학에 접근하도록 꾸며져 있다. 수학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와 일화들을 중심으로 했다는 점에서 이 책은 분명 기존의 학습서 성격의 수학 서적과는 다르다.

## 2. 수와 연산

### 수학의 비밀

코지마 히로유키 저 / 정술 / 2002 / 160쪽 / 8,500원

이 책은 수학이라면 반드시 정해진 공식이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공식에 대입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또 공식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쉽게 풀 수 있다는 것을 동화로 알려준다.

### Wow! 수학퍼즐

니카무라 키사쿠 저 / 바다출판사 / 2002년 / 208쪽 / 6,000원

수학이 더 이상 딱딱하고 지루하지 않다는 것을 퍼즐 형식의 재미있는 문제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재미있는 수학퍼즐을 통해 창의성과 논리적 사고력이 강해지도록 돕고 있다.

### 원리를 알면 수학이 쉽다

송은영 저 / 맑은창 / 2002 / 252쪽 / 8,000원

수학의 전 분야에 걸쳐서 골라 뽑은 내용을 좀더 친근히 접할 수 있도록, 내용과 연결될 수 있는 <이야기>로 앞머리를 끝나갔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고하기>에서는 <이야기>에서 배워야 할 수학적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탐구하기>에서는 <이야기>와 <사고하기>에서 익히고 배운 수학적 지식을 근거로 해서 만든 실천적 문제를 해설과 함께 자세히 실었다.

### 파이의 역사

버트런드 러셀 저 / 경문사 / 2002년 / 262쪽 / 15,000원

경문수학산책 시리즈 17.  $\pi$ 를, 그리고 이 수에 대해 계산하고, 기억하고, 철학적 설명을 하고, 해설을 한 역사상의 사람들의 정신을 알려주고, 각 시대의 가장 위대한 수학자들이 수학의 매력에 관한 역사적 기록 속에서 흔들림 없는 위치를 차지하게 된 이 수에 대한 지식과 매력에 대한 탐험을 담았다.

### 신비로운 수의 역사

조르쥬 이프라 / 김병옥 역 / 예마 / 20002 / 375쪽 / 10000원

세계적인 수학자 조르쥬 이프라가 쓴 '신비로운 수의 역사'는 고대 원시사회에서부터 현대까지 발명되고 발전된 수의 역사를 면밀히 고찰한 고고학적 탐구서이다.

### 벽을 넘는 지혜

니카다 노리오 저 / 풍 / 2002 / 244쪽 / 9,500원

이 책에서는 '수학의 벽'을 넘는 12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 12가지 방법은 각각 <도입-수학의 예-수학적 사고>라는 3단계를 거쳐서 수학의 벽을 뛰어 넘는데 폭넓고 다양한 예를 통해 해결법을 제시한다.

### 우표 속의 수학

로빈 윌슨 저 / 출판사 한승 / 2002년 / 126쪽 / 15,000원

화려한 색채를 뽐내는 우표를 통해 들여다보는 흥미진진한 수학 세상! 우표에는 다양한 소재가 등장한다. 그런 소재 중에 수학을 다룬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것을 다룬 책이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수학의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로빈 윌슨은 자칫 지루함에 빠지기 쉬운 '수학 이야기'를 '우표'라는 친근한 소재를 통해 풀어낸다.

2. 수와 연산  
2) 정수, 유리수

수학의 토픽스

김용국 지음 / 전파과학사 / 1988년 / 189쪽 / 1,800원

수학은 “과학의 여왕”이라고 한다. 수학은 자연이나 사회현상 어디에나 숨어 있고 모든 과학의 내용은 수학으로 정확히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책은 수학의 참 맛 을 보여주고 수학 속에 담겨진 풍부한 아름다움과 인간성을 체험시켜 줌으로써, 여러분으로 하여금 수학을 친근하게 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내용은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 졌다.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수학을 배우자

나카타 노리오 저 / 김미옥 역 / 이지북 / 2001년 / 232쪽 / 8500원

수학 교과서에서 배운 것들이 일상생활에 쓰이는 일은 거의 없다. 수학이라는 것은 쓸모 없고 딱딱하기만 한 것일까? 그리니치 천문대를 찾아다니며 그곳에 얽힌 수학의 역사와 수학자의 업적, 수학 문제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아울러 그것들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이야기 하며 수학의 재미를 느끼게 해준다.

2. 수와 연산  
8) 복잡한 계산

세상 밖으로 날아간 수학

이시하라 키요타카(홍유선) / 맑은소리 / 1999년 / 190쪽 / 6,000원

어렵고 딱딱한 수학을 아주 친근하면서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꾸며 수학을 싫어하는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심어 주는 책이다.

이 책에 나오는 다섯 가지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 ‘수’와 ‘계산’을 발견하는 데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하고 생각해 본 ‘상상의 이야기’들로 구성된다. 계속 나오는 위험과 난문들은 주인공 공과 함께 모험에 폭 빠져 있는 사이 가볍게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이 책은 아이들에게 산수를 쉽게 가르치자는 저자의 생각이 잘 드러나 있다. 저자는 하루 빨리 패스트푸드 방식 같은 현행의 교육제도에서 탈피하여 아이들이 좀더 즐거워하며 수업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산수나 수학을 무조건 피하거나 싫어하는 어린이들에게 권할 만한 책이다.

3. 일차방정식

구장산술

유휘 저 / 서해문집 / 1998 / 222쪽 / 6,500원

현재 남아 있는 중국의 고대 수학서 중에서 가장 큰 책, 동양 최고의 수학 고전인 중국의 <구장산술>을 완벽히 엮은 책이다. 천년 전에 이미 동양에서는 피타고라스 정리나 방정식, 원주율 등을 발견해 놓고 있었으며 중국 후한시대에 수학자 유휘에 의해 모습이 갖춰졌다. 합리성이니 실용성이니 하는 말이 동양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볼 일이다.

또 웃기는 수학이지 뭐야!

이광연 저 / 경문사 / 2002년 / 270쪽 / 8,000원

한서대 수학과 이광연 교수의 이 책은 [웃기는 수학이지 뭐야!]의 후속편이다. 수학을 전공하지 않았으나 수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 또 수학을 전공한 사람 모두에게 수학에 좀 더 쉽게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참고서이다.

만리장성에서 수학을 배우자

나카타 노리오 저 / 우제열 역 / 이지북 / 2001년 / 198쪽 / 8500원

방정식과 마방진의 나라, 중국의 수학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만리장성과 자금성을 세울 때 쓰인 양의 단위, 기하 모양과 중국의 명물 서커스에 활용된 곡선과 직선, 도형의 직관 등 5천 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 수학을 흥미롭게 소개했다.

### 3. 일차방정식

#### 디즈니랜드에서 수학을 배우자

니카다 노리오 저 / 김미옥 역 / 이지북 / 2001년 / 216쪽 / 8500원

미국의 명승지를 여행하면서 수학적인 사고 방식과 처리 방식 및 수법들을 일상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 내용들을 담아 엮었다. 디즈니랜드를 다니며 그 곳에 얽힌 수학의 역사와 수학자의 업적과 수학 문제를 설명했고 우리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수록했다.

#### 수의 장남감상자

다미노 가즈오 지음 / 한명수 옮김 / 1988년 / 238쪽 / 1,800원

“수학은 싫다”, “수학은 질색이다”라는 사람도 잠깐 이 책을 들여다 보라. 0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와 가·감·승·제의 4칙 연산만을 써서, 매혹과 흥분에 찬 “수”의 세계로 안내한다. 정수, 분수, 소수와 사칙계산만을 사용하여 수가 갖는 불가사의한 세계로 이끌어 간다. 즐기면서 읽는 동안에 어느 틈엔가 수학의 재미가 몸에 밴다.

### 3. 일차방정식 일차방정식과 이차방정식

#### 수학 싫어하는 사람을 위한 수학

고무로 나오키(안소현 외) / 오늘익책 / 2002년 / 318쪽 / 11,000원

이 책은 수학이 탄생한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근대 자본주의 경제로 발전하기까지의 과정을 수학뿐만 아니라 경제, 법, 정치, 자연과학과 인문사회과학의 여러 분야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저자 고무로 나오키는 평소 우리가 수학에 대해 갖고 있는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수학적 논리가 의외로 간단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수학을 골치 아픈 것으로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수학 속에 숨겨진 진정한 재미를 알게 해준다.

수학은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발전해오면서 정치, 사회,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인류의 경제 생활은 수학이 근본 원리로, 수학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물론 여러 가지 모순된 현상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 3. 식의계산

#### 니가 수학을 못하는 진짜 이유(오른쪽 수학의 비밀)

임 익 / 이지북 / 2002 / 200쪽 / 8500원

수학에 대한 모든 고정관념들을 송두리째 깨버리는 수학교양서로 “수학의 가장 큰 적은 수학을 재미없는 것으로 규정짓는 편견”. 저자 임익씨는 “수학은 대학을 가기 위한 과목이기 전에 재미있는 놀이”라고 주장한다. 수학 도사가 되는 이런 저런 ‘노하우’들을 풀어놓았다.

### 3. 일차방정식 1) 문자의 사용

#### 0-기호의 매춘부

미셀 샤펀 재피 저/ 박수현 역 / 이 소 / 2002년 / 247쪽 / 15000원

책에서 말하는 0은 무엇인가? 이 책은 티치아노의 <다나에>에서 시작하여 동전과 수판, 회계를 다루고, 인쇄된 책과 그 속에 담긴 암호, 작가의 권위 그리고 다시 <자포코 스트라디의 초상화>로 돌아오는, 마치 0과 같은 궤도를 따라 전개된다.

또한 이 책을 통해 르네상스 시대의 흥미로운 발자취 속에서 르네상스 시대의 매춘부 그리고 무의 상관 관계를 이해하고 그 관계가 현재에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변화 속에 들어 있음을 알게된다.

#### 4.5정의 수학나라

방승희 저 / 동녘 / 1999 / 304쪽 / 7,700원

이 책은 수학의 기초원리를 익히는 데 가장 중요한 시기인 초등학교 5학년부부터 중학교 2학년 까지 학생들에게 수학의 세계를 수학답게, 재미있게, 친절하게 소개하는 충실한 안내서이다.

숫자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 우리가 수학을 배우며 궁금해 했던 여러가지 의문점들, 수학사의 미스터리, 달력과 10진 12진 등 생활속의 수 이야기, 위대한 수학자들을 둘러싼 재미있는 일화들을 다루고 있다.

### 3. 일차방정식 3) 일차식의 계산

#### 머리가 좋아지는 수학퍼즐

아이자와 이키라 저 / 박화 역 / 홍 출판사 / 2002년 / 210쪽 / 10000원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이유는 간단하다. 오로지 계산하는 훈련만을 받아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 실린 문제는 주로 친구끼리 둘러앉아 수수께끼 같이 한번쯤은 풀어봄직한 퍼즐들이다. 이 책은 일상생활 및 실전에서 사고력, 집중력과 두뇌개발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 3. 일차방정식 4) 등식의 성질

#### 축구공 위의 수학자

강성진 저 / 문학동네 / 2002년 / 358쪽 / 8,800원

'축구공 위의 수학자'는 그가 자신의 또 다른 '전공'인 스포츠 세계에서 일어난 일화들을 모은 책이다. 승패에 따라 웃고 울었던 주요 경기의 장면들을 되살리다가 하면 선수와 경기를 둘러싼 비화도 소개하고 있다.

### 4. 함수와 그래프

#### 수학소프트 1

구본다 순토 지음/ 박영훈 감수 / 1994년 / 182쪽 / 5,000원

수학하면 무조건 어렵다고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 이 수학소프트에서는 실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미분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함수 부분에서 시작하여 미분까지 상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순간속도 대한 정의, 평균 변화율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많은 학생에게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 수학소프트 2

구본다 순토 지음/ 박영훈 감수 / 1994년 / 182쪽 / 5,000원

어려운 수학의 적분을 간단한 종이 및 일상적 실험으로 재미있게 증명하고 원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책에서는 고등학교에서 다루는 면적까지 확대함으로 적분을 완벽하게 이해하게 하였다. 기초가 없는 여러분에게 기본기와 응용력을 동시에 길러주어 쉽게 수학과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이다.

#### 중고생을 위한 마인드맵 수학

육인선 감수/ 한국부안센터 지음 / 사계절 / 1997년 / 192쪽 / 6,000원

마인드 맵은 수학을 쉽게 이해하고, 암기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이 책은 왜 우리는 수학을 공부해야 하고, 실제로 수학이 우리의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되며 응용되는가에서부터 시작된다. 또, 수학에 대한 우리의 편견은 어떠한 것인지를 점검하고, 수학과 두뇌와의 상관관계도 살펴볼 수 있다. 그 다음부터는 기본적인 마인드 맵 만들기과 수학을 어떻게 마인드 맵 하는가 하는 과정과 사례들을 제시한다.

### 4. 함수와 그래프 2) 함수의 뜻

#### 미술같은 수학

브라이언 볼트 저 / 조윤동 역 / 경문사 / 2002 / 346쪽 / 12000원

이 책에서 흥미 있는 수학의 세계, 미술같은 수학의 세계로 우리를 안내하고 있다. 퍼즐을 풀다보면 수학이 얼마나 즐겁고 신비한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우리 교과서에서 다루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퍼즐이 많이 실려 있다.

#### 수학은 내친구

브라이언 볼트 저 / 강동호역 / 푸른미디어 / 2001/ 262쪽 / 8500원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로 하여금 수학을 퍼즐로 즐기면서 수학이 가져다 주는 향기에 취하도록 북돋아 주고 격려할 목적으로 쓰여졌다. 문제들은 유형별로 묶여 있지만 정교하게 짜여 있어 독자들은 다양한 수학의 세계와 접할 수 있다.

## ▣ 1학년 2학기

### 1. 확률

#### 확률게임

**발터 크래머 저 / 권세훈 역 / 이지북 / 2002년 / 260쪽 / 97000원**

이 책은 통계와 확률로 인한 수많은 결론 및 잘못된 상식들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큰 수의 법칙에 대한 일반적인 오류, 카드와 주사위 게임의 기묘한 논리, 조건부 확률에 내재되어 있는 오류, 표본조사에 의한 잘못된 결론 등 확률과 관련하여 범하기 쉬운 오류들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다양하게 소개된다.

#### 확률의 함정

**데보라 J.베넷 저 / 박병철 역 / 영림카디널 / 2000년 / 240쪽 / 7000원**

병원에서 질병 감염 여부를 검사할 때나 법적 증거로 DNA 유전자를 감식할 때, 거기에는 항상 '확률'적 요인이 숨어있다. 이 책은 오랜 세월을 걸친 확률의 기이함과 어려움을 극복해 온 인류의 역사와 확률의 개념이 담겼다. 즉, 확률의 이해를 돕기 위해 씌어진 안내서이다.

#### 읽기만 해도 술술 풀리는 확률의 세계

**마이클 올린 저 / 김량국 역 / 해비라기 / 2002년 / 248쪽 / 12000원**

왜 우연의 법칙을 이용하면 이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유형들에 대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지, 또한 놀라운 우연의 일치를 어떻게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한 책이다.

#### 신기한 확률 재미난 인생

**다니카 요시아쓰 저 / 서예영 역 / 한숲 / 2002년 / 210쪽 / 8000원**

이 책에서는 확률의 공간 속에서는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좁고 사람들은 서로 모르면서도 가깝게 관련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1. 확률

#### 1) 경우의 수

#### 수학아 뭐 하니

**브라이언 볼트 저 / 장석봉역 / 푸른미디어 / 2002 / 208쪽 / 8000원**

책의 앞쪽에는 간단한 대수와 기하 문제 등 비교적 쉬운 문제를, 책의 뒤쪽에는 좀더 생각해 야 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배치하여 단계적으로 난이도를 조절하였다. 또한 문제들은 유형별로 묶여 있지만 정교하게 짜여 있어 독자들은 다양한 수학의 세계와 접할 수 있다.

### 2. 도형의 기초

#### 꼬마 수학자들의 축제 1-2

**필립 블랑제(김희숙) / 맑은소리 / 2001년 / 194쪽 / 7,500원**

프랑스의 어느 학교의 교실을 엿보며 배워 가는 수학의 원리들. 두 권에 걸쳐 직선에서 시작 하여 분수, 면적, 둘레, 부피, 함수, 약수 등의 수학 개념을 설명한다. 그러나 수식으로 이루어진 딱딱한 설명이 아니라 주인공 엘레오노르와 나타샤 선생님, 친구 마린, 크리스토프, 브노아 등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때로는 장난도 치며 배워 나가는 과정을 따라가며 풀어 나간다.

아이들의 이야기인 만큼 때로 실수도 하고, 때로 서로를 가르쳐 주기도 하며 하나씩 배워 나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 수학책이라는 부담감이 덜하다. 각 단원의 끝에는 연습문제가 실려 있고, 책의 뒷부분에 연습문제 해답을 첨부해 두었다.

## □ 1학년 공통

### 전 과정

#### 수학공부 절대로 많이 하지 마라

한장수 / 사회평론 / 2000년 / 240쪽 / 6,800원

이 책은 수학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반드시 수학 실력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오히려 수학 공부를 할수록 수학이 어려워지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 책은 '수학에는 왕도가 없다'는 기존의 관념을 깨고 효율적인 수학 공부의 노하우를 제시하고 있다. 저자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수학 공부를 많이 하고도 성적을 올리지 못한 학생들을 다년간 보아 왔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딱 맞는 수학 공부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은 매우 구체적이면서도 각기 다른 수준의 학생들을 위해 배려하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절로 고개를 끄덕이게 만든다.

#### 수학 유전자

케이스 데블린(전대호) / 까치 / 2002년 / 354쪽 / 10,800원

이 책은 인간 정신의 천성적인 수학적 능력을 설명하는 의미심장한 책으로서 수학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까지도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몽롱하게 느꼈던 수학적 사고란 무엇인가를 규명하고 수학적 재능의 진화 과정을 추적하며 이를 풍부한 사례를 통해 쉽고 흥미롭게 전개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인간의 수학적 능력과 그 원천에 대해 놀랄 만큼 담대하고 발랄한 주장을 펴고 있으며 그토록 많은 인간을 주눅들게 하고 공포로 몰아넣었던 수학을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진화과정을 통해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밝히기 위해 뇌의 진화, 언어학, 수학, 인류학 등을 자유자재로 넘나든다.

#### 수학먹는 달팽이

이르망 에르스콧미비지(문성영) / 까치 / 2000년 / 352쪽 / 12,000원

이 책은 자연과 생활 속에 숨겨진 여러 수학 법칙들을 재미있는 콩트의 형태를 빌어 엮은 책이다. 1003일째 사라자드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이 책은 조물주의 고백, 테세우스와 미노타우로스의 감추어진 진짜 이야기, 황하 강가의 늙은 거북 선생과 어린 거북들의 수업 등 8편의 단편들이 이어져 있다.

이 책은 수학에 대한 단순한 소개서가 아니라 수학적 개념의 발전, 인류 사상의 발전에 미친 역사적 사실을 함께 소개하는 교양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러 수학적 개념들이 출연하게 된 역사적 이유와 함께 철학적 의미까지 파고드는 깊이를 보이며 일반인들이 가지는 수학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없애 주려 노력하고 있다.

이 책은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개념들을 머릿속에 쉽게 자리잡게 해주고 있다.

#### 디즈니랜드에서 수학을 배우자(수학의 도레미 1)

나카타 노리오(김미옥) / 이지북 / 2001년 / 216쪽 / 8,500원

30여 년 동안 중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던 지은이가 디즈니랜드를 구경하며 그에 얽힌 수학의 역사와 수학자의 업적, 수학 문제 등을 쓴 일종의 여행기 같은 수학책. 중학생, 고등학생인 남매가 수학자인 아버지의 여행기를 들으며 질문도 하고 또 아버지가 내는 문제를 풀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수학을 배워 나간다.

이 책을 통해 디즈니랜드를 설립할 때 쓰였던 수학적인 검증과 통계, 시월드의 동물들에게서 배우는 조합, 그리고 라스베이거스의 룰렛과 트럼프에서 배우는 확률 등 미국의 명소 곳곳에서 수학을 만날 수 있다.

동양과 서양,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수학을 총망라하고 있는 이 책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용되었지만 일반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수학의 쓰임에 대해 흥미롭게 풀어 간다. 수학의 체계보다는 수학이 형성되는 과정을 중시하여 수학적 사고 방식을 저절로 얻을 수 있게 한 것이다.



## 만리장성에서 수학을 배우자(수학의 도레미 2)

나카타 노리오(우제열) / 이지복 / 2001년 / 198쪽 / 8,500원

30여 년 동안 중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던 지은이가 디즈니랜드를 구경하며 그에 얽힌 수학의 역사와 수학자의 업적, 수학 문제 등을 쓴 일종의 여행기 같은 수학책. 중학생, 고등학생인 남매가 수학자인 아버지의 여행기를 들으며 질문도 하고 또 아버지가 내는 문제를 풀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수학을 배워 나간다.

이 책에서는 만리장성과 자금성을 세울 때 쓰인 양의 단위, 기하 모양과 중국의 명물 서커스에 활용된 곡선과 직선, 도형의 직관 등 5천년의 역사를 가진 중국수학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동양과 서양,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수학을 총망라하고 있는 이 책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용되었지만 일반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수학의 쓰임에 대해 흥미롭게 풀어 간다.

또한 이책에서는 수학의 체계보다는 수학이 형성되는 과정을 중시하여 수학적 사고 방식을 저절로 얻을 수 있게 한 것이다.

## 피라미드에서 수학을 배우자(수학의 도레미 3)

나카타 노리오(황소연) / 이지복 / 2001년 / 214쪽 / 8,500원

30여 년 동안 중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던 지은이가 디즈니랜드를 구경하며 그에 얽힌 수학의 역사와 수학자의 업적, 수학 문제 등을 쓴 일종의 여행기 같은 수학책. 중학생, 고등학생인 남매가 수학자인 아버지의 여행기를 들으며 질문도 하고 또 아버지가 내는 문제를 풀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수학을 배워 나간다.

이 책에서는 피라미드의 수수께끼에 한 뿔을 한 넓이와 부피의 계산, 원주율과 이집트의 고도의 측량술, 파르테논 신전의 돌에 사용된 피타고라스 정리의 탄생 등을 통해 기하학의 역사를 거슬러 가 본다. 동양과 서양,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수학을 총망라하고 있는 이 책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용되었지만 일반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수학의 쓰임에 대해 흥미롭게 풀어 간다.

이 책은 수학의 체계보다는 수학이 형성되는 과정을 중시하여 수학적 사고 방식을 저절로 얻을 수 있게 한 것이다.

## 피사의 사탑에서 수학을 배우자(수학의 도레미 4)

나카타 노리오(최현숙) / 이지복 / 2001년 / 214쪽 / 8,500원

30여 년 동안 중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던 지은이가 디즈니랜드를 구경하며 그에 얽힌 수학의 역사와 수학자의 업적, 수학 문제 등을 쓴 일종의 여행기 같은 수학책. 중학생, 고등학생인 남매가 수학자인 아버지의 여행기를 들으며 질문도 하고 또 아버지가 내는 문제를 풀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수학을 배워 나간다.

십자군 원정시대와 르네상스, 지리상의 발견 시대의 상업 교역으로 인해 북부이탈리아에서는 여러 가지 계산법이 발생했는데 이 책에서는 제노바, 볼로냐, 베네치아 등을 여행하며 계산법들의 발달사를 알아본다. 동양과 서양,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수학을 총망라하고 있는 이 책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용되었지만 일반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수학의 쓰임에 대해 흥미롭게 풀어 간다.

수학의 체계보다는 수학이 형성되는 과정을 중시하여 수학적 사고 방식을 저절로 얻을 수 있게 한 것이다.

## 수학의 스캔들

테오니 파파스(고석구 외) / 일궁일궁일 / 1999년 / 166쪽 / 6,000원

이 책은 '왜 수학에는 노벨상이 없는가?', '최초의 여성 수학자는 왜 살해됐을까?' 등의 수학과 관련한 수많은 질문들을 역사적 사실에 입각하여 재미있게 다루고 있어 읽기 편하다.

또 과학자들로서의 초연함으로 유명한 수학자들의 경쟁심, 속임수와 기행을 이야기함으로써 그들의 인간적인 모습도 함께 보여준다. 즉 '수학'을 학문으로서가 아니라 생활로서 느끼게 하는 책이다. 딱딱한 공식의 나열에서 벗어나 수학자들의 삶과 그 속에 숨겨진 코미디 같은 사건들까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수학'에서 인간적인 냄새를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 이야기로 떠나는 수학여행

**프리드리히 빌레(김이섭) / 이지북 / 2002년 / 196쪽 / 8,000원**

‘칸토르 주’라는 가상의 주에서 펼쳐지는 주인공들의 여행을 통해 수학의 다양하고 놀라운 재미들을 맛볼 수 있게 구성된 특이한 형식의 수학 이야기이다.

기차의 궤도를 통해 기하학을 설명하고, 호텔 방에 투숙하는 방법을 통해 수열을 설명하는 식이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제가 던져지고, 그것을 수학으로 풀어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구구절절 수학의 적용 방식을 설명하기보다는, 책 속에서는 문제체기로 만족하고, 나머지 수학적 정리는 주석으로 돌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 책을 읽는 동안은 가우똥하다가도 주석에서 제공되는 수학적 해답을 읽고는 뒤늦게 탄복하게 된다.

## 카이스트 천재들의 수학공식 7가지

**양승현 / 맑은소리 / 2002년 / 233쪽 / 10,000원**

이미 출간되어 있는 수학 참고서 및 수학 지침서 형식을 벗어나 딱딱한 문제풀이와 방법론 제시가 아닌, 새로운 수학 공부 방법이 딱! 7가지 형식으로 정리되어 나왔다.

카이스트 학생들만의 수학문제풀이 비밀 노하우를 7가지로 정리해 알려주고 있는 이 책은 이제부터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 재미없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줄 것이다. 즉, 이제부터 모든 수학문제는 책에서 제시하는 7가지 공식에 대입하면 모두 풀 수 있게 된다.

카이스트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2명의 지인이 말하는 ‘수학 문제풀이를 잘 할 수 있는 7가지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어 흥미를 갖게 만든다.

## 포켓 속의 수학

**알브레히트 보이텔슈파허(유영미) / 이글리오 / 2002년 / 112쪽 / 5,500원**

<스파게티에서 발견한 수학의 세계>라는 독특한 수학 여행기를 썼던 수학자가 이번에는 라디오 멘트처럼 가볍게 하나하나 해치울 수 있는 ‘3분 짜리 수학이야기’들을 묶었다.

수학을 재미있게 설명하기로 이름난 저자가 51가지 짤막한 이야기로 수학에 흥미와 호기심을 불어넣는 이 책은 교과서에서 만난 딱딱한 암기 과목이 아닌 실생활에서 궁금했던 재미있는 수학, 호기심을 풀어 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원리를 스스로 깨칠 수 있게 해준다.

‘별집은 왜 육각형일까?’하는 일상생활의 수학 이야기들, ‘페르마는 정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했을까?’ 하는 수학사 속의 재미난 에피소드들, ‘원과 면적이 똑같은 사각형이 있을까?’ 하는 호기심을 풀며 수학을 배우게 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 풀다보면 저절로 머리가 좋아지는 Wow! 수학퍼즐

**중준익작 / 바다 / 2002년 / 206쪽 / 6,000원**

퍼즐 형식의 문제를 통해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는 책으로서 수학이 더 이상 딱딱하고 지루하지 않다는 것을 퍼즐 형식의 재미있는 문제들을 통해 보여준다. 더불어 재미있는 수학퍼즐을 통해 창의성과 논리적 사고력이 강해지도록 돕고 있으며 수학 퍼즐의 고전만을 모아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 준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 수준의 문제까지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가 실려 있으며 모두 3장으로 나뉘어 95가지 수학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다. 1장은 수학에 재미와 흥미를 가지게 하는 넉센스류의 퍼즐이, 2장과 3장은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 주는 본격적인 수학 퍼즐이 실려 있고, 난이도 역시 조금 높다.

‘일단 재미만 붙이면 흥미롭고 유용한 과목인 수학을 아이들이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더불어 아이들이 수학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책은 그런 고민을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수학사 가볍게 읽기

**샌더슨 스미스 저 (황선옥 역) / 한승 / 2002 / 254쪽 / 15,000원**

이 책을 읽다보면 우리의 일상생활과 역사에 있어 수학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가에 새삼 놀라게 될 것이다. 개괄적인 수학의 역사에 대한 인식을 넓히고 싶은 독자라면 한번쯤 읽어볼 만한 책이다. 각 시대의 사회, 문화, 종교, 과학적 배경과 관련하여 수학사를 이해할 수 있어서 수학의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 프랑스 수학자 갈루아

**툼 팻시니스 저 / 이글리오 / 2000 / 274쪽 / 8,500원**

현대 대수학을 창안한 프랑스 천재 수학자 갈루아의 파란 많은 일생을 소설로 담은 책이다. 프랑스 대혁명 직후 혼란기에 열정적인 공화주의자로 활동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결투 도중 짧은 생애를 마감했던 갈루아. 역사와 개인, 혼돈과 질서 그리고 천재성과 자기 파괴의 열정 사이에서 고뇌하는 갈루아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았다.

## 프랑스 수학자 갈루아 2

**툼 팻시니스 / 이글리오 / 2000 / 276쪽 / 6800원**

현대 대수학을 창안한 프랑스 천재 수학자 갈루아의 파란 많은 일생을 소설로 담은 책. 프랑스 대혁명 직후 혼란기에 열정적인 공화주의자로 활동하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결투 도중 짧은 생애를 마감했던 갈루아. 역사와 개인, 혼돈과 질서 그리고 천재성과 자기 파괴의 열정 사이에서 고뇌하는 갈루아의 모습을 생생하게 담았다.

## 사라와 함께하면 수학이 즐겁다

**사라 플레너리 저 / 나노미디어 / 2000 / 320쪽 / 10,000원**

이 책은 수학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수학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수학적 기초가 있고 암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암호의 원리와 역사를 통찰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러한 유익함과 즐거움 외에도 성공과 실패, 그리고 수많은 유혹에 의연한 어린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닫게 하는 책이다.

## 수학을 만든 사람들

**E.T.벨 저 / 미래사 / 2002 / 360쪽 / 10,000원**

수학의 수준을 질적으로 향상시킨 위대한 대수학자들의 삶과 업적을 다룬 책. 봉건시대의 굴레를 벗어나 인간의 이성이 꽃 피기 시작한 근대시대부터, 현대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활약했던 학자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극심한 시대변화와 학문적 갈등에 대처했는지 소개한다.

## 생명을 살리는 수학

**배중수 저 / 김영사 / 2002 / 250쪽 / 8,900원**

수학을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고3까지 가는 비법을 소개하며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초4·중2·고1·고2 수학의 벽을 무사히 넘을 수 있는 수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여 수학 교육의 맛을 보여준다.

## 수학을 만든 사람들

**E.T.벨 저 / 미래사 / 2002 / 360쪽 / 10,000원**

수학의 수준을 질적으로 향상시킨 위대한 대수학자들의 삶과 업적을 다룬 책. 봉건시대의 굴레를 벗어나 인간의 이성이 꽃 피기 시작한 근대시대부터, 현대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활약했던 학자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극심한 시대변화와 학문적 갈등에 대처했는지 소개한다.

## 우리 수학자 모두는 약간 미친 겁니다.

**폴 호프만 저 / 승산 / 1999 / 374쪽 / 12,000원**

책의 주인공은 헝가리 출신 수학자 폴 에어디쉬(1913~1996). 일생 동안 세계 각국의 학자 485명과 함께 1475편의 공동논문을 작성한 그는 20세기 수학의 '신화'다. 수학을 '미치도록'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재미있게 읽힐 만한 수학자들의 이야기로 장래 수학자나 과학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은 이 책에서 '영감'을 얻을 수 있다.

## 수학악마

**하인리히 험페 저 / 안영란 역 / 푸른숲 / 2000 / 164쪽 / 15,000원**

수학은 흥미로운 게임이 될 수 있다. 이 책에 실린 문제는 중학교 이상의 교과과정만 마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흥미롭게 풀 수 있는 것들로, 경직되고 딱딱한 머리를 부드럽게 해주고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

## 수학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고다이라 구니히코 저 / 김성숙 외 역 / 경문사 / 1999년 / 300쪽 / 9000원**

수학교육의 허와 실을 파헤치고 미래의 수학교육 비전을 제시한 저술로, 일본 수학자가 수학의 세계를 소개하는 글들을 시작으로 일본의 수학교육의 현실, 수학이란 무엇일까 등 수학, 그리고 수학교육의 현실을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했다.

## 반갑다, 마인드 맵

**한국부잔 센터 지음 / 사계절 / 1998년 / 197쪽 / 7,800원**

토니부잔은 20여년 전 캐나다에서 대학 2학년 재학 중에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다가 마인드 맵을 창시하게 되었다. 그는 연구 끝에, 남에 못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실패하는 원인은 '자신의 재능과 사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배움'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는데도 불구하고 성과가 없는 것은 '배우는 방법을 배울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이란 것이다. 이 순간, 위에서 밝힌 현실적 고민에 빠져 있는 여러분에게 토니 부잔 이 고민 끝에 알게 된 '배움'의 방법을 '반갑다, 마인드 맵'을 통해 소개하고 있다.

## 소설처럼 아름다운 수학 이야기

**김정희 / 동아일보사 / 2002년 / 266쪽 / 9000원**

시간의 육십진법을 알아듣지 못해 선생님에게 뺨을 맞고 수학이라면 겁에 질려버린 작가 김정희씨의 수학 공포 극복기와 어떻게 수학을 친구로 받아들이게 됐는지를 자신의 경험담과 노하우를 소설가답게 알아듣기 쉽고 흥미진진하게 기술했다.

## 아름다운, 너무나 아름다운 수학

**K. C. 콜 저 / 경문사 / 1999 / 414 쪽 / 14,000원**

수학이란 수에 대한 학문이라기보다는 사고 방식에 대한 학문이라는 저자의 생각과 더불어 혼돈을 엄밀하게 탐색하고자 할 때에 수학이 왜 필요한지 몇몇 이유들을 설명했다. 아울러 물리 현상 자체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드는 몇 가지 장애물을 탐색하고 공정성과 같은 인간의 문제를 수학이 어떻게 조명하고 있는지를 담았다.

## 마술사들이 만들어 낸 수학

**모리 츠요시 저 / 한은미 역 / 이지북 / 2001년 / 200쪽 / 8500원**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 새로운 각도에서 수학을 익히는 방법과 수학적 사고방식, 수학과 문화와의 관계, 르네상스 시대 및 18세기 살롱 문화 속에서의 수학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했다.

## 수학용어 다시보기

**박교식 / 수학사랑 / 2001 / 264쪽 / 8000원**

중·고등학교에서 다루고 있는 수학 용어를 한자와 영어의 어원으로 분석, 해석하여 학생들이 수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설해 놓은 책으로 처음 수학을 배우거나, 수학을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에게 수학 용어 사전의 역할을 하여 튼튼한 수학의 기본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책이다. 사전식 배열로 찾기 쉬우며, 제7차 교육과정에 맞추어 해당 학년이 표시되어 있다.

### 수학이 쉬워지는 50가지 학습법

**육인선 지음 / 대교출판 / 1998년 / 202쪽 / 6,000원**

이 책은 수학을 잘 하고 싶지만, 어떻게 공부해야 좋을지 몰라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습법 50가지를 소개한다. 수학이 어려운 학생들, 열심히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던 학생들은 수학에 자신감이 생기고 눈에 보이는 학습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 나도 멋진 프로그래머가 될거야 - 수학

**다이안 린드시 리브즈 저 / 올파스 / 2002 / 180쪽 / 8,800원**

청소년을 위한 직업 가이드 시리즈의 제 7권으로 수학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들에 대한 본격 직업 가이드이다.

이 책은 6개월여 동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중앙고용정보원의 국내 최고의 직업 전문가 9명이 우리나라의 제반 직업 현황을 세밀하게 분석해서 내용을 수정하고 정보를 보강했기 때문에, 주니어들은 이 책에서 직업에 관한 생생하고 정확한 정보를 믿고 얻을 수 있다.

### 70일간의 수학 여행

**새터교육도서개발팀 편 저 / 새터 / 1995년 / 352쪽 / 7000원**

이 책은 수학을 싫어하고 수학 책이라면 거들떠보지도 않던 사람들로 하여금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수학의 세계를 접해나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 수학공부 절대로 많이 하지 마라

**한창수 저 / 사피평론 / 2000 / 240쪽 / 6,800원**

수학을 포기한 수준부터 수학 도사 수준까지 다양한 학생들을 대하면서 겪은 실패와 성공담을 통해 효과적인 수학 공부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다. 중, 고등학교의 수학은 고도의 수학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방법만 제대로 안다면 누구나 만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 그 제대로 된 방법과 함께 어떻게 자신의 수학 공부에 응용할 수 있는 지를 알려주는 책이다.

### 수학적 발견의 논리

**임레 라카토슈(우정호) / 아른케 / 2001년 / 322쪽 / 20,000원**

이 책은 오일러의 다면체 정리를 주제로 택하여 18세기부터 20세기초까지의 수학사를 역사 발생적으로 분석하면서 수학의 발생이 어떤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는가를 교사와 학생간의 대화형식으로 논의하고 있다.

여기서 제기되는 '역사 발생의 논리'에 따른 수학인식론은 기성의 유클리드적인 연역체계를 그대로 수학인식론으로 간주하는 입장에 대한 비판이다. 저자인 라카토슈는 수학은 증명과 반박의 논리에 의한 추측의 개선을 통해 발전하는 것이며, 따라서 비형식적인 수학적 지식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라카토슈가 수학의 논리적 구성을 무시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그가 보다 중요하게 확립하고자 하는 것은 기성 수학의 체계적인 연역적 접근과 발생 과정에 있는 수학의 발견적 접근의 조화이다.

### 어느 수학자의 변명

**고드프레이 해럴드 하디(김인수) / 사이언스북스 / 1995년 / 148쪽 / 5,500원**

작가는 이 책에서 유리처럼 투명한 이성으로 진정한 수학의 의미와 수학의 가치 등을 논하고 있다.

이 책을 읽어보면 작가의 학문에 대한 진지한 태도와 수학에 대한 깊은 애정, 학자로서의 겸손, 사물에 대한 예리한 분석을 발견할 수 있고, 섬세한 사색의 기쁨을 맛볼 수 있으며 아울러 학자의 삶과 궁지가 무엇인지 느낄 수 있다.

또한 이 책을 읽으면 수학이 아름다든지 수학은 예술이라든지 하는, 어떻게 들으면 수학자들만의 독선적 표현처럼 들리는 말이 누구에게나 가슴에 와 닿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비단 수학의 의미만이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도 반추하게 된다.

수학사

우리 수학자 모두는 약간 미친 겁니다

폴 호프만(신현웅) / 승산 / 1999년 / 374쪽 / 9,600원

이 책은 누구나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수론의 성과를 담은 데다 대단히 매력적인 폴 에어 디쉬의 인간적 풍모와 에피소드까지 곁들여 두려움 없이 접할 수 있는 대중 수학서로서 호프만은 이 책을 통해서 수학자들의 심리적 취약성과 특이성의 면면들을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인상적으로 제시된 주제는 순수 수학의 흥분, 열광, 통찰, 그리고 수학에 미친 한 인간의 아름다운 몰두에 관한 것이며 따라서 이 책을 다 읽고 난 다음 독자는 한참동안 그 주제의 여운을 느끼게 될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수학자들이 수학에 끌리게 되는 배경을 잘 설명하고 있어 장래에 수학자나 과학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은 이 책에서 많은 영감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교양

재미있는 수학여행(기하의 세계) (3)

김용운·김용국 지음 / 김영사 / 1993년 / 291쪽 / 4,300원

수에 대한 기초지식을 서술하고 10진법을 비롯해 여러 가지 기수법, 정수론, 배수와 약수의 성질, 페르마의 정리, 분수와 소수, 무리수에 이르기까지 수에 대한 지식을 소개한 교양수학서이다.

화성에서 온 수학자

브루스 웨히터 / 지호 / 1999 / 334쪽 / 10800원

폴 에르디시Paul Erdos(1913-1996)는 일정한 집도 직업도 없이 평생을 수학의 아름다움에 대한 신념만으로 살았다. 이 책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수학자의 한 사람인 그의 전기이자 현대 수학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이다.

유클리드의 창 - 기하학 이야기

레오나르도 블로디노 저 / 까치글방 / 2002년 / 317쪽 / 12000원

고대에서 초끈 이론에까지 이어진 기하학 발전의 역사를 흥미롭게 설명한 유익한 책으로 저자인 블로디노프는 그리스인의 평행성 개념에서부터 최근의 고차원 공간 개념에 이르는 기하학의 역사를 다섯 번의 기하학 혁명을 통하여 흥미롭고 훌륭하게 안내한다. 이 책은 누구라도 던질 수 있는 공간에 대한 간단한 질문들이 어떻게 감추어진 추진력으로 작용하여 과학과 기술의 드높은 성취를 이루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 ■ 2학년 1학기

### 이차방정식 인수분해

#### 니가 수학을 못하는 진짜 이유

임익 / 이지북 / 2002년 / 200쪽 / 8,500원

수학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책. 이 책은 계산 위주의 좌뇌 학습법에 우뇌 학습법이라는 새로운 학습법을 접목시킴으로써 수학이 유용하고 재미있는 공부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해준다.

이 책은 수학 영재를 가르치는 저자에게 수학을 못하는 한 학생(겜 : 게임을 좋아하는 이 학생을 저자는 그렇게 부른다)이 엄마의 손에 이끌려 찾아오는 것으로 시작된다. 간단한 테스트 결과 '겜'은 수학을 못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처럼 수학 알레르기 환자로 판명된다. 저자는 겜을 자극하여 점점 수학 속으로 끌어들이고, 마침내 겜은 수학 경시 대회에 입상하는 수학 고수로 탈바꿈하게 된다. 저자가 개발한 학습 비법을 전수 받은 결과였다. 책의 말미에는 부록으로 '수학 심리 검사를해보자'는 항목이 들어 있다.

### 이차방정식 이차방정식과 근의 공식

#### 수학의 유혹

강석진 / 문학동네 / 2002년 / 300쪽 / 9,500원

일상의 예를 통해서 수학의 쓸모를 깨우치게 하는 책으로서 63빌딩 높이 재는 법을 알기 위해 도형의 닮음을 가르쳐 주고, 중국집에 밥을 먹으러 간 친구들의 선택을 통해 함수와 대응을 알려주며, 대중상 시상식에서 발견한 수수께끼를 통해 방정식 세우기를 알려준다. 또한 유티가 섞인 재미있는 글 솜씨로 수학사에 등장했던 재미있는 수학문제들을 풀어 주며 중고생들이 배우고 있는 수학의 여러 분야를 실생활과 연결짓는 원리 설명 방식으로 수학을 재미있고 진지한 논리적 사고의 대상으로 만들어 주고 있다. 서울대 수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고등과학원 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저자는 이 책에서 '정통과 직업 수학자'답게 지나친 과격을 피하면서도 수학이 멋있는 이유를 영화 '다이하드 3'을 통해 설명해 나가는 등 흥미진진한 방식으로 수학의 세계를 안내한다.

## ■ 2학년 2학기

### 1. 통계

#### 수학공부 이렇게 하는거야

김바야시 (전재복 외) / 경문사 / 2001년 / 308쪽 / 8,000원

일본 수학교육협회의 창립 40주년 기념 기획으로 내놓은 책. 책 전체의 주제는 수학에 있어 '왜?'와 이것을 풀이하는 것이다. 이 책에 뽑힌 '왜'의 항목들은 수학교육협회의회에서 작성하고, 초중고 교사 및 대학 교수를 중심으로 그 해답을 의뢰해 모은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답 중 너무 어렵거나 전문적인 것은 해답을 낸 사람과 여러 번 토론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 보완하였다고 한다.

전체의 구성을 살펴보면, 수와 양(1, 2), 기하, 함수, 확률, 통계, 수학의 문법의 6장으로 되어 있고, 각 장마다 '왜'에 해당하는 주제들이 들어 있다. 풀이 방법은 대체로 수학교공식을 사용하지 않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어떻게 쉽게 이해시킬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어 놓았다.

### 1. 통계

#### 숫자의 횡포

데이비드 보일 저 / 이종인 역 / 대산 / 2002년 / 382쪽 / 8400원

이 책은 통계학에 관한 책이 아니라 통계학에 탄지거는 책이다. 현대인의 맹목적인 숫자맹신 현실을 짚어 본 책이다.

#### 포켓속의 수학

알브레히트 보이텔슈파허 저 / 유명미 역 / 이글리오 / 2002년 / 111쪽 / 5500원

이 책은 수학을 재미있게 설명하기로 이름난 저자가 들려주는 51가지 3분짜리 수학 상식이 다. 굳이 증명하지 않고, 가정도 명제도 없는 짤막한 이야기로 주 요리인 '수학'에 대한 입맛을 돋울 수 있는 전체 요리와 같은 이 책은, 수학을 두려워하는 학생들에게는 친해질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수학이나 논리적 사고에 관심이 있는 이들에게는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 머리가 좋아지는 수학적 발상 공부법

**고바야시미치마사저 / 나유경역/ 자음과모음/ 2000/ 240쪽 / 8,500**

이미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혀 의외의 측면이 보이기 시작한다. 언뜻 봐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일이라도 시점을 바꿔 생각해 보면 간단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있다. 이런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는 '수학적 발상'을 단련하는 방법이 이 책의 곳곳에 수록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함께 생각하다 보면 사물에 대한 사고방식을 풍부하게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 세상 밖으로 날아간 수학

**이시하라 키요타카 저/ 홍유선 역/ 맑은소리/ 1999년/189쪽/ 6000원**

십진법의 계산판을 만든 유목민 이야기, 땅의 넓이를 계산한 벽돌공 이야기, 원둘레와 원의 면적을 썬 훌륭한 건축공 이야기, 비례를 발견해 누이동생을 구한 소년 이야기, 승부의 확률을 생각한 주사위꾼 이야기 등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 수학의 원리를 담았다.

## 수학공부 이렇게 하는거야

**김바야시 저 / 경문사 / 2001 / 308쪽 / 8,000원**

이 책은 수학에 관한 100개의 '왜?'라는 질문을 뽑아, 초중고 및 대학의 교사, 교수를 중심으로 한 일본 수학교육협회 회원에게 그 답을 의뢰하여 모인 해답 중에서 엄선된 것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수학문제와 그 답들은 전문가 선생님들이 엄선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알기 쉽게 풀어져 있다. 또 교과서에 있는 딱딱한 답이 아니라, 가능한 한 재미있게, 다른 견해나 사고로써 쉽게 궁리를 해서 풀 수 있게 답들이 제시되어 있다.

### 2. 도형의 기초

## 종이접기 속에 숨겨진 수학

**남호영, 박정숙, 전정아 / 수학사랑 / 1999년 / 90쪽 / 7,000원**

중학교 정도의 사고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물에서 추상화하는 연습이 필요한데, 이 때 종이 접기가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예술로서의 접기가 아니라 수학적 원리를 알기 위한 종이 접기로 구성되어 있다. 접어보면서 교실에서 배웠던 수학 개념을 재확인하고 왜 그렇게 접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란다. 꼭 예쁜 색종이로 접지 않아도 접는 과정에서 원리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 2. 도형의 기초

#### 2) 평행선의 성질

## 수학과 친구되자!

**수학사랑 편/ 수학사랑 / 2001년 / 187쪽 / 7,000원**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과목 중 수학을 싫어하는 친구들이 제일 많다. 하지만 이 책 한 권이면 아주 재미있게 수학을 배울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다. 매달 매일 하나씩 소개되는 다양한 소재의 실생활 이야기와 퀴즈, 퍼즐, 넌센스, 실생활 문제 등을 통해 수학과 친해질 수 있는 책.

### 3. 도형의 작도와 성질

## 수학 판도라의 상자

**브라이언볼트 저 / 장석봉 역 / 푸른미디어 / 2002 / 208쪽/ 8000원**

모든 문제들은 군더더기 없는 쉬운 문장으로 설명되어 있고 각각의 상황에 어울리는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적절한 삽화를 배치하여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를 풀기를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학습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정규 수업시간에 개인별로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어보게 하는 등 수학과 친해지게 하는 교재로서도 이 책은 매우 적합하다.



## 꼬마 수학자들의 축제

**필립 블랑제 저 / 맑은소리 / 2001 / 194쪽 / 7,500원**

이 책은 학생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프랑스식의 수학수업은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 역점을 둔다.

## 원 : 수학, 과학, 자연에서 찾는 수학

**이범규 저 / 비소통 / 2002년 / 80쪽 / 8,500원**

원, 삼각형, 사각형의 도형을 통해 직접적인 수학이 아닌 재미를 통한 수학과 과학, 놀이까지 알려주고 있는 시리즈이다. 어렵게만 생각하게 되는 수학과 과학을 자신들의 손으로 즐기면서 스스로 알아가게 되고, 책 속의 옛 이야기와 여러 가지 놀이 방법을 접하면서 원리를 깨우쳐 가는 학습을 하게 된다. 주위에 모든 도형을 수학과 연관시켜 보자. 정말 쉽고 흥미 있게 수학과 과학을 접할 수 있게 된다.

## 자연의 수학적 본성

**이언 슈투어트저/ 동아출판사 /1996년 / 206쪽 / 6,800원**

수에 대한 관념과 그 발달, 변화의 법칙과 법칙에 의한 변화의 생성, 대칭 붕괴, 생명현상에 대한 수학적 체계에 이르기까지 수학을 통하여 만물과 우주를 얼마나 잘 이해할 수 있는가를 밝히고 있다. 이들 개개인을 다루는 유기체와 비 유기체가 많은 수학적 패턴을 공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물리학과 화학 생물학 등의 학문이 얼마나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 자연 예술 과학의 수학적 원형(수학산책 20)

**마이클슈나이더 저 / 이중호 역 / 경문사 / 2002년/ 364쪽/ 28000원**

[자연 예술 과학의 수학적 원형]은 자연 세계와, 속담 신화 종교 등 인간 세계에서 상징언어로 사용된 숫자의 원리들을 살펴본다.

과학과 철학, 상식을 새롭게 결합하여, 흔히 볼 수 있는 곳에 숨겨진 세계의 경이와 조화를, 그리고 과거나 미래에만 국한되지 않은, 영원한 진리를 보여준다.

### 3. 도형의 작도와 성질

#### 5) 원의 성질

## 수학 100의 정리

**일본수학SEMINAR 편집부 저 / 의제 / 2000 / 236쪽 / 15,000원**

수학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준 100개의 중요 공식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 놓은 책이다. 지루하지 않고 짜임새 있게 내용을 정리함으로써 수학 세계의 전반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도록 구성해 놓았다.

### 3. 도형의 작도와 성질

#### 6) 다면체의 성질

## 수학아 놀자

**브라이언 볼트 저 / 강동호역 / 푸른미디어 / 2001/ 208쪽 / 8000원**

책의 앞쪽에는 간단한 대수와 기하 문제 등 비교적 쉬운 문제를, 책의 뒤쪽에는 좀더 생각해 야 하는 복잡한 문제들을 배치하여 단계적으로 난이도를 조절하였다. 또한 문제들은 유형별로 묶여 있지만 정교하게 짜여 있어 독자들은 다양한 수학의 세계와 접할 수 있다

### 4. 도형의 측정

## 에펠 탑에서 수학을 배우자

**나카다 노리오 저 / 김현정 역 / 이지북 / 2001년 / 216쪽 / 8500원**

수학이라는 것은 쓸모 없고 딱딱하기만 한 것일까? 에펠탑에서 볼 수 있는 율령 곡선의 역사에서부터 인간의 생각하는 갈래, 나폴레옹과 수학, 미터법의 창설에 이르기까지 혼란기 프랑스의 사회와 수학을 중심으로 흥미롭게 수록했다.

## 황금비에는 황금이 있다!?

**김미자 외 저 / 수학사랑 / 2001 / 189쪽 / 8,000원**

생활 속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황금비에 대해 쉽게 설명한 교재로서 황금비에 대한 이론서이다. 황금비의 정의와 역사, 생활 속의 황금비, 예술 속의 황금비, 수학과 황금비 등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 수학의 유혹

**강석진 저 / 문학동네 / 2002 / 300쪽 / 9,500원**

서울대 수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고등과학원 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저자는 일상의 세세한 것들에서 수학의 원리와 그 아름다움을 이끌어내 보여준다. '정통과 직업 수학자' 답게 지나친 과격을 피하면서도 수학이 멋있는 이유를 영화 '다이하드 3'을 통해 설명해 나가는 등 흥미진진한 방식으로 수학의 세계를 안내한다. 중·고생은 물론 수학교사나 수학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도 읽어볼 만하다.

## 수학문화사

**안재구 저 / 일월서각 / 2000 / 350쪽 / 12,000원**

수학의 발달을 통하여 사회의 문화를 보면서, 그리고 문화의 발전과정을 통해서 수학의 역사를 기록한 책. 수학이 그 시대 사회의 사람들과 세계관, 경제, 문화, 전쟁에 어떻게 작용하고 인류의 진보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폈다

## 재미있는 이야기 수학

**권영한 저/ 전원문화사 / 1998년 / 399쪽 / 8,000원**

수학과 관련된 재미있고 유익한 퀴즈, 퍼즐, 일화 등이 실려져 있어 그것만 골라 읽어도 수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이 책은 도형에 대한 다양한 자료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으며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증명 방법도 교과서 밖의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어 피타고라스 정리를 공부한 학생들은 반드시 읽어보면 유익한 책이라 생각된다.

## 앵무새의 정리-소설로 읽는 수학의 역사 (1),(2),(3)

**드니 게디 지음/ 문영선 옮김 / 2001년 / 292쪽 / 7,000원**

이 책은 소설적 재미를 만끽하면서도 어렵게만 느껴지는 수학을 재미있고도 쉽게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다. 수학전반에 관하여 조망해 볼 수 있는 훌륭한 기회를 제공하며 일반 수학 책에서 느낄 수 없는 수학과 수학자의 전혀 다른 면을 보여준다.

## 수학이 기가막혀

**브라이언 볼트 저 / 이한음 역 / 푸른미디어 / 2002/ 236쪽/ 8500원**

모든 문제들은 군더더기 없는 쉬운 문장으로 설명되어 있고 각각의 상황에 어울리는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적절한 삽화를 배치하여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를 풀기를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학습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정규 수업시간에 개인별로 수준에 맞는 문제를 풀어보게 하는 등 수학과 친해지게 하는 교재로서도 이 책은 매우 적합하다.

### 4. 도형의 측정

## 피라미드에서 수학을 배우자

**나카다 노리오 저 / 황소연 역 / 이지북 / 2001년 / 214쪽 / 8500원**

수학이라는 것은 쓸모없고 딱딱하기만 한 것일까? 피라미드를 찾아다니며 그곳에 얽힌 수학의 역사와 수학자의 업적, 수학 문제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아울러 그것들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수록했다.

## 아무도 풀지 못한 문제

박영훈 저 / 지호 / 2000 / 238쪽 / 8,900원

수학에 대한 학생들의 두려움과 불안감을 해소해주고 수학에 대해 친근감을 가질 수 있도록 어려운 공식들을 만든 수학자들의 인간적인 면모에 초점을 맞춰 재미있게 구성된 책으로 정리와 공식에 가려진 수학자들의 일생을 소개함으로써 수학자들이 천재적이라기보다는 단지 그들이 우리보다 조금 더 머리를 쓴 사람들이며, 수학이 딱딱하고 차가운 학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다.

## 수학이 세상을 지배한다

A.K. 듀드니 저 / 이글리오 / 2000 / 352쪽 / 8,900원

수학은 발견된 것인가, 창조된 것인가. 지은이는 수학의 가장 위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가상의 여행으로 읽는 이를 안내한다.

수학은 '발견'된 것이라고 결론내리는 저자는 수학의 공식과 법칙에 상상력을 불어넣는 소설적 이야기 구성을 통해 수학의 개념과 본질, 수학사 등을 깊이 있게 파헤치면서 수학이 자연과학에 미친 영향도 소개했다.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학기초

리오넬 샬렌 외 / 장석봉 역 / 궁리 / 2000 / 180쪽 / 6000원

이 책은 일상에서 쓴 수학기초를 비롯해 전문적인 수학기초까지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수학기초를 설명한 책으로 제곱수를 시작으로 삼각형과 사각형, 각, 이차방정식, 이진법과 무한까지 10개 분야로 나누어 쉬운 공식부터 어려운 것까지 49개 공식을 해설했다.

## 문명과 수학

리처드 만키비츠(이상원) / 경문사 / 2002년 / 254쪽 / 23,000원

수학은 "현상에서 출발하여 그 현상을 정리하는 수단을 찾는 인간 활동"으로서, 수단이 다시 새로운 분석의 대상이 되는 일련의 상승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형식화되고 추상화되어 가는 학문이다. 이 책은 이러한 <수학화> 과정이 인류의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만들어 왔는가를 많은 사진을 곁들여 쉽고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수학에 대한 엄청난 이미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난해한 수식과 증명, 딱딱한 공식이 주는 차고 메마른 "화석"의 이미지를 벗은 수학은, 과학과 공학, 예술과 문학 등 우리의 삶 전반에서 귀중한 영감을 제공해 주는 역동적인 이미지로 탈바꿈한다. 결국, 수학의 발달은 우리 인류의 삶 속에서 부딪치는 다양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 가는 과정이며, 수학적 안목과 능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건설적인 삶을 영위할 수 없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전 과정

타지마할에서 수학을 배우자(수학의 도레미 5)

나카다 노리오(홍성민) / 이지북 / 2001년 / 213쪽 / 8,500원

30여 년 동안 중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던 지은이가 디즈니랜드를 구경하며 그에 얽힌 수학의 역사와 수학자의 업적, 수학 문제 등을 쓴 일종의 여행기 같은 수학책. 중학생, 고등학생인 남매가 수학자인 아버지의 여행기를 들으며 질문도 하고 또 아버지가 내는 문제를 풀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수학을 배워 나간다.

이 책에서는 '0'을 발견하고 아라비아 숫자가 발생한 인도에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인 '타지마할'을 찾아가 거기에 사용된 대칭의 미와 황금비 등에 대해 알아본다. 동양과 서양,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수학을 총망라하고 있는 이 책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용되었지만 일반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수학의 쓰임에 대해 흥미롭게 풀어 간다.

수학의 체계보다는 수학이 형성되는 과정을 중시하여 수학적 사고 방식을 저절로 얻을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수학을 배우자(수학의 도레미 6)

나카다 노리오 / 이지북 / 2001년 / 232쪽 / 8,500원

30여 년 동안 중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던 지은이가 디즈니랜드를 구경하며 그에 얽힌 수학의 역사와 수학자의 업적, 수학 문제 등을 쓴 일종의 여행기 같은 수학책. 중학생, 고등학생인 남매가 수학자인 아버지의 여행기를 들으며 질문도 하고 또 아버지가 내는 문제를 풀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수학을 배워 나간다.

이 책에서는 그리니치 천문대에서 계산한 위도와 경도로 해석 기하학의 바탕이 된 좌표를 공부하고 '수학의 세기'라 불렀던 수학의 발전시대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영국과 독일의 수학을 정리한다. 동양과 서양,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수학을 총망라하고 있는 이 책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용되었지만 일반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수학의 쓰임에 대해 흥미롭게 풀어 간다.

또한 수학의 체계보다는 수학이 형성되는 과정을 중시하여 수학적 사고 방식을 저절로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에펠탑에서 수학을 배우자(수학의 도레미 7)

나카다 노리오 / 이지북 / 2001년 / 232쪽 / 8,500원

30여 년 동안 중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던 지은이가 디즈니랜드를 구경하며 그에 얽힌 수학의 역사와 수학자의 업적, 수학 문제 등을 쓴 일종의 여행기 같은 수학책. 중학생, 고등학생인 남매가 수학자인 아버지의 여행기를 들으며 질문도 하고 또 아버지가 내는 문제를 풀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수학을 배워 나간다.

이 책에서는 에펠탑에서 볼 수 있는 원뿔곡선의 역사와 파리 거리 여기저기에서 볼 수 있는 기하학적 도형의 아름다움을 나폴레옹 전후의 전란, 혼란기 프랑스의 '사회와 수학' 등을 중심으로 엮었다. 동양과 서양,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수학을 총망라하고 있는 이 책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용되었지만 일반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수학의 쓰임에 대해 흥미롭게 풀어 간다.

이스탄불에서 수학을 배우자(수학의 도레미 8)

나카다 노리오(황소연) / 이지북 / 2001년 / 214쪽 / 8,500원

30여 년 동안 중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던 지은이가 디즈니랜드를 구경하며 그에 얽힌 수학의 역사와 수학자의 업적, 수학 문제 등을 쓴 일종의 여행기 같은 수학책. 중학생, 고등학생인 남매가 수학자인 아버지의 여행기를 들으며 질문도 하고 또 아버지가 내는 문제를 풀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수학을 배워 나간다.

이 책에서는 동서문화의 접점이었던 이스탄불에서의 수학의 큰 두 개의 기둥인 인도의 대수와 그리스의 기하학의 뿌리를 동시에 찾아보고 수학사와 세계사를 한꺼번에 아우른다. 동양과 서양, 고대부터 현재까지의 수학을 총망라하고 있는 이 책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사용되었지만 일반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수학의 쓰임에 대해 흥미롭게 풀어 간다.

이 책에서는 또한 수학의 체계보다는 수학이 형성되는 과정을 중시하여 수학적 사고 방식을 저절로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웃기는 수학이지 뭐야!

이광연 / 경문사 / 2000년 / 287쪽 / 7,000원

18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마다 3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로 꾸며낸 학문적 유머, 한 시대를 살았던 수학자들의 재미있는 조각이야기를 엮은 책으로서 수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흥미롭고 설득력 있는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 책은 읽기 편하도록 수학사의 연대순으로 되어 있으나 어느 부분을 먼저 읽더라도 간단한 수학 지식과 수학에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얻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처음부터 읽지 않아도 된다. 또한 수학자들의 일화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수학의 원리와 개념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하나의 수학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단어의 어원이나 영화와 같은 다양한 텍스트를 동원한 지은이의 노력이 돋보인다.

이야기로 떠나는 수학여행

프리드리히 빌레(김이섭) / 이지북 / 2002년 / 196쪽 / 8,000원

‘칸토르 주’라는 가상의 주에서 펼쳐지는 주인공들의 여행을 통해 수학의 다양하고 놀라운 재미들을 맛볼 수 있게 구성한 특이한 형식의 수학 이야기이다.

기차의 궤도를 통해 기하학을 설명하고, 호텔 방에 투숙하는 방법을 통해 수열을 설명하는 식이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제가 던져지고, 그것을 수학으로 풀어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구구절절 수학의 적용 방식을 설명하기보다는, 책 속에서는 문제제기로 만족하고, 나머지 수학적 정리는 주석으로 돌리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책을 읽는 동안은 가우똥하다가도 주석에서 제공되는 수학적 해답을 읽고는 뒤늦게 탄복하게 된다.

카이스트 천재들의 수학공식 7가지

양승현 / 맑은소리 / 2002년 / 233쪽 / 10,000원

이미 출간되어 있는 수학 참고서 및 수학 지침서 형식을 벗어나 딱딱한 문제풀이와 방법론 제시가 아닌, 새로운 수학 공부 방법이 딱! 7가지 형식으로 정리되어 나왔다.

카이스트 학생들만의 수학문제풀이 비밀 노하우를 7가지로 정리해 알려주고 있는 이 책은 이제부터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 재미있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줄 것이다. 즉, 이제부터 모든 수학문제는 책에서 제시하는 7가지 공식에 대입하면 모두 풀 수 있게 된다.

카이스트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2명의 지은이가 말하는 ‘수학 문제풀이를 잘 할 수 있는 7가지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어 흥미를 갖게 만든다.

포켓 속의 수학

알브레히트 보이텔슈퍼(유영미) / 이글리오 / 2002년 / 112쪽 / 5,500원

<스파게티에서 발견한 수학의 세계>라는 독특한 수학 여행기를 썼던 수학자가 이번에는 라디오 멘토처럼 가볍게 하나하나 해칠 수 있는 ‘3분 짜리 수학이야기’들을 묶었다.

수학을 재미있게 설명하기로 이름난 저자가 51가지 짤막한 이야기로 수학에 흥미와 호기심을 불러넣는 이 책은 교과서에서 만난 딱딱한 암기 과목이 아닌 실생활에서 궁금했던 재미있는 수학, 호기심을 풀어 주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원리를 스스로 깨칠 수 있게 해준다.

‘별집은 왜 육각형일까?’하는 일상생활의 수학 이야기들, ‘페르마는 정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를 증명했을까?’하는 수학사 속의 재미난 에피소드들, ‘원과 면적이 똑같은 사각형이 있을까?’하는 호기심을 풀며 수학을 배우게 하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다.

풀다보면 저절로 머리가 좋아지는 Wow! 수학퍼즐

중준의작 / 바다 / 2002년 / 206쪽 / 6,000원

퍼즐 형식의 문제를 통해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설명하는 책으로서 수학이 더 이상 딱딱하고 지루하지 않다는 것을 퍼즐 형식의 재미있는 문제들을 통해 보여준다. 더불어 재미있는 수학퍼즐을 통해 창의성과 논리적 사고력이 강해지도록 돕고 있으며 수학 퍼즐의 고전만을 모아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워 준다.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고생 수준의 문제까지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가 실려 있으며 모두 3장으로 나뉘어 95가지 수학 문제들이 수록되어 있다. 1장은 수학에 재미와 흥미를 가지게 하는 넌센스류의 퍼즐이, 2장과 3장은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 주는 본격적인 수학 퍼즐이 실려 있고, 난이도 역시 조금 높다. ‘일단 재미만 붙이면 흥미롭고 유용한 과목인 수학을 아이들이 좋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더불어 아이들이 수학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책은 그런 고민을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 과 학

## ▣ 1학년

### 3. 시각의 물질

#### 동굴의 비밀

석동일 / 예림당 / 2002년 / 238쪽 / 12,000원

“동굴은 죽어 있는 자연이 아니라 살아 있는 자연입니다.”-본문에서  
어두컴컴한 채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을지 모를 신비의 세계, 동굴. 지은이는 이 동굴에 매료되어 26년간 동굴의 사진을 찍는데 몰두했다고 한다. 그가 자신의 경험을 살려 동굴의 이야기를 하나씩, 하나씩 꼬집어냈다.

자신이 체험하고 느낀 것을 말을 걸듯 정답게 이야기로 풀어놓는다. 그 이야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동굴에 대한 과학적 지식. 종유관, 종유석, 석순에서부터 석주, 유석들, 곡석, 석화에까지.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만든 희귀한 용암동굴이나 살아있는 화석 곤충 갈르와 벌레까지. 동굴은 그 신비스러운 이미지처럼 끝없는 이야깃거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동굴 동물들’이라는 이름으로 사진과 함께 특성을 정리해 두기도 했다. 동굴 탐사시 주의 사항, 동굴 탐사시의 에티켓 등도 잊지 않고 실어주었다.

### 6. 생물의 구성

#### 하나의 세포가 어떻게 인간이 되는가

루이스 윌퍼트(최문찬) / 궁리 / 2001년 / 273쪽 / 10,000원

이제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인간이 수정란이라는 단 하나의 세포로부터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신기하다. 말없는 세포가 노래하고 생각하는 인간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이 책은 현대생물학의 가장 흥미로운 주제 중의 하나로서, 배아의 발생과정에 관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강연한 내용을 엮은 것이다. 영국의 저명한 발생학자인 루이스 윌퍼트는 이 책을 통해 생명의 신비로움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한다. 세포에서 어떻게 눈, 코, 입, 팔다리가 형성 되는지, 무엇이 세포 개개의 행동을 조절하여 종합적인 패턴으로 되는지, 또한 왜 어떤 이는 일찍 노화되고 또 어떤 이는 장수하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설명한다.

저자는 또한 여러 실험과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과 같이 고등한 생물이나 초파리 같은 하등한 생물의 발생 메커니즘이 거의 같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진화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도 진화가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는 동물의 수준이었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이다

### 8. 소화와 순환

#### 몸, 그 생명의 신비

칙달수 / 사계절 / 1999년 / 252쪽 / 15,000원

우리는 생물 쪽지 시험을 위해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혈장들을 외우는 데 급급했지 숨쉬며 생생히 살아 있는 우리의 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 하지만 이 책을 보면 달리 먼 곳에서 과학을 찾지 않아도 이미 우리 몸 자체가 신비하고 놀라운 것임을 알 수 있다. 팔딱 팔딱 뛰는 심장이 온 몸에 피를 보내고 있을 때도 그에 뒤질세라 열심히 운동하는 폐, 그리고 조그마한 콩팥, 내 몸을 지탱하고 있는 말... 우리 몸은 머리카락부터 발가락 끝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필요성과 하는 일에 적합하게 모두 생생히 살아 있는 작으면서도 큰 발전소, 바로 그것이다.

열 번, 스무 번을 보아도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만화로 보는 인체의 신비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신경계인 뇌, 시상하부에서 시작하여 머리카락에 이르기까지 인체의 각 기관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 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등에 대하여 상세한 그림과 함께 정리해주고 있다.

8. 소화와 순환

인체기행

권오길 / 지성사 / 2000년 / 344쪽 / 9,000원

<인체 기행>을 읽다 보면, 그 동안 무심코 대해 온 나의 몸 하나 하나를 살펴보는 느낌을 갖게 된다. 허준처럼 죽은 사람의 몸을 해부할 수는 없지만, 책을 통해 내 몸 구성구석을 탐험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의 몸을 알아 가는 것은 곧 생명의 신비를 체험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몸은 정말 신비하여 하나의 작은 우주라고 불리기까지 한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세포, 세포 속의 유전자, 또 그 속의 DNA가 오묘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것들은 인체라는 작은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이다. 그것이 어떻게 배열되고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사람의 몸이 다양한 형태와 특성을 얻게 된다.

우리는 사람들의 몸을 보며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들을 평가하고 아름다움과 추함을 결정짓는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인체라는 작은 우주를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정신과 마음도 그 인체에 함께 깃들여 있는 것이다.

10. 힘

파인만의 여섯가지 물리 이야기

리처드 파인만 (박병철) / 승산 / 2003년 / 246쪽 / 13,000원

저자가 캘리포니아 공과대학에서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던 기초물리학 강의는 이미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라는 제목으로 세 권이 선보인 바 있다.

이 책은 세 권 중 1권에 수록된 52개의 강의 가운데서 중·고등학교 학생도 즐길 수 있을 만한 여섯 편의 강의를 하나로 엮었다. 원자의 운동, 물리학의 기초 개념, 물리학과 다른 과학의 관계, 에너지, 중력, 그리고 양자역학을 다루고 있다.

파인만 특유의 재치 넘치는 입담으로 물리학이 얼마나 재미있는 학문인가 느끼게 해주는 책이다. 전문 용어를 늘어놓지 않고 일상적인 사례들로부터 최첨단의 물리 개념을 이끌어낸 점이 높이 평가받고 있다.

11. 해수의 성분과 운동

아름다운 바다 - BBC 자연사 다큐멘터리 01

앤드루 바이어트 외(김용서 외) / 사이언스 북스 / 2002년 / 382쪽 / 40,000원

영국 BBC가 5 년여에 걸친 해양 탐사를 통해 밝혀낸 사실들과 최근의 과학적 발견을 망라한 이 책은 생동감 있는 400여 컷의 사진과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이 책은 바다의 모든 것에 대해 완벽하게 안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원 및 환경의 위기에 처한 인류에게 푸른 희망을 심어준다. 또한 깊은 바다에 사는 희귀한 생물부터 바닷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친숙한 가마우지와 펄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물들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전해줌으로써, 학생들에게 지구상에 인간과 공존하는 모든 생명들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는 따스한 감성도 불러일으킬 것이다.

갯벌환경과 생물

이학근 / 아카데미서적 / 2002년 / 267쪽 / 18,000원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5대 갯벌의 하나로 손꼽히는 고유 문화 유산 서해 갯벌이

이 책은 인천의 한 초등학교의 교사인 저자가 우리 갯벌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쓴 것으로, 갯벌의 소중함과 갯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해 주고 있다. 갯벌의 자연 환경과 기능, 바위 해안의 모래, 펄 그리고 하구역의 염습지 등 갯벌 저서생물의 환경과 분포를 다루었으며, 우리 나라와 외국의 갯벌 보전법과 관리 정책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책의 중간 중간에 굵은 글씨체로 기본적인 용어 설명과 많은 사진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 갯벌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였다.

21세기의 신과 과학 그리고 인간

**러셀 스태나드(이장희) / 두레 / 2002년 / 270쪽 / 9,800원**

이 책은 작가인 스태나드가 신의 존재를 믿는 세계적인 과학자, 신학자 50명에게 "과학과 종교의 상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뒤 얻은 답을 엮어 펴낸 책이다. 대체로 이들은 특정 종교의 특정 대상이 아니라,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우연적인 현상을 신으로 파악한다. 오늘날의 놀라운 과학의 발전이 신에 대한 인간의 지식과 관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리하여 우주 속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탐색한 담론들을 모은 것이다.

책을 엮은 러셀 스태나드 및 이 담론에 참가한 50명의 필자들은 대부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리학자, 천체 물리학자와 우주론자, 양자물리학자, 진화론자와 생물학자, 유전학 및 유전자 공학자, 의학자 심리학과 정신분석학자, 신학자, 인지학자들이다.

종교와 과학과 인간관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으므로 관심 있는 학생들의 일독을 권한다

곤충이 궁금할 때 파브르에게 물어봐

**정재은 / 아이세움 / 2002년 / 143쪽 / 7,000원**

우리 인간이 곤충들과 친해질 수 있을까?

벌레들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에게 곤충이 얼마나 재미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책이다. 뽀뽀한 책장을 하나하나 넘기는 재미가 쏠쏠하다.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모기, 붉은 개미, 바퀴벌레 등 무섭고 징그럽기만 한 곤충들은 그 수와 종류가 엄청나게 많다. 싸움을 잘 하는 사투라이 개미나 수많은 작은 눈을 가진 잠자리, 그리고 가을이면 맛있는 밤 속에 들어있는 꿀꿀이바구미 애벌레 등 우리가 알지 못했던 곤충들의 신비한 모습과 결혼, 아이 키우기, 생활 등을 엿볼 수 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친근해지는 곤충들의 세계로 파브르 아저씨와 함께 떠나보자.

꿈꾸는 달팽이

**권오길 / 지성사 / 2002년 / 280쪽 / 9,000원**

이 책은 달팽이 연구의 대가로 알려진 권오길 교수가 일상과 생물의 신비를 알기 쉽게 풀어 쓴 과학이 담긴 세상 이야기이다. 어린 아이 같은 맑은 시선으로 자연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그 속에 삶의 진리와 이치가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고, 사회생물학적 이론을 특유의 재미있는 담론 형식으로 풀어냈다. 원숭이, 지렁이, 해삼, 때밀이, 뱀새, 흙 등 우리 주변의 자연 모두가 이야기 소재이다. 이 책의 특징은 버터냄새 나는 이해 못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된장냄새를 모라모라 풍기며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이다.

일상에서 출발한 생물학 해설서인 이 책은 저자가 생물학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쓴 '생물학 강의노트'이기도 한데, 보수와 진보의 문제를 생물학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등 일상과 생물의 신비를 접합한 저자의 독특한 시각이 돋보인다.

도구와 기계의 원리 - 원리가 보이는 재미있는 과학 책

**데이비드 맥컬레이(박영재 외) / 서울문화사 / 2002년 / 400쪽 / 29,800원**

학생들은 각종 기계와 함께 생활하면서도 과학기술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 복잡한 것으로 흔히 생각한다. 이 책은 수백 가지 도구와 기계의 원리에 대해 정확하면서도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과학기술은 어디나 널려 있으며 그것 자체가 매우 흥미롭다는 생각을 갖게 만든다.

단순한 도구 지퍼, 좀더 복잡한 기계 자동차, 고도로 발달된 첨단기기 우주왕복선, 컴퓨터, 인터넷 등의 구조와 움직임에 대해 재미있는 일러스트와 해부도로 보여준다. 이를 통해 각각의 기계를 움직이는 과학적 원리가 다른 기계를 움직이는 원리와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알 수 있다.

도구나 기계의 움직임 각각에 숨어 있는 특정한 과학 원리를 찾아보면, 사물을 바라보는 깊이와 사고의 폭은 넓어져 학생들에게 단편적인 지식 축적이 아닌 종합적인 판단력과 사고력을 키워줄 것이다.



## 딱정벌레의 세계

아서 V.에번스 외(윤소영) / 까치 / 2002년 / 208쪽 / 20,000원

이 책은 한번쯤은 이 곤충에 관한 적이 있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에 흥미를 느낀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졌다. 아름다운 컬러 사진이 풍성하게 실려있는 이 책은 딱정벌레에 대한 안내서 역할을 해준다. 책에 실려있는 사진들을 보면 딱정벌레가 얼마나 다양한지, 벌레의 색깔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지 놀라게 된다.

딱정벌레는 극지방의 빙산 언저리에서부터 열대의 처너림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거의 모든 곳에서 서식하고 있다. 종의 수만을 번영의 지표로 생각한다면 1758년 이래로 줄잡아 35만 종의 딱정벌레들이 기록된 이 곤충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성공한 동물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딱정벌레가 얼마나 다양한지 알지 못한다.

## 라듐의 발견과 마리 퀴리 - 옥스퍼드 위대한 과학자 시리즈 01

나오미 파사츠프(강운재) / 바다 출판사 / 2002년 / 168쪽 / 7,500원

남편 피에르 퀴리와 함께, 그가 죽은 후에도 혼자 꽃피어 라듐의 연구에 매달렸던 과학자 마리 퀴리.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을 차례로 수상하기도 한 그녀의 삶을 다뤘다.

러시아 치하의 폴란드에서 어렵게 공부했던 어린 시절의 이야기는 비교적 가볍게, 남편 피에르 퀴리를 만난 후의 연구 과정에 대해서는 찬찬하게 훑어나간다. 마리 퀴리의 사진 뿐 아니라 그의 남편, 자녀 등 가족과 동료들의 사진까지 상세하게 실어놓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 러드퍼드가 설명한 방사선의 붕괴 과정, 라돈의 동위원소들에 대해서도 따로 페이지를 마련하여 설명하기 때문에 관련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 마지막 기회

더글러스 아담스(최용준) / 해나무 / 2002년 / 360쪽 / 12,800원

세계적인 SF 작가 더글러스 아담스와 동물학자 마크 카워드인은 위험에 처한 진귀한 생명체들을 탐사하기 위해 세계 각국으로 길을 떠난다. 하지만 멸종 위기 생물 탐사라고 해서, 책제목만큼이나 생태주의나 자연 보호 같은 심각한 단어를 떠올린다면, 이 책의 가치는 지구상에 고작 열 다섯 마리밖에 안 남았다는 예코앵무새보다도 더 희소해 질 것 같다.

이름만 들어도 진귀한 로드리게스파일먹이박쥐, 중국 신화에서 등장할 것 같은 코모도왕도마뱀, 흠뻑 양쯔 강물 때문에 눈이 퇴화해버렸다는 바이지 돌고래... 이런 위기의 동물에 대한 지적 호기심도 큰 몫이겠지만, 뭐니뭐니해도 이 책을 놓지 못하게 하는 것은, 희귀 동물을 찾아 나선 SF 작가의 유쾌한 여정과, 그 여정을 달콤쌉싸름하게 풀어낼 줄 아는 SF 작가의 탁월한 입심에 있다. 희귀 동물의 생태에 대한 실감나는 묘사는 자칫 지루해질 수 있는 생태 보고서를 흥미진진한 '동물의 왕국' 수준으로 훌쩍 넘겨주고, 이 정글의 법칙 속에서 인간의 질서를 묵상하는 작가의 시선을 느끼게 한다.

## 물리학자는 영화에서 과학을 본다

정재승 / 동아사이 / 2002년 / 397쪽 / 12,000원

60편이 넘는 영화들에서 잘못된거나 잘못된 과학 문제들을 짚아낸 영화로 과학 읽기, 과학으로 영화 읽기에 해당하는 책이다. 이 책은 1999년 출간되어 '정재승'이라는 저자의 이름을 알렸던 책의 개정증보판이다. 이 개정증보판에는 13개의 새로운 영화 꼭지들--할로우 맨, 언브레이커블, 트위스터, 매트릭스 등--을 수록했다. 그 밖의 읽을거리도 추가되었다.

'영화에서 과학을 배운다'는 발상의 신선함은 여전하고, 어느새 가장 '잘 나가는' 대중 과학 필자가 된 정재승의 더욱 노련해진 글쓰기를 보는 맛도 있다. 청소년들의 교양 과학 추천서로 좋다.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친근하게 받아들이고 일상에서도 쉽게 과학에 대한 대화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저자의 마음이 담긴 이야기들이다. 영화에 등장하는 100여 개의 '과학상의 실수'에 대해 재미있고 흥미롭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영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더라도 영화를 보면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단상이나 과학 관련 정보들도 소개되어 있다.

## 밀가루가 폭탄이 된 이유 (과학동아 Q&amp;A 시리즈 5)

과학동아 편집실 (신광복) / 성우 / 2003년 / 180쪽 / 13,000원

10년 간 월간 과학동아에 축적된 Q&A를 선별하여 인체, 우주 지구 환경, 주변 사물, 동식물, 과학 일반 다섯 가지 주제로 분류한 과학동아 Q&A 시리즈 전 5권 중 5권으로, 과학 일반 영역을 다룬 책이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어떻게 연도를 측정할까?' '정말 유라기공원에서처럼 DNA로 공룡이나 사람을 부활시킬 수 있을까?' '마술사들이 한다는 공중부양이 실제로 가능할까?' 등 이 책에서는 과학 교과서에서 한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과학 원리에 대한 재미있는 질문과 명쾌한 답변을 Q&A의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 발명의 역사

G.I. 브라운(이중호) / 세종서적 / 2000년 / 288쪽 / 20,000원

책이 참으로 꼼꼼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발명의 역사>와 같은 책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기네스 선정, 세계를 움직인 위대한 발명 이야기'라는 부제가 붙은 이 책은 석기 시대부터 디지털 시대까지, 아르키메데스에서 빌 게이츠에 이르기까지 지난 2000년 동안의 발명의 역사를 한 권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은 발명의 역사에 관한 책이지만, 단순히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배열되지 않았다. 16가지 큰 주제를 나누고 그 아래 소주제, 그리고 더 작은 항목들로 나뉜다. 예를 들어 '운송'이라는 주제 아래에는 간접시설, 철도, 항해, 자전거 등이 있고, 자전거라는 소주제 아래는 변속장치, 공기 타이어, 접을 수 있는 자전거, 전기 자전거 등이 있다.

이렇게 읽는 이의 입장에서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이 돋보이는 이 책은 풍부한 화보와 위대한 발명가들에 대한 간단한 설명, 발명에 대한 선인들의 명언 등을 삽입하여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더욱 자극한다.

## 밤에 먹으면 살찌는 이유 (과학동아 Q&amp;A 시리즈 1)

과학동아 편집실(신광복) / 성우 / 2003년 / 208쪽 / 13,000원

10년 간 월간 과학동아에 축적된 Q&A를 선별하여 인체, 우주 지구 환경, 주변 사물, 동식물, 과학 일반 다섯 가지 주제로 분류한 과학동아 Q&A 시리즈 전 5권 중 1권으로, 인체 영역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드라큘라도 혈액형이 있을까?' '흑인인 마이클 잭슨이 피부가 흰 것은 병 때문이리는데, 어떤 병일까?' '입덧은 대체 왜 하는 걸까?' 등 이 책에서는 신비하기까지 한 우리의 몸과 몸을 둘러싼 여러 가지 현상들, 그리고 질병에 대한 재미있는 질문과 명쾌한 답변을 Q&A의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은 인체의 신비와 함께 인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볼펜똥이 생기는 이유 (과학동아 Q&amp;A 시리즈 3)

과학동아 편집실 (신광복) / 성우 / 2003년 / 208쪽 / 13,000원

10년 간 월간 과학동아에 축적된 Q&A를 선별하여 인체, 우주 지구 환경, 주변 사물, 동식물, 과학 일반 다섯 가지 주제로 분류한 과학동아 Q&A 시리즈 전 5권 중 3권으로, 주변 사물 영역을 다룬 책이다. '수술실에서 의사선생님들은 왜 초록색 옷만 입을까?' '볼펜 똥은 왜 생기는 걸까?' '전철이나 열차의 선로 주변에는 왜 뽕죽뽕죽 모가 난 자갈을 까는 걸까?' 등 이 책에서는 과학이 극도로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하고 접하는 물건들에 대한 재미있는 질문과 명쾌한 답변을 Q&A의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은 물체의 신비와 함께 물체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북극곰이 흰색인 이유 (과학동아 Q&amp;A 시리즈 4)

과학동아 편집실 (신광복) / 성우 / 2003년 / 200쪽 / 13,000원

10년 간 월간 과학동아에 축적된 Q&A를 선별하여 인체, 우주 지구 환경, 주변 사물, 동식물, 과학 일반 다섯 가지 주제로 분류한 과학동아 Q&A 시리즈 전 5권 중 4권으로, 동물, 식물 영역을 다룬 책이다. '식충 식물은 왜 곤충들을 잡아먹지?'

'피를 빨아먹고 사는 모기도 AIDS를 옮기고 다닐까?' '언어는 도대체 어떻게 고향을 찾아올 수 있을까?' '미생물은 영원히 사는 걸까, 아니면 늙어 죽을까?' 등 이 책에서는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 볼 수 있는 개나 고양이를 비롯한 동물들과 움직이지 않고도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식물, 이 세상에 필요 없을 것 같으면서도 없어서는 안 될 존재 미생물에 대한 재미있는 질문과 명쾌한 답변을 Q&A의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 빌아저씨의 과학교실

빌 나이 (윤소영) / 비룡소 / 2000년 / 183쪽 / 8,000원

빌 아저씨는 이 책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매일매일 과학을 이용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레몬 전지와 나침반 그리고 모터를 만들기도 하고, 집에서 파동이나 바람, 온실 효과를 직접 만들기도 한다. 또한 열기구도 어떻게 공중에 뜨는지, 햇빛은 무슨 색인지, 라디오는 어떻게 소리를 내는지, 그리고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고, 현재의 상황을 이해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과학을 이용하는 일이다. 이 책은 학생들이 앞으로 자라며 과학에 흥미를 잃지 않도록, 또 과학을 흥미로운 것으로 느낄 수 있도록, 더 나아가 학생들이 과학자로 클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 사이언스 북

리처드 도킨스 외 (김익봉) / 사이언스북스 / 2002년 / 538쪽 / 55,000원

인류가 최초로 수를 세기 시작한 기원전 3500년부터 인간 유전자 지도가 작성된 2000년까지의 과학사를 크게 250개의 장면으로 간추린 과학 대중서이다. 간결하면서도 재미있는 설명과 함께 사진과 그림을 곁들여 학생들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책이다.

특히 리처드 도킨스, 제레드 다이아몬드, 리처드 리키 등 총 38명의 저명한 필자들이 대거 참여하여 각자가 전공한 분야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한다. 또한 잘못된 과학적 상식을 고쳐주기도 하고, 유명한 발견이나 발명의 그늘에 가려 미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재미있는 뒷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한다. 또한 이 책은 과학적 사고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바꾸어 왔는지, 과연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세계는 어떻게 시작되어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될 지에 관한 보다 깊은 이해를 돕는다.

한편 1600여 개의 색인이 게재돼 있어 '과학 사전'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 선생님도 놀란 과학 뒤집기 - 01 드디어 빛이 보인다

윤예경 / 성우 / 2001년 / 186쪽 / 12,000원

어렵고 재미없는 과학 교과서에서 탈피하여 우리 일상 생활을 소재로 재미있게 과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된 '과학 뒤집기'의 시리즈 24권 중의 첫 번째 책이다.

모두 다섯 가지의 주제로 빛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장인 '빛과 시각'에서는 빛을 연구해 온 역사와 더불어 사람이 정보를 습득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하는 시각에 대해 설명한다. 두 번째 장인 '빛이 만드는 자연현상'에서는 물이 깊이보다 얇게 보이는 이유, 사막에서 신기루를 보게 되는 이유, 하늘이 푸르게 보이는 이유 등을 설명하면서 빛의 다양한 특성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자연 현상을 알려 준다.

세 번째 장인 '빛을 이용한 도구와 기술'에서는 망원경, 카메라, 레이저 등의 도구 속에 숨겨져 있는 빛의 특성을 가르쳐 주고, 네 번째 장인 '빛을 연구한 사람들'에서는 X선을 발견한 윌슨, 상대성이론을 발표한 아인슈타인, 레이저를 발명한 타운스의 이야기를 실었다. 다섯 번째 장인 '빛과 예술'은 문화적인 면에서 빛을 이용한 사례를 보여준다. 빛을 이용한 예술장르인 영화와 애니메이션의 원리를 비롯하여 투명인간, 타임머신 등이 들어 있다.

## 세계를 변화시킨 12명의 과학자

스티브 파커(이중호) / 두산동아 / 2000년 / 295쪽 / 9,800원

인류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긴 과학자 12 명의 삶을 한 권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다. 갈릴레이, 뉴턴, 다윈, 에디슨, 아인슈타인 등 12명 과학자들의 생애와 놀라운 업적을 생생한 사진과 일러스트, 삽화를 조화시켜 새로운 시각에서 구성했다. 인류 문명을 변화시킨 발명, 발견과 그것이 나오게 된 사회, 과학적 배경, 그리고 끊임없는 노력과 탐구 과정을 알려준다.

이 책은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많은 위인전 속에 등장하는 과학자들과는 약간은 다르고 새롭게 쓰여졌다. 사업가로도 성공한 에디슨의 일화며, 이스라엘 대통령으로 추대되기도 했던 아인슈타인, 방사능에 오염됐던 퀴리, 불과 몇 시간 차이로 최초의 전화 발명가가 된 벨 등 평소에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책을 읽는 학생들에게 좀더 진실하고 인간적으로 다가가게 할 것이다.

## 소매치기도 뉴턴은 안다

최상일 / 한승 / 2002년 / 294쪽 / 9,000원

엘리베이터를 탈 때 과연 떨어지면 어떻게 살아남을까란 의문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이 책 속에는 그 답이 있다. 나는 폴짝 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왔었지만 저자는 말하고 있다. 압력으로 움직이기조차 힘들다고, '소매치기도 뉴턴은 안다.'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어렵게만 생각되는 자연현상들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이들테면 왜 체중을 잴 때 가만히 있어야 할까, 떨어지는 엘리베이터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빨래는 왜 위에서부터 마를까, 항공기 안에 공기는 어떻게 채울까, 꽃잎은 왜 흔들흔들 떨어질까, 물 속에 떠 있는 촛불은 언제 꺼질까 등, 생활 속에서 건져낸 궁금증, 혹은 아무 생각없이 외웠지만 의문이 가는 과학적 사실들 수십 가지를 주제로 풀어진 과학 이야기이다. 하나의 이야기마다 4, 5페이지의 짧은 길이로 쉽게 설명하였다.

## 수업 시간에 못다 한 신나는 과학 이야기

오우즈키 요시히코(김수연) / 한올림 / 1999년 / 204쪽 / 7,000원

누구나 일상 생활에서 벌어지는 갖가지 현상에 대해 호기심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는 사소한 현상 하나 하나에는 결코 단순하지만은 않은 묘한 이치가 담겨 있으며,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탐구하면 삶이 훨씬 재미있고 빛나게 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상 생활에서 짝트리 시작한 호기심을 이내 딱딱하고 어려운 전문 지식들에 부딪쳐 그저 호기심만으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이 책을 처음 보았을 때,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과학을 이렇게도 자연스럽고 낭만적인 내용으로 채색할 수 있구나 하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다.

이 책은 주변의 친숙한 소재에 대해 호기심을 일깨우고,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를 과학의 세계로 이끌어 준다. 여행을 하면서 늘상 보아오던 여러 가지 자연 현상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경탄할 수 있게 해 준은 물론, TV를 시청하면서 불가사의하게 생각하던 것들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설명해 줌으로써, 자칫 무미건조해질 우리의 삶을 의미 있는 과학적 탐구의 영역으로 인도해 주고 있다.

##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자연체험 1-2

조셉 B.코넬(장상욱) / 우리교육 / 2002년 / 160쪽 / 8,000원

어린이들에게 환경과 생태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자연의 가치를 깨닫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익힐 수 있게 하는 교육 활동을 담은 책이다. 미국의 '웨어링네이처재단' 설립자인 조셉 코넬이 숲에서 할 수 있는, 단순하면서도 구체적인 놀이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1979년 처음 출간되었고, 각 나라에 알맞은 교육 프로그램으로 변형되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네바다시의 '아난다 공동체'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연교육자로 활동 중인 조셉 코넬이 체계화한 학습법 플로러닝(Flow Learning)은 놀이를 통해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자연을 느끼게 하는 학습법이다.

1권에선 50여가지 놀이와 명상 산책법을 소개하고, 2권에서는 1권의 학습법을 더욱 체계화시키고 발전시켜, 플로 러닝에 대한 본격적인 설명과 20여가지 활동을 담았다. 각 놀이마다 성격을 구분해주고, 놀이의 목적, 알맞은 때와 장소, 적당한 참가자 수, 알맞은 나이, 준비물을 간략하게 제시해 놓았다.

## 재미있고 신나는 Magic 마술 과학 실험

영국 어스본 출판부(염인호) / 리빙아트플러스 / 2002년 / 96쪽 / 9,500원

우주선을 띄우는 시대에 과학이란 너무도 멀게만 느껴지기 쉽다. 이런 어려운 과학을 우리 주변의 간단한 실험을 통해 과학의 원리와 성질을 습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 나왔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학 현상을 간단하고 재미있는 실험을 통해 원리와 성질을 알게 하는 책이다.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책 뒤에, 용어 해설과 찾아보기를 실었다. 영국 어스본사의 <Big Book of Experiments>를 번역한 책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1장 '우리 주변의 세계'에는 물의 성질에 관련된 실험이, 2장에는 인체의 5감에 대한 실험이, 3장에는 전기와 자석의 성질에 대한 실험이, 4장에는 싹 틔우기, 곤충 관찰하기 등 생물에 관련된 실험이, 5장에는 빛의 성질에 대한 실험이, 6장이 자유낙하, 평형, 부력 등 힘에 관한 실험을 담았다.

## □ 2학년

### 1. 여러 가지 운동 **물리가 날 미치게 해**

**크리스토프 야르고츠키 외(김영태) / 한승 / 2002년 / 394쪽 / 10,000원**

물리학을 주제로 다룬 400여 개의 퀴즈 혹은 퍼즐을 모아둔 책. 원제목은 <Mad about Physics>로, 번역서 제목인 <물리가 날 미치게 해!>의 뜻이지만, 사실은 '물리가 너무 재미있어 폭 빠졌다'는 뜻이 강할 것이다.

왜 손에 입김을 약하게 불면 따뜻해지고, 강하게 불면 차가워질까? 1Kg의 깃털과 1kg의 철 중 어느 쪽이 더 무거울까? 왜 남극에는 북극보다 8배나 많은 얼음이 있을까? 왜 투수가 새 야구공을 받으면 심하게 비벼떨까? 과학자계의 권위자인 야르고츠키와 포터는 400여 개의 질문과 답을 통해 물리와 일상생활 사이의 관계를 밝혀줌으로써, 누구나 흔히 접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의 변화와 자연현상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준다.

이 책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는 맨눈 물리학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과학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도 흥미롭고 쉽게 접할 수 없는 고난도의 문제와 역설들을 모아 놓음으로써, 강력한 두뇌 운동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관계없이, 한번쯤 도전해 볼 만한 물리 퍼즐의 세계로 안내한다.

### 3. 지구와 별 **빛깔 있는 책들 083 - 신비의 우주**

**조경철 / 대원사 / 1990년 / 232쪽 / 4,800원**

태양계의 각 행성과 여러 별들에 대한 특징을 조명한 책으로, 각 계절별로 보이는 수많은 별자리와 별들의 크기, 모양, 나아가서 수성이나 금성 등의 태양계 가족들에 대한 특징들을 설명한다. 현대에 사는 우리 인간들의 보금자리를 우주 공간 속에도 확장시키려는 천문과학자들의 노력과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신비로운 우주를 보는 과학적인 기구들도 소개하고 있다.

'빛깔 있는 책들 시리즈'에서 과학과 관련 있는 책에는 85-오디오, 94-약이 되는 야생초, 97-한국의 텃새, 98-한국의 철새, 118-고산 식물, 137-야생동물, 175-소나무 등이 있다. 모두들 그림과 함께 주제를 쉽게 설명하고 있다.

### **그림으로 보는 시간의 역사**

**스티븐 호킹 (김동광) / 까지 / 2001년 / 249쪽 / 23,000원**

이 책은 영국의 천체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우주와 물질, 시간과 공간의 역사에 대한 방대한 이야기를 간결한 형태로 담아 일반 학생들도 이해하기 쉽게 만든 우주과학서이다.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및 일반상대성 이론과 양자론을 비롯해서 소립자 물리학, 블랙홀, 초끈 이론 등 현대 물리학의 줄기에 해당하는 중심적인 사상들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볼 수 있다.

호킹의 <시간의 역사>는 우주론, 상대론, 양자역학, 통일 이론 등으로 대변되는 20세기 과학의 전개 과정을 개괄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일반 학생들에게 우주와 시공세계에 대한 보다 넓은 이해를 제공한다.

### 3. 지구와 별 **스페이스 - 우주항단, 우주의 운명, 접촉, 다른 세계들**

**존 그리빈(이명현) / 성우 / 2002년 / 240쪽 / 28,000원**

이 책은 어떻게 천문학자들이 세상을 놀라게 한 발견을 하게 되었는가와 함께 그 발견의 뒷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우주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는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과정, 우주를 향한 최초의 걸음마에서부터 이 우주가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음을 밝힌 최근의 발견에 이르기까지, 저자는 첨단 천체 망원경으로 얻은 완벽한 사진들과 특별한 정성을 들여 제작된 일러스트를 통해 저 깊은 우주의 미개척지를 학생들의 시야에 펼쳐 보여 주고 있다.

3. 지구와 별  
2) 태양계 탐사

외계인은 존재하는가

민영기 / 까치 / 2003년 / 208쪽 / 8,500원

외계 생명체에 대한 의문에 해답을 찾으려는 천문학자들의 노력을 흥미롭게 개괄해놓은 책이다. 이 책에서는 고대의 외계 생명체설로부터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 현재까지의 탐사성과와 현재의 진행상황, 발견의 가능성, UFO, 그리고 그러한 발견이 우리 인류에게 가져다줄 충격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각국이 치열하게 진행 중인 외계 전파 포착노력 등 다양한 탐사방법, 공상과학소설이나 영화 속에 나타나는 외계인과는 달리 과학적으로 추정해보는 외계인의 모습, 또 외계인과 관련되어 벌어진 지구상의 각종 사건사고 등은 호기심 많은 학생들에게 매우 흥미진진할 것이다. 국내외 참고 문헌, 외계 생명체와 관련한 정보를 실은 웹사이트도 소개되어 있다.

NASA, 우주개발의 비밀

토머스 D. 존스, 마이클 벤슨 (재연석) / 아라크네 / 2003년 / 337쪽 / 12,000원

이 책은 나사(NASA)의 수많은 업적과 나사가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보여 준다. 탈냉전 시대에 새로운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나사의 역사와 현재의 모습, 기타 유용한 정보들을 담고 있다. 저자는 우주비행사로 나사에 근무했던 사람으로, 자신이 실제 겪은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우주 여행의 감동과 희열을 전한다.

나사의 역사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이 책은, 현재 나사의 모습을 조망 하며, 나사에서 일하기를(우주비행사 혹은 다른 직종으로)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조언과 격려를 제공한다. 본문 중간 생소한 우주 용어에 관한 설명, 우주 정보, 간단한 우주비행사 전기 등을 삽입해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 책은 우주비행(궤도에 오른, 궤도에 오르지 못한, 인공위성의, 무인의, 유인의)의 총체적인 역사를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다루고 있다. 우주와 인류의 아름다운 만남과 좌절의 순간들이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다.

저랑 우주여행 하실래요

이대택 / 지성사 / 2001년 / 184쪽 / 12,000원

우리 세대 안에 우주로의 여행은 가능할까? 확실하진 않지만 아주 먼 일만은 아니다. 이미 우주를 여행하고 돌아온 민간인이 있는가 하면, 지금의 돈으로 약 1억 원을 내고 우주여행을 하겠다고 예약한 사람이 100여 명이 넘는다고 한다.

우주여행이 멀지 않은 미래의 일이라면 이제부터라도 대비해야 할 것이다. 아니, 꼭 우주여행을 실제로 가지 않더라도 내가 만약 우주여행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는 상상은 즐겁기만 하다.

이 책은 우주여행이라는 흥미진진한 이벤트를 중심으로 떠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준비해야 할 것들, 그리고 우주여행 중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과 우주여행을 마치고 지구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궁금해할 법한 66가지 질문에 대하여 환경생리학을 연구하는 이대택 교수가 친근한 구어체의 문장으로 대담해준다.

3. 지구와 별  
3) 밝은 별과 어두운 별

쉽게 찾는 우리 별자리

이태형 / 현암사 / 1993년 / 336쪽 / 12,000원

밤하늘로 꿈을 찾아 별자리 여행을 떠날 수 있게 한 우리 별자리 안내서이다.

이 책이 갖는 장점은 정밀 별자리만 쉽게 찾기를 원하는 학생부터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 별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학생까지 모두 만족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대부분의 책들이 단순하게 별자리의 모양을 알려주고 그 모양에 따라 찾는 방법을 알려주는 반면, 이 책은 다른 별자리와의 위치 관계까지 안내한다. 또한 우리 나라 밤하늘을 대상으로 우리의 눈에 볼 수 있는 별자리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거기에 덧붙여진 별자리 이름의 유래와 기원의 신화는 학생들의 흥미를 배가시킬 것이다.

별 - 사이언스 어드벤처 1

이언 니콜슨(이중호) / 다림 / 2002년 / 94쪽 / 9,000원

이 책은 천체물리학에 대한 기본 이론들을 바탕으로, 우주 공간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별의 성질과 진화 및 일생을 탐구한 과학교양서이다.

밤하늘의 별과 별자리로 시작해서 과학이 발달하기 이전의 별의 성질과 행동과 의미, 별의 실제 성질과, 거리와 밝기, 온도 및 화학적 조성을 측정하는 방법, 별의 종류 등을 최신 과학이 밝혀낸 정보와 다양한 사진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컬러 삽화와 사진을 곁들여 과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3. 지구와 별  
4) 우리 은하

혜성, 유성, 소행성 - 사이언스 어드벤처 3

존 맨 (이중호) / 다림 / 2002년 / 96쪽 / 9,000원

이 책은 천체물리학에 대한 기본 이론들을 바탕으로, 신비스러운 천체들이 어떻게 생겨나서 진화하고 죽어 가는가를 보여주는 과학 교양서이다.

이 책은 창조의 잔해, 신화가 현실로, 소행성 충돌 등으로 나누어,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천체를 뒤에 숨어 있는 사실이 그러한 사실들을 뒷받침해 주는 자료 사진들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또한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다양한 천체들의 존재를 설명하면서, 이런 천체들의 충돌이 인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알아본다. 컬러 삽화와 사진을 곁들여 과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4. 식물의 구조와 기능

식충 식물의 세계

전익식 외 / 도요새 / 2002년 / 232쪽 / 20,000원

식충 식물 종합 소개서로 식충식물 전반을 다룬 식물도감 성격의 1부와 식충 식물 재배법을 다룬 2부로 나뉜다. 식물의 특성상, 식물학자(전익식)와 곤충학자(김정환)가 공동으로 저술했다. 벌레를 잡아먹는 식물계의 이단자들의 생존경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한국의 식충 식물 자생지를 찾아 전국 방방곡곡을 조사했고, 일본, 보르네오,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국,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등 세계의 밀렵을 탐사한 끝에 나온 산물이다. 북한에 자생하는 것과 몇몇 식물은 일본을 통해 사진 협조를 받았다.

250여 컷에 이르는 생생한 현지 사진(올 컬러)과 생존을 위한 식물들의 갖가지 교묘한 함정들은 시종일관 입이 딱 벌어지게 만든다. 비너스의 파리채-‘파리지옥’, 물 속의 진공청소기-‘통발’, 마약이 든 술병 - ‘벌레잡이통풀’, 식충 식물의 야누스-‘트리피오필름’ 등등 식물이 처놓은 덫과 곤충들의 사투가 흥미롭다. 식충 식물을 직접 길러보고 싶은 이들은 2부를 참고하면 좋다.

4. 식물의 구조와 기능

우리 숲 산채

차윤정 / 용진닷컴 / 2002년 / 278쪽 / 10,000원

이 책은 친근한 언어로 자연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산림학자 차윤정 박사가 월간 『산림』지에 4년간 연재한 글을 토대로 재구성한 글이다. 사람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다 제 몫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저자는 인간만큼이나 고달프지만 건강한 삶을 가꾸어 가는 식물의 생태를 실감나게 전한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에서부터 파헤쳐지고 짓밟힌 땅이지만 그곳에서 희망을 피워 올리고 있는 위대한 생활의 현장, 원시의 기운을 간직하고 있는 장백산의 자연까지 이 땅의 다양하고 역동적인 자연의 모습을 전달한다. 단풍이 아름다운 태백산맥 자락의 계방산, 동백의 붉은 비가 어지럽게 내리는 선운산 등은 우리에게 그저 여행하기 좋은 곳일 뿐이었지만 저자의 눈과 귀와 손을 통해 생생한 자연의 감동이 살아난다.

검은 재 위에서 가녀린 동굴레가 싹을 틔우고 있는 고성 산불현장, 산불로 날려버린 토양을 유지하기 위해서 역세를 이고 살아가는 아픔을 간직한 유명산 역세 밭 등 훼손된 자연의 아픔도 전해져 온다.

숫아라 나무야

임경빈 / 다른세상 / 2001년 / 270쪽 / 15,000원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명예교수 임경빈의 나무 이야기.

이 책은 평생을 나무를 사랑하고, 나무를 연구하며 살아온 지은이가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나무 130종을 선별하여 사진과 함께 짹짹한 설명을 덧붙인 것이다.

1장과 2장에는 나무와 숲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했고, 3장부터 14장까지는 나무들을 성격에 따라 분류하였다. 하지만 딱딱하고 엄밀한 학문적 분류가 아니라, ‘아름다운 가로수’, ‘단풍이 아름다운 나무’, ‘열매를 이용하는 나무’, ‘마을을 지켜주는 당산목’, ‘약이 되는 나무’처럼 인간을 중심에 둔 친숙한 분류들이다.

평소 나무와 숲을 사랑하고, 또 그것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이 책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4. 식물의 구조와 기능

쉽게 찾는 우리 꽃 (봄, 여름, 가을, 겨울)

김태정 / 연암사 / 1994년 / 240쪽 / 12,000원

일년 사계절, 산에 들에 무수히 피어 있는 꽃들을 우리는 볼 수 있다. 그 많은 꽃들의 이름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애기똥풀, 쯤썸바귀, 짚신나물, 노루오줌, 섬말나리라는 이름을 두고 이름 없는 들꽃이라고 뭉뚱그려 부르기에는 예쁜 꽃들에게 미안한 마음마저 든다.

이 책은 우리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산과 들에 핀 꽃의 색깔만 보고도 이름을 찾아볼 수 있게 꾸민 들꽃 핸드북이다. 우리 꽃 880종 1600컷의 사진을 세 권(봄 편, 가을 겨울 편, 여름 편)으로 나누고 계절별, 색깔별로 구분하여 어디서나 꽃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이제, 가방에 이 책을 넣어 다니면서 꽃을 찾아 보자. 분류도 잘 되어 있어 꽃들의 색깔이 흰색이면 흰색 마크를, 빨간색이면 빨간 마크가 붙어 있는 페이지를 찾으시면 된다.

주말에 아이와 손을 잡고, 배낭에 넣고 산에 오르면 참 좋을 책이다.

야생화 일기 - 봄 여름 가을 겨울

송기엽 / 진선 / 2002년 / 180쪽 / 20,000원

21년 동안 산과 들을 밟으며 자연 상태에서 촬영한 꽃 사진 1,500점을 식물 전문 학자들의 도움을 받아 1년 열두 달과 다양한 테마로 분류하여 야생화 도감을 만들었다. 연분홍 한복을 곁에 차려 입은 듯한 3월의 매화에서 눈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1월의 산괴불주머니까지 화사한 야생화 사진이 펼쳐진다.

야생화는 아름답다. 누가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처절한 생존 투쟁을 거쳐 기어오른 꽃을 피워내는 그 강인함이 아름답다. 허기진 인간을 위해 먹거리를 제공하고, 아픈 인간을 위해 약을 제공하기에 더욱 아름답다. 모여서 피도, 바위틈에 위태하게 피도, 이슬방울이 무거워 꽃대를 수그러도 아름답다. 또, 이름은 얼마나 정겨운가. 꽃다지, 금강초롱, 열레지, 모시대, 분홍바늘꽃, 노루귀... 등

열두 달의 꽃달력, 계절에 따른 꽃의 생태, 식용 식물, 약용 식물, 야생화의 열매, 다양한 곳에서 피는 야생화, 야생화에 얽힌 전설, 꽃을 찾아오는 곤충, 향이 짙은 꽃, 울릉도, 백두산, 설악산에 피는 야생화 등 아름답고 설레는 꽃 세상을 보여 준다.

우포늪 - 원시의 자연습지, 그 생태 보고서

강병국, 성낙승 / 지성사 / 2003년 / 152쪽 / 12,000원

우포늪은 우리 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자연 늪이다.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습지보전국제협약(람사협약)에 등록된 세계적인 습지이기도 한 이 지역은 수면의 면적만 약 70만평에 이르며, 드넓은 늪에는 약 1000여종의 생명체가 어울려 살고 있으며, 환경자살가치만 따져보아도 (2001년 기준) 연간 560억 원에 달하는 소중한 우리의 자연유산이다.

이 책은 이러한 경이로운 우포늪이 과연 어떤 곳이며, 이 곳에서는 어떠한 생물이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인간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 왔는지 등 우포늪의 생물학적, 문화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쓴 책으로, 학생들은 다양하고 생생한 사진 자료와 함께 우포늪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5. 자극과 반응

3일만에 읽는 뇌의 신비

야마모토 다이스케(박선우 역) / 서울문화사 / 2002년 / 230쪽 / 8,000원

사랑은 뇌가 만든다. 누군가를 사랑할 때, 확실히 눈은 빛나고 심장은 뛰다. 만나고 싶다고 생각하면 애가 타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것이 더욱더 심장을 두드린다. 격렬한 사랑이나 용납되지 않는 사랑이라면 그 정도는 더 심해서 고통으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지기도 한다. 그것은 명백한 '마음의 세계'이다. 마음의 세계가 뇌에서 나왔다면 사랑은 뇌가 만들어내고 있는 셈이다. -내용 중에서-

이 책은 100점이 넘는 알기 쉬운 삽화와 도표를 통해 뇌의 구조와 기능, 다양한 단련법과 기억력 개발법, 스트레스 해소와 질병 예방법까지, 신비한 뇌의 세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 외에 '3일만에 읽는 ~' 시리즈로 '3일만에 읽는 동무의 수수께끼', '3일만에 읽는 몸의 구조', '3일만에 읽는 유전자'가 있다. 모두들 적절한 삽화와 도표로 주제를 쉽게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6. 지구의 역사와 지각변동

### 공룡 대탐험

**이용남 / 장작과비평사 / 2000년 / 223쪽 / 28,000원**

한국인 최초로 공룡을 전공하여 박사학위를 받은 고생물학자 이용남 박사가 직접 연구한 공룡의 발자취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이 책에서는 공룡의 출현과 진화, 생태와 멸종에 이르기까지 공룡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였고, 공룡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사실, 과장되거나 축소되어 알려진 사실을 하나하나 바로잡았다.

공룡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진화했으며 왜 멸종했는지, 치열한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떻게 싸웠는지, 공룡은 악어나 도마뱀 같은 원시적인 파충류와 어떻게 다른지, 공룡은 왜 그렇게 거대한 몸집으로 자라났는지 등 공룡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준다. 공룡에 관심 있는 중학생이 읽기에 좋은 책이다.

### 난폭한 지구 - Guide to savage Earth

**트레버 데이(자운영) / 예림당 / 2002년 / 64쪽 / 15,000원**

지구의 탄생과 구조는 물론 환경이 파괴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알려주는 책이다. 학생들은 생명을 키우는 온화한 지구와 자연을 파괴하는 난폭한 지구의 두 얼굴을 사진으로 만날 수 있다.

생생한 사진과 삽화, 디지털 이미지가 곁들여진 이 책은 지구의 탄생과 지각 변동, 자연 재해 등을 소상히 다루고 있다. 원시 지구의 모습은 물론 눈사태, 산불, 가뭄 등 자연 재해가 일어나는 원인, 이후 바뀌는 지형, 기후의 변화 등도 설명한다.

특히 재해가 일어났던 당시의 사진과 그 피해 정도를 자세히 실어 추상적으로 느끼기 쉬운 자연의 거대한 힘을 학생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구 온난화와 오존층 파괴 등 인류에 의한 자연 파괴가 가져올 미래의 재앙에 대해서도 경고한다.

### 한반도 30억 년의 비밀 1-3

**유정아 / 푸른숲 / 1998년 / 224쪽 / 12,000원**

이 책은 다양한 시각적 자료를 활용하여 눈으로 보는 책을 지향하였다. 끊임없이 변화해온 지구 역사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 땅 한반도의 지질학적, 생물학적 역사를 보여준다. 제1부 적도의 땅에서는 지구 탄생에 관한 이야기와 생명의 진화, 한반도가 과거 적도 부근의 바다 속에 있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제시하며, 제2부 공룡들의 천국에서는 공룡에 대한 소개와 과거 한반도가 공룡의 천국이었음을 이야기하며, 우리나라 각지의 공룡 흔적들을 안내한다. 제3부 불의 시대에서는 화산활동과 한반도의 관계, 과거 한반도에 화산활동이 활발하였음을 이야기한다.

인문학적으로 우리의 근본을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와 더불어 자연과학적 측면에서 한반도의 지질학적·생물학적 근본을 추적했다는데 의의가 있는 책이다.

## 7. 전기

### 새로운 종의 진화 로보 사피엔스

**페이스탈루 이시오(신상규) / 김영사 / 2002년 / 240쪽 / 24,900원**

첨단 로봇공학이 예언하는 인류의 미래, 그 빛과 그림자를 이야기한 책이다. 로봇공학은 아직 어린 학문이다. 그러나 미래의 문명을 엄청난 방식으로 변화시켜 놓을 분야임에 틀림없다. 이 책에서 다양한 로봇의 발명가들은 자신들의 야망과 기대와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다.

로봇과 로봇공학자들을 보여주는 현장감 넘치는 탁월한 사진들은 매우 생생하여 사람들과 로봇들의 매력적이고도 소름끼치는 면모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 또한 깊이 있으면서도 위트가 넘치는 인터뷰는 독자 자신이 로봇 연구의 현장에서 그들을 만나는 기분에 빠져들게 할뿐만 아니라 로봇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과 호기심을 충족시켜주며,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로봇 전문가들의 심층을 잘 드러내고 있다.

## □ 2학년 공통

전 단원

### 공룡의 세계 - 사이언스 어드벤처 07

**폴 바렛, 라울 마틴 (이용남) / 다림 / 2003년 / 80쪽 / 13,000원**

공룡의 정의부터 공룡의 기원, 화석과 화석 발견지, 발견과 복원 및 공룡의 식습성과 행동에 이르기까지 공룡에 관한 많은 정보가 과학적 근거 자료들을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쉽게 정리되어 있다. 그리고 후반부에는 '한반도 공룡'에 대한 정보를 담아 국내에서 발견된 공룡 발자국 등의 발굴 자료와 현재 진행 중인 한국 공룡 연구의 진행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최근 공룡학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쏟고 있는 '공룡과 새의 진화 관계' 등 아직 연구 조사중인 학설도 중요하게 다루는 등 학술적 가치도 높은 책이다.

한편 공룡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가치 있게 해주는 것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사의 명성 높은 그림 자료이다. 철저하게 고증된 공룡의 그림은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유발시켜 줄 것이다.

### 과학사 속의 대논쟁 10

**앨 엘먼(이중호) / 가람기획 / 2000년 / 345쪽 / 10,000원**

이 책은 근대 과학의 형성기에서 비교적 최근에 이르기까지 과학 이론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중요한 논쟁과 그 전후배경을 재미있게 서술하고 있다. 과학은 진리라는 목표를 향한 거룩한 '행진'이 아니라 감정을 가진 인간들의 이해 관계, 갈등, 그리고 슬한 시행 착오를 거쳐 이루어진 '역사적 과정'임을 보여준다.

7세기부터 20세기 사이에 벌어진 가장 격렬하고도 흥미로웠던 열 가지 논쟁을 밝힌 책으로 이론과 사상의 대충돌뿐만 아니라, 대상이 되었던 인물들의 개인적인 성격과 다채로운 삶까지 곁들면서 과학사와 함께 시대정신까지 펼쳐 보인다.

이를 통해 엘먼은, 과학의 분쟁이 단지 순수한 지적 견해의 불일치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편에 미묘하고 노골적인 신념이나 가치 문제가 대립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종종 비타협적인 태도, 야심, 시기, 정치, 그리고 옳은 편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충동이 자리하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 과학을 잘 하는 아이가 되는 법

**우지 미치코(정은경) / 꼭사요 / 2002년 / 324쪽 / 10,000원**

모든 부모들은 아이들이 과학 공부를 잘 했으면 한다. 그런데 막상 과학에 접근하려면 그 방법을 몰라 힘들어한다.

이 책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1,2학년의 과학 교과 내용을 담은 책으로 그런 부모들의 조바심을 시원하게 풀어준다. 일상 생활에 적용된 과학적 원리를 실험과 설명을 통해 차근차근 보여준다. 실험은 모두 집에서 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어려운 과학 용어에 대해서는 단어 풀이를 달아 이해를 도왔다.

과학을 잘할 수 있는 비결과 자녀들이 과학에 흥미를 갖게 하는 방법 등이 소개되고, 태양과 달, 우주, 날씨, 물, 교통수단, 빛, 소리, 힘, 자석, 전기 등 다양한 영역을 폭넓게 다루었다. 부록으로 노트 정리법을 수록해, 과학 교과 학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전 단원

### 과학의 발견 - 옥스퍼드 주니어 사이언스

**찰스 테일러, (김동광) / 비투스 / 2001년 / 192쪽 / 20,000원**

영국 옥스퍼드 대학이 학생용으로 내놓은 백과사전식 과학 입문서이다. 큼직하고 많은 사진과 그래픽이 시선을 끌며, 각 단원은 수많은 짧은 단락들로 구성돼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해준다.

이 책은 실험과 수식을 늘어놓는 것만이 과학이 아니라, 때로는 쉬운 비유로, 때로는 멋진 그림으로 우리 주변의 현상을 설명해 주는 것이 훨씬 유익한 과학 체험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진공청소기의 원리는 무엇일까? 전자레인지는 어떻게 음식을 데울까? 파충류는 왜 체온이 낮을까? 복잡하고 다양한 우리의 세상, 그러나 알고 보면 아주 규칙적이고 단순한 과학 원리들이 그 복잡한 세상을 이끌어 가는 것임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준다. 작은 원자에서 지구보다 큰 태양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 속에 숨겨진 과학 원리들을 하나하나 살피고 있다.

## 과학의 역사

**존파인(이중호) / 사계절 / 2002년 / 358쪽 / 9,800원**

과학자가 없던 시절, 원시 인류의 탄생을 기원으로 문명의 시작과 함께 발달하게 된 천문학, 의학, 생명과학, 기술 분야의 시대상을 반영한 획기적이고 놀라운 사실들을 통해 과학의 역사가 세워진다.

사랑에 빠진 헝가리 사내가 지나가던 매머드의 앞니를 채찍으로 부러뜨린 것을 팔찌로 조각하여 여자 친구에게 주었던 것이 인류 최초의 장신구였음을 우리는 알았다. 시간만 나면 적혈구 수를 세어 본 비로트가 빈혈증을 진단하는데 기여한 것도, 삼푸가 영국에서 개발되었고, 힌두어인 참포(champo : 주무르다)에서 유래했다는 것도 우연히, 아니면 근원도 모른 채 떠도는 입담의 소재가 되어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 책은 과학과 발명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우리 삶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실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려운 단어는 해석을 달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록에는 1991년에서 2001년까지 최근 10년 간의 인류학, 천문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 과학, 기술 분야의 과학적 성과가 기록되어 있다.

## 과학의 즐거움

**알베르 자카르(장석훈) / 궁리 / 2002년 / 212쪽 / 8,000원**

<과학의 즐거움>을 읽다보면 절로 떠오르는 풍경이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선정 2002년 3월 이 달의 입을 만한 책, 45차 청소년 권장도서로 뽑힌 책이기도 한다.

크게 5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책은 아이들과의 대화를 통해 나온 질문에 대해 지은이가 대답하는 3~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에는 많은 질문들이 나온다. “어떻게 아무 것도 없는 것에서 어떤 현상이 생겨날 수 있나요?”, “왜 각기 다른 인종이 존재하나요?”, “왜 남자와 여자가 있나요?” “여자만 있다면, 정말 좋을까요?”... 지은이는 이 모든 질문에 답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꼼꼼하게 나름의 답을 말해주는 지은이의 모습에서 참과학과, 참교육의 실체를 짐작하게 한다

## 과학이 세계관을 바꾼다

**이인식 / 푸른나무 / 2000년 / 286쪽 / 10,000원**

과학은 끊임없이 인간의 삶을 변화시켜 왔지만, 막상 우리는 놀라운 과학의 성과에 대해 다른 세계의 이야기라고 흘려 버리거나 어려운 용어들에 막혀 흥미를 잃곤 한다. 국내 각 분야의 전문가 15명이 쓴 글을 묶은 이 책은 난해한 과학 기술의 원리나 개념을 분야별로 쉽게 풀어내어 그 쪽 세계로 들어가는 문턱을 낮춘 책이다. 그렇다고 단순히 개념을 정리한 수준에 머물지 않고 개별 이론들이 어떤 뜻을 지니는지, 우리의 세계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구체적인 보기를 들어 보여 주고 있다.

이 책은 현대 과학의 핵심적인 이슈 15 개를 ‘과학의 수수께끼’, ‘핵심 기술’, ‘사람과 지구’ 등 3개장으로 나누고 있으며 각각은 분야 최고의 전문가에 의해 집필되었다. 여기에는 우주의 탄생인 빅뱅에서부터 생명 탄생의 비밀, 외계 생명체, 컴퓨터와 로봇, 유전자 연구, 환경 과학에 이르기까지 흥미진진한 주제들이 포진하고 있다.

전 단원

## 과학자를 꿈꾸는 젊은이에게

**라몬 이 카탈(김성준) / 지식의 동경 / 2002년 / 272쪽 / 8,000원**

노벨상을 수상한 저명한 과학자가 후배 과학도들에게 띄우는 잔잔한 독백. 자신의 삶에 대한 무한한 긍지와 후배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지은이는 ‘과학자로 산다는 것’에 대해 알고 싶은 모든 것을 경험을 바탕으로 가감 없이 설명한다. 과학자가 갖추어야 할 지적인 덕목은 물론이고, 논문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외국어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돈이 없는 가난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과학 연구를 할 수 있는지, 결혼 생활과 과학 연구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지, 성공적인 과학자가 되고 나면 어떻게 제자를 지도해야 하는지 등 과학 활동, 생활 전반에 대한 충고와 구체적인 조언을 소개한다. 과학자로서 얻을 수 있는 희열 뿐 아니라 포기해야 할 부분도 있는 그대로 말해준다.

이 책은 누구나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주는 멋진 책이다. 가끔 보이는 조국 에스파냐에 대한 자부심이 보기 좋다.

## 구름을 만들어보세요, 삶의 방식으로서의 물리학에 대한 또 다른 생각

K. C. 콜(이중호) / 애냅출판사 / 2003년 / 279쪽 / 12,000원

삶의 방식으로서의 물리학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보여주는 책이다. 인간의 삶과 우주의 리듬을 통찰하는 물리학자의 명쾌한 시선으로, 이 책은 상대성 이론과 양자론의 파도를 타고 시간과 공간에서부터 에너지와 물질에 이르기까지 일상과 우주를 움직이는 물질 세계에 대한 흥미로운 탐색을 시도한다.

‘구름을 만들어보세요’라는 제목이 보여주듯이 이 책은 학생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무심히 지나치는 자연의 기적에 주목하게 만든다. 이 세계를 완전히 이해하고 통제할 지식을 꿈꾸면서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배워나가기에 그치지 않는 과학자들의 건전한 사고방식이야말로 이 책이 주는 또 다른 교훈이다.

## 밤하늘이 어두운 이유 (과학동아 Q&amp;A 시리즈 2)

과학동아 편집실 (신광택) / 상우 / 2003년 / 206쪽 / 13,000원

10년 간 월간 과학동아에 축적된 Q&A를 선별하여 인체, 우주 지구 환경, 주변 사물, 동식물, 과학 일반 다섯 가지 주제로 분류한 과학동아 Q&A 시리즈 전 5권 중 2권으로, 우주, 지구, 환경 영역을 다룬 책이다.

‘지구가 자전할 때 소리가 날까?’ ‘우주복 없이 우주에 나가면 어떻게 될까?’ ‘밤하늘은 왜 깜깜하지?’ 등 이 책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막연하면서도 환상적인 우주의 수많은 별들에 대한 재미있는 질문과 명쾌한 답변을 Q&A의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이 책은 우주의 신비와 함께 우주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제인구달 - 침팬지를 사랑한 동물학자

서경석 / 사외평론 / 2002년 / 134쪽 / 7,000원

1935년 엔지니어인 아버지와 작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제인 구달의 일대기를 만화로 엮었다. 제인 구달이 직접 화자가 되어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침팬지 연구에 헌신한 자신의 일생을 시간순서대로 담담하게 이야기해 준다.

<타잔>, <돌리틀 선생 이야기>, <정글북>을 읽으면서 동물 연구의 꿈을 키워가던 제인은 1952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7년 여름, ‘케냐 케슬’ 호를 타고, 아프리카로 떠난다. 코린돈 자연사박물관(현 케냐 국립박물관)에 있던 인류학자이자 고생물학자인 루이스 리키 박사를 만난 제인은 침팬지 연구라는 미지의 영역으로 긴 탐구를 시작한다.

편견이나 일반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침팬지 무리 속에 들어가 그들의 친구가 된 제인은 기존 학계를 뒤집는 획기적인 발견을 하나씩 발표하며 연구가로의 경력을 쌓아 나간다. 단지 학자에만 머물지 않고 제인은 침팬지와 자연 환경 보호에도 앞장서면서 자신의 지식을 사회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 재미있고 신나는 Magic 마술 과학 실험

영국 어스본 출판부(염인호) / 리빙아트플러스 / 2002년 / 96쪽 / 9,500원

우주선을 띄우는 시대에 과학이란 너무도 멀게만 느껴지기 쉽다. 이런 어려운 과학을 우리 주변의 간단한 실험을 통해 과학의 원리와 성질을 습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 나왔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과학 현상을 간단하고 재미있는 실험을 통해 원리와 성질을 알게 하는 책이다.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책 뒤에, 용어 해설과 찾아보기를 실었다. 영국 어스본사의 <Big Book of Experiments>를 번역한 책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 책의 1장에는 ‘우리 주변의 세계’에는 물의 성질에 관련된 실험이, 2장에는 인체의 5감에 대한 실험이, 3장에는 전기와 자석의 성질에 대한 실험이, 4장에는 싹 틔우기, 곤충 관찰하기 등 생물에 관련된 실험이, 5장에는 빛의 성질에 대한 실험이, 6장에는 자유낙하, 평형, 부력 등 힘에 관한 실험을 담았다.

## 조지 가모브 - 창세기의 비밀을 알아낸 물리학자

조지 가모브(김동광) / 사이언스북스 / 2000년 / 269쪽 / 9,000원

<미지의 세계로의 여행>이나 <물리학을 뒤흔든 30년>과 같은 전파과학사의 포켓용 과학 대중서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조지 가모브의 이름을 알고 있을 것이다. 혹은 물리학 수업 중에 이름을 들어본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 이 책은 이러한 조지 가모브의 자서전이다.

가모브는 러시아 태생의 물리학자로 이후 미국으로 망명하고 계속 연구생활을 한 학자이다. 가모브는 천체물리학의 연구에서 빅뱅이론을 확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을 통해서 단지 가모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가모브가 물리학을 공부하던 당시와 연구 하던 시기의 물리학계의 상황도 함께 알 수 있어 흥미롭다. 레닌그라드에서의 대학 생활과 '악명 높은' 소비에트의 리센코주의가 횡행하던 스탈린 시대의 학문의 발전을 억압하던 분위기, 영국, 프랑스와 덴마크 등에서의 연구와 물리학자들과의 친분, 미국에 와서 핵폭탄 실험에 참가하게 되는 이야기, 대중용 과학서를 활발하게 저술하던 이야기 등은, 각기 다른, 풍부하고 흥미로운 사실들을 보여준다.

## 지구에서 사라진 동물들

프로젝트 팀(한상훈) / 도요새 / 2002년 / 328쪽 / 12,000원

지구상에서 멸종된 동물 91종의 이야기를 담은 책. 멸종 이유가 비슷한 동물끼리 나누어 총 8장에 걸쳐 소개했다. 한 동물당 4쪽 ~ 6쪽 정도로 지면을 할애했고, 동물 삽화를 그려 넣어 실제 모습을 짐작하게 했다. 영어명과 학명, 분류, 절멸년도, 분포 지역 등의 상세 정보를 제공한다.

멸종된 동물들이므로 사진은 없고 그림이 전부이다. 이들 동물들 중 대부분은 계획적인 사냥으로 멸종 위기를 맞았다. 또는 뚜렷한 이유 없이 인간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아니면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는 모호한 이유 때문에 동물들은 사라져 갔다.

이 책의 효용은 예전에 이런 동물이 있었다는 지식을 주는 데 있지 않고,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을 보호하고 가꿔야겠다는 자각을 심어주는 데 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를 보더라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이다.

## 첨단 기기들은 어떻게 작동되는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김미화 외) / 서울문화사 / 2001년 / 288쪽 / 29,800원

요즘 학생들은 수많은 기계와 기술 문명 속에 살아간다. 교통 수단인 자동차나 전철도 기계이고, 컴퓨터와 인터넷도 기계 문명의 결정체이다. 아무 불편함이 없이 사용하고는 있지만, 가끔 학생들은 이런 의문이 느낄 때도 있을 법하다. "도대체 이 물건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것일까?" 이 책은 그런 물음에 대한 대답을 제공해 준다. 미국의 저명한 과학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 실렸던 'Working Knowledge'라는 연재물을 책으로 펴낸 것이다.

과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중고생에서부터 도대체 디지털카메라는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궁금한 사람에게까지 골고루 유익하다. 아주 전문적인 지식보다는 원리 위주로, 그러나 정확하게, 고급 일러스트로 보여주며 설명하고 있다.

##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과학상식 148가지

박창수 / 인화 / 2001년 / 280쪽 / 8,500원

세 번째로 나온 청소년 눈술 필독서 시리즈이다.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성공한다는 말이 있듯이 궁금한 것을 알고 싶어하고 알기 위해 탐색하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 책은 우주 공간에서, 또 생활에서 평소에 지녔던 많은 궁금증을 풀어주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이미 알려진 과학 상식을 보다 재미있고 알기 쉽게 풀어썼다.

이 책은 구성이 간결하게 잘 되어 있다. 우주에 관한 내용, 생활 속의 과학에 대한 내용, 동물과 생물의 신비한 세계에 관한 내용, 상식 아닌 지식에 관한 내용, 발명가들에 관한 내용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어서 관심 분야에 따라서 책의 어느 부분에서라도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점이 좋다.

이 책은 인물에 관한 책을 좋아하는 분들도 읽어보면 좋을 것이다. 책의 부록으로 실려 있는 유명 발명가들에 관한 이야기는 책을 읽는 또 하나의 특별한 재미가 될 것이다.

# 기술 · 가정

## ■ 1학년

- 1. 나의 가족의 이해
- 2. 성과 이성교제

### 새로운 종의 진화 로보 사피엔스

페이스 달루이시오 (신상규) / 김영사 / 2002년 / 239쪽 / 24,900원

이 책은 백 대 이상의 로봇들에 대한 현장감 넘치는 생생한 사진들과 함께, 로봇공학 개척자들과의 광범위한 인터뷰, 로봇 프로젝트 막후의 일화들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현장 노트”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로봇들에 대한 기술적인 데이터까지 망라하고 있다. 로봇 비전문가는 물론 전문가들에게도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로봇공학분야의 대표적인 대중서라 할 수 있다.

### 생리야 놀자

다카하시 유이코(김규) / 북뱅크 / 2002년 / 120쪽 / 6,500원

이 책은 생리용품에 대한 얘기는 물론이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 생리통, 또 갑자기 생길 수 있는 뜻밖의 일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아주 자세히 다루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되는 차나, 월경 때문에 몸에서 빠져나간 철분을 보충할 수 있는 음식도 소개해 놓았다. 글쓴이 스스로가 월경 때문에 안 해 본 고생이 없다면 그 때의 경험을 살려 쓴 책인 만큼, 이제 막 월경을 시작한 동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생명공학이란 무엇인가

에릭 그레이스(싸이제닉 생명공학연구소) / 지성사 / 2002년 / 237쪽 / 8,000원

생명공학은 학생들에게 상상력을 자극하는 소재가 될 수는 있지만 화젯거리가 되기에는 쉽지 않은 주제이다. 희망과 공포, 혼돈과 규명, 흥분과 경고를 일으키는, 생명공학을 둘러싼 수많은 담론들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무지하다. 이 책은 바로 그 점을 충족 시켜 줄 수 있을 만한 '괜찮은 생명 공학 입문서'이다.

이 책은 학생들에게 생명공학이란 무엇이고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를 함축하는지를 알기 쉽게 풀어 간다.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전후 관계를 구성함으로써 세포의 발견이래 성취된 초기의 과학적 발전과 생명공학의 연속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생명공학을 둘러싼 생태학적, 경제적, 사회적 쟁점들을 두려움 없이 거론함으로써 독자의 판단을 존중하고 있다.

### 우리가 성에 관해 너무나 몰랐던 일들

김성애 외 / 또 하나의 문화 / 2000년 / 222쪽 / 7,800원

이 책에서는 청소년들이 적어 놓은 성폭력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단 한순간의 사건 이후, 또는 지속적으로 성폭력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동안 어떠한 성폭력 후유증을 경험하고 또 어떻게 견디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성폭력이 없는 사회를 위한 제언을 한다. 이 책은 중학교 기술과 정과목의 나와 가족의 이해, 성과이성의 관계 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다.

- 1. 나의 가족의 이해
- 2. 성과 이성교제

### 아름답고 건강하게 사춘기 보내기

조성준 / 우석 / 2002년 / 262쪽 / 7,500원

청소년 성 의학 카운슬링 도서이다. 요즘의 신세대들은 육체 면에서는 기성세대의 체력을 능가할 만큼 건강해지고 신장도 보다 키졌다. 반면 그 몸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의식은 예전의 그 나이 또래보다 못한 경우도 있다. 사고방식이 직선적이고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지에 대한 우려도 없이 당장 치솟는 기분부터 풀고 보자는 식의 청소년들. 그들의 성 문제는 무조건 쉬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오늘의 실상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과연 내일이라는 장래를 어떤 식으로 살아야 옳은 것인가를 보여 주어야 한다. 중학교 기술과정과목의 나와 가족의 이해, 청소년의 성과 우정 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책이다.

### 맞춤 인간이 오고 있다.

사이언티픽 아메리칸(황연숙 외) / 2000년 / 궁리 / 251쪽 / 10,000원

최첨단 생명과학과 전자공학을 토대로 생체공학이 무한질주하고 있는 시대. 똑같은 유전자를 지닌 '나 아닌 나'가 탄생하는 인간복제는 각종 인공 장기를 주문 생산하는 시대로 나가고 있다. 미래의 신세계를 인공응용에 초점을 맞춰 사진과 함께 들려주는 책이다.

필자들은 10년 안에 인공자궁, 대체심장과 간 등 인공장기가 활용되고, 시청각에 후각과 촉각을 덧붙이는 가상현실이 실현될 것이라고 예측한다. 또 현재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책을 통하여 학생들은 미래의 생체공학에 대해 상상해 볼 수 있는 기회와 다가올 생물학과 기술의 융합이 암시하는 바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 1. 나의 가족의 이해
- 3. 나와 가족관계

### 딸 이렇게 키워라

바바라 마코프(오숙희) / 가이미디어 / 1998년 / 319쪽 / 7,500원

딸을 키우면서 무심코 지나쳐버린 것들, 알지 못해 넘어가 버린 것들을 실생활의 예를 들어 이야기하고 그것에 대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작가는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말처럼 우리들의 고정 관념, 선입견, 사회 인식, 문화, 사회 제도들이 우리의 딸들을 '여성'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나아가 딸을 키우는 데 필요한 전략 7가지를 소개하고 있어 딸을 가진 부모님들은 물론이고 이 땅에서 딸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이다. 중학교 기술과정과목의 나와 가족의 이해, 나와 가족관계 부문에 활용할 수 있는 책이다.

- III. 미래의 기술
- 2. 생명기술과 재배

### 원예도감

사토우지아이(김장원) / 진선 / 1999년 / 376쪽 / 9,000원

이 책은 씨뿌리기에서부터 잼 만들기까지 꽃과 채소를 가꾸는 방법을 소개한 원예백과. 미니 꽃밭, 베란다, 과일이 익는 뜰, 허브 정원, 새가 찾아오는 뜰 등 여러 가지 정원을 소개하고, 원예에 필요한 각종 도구, 뜰 만들기의 실제와 원예 식물도감까지를 그림과 함께 정리했다.

원예를 실행하는데 빠짐 없는 내용을 제시해주면서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무난하게 원예의 지식과 가정에서의 원예생활을 하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쓰여진 책이다.

### 원예와 함께하는 생활

서정남 외 / 부민문화사 / 2002년 / 246쪽 / 15,000원

생활 속에 원예가 무엇인지를 상세히 알 수 있는 좋은책으로 흔히 이론중심으로 된 책에 비해 이 책은 생활원예를 알려는 사람에게 그림으로 각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줌으로써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생활속에서 원예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무엇보다 풍부한 사진자료를 많이 실어 이해를 돕도록 한 것이 다른 종류의 책과 다르다. 생활원예 관심 있는 학생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 책은 중학교 기술과정과목의 미래의 기술, 생명기술과 작물 재배 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다.

IV. 제도의 기초  
2. 도면 읽기와  
그리기

하늘 아래 도시, 땅 위의 건축 1-2

김정동 / 가림기획 / 1998년 / 374쪽 / 13,000원

이 책은 목원대 건축학과 교수이자 문화계 전문위원인 김정동 교수가 동, 서양의 도시와 건축들을 기행하며 그 속에서 우리의 근대사를 파헤쳐 본 세계건축문화 기행서이다. 총 33편의 세계도시건축 기행을 통해 저자는 남의 나라, 남의 얘기가 아닌, 세계의 건축기행에 우리와의 연관성을 부여하여 그 속에서 우리의 발자취를 발견해내려는 노력을 이 책에서 보여준다.

이 책은 단순히 세계의 유명한 도시와 건축에 대해 나열하듯이 설명해놓은 책이 아니다. 학생들은 이 책을 통해 도시와 건축에 얽힌 역사적인 배경과 더불어, 그 속에서 세계의 역사와 함께 해온 우리의 근대사를 찾아내고, 이를 우리의 반성으로 이끌어 내는 등 다양한 각도의 읽을거리를 제공받을 것이다.

가족생활과 주거  
주거와 공간 활용

가구 커버링 (싫증난 가구를 새롭게 바꿔주는)

김성희 / 시공사 / 2002년 / 188쪽 / 13,500원

사람들은 보통 계절이 바뀔 때 인테리어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막상 인테리어를 하려고 하니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책에서는 누구나 쉽게 집안의 인테리어를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을 쉽게 알려주고 있다. 산뜻한 톨러의 원단으로 커버링 만들기, 코너에 있는 콘솔, 다이닝 룸의 식탁과 의자, 소파 커버링까지 집안의 모든 가구와 소품에 맞는 커버링을 만드는 방법이 도면으로 자세히 나와있다. 굳이 공사를 하고 새 가구를 구입하지 않아도 천 한 장이 만들어 주는 공간변화 느낌을 이 책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중학교 기술가정과목의 가족생활과 주거, 주거와 공간활용에 활용할 수 있는 책이다.

전기 전자기술  
가전기기의 이용  
및 점검

리모콘은 기계를 어떻게 작동시킬까요?

한국과학문화재단 / 미래M&B / 2002년 / 235쪽 / 15,000원

이 책은 일상 생활에서 언제나 만나게 되는 가정 기기와 통신, 교통 기기, 그리고 첨단 과학의 결정체를 이루는 우주 과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멀리 떨어져서도 기계를 작동시키는 리모컨, 빛을 가두어 정보를 전달하는 광섬유, 자석의 원리로 달리는 자기 부상 열차,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 인공위성 등 늘 사용하거나 보아왔지만 잘 알지 못했던 첨단 기기들의 원리를 밝힘으로써 학생들의 기술원리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학생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과학적 현상들을 풍부한 사진 자료와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다. 중학교 기술가정과목의 전기·전자기술 및 가전기기의 이용과 점검 부문에 활용할 수 있는 책이다.

산업과 진로  
산업의 이해

세계가 놀란 한국핵심 산업기술

서정옥 외 / 김영사 / 2002년 / 244쪽 / 12,900원

학생들은 이 책을 통해 지난 반세기 동안 눈부신 성공의 신화를 이룬 우리 핵심산업 4강의 생생한 성장 발전사를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과 좌절의 사례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아울러 기술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우리의 성장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기술 선진국 진입을 위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IMF의 국가적 난관을 헤쳐온 우리에게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은 미래의 풍요를 보장하는 단초에 다름 아니다. 산업기술의 발전사를 이해하고 논의의 장으로 끌어내는 일은 이러한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단히 기초적인 작업에 해당된다. 또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향유하고 있는 21세기 첨단기술들의 숨은 발전사를 읽는 일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대의 기술적 변동을 감지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어떤 방식으로 좌우하는지 살펴볼 수 있게 한다.



## 첫눈에 반한 공과대학- n세대를 위하여

공대교수 45명 / 김영사 / 2000년 / 355쪽 / 8,900원

이 책은 연세대학교 공대 교수 45인의 글을 모아 엮은 것으로 저자들이 자신들의 진로를 선택하게 되는 다양하고 힘들었던 과정을 진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들은 자신의 장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각자의 경험을 대학, 대학원, 유학 등의 진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진솔하게 들려주고 있다. 특히 필자들이 모두 개인 이메일을 공개, 전공 문의 혹은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문을 두드리게 했다.

이 책은 공대 진학을 꿈꾸는 고등학생들과 이제 갓 공대에서 공부를 시작한 학생들에게 디지털정보화 시대의 공학인들의 삶과 미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기술자가 되는 길

강명한 / 정우사 / 1993년 / 282쪽 / 3,500원

이 책은 공업계 고등학교 진학을 목표로 하는 중3 학생들이나, 공업계 고등학교 신입생, 그리고 공과 대학 내의 각종 학과 진학을 목표로 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읽으면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제목은 통해서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지은이는 '기능인'과 '기술자'가 어떻게 다른지, 단순 기능인을 벗어나 배운 기술을 응용하고 새로운 기술을 창조할 수 있는 진정한 '기술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설명해 놓았다. 또한 지은이는 영도가 좁고 부존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기술력 배양에 있음을 역설하면서, 기능인이나 예비 공학도들이 나아가야 할 길과 구체적 방안들을 매우 알기 쉽게 제시해 놓았다. 중학교 기술과정과목의 산업과 진로, 일과 직업의 세계 부문에 활용할 수 있는 책이다.

## 세계의 음식 문화

원용희 / 자작나무 / 1999년 / 350쪽 / 9,500원

이 책은 한국의 정갈한 밥상에서 프랑스의 요리예술, 능률을 먹는 미국식탁, 아프리카 케냐의 원시 먹거리까지 세계 43개국의 음식문화를 망라 소개한 책. 다양한 먹거리와 음식에 담긴 의미, 음식을 먹는 독특한 방법 등 이 흥미롭게 담겨 있다.

음식과 문화를 이해하는 좋은 자료이며, 세계를 폭넓게 하나로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다.

## 아이들 두뇌는 식탁이 결정한다

유태중 / 아카데미북 / 2000년 / 312쪽 / 9,000원

뇌세포를 깨우는 열쇠는 바로 식탁 위에 있다. 아이들의 영양불량은 두뇌의 기능을 저하시키며, 만 3세가 되면 모든 가능성의 터가 결정된다. 이 책에는 뇌를 청소하는 식생활 프로그램에서 엄마의 모유관리법까지 아이의 두뇌개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과학적인 분석자료를 토대로 수록하고 있다. 학생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식생활과 관련한 과학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365일 맛있는 식단&반찬

편집부 / 서울문화사 / 2000년 / 300쪽 / 12,000원

학생들이 중학교 기술가정시간에 배운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 365일, 날마다 새롭고 맛있는 상차림을 준비할 수 있는 12달 알뜰 식단 & 별미 반찬 477가지가 소개되어 있는 요리책. 요리마다 조리시간과 칼로리를 소개해 가족에게 맞는 식단을 짤 수 있다. 가사실습 때 하지 못한 여러 음식들을 책을 통하여 만들 수 있고 과학적으로 조리 실습을 할 수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중학교 기술가정과목의 가족의 식사 관리, 식단작성과 식품선택에 활용할 수 있는 책이다.

가족의 식사 관리  
식단 작성과 식단  
선택

### 우리가 알아야 할 음식 상식 백가지

한영실 / 현암사 / 1999년 / 261쪽 / 7,000원

생활 속에서 접하는 갖가지 음식에 대한 궁금증, 음식과 건강과의 관계를 알기 쉽게 풀이한 책이다. 물에 밥을 말아먹으면 속 버린다. 아침에 사과 한 개면 의사가 온다, 뽕밥집에 가면 상추쌈을 많이 먹고 나면 졸리는 이유 늘 먹는 음식이 우리 몸에 어떤 작용을 하고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9장으로 나눠 정리했다 이 책을 통해 학생들이 올바른 식생활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보탬이 되리라 생각된다.

### 헬렌 니어링의 소박한 밥상

헬렌 니어링(궁병희) / 디자인하우스 / 2001년 / 284쪽 / 8,500원

스코트 니어링의 아내이자 유명한 자연주의자로 널리 소개된 헬렌 니어링이 말년에 조화로운 삶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상하게 쓴 '요리 없는 요리책'이다.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자급자족하며 자본주의 사회에 적극 대항하여 자연 친화적인 삶의 모범을 보여준 니어링 부부의 이야기를 통해, 그 오랜 세월 동안 니어링 부부의 육체와 정신을 건강하게 살려 준 조화로운 음식의 참모습을 접하게 된다. 더불어 요리와 음식에 대한 헬렌 니어링의 독특한 철학을 접할 수 있다.

이 책에서 우리는 허가 아닌 우리의 몸, 나아가 몸뿐 아니라 우리의 정신 또한 배불리 먹이는 '진짜 음식'을 만나게 된다. 먹을거리가 지나치게 넘쳐나는 오늘날, 먹는 행위에 대한 헬렌 니어링의 철학은 우리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미각을 일깨워 줄 것이다.

가족생활과 주거  
주거와 공간 활용

### 건축이 건들건들

마이클 콕스(오은숙) / 김영사 / 1999년 / 154쪽 / 3,900원

많은 사람들은 유명한 깜짝 놀랄 건물들에 대해 잘 안다. 텔레비전이나 관광 기념 티셔츠, 수건 등에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건물이 아주 유명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까지가 힘들다. 깜짝 놀랄 건물들에 관해 좀더 알아보고 싶을 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즉,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생겨났을까? / 누가 생각해 냈을까? / 어떻게 지어졌을까? /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 / 어떻게 그런 생김새를 하게 되었을까? 세계의 깜짝 놀랄 건물을 모두 돌아볼 수는 없다. 이 책을 통하여 학생은 깜짝 놀랄 건물들을 돌아보는 초고속 여행을 눈 깜짝할 새에 떠날 수 있다. 중학교 기술과정과목의 가족 생활과 주거, 주거와 공간활용 부문에서 활용할 수 있다.

전자 전기기술  
전기회로와 조영

###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이야기

존 니콜슨 / 창조문화 / 2001년 / 104쪽 / 7,000원

이 책은 환경을 생각하는 교양과학서. 세계 학생들이 함께 읽고, 실천하는 환경 교과서. 우리가 편하게 살면 살수록 자연은 오염되고 파괴되어, 결국 우리들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에너지의 생산 방법을 비롯해 에너지의 역사, 에너지 소비량과 그 영향에 이르기까지를 비롯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방법들을 소개했다

이 책을 통하여 학생들의 에너지에 대한 지식뿐 아니라 에너지를 소중하게 아끼는 마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전자 전기기술  
가전기기의 이용 및  
점검

### 첨단기기들은 어떻게 작동 되는가

사이언티픽 아메리카(김미화 외) / 서울문화사 / 2001년 / 288쪽 / 29,800원

위성, 우주선, 지하철, 하수 설비, 인터넷, 전자 현미경 등 우리 생활을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 주는 최첨단 시스템과 장치들을 두루 다룬 유익한 정보서이다. 차근차근 책을 따라 읽다보면 에스컬레이터 계단 속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컴퓨터 하드웨어의 구조는 어떤지, 휴먼 게놈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는 등 너무 어렵고 복잡해 보였던 첨단 기기 및 기술들이 간단 명쾌한 해설에 3-D 입체 도해와 그림, 상세한 해부도와 생생한 컬러 사진을 통해 한눈에 파악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 □ 2학년

- 1. 생활기술
- 2. 기계의 이해

### 원리가 보인다(기술여행)

민창기 외 / 벽호 / 1999년 / 240쪽 / 6,500원

물이 나오도록 하는 수도꼭지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는 어떻게 작동되는가? 전기밥솥의 원리는 무엇일까? 등 이 책은 현재 우리나라 기술교육과정에 포함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기술 여행을 쉽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서술하였다. 또한 그 밑바탕을 이루는 원리와 개념의 이해를 돕도록 되어있으며 기술에 좀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친근하게 소개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 책을 통하여 현대사회에서 살며 부딪히는 일상 생활 속에서 만나는 기술의 밑바탕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를 생각 할 수 있고, 생각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자동차 과학

전 창 / 이카데미서적 / 1999년 / 267쪽 / 12,000원

이 책은 자동차의 어제와 오늘을 비롯해 동력 발생장치인 엔진과 배기 기관, 동력전달장치와 변속기, 타이어와 제동장치, 자동차 안전 백과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의 모든 것을 컬러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미래의 자동차를 소개했다.

저자는 자동차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프랑스 유학을 갔으며 실제적인 지식을 얻고자 직접 경정비 업체에서 일하기까지 했던 현역 카 레이서이다. 게다가 곳곳에 자동차 상식란을 마련하여 흔히 부딪치는 자동차의 문제점을 속 시원하게 풀어 주었다. 저자가 그랬듯이 자동차가 너무 좋아 장래 직업까지 그 쪽으로 정해 본 적이 있거나 또는 자동차에 대해 '이유 있는' 의문을 지닌 학생들에게 이 책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1. 생활 기술
- 3. 재료의 이용

### 공작도감

기우지가쓰(김창완) / 진선 / 1991년 / 363쪽 / 9,000원

이 책은 주변의 종이와 폐지, 나무젓가락 등을 이용해 어린이 장난감 만드는 법을 설명한 책으로 종이비행기 만들기부터 가장 어려운 스포츠카 만들기까지 학생들이 함께 따라하며 만들 수 있게 자세한 그림 설명과 함께 엮었다. 학생들이 직접 도구를 만들어 보면서 도구란 제대로 써야 힘이 안 들며, 물건이 잘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도구에 대한 손질이 왜 중요한지도 알게 될 것이다. 중학교 기술 가정 과목의 재료의 이용, 제품의 구성과 만들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책이다.

- 1. 생활 기술
- 3. 재료의 이용

### 종이-일상의 놀라운 사건

피에르마르크 드 비이지(권명희) / 시공사 / 2000년 / 159쪽 / 7,000원

종이 없는 세상을 과연 상상할 수 있을까? 책과 사진, 신문에서 지폐, 휴지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종이 없는 현대인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이 되었다. 지금으로부터 3세기 전 중국에서는 대나무나 뿔나무 펄프에서 시작해 독자적인 종이 제작 방식을 고안했고, 그것은 차츰 서구로 건너가 전 세계에 유포되었다.

종이의 제작은 1799년, 루이니콜라스 로베르가 발명한 연속 제조기에 힘입어 산업화 시대의 생산 라인 속으로 진입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이 책을 통해 아시아의 종이를 비롯해 유럽의 제지 공장들, 종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을 것이다.

### 세상에서 가장 쉬운 십자수

편집부 / 동아일보사 / 1999년 / 300쪽 / 12,000원

친과 바늘, 여러 가지 색깔의 실들 그리고 한뼘 한뼘 쏘는 정성으로 행복을 선사할 수 있는 십자수는 날이 갈수록 사람들에게 사랑 받고 있다.

배낭에 대롱대롱 달 수 있는 열쇠고리, 귀여운 조카의 턱받이, 결혼하는 친구의 새로운 보금 자리를 멋지게 꾸며줄 웨딩액자, 사랑하는 연인을 위한 쿠션, 잠자리 은은함을 연출할 스탠드, 식탁보, 책갈피, 소품액자...모두 꼽기 어려울 만큼이나 다양한 쓰임새와 완성품의 아름다움에 자꾸만 손발 수박에 없는 매력이 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십자수”에는 손쉽게 보고 익힐 수 있는 스티치배우기와 다양한 작품들의 풍부한 도안, 시장정보가 담겨있다. 학생들은 이 책을 보면서 작고 간단한 소품들을 첫발로 점점 익숙해지면 커다랗고 보다 정교함이 필요한 작품에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체 육

## ■ 1학년

### 1. 체육이론

#### 웃음의 건강학

노만택 / 푸른솔 / 2002년 / 102쪽 / 6,800원

이 책은 웃음이 인간의 정신 건강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게 하는 책으로 웃음의 미학에 대한 가치를 엿볼 수 있다.

유머는 뇌의 어느 한쪽을 자극하기보다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뇌를 끌고루 다스려 아름다운 웃음을 만들어낸다. 밝게 터지는 웃음소리는 뇌의 오케스트라가 쏟아낸 아름다운 음악이다. 유머로 뇌의 기능이 균형과 조화를 이룬 사람은 성격이 좋을 수밖에 없다. 사람은 웃음과 유머로 생활과 감정의 균형을 잡을 수 있다. 화난 사람도 옆 사람의 유머와 웃음으로 화를 풀 수 있고 슬프거나 우울한 사람도 웃음과 유머로 마음을 달랠 수 있다.

웃음은 건강에 유익하게 작용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웃음의 미학을 알 수 있게 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다.

### 2. 육상

#### 마라톤 그 아름다운 도전을 향하여

빌 로저스 외(지장영) / 가림M&B / 2002년 / 306쪽 / 15,000원

전문 마라토너로서 활약하고 있는 빌과 웰치라는 두 저자가,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지식들에 대해 쓴 책이다.

특히, “마라톤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게 아닐까?” 혹은, “마라톤이 내게 너무 힘든 운동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초보자들에게 쉽게 마라톤을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안내하고 있다. 즉, 달리는 데 있어 왜 목표를 세워야 하며,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식사 조절은 어떻게 하는지,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방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부록으로는 마라톤 용어, 마라톤 훈련일지 작성법, 마라톤 동호회, 국내 및 해외 마라톤 일정에 대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 6. 단체운동

#### 1) 축구

#### 마이클 오웬의 축구교실

마이클 오웬(정용환) / 삼포미디어 / 2000년 / 126쪽 / 10,000원

이 책은 축구를 좀더 체계적이고 쉽게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마이클 오웬이 자신만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만든 책이다.

킬러 사진과 컴퓨터 그래픽으로 오웬의 특징적인 동작을 단계별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혼자서도 동작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경기 상황에 따라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세심한 기술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다.

축구에 관심이 있고 축구실력을 배양하고 싶은 학생에게 권하고 싶다.

6. 단체운동  
1) 축구

월드컵 4강 신화의 비밀

이용수 외 / 시공사 / 2002년 / 234쪽 / 8,500원

이 책은 월드컵 코칭스태프와 태극전사 23인의 월드컵 이야기로 월드컵 기술 위원장인 이용수 위원장과 4명의 스포츠 기자가 정리했다. 히딩크 감독의 훈련 과정, 월드컵 준비부터 첫 승, 16강 진출, 이탈리아전, 4강 전인 독일전과 터키 전까지의 뒷이야기와 대표선수 14명의 인터뷰를 수록했다.

월드컵이 끝난 후, '월드컵 4강 신화'를 둘러싼 책들이 앞다투어 쏟아져 나왔지만, 이 책은 상업성을 목적으로 과대 포장하거나 미화시킨 이야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경기 현장 속에 땀 냄새와 숨소리가 그대로 묻어있는 생생한 이야기요, 살아 있는 목소리다.

이번 월드컵 축구경기에서 우리나라가 좋은 성적을 내기까지의 과정을 진솔하게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다.

9. 공중 보건

마법의 성(청소년이 알고 싶은 성 이야기)

최달수 / 김영사 / 2002년 / 148쪽 / 8,900원

이 책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한가지씩 가지고 있는 성.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몸에 대해 자신의 성이 가지는 특성에 대해 잘 모르고 산다. 이성의 성에 대해선 더욱 그렇다. 성이란 일생동안 드라마틱하게 일어나는 신체의 변화이며 자연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것은 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름답다. 죄악시해서는 더욱 안 된다. 특히 사춘기가 되면 성적인 호기심이 자연스럽게 커지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아이들이 죄짓는 것처럼 몰래 숨어서 엉뚱하게 풀어 가는 것이 우리의 실상이다.

궁금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성의 모든 것을 그림과 유머를 곁들여 웃으면서 읽을 수 있는 책으로 만들어졌다.

9. 공중 보건  
1) 공중 보건과 건강

바로할 수 있는 다이어트북

이주은 / 삼호미디어 / 2001년 / 126쪽 / 10,000원

이 책은 일상 생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다이어트 비법서이다.

복부, 얼굴, 다리 등의 부분 다이어트 방법과 다이어트 효과를 상승시키는 다양한 다이어트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주말을 이용한 1일 단식, 다이어트 레시피, 칼로리표 등 다이어트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이 책은 청소년들 중 몸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나 비만해소를 원하는 학생은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책이다.

9. 공중 보건  
4) 사춘기와 성교육

성교육 이론과 실제

한국청소년순결운동본부 / 문학마당 / 2000년 / 474쪽 / 15,000원

이 책은 다양한 분야의 성인 전문가들이 성교육의 이론과 실재를 알기 쉽게 안내하였다. 청소년 순결교육의 방향과 필요성을 시작으로 인간 발달과 성의 성숙, 남녀 양성의 상위적 구조와 목적, 남성과 여성의 생식생리, 순결의 개념과 성의 양면성 등을 수록하고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성교육 지도와 상담이론, 가정에서의 성교육 및 성 상담 등을 소개했다.

이 책은 배란주기, 각종 성병에 대한 설명 같은 성교육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뿐 아니라 이성을 교체할 때 지켜야 할 에티켓, 순결교육을 해야 하고 순결을 지켜야 하는 이유 등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윤리적인 내용까지 담고 있다.

■ 2학년

2. 육상 운동

1. 달리기

즐거운 달리기

안네마리 주텔(신영예) / 가야넷 / 2001년 / 248쪽 / 9,000원

이 책은 여성을 위한 운동 제안서, 건강과 아름다움을 위한 운동 달리기를 제안하며 장점과 주의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자신에게 알맞는 목표를 정하고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과 규칙을 통해 필요한 효과를 얻도록 계획하는 방법을 담았으며, 예상치 못한 순간들에 대처하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수록했다.

이 책에는 달리기로 건강과 아름다움을 가꾸는 국내 여성 방송예술인 7인의 달리기 이 책에는 달리기로 건강과 아름다움을 가꾸는 국내 여성 방송예술인 7인의 달리기 체험담이 담겨 있다.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해서 달리기를 시작한 여성들이 중도에 쉽게 포기하곤 하는데, 여기 소개된 7명의 체험담에는 달리기를 지속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들만의 독특한 비결이 담겨 있다. 특히 누구보다도 불규칙하고 바쁜 생활을 하는 연예인들이 꾸준하게 달리기를 한다는 사실이 많은 독자들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줄 것이다.

6. 단체운동

1. 농구

NBA 농구감독에게 배우는 인생과 성공

릭 피티노(마도경) / 현대미디어 / 1997년 / 368쪽 / 7,500원

이 책은 미 대학농구와 NBA의 격전장에서 살아있는 신화가 된 비결을 비롯해 최악의 팀을 이끌어 최고의 팀과의 격전에서 승리로 이끈 저자가 자신의 스포츠 철학 및 선수들에게 주었던 조언과 용기 등 성공비결을 일화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사회에서의 리더의 역할과 집념은 성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리더십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줄 수 있는 책이다.

8. 체력운동

근력

ABS 프로그램

SHAWN PHILLIPS(정주호) / 한연 / 2002년 / 206쪽 / 12,000원

이 책에서 소개하는 프로그램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멋진 몸매를 최단기간에 만드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인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책에서 저자 자신이 체득한 헬스 비법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의 저자인 쉰 필립스는 38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복근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의 조언에 따르면 복근운동 시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규칙은 ‘윗배, 아랫배, 옆배로 나누어 부위에 딱 맞는 운동’을, ‘천천히 그리고 강하게’해야 한다는 것이다. ‘천천히 그리고 강하게’는 일면 많은 시간이 들거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운동만을 집중적이고도 강하게 실시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지루하게 반복할 필요가 없고,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어 운동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람들에게 유용하다.

이 책은 멋진 몸매를 최단기간에 만드는 혁신적인 프로그램인 이 책은 신체단련과 함께 아름다운 몸을 가꾸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9. 공중보건

1. 소비자 보건의 이해

호기심 박사 황수관 건강따라하기

황수관 / 태일출판사 / 2000년 / 296쪽 / 8,000원

이 책은 황수관 박사의 상성한 건강생활을 위한 제안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이다.

건강의 보증수표인 웃음과 운동에 관한 저자의 견해와 임상 결과, 나에게 맞는 운동은 과연 무엇일까, 규칙적인 운동의 노하우는 없을까, 억지 웃음도 건강에 도움이 될까. 등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황수관 박사는 명쾌한 답변을 준비하고 독자를 기다리고 있다.

호기심 박사가 풀어주는 건강과 운동에 관한 메시지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다.



# 음 악

## ■ 1학년

감상  
다양한 연주 형태

### 아이 러브 뮤지컬

김기철 / 표영 / 2002년 / 296쪽 / 10,800원

뮤지컬이 주로 외국어로 공연되기 때문에 작품 줄거리를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눈뜬장님 신세가 되기 마련이고, 관람을 위해 작품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해도 마땅한 책이 없었던 실정이다.

이 책에서는 국내에 소개된 뮤지컬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입소문으로 전해진 유명 작품 30여 편에 대해 알 수 있다. 뉴욕과 런던에서 장기 공연 중인 히트작과 최근 막을 올린 뮤지컬 중에서 호평을 받거나 공연사적인 의미가 있는 작품들은 물론, 해외 공연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국내 뮤지컬 세 작품도 소개하고 있다.

각 작품마다 줄거리와 주목할 만한 뮤지컬 넘버, 무대 디자인, 주연 배우와 연출가, 작곡가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담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뮤지컬 공연 관람을 나신다면 여러분은 그 재미를 한층 더 배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감상  
다양한 악곡 감상

### 오페라 읽어 주는 남자

김학민 / 명진 / 2001년 / 232쪽 / 9,900원

오페라 연출가인 지은이가 <오페라를 읽어주는> 책을 썼다. 오페라를 불러주는 대신 읽어준다고 한 것은 이 책이 오페라가 담고 있는 삶의 진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작가는 삶의 많은 주제들 중에서 '사랑'을 택해, 일곱 편의 오페라를 골랐다.

1. 바그너의 '트리스탄과 이졸데', 2. 비제의 '카르멘', 3. 모차르트의 '코지 판 투테', 4. 슈트라우스의 '살로메', 5. 베르디의 '오델로', 6. 모차르트의 '돈 지오반니', 7.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 등이 그것이다.

오페라를 막연히 호화·사치스런 귀족 문화나 고급 문화의 한 장르로 여기거나 오페라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이다.

감상  
다양한 악곡 감상

### 오페라는 누구나 즐길 수 있다

한이혜원 / 삶과꿈 / 2002년 / 267쪽 / 9,000원

뮤지컬에 비해 오페라를 무겁게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오페라의 기본적인 지식을 알고 보면 누구나 오페라의 진수를 맛볼 수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일반인들이 오페라를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오페라 감상법과 유명한 작품의 스토리, 등장 인물이 부르게 되는 곡, 작곡가가 극중 상황에 맞는 작곡과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등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저자 자신도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오페라를 보려할 때 어떤 부분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지를 포착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주어 오페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을 읽은 후 편안한 마음으로 오페라를 감상하다 보면, 아리아들이 자신에 가슴에 와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감상  
음악을 듣고 표현  
하기

### 송영과 떠나는 음악 여행

송영 / 장 / 1999년 / 280쪽 / 10,000원

소설가 송영의 두 번째 음악 산문집. 이 책에는 인간적인 향기와 감동이 배어 있는 음악과 얽힌 많은 일화들이 있다. 음악에 다가가는 지은이의 발걸음을 따라 독자도 어느 새 음악에 빠져들게 만든다. 일상에 쫓겨 음악 하나하나를 여유 있게 듣지 못하는 이들에게 음악을 통해 삶의 향기와 위안을 더해 주며, 고전 음악에 대한 막연한 편견이나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들을 떨쳐 버리고 쉽게 음악을 접할 수 있게 하는 안내서 역할을 하고 있다.

1부에는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곡뿐만 아니라 흔히 접할 수 없는 곡들을 포함, 40여 곡이 넘는 주옥같은 작품들의 소개와 연주 감상이 실려 있다. 2부에는 음악에 관한 단상이나 악기 및 오디오에 관한 산문 등이 실렸으며, 3부에는 새로 출판된 화제의 음반을 통해 명연주자의 연주 특징 등이 잘 묘사되어 있다.

고전 음악에 대한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다.

감상  
다양한 악곡 감상

### 오페라를 만나러 가자 1-2

김선옥 외 / 풀빛 / 1997년 / 325쪽 / 11,000원

지금까지 오페라를 만나러 '예술의 전당'으로 나서는 길이 엄두가 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이 책은 오페라를 관람하기 위해 간단한 준비 운동을 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이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스토리 소개를 알고, 오페라를 감상하면 좀더 쉽게 실체에 접근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통속적인 사랑과 질투, 삼각 관계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 주종이고, 그 외 종교와 혁명 등 인간사의 이야기가 녹아 있는 오페라 28편의 스토리와 작품에 대한 설명을 모았다. 또한, 각 오페라 끝에 그 오페라에 관한 음악적 특성, 작곡가, 가수, 공연 에피소드 등에 관한 다양한 해설을 실었다.

오페라 감상 수준을 한 단계 높여주고 오페라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게 하는 좋은 음악 입문서이다.

감상  
비른 감상태도

### 음악가를 알면 클래식이 들린다

신동헌 / 서울미디어 / 2002년 / 352쪽 / 9,500원

이 책은 클래식 음악 역사를 빛낸 거장 작곡가들을 소개한 책이다. 자세히는 몰라도 우리가 평소 이름은 들어 알고 있는 음악가들의 생애와 그들의 음악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쓴 책이다.

음악가들의 음악은 그들의 인생을 반영한 작품들이다. 음악만 아는 것보다 작곡가들이 음악을 작곡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그들의 삶에 대해 알면 그들의 음악에 대한 이해도 더욱 깊어질 수 있다. 특히, 음악가들이 서로 어떻게 연관이 되고 서로의 음악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읽으면 더욱 흥미를 크게 느낄 것이다.

이 책은 클래식에 대한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열어 줄 것으로 믿는다.

감상  
비른 감상태도

### 음악가와 친구들

이덕희 / 가람기획 / 2002년 / 358쪽 / 12,000원

예술가들의 교유 관계를 조명한 책이다. 천재 음악가들은 서로에게 끌렸으며, 상대에 대한 깊은 공감과 찬탄 속에서 우정을 쌓아왔다. 이들의 우정은 동시대 예술사에 찬란한 문화적 업적을 남기기도 했는데, 이 책은 실제로 어떤 음악가들이 함께 어울렸고 그 사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간단한 이야기 형식을 빌어 모차르트부터 조지 거슈인까지의 위대한 음악가들의 우정을 담고 있는 이 책은, 인간 관계의 중요성을 되새겨 줌과 동시에 예술가들의 사생활을 이해하는 단초가 되어 준다.

음악가와 관련된 이야기거리가 풍성해 음악 선생님이라면 수업 자투리 시간에 활용하기 좋고, 음악에 대한 풍부한 상식을 얻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더없이 좋은 책이다.

이해  
형식

## 음악의 세계1-2

쿠르트 팔렌(이근호) / 에코리브르 / 2002년 / 270쪽 / 10,000원

오페라와 음악 전문가인 쿠르트 팔렌이 어린이를 위해 쓴 음악 입문서이다. 저자 쿠르트 팔렌이 클라우디아, 알렉산더, 파비안 등의 아이들과 함께 음악의 기초에서 기본적인 음악사까지를 이야기하면서 배운다. 대화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되어 딱딱한 음악 상식을 좀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책은 모두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권에서는 소리, 박자, 음표, 멜로디, 다양한 악기들에 대해 배우고, 2권은 화음, 간략한 음악사, 음악가의 재미있는 일화, 오페라에 대한 상식을 배우도록 짜여 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음악에 대한 애정과 열정을 일깨워주고, 음악에서 느끼는 행복감을 마음껏 누리게 해주는 책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부터 중학교까지의 학생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감상  
음악 듣고 평가

## 음악의 숲에서 - 순수의 시절에 들어가야 할 클래식 음악 55

유예자 / 한울 / 1998년 / 237쪽 / 8,000원

이 책은 라디오의 음악 담당 P.D로 있는 저자가 쓴 클래식 음악 이야기로, 순수의 시절에 들어가 할 클래식 음악 55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보로딘의 <녹턴>부터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까지 55곡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단상을 담은 이 책은 '순수의 시절'로 거슬러 오르는 등푸른 물고기떼의 빛살을 떠올린다. 클라라에 대한 브람스의 애뜻한 사랑이 승화된 <교향곡 3번>, 하이델베르크의 고성에서 짙었던 보로딘과 에카테리나의 사랑이 담긴 <녹턴>, 청력이 마비된 베토벤의 절망과 고뇌를 간직하고 있는 <전원교향곡> 등을 서정적 언어로 들려준다.

아름답고 순수한 학창 시절을 맞고 있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감상  
다양한 악기 감상

## 재미있는 국악 길라잡이

이성재 / 서울미디어 / 1999년 / 338쪽 / 7,000원

국악을 아주 쉽고 재미나게 쓴 국악 입문서이다. 국악의 다양한 장르, 각 지역 민요의 특색, 악기별 소리의 특징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또, 명창·명인들도 소개하고 있으며, 꼭 알아두어야 할 기초적인 국악이론들도 알기 쉽게 풀이해 놓았다.

저자가 글을 아주 맛깔스럽게 써서 읽는 사람도 아주 기본 좋고 맛있게 읽어 내려갈 수 있다는 게 이 책의 최대 매력이다. 이 책 한 권과 함께 국악 한 자락을 듣는다면 문외한이라도 우리 음악의 멋스러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국악을 처음 접하거나 국악에 관심은 있는데 어려워 손을 못 대고 있는 사람들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감상  
다양한 악곡 감상

## 재미있는 클래식 길라잡이

신동헌 / 서울미디어 / 1994년 / 384쪽 / 9,500원

이 책은 음악애호가인 저자가 일반인들을 위해 쓴 클래식 음악 입문서이다.

저자는 유년시절부터 60여 년 간 클래식 디스크를 4천 장 가까이 수집, 섭렵하면서 체득한 자신의 음악적 지식과 바른 감상법을 유려한 필치로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 클래식의 제대로 된 정의부터 시작해서 음악회 에티켓, 음악의 장르와 역사, 오페라에 대해서, 그리고 시대별로 작곡가를 나누어 그들에 대한 설명까지 친절하게 해주고 있다.

클래식과 좀더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권해 볼 만한 책이다.

창작  
주제 변주하기

## 지휘자들의 익살

신동헌 / 빛과 글 / 2002년 / 438쪽 / 20,000원

<지휘자들의 익살>이라는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거장으로 꼽히는 명 지휘자들의 사람됨과 예술관, 그리고 숨은 일화 등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다.

리허설을 안 했던 '한스 크나퍼츨부슈', 첼리스트에서 지휘자로 변신한 '므스티슬라브 로스트로포비치', 첼리스트 장한나에게 '괴동(怪童)', '마녀'라고 칭했던 '주제페 시노폴리' 등 저명한 지휘자들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무대 위에서 노출되지 않는 해학과 풍자를 엮어낸 것이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근대에 들어 작곡가와 버금가는 위상을 갖게 된 지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좋은 책이다.

□ 2학년

3. 감상  
다양한 악곡 감상

클래식은 내 친구 1-2

김정환 / 용진닷컴 / 1999년 / 270쪽 / 7,500원

시인이 쓴 클래식 음악 입문서이다. 팔레스트리나, 바흐, 베토벤, 슈만, 바그너, 힌데미트, 쇼스타코비치 등 23명의 주요 작가의 작품 세계와 생애, 작품이 주는 감동을 아름다운 언어로 생생하게 전하고 있다.

각 권 모두 11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사람의 작곡가가 탄생하기까지 성장 과정, 단련 시기, 본격적인 창작 시기 등을 다루고 있다. 예술가의 고민과 아픔 등 개인적인 면뿐만 아니라 그에게 영향을 미쳤던 스승과 친구들,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예술사조까지 폭넓고 세밀하게 추적한다. 또한, 음악가의 생가나 부모, 자필 악보와 연인에 대한 자료 등 음악가와 관련된 도판이 거의 매 페이지마다 들어 있다.

클래식에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클래식을 보다 가까이 느낄 수 있게 하는 책이다.

12. 우리나라 민요  
국악

국악 이렇게 들어보세요

송예진 / 다른세상 / 2002년 / 328쪽 / 12,000원

음악이라고 하면 서양의 클래식 음악을 연상하기 쉽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 국악은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들어야 할 것, 아니면 전혀 별 관심이 없는 우리 전래 음악 정도로 여겨버린다.

이 책에서는 국악을 처음 접하거나 너무 어렵게만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 국악을 쉽게 소개하고 그 감상을 안내하고 있다.

제1부에는 각계 명사들이 추천하는 명곡이 실려 있고, 제2부에는 지식보다는 느낌을 강조하는 감상법이 소개되어 있다. 제3부와 4부는 여러 노래와 연주 음반이 감상과 함께 소개되어 있으며, 제5부는 우리 음악의 정서에 대한 설명이, 제6부와 7부는 국악에 대한 기초 지식 설명이 실려 있다.

이 책은 국악의 감상과 이해를 위한 걸음마를 내딛는 중학생 독자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다.

# 미술

## ■ 1학년

### 3. 감상

#### 박서보-앵포르멜에서 단색화까지

**서성득 / 재원 / 2000년 / 144쪽 / 10,000원**

한국 현대미술의 흐름에 있어 박서보의 그림은 고요한 우리 고유의 미적 성정을 잘 표상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서예를 하는 듯한 절제된 행위의 반복, 박서보의 독특한 체취와 더불어 우리 고유의 미적 정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의 회화세계를 주요 작품과 함께 조망한 책이다.

우리 현대미술의 흐름을 검증할 때, 박서보의 작품과 자취를 더듬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한국미술의 단색화를 말할 때, 그의 그림은 고요한 우리 고유의 미의 성정을 잘 표상해 주고 있다고 여긴다.

박서보는 5~60년대 앵포르멜, 90년대의 모노크롬, 80년대부터 해 온 한지작업은 한국의 현대 미술, 한국 추상미술의 역사 자체이다. 박서보를 빼고는 한국 현대미술의 연표작성이 불가능하다고 평가받으며, 한국 현대미술의 존재를 국제무대에 확인시켜준 화가이다.

혼란했던 국내 미술 기반을 몸소 행동으로 실천했던 선구자의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 서양미술의 이해

**오병옥 / 일지사 / 1994년 / 342쪽 / 15,000원**

우리는 흔히 미술작품 앞에서 여기서 무엇을 느끼고 보아야 하는가, 이것 이 어찌서 훌륭한 예술인가 하는 막막함을 느낄 경우가 많다. 이 책은 작품 감상에 있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에 대한 정신적인 지도역할을 한다. 이 책은 “학교에서 기본적인 미술교육시간이 지켜지지 않고, 보는 훈련을 쌓을 만한 미술관이 없으며, 그래서 국내에서 좋은 전시가 유치될 때나, 외국에 나가서도 미술관을 아무 수확도 없이 주마간산 격으로밖에 방문할 수 없는” 현실에 기반하여 쓰여졌다.

이 책은 서양 미술을 감상하는데 필요한 기본자료와 감상 안내도 풍부하며, 유럽의 18세기신 고전주의로부터, 19세기 입체주의 미술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미술양식들의 내용적 양식적 흐름을 흥미롭게 기술하고 있다.

#### 풍경 수채화의 세계

**전성기 / 재원 / 2002년 / 272쪽 / 35,000원**

수채화 제작을 위한 도구와 재료-풍경화의 부분적 표현(나무, 바위, 길가, 땅, 산, 꽃, 집, 건물, 하늘과 구름...)-여러 가지 풍경 표현(들판, 도심, 숲, 농촌, 산촌, 어촌, 달동네, 물가, 다리가 있는 풍경...)-시각의 차이와 풍경-사진을 이용한 풍경 그리기 등 풍경화 그리는 법의 이론과 실기가 총망라되어 있어 미술시간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 3. 감상

## 한국미술사 속에는 한국미술이 있다

박우찬 / 재원 / 2000년 / 208쪽 / 10,000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땅에서 한국 미술을 이해하는 일은 서양 미술을 이해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실정이다. 연구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근자에 한국 미술을 전공하는 전문 인력들의 연구에 의하여 한국 미술의 베일이 조금씩 벗겨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미술은 우리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뼈대를 잡기가 매우 어렵다.

이는 시대구분에 따라 작품만을 위주로 미술을 소개하여, 전체적인 미술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주기 때문이다. 하나의 미술양식이 탄생하는 데에는 단순히 미술가의 조형이념이나 천재적 솜씨로 가능한 일이 아니다. 하나의 미술양식은 그 시대의 시대정신과 경제구조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책은 우리의 미술문화 유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쉽게 한국 미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국 미술의 뼈대를 세우는데 일조를 하고자 쓴 글이다.

3. 감상  
미술품 감상

## 신화 그림으로 읽기

이주현 / 학고재 / 2000년 / 287쪽 / 13,500원

그리스 신화를 서양 미술과 함께 알기 쉽게 풀어쓴 기행문 형식의 책이다. 모두 3부로 구성된 이 책의 장점은 무엇보다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 복잡하게만 여겨지던 그리스 신화의 주인공들을 한번 읽으면 쉽게 잊혀지지 않게 만든다는 점이다. 나아가 그림 속의 숨겨진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지은이의 설명과 함께 서양 미술과도 친해질 수 있게 한다.

또한, 작가가 여행을 하면서 수집한, 신화를 주제로 한 그림과 조각 도판, 신화의 배경이 된 곳을 촬영한 사진들이, 먼 옛날 올림포스의 신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신화' 감상과 '미술' 감상, 그리고 '여행'을 동시에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3. 감상  
서로의 작품 감상

## 아름다운 사람들과 나는 그림 이야기

김연숙 / 아침이슬 / 2001년 / 240쪽 / 10,000원

<아름다운 사람들과 나는 그림 이야기>는 '순수 미술'이라는 테두리 밖에서만 존재하던 사람들이 들려주는, 그림에 얽힌 사연들이다.

조류학자 윤무부 씨, 국악가 황병기 씨, 시사만화가 박재동 씨, 판소리꾼 임진택 씨, 시인 나희덕 씨, 가수 정태춘 씨, 국회의원 임종석 씨 등 스물네 명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소개하면서 그림을 좋아하게 된 연유와 그들 삶에 그림이 끼친 영향을 이야기한다.

필자는 그림에 얽힌 사람들의 사연과 함께 미술 작품 감상에 필요한 관련 지식들을 쉽게 설명하면서 예술 작품을 미술 전공자나 전문가들만 향유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비록 미술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가슴속에 자신이 좋아하는 그림 하나쯤을 품고 싶은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 ■ 2학년

### 1. 미적 체험 미술과 생활의 관계

#### 1318 미술 여행

김중수 / 동녘 / 1997년 / 236쪽 / 5,800원

미술대학 입시를 위한 책들이 대부분인 현실 속에서 현직 미술 교사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미술의 본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쓴 미술안내서이다.

‘미술은 지식이 아니라 창의력과 감성을 발현시키는 정서교육이다.’라고 작가는 말한다.

미술의 이해와 표현, 감상, 미술을 공부하는 이유, 우리 미술에 대한 필자의 생각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과서적인 틀에서 벗어나 미술 여행을 하듯 생활 주변의 이야기를 미술과 연관시켜 서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또한, 청소년들의 취향에 맞춰 작가가 손수 그린 만화와 삽화로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 미술에 거리를 느끼는 학생들도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다.

#### 미술관 관람의 길잡이

데이비드 핀(정준모) / 시공사 / 1993년 / 138쪽 / 8,700원

대부분의 학생들은 미술관에 대해 심리적인 거리감을 느끼고 있다. 간혹 감상 숙제를 하러 미술관에 가는 학생들을 봐도 그림을 어떻게 감상해야 할지 몰라 어려움을 겪거나, 그로 인해 도리어 미술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 책은 그런 학생들에게 처음 미술관을 찾는 것에서부터 나만의 관람 방법을 개발하는 법, 작품의 의미를 스스로 발견해 내는 방법, 많은 관람객 사이를 헤쳐 나가는 요령에 이르기까지 지극히 평범한 문제들에 대해 쉽게 이야기하고 있다. 또 부담 없는 얇은 부피로 되어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다.

미술관에 처음 발을 들여놓아 길잡이가 필요한 사람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 세계 미술사 박물관 -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

클라우디오 메틀로(노성두) / 사계절 / 2001년 / 126쪽 / 16,000원

서유럽과 지중해,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문명의 자취를 더듬어, 예술의 기원에서부터 세계 미술의 전 역사를 다룬 책으로, 마치 거대한 미술 박물관에 전시를 해놓은 것처럼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단순히 유명한 그림·조각·건축·공예품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작품이 태어나게 된 역사적, 문화적 맥락과 구체적인 작업방식을 일별할 수 있어 미술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동굴 그림과 선사시대 조각에서부터 인상파와 현대 미술에 이르기까지 동서고금을 통틀어 화가들의 땀 냄새나는 작업현장이 소개되어 있어 예술가들의 체취를 물씬 느낄 수 있는 책이다. 미술의 비밀을 풀어보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 1. 미적 체험 미술과 생활의 관계

#### 나의 할아버지 피카소

마리나 피카소(백선희) / 호영 / 2002년 / 218쪽 / 8,500원

이 책은 한 세기를 풍미한 천재 화가 피카소의 삶을, 그의 손녀 마리나가 자신의 눈으로 보고 쓴, 할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사람들은 피카소를 천재라 불렀고 그의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싶어 했다. 그러나 천재적인 예술가의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가난과 아픔을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른다. 이 책은 피카소라는 이름을 굴레처럼 쓰고 살아야 했던 가족들의 아픈 역사를 잘 소개하고 있다.

마리나는 이 책에서,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아픈 상처를 치유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며, 고통을 뛰어넘어 원망스럽기만 했던 천재 화가 할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과 미처 몰랐던 자신의 이기심 등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천재 화가 피카소를 또 다른 시점에서 볼 수 있는 책이다.

### 1. 미적 체험 1. 자연미와 조형 미의 조화

#### 명화는 왜 유명할까 - 걸작으로 보는 서양미술사

아멜리아 아레나스(정선이) / 다빈치 / 2002년 / 224쪽 / 12,000원

알타미라 동굴 벽화에서부터 피카소의 게르니카까지 서양 미술사의 아이콘으로 남은 15 점의 작품을 살펴 그 훌륭한 이유를 설명해 주는 책이다.

여백이 풍부한 편집, 182컷에 달하는 큰 사이즈의 도판 덕분에 청소년도 부담없이 다가가 볼 수 있지만, 저자의 쉬운 설명 속에 담긴 날카로운 통찰, 여러 가지 정보를 자연스럽게 연결짓는 글 솜씨 덕분에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독자에게도 충분히 재미가 있는 책이다.

또한,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다양한 의미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보는 사람이 자기 식으로 그림을 이해하게 유도한다는 점이다. 명화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 알고 나면 한국 미술 박사

편집부 / 가나아트 / 1999년 / 214쪽 / 10,000원

이 책은 고대 선사시대의 그림들부터 선비들의 문인화와 규방문화, 서민문화, 종교문화, 인물화까지를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누구나 쉽게 우리나라의 미술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준법을 알아야 한국화가 보인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초상화는', '신라의 금은 성분이 다르다?', '우리나라 절 이야기' 등의 주제 아래, 91 개의 소주제로 짜여져 있으며, 짧은 해설과 관련 도판을 곁들이고 있다.

우리 미술이 얼마나 풍부하고 깊이가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으로서, 비록 동양화에 그리 깊은 조예가 없는 사람도 이 책을 통해 쉽게 흥미를 얻고 관심을 키워 나갈 수 있다.

## 알고 나면 서양 미술 박사

편집부 / 가나아트 / 2002년 / 155쪽 / 10,000원

<알고 나면 미술박사> <알고 나면 한국미술박사>등으로 가깝고도 먼 미술을 쉽게 풀이해온 가나아트에서 내놓은 신작이다.

미술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상식으로 넓게 풀이한 전편과 달리, 이번 서양 미술 편에서는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많아 심화된 지식을 요구하는 일반인이나 학생들이 만족을 느끼며 볼 수 있다. 미술 잡지 전문 출판사답게 깔끔한 도판 배치와 박스 기사 편집이 시각적으로 편하게 다가온다. 군데군데 들어간 삽화도 볼거리다.

서양 미술에 관해 박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 한 권의 책을 기꺼이 권하고 싶다.

## 2. 표현

### 미술은 이렇게 세상을 본다

박우찬 / 재원 / 2002년 / 160쪽 / 10,000원

어려운 예술로만 느껴지던 미술. 그 미술을 보다 부드럽고 쉽게 접근하는 책이 나왔다. 저자가 생각하는 미술에 담긴 철학과 미술의 역사와 유명한 미술 작품에 대한 소개와 이해가 담겨 있다.

미술사의 변천은 사람이 미술을 보는 눈, 시점의 변화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눈은 사회 생활의 변천과 시대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을 미술사가 걸어온 길을 통하여 미래 미술의 나아갈 길을 제시해 줄 것이다.

미술은 눈으로 보는 예술이다. 그 동안 우리는 지나치게 감성 중심으로 미술을 이해해 왔다. 물론 감성교육은 중요한 미술 교육 기능이나 이 감성 교육만으로 새로운 미술을 이해할 수는 없다. 이 책은 미술을 혁명적으로 발전시킨 그리드-원근법-카메라-복제기계-컴퓨터라는 미디어와 그것들의 등장인 인간의 보는 방식에 미친 영향 그리고 그 결과로서 만들어진 새로운 미술을 살펴보고자 하는 책이다.

## 2. 표현 주제 표현

### 고흐가 되어 고흐의 길을 가다

노무라 아쓰시(김소은) / 마주한 / 2002년 / 316쪽 / 15,000원

37년의 짧은 생을 살면서 서양미술사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고 떠난 빈센트 반 고흐의 인생을 그린 책이다. 기존의 평전이나 해설서와는 달리, 고흐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전혀 색다른 형식의 책이다.

작가는 고흐가 태어난 네덜란드의 준데르트부터 고흐가 동생 테오와 함께 영원히 잠들어 있는 프랑스의 오베르 쉬르 우아즈 묘지까지 직접 답사를 하고, 그의 편지들을 통해 고흐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을 고흐의 마음으로 추적해 가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화가로서의 고흐뿐만 아니라 고흐와 가난 속에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연민을 가슴에 품고 짧은 인생을 살다간 한 인간을 잘 조망해 주고 있다.

이 책은 또한 고흐의 작품과 관련 사진, 기타 자료도 풍부하여 고흐의 인생은 물론 그의 작품을 감상하는 좋은 계기도 마련해 주고 있다.

## 알고 나면 미술 박사

편집부 / 가나아트 / 1996년 / 190쪽 / 10,000원

'이는 것만큼만 보인다'고 하는데 실제로 일반인들이 미술 작품을 감상하기에 겪는 고통은 너무 크다. 일일이 전시장을 찾아 나선다거나 뒤적일 여유를 갖지 못하는 현실에서 미술이 주는 부담감은 우리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이 책은 알고 싶은 대상이 있을 때, 그러나 그것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모를 때, 그것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가장 기초적인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통해 미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잘못된 상식을 고쳐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술 관계자들이 당연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는 내용 중 너무 쉽게 생각했기에 그냥 지나치는 내용들도 수록하고 있다.

이 책은 미술에 대한 독자 나름대로의 질문과 해답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계기를 제공해 주고 있다.

## 미술로 보는 우리 역사

**전국역사교사모임 / 푸른나무 / 1998년 / 182쪽 / 6,000원**

이 책은 역사 선생님들이 직접 만든 책으로,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미술을 통해 본 우리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책을 펼쳐 보면 본문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비율로 다양한 사진과 그림들이 많이 나온다. 이는 유물·유적을 통해 보는 역사적 사실이 이론적 내용만 접하는 역사보다 좀 더 쉽고 실감을 자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미술 작품을 통한 역사의 이해, 우리는 이 책에 나오는 미술 작품들을 통해 과거 역사의 단면을 알 수 있고, 그 시대의 분위기도 느낄 수 있다. <미술로 보는 우리 역사>는 다양한 자료를 제시함과 아울러 학생들에게 '생각하는 역사'를 보여주는 책이라 할 수 있다.

### 2. 표현 표현 방법

## 두 시간만에 읽는 명화의 수수께끼

**진 시로(박이엽) / 현암사 / 1998년 / 176쪽 / 7,500원**

13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명화를 중심으로 서양 미술사와 각 명화에 얽힌 이야기, 수수께끼 등을 선생님과 학생이 서로 질문과 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쓴, 서양화 감상의 길잡이 책이다.

조토의 '유다의 입맞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뒤샹의 'L. H. O. Q.'까지 서양화를 대표하는 스타 다섯 화가의 대표적인 작품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서양 미술사의 흐름은 물론, 그림 보는 법, 명화 속에 숨은 상징 읽기, 화가의 독특한 삶과 예술 세계 등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있다.

작품을 앞에 놓고 선생님과 학생이 나누는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의 대화 전개가, 서양화에 문외한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 2. 표현 표현 방법

## 나는 공부하러 박물관 간다

**이원복 / 표영 / 1997년 / 348쪽 / 12,000원**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여러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들을, 작가가 주제별로 묶어 사진과 함께 작품을 설명하고 있어, 가히 작은 박물관이라고 할 만하다.

보통 문화재의 위대함을 크기로 인식하여 외국의 문화재에 비해 우리 것을 하잘것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우리 문화재의 특징과 세세한 미감을 잘 설명하고 있어 그 아름다움과 의미를 새삼 느낄 수 있게 한다. 특히, 동양화에 대한 쉬운 이야기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동양화에 대한 접근을 쉽게 해준다.

박물관에 가기 전에 우선 사진 답사의 한 방법으로 우선 이 책을 읽어보길 바란다. 이 한 권의 책이 여러분의 문화재에 대한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 2. 표현 14. 만화와 애니메이션

## 애니메이션 제작의 이론과 실제

**김대중 / 조록배매직스 / 1995년 / 318쪽 / 30,000원**

최근 들어 정부 주도하에 애니메이션 관련된 콘텐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 책은 애니메이션에 관해 교과서라고 불릴 울 정도로 기초적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애니메이션 제작의 모든 과정이 설명되어 있다. 레이아웃, 원화 및 동화, 채색, 촬영기법 그리고 디지털애니메이션의 제작까지 빠곡히 실려 있다. 특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그림자료를 첨부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었다.

만화영화 제작의 기본이 되는 셀애니메이션의 이론과 실체를 다룬 작업지침서이다.

### 3. 감상 21. 미술의 흐름

## 청소년을 위한 서양 미술사 - 눈을 열어주는 그림 이야기

**박갑영 / 두리미디어 / 2001년 / 304쪽 / 12,000원**

<눈을 열어주는 그림 이야기>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히 서양의 미술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서양 미술사의 변천 과정을 통해 서양의 문화와 사회를 하나로 연결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책이다.

고전주의에서부터 추상표현주의까지 각각의 시대와 유파를 대표하는 화가들의 생애와 그들의 작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미술사를 학문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대신 청소년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화가들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거리와 작품에 대한 명확한 해설, 그리고 친절한 용어 해설도 곁들이고 있다. 특히, 깔끔한 편집과 선명하게 인쇄된 미술 작품들은 마치 실제 미술관에 온 듯한 느낌마저 준다.

청소년들의 미술에 관한 안목을 넓힐 수 있는 좋은 책이다.



3. 감상  
미술품 감상

## 50일간의 유럽 미술관 여행 1-2

이주현 / 학고재 / 1995년 / 258쪽 / 15,000원

미술 평론가인 저자가 50여 일 간 유럽 15 개 도시의 미술관을 둘러보고, 유럽 미술을 소개한 글이다. 제1권에서는 영국 회화의 전개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런던 갤러리를 시작으로 파리의 로댕 미술관과 암스테르담의 고흐 미술관 등을 거쳐 발라프-리하르츠 미술관까지 소개하고 있다.

제2권은 헬레니즘 예술의 정수를 모은 베를린 페르가몬 미술관에서 시작하여 마드리드 스페인 바로크의 프라도 미술관까지 소개하고 있다.

기존의 유럽 미술 서적이 남의 눈으로 본 미술이었던 반면 이 책은 철저하게 우리의 감성과 시각으로 해석하고 있다. 5백 장에 이르는 컬러 사진과 저자의 감상, 작품 배경 등이 유럽 미술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어 훌륭한 미술 안내서가 될 것이다.

3. 감상  
미술품 감상

## 고전 미술과 천 번의 입맞춤-노성두의 그림읽기

노성두 / 동아일보사 / 2002년 / 272쪽 / 15,000원

기원전 6 세기부터 기원 후 7 세기까지의 건축, 조각, 회화의 재미있는 소재들을 골라 쓴 책이다. 중심이 되는 것은 고대 그리스와 르네상스의 작품이지만 시대나 장르의 차이를 넘어 관련 작품들을 다양하게 인용하고 있다.

미술 양식사적인 분석이나 표현 방식을 분석하기보다는 작품의 역사적 배경을 추적하는 추리 소설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발군의 뒷이야기, 예술가와 후원자의 갈등 같은 주변 자료들도 다양하게 소개하여 흥미를 더해준다.

특히, 루브르가 자랑하는 조각상 '사모트라케의 니케'의 잘린 부분을 추측해 내며, 역사 속으로 들어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가짜 자화상 소동을 실감나게 이야기해 주는 등, 미술사에 숨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만끽할 수 있는 책이다.

## 명화는 이렇게 속삭인다 - 이주현의 행복한 미술 산책

이주현 / 예담 / 2002년 / 280쪽 / 15,500원

이 책에 수록된 130여 점의 작품 중에는 익히 잘 알려진 것들도 있지만 조금은 생소한 작품도 눈에 띈다. 그러나 모두 삶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빅토리아 시대부터 오늘날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 작가들까지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고 있는 이 책은, 우리에게 속삭이듯 말을 걸어오면서 '명화'들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는 섬세하고 따뜻한 글을 쓴 지은이 덕분에 시대와 공간을 넘나들며 명화들과 풍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예술은 자신과는 거리가 먼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명화를 간직하고 감상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좋은 책이다.

## 그림으로 만난 세계의 미술가들(외국편, 한국편)

염명순 외 / 아이세움 / 2001년 / 196쪽 / 8,000원

<그림으로 만난 세계의 미술가들>은 외국 편 4 권과 한국 편 4 권의 시리즈로 되어 있으며,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쉬우면서도 깊이 있는 미술의 세계를 열어주는 좋은 책이다.

외국 편에는 1. 태양을 흠친 화가, '빈센트 반 고흐', 2. 돌에서 영혼을 캐낸 '미켈란젤로', 3. 창조의 수수께끼를 푼, '레오나르도 다빈치', 4. 마르지 않는 창작의 샘, '피카소'가 실려있다.

한국 편에는 1. 황소의 혼을 사로잡은 '이중섭', 2. 조선의 풍속을 그린 천재 화가, '김홍도', 3. 신선이 되고 싶은 화가, '장승업', 4. 붓으로 조선 산천을 품은 '정선'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출간될 예정이다.

그림을 처음 접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이다.

## 두첸의 세계 명화 비밀 탐사

**모나리자 볼 두첸(김현우) / 생각의나무 / 2002년 / 372쪽 / 28,000원**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등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여덟 편의 미술 작품들에 얽힌 비밀을 파헤친 책이다.

지은이는 작품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여 구사한 기법이 어떤 것인지, 구도는 어떻게 되는지, 어떤 배경에서 작품이 나왔는지, 그리고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 또 작품이 후대에 미친 영향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조금은 전문적인 책이지만 글을 읽다 보면 당시의 재미있는 상황에 웃음 짓고, 그림이 있기까지의 화가들의 노력에 외경감도 느낄 수 있다.

각 장마다 실려있는 그림들도 화집처럼 선명하며, 자세히 보기를 통해 세밀한 접근도 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 3. 감상 미술품 감상

## 세상 모든 화가들의 그림 이야기

**장세현 / 골스탑이 / 2002년 / 171쪽 / 8,000원**

이 책은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미술 입문서이다. 작가는 화가의 내면 세계와 시대적인 배경을 동시에 모두 담고 있는 작품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쉽게 이해하고 접하도록 설명하고 있다. 즉, 작가는 시대를 가장 잘 반영하면서도 화가의 독특한 사상이 담겨있는 작품을 엄선하여 작품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그동안 눈에 익었지만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던 작품에 대해 쉽게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다.

미술에 문외한이거나 미술을 하고 싶어도 무엇부터 시작해야할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꼭 권해 주고 싶은 최고의 미술 입문서이다.

## 명화로 보는 인류의 역사

**심상용 / 영교 / 2000년 / 119쪽 / 10,000원**

이 책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세계의 명화를 시원스런 큰 화면으로 소개하고 있다. 또, 초기 인류의 예술부터 오늘날의 현대 예술에 이르기까지 그 형태와 양식의 변화를 한 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작품을 시대순으로 묶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유명한 화가들의 대표작품을 중심으로 당시의 사회상과 작가의 고민을 엿볼 수 있게 했으며, 각 그림에 설명을 넣어 감상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우리 눈에 익숙한 명화들을 통해 그리스 신화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재미있고 유익한 책이다.

### 3. 감상 서구의 작품감상

## 그림, 바로 알고 제대로 즐기기

**조현 / 백산서당 / 2001년 / 200쪽 / 9,800원**

화랑을 경영하는 작가가 일반적인 감상서와는 다르게 서술한 미술 입문서이다. 시중에 나와 있는 미술 관련 서적이 전문가의 눈높이에 맞춰진 것과는 달리 이 책은 이제 막 그림에 입문하는 이들에게 눈높이에 맞춘 책인 것이다.

작가는 이 책에서 그림 보는 법과 그림 거는 법, 그림 관리하는 법뿐만 아니라 주석과 미술품의 차이점, 100만원으로 집안 분위기 확 바꾸는 법, 호당 가격제와 작품 감정, 미술 시장의 특징, 미술품 보존 등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을 미술 상식과 더불어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평소 그림에 대해 궁금증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시원스런 해답을 주고, 미술에 대한 안목도 넓혀주는 책이다.

### 3. 감상

## 그림, 아는 만큼 보인다.

**손철주 / 효행출판 / 1998년 / 320쪽 / 10,000원**

그림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주는 미술의 역사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모은 책이다.

미술기자 출신 언론인의 미술 관련 글모음, '작가이야기' '작품이야기' '더 나은 우리 것 이야기' '미술동네이야기' '감상이야기' '그리고 겨우 남은 이야기' 등으로 나뉘, 각기 10여 편의 길지 않은 글을 통해 동서고금의 미술가 주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저자는 미술계에 흩어져 있는 다양한 화제들을 담고 있다. 저자가 서문에서 밝혔듯 미술사를 정리하거나 이론을 작가와 관련된 에피소드와 작품을 보는 방법을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설명했다.

미술감상법, 미술계, 우리 미술의 우수성을 차례로 기술한 미술입문서로서 원색의 작품 사진을 풍부히 수록하고 있다.

## 인상파와 근대미술

**정 장진 / 자연씨미디어 / 2000년 / 96쪽 / 5,000원**

프랑스 미술의 한 조류인 인상파의 작가들을 집중적으로 조명함으로써, 미술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으며, 미술교과와 연계되어 그림에 대한 배경지식까지 함께 얻을 수 있다.

2000년 겨울부터 2001년 봄까지 진행된 오르세 미술관 한국전의 공식도록으로서, 인상파의 거장인 마네, 모네, 르누아르, 드가, 세잔느, 반고흐, 고갱, 쉬라, 피사로, 시슬레의 주옥같은 작품 70여점을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사실주의, 자연주의에서 인상파로 이르는 과정에서 예술이 근대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으며,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 반영되었음을 표현하고 있다.

아울러 이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사진이란 예술 매체를 통하여, 회화와 사진의 관계를 조망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

### 3. 감상

#### 우리그림여행

**김중수 / 동녘 / 2001년 / 197쪽 / 9,800원**

아름다움과 우리의 미의식, 한국화의 창작과 감상의 원리, 우리 그림의 선과 색 등등 쉽게 접할 수 없는 이론적 측면을 다루어 그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미술 교사인 저자는 학생들에게 감상의 즐거움을 돌려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왔다. 가장 좋은 감상의 방법은 진품 앞에서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면서 감상하는 것이지만 고전 작품이 여러 박물관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니면서 보기 어렵고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았다. 그래서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모으고 정리한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우리 그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 책이다.

#### 김환기

**윤난지 / 재원 / 1996년 / 96쪽 / 6,000원**

김환기는 우리 문화를 계승하는 일과 우리의 문화를 세계적 문화 속에 포용하는 일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 한국 추상 미술의 대표적 작가이다.

그는 우리나라 현대 미술의 공통된 문제들에 의식적으로 접근하고 나름대로 우리 고유의 정서를 그림에 반영하여 표현한 화가이다. 이런 작가의 일대기를 청소년기에 접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다. 한 작가에 대한 총체적 접근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그 작가의 특성을 당시 주변의 예술 성향이나 그가 처한 시대적 조건과 관련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김환기의 작업은 특수성과 보편성의 갈등이라는 우리나라 현대 미술, 특히 추상 미술의 독특한 상황을 더듬어 나가는데 있어 하나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

#### 동양화의 세계

**정임복 / 재원 / 2000년 / 104쪽 / 17,000원**

동양화를 잘 그리는 방법을 작품사진과 함께 안내한 책으로 실제적인 분석을 통한 구조론적 입장에 기초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엮었다.

다양한 형태의 그림을 원색으로 실어 이해를 돕는다. 자연물(과일/채소/꽃 등), 인공물(인형/신발/비닐제품 등)그리는 법과 우수작품을 실었다. 실제 수업시간에 수채화는 많이 해 보는데 반해 동양화는 조금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 책은 동양화에 대한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만한 책이다.

#### 모네의 그림 속 풍경 기행

**사사키 미쓰오, 사사키 아야코(정선이) / 예담출판사 / 2002년 / 224쪽 / 11,500원**

인상파의 창시자 클로드 모네는 1840년 센 강이 가로지르는 프랑스 파리에서 태어나 센 강 어귀의 르아브르에서 자랐다. 1859년 아버지와 숙모의 허락을 받아 파리에서 그림 공부를 했으며 화가로 성장한 이후에도 센 강 주위의 아르장퇴유, 베퇴유, 푸아시에 있는 아틀리에에서 작업했다. 그가 남긴 작품을 단서로 그가 화폭에 담은 장소를 찾아다니며 우리는 과연 얼마나 모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지, 이 책이 독자에게 던지는 화두이다.

86년의 짧지 않은 생애를 센 강 주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던 모네. 어쩌면 센 강은 지금도 모네의 창작에 대한 불타는 정열과 모티프를 찾는 끝없는 집념. 무심히 그려진 듯 보이는 풍경도 그 장소와 똑같은 지점에서 있으면 색다르게 느껴진다. 무엇보다 순간적인 빛의 이미지와 그 영원한 아름다움을 그린 모네의 그림이 감동으로 다가온다.

# 영 어

■ 1학년

언어 재료(읽기,  
Hopes and  
Dreams

마지막 수업 외 3편-영어로 읽는 세계 명작 스프링 시리즈 52

편집부 / 시사영어사 / 2001년 / 88쪽 / 5,300원

이 책은 청소년을 위한 교양도서로써 중학교 2, 3학년 정도를 위한 영어 도서이다.(5단계)  
프랑스의 서정적인 소설가인 알퐁스 도데 (Alphonse Dauadet)는 아름다운 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순수한 인간미와 고향인 프로방스 지방에 대한 애정을 작품 속에 드러내고 있다. 전쟁의 상처 속에 마지막 수업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프랑스인들의 마음속에 눈물이 정하도록 애국심을 느끼도록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그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섬세한 통찰력과 감수성은 그만큼 획득할 수 있는 개성적 작품 세계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었던 작품이기도 하지만, 미리 한 번 읽어보면서 그 순수의 세계로 빠져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언어 재료(읽기,  
듣기)  
Save the Earth

바보 이반 - 영어로 읽는 세계명작 스프링 시리즈 2

편집부 / 느낌표 / 2002년 / 363쪽 / 10,000원

이 책은 청소년을 위한 교양도서로써 중학교 1학년 정도를 위한 영어 도서이다.(1단계) 톨스토이는 도스토예프스키와 함께 19세기 러시아 리얼리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로서,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 <부활> 등의 불후의 명작을 남겼다.  
<바보 이반>은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이다. 이반은 글 속에서 군대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는 나라를 만든다. 이반의 형들, 세븐은 군인이 되어 나라를 정복하고, 타라스는 상인으로 재산을 모으는 데 열심이다. 하지만, 이반은 욕심없이 묵묵히 자기 할 일만 열심히 하며 산다. 사람답게 사는 것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삼 깨닫게 하는 동화로써, 우리말 동화로 초등학교 시절에 읽었던 중학생에게 훨씬 쉽게 영어에 흥미를 끌어낼 수 있는 소설이다.  
저학년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게 적당한 삽화, 음향 효과가 곁들여 있고, 단락마다 이해 정도를 테스트하는 코너가 있어 쉽게 영어의 재미에 빠져들 수 있다.

언어 기능(문화)  
Gestures

소설보다 더 재미있는 영어연수여행

임병현 / 명지사 / 1999년 / 304쪽 / 8,000원

저자는 1986년 3월 1일 처음 영국으로 유학을 떠난 이후, 6년 5개월 동안 외국에서 생활을 했다. 이 글은 외국 생활 중에서 가장 기억나는 일들을 일기처럼 적어 두었던 글 중의 일부이다. 외국생활에서 실수의 경험담을 적어 유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의도로 쓰인 이 책에서 우리는 그 나라의 문화들을 배울 수 있다.  
이 책을 통하여 학교나 영어시간에 느껴보지 못했던 문화적 차이를 다소나마 해소할 것이다.

언어 재료(읽기)  
A funny story

알리바바와 40인의 도적-엘리트 영어명작 길라잡이 39

편집부 / 월드컴 / 2001년 / 116쪽 / 2,500원

어릴 때부터 친숙하게 알고 있는 <아라비안 나이트>를 가볍게 즐길 수 있도록 한 영어 학습서이다.

<아라비안 나이트>는 아라비아의 전설과 민화, 동화로 흘러 다니던 꿈과 환상의 이야기 280여 편이 한데 묶여 있는 설화집이다. 흥미진진한 모험과 환상적이 이야기가 있는 <아라비안 나이트>에는 용감하고 의협심 많은 이슬람교도 아랍인들의 생활감정과 미에 대한 관능적인 기쁨이 자연스럽게 표출되어 있다.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역시 제목만 들어도 신이 나는, 1001일 밤 동안 펼쳐지는 대모험의 서사시 중 한 편이다.

이 책은 사전이 필요 없게 단어와 숙어, 구문을 상세하게 풀어 해설하였으며, 테이프를 통해 청취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언어 재료(읽기,  
듣기)

Hopes and  
Dreams

어린 왕자-영어로 읽는 세계명작 스프링 시리즈 46

편집부 / 시사영어사 / 2001년 / 128쪽 / 5,300원

이 책은 청소년을 위한 교양도서로써 중학교 2, 3학년 정도를 위한 영어 도서이다. 이 책의 저자인 생 뉘퀴베리는 프랑스 출신의 전직 비행기 조종사였다.

<어린 왕자>에서 나는 한때 화가가 되기를 꿈꾸었으나 비행기 조종사가 되어 아프리카 지방을 비행하던 중 비행기 고장으로 사막에 혼자 남는다. 나는 그곳에서 신비한 어린 왕자를 만나 많은 대화를 통해 어린 왕자를 조금씩 이해한다. 코끼리를 삼킨 보아 뱀, 어린 왕자를 좋아했던 장미꽃, 사랑과 소유의 상징으로 서로에게 길들여 가던 여우 등등, 우리는 어린 왕자를 통해 어른이지만 꿈을 잃고 싶지 않았던 어른들의 동심을 일깨운다. 그의 글에는 사막과 비행기와 별들이 많이 나온다.

그의 글은 간결하고 상징적이며, 함축적이다. 이 책을 통해 순수한 마음을 잃지 않는 청소년들의 아름다움을 가꿔나갈 수 있을 것이다.

언어 재료(읽기)  
A funny story

엘리트 리딩캠프 1 주니어용

자은숙 / 푸른샘 / 2002년 / 101쪽 / 11,000원

미국에서 초중학생들을 위한 교과 교재를 직접 연구, 개발하는 저자가 미국 현지의 교육 자료 중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적합하고, 독해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내용을 엄선하여 수록한 책이다. 독해를 중심으로 각과마다 재미있는 영어회화, 영어 퍼즐, 상식, 속담, 게임 등을 함께 익힐 수 있게 구성하였다.

언어 기능(쓰기)  
Cyber Bob

인터넷 영어 학습 사이트 길라잡이

성일호 / 동인 / 2000년 / 254쪽 / 10,000원

누구나 우리 영어교육은 학습 그 자체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광속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을 활용하여 뒤떨릴 대로 뒤떨려버린 영어교육을 바로잡고, 새로운 영어학습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총 43개 테마에 걸쳐 2600여 개의 영어학습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다. 중학생 수준에서는 다소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각자 자신의 필요에 맞는 영역별로 사이트를 찾아서 활용한다면 아주 요긴한 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책이 대부분 국내 사이트 검색에만 그치고 마는 데 비해서 영어권의 각종 사이트를 함께 소개하고 있어서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언어 재료(읽기,  
듣기)

What's your  
Hobby

피터팬-영어로 읽는 세계명작 스프링 시리즈 5

편집부 / 시사영어사 / 2001년 / 90쪽 / 5,300원

이 책은 청소년을 위한 교양도서로 중학교 1학년 정도에 적당하다. 어린 시절의 꿈과 희망, 순수한 마음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게 해준다.

웬디와 동생들이 피터 팬을 만나고 싶어하자 피터 팬은 요정 킥벨과 함께 웬디의 집에 나타난다. 웬디와 동생들은 피터 팬을 따라 어린이들만 사는 환상의 섬으로 가고, 그곳에서 피터팬과 어린이들을 괴롭히려는 후크 선장을 만나며 펼쳐지는 신비한 모험의 세계이다. 피터 팬은 악당인 애꾸눈 후크 선장과 용감히 싸운다. 한편 함께 지내는 친구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해 주는 마음씨도 가지고 있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더욱 유익하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다. 딱딱한 영어 교재를 싫어하는 학생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환상의 섬에서 영원히 자라지 않는 피터와 함께 펼쳐지는 모험의 세계로 가보자.

언어 재료(읽기)  
A funny story

Nancy 1-2 - Nancy eats Food

Ernie Bushmiller / 신영미디어 / 1996년 / 191쪽 / 3,500원

미국의 유명한 만화 Nancy를 통하여 아이들이 사용하는 일상 대화를 통하여 생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도서이다.

만화로 구성되어 있고 연재 만화라 배우기가 지루하지 않고 비교적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황에 따른 다양한 표현들로 짜여져 있어서 현장 영어의 감각을 익힐 수 있다.

Snoopy 1-2

Chares M. Schulz / 신영미디어 / 1993년 / 188쪽 / 3,500원

미국의 유명한 만화 Snoopy를 통하여 아이들이 사용하는 일상 대화를 속에서 생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도서이다. 만화로 구성되어 있고 연재 만화의 성격을 띠고 있어 배우기가 지루하지 않고 비교적 짧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황에 따른 다양한 표현들로 구성되어 있어 재미있게 현장 영어의 감각을 배울 수 있다.

언어 재료(읽기)  
1년 Mt.  
Geumgang

The Cry of the Magpies -The Portable Library of Korean Literature (영문판)

김동리 / 지문당 / 2001년 / 90쪽 / 5,000원

<The Cry of the Magpies : 까치소리>는 김동리의 가장 유명하고 널리 읽히는 단편 중의 하나이다. 가난과 전쟁과 만성적인 질병과 절망에 결합하여 이야기 속에 나타난 삶의 우울한 조건들로부터 다양하고 강렬한 구애의 충동과 갈망이 나타난다.

<까치소리>는 봉수의 돌아움을 알리는 길조의 역할과 봉수가 고향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살인까지 하게 되는 것을 암시하는 흉조의 역할을 한다. 봉수의 운명이 까치소리와 관련된 초월적인 힘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한국 문학의 거장 김동리의 문학 세계를 영역으로 외국에 소개하고 있다. 우리 문학을 영역한 글에서 색다르고 커다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김동리의 단편을 통하여 단어도 익히고, 문장의 의미도 파악해 보자.

The Wings - The Portable Library of Korean Literature 01(영문판)

이상 / 지문당 / 2001년 / 88쪽 / 5,000원

이상은 시인이자 소설가로 1910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김해경으로 보성 고보와 경성 공고를 졸업하고 1931년 처녀시 <이상한 가역반>, <파편의 경치>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이 책의 세 가지 이야기는 이상의 자서전적 요소의 창조적인 조작을 나타내고 있다. 이 방법은 그의 강렬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사랑과 삶, 죽음에 대한 폭넓은 명상으로 확장한다.

<날개>는 불신과 자기 기만의 어두운 비유이다. 이 작품은 인지와 언어의 모호성을 작가 자신과 섬뜩하게 닮은 신뢰할 수 없는 나레이터를 통해서 탐색한다. 주인공 나는 아내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다. 26살인 나는 어린애처럼 돌보기에 휴지를 태우고 논다. 이상은 이런 생활을 하는 나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 했던 것일까?

우리 문학이 영역되어 외국에 소개되고 있다. 이 책은 먼저 우리 문학을 읽고 다음에 영역본을 읽는다면 한결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You and Me  
1. Starting  
Middle School

우리가 바로 지구입니다.

데이비드 스즈키, 캐시 벤더린덴 (지은이), 김난령 (옮긴이), 최열 (감수) / 도서출판 소금강 / 2003년 1월 / 130쪽 / 12,000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나 혼자만의 세상이 아닌 더불어 사는 공동체임을 깨닫고 서로를 존중하며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하는 책이다. 지구와 환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관점으로 사물을 통찰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

You and Me  
1. Starting  
Middle School

### 만화로 배우는 명심보감 - 예절편

**이덕환 (지은이) / 도서출판 글수레 / 1997 / 206쪽 / 6,000원**

인간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예절이다. 이 책은 재미있는 만화를 통하여 쉽고 흥미있게 예절을 배우도록 도와준다. 어릴 적부터 머릿속으로만 알아 온 예절의 진정한 참 뜻을 이 책을 읽음으로 아이들의 삶 속으로 흘러 나갈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You and Me  
2. Let's Make  
Friends

### 작은 오리 쉬제트의 가장 좋은 친구

**크리스텔 데무아노 (지은이), 양진희 (옮긴이) / 도서출판 교학사 / 2002 / 40쪽 / 7,500원**

이 책은 친구 사이에는 서로를 따뜻하게 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자신의 사사로운 이해 관계를 넘어선 진정한 친구로서의 역할과 그 의미를 새로이 깨닫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 너의 꿈은 무슨 색깔이니

**하영득 지음 / 도서출판 가산 / 2001 / 341쪽 / 9,500 원**

이 책은 청소년기에 가장 심각한 고민으로 지적되는 미래와 장래에 대한 스스로의 프레임을 결정하고 그에 대한 계획을 설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책이다. 자신의 장점과 단점, 혹은 개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미리서 그려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You and Me  
3. Sound Body,  
Sound Mind

### 강아지똥

**민들레 그림책 / 도서출판 길벗어린이 / 1996 / 30쪽 / 6,800원**

이 책은 세상의 가장 작고 보잘 것 없는 것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권정생의 작품이다. 천대받던 강아지 똥이지만 민들레꽃의 거름이 되어 예쁜 민들레꽃을 피워낸다. 어떤 존재이든 모두 다 소중하고 귀한 가치를 가진 생명임을 담고 있다. 새도 피해가고 병아리도 싫어하는 강아지 똥이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지만 민들레에게 거름이 되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는 따뜻한 이야기로 아이들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다.

### 팽이부리말 아이들

**양장본 지음 / 도서출판 창작과 비평사 / 2001 / 280쪽 / 8,500원**

이 책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씩 잃어가고 있는 것- 인간적인 정과 사랑 - 들을 하나씩 회복시켜 주는 감동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묘약이 들어있는 책이다. 삶 속에서 서로 의지하며 도우며 사랑할 수 있는 이야기가 다 들어있는 보물 상자 같은 책이고 그 속에서 느껴지는 사람의 냄새가 나는 책이라고 생각한다.

Love of Family  
4. The Family  
Circle

### 내가 아빠를 얼마나 사랑하는 지 아세요?

**프릭벨 인성교육 시리즈 3, 가족사랑이fici 1 / 도서출판 프릭벨(베들북) / 1997 / 32쪽 / 8,000원**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아기도끼는 아빠토끼에 대한 사랑을 많이 높이 크게 표현하지만 아빠토끼의 사랑을 따라 갈 수가 없다. 이 책에서는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더 많은, 더 높은, 더 큰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잔잔한 감동으로 이끌어 내고 있다.

### 차운정의 우리 숲 산책

**차운정 지음 / 도서출판 용진닷컴 / 2002 / 278쪽 / 10,000원**

이 책에서는 평생을 한 곳에 뿌리내리고 사는 나무가 고체가 아닌 치열한 생명을 불사르고 있는 생명체임을 구체적으로 느끼게 해 준다. 高山에서 사는 나무는 강한 바람을 이겨내기 위해 서로 뿌리를 얽혀서 버티며 살아가는 것을 보며 힘없고 약한 사람일수록 서로 자기와 남 구분 없이 도와가야 세상살이가 덜 험난하다는 것을 알게 한다.

Love of Family  
5. A Father's  
Love

### 아버지의 목소리

박 도 지음 / 도서출판 열매 / 2003 / 299쪽 / 9,000원

이 책은 30여 년 한결같이 일선 교단에서 청소년을 가르쳐온 박도 선생이 두 자녀에게 이야기 형식으로 들려주는 삶의 지혜들로 이 땅의 모든 젊은이들에게 띄우는 글들을 모은 교육 에세이다.

###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

지그 지글러 지음 / 도서출판 큰나무 / 2003 / 223쪽 / 8,000원

이 책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동기부여가인 지그 지글러의 개인적인 편지들로 이루어진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는, 그동안 지글러가 쓴 많은 처세서와는 달리 그와 그의 가족들이 직접 주고받은 편지들로 가족의 따뜻한 사랑이야기가 담겨 있다.

삶과 사랑 가득한 한 가족에 관한 이 친밀한 대화의 기록은 이 책을 읽는 모든 이들로 하여금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깨닫게 해 줄 것이다. 또한 가족의 관계를 튼튼히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Love of Family  
6. Let's Enjoy  
the Summer

### 목숨을 건 도전 비행: 열기구에서 우주선까지

튼 벌리너 지음 장석봉 역 / 도서출판 지호 / 2002 / 167쪽 / 8,900원

이 책은 열기구를 만든 몽골피에 형제에서 라이트 형제, 그리고 헬리콥터를 만든 시코르스키와 최첨단 과학 기술의 결정체인 우주선까지, 날개 없는 인간의 무모한 꿈을 현실화시킨 발명가들의 이야기이다.

### 로빈슨 크루소 따라잡기

박상준 등저 이우일 그림 / 도서출판 뜨인돌 / 1999 / 184쪽 / 7,500원

선원이었던 로빈슨 크루소는 무인도에 홀로 남겨진 채 28년을 살았다. 원주민 프라이데이가 곧 나타나 주었지만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게 쉬울 리 없었다. 개울물을 그냥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뭇가지 부린다고 당장 불이 붙지도 않는다. 집은 또 어떻게 짓나. 이 책은 배낭 여행하다 무인도에 떨어진 20살 '로빈슨'이 생존해 가는 모습을 통해 일상적인 과학상식들을 되짚어준다.

Work Together  
7. Funny Stories

### 지혜로운 이야기 라 폰텐 우화

라 폰텐 저 신은영 역 / 도서출판 미래사 / 2003 / 175쪽 / 8,200원

이 책은 현대인들에게 이로운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는 새롭고 재미난 우화들을 엮어 놓았다. 이솝 우화를 비롯한 다양한 소재를 독창적 수법으로 다루면서 탐욕·이기주의 등 인간 본래의 나쁜 버릇을 지적하기도 하고 현실 세태를 풍자하였다. 이 우화집은 그 풍자미와 자연스럽고 청진한 시구로 인해 우화 문학의 백미로 꼽힌다.

### 소원을 들어주는 딱정벌레

베른하르트 랑엔슈타인 저 콘스탄틴 베커 작곡 송재홍 역 / 도서출판 이문과실전 / 2002 / 141쪽 / 8,000원

이야기는 늙은 방랑자와 딱정벌레가 불행한 나라의 여러 도시들을 여행하며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간단한 이야기이다. 그리고 삶의 진실이 담긴 경구를 작은 책에 적는 양치기 소녀를 만난다. 방랑자가 여행하는 여러 도시들은(노동의 도시, 평등의 도시, 쇠의 도시 등등) 현재 우리의 삶의 공간 같다.

그런 도시에서 자기 자신의 이익에 관한 소원이 아닌, 도시 전체를 위한 소원을 비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성찰하고 살피는 기회를 갖게 한다.



Work Together  
8. School  
Events

### 아이 러브 뮤지컬

**김기철 지음 / 도서출판 호형출판 / 2002 / 293쪽 / 10,800원**

뉴욕과 런던에서 장기 공연 중인 히트작과 최근 막을 올린 뮤지컬 중에서 호평을 받거나 공연 목적으로 의미 있는 작품들, 국내 뮤지컬은 해외 공연을 통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세작품을 소개했다.

각 작품마다 줄거리와 주목할 만한 뮤지컬 넘버, 무대 디자인, 주연 배우와 연출가, 작곡가에 대한 정보를 충실히 담고 있으며 작품에 대한 개인적인 판단과 느낌을 리뷰 형태로 담는 시도를 하고 있다.

Work Together  
9. Who Am I?

### 인생을 변화시키는 소중한 말 : 청소년들이 새겨야 할 명언

**박무형 지음 / 도서출판 예문서관 / 2002 / 216쪽 / 7,000원**

때로는 말 한마디가 동기가 되어, 죽어 가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인생을 낭비하던 사람이 존음을 아끼며 성실한 사람이 되며, 부모와 환경을 탓하기만 하던 청소년이 긍정적인 태도로 오히려 부모를 위로하고 돕는 효자 효녀로 변화하기도 한다.

### 유럽의 음식 문화

**맛시모 몬타나리 저 주경철 역 / 도서출판 새물결 / 2001 / 304쪽 / 13,000원**

이 책은 천년을 마감하고 새 천년을 맞이하면서 유럽인 스스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역사기획 총서 『유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의 3권이다. 음식 문화의 발생과 발달 과정을 짚어나가는 동안 유럽 문명의 근저에 있는 문화와 권력, 이미지와 실제의 관계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The World  
Around Us  
10. Look  
Around the  
World

### 한국의 축제

**이승미 지음 / 도서출판 성아출판 / 1999 / 324쪽 / 10,000원**

색다른 문화체험 여행을 원하는 이들을 위한 가이드북. 오랜 세월동안 이어져 온 전통축제부터 예술축제, 관광축제, 산업축제, 스포츠축제, 동제, 지방민속놀이마당 등 한국땅 곳곳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650여 개의 지방축제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담고 있는 축제사전이다. 각 축제의 행사 성격과 특징적 프로그램, 사진이 함께 수록되어 있다.

### 박물관에 간 아이들 (반양장) : 알짜배기 견학 숙제

**그루터기 편 이국희 그림 / 도서출판 세손교육 / 2000 / 246쪽 / 7,000원**

친구들이 직접 쓴 견학 자료들을 통해 자신감을 심어주고, 계획에서 기록문 작성까지 전과정을 흥미롭게 입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선생님들의 평가와 설명으로 견학 방법과 기록문 쓰는 요령을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또한 전국 각지의 유익한 박물관의 관람 정보와 대학 박물관 목록도 실어 견학 숙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The World  
Around Us  
11. Our  
Interests

### 영차영차 영국축구

**마이클 콜먼 저 박성준 역 / 도서출판 주니어김영사 / 2002 / 171쪽 / 4,900원**

이 책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전 세계인의 스포츠인 축구의 역사를 알아 본다. 모르고 있었던 우스꽝스러운 축구의 역사와 괴담들이 흥미진진하며, 축구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된다.

### 생태학자 박병상의 우리 동물 이야기

**박병상 지음 / 도서출판 북갤러리 / 2003 / 328쪽 / 8,000원**

멸종위기에 놓인 희귀종, 아니면 천연기념물이나 보전의 가치가 높은 야생동물들을 주로 담고 있지만, 사람 주변에서 본성이 왜곡된 채 살아가는 동물이나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학대받는 동물에게 시선을 옮겨 그리고도 있다. 이 책에선 우리생활과 밀접한 동물들의 열악한 생태계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기를 바라는 저자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다.

The World Around Us  
12. Think Back, Look Ahead

**성공하는 10대들의 7가지 습관**

**손 코비 지음 / 도서출판 김영사 / 2002 / 330쪽 / 9,900원**  
성공전문가 스티븐 코비의 아들인 손 코비가 쓴 '10대들을 위한' 등대 같은 글. 10대에 길러야 할 습관과 패러다임, 원칙, 사고방식 등을 10대들의 눈높이에서 설파하고 있다. 주도적이 되라,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경청한 다음 이해시켜라 등 가슴에 새겨두어야 할 내용이다.

**네모의 책 : 자기 정체성을 찾아 떠나는 네모의 여행**

**니콜 바사랑, 도미니크 시모네 공저 박창화 역 / 도서출판 사계절 / 2000 / 372쪽 / 13,800원**  
네모는 교통 사고로 기억상실증에 걸린다. 잃어버린 기억과 정체성을 찾기 위해 가스파르 형과 여행을 떠난다. 네모는 여행을 통해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함께 역사, 예술, 문학, 지리학, 생태학, 과학, 천문학, 종교, 철학 등을 보고 듣고 접하면서 자아를 찾아간다. 이 책은 또래의 아이들이 알아야 할 지식과 삶의 가치들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담은 교양 소설이다.

천재/학교생활  
1. Hello, Everyone

**중학교 1학년을 위한 우리말 우리글**

**전국국어교사모임 / 나라말 / 2001 / 292쪽 / 10,000원**  
전국국어교사모임이 펴낸 새로운 교과서. 국어교육의 핵심적 목표를 '사고력 향상'에 두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토론할 수 있는 주제를 담았다. 기존의 딱딱하고 교훈적인 주제에서 벗어나 자기 소개하기, 내 몸 이야기하기, 내 인생의 10대 뉴스 말하기, 내 인생의 미래를 그래프로 그려보기 등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주제를 다루고 있다. .

천재/날씨 · 계절  
2. Korea's Four Seasons

**마당깊은집**

**김원일 저 / 문학과 지성사 / 2002 / 320쪽 / 7,000원**  
이 책은 6·25 이후 50년대 초의 현실을 놀라운 기억으로 재생해내면서 치밀한 객관성을 확보해나가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추억을 통한 소년의 시점을 시종 유지해나감으로써 풍부한 서정성을 얻고 있다.

천재/운동 · 취미  
3. Do you like sports?

**한국은 축구다**

**김화성 저 / 지식공작소 / 2002 / 240쪽 / 7,500원**  
한국축구에 대한 깊은 통찰력이 엿보이는 에세이. 화끈하고 직설적인, 그러면서도 정에 약하고, 창의력은 한참 부족한 한국인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국 축구를 여러 각도에서 풀어주어 매우 흥미롭다.

천재/건강 · 신체  
4. Su-jin Goes to See a Doctor

**인체기행**

**권오길 저 / 지성사 / 2000 / 344쪽 / 9,000원**  
이 책은 작은 인체 소사전으로 이용될 수도 있을 정도로 눈, 귀, 입, 호흡계에서 오장육부까지 신체의 기관을 샅샅이 훑으며 각 호르몬과 내분비계선, 인간의 유전과 죽음까지 인간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시선을 맞춘다.

**눈이 좋아지는 매직아이**

**Kurita Masahiro 김수 / 창과학 / 2001 / 32쪽 / 7,800원**  
이 책은 하루에 5~10분씩 2~3주후가 지나면 시력 향상과 뇌의 정보처리 능력까지 향상을 꾀할 수 있다며 시력측정표와 시력향상 기록표도 부록으로 담았다. 특히 컴퓨터게임에 빠진 어린이나 청소년, 그리고 수험생들에게 효과적이다.

천재/정서순화  
6. Funny Stories

### 꼬마 니콜라

르네고시니 저 / 문학동네 / 1999 / 195쪽 / 5,200원

영똥하지만 귀엽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꼬마 니콜라가 학교와 가정에서 겪는 여러가지 사건들이 유머러스하면서도 정감 있게 펼쳐지는 작품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아이들의 부모님과 선생님 등, 겉보기엔 무뎠지만 낙천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어른들, 또한 이 유쾌한 장난꾸러기들과 함께 삶의 기본적 교훈들을 신나고 기분 좋게 엮어 나간다.

### TV동화 행복한 세상

박인식 PD 기획 / 샘터사 / 2002 / 272쪽 / 9,000원

“TV 동화 행복한 세상”은 아름답고 감동적인 사연들을 파스텔톤의 애니메이션과 이금희씨의 정감있는 목소리로 수많은 사람들의 눈시울을 적셨다. 이 감동을 고스란히 종이책에 옮겨 놓은 <TV동화 행복한 세상>은 마치 방송을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이다.

천재/개인생활·여행

### 1318 미술여행

7. A Letter from New York

김중수 저 / 동녘 / 1997 / 236쪽 / 5,800원

미술을 교과서적인 틀에서 벗어나 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된 안내서. 현직 교사인 지은이는 학생들과 미술 여행을 하듯 생활 주변의 이야기를 미술과 연관시켜 서정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미술의 이해와 표현, 미술 공부의 이유등을 4개의 큰 장으로 나눠 설명하고, 직접 그린 만화도 곁들여져 있어 학생들에게 어려운 미술이 아닌 친숙한 미술로 느껴질 것이다.

천재/쇼핑·문화차이

### 청소년 토지

8. Su-jin Went Shopping

박경리 저 / 이룸 / 2003 / 173쪽 / 8,000원

『청소년 토지』는 2백 페이지 분량의 도서 12권으로, 그 분량이 대폭 축소되었지만 원전 『토지』의 내용과 사상 등은 그대로 살아 있다. 또한 『청소년 토지』의 구성에 있어 원 『토지』와 가장 변별되는 부분은 4부와 5부인데, 원작은 소설적 사건 전개보다 논설에 가까운 사상적 논제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청소년 토지』는 서사 위주의 이야기 속에서 작품 본래의 의미를 효과적으로 살려내고 있다. 이는 청소년 독자들이 극적 긴장과 이야기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 잘먹고 잘사는 법

박정훈 저 / 김영사 / 2002 / 381쪽 / 12,900원

막연하게 떠돌던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과학적 방법과 실증적 취재로 증명해내었으며, 미래를 위한 식탁과 먹는 행위의 진실을 밝혔다. 우리의 아이들이 어떤 식사를 하고 있는지 또 그 식단이 얼마나 위험한지, 현명한 식사는 어떤 것인지, 미래를 위한 식사법 등 우리의 식문화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방송에서는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심도있게 다루었으며, 가공식품을 즐겨먹는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천재/과학·발명  
9. Bright Ideas

### 야생초 편지

황대권 저 / 도솔 / 2003 / 287쪽 / 8,500원

13년 2개월 동안 복역한 양심수 황대권의 야생초 사랑 이야기이다. 그는 감옥에 자그만 화단을 두어 야생초들을 키우는 데서 단순한 취미가 주는 기쁨 이상의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한다. 흔히 감옥 속에서 쓴 글이라면 연상되는 것과 달리, 이 책의 편지들은 소박하다. 자신의 얘기보다도 야생초나 감옥 주위 동식물을 관찰한 얘기를 꼼꼼히, 그림과 함께 기록한 마음 편안한 관찰기다.

영

어

1

천재/과학·발명  
9. Bright Ideas

**인간의 삶을 뒤바꾼 위대한 발명들**

**이라 플라토우 저, 김현구 역 / 여강출판사 / 2002 / 336쪽 / 13,000원**  
우리가 아는 세기의 발명들이 있다. 토머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했고, 프랭클린은 연을 날려 번개가 전기라는 것을 증명했다. 발명에 얽힌 숨겨진 이야기와 그 진실들, 우연한 발견을 위대한 발명으로 연결시킨 수많은 발명가들의 노력과 도전의 이야기가 책 속에 담겨 있다.

천재/숫자·문화  
차이  
10. Fun with Numbers

**즐거운 숫자 문명사전**

**피터 데피로, 메리 데스몬드 핀코위시 공저, 김이경 역 / 서애문집 / 2003 / 640쪽 / 19,800원**  
아담의 '3' 아들 이야기로 성경은 시작된다. 이슬람 건축의 다섯 기둥은 신앙인의 5가지 덕목의 상징. 세익스피어는 '뜻대로 하세요'에서 인생의 7단계를 논했고, 1066년 노르만인의 정복 이후 영국은 9개의 왕가가 다스려왔다.  
구소련에는 15개의 공화국이 있었으며 고대 그리스어의 알파벳 수는 24개다. 이 책은 3에서 24까지의 숫자를 매개로 94가지 동서고금의 문명을 소개한다. 각 항목의 첫머리에 질문과 답을 제시한 뒤 자세한 해설을 덧붙였다.

천재/대중매체·여가  
11. What Do You Think of TV?

**거꾸로 보는 텔레비전**

**김남길 저, 오성봉 그림 / 문공사 / 2001 / 120쪽 / 6,000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박쥐들의 동굴 세상이 있다. 박쥐들도 우리처럼 텔레비전도 보고, 세탁기에 빨래도 하고, 냉장고에서 시원한 물도 꺼내 마신다. 다만 컴컴한 동굴에 살고, 물건을 천장에 거꾸로 매달아 놓고 사용한다는 점이 우리와 다를 뿐이다. 재미있고 신기한 박쥐 나라를 여행하며 나와 다른 타인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배울 수 있다. 알지 못하는 다른 세상에 대한 환상과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을 것이다.

천재/봉사활동  
12. At the Fire Station

**봉순이 언니**

**공지영 저 / 푸른숲 / 1998 / 207쪽 / 6,000원**  
작가의 고향인 서울 아현동 언저리를 배경으로 이제 막 다섯 살이 된 '짱아'가 식모인 '봉순이 언니'와의 만남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삶에 눈뜨가는 과정을 놀라운 기억력으로 촘촘하게 복원해 낸 소설이다. 60~70년대 고도 성장의 뒷골목에서 한없이 짓이겨지고 추락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낙관을 버리지 않는 '봉순이 언니'의 삶을 반성 어린 눈길로 감싸안으며 그 속에서 끝끝내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의 씨앗을 건져올리는 작가의 붓끝은 이 소설에서도 아름답게 빛을 발한다.

두산  
2. Our Neighbors Talk and

**툼 소녀의 모험**

**마크 트웨인 저 / 범우사 / 1999 / 301쪽 / 7,000원**  
미국 문학의 고전 중의 하나로 인위적인 관습이나 제도를 모르고 자연을 호호하면서 인간이 지닌 천진성을 10대의 등장 인물들을 통해 그려내고 있는 작품이다.  
주인공 툼 소녀는 모험적이고 장난을 좋아하는 개구장이이며, 약자를 돕는 인간미가 있는 인물로 우리 학생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하는 생활이 무엇인지 한번쯤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두산  
3. To Mom and Dad, with Love / Talk and Talk

**백설공주(영어로 읽는 세계명작스프링 06)**

**그림형제 저 / 시사영어사 / 2001 / 96쪽 / 5,300원**  
<영어로 읽는 세계 명작 Spring Series>는 총 30권으로 수준별 6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초·중고생들이 영어 습득 정도에 따라 알맞은 작품을 선택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한 학습문고 시리즈이다. 사랑, 우정, 낭만, 모험, 교훈, 감동이 가득한 세계 명작을 Ready Vocabulary 방식을 채택해, 일일이 사전 찾는 번거로움 없이 단숨에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Chapter별로 Checkup코너가 있어 영어 실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준다.

두산

4. Help!  
Help!/Talk  
and Talk

## 다시 읽는 이솝 우화(민들레 문고 13)

이덕주等著 / 내일을 여는 책 / 1994 / 247쪽 / 6,000원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고 어릴 때부터 가장 많이 접했을 동화 이솝우화를 다른 관점에서 거꾸로 뒤집어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솝 이야기의 교훈 밑에 숨어 있는 생각을 방향을 바꾸어 생각하게 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유도하고 있다. 자기 생각 나누기, 글쓰기 마당, 함께 만들어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생각을 변화시키는데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두산

4. Help! Help!/  
Starting Line

## 손도끼(사계절 1318문고 18)

게리 폴슨 저, 김민석 역 / 사계절 / 2001 / 186쪽 / 6,000원

이혼한 부모 사이를 오가며 생활하는 13세 브라이언이 뜻밖의 비행기 사고로 겪는 극적인 이야기다. 모든 것이 마련된 현대 도시의 삶에서 벗어나 스스로 살아남는 법을 터득해가는 사이에 어느새 훌쩍 성숙해지는 10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두산

5. A New  
Friend/  
Talk and Talk

## 플란다스의 개(영한대역 명작소설 02)

위다 저, 홍준희 역 / 사피엔티아 / 2000 / 181쪽 / 6,000원

가난하지만 착하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는 소년 네로와 충성스럽고 영리한 개 파트라슈의 예쁜 우정과 가슴 뭉클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왼쪽에 영문과 오른쪽에 한글 번역이 함께 되어 있다.

두산

6. Surfing Is  
Fun/미래세계

## 멋진 신세계

올더스 헉슬리 저, 이덕형 역 / 문예출판사 / 1998 / 334쪽 / 7,000원

20세기 문명이 어디로 치달고 있는가를 회화적으로 묘사하여 그것이 지닌 위험을 경고한 작품으로, 20세기에 쓰여진 미래소설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손꼽힌다. 기계 문명의 극한적인 발달과 인간 스스로가 발명한 과학의 성과 앞에 노예로 전락하여 마침내 모든 인간 가치와 존엄성을 상실하는 지경에 도달하는 비극을 묘사했다.

두산

7. Mr. Collect's  
Toy Hospital  
/ Talk and  
Talk

## 엄마찾아 삼만리

에드문드 데 이미지스 저 / 계림닷컴 / 2001 / 192쪽 / 5,000원

집이 가난하여 엄마와 떨어져 살게 된 마르코는 엄마를 찾아서 긴 여행을 하게 된다. 가족의 소중함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명작동화이다.

두산

7. Mr. Collect's  
Toy Hospital  
/ Read and  
Discu

##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

니 서 저 / 문학사상사 / 2000 / 279쪽 / 7,500원

98년 피플지에 의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 중의 한 명으로 선정된 한 재미교포 환경운동가의 삶을 스케치한 에세이다.

'하루 15분 작은 실천론' 즉, 항공 마일리지를 병들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맡고 있는 기관에 넘긴다든지, 여행을 할 때 썼던 샴푸, 린스, 구강청정제, 비누 등을 싸워서 노숙자 보호소에 맡긴다든지 등 세상을 바꿀 만한 몇 백 만 가지의 방법 등을 아름답게 그린 작품이다.

두산

8. Korean  
Games /  
Read and  
Play

## 가슴펴고 어깨걸고 1, 2

놀이연구회, 이상호 공저 / 우리교육 / 2002 / 262,256쪽 / 각 8,000원

학교, 유치원, 공부방, 문화단체 등에서 쓸 수 있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건강한 놀이' 책이다. 월별의 주제를 가지고 전래놀이, 심성놀이, 자연놀이, 그 밖의 노래와 율동이나 대동놀이 등 다양한 놀이감을 수록하고 있다. 놀이를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아이들에게 일깨워줄 수 있는 책이다.

두산  
9. Four Seasons  
in One Day?  
/ Talk and  
Talk

**걸리버 여행기**

**조나단 스위프트 저, 이동진 역 / 해누리 / 2001 / 496쪽 / 12,000원**

<걸리버 여행기>는 전 인류의 통치세력들과 문명사회의 부패, 탐욕, 위선을 통쾌하게 풍자 비판한 영원한 고전 명작이다.

어린이들에게는 항해가의 모험담으로 상상력과 모험심을 심어 주고 어른들에게는 이야기 뒤에 숨은 인간 본성에 대한 날카로운 정치 풍자와 문명 비판을 즐길 수 있게 해주는 작품이다. 특히 이 책은 1972년 초판본의 국내 최초 완역판으로 오리지널 삽화 400장을 완전 수록하고 있어 걸리버 여행기의 참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해준다.

두산  
10. The Tree,  
the Bird,  
and the  
Star/ Talk  
and Talk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영어로 읽는 세계명작 스프링08)**

**요한나 스피리 저 / 시사영어사 / 2001 / 112쪽 / 5,300원**

<영어로 읽는 세계 명작 Spring Series>는 총 30권으로 수준별 6단계로 구성되어 있어 초·중고생들이 영어 습득 정도에 따라 알맞은 작품을 선택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한 학습문고 시리즈이다. 사랑, 우정, 낭만, 모험, 교훈, 감동이 가득한 세계 명작을 Ready Vocabulary 방식을 채택해, 일일이 사전 찾는 번거로움 없이 단숨에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으며 Chapter별로 Checkup코너가 있어 영어 실력을 키우는데 도움을 준다.

두산  
10. The Tree,  
the Bird,  
and the Star  
/ Read and  
Imagine

**푸른 지구를 되살리는 민들레 교실**

**우리교육 편집부 저 / 우리교육 / 1997 / 277쪽 / 5,000원**

“2000년대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무엇이겠는가”라는 질문에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대답은 ‘환경문제’였다고 한다. 이처럼 환경 문제는 절박한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되었다. 이 책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오염과 공해로 땅이 죽어가고 이 땅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괴로움을 사례를 들어 보여주고 있다.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해준다.

두산  
11. Characters  
Are  
Everywhere  
/ Talk and  
Talk

**크리스마스 캐럴**

**찰스 디킨즈 글, 틴 블레이크 그림, 김난형 역 / 시공주니어 / 1996 / 164쪽 / 15,000원**

돈은 많지만 남에게 베풀 줄도 모르고, 즐겁게 살 줄도 몰랐던 스크루지 영감이 과거 크리스마스 유령과 현재 크리스마스 유령, 미래 크리스마스 유령에게 혼쫓이 나고야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이야기다. 디킨즈의 연작 ‘크리스마스 책’의 첫 권이다.

두산  
11. Characters  
Are \  
Everywhere  
/Expression  
Plus

**두 시간 만에 읽는 명화의 수수께끼**

**긴 시로 저 / 현암사 / 2001 / 176쪽 / 7,500원**

학생과 교사의 재기 넘치는 대화형식으로 서양미술사에 큰 획을 그은 작가와 작품들을 소개한 서양회화의 입문서다.

13세기 ‘이탈리아 미술의 아버지’ 조토부터 현대 예술의 새 장을 연 20세기의 달리에 이르기까지 25인의 거장의 작품을 대상으로, 서양미술사의 흐름, 명화 속에 숨은 상징, 화가들의 독특한 삶과 예술세계를 두루 살펴본다.

두산  
12. The 21st  
Century and  
I / Talk and  
Talk

**두 시간 만에 읽는 명화의 수수께끼**

**유아비전 저 / 글승이 / 2001 / 50쪽 / 7,000원**

동화를 통하여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고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영어동화이다. 네이티브 스피커의 생생하고 정확한 영어 발음이 녹음된 테이프와 가족이나 친구들과 역할놀이를 해볼 수 있는 연극놀이 대본, 그리고 본문의 중요한 단어들 스티커놀이를 구성하여 재미있게 익힐 수 있도록 한 스티커가 들어 있다.

두산(장)  
12. The 21st  
Century and  
I / Starting  
Line

**우주선과 카누: 첨단 물리학자 아버지와 숲속의 아들**

**케너스 브라워 저, 이교선 역 / 창작과비평사 / 1997 / 400쪽 / 7,500원**

‘첨단 물리학자 아버지와 숲속의 아들’ 두 부자의 독특한 삶, 그들의 어긋남과 관계의 재정립을 그린 논픽션. 인류의 구원을 위해 우주이주지 건설을 꿈꾸며 핵동력 우주선 연구에 정열을 쏟는 아버지와, 대자연 속에서 나무집을 짓고 살며 과학기술시대 이전의 자산을 되살림으로써 인간의 운명이 구원될 수 있다고 믿는 아들의 갈등과 화해가 감동적으로 그려진다.

□ 2학년 공통

언어 가능(문화)  
English Proverbs

20년간 배운 영어, 런던에서 길을 잃다

우예전 / 조륙배매직스 / 2001년 / 360쪽 / 9,000원

언론인 출신으로 영국 런던에 머물고 있는 저자가 그곳에서 겪은 언어적 어려움과 에피소드를 현지 표현과 함께 담은 책이다.

한국인들이 영어에 어려움을 겪는 근본적 이유부터 시작해 영어 공부의 비결과 다양한 표현들을 소개하고 있다. 1장 영어를 배우는 이유부터 '아는 영어도 못하는 이유, 영국-영국 사람, 영어 늘리기, 말하는 방식, 쉬운데 안 되는 것들'까지 총 7장으로 나눠 엮었다. 특히 이 책에서는 런던에서 서기 2000년에 쓰고 있는 현지 영어를 소개하여, 잘 쓰이지도 않는 어려운 단어를 외우기보다는 많이 쓰이는 표현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언어습득 방법을 시도하였다. 그리고 몇 형식 같은 문법 구조를 떠올리며 해부하려 하지 않고, 영어가 쓰이는 상황을 그대로 보여 주려 하였다.

"왜 영어를 익히는지 목적을 뚜렷하게 정한 뒤, 실제로 쓰이지도 않는 어려운 단어 공부하지 말고, 많이 쓰이는 표현과 언어 습관을 익히라"는 저자의 충고에 제대로 답할 수 있다면 이 책을 읽은 가치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재 중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저자 자신이 겪은 시행착오와 런던에서 익힌 문화적 차이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는 문화 학습서로서 읽는 것이 좀더 효과적인 독서법이 아닐까 한다.

언어 가능(문화)  
Different  
People,  
Different Foods

80일간의 세계일주-영어로 읽는 세계명작 스프링 시리즈 11

편집부 / 시사영어사 / 2000년 / 104쪽 / 5,300원

이 책은 중학교 1, 2학년을 위한 영어로 읽는 세계 명작 스프링 시리즈 11 제 3단계로, 주인공 포그와 하인 파스파르투가 펼치는 '80일간의 세계일주'를 통하여 독자들과 세계 여행을 하게 된다.

오늘날처럼 비행기나 기차와 같은 교통수단이 없었던 먼 옛날에 80일만에 세계를 한 바퀴 돈다는 것은 상상을 못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을 도전 정신과 용기로 이겨내며 80일 만에 세계 일주를 해낸다.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이지만 영어로 읽는다는 것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문장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동안, 어휘의 뜻에 대한 추측을 통하여 내용을 차곡차곡 이해해 간다면, <80일간의 세계여행>처럼 영어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언어 재료(동사)  
Behind the  
Pictures

골치 아픈 영어 동사 그림으로 끝내기

남진현 외 / 새문집 / 1999년 / 278쪽 / 5,800원

흔들하기 쉬운 영어 동사를 그림과 함께 상세히 설명한 단어장이다. 잘못 쓰기 쉬운 동사 400가지를 간략히 수록하고 해당동사를 그림과 예문을 함께 익히도록 하였다.

'가르치다'부터 '괴롭히다, 고치다, 다스리다, 소리치다, 흥분시키다'까지 가나다순으로 실고, 전혀 다른 뜻을 가진 기본동사 39가지를 담았다. 우리말로는 비슷해도 전혀 다른 뜻을 갖고 있는 동사들을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 바른지 설명하고 있다. 각종 시험 및 영어 회화에 많이 사용되는 동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책 속에 실려 있는 삽화가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어려운 단어는 건너뛰고 쉬운 단어부터 익히기 시작한다면 자기 수준에 맞는 단어를 차곡차곡 학습할 수 있을 것이다. 중학생 중에서도 상급 수준의 학생부터 도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언어 가능(쓰기)  
Dear Diary

그레텔과 함께 쓰는 영어 일기

영어연구팀 / 밝은누리 / 2002년 / 276쪽 / 7,500원

영어 일기 쓰기는 예전부터 많이 활용되어 온 영어학습법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시중에는 영어 일기 쓰기를 강조하는 책이 많이 나와 있다. 그러나 중학생 수준의 눈높이를 감안한 책은 쉽사리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초등학생 수준의 예문에만 단어만 조금 어렵게 구성하였거나 일반인을 상대로 쓴 서식 위주의 일기 영작문 책자가 대부분인 실정에서 이 책은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짧으나마 영어로 일기를 쓰는 과정을 통해서 영어 실력과 함께 글 쓰는 능력이 향상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누릴 수도 있다. 특히 책 속의 스티커로 그날그날의 기분을 표현하면서 영어 일기에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나만의 세계를 가꾸는 데 관심이 많은 여학생이라면 영어와 관계가 없더라도 한권쯤 갖고 싶을 만한 책(공책?)이다.

**언어 기능(문화)**  
Mysteries of the  
Pyramids

**그리스 신화-영어로 읽는 세계명작 스프링 시리즈 18**

**편집부 / 시사영어사 / 2000년 / 104쪽 / 5,300원**

이 책은 청소년을 위한 교양도서 중학교 2, 3학년용을 위한 영어로 읽는 세계 명작 스프링 시리즈 18 편(4단계)이다.

그리스 신화를 전에 읽은 적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영어로 읽는 기회를 가지면서, 단어의 의미에 추측을 통하여 문장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대의 신화를 통한 먼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면서, 영어 실력도 기를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번역이 옆에 붙어 있지만 가능하면 영어 본문을 보고 듣는 가운데 내용을 짐작하며 진행하면 효율적인 독서가 될 것이다.

고대 신들의 세계를 통하여 인간 세계와 상징의 세계를 이해하는 시간 여행을 떠나보자.

**언어 재료(읽기)**  
Behind the  
Pictures

**그림 동화집-영어로 읽는 세계명작 스프링 시리즈 15**

**편집부 / 시사영어사 / 2001년 / 106쪽 / 5,300원**

독일의 동화 작가 그림 형제(Jacob ludwig Karl Grimm: 1785~1862, Wilhelm Karl Grimm: 1786~1859)가 독일의 민간에 널리 퍼져 있는 설화를 수집해 편찬한 동화책을 초급 수준의 영어로 번역한 책이다.

그림 형제는 독일 국내를 돌아다니면서 국민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던 민화나 전설을 모아 정리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민화나 전설 속에 독일의 민족 정신이 깃들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그림의 동화는 민족 동화라고 할 수 있다. 제목만 소개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만큼 너무나 많이 알려진 이야기들이다. 백설공주, 빨간 모자, 헨젤과 그레텔, 늑대와 7마리 어린 왕, 황금거위, 엄지공주 등이다.

세계명작 스프링 시리즈는 난이도를 6등급으로 조정하여 초·중·고생들이 수준에 따라 작품을 읽을 수 있도록 한 학습 문고 시리즈이다. 이 책은 영어로 읽는 세계명작 시리즈 3단계로 680개의 단어를 수록하고 있다.

함께 있는 Tape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만들었는데, 중간에 한 문장씩 우리말이 있어서 훨씬 쉽게 공부할 수 있다.

**언어 기능(쓰기)**  
Dear Diary

**누구야! 내 영어 일기 본 사람**

**권은영 / 신나라 / 2001년 / 208쪽 / 8,500원**

우리 주변의 인물들이 쓴 영어일기를 통해 실생활의 이야기를 담은 영어학습서이다.

1년 열두 달로 구성되어 있는 본문은 새해 첫날, 컴퓨터 바이러스, 어버이날, 가을 교정, 성적표, 노래방 1년간의 영어 일기를 통해 문법을 보강하고 영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날그날의 일기 뒤에는 '단어와 숙어, 기본 핵심 문장, 기본 문장 활용, Dialogue, 확인 연습 문제'가 있어서 새로운 단어나 표현을 바로바로 익힐 수 있도록 조직되어 있다. 거기에는 'Story of the Day'를 스스로 쓸 수 있는 난이 있어서 효과적인 쓰기 학습까지 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두세 편의 일기 뒤에 월별로 12개의 '초간단 영문법 교실'이 있어 기초적인 문법을 익힐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제일 앞부분에는 '자신을 자신 있게 소개하는 코너'가 있어서 '학교, 가족, 외모, 출생, 성격, 취미' 등의 사항을 스스로 써 봄으로써 친밀감을 더해 주고 있다.

**의사소통 활동**  
Communication

**다섯 마디 영어 회화**

**김낙찬 / 소학사 / 2002년 / 182쪽 / 7,500원**

누구나 기본적인 어휘력으로 쉽게 영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구성된 영어회화 학습서이다. 실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 문형을 쉽게 다섯 마디의 짧은 단어를 이용해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뿐만 아니라 상황 설명까지 곁들여 일상회화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상황별로 나누어 상세한 설명과 표현을 담고 있으며 기본 문형을 다섯 마디의 짧은 단어를 이용하여 쉽게 기억하도록 하였다. 짧고 간단한 표현을 계속 반복하여 읽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원하는 표현을 구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상세한 문법 설명이나 어구 풀이 없이 곧바로 문장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영어에 서투른 학생은 다소 어렵게 느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쉽고 간결한 생활회화 위주의 문장들이므로 실제 상황을 연상하면서 공부한다면 좋은 성과도 있을 듯하다. 문제는 자신의 필요에 맞게 활용하는 학생들의 태도에 달려 있다.



### 따뜻한 영혼을 위한 101가지 이야기 1-2(영한 대역)

책 **캠필드 워 / 씨앗을뿌리는사람 / 2002년 / 170쪽 / 7,500원**

엄청나게 히트한 베스트셀러의 영한 대역본. 왼쪽면에 한글, 오른쪽면 원문이 실려 있다. 영어에 대한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 등에서 틈틈이 영어 원서를 읽는 직장인·학생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독자들에게는 수준이나 분량 면에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영어 원서를 바로 읽는다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다. 재미있고 쉽게 읽으면서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필요한 책이라 할 수 있다.

<따뜻한 영혼을 위한 101가지 이야기 1·2>의 가장 큰 장점은 원문 내용 그 자체이다. 생생한 현대 영어로 쓰여진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따라가다 보면, 살아 있는 영어 표현들과 영어권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게 된다. 또한, 영어 학습을 전제로 한 기존의 영한대역 문고본과는 달리 한영대역으로 꾸며져 있어, 우리말로 먼저 읽고 내용을 파악한 후에 영어 원문을 부담 없이 즐기도록 유도하고 있다.

짧은 분량 또한 시간을 다투어야 하는 현대 생활에서는 편리한 점이다. 이야기 하나가 3페이지를 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읽을 수 있어 출퇴근 시간이나 휴식 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표준영어를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할 중고등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 매일 10단어로 똑딱 중학생 영어일기 - Teen Teen Diary 1

정미선 / 다락원 / 2000년 / 144쪽 / 7,500원

영어를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여 실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법중의 하나가 '영어일기' 쓰기이다. 생활 속의 표현들을 영어로 적다 보면 어느새 영어에 대한 감각과 표현력을 기를 수 있다. 중학교부터 영어일기 쓰기는 자신감을 길러주고 고급 영어로 가는 밑거름이 된다.

이 책은 중학교 1학년 영어 교과 과정과 미국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쉬운 회화체 문장을 바탕으로 중학 영어 정도의 실력으로도 자연스럽게 영어일기 쓰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꾸며진 영어일기 가이드북이다.

중학교에 다니는 오정(Ojeong)이라는 여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126편의 연중 행사 및 에피소드를 통해 기초 영문법은 물론 실생활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다양한 영어 표현과 문장력을 기를 수 있다. 1권은 중 1, 2학년 수준의 어휘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 매일 5문장으로 술술 중학생 영어 일기(Teen Teen Diary 2)

정미선 / 다락원 / 2000년 / 152쪽 / 7,500원

영어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는 영어일기 쓰기 학습서이다. 중학교에 다니는 오정이라는 여학생이 1월부터 12월까지 집과 학교를 중심으로 일어난 일과 자신의 생각을 영어로 쓴 일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중1 수준의 <Teen Teen Diary> 시리즈 첫째 권(매일 10단어로 똑딱 중학생 영어 일기)에 이어 중2 수준의 어휘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황별로 되어 있는 42가지의 일기를 쓰는 가운데 Key phrase와 단어를 익힌 뒤 스스로 일기를 써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학생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문법을 간단하고 쉽게 정리했으며, 앞에 나온 일기의 주제와 관련된 단어들을 그림과 예문을 곁들여 제공했다. 아울러 미국 문화와 관련된 단어의 쓰임에 대한 재미있는 상식을 제공하고 있다.

### 미국에선 안 통하는 한국식 영어표현

Scott Fisher / 다락원 / 1999년 / 257쪽 / 8,500원

네이티브 스피커가 직접 쓴 정통 미국 영어 교재이다.

한국식 영어표현이 미국인에게 어떤 의미로 들리는지 저자의 생생한 경험을 바탕으로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다. 부담 없이 읽으면서 미국 구어표현을 익힐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하게 구성했다.

미국인을 황당하게 하는 콩글리시 표현 120가지를 소개한 뒤 올바른 영어표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핸들은 차의 문고리', '미국에선 사이다가 분위기 있는 음료', '팬티를 입은 남자는 변태' 등 단어 조합으로 엉뚱한 의미가 되는 영어를 소개하고 있다.

사이사이마다 만화가 있어서 흥미를 더하는 한편 영터리 콩글리시 표현의 엉뚱함을 바로잡을 수 있다. 본문 171쪽을 보면, 흔히 군화를 워커(walker)로 잘못 부르는 경우를 지적하고 있다. 영어의 바른 뜻은 '노인이나 환자 등 걸음이 불편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고안된 보조 장치'라고 하는데, 요즘 병원에서 다리를 다친 분들이 허리 높이의 이 기구를 이용해서 걸음을 딛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 복잡한 설명보다는 본문에 제시된 것과 같은 그림을 보여 준다면 훨씬 쉬우면서도 정확하게 영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 재료(읽기)  
Now and Then

### 비틀즈로 떠나는 영어 여행

성주현 / 평단문화사 / 2002년 / 300쪽 / 9,500원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들, 남녀간의 사랑, 세월의 무상함, 영혼에 대한 진지한 질문 등을 소재로 하는 Beatles의 노랫말은 쉽고 재미있으면서 때론 예술적인 감동을 준다. 비틀즈가 영국의 국민가수를 넘어서 전 세계인에게 사랑을 받는 불멸의 그룹으로 남아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다.

이 책은 바로 그룹 비틀즈의 노래들을 통해 기본적인 영문법 체계를 배우는 책이다. 학교에서 배우는 기본적인 영문법 체계를 그대로 활용했고, 문법을 설명하는 제시 예문들이 대부분 멜로디를 따라 쉽게 외울 수 있는 비틀즈의 노래를 활용한 것들이다. 귀에 익숙한 팝송 가사들을 통해 문법을 공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즉 단순히 암기만 하게 하는 영어학습서의 틀을 벗어나게 하는 데 목적을 둔 학습서이다.

또한 책의 중간중간에 Beegees, Boyz II Men, Amy Grant 등의 노래 가사를 예문으로 제시함으로써 지루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비틀즈와 팝 스타들의 가사를 음미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가사(영 문)를 통째로 암기하게 되고 기초 영문법도 마스터할 수 있을 것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CD나 테이프가 함께 묶여 있지 않다는 것인데, 비틀즈 곡을 관리하는 영국의 해당 음반사의 까다로운 저작권 관리 문제 때문이라고 한다. 아마도 비틀즈의 노래 정도라면 별도로 제공할 필요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영어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아니라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책이지만, 불후의 명곡 'Yesterday'가 들려주는 인생의 교훈을 영어 공부와 함께 해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슴 설레는 일이 아닐까?

언어 재료(읽기)  
The different  
Walks of Life

### 세계 역사 속에 나타난 불후의 서신 100

21세기영어교육 연구회 / 굿모닝스쿨 / 2001년 / 398쪽 / 8,500원

서신이란 소식을 알리거나 용건을 적어 보내는 글을 말한다. 인류 문화유산 중 하나가 된 서신은 중요 역사기록과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그런 편지글을 통해 주옥 같은 글의 묘미를 맛보는 한편 영어 학습서로서 기능까지 함께 하도록 편집된 책이다.

고대 알렉산더 대왕의 서신을 비롯해 사랑하는 여인 때문에 영국 성공회를 탄생시킨 헨리 8세의 서신, 나폴레옹의 서신, 위대한 음악가 베토벤의 서신 등 100편의 글을 영어와 한글로 수록했다. 역사상의 위대한 인물들이 남긴 불후의 편지들의 영어본과 한글본을 함께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자들을 위해 길고 지루한 고어체(古語體)의 설명을 줄이고, 핵심이 되는 이야기와 요점을 중심으로 꾸몄다는 기획 의도가 돋보인다. 등장하는 인물과 사건에 얽힌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면서 읽다 보면 의외로 재미있고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복잡한 문법 설명 없이 간단한 어구 풀이 정도만 제시되어 있어서 중학생으로는 상당한 수준을 갖춘 학생이 도전해야 할 것이다.

언어 재료  
(읽기, 듣기)  
Now and Then

### 신데렐라-영어로 읽는 세계명작 스프링 시리즈 1

편집부 / 시사영어사 / 2000년 / 88쪽 / 5,300원

이 책은 청소년을 위한 교양도서로 중학교 1학년 정도의 학생이 읽을 만하다. 영어로 세계명작을 감상하고 테이프를 통해 들을 수도 있다. 예쁜 그림이 곁들여져 있어 흥미를 돋운다. 전체적인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중요 문장과 표현만 설명하고 있으며 연습 문제도 있다.

유리구두의 주인공 신데렐라의 이야기는 너무도 유명하다. 만화 영화로 많은 어린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준 이야기이다. 아버지의 재혼으로 새 어머니와 새 언니들과 살며 외롭게 쓸쓸하게 성장하는 신데렐라가 마법사 부인의 도움으로 궁전에서 벌어지는 왕자님의 무도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흥미를 더해간다.

동화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흥미를 느끼면서 영어 실력을 길러 갈 수가 있다. 익숙한 동화이기에 단어와 문장을 추측해가며 읽을 수 있는 수월함이 있다. 신데렐라와 왕자를 통하여 즐겁게 영어를 배우자.

언어 재료(읽기)  
A wise Judge

### 아서 왕의 모험-영어로 읽는 세계 명작 스프링 시리즈 36

편집부 / YBM 시사영어사 / 2001년 / 96쪽 / 5,300원

중고생들이 영어 습득 정도에 따라 알맞은 작품을 선택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한 학습 문고 시리즈 6단계 중 2단계에 해당하는 쉬운 책이다.

여기에 실린 작품은 <아서왕의 전설> 총 4편 중 “The Story of king Arthur and His Knights”의 마지막 2장에서 Arthur 왕과 Gawaine 경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쉬운 표현으로 재미있게 재구성한 것이다.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만화나 영화에서 ‘윈타의 기사’라는 제목으로 친숙하게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다.

저자인 Howard Pyle는 미국 Delaware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상상력이 풍부하고 글 솜씨가 있어 자신이 직접 그린 삽화를 실은 기사 이야기나 모험담을 발표하는 등 어린이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동화 작가이다.

그는 중전의 유럽풍의 삽화에서 벗어나 힘차고 밝은 그림들을 어린이들에게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미국의 아동 문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미국 삽화계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Pyle은 중세의 설화나 미국 식민지 시대의 역사로부터 그림의 소재를 택하여 그 시대의 분위기를 재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언어 재료(읽기)  
Camping Trip

### 안네의 일기-영어로 읽는 세계 명작 스프링 시리즈 60

편집부 / 시사영어사 / 2002년 / 152쪽 / 5,300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안네의 일기>를 영역한 영어학습서이다.

원작인 <안네의 일기>는 네덜란드가 독일에 점령당해 있던 2년 동안 독일군의 눈을 피해 은신처에 숨어 살았던 유대 소녀 안네 프랑크의 일기이다.

1929년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의 유복한 유대인 집안에서 태어난 안네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유년기를 보내며 자랐다. 그러나 2차 대전 당시 히틀러의 유대인 탄압이 심해지자 가족 모두가 은신처에 숨어 살게 된다. 안네는 1942년 생일선물로 받은 일기장에 ‘키티’라는 이름을 붙이고 은신처 생활과 가족 이야기, 자신의 마음을 모두 적는다. 일기장에는 15세의 사춘기 소녀가 바라보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 부모님과 의 갈등, 이성 친구에 대한 고민, 가족에 대한 사랑, 자신에 대한 반성들이 생생하게 드러나 있다.

<세계명작 스프링 시리즈>는 난이도를 6등급으로 조정하여 초·중·고생들이 영어 습득 정도에 따라 알맞은 작품을 선택하여 읽을 수 있도록 한 학습문고 시리즈이다. 이 시리즈의 1급은 320~450단어, 2급은 451~650단어, 3급은 651~850단어, 4급은 851~1050단어, 5급은 1051~1300단어, 6급은 1301~1700단어의 되어 있는데, <안네의 일기>는 6단계에 해당하는 어려운 책이다.

언어 재료(읽기)  
Loving is Doing

### 어머니 이야기-영어로 읽는 세계명작 스프링시리즈3

편집부 / 시사영어사 / 2000년 / 80쪽 / 5,300원

테마크가 낳은 세계적인 동화작가 안데르센의 작품을 번역한 영어 학습문고이다. 원제는 The Story of a Mother and the Fir Tree이다.

<어머니 이야기>와 <전나무 이야기>라는 두 편이 실려 있는데 평소 알려졌던 안데르센의 동화와는 사뭇 다른 느낌을 준다. 그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라 할 수도 있다. 어머니의 희생과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가진 전나무의 행로가 가슴 뭉클한 감동을 준다.

원문을 요약한 작품이라 원작에 대한 아쉬움은 남지만 영어교재인 만큼 재미와 학습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 지금의 중학생들보다는 이미 30대 전후가 되어버린 어른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많이 읽었던 빨간책 시리즈의 하나이다.

언어 재료(읽기)  
Different People,  
Different Foods

### 영어로 즐기는 중국인의 유머 - Play Play English 1

21세기영어교육연구회 / 김영사 / 2000년 / 136쪽 / 4,900원

이 책의 저자인 21세기영어교육연구회는 현직 고등학교 영어교사들이 만든 모임으로, 현재 8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 영어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중국의 고전을 통해 영어를 배우는 영어학습 시리즈. ‘Play Play English’라는 제목답게, 대화체 형식의 만화를 통해 실생활 속의 영어를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중·고등학생 정도면 읽을 수 있는 쉽고 평이한 표현을 사용했다.

시리즈 1권인 이 책에는 중국인의 재치와 유머를 엿볼 수 있는 이야기들이 실려 있다. 중국에서 첫선을 보이고 동남아 각국에서 인기를 모으고 있는 책에 우리말 번역문을 추가해 내놓았다. 중국인의 문화와 유머를 통하여 즐겁게 영어를 배워볼 수 있는 도서이다. 중학생 실력이면 충분히 이해해 나갈 수 있다.

언어 재료(말하기)  
Korea in the world

영어로 Korea를 말한다

김윤정 외 / 풍익미디어플러스 / 2002년 / 286쪽 / 9,000원

외국인이 궁금해하고 흥미있어 하는 한국의 이모저모를 영어로 소개하는 방법을 담은 책이다. 외국인과의 만남을 위한 실무 시나리오의 역할을 하는 책이라 할 수 있다.

‘국제화 이야기 X-File’이라는 부제 아래 모두 17편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웃기는 브리짓트 바르도’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의 개고기 문화에 관한 글로 시작하였으며, ‘IT 강국의 비밀’, ‘그리운 포장마차’ 등 우리나라를 소개하는 다양한 글이 제시되어 있다.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영어를 마친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기 쉽도록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중학교 학생 중에서 장차 우리나라에 대한 폭넓은 안목을 가지고서 외국인을 상대할 포부를 지니고 있는 학생들은 지금부터 읽어 두어도 괜찮을 듯하다.

외국인이 가장 궁금해하고 흥미있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문화 등 한국인의 생활 모습을 담고 있다. 특히 한국인의 언어적 문법에 가까운 글로 구성하고 있어 빠른 속도로 글을 읽어가도록 하여 외국인과의 대화를 나눌 때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하여 우리나라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언어 재료(읽기)  
Korea in the world

오 헨리 단편집-영어로 읽는 세계명작 스프링 시리즈 24

편집부 / 시사영어사 / 2000년 / 126쪽 / 5,300원

이 책은 청소년을 위한 교양도서로써 중학교 2, 3학년 정도를 위한 영어 도서이다. 미국의 유명한 단편집가인 오, 헨리의 작품 중에는 가난한 화가, 무명 배우, 거리의 부랑배, 유괴범 등의 주인공들이 사회의 어두운 곳에서도 유머와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을 보여주며, 극적인 결말 즉, 반전은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

병상의 소녀와 화가의 관계를 통해 희망을 이야기한 <마지막 일새>, 가난한 부부의 눈물겨운 사랑을 묘사한 <크리스마스 선물>, 어린 시절의 친구와 20년 후 경찰관과 범죄자로서의 우정의 극적인 해후를 그린 <20년 후> 등등을 통해 우리는 연민 속에서도 따뜻한 인간의 사랑과 우정과 희망의 진실들을 잃지 않는다.

중학교 3학년 정도 수준의 어휘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으며, 테이프를 통한 음향 효과가 적절히 극적 긴장을 유지시키며, 영어 읽기의 재미를 붙이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의사소통 활동  
Communication

외국어 나도 잘 할 수 있다

최정화 / 조선일보사 / 2000년 / 212쪽 / 7,500원

한국어·불어·영어 국제회의 통역사로 20여 년 활동해 온 저자가 자신의 외국어 학습 노하우를 공개했다. 크게 보아 세 가지다. 몸통찾기, 깃털찾기, 외국인과의 부딪쳐서 배우기.

외국어를 잘하려면 우선 책을 많이 봐야 하는데, 사전을 보지 말고 그냥 죽 읽어 나가며 전체의 뜻을 파악하라는 권유다. 그래서 ‘몸통찾기’. 문어체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구어체로 이루어진 인터뷰 기사를 먼저 읽는다. 다른 일을 하며 라디오나 TV를 통해 외국어를 쫓기에 그저 맴돌게 하는 것도 ‘몸통찾기’의 일환이다.

그리고 ‘깃털찾기’를 병행한다. 예컨대 영자 신문 중 관심 가는 기사의 열 줄 정도만 택해 전치사는 무얼 썼는지, 어떤 동사를 사용했는지 꼼꼼히 따져보는 식이다. 라디오 방송을 5분 정도 녹음해 표현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이며 반복해 듣는다. 그리고 직접 써본다. 녹음분량은 하루 10분을 넘기지 말라는 충고다.

또한, ‘외국인과 부딪쳐서 배우기’는 외국인과 자주 만나는 것이 상책이다. 분류해놓고 나면 특별한 게 없어도 보이지만, 저자가 써 내려간 한줄한줄은 사실 일반적인 의미의 ‘방법’ 이상이다.

언어 재료(읽기)  
Sea Trutle

이슈 우화-영어로 읽는 세계명작 스프링 시리즈 21

편집부 / 시사영어사 / 2000년 / 120쪽 / 5,300원

이 책은 청소년을 위한 교양도서로, 중학교 1학년 정도를 위한 영어 도서이다. 초등학교시절부터 많은 학생들이 이슈 우화에 접해왔기에 친근감있게 부담 없이 이 책에 접근할 수 가 있다.

고대 그리스의 작가인 이슈는 기원전 6세기 초반에서 기원전 564년까지 살았고, 그의 저서 <이슈 우화>는 양, 여우, 사자, 늑대 등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교훈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만드는 책이다. 아이들에게 생활의 지혜를 가르치는 책이기도 하지만, 바쁜 일상 속의 어른들도 틈틈이 마음의 휴식을 얻도록 해 주는 책이기도 하다.

쉬운 단어들과 단편의 문장들로 구성되어 있어 초보자들에게 알맞은 도서이다. 내용을 들으면 알 수 있기에 편안히 단락을 내용을 이해하고, 추론해 나갈 수 있다. 저학년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게 적당한 삽화, 음향 효과가 곁들여 있고, 단락마다 이해정도를 테스트하는 코너가 있어 쉽게 영어의 재미에 빠져들 수 있다.

언어 기능(쓰기)  
Cyber Bob

### 인터넷 영어 학습 사이트 길라잡이

성일호 / 동인 / 2000년 / 254쪽 / 10,000원

누구나 우리 영어교육은 학습 그 자체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광속으로 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터넷 환경을 활용하여 뒤뜰 대로 뒤뜰러버린 영어교육을 바로잡고, 새로운 영어학습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총 43개 테마에 걸쳐 2600여 개의 영어학습 사이트를 소개하고 있다. 중학생 수준에서는 다소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각자 자신의 필요에 맞는 영역별로 사이트를 찾아서 활용한다면 아주 요긴한 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종류의 책이 대부분 국내 사이트 검색에만 그치고 마는 데 비해서 영어권의 각종 사이트를 함께 소개하고 있어서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이다.

언어 재료  
(읽기, 듣기)  
Loving is Doing

### 행복한 왕자-영어로 읽는 세계명작 스프링 시리즈 9

편집부 / 시사영어사 / 2000년 / 102쪽 / 5,300원

이 책은 청소년을 위한 교양도서로써 중학교 1, 2학년 정도 수준에 알맞다. 오스카 와일드는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 소설가, 시인, 극작가, 동화 작가로 흔히 예술지상주의의 대표자로 불린다. 런던 트라팔가 광장에 그의 동상이 세워졌다.

<행복한 왕자>는 도시 한 가운데에 보석이 많이 박히고 온통 금을 입힌 동상이다. 어느 가을 날 남쪽 나라로 날아가던 제비 한 마리가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이 행복한 왕자와 만난다.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왕자는 초라해져 가고, 끝내는 제비도 그의 심부름을 하다가 남쪽으로 가지 못하고 얼어죽고 만다. 철저히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돕는 왕자의 사랑은 깊은 감동을 준다.

동화를 통하여 자연스럽게 흥미를 가지고 영어 실력을 길러 갈 수가 있다. 익숙한 동화이기에 단어와 문장을 추측해가며 읽을 수 있는 수월함이 있다. 행복한 왕자를 통하여 행복한 세상을 만나 보자.

언어 재료  
(읽기, 듣기)  
A two-year  
Vacation

### 허클베리 핀의 모험-영어로 읽는 세계명작 스프링 시리즈 25

편집부 / 시사영어사 / 2001년 / 100쪽 / 5,300원

이 책은 청소년을 위한 교양도서로 중학교 3학년 정도에 알맞다. 마크 트웨인은 필명으로 본명이 새뮤얼 랭혼 클레멘스이다. 미국 플로리다 출생으로 '현대문학의 아버지'라 불리며 19세기 대표 소설가이다. 미국의 리얼리즘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중 한 사람이다.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미시시피강에서 펼쳐지는 모험에 관한 이야기이다. 주인공 백인 허클베리 핀은 문명 사회의 속박에서 벗어나려 한다. 또한 흑인 짐은 노예 사슬에서 도피하려 한다. 작가는 문명 사회의 허위와 계략, 그 속에 살고 있는 인간 본질의 여러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모험의 세계로 안내하며 더불어 도전의 정신을 길러줄 수 있는 이 작품은 읽고 나면 영어실력이 크게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의사소통 활동  
Communication

### English for everyday Activities

편집부 / 컴퍼스 / 2000년 / 96쪽 / 10,000원

일상 생활 영어 구문을 그림과 함께 수록한 책이다.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이를테면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은행가고 영화보고 집 청소 하는 등의 일상 생활을 이해하기 쉬운 삽화와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제시하였다.

'과일의 껍질을 벗기다', '가구의 먼지를 털다', '자동차 뒷좌석에 타다', '변기의 물을 내리다', '(자동차에서)기어를 변속하다', '뚜껑을 닫다'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지만 영어로 열면 생각해내기 어려운 표현들이 들어있어서 생활영어 학습에 큰 도움이 된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사람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부분을 많이 보완해 주는 교재이다.

또 본문 전체 내용을 깨끗한 음질로 수록한 CD가 부록으로 달려 있어서 계속 들으면서 반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각 문장의 길이가 그리 길지 않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그냥 통째로 암기해 버리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전문이 모두 영어로만 되어 있어 공부하기에 쉽지 않으므로 영어 공부에 적극적인 학생들이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시리즈로 학습서(Activity Book)가 나와 있으므로 함께 공부하면 효과적일 듯하다.

Getting Started  
1. My First Day

**타이타닉의 수수께끼**

**로빈 가디너 외 지음, 인인익 외 옮김 / 도서출판 황금가지 / 1998 / 206쪽 / 6,500원**  
 가라앉지 않는 배' 라는 터무니없는 믿음 탓이었다. 그나마 훈련 안된 선원들이 정원의 절반도 채우지 않고 보트를 내려 7백 5명밖에 타지 못했다. 저자들은 "타이타닉 비극은 결국 무모한 선장, 무책임한 선박회사, 무력한 정부가 빚은 인재"라고 말한다.

**국제생활과 예절**

**김득중 공저 / 도서출판 교문사 / 1999 / 372쪽 / 14,000원**  
 이 책은 일반적인 인간끼리의 예절 외에도 기본예절들과 혼례, 회갑 예절까지 정말 모든 예절이 다 들어있는 책이다. 현대인은 편리함을 지나치게 추구하면서 당연하게 지켜야 할 예절도 잊고 사는 듯하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우리 예절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예를 소중히 하고 배움으로써 나를 사랑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Getting Started  
2. Keeping a Diary

**가출일기**

**김혜정 지음 / 도서출판 문학수첩 / 1997 / 264쪽 / 7,000원**  
 이 책은 충북 괴산군 증평여자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이 쓴 장편소설로, 최근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가출을 소재로 하고 있다. 가출 후 떠돌아 다니며 여러 가지 경험을 겪은 후 가족의 사랑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는 줄거리이다.

Getting Started  
3. Humorous Stories

**나에게 꼭 맞는 직업을 찾는 책**

**바바라 배런 티저, 폴 D. 티저 지음, 백영미, 최석순 옮김 / 도서출판 황금가지 / 2002 / 516쪽 / 18,000원**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 마이어 브리그스의 성격유형 지표)가 제시하는 열 여섯 가지 성격 유형별로 특정한 성격의 소유자가 어떤 일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싫어하는지, 그리고 특정한 성격 유형에 맞는 직업 분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한 성격 유형에 따른 장점과 단점, 구직 활동을 해야 할 때 주의할 점들도 함께 제시한다.

Think Big  
4. Making Things

**엔더의 게임**

**올슨 스콧 카드 지음, 장미란 옮김 / 도서출판 시공사 / 2000 / 460쪽 / 8,000원**  
 이 책은 사상 최고이자 유일하게 미국의 권위 있는 휴고 상과 네블러 상을 동시에 수상한 작가 올슨 스콧 카드의 대표작. 정치와 과학, 그리고 철학이 짜임새 있게 녹아들어 인간과 세계를 통찰해 들어간 과학소설이다.

Think Big  
5. Finding Facts

**생명이 있는 것은 아름답다**

**최재천 지음 / 도서출판 효형 / 2001 / 268쪽 / 8,500원**  
 이 책은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교수이자, 여러 언론 매체에 활발하게 기고해온 동물학자 최재천의 '동물과 인간 이야기'. 동물들의 생태를 소재로 한 흥미진진한 과학적 사실에 인문학적 성찰을 덧붙인다.

**두뇌장수학**

**서유현 지음 / 도서출판 민음사 / 1996 / 174쪽 / 6,000원**  
 이 책은 뇌와 건강과의 관계를 밝히고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소개한 안내서. 두뇌 건강을 중심으로 건강 전반에 걸친 내용을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평이한 문장으로 설명했다.

Open Our Eyes  
7. E-mails  
from  
Abroad

### 유시민과 함께 읽는 미국문화 이야기

유시민 지음 / 도서출판 푸른나무 / 1999 / 88쪽 / 3,500원

미국인들의 유머감각에서부터 텔레비전이 미국인에게 미치는 영향, 미국인에게 있어서 돈의 의미, 쇼핑과 자동차와 미국인의 상관관계 등을 줄줄줄 이야기한다. 몇몇의 흑백사진들과 재미있는 그림들과 함께 읽다보면 금세 맨뒷장에 다다른다. 부담없이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미국 문화 안내서이다.

### 영국학교 시민교육

김현숙 지음 / 도서출판 땅에 쓰신 글씨 / 2002 / 230쪽 / 7,000원

이 책은 “영국에서의 교육은 99%가 학교의 몫”이라고 말한다. 부모들은 세금을 내는 것으로 할 일을 했으니 정부가 시민을 키우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아이가 자신의 일을 성실히 하는 법을 배워가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Open Our Eyes  
8. Club  
Activities

### 자연보호의 아버지, 존 뮤어

존 뮤어 지음, 노지연 옮김 / 도서출판 에디슨 북 / 2002 / 208쪽 / 7,000원

이 책은 미국 국립공원의 아버지 존 뮤어의 자서전이다. 자연 보존 지역을 세계에서 처음 만든 그의 일생이 잔잔하게 펼쳐진다. 아름다운 자연에 감동한 뮤어는 자연 환경 보전에 일생을 바칠 것을 결심한다. 존 뮤어의 노력 덕에 미국 정부는 요세미티 계곡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했고, 세코이아 국립공원도 만들었다.

### 올림픽 올림픽 - 앓, 이렇게 짜릿한 스포츠가!

마이클 콜먼 지음, 이명연 옮김 / 도서출판 김영사 / 1999 / 154쪽 / 3,900원

올림픽, 월드컵, 야구, 농구 등 대중 스포츠와 패러글라이딩, 암벽 등반 등의 모험 스포츠, 흔히 롤러블레이드로 알려진 인-라인 스케이팅, 스케이트보드 등 신세대 스포츠 등을 총망라하는 스포츠 백과 시리즈로 펼쳐질 예정이다.

Open Our Eyes  
9. Tom's  
Projects

### 자녀의 인성과 창의성, 두 마리 토끼잡기

김중호 지음 / 도서출판 교육과학사 / 1999 / 231쪽 / 7,000원

이 책은 자녀의 인성을 가꾸고 창의성을 개발하는 안내서이다. 창의성의 이해, 창의성 기르기, 인성교육은 이렇게 합니다, 인성의 이해, 인성 기르기 등을 다루어 자녀의 인성과 창의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대화의 기술

플랫 데일 지음, 조영희 옮김 / 도서출판 푸른 숲 / 2002 / 298쪽 / 9,500원

이 책은 자기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해 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이들, 특히 여성에 초점을 맞춰서 ‘공격적이지 않으면서 단호하게’ 내 생각을 말하는 법을 알려준다. 저자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다양한 실례를 읽다보면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질 것이다.

Understanding  
Others  
10. Different  
Viewpoints

### 괴테와 베토벤

로맹 툴랑 지음, 박영구 옮김 / 도서출판 웅진닷컴 / 2000 / 262쪽 / 7,500원

이 책은 <장 크리스토프> 등의 작품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프랑스의 대표적인 전기 작가 로맹 툴랑이 쓴 전기. 수년에 걸친 사료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두 거장의 삶을 일상적인 모습에서 생의 철학까지 한 편의 소설처럼 그려낸 작품이다.

Understanding Others  
11. Our Neighbors

**애들아, 해외봉사 가자**

**박재영 지음 / 도서출판 굿인포메이션 / 1999 / 286쪽 / 10,000원**  
이 책은 국제자원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와 우리 나라에서 시행 중인 청소년 교류 및 파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저자는 '국제자원활동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같이 일하고 여행함으로써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한다.

**보이지 않는 삶이 더욱 소중하다**

**이영호 지음 / 도서출판 가산 / 1999 / 300쪽 / 8,000원**  
이 책은 영화 "낮은 데로 임하소서"의 주인공이었던 영화배우 이영호의 휴먼 다큐멘터리이다. 가난한 미술학도였다가 형, 이장호 감독에 의해 우연히 영화배우가 된 뒤, 군사독재 밑에서 대마초 연예인으로 몰려 참담한 고통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RP(선청성 망막색소변성증)로 언젠가 실명할 것이란 생각으로 젊은 날 방황했던 이야기들이 펼쳐진다.

Understanding Others  
12. To My Unknown Cousins

**나의 북한 문화유산답사기**

**유홍준 지음 / 도서출판 중앙 M&B / 1998 / 276쪽 / 9,000원**  
이 책은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을 방문한 저자가 후속편 격으로 <나의 북한 문화유산답사기>를 썼다. 우선 상권에서 평양과 묘향산등 관서지방을 살펴봤고, 뒤늦게 출간된 하권에서는 '금강예찬'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명산 금강산을 두루 살폈다. 그가 우리에게 펼쳐 보인 금강의 모습은 육당 최남선이 말한 그 '조선심(朝鮮心)'이었다.

**천국과 지옥이 이웃한 멕시코, 멕시코**

**김인나 지음 / 도서출판 가람기획 / 2001 / 336쪽 / 9,800원**  
멕시코에 거주하며 자유기고가로 활동 중인 지은이가 멕시코인들 속에 묻혀 직접 보고 부딪치고 느낀 멕시코의 진면목을 한 권에 담은 책이다. 낯선 타국을 대상으로 한 여행기처럼 흥미위주의 이야기거리가 아닌, 보다 깊이 있고 일상적인 시선으로 멕시코를 바라보고 있다.

천재 읽기-장래 희망에 대해 읽고, 생각하기 I Have a Dream

**나도 멋진 프로가 될거야!**

**다인안 린드시 리브즈 외 편 / 한상근,김한준 외 감수 / 을파소(21세기북스) 2002년 / 183쪽 / 8,800원**  
적성 파악을 통해 12개의 분야로 나뉘어진 이 시리즈는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체계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직업표지판 찾기, 방향정하기'라는 코너의 매우 세분화된 문항을 통해 아이들의 적성을 진단해볼 수 있다. 총84개로 구성된 문항에 답을 하면 예술, 과학, 비즈니스 등 12개 분야의 적성순위를 알 수 있다. 결과에 따라 해당 분야의 도서를 살펴보면 그와 관련된 직업에 갖기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친절하게 안내한다.

천재 읽기-미국의 차고 세일에 대해 읽기 Garage Sale

**미국문화 100 영어 문화로 배워라**

**조영재 / 들녘미디어 / 2002년 / 347쪽 / 17,000원**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미국에서 직접 살아온 저자가 직접 보고 느꼈던 것을 토대로 미국인들의 문화를 소개해 놓은 책. 미국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다양한 문화와 관습이 존재하고 이를 해석하는 것도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가급적 누구나 동감할 수 있는 객관적인 부분을 담고 있다. 흥미롭게 구성된 이야기와 재미있는 그림을 수록하여 미국의 문화를 통해 영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천재  
읽기-영어유머  
Just for laughs

## 영어와 함께 읽는 한국의 유머와 속담 100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 굿모닝스쿨 / 2001년 / 236쪽 / 6,800원

한국인의 서민적인 유머와 해학 그리고 대대로 내려오는 속담을 간결하고 재치 있게 구성하였다. 그 시대 선조들의 삶을 엿볼 수 있고, 지혜도 배울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읽으며 영어 공부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천재  
읽기-영어유머  
Just for laughs

## 영어가 즐거운 유머영어

박은누리 영어연구팀 / 거북선 / 2000년 / 279쪽 / 7,000원

이 책은 즐기면서 영어를 배우는 방법을 알려준다. 책에 수록된 유머를 읽으며 우리와 차이가 나는 미국인들의 정서와 사고방식을 조금씩 알아가다 보면 영어도 쑥쑥 늘고 미국유머의 참 재미를 느끼게 된다.

천재  
읽기-요리법  
Lesson 4.  
Recipe

## Live Cooking English

진담지 / 디자인하우스 / 2002년 / 127쪽 / 12,800원

엄마가 해주는 독특한 요리와 엄마랑 함께 요리하면서 배우는 영어. 좋은 영어 선생님과 함께, 그리고 맛난 음식과 함께 요리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는 괜찮은 아이디어의 책이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요리는 저자가 그 동안 여행 다니면서 먹어보고 해봤던 요리, 집에서 또는 레스토랑에서 만든 어린이를 위한 요리들을 선별해서 담고 있고 영어 문장도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내용들만을 모았다.

## 펠릭스의 세계 요리 여행

이네테 랑엔 저, 콘스탄차 드루프 그림 / 조국현 역 / 사랑이 / 2002년

69쪽 / 12,000원

이 책은 소피와 펠릭스의 얘기를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각 나라의 요리를 직접 해볼 수 있도록 그림과 함께 상세히 설명해놓고 있다. 또한 요리에는 각 나라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어. 소피와 펠릭스가 요리를 하면서 세계의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을 그려내고 있다.

천재  
읽기-야영일기  
관한 글  
Min-Su's Camping  
Diary

## 나도 캠핑 갈 수 있어!

엽기원, 하야시 이키코 / 한림출판사 / 2000년 / 103쪽 / 7,000원

어린 여자 아이 소라가 캠핑을 가서 겪은 일들을 담았다. 소라는 아직은 겁많고 어리지만 캠핑을 하면서 좀더 자라고 씩씩해진다. 아름다운 그림이 이야기의 재미를 더해준다.

## 중학생 영어일기 : 매일 내맘대로 쓱쓱

정미선 / Sarah Heyman 감수 / 다락원 / 2001년 / 144쪽 / 7,500원

이 책은 중학교 1, 2, 3학년 영어교과 과정과 미국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쉬운 회화체 문장을 바탕으로 중학영어 정도의 실력으로도 자연스럽게 영어일기 쓰기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꾸며진 영어일기 가이드북이다.

천재  
읽기-전래 동화를  
영어로 읽기  
Umbrellas and  
Straw Shoes

## 효녀 심청

우리기획 / 계림(계림닷컴) / 2001년 / 100쪽 / 8,000원

명작 동화를 영어로 읽고, 테이프와 함께 들을 수 있도록 구성된 영어 동화책이다. 아이들이 좋아하고 유익한 명작 동화를 영어로 읽고, 들음으로써 명작 동화의 교훈과 함께 영어 학습까지 함께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책에 나오는 단어와 내용을 해설한 부분을 따로 수록하여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화책과 테이프 1개로 구성되어 있다

천재  
읽기-애완동물  
Pets, Good or  
Bad?

**동물나라 말 배우기: 애완동물 박사가 되기 위한 아주 특별한 책**  
모니카 랑에 저/ 니콜라우스 하이델바하 그림 / 유혜자 역 / 디자인하우스 / 2002년  
127쪽 / 8,500원

이 책은 동물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려낸 아름답고 섬세한 이미지와 그에 꼭 어울리는 쉽고 재미있는 해설은 어린이가 실제 동물과 함께 생활할 때나 그런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실천에 옮기고 싶도록 꾸며져 있다.  
동물에 대한 관심이 나아가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에 대한 관심으로 자라야 한다는 작가의 생각이 깊게 배어 있어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소중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꼬마 마녀에게 애완동물이 생겼어요**

아서 하워드 글,그림 /이주희 역 / 용진닷컴 / 2001년 / 30쪽 / 6,500원  
이 책에서 아이들은 진정한 친구란 애정으로 서로를 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된다. 주인공 미치가 고양이 콩깍지한테 자신의 비밀인 '난 어두운 게 무서워'라고 말했을 때 미치가 애완동물 콩깍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은지를 느낄 수 있다. 또 재미있는 문체와 익살스러운 그림은 아이들에게 더욱 흥미를 느끼게 한다.

천재  
읽기-3차원 안경  
Seeing in Three  
Dimensions

**우주 대체험 : 떠나자! 3차원 우주 입체의 세계로!**  
박대영 글 /월드 잇 3D입체제작 / 두산동아(단행) / 2000년 / 93쪽 / 9,800원

지금까지 칼라 그림에서는 입체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 통념. 그러나 이러한 통념을 개척하여 생동감 넘치는 칼라를 그대로 살려 입체 효과를 냈다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 책에서는 입체 효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낼 수 있도록 입체 안경을 제작, 부록으로 제공하고 있다. 때문에 사진에서만 볼 수 있는 태양계와 별자리, 성운 성단의 화려하고 신비로운 색채를 짜릿하고 황홀한 입체로 즐길 수 있다.

**루디 러커의 4차원 여행**

루디 러커 / 세종서적 / 1996년 / 327쪽 / 7,000 원  
이 책을 보다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바로 223개에 이르는 삽화. 자칫 잘못하면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어려워질 수도 있는 내용을 쉽게 풀이하고 있으며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싶으면 어김없이 가상의 평면 나라에 사는 스케어 씨를 등장시켜, 4차원의 여러 가지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2차원의 스케어 씨가 3차원의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 겪는 어려움은, 그대로 우리가 4차원을 이해하는 데 좋은 지침이 된다.

천재  
읽기-영어 편지  
Mike's Writing

**친구야! 우리 영어로 편지할래?**  
강영구 / 국민출판사 / 2001년 / 260쪽 / 7,000원

청소년용 영어 편지 교본. 영어편지는 일기와는 달리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받은 편지에 대해 시간을 두고 답장을 쓸 수 있으므로 언제나 새로운 기분으로 흥미롭게 쓸수 있어서 살아있는 영어공부가 될 수 있다. 이 책에는 외국인과 편팔을 하는 많은 사람들의 실제 편지와 상황과 소재에 따른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실려 있어 재미있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다.

천재  
읽기-여행에 관한  
엽서 읽기  
Postcards

**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  
한비아 / 금토 / 2002년 / 376쪽 / 9,000원

사람과 사람의 정을 느낄 수 있는 곳, 순수하고 예쁘기만한 어린아이들, 그림처럼 아름다운 경치들이다. 직접 보진 않았지만 한비아의 책을 읽고 나면 책속의 풍경들이 한눈에 그려진다.  
돈과 물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도시문명과는 달리 없는 살림에 하나라도 나누어 먹으려는 오지사람들의 생활을 보면서 많은 것을 자신을 반성하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천재  
읽기-우정  
Keeping Friends

## FRIENDSHIP : 친구네 집에 가는 길은 먼 법이 없다

정현중 역 / 이레 / 2002년 / 161쪽 / 1,500원

보고 있기만 해도 행복한 느낌이 가득 차오는 사진집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웃음, 가장 따뜻한 순간이 어는 때인지 알려주는 책이다. 한 두쪽도 넘기기 전에 당신은 책이 전하는 위안의 사연에 감화되어 절망이나 좌절은 인생에서 그다지 염두에 둘만한 일이 아니란 점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설사 세계는 아직 가난한 자가 더 많고, 평화보다는 전쟁이 더 가까이 있고, 관용보다는 질시의 순간이 더 자주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여전히 아름답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우정은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만든다.

## 친구라는 소중한 선물

립벌리 커버거, 콜린 모텐슨 공편 / 유은영 역 / 좋은생각 / 207쪽 / 8,000원

십대들의 우정이야기이다. 이 책에는 우정의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다. 가장 친한 친구이야기, 흔들리는 우정, 서로 돕고 격려하는 우정, 사랑으로 이어지는 우정, 그 속에서 친구가 없어 힘들어하던 십대들이 친구를 얻고 어떻게 변했는지, 우정을 통해 얼마나 성숙하는지를 보여준다.

천재  
읽기-위인  
The Man who  
Planted Trees

## M 루터 킹

오병학 / 규장문화사(규장) / 1993년 / 178쪽 / 3,500원

동일시의 대상을 갖게 됨으로써 그 삶을 닮아 가는 우리의 어린이들, 기라성 같은 믿음의 선진들, 숭고한 삶을 산 신앙의 위인들, 그들의 어린 시절부터 마지막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까지의 고귀한 삶의 모습을 규장 신앙위인전기 시리즈가 알기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보여줄 것이다.

두산  
1. A Story of  
Two Seeds  
Read and Think

## 갈매기의 꿈

리자드 바크 / 문예출판사 / 2000 / 119쪽 / 6,000원

갈매기 조나단은 먹기 위해 물고기를 쫓는 다른 갈매기들과는 다른 세계를 추구한다. 조나단에게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 아니라 나는 것이다.

갈매기 조나단의 꿈은 곧 인간의 꿈이다. 살기 위한 이유를 갖게 된 조나단의 비상에서 진정한 자아를 찾고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두산  
2. What's on TV  
Read and  
Find Out

## 열두 살에 부자가 된 키라

본도새퍼저 / 김준광역 / 을파소 / 2001년 / 252쪽 / 12,000원

이 책은 생산, 소비, 저축, 투자 등 경제활동의 기초개념을 청소년의 눈높이에서 잘 설명하고 있다. 경제문제를 소재로 한 본격 경제동화로서, 흥미진진한 모험담을 통해 '올바른 돈의 가치관과 유용한 경제 상식'을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다.

두산  
3. A Special  
Gift  
Read and  
Cook

## 우동 한 그릇

구리료에이저, 최영혁 역 / 청조사 / 2003 / 111쪽 / 4,500원

늦은 밤 어린 아들 둘을 데려와 우동 한 그릇을 시키며 미안해 하지만 그 가난한 모자의 상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주인 부부의 배려로 훌륭하게 성장한 아이들. 따뜻한 인정을 훈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구성된 책이다.

두산  
4. Dear Diary  
Read and  
Understand

## TV 동화 행복한 세상 2

박인식저 / 샐터 / 2002 / 9000원 / 272쪽

TV 동화 행복한 세상에는 진솔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파스텔 톤의 애니메이션이 있다. 세련되지는 않지만 정감 있는 그림들은 그 감동의 깊이를 더하기 충분하다.

동심, 사랑, 나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TV 동화 행복한 세상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이웃과 가족 사회의 아름다운 모습과 행복을 전하고 있다.

두산  
5. My Missing Piece  
Think and Find Out

떨어진 한쪽 큰 동그라미를 만나

셀 실버스타인저 / 시공주니어 / 2000 / 100쪽 / 6,000원

어딘가에서 떨어진 세모 한쪽은 자신과 꼭 맞는 다른 한쪽이 자신을 어딘가로 데려다 주길 바라며 그 한쪽을 찾아 헤메지만 찾지 못한다.  
큰 동그라미의 “혼자 굴러가 보라”는 조언에 따라 모난 세모가 굴러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자신이 변화되길 바라지 말고 자기 자신 스스로의 힘에 의한 변화야말로 진정한 변화임을 느낄 수 있다.

두산  
6. I'm a Sea Turtle  
Read and Understand

아름다운 바다

앤드루 바이어트, 알래스테어 포더길, 마서 홈스 공저 / 사이언스북스 / 2002 / 382쪽 / 32000원

바다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책이다. 아름다운 바다와 바다생물의 사진이 담겨 있어서 학생들이 더욱 흥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은 수업 전 후에 책의 사진을 통해 해양생물들을 생생하게 만나보고, 이러한 바다 생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토론해 본다면 환경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 생명에 대한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두산  
7. Korea in the World  
Read and Be Proud of Korea

우리문화의 수수께끼 1, 2

주강현저 / 한겨레 신문사 / 1996 / 297쪽 / 7500원

세계 속의 한국을 알기 이전에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해 자긍심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리라 믿는다.  
이 책은 지금 우리 곁에 남아 있는 문화유산들을 되돌아보며 그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숨은 의미를 찾아보는 의미 있는 책이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우리 조상들의 살아 숨쉬는 문화를 체험해 본다면 우리 민족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지리라 기대한다.

두산  
8. Hello from Australia  
Read and Write a Letter

유시민과 함께 읽는 신대륙 문화 이야기

유시민 저 / 시공사 / 2002 / 88쪽 / 14000원

8과는 호주의 친구가 보낸 편지를 통해 먼 나라인 호주를 간접적으로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캥거루나, 아름다운 해변 등으로 기억되는 호주의 문화와 전통을 소개하고 있어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다.

두산  
9. Do You Have a Scientific Mind?  
Read and Think

아인슈타인도 몰랐던 과학이야기

루버트 윌크 저 / 해냄 / 1998 / 326쪽 / 8000원

우리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과학적 현상에 관심은 있지만 과학이라는 말만 들어도 어렵다는 생각에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책은 그러한 현상을 다른 과학책에 비해 쉽게 설명하고 있어서 일반 학생들이 가볍게 다가 설 수 있게 만든다.  
수업 전에 이 책을 읽음으로써 학생들은 생활 속 과학 이야기를 통해 호기심과 과학적 사고방식을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의 발견: 옥스퍼드 주니어 사이언스

테일러,스티븐 포플 공저/김동광역 / 비룡소 / 2001 / 192쪽 / 20000원

이 책은 과학 이론 하면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과학의 모든 주제를 망라해서 쉽게 설명하고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학의 세계를 주제별로 잘 정리해 놓은 과학의 발견은 학생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통찰력과 이해력을 길러 줄 것이다.

두산

10. Two Men  
and a Wise  
Judge  
Read and  
Judge

## 베니스의 상인

윌리엄 셰익스피어 / 정성국 역 / 홍신문화사 / 2001년 / 281쪽 / 3000원

고전은 청소년이 읽어야 할 가장 중요한 도서 목록 중에 하나이다. 특히 이 과에서는 재판관의 지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베니스의 상인은 이러한 지혜를 알려주는데 가장 적절한 책이라고 생각한다. 고전을 통해 삶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산

11. Loving is  
Doing  
Read and  
Help Others

## 연탄길

김철환 저 / 삼진기획 / 2002 / 243쪽 / 7500원

사랑과 봉사는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이웃들이 작은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진솔한 이야기들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이 따뜻해 질 것이라 믿는다.

이 책은 이처럼 먼 곳에서 사랑과 봉사를 찾지 않고 실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에 함께 읽어보고 학생들과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토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두산

12. The Best  
Thing I've  
Learned  
This Year  
Read and  
Think Back

## 연 어

안도현 저 / 문학동네 / 1996 / 132쪽 / 4,500원

한 학기를 마무리 하면서 읽을 수 있는 짧은 동화이다. 연어들이 물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시련은 아이들이 겪어야 할 시련과 동일하다. 또한 그 속에서 나누는 우정이야기는 우리의 자화상일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삶을 다시 생각해 보기 용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

1학년

# 국사

## 1학년

### I.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

#### 청소년을 위한 한국사

#### 1. 선사 시대의 생활

백유선 외 / 두리미디어 / 1999년 / 508쪽 / 12,000원

이 책은 역사 수업의 실제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두고 대체 교과서적 성격으로 쓰게 되었다. 통사적 서술체계를 선택한 이 책은 나열식 설명이 아니라 각 사건의 인과 관계와 맥을 중시했고, 인간의 구체적 삶이 담겨 있는 문화사 부분을 강화했다. 또한 풍부한 사진은 물론 만화, 보충해설, 쉬어가기 등을 통해 역사에 대한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이해를 돕도록 했다.

학생들의 수준에서 국사 교과서를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다. 내용이 쉽게 전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전 지식이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용어나 개념이 하나둘이 아니다. 이 책은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선사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철저히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썼다.

### I.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

#### 인물 한국사 이야기 1-5

#### 2. 국가의 성립

김중성 / 문예마당 / 1999년 / 240쪽 / 7,000원

우리 역사의 문학적성과 설화성의 전통을 되살린 인물에 관해 밝힌 역사문학서.

고조선, 삼국시대, 삼국통일, 통일신라와 발해에 이르기까지 주요 인물들의 이야기를 정리했다. 몽고와 40여년 동안 전쟁을 벌였던 고려인들의 강인함과 새롭게 솟아오르기 시작한 사대부들의 사상을 담은 역사서. 윤관의 9성 설치부터 무인정권의 성립과 불국도와 불교계의 변화, 신흥 사대부의 문화에 이르기까지 일목요연하게 설명했다.

이 책을 읽을 때마다 조상들의 기개와 강인함에 감동할 것이고, 우리 역사에 자부심을 갖게 될 것이다.

### II. 삼국의 성립과 발전

#### 한 권으로 읽는 백제왕조실록

#### 1. 삼국의 형성

박영규 / 용진닷컴 / 2000년 / 420쪽 / 10,000원

한반도 사관의 족쇄에 묶인 거인 - 대륙 백제.

잃어버린 대륙의 역사를 찾아 새롭게 백제사를 복원한다. 한반도 서남부의 역사로 축소되었던 백제 700년의 역사. 그러나 700년 백제의 역사는 대륙 경영의 역사였으며, 동아시아를 호령했던 거인의 역사였다. 백제를 건국한 제1대 <온조왕 실록>부터 마지막 임금 31대 <의자왕 실록>까지 31개장으로 나눠 백제의 파란만장한 역사를 들려준다.

삼국사기와 중국 역사서를 기반으로 고구려는 '대륙의 패권을 다투었던 북방의 강대국'으로, 백제는 '대륙과 한반도를 함께 경영했던 해상제국'이라는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 한 권으로 풀어쓴 이야기 신라 왕조사

여성규 / 청솔 / 2000년 / 420쪽 / 8,000원

상상력을 발휘해서 보면 더욱 재미있는 역사 속 숨겨진 이야기.

<이야기 신라왕조사>는 청솔의 역사 시리즈 중 15번째로 삼국 중 신라 천년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 민족 최초로 통일을 이룩한 왕조인 신라의 56대 왕들을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며 주요 사건과 관련 인물들을 통해 시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대한 많은 사진 자료들을 수록한 점이 특징적이다.

고대사에 관심 있는 중학생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 □ 1학년 공통

전 단원

### 그 때 세종이 소리친 까닭은 - 쟁점으로 본 한국사

김옥훈 / 푸른나무 / 1999년 / 289쪽 / 7,500원

한국 역사의 중요한 사건 11가지를 중심으로 각 사건에 따른 몇 가지 다른 쟁점들을 제시하고 독자들의 논리적인 판단과 자기 생각을 이끌어내게끔 씌어진 책이다.

저자는 현재 상계중학교 교사. 단군신화와 고조선, 고대 한일관계사, 삼국의 대결과 통합, 수수계기의 황국 발해, 홍선대원군 이하응, 임시정부와 제1공화국 등이 이 책이 다루는 사건들이다. <쟁점으로 본 한국사>라는 부제에서 말해 주듯, 주요한 역사적 상황을 시대 순으로 써 내려가면서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역사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책이다.

### 내 머리로 생각하는 역사 이야기

유시민 / 푸른나무 / 1996년 / 245쪽 / 6,500원

사학 개론서로서 혹은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역사 연구의 기초가 되며 기틀을 이루는 중요한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저자 나름의 생각을 담고 있다. 역사는 어디에서 비롯됐는지, 역사를 창조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역사는 필연인지 우연인지, 역사는 진보적인지 등에 대해 저자는 스스로 묻고 대답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물음을 던져 보았음직한 문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갔다. 지은이는 기존에 나온 책들이 대부분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서양의 예를 토대로 한 것으로 우리 역사의 예에 기초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의 필요성을 느껴왔다고 집필 동기를 적고 있다.

### 답사 여행의 길잡이 1-14

한국문화유산탐사회 / 들베개 / 1997년 / 350쪽 / 10,000원

우리 문화유산을 직접 느끼고 만져보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여행을 통해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답사여행 안내서이다. 이 책에는 지난 15년 동안 문화 유산의 현장을 찾아 구석구석 답사했던 한국문화유산탐사회의 체험과 살아 있는 지식이 담겨 있다.

책머리에는 유흥준 교수의 해설을 넣어 여행의 전체 줄기를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별·코스별 개관을 실어 가고자 하는 곳을 상상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본문에는 답사지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답사지식, 전설, 인물에 얽힌 이야기, 문양, 그림, 사진들을 수록하였다.

단순한 유적지·명승지의 나열이 아니라 여행자들이 풍부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여행자들이 효과적으로 그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섭렵할 수 있게 한 것도 평가할 만하다.

###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1 - 7

강봉릉 외 / 숲 / 2002년 / 400쪽 / 23,000원

쟁점과 사료로 새로 쓴 21세기 한국사 이야기. 시기별로 주요 항목을 설정하고 해설을 덧붙이는 형식을 취했다. 이는 일상생활에 바쁜 현대인들이 한 항목씩 정리해 나가는 방편으로도 적합하다고 하겠다. 또한 고대 기점을 고조선 건국에 두었고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의 성립과정을 한국 고대사회의 재편성으로 보았다. 국가중심이 아닌 민족중심 역사인식적 접근의 역사서이다.

###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1-2

전국역사교사모임 / 휴머니스트 / 2002년 / 270쪽 / 12,000원

전국역사교사모임의 주도 하에 '살아 있는 삶을 위한 역사교육'을 지향하며, 생동감 있는 이야기와 감동이 살아 있는 역사 수업을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책이다. 생생한 과거의 목소리가 살아 숨쉬는 역사책이며 대안 교과서로, 역사를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을 담으려고 노력한 흔적이 곳곳에 엿보인다.

이 책은 미래를 꿈꾸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제시하기보다는 직접 느끼고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와 편집으로 꾸며져 있으며, 딱딱한 용어를 없앴다. 다양한 자료 및 풍부한 그림과 사진을 통해 우리 역사의 '흐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역사의 현장 속에 들어가 생각해 보고 분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교사들에게도 다양한 방식으로 강의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교과서와 교사, 학생과의 만남이 즐거워지도록 하였다.

## ■ 2학년

### I.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

#### 과학이 있는 우리 문화유산

이중호 / 펼쳐라인 / 2001년 / 320쪽 / 13,000원

우리의 전통 문화 유산의 가치를 현대적 시점에서 과학적·합리적인 접근법으로 재조명하려는 저자의 의도가 잘 녹아있는 책이다. 이 책에서 사용한 '과학'이라는 말의 의미는 한국인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합리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우리의 정신문화와 민속문화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논리적으로 풀어낸다는 뜻이다. 동서양을 넘나드는 풍부한 소재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다양한 우리 문화유산 - 족보와 풍수지리, 판소리, 민화, 토종개 등의 수많은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우리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해 준다.

외래 문화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민족 문화와 민족 정신이 사라져만 가는 이 때, 일상 생활에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깊숙하게 잠재해 있음에도 현대의 가치 기준으로 인해 소홀히 여겨져거나 푸대접받던 우리의 정신문화와 민족문화에 대해 그 가치를 새롭게 느끼게 해 주는 책이다.

### II. 삼국의 성립과 발전

####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 이야기

전호태 / 풀빛 / 1999년 / 213쪽 / 12,000원

고구려는 과연 어떤 나라였을까? 이 책은 고구려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과 같은 구체적 현실에서부터 세계관과 종교 같은 추상적 정신세계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고구려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행동했으며 신앙대상은 어떤 것이었는지,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상세히 설명한 저서. 고구려 역사 전반에 대한 간략한 해설을 시작으로 사유방식을 담은 신화와 종교, 고구려인의 삶을 조망했다.

### II. 삼국의 성립과 발전

#### 경주 역사 기행

#### 1. 삼국의 형성

하일식 / 아이북닷컴 / 2000년 / 272쪽 / 12,000원

<경주역사기행>은 여행 가이드북과 역사문화 안내서를 겸한 책!

그동안 적지 않은 경주 안내서들이 나왔지만 유난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책이다... '신라의 무덤에서 고구려 물건이 나오는 까닭은?', '읍성이란?' 등 40여개의 작은 박스 설명과 유적 찾아가는 길과 경주시내 교통편을 안내한 점도 답사여행길을 돕는다.

### II. 삼국의 성립과 발전

#### 삼국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 2. 삼국의 발전

한국역사연구회 / 청년사 / 1999년 / 358쪽 / 9,000원

이 책에는 역사학자들이 생생하게 들춰낸 삼국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까마득하게 먼 옛날의 일 정도로만 알고 있던 삼국시대 사람들 즉 고대인들의 삶을 식생활, 의생활, 성생활, 경제구조, 무기 등 구체적인 사료를 근거로 밝혀냈다. 22명의 고대사 연구자들이 엄정한 사료 선택, 치밀한 연구를 통해 서술 내용을 검증한 이 책은 객관성과 학술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대중적으로 서술되었다.

### III. 통일신라와 발해

#### 아, 발해

송언 / 우리교육 / 2000년 / 207쪽 / 6,000원

발해의 역사 바로 알기!

당고종은 여러 차례 고구려를 쳐들어오고, 고구려는 그들을 물리쳤으나, 결국 양만춘 장군이 죽고 말아 고구려는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는데... 삼화와 함께 발해의 역사를 들려주는 이 책은 동화형식으로 발해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전달한다.

나라를 세울 때도 발해는 고구려의 정신을 잇고자 했고 풍습과 문화 역시 고구려와 비슷했다. 이 책은 발해의 역사를 바로 알고 옛날 우리 조상들이 가졌던 큰 뜻과 뜨거웠던 숨결을 들려주는 장편동화이다. 최근 발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이 때에 일독을 권한다.



#### IV. 고려의 발전

###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2

한국역사연구회 / 청년사 / 1997년 / 286쪽 / 8,000원

고대사나 조선 시대사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고려시대 사람들의 생활사를 두 권으로 조명하고 있다. 제1권에서는 고려 시대의 사회·문화 생활을, 제2권에서는 정치·경제 생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농민의 한해살이, 고려인들의 의료 혜택, 고려시대 장례 풍속, 호적이 만들어지기까지의 과정, 대각국사 의천의 중국 유학, 팔만대장경에 담긴 염원, 김부식과 정지상, 설화와 진실, 왕건의 통일 대업 성취 과정, 무신 정중부의 일기 내용, 공민왕이 신돈을 등용한 까닭, 세계 제국 붕괴와 맞선 고려 민중의 힘, 이규보의 과거 시험 대책' 등을 서술하고 있다.

고려 시대 생활상 및 정치 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어서, 역사에 흥미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시각에서 고려시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책이다.

### 팔만대장경도 모르면 빨래판이다

전병철 / 내일을여는책 / 2000년 / 342쪽 / 8,500원

고등학교 역사 교사인 저자가 일반 대중들이 쉽게 역사적 문화와 사실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한 역사문화 해설서로, 일반인이 의외로 모르는 역사에 대한 상식들을 '이름' 위주로 풀 책이다. 탐과 부도에 대한 얘기부터 시대별 탐의 특징, 불상 이름 짓는 법, 무덤 이름 짓는 법, 왕들의 이름과 왕실 여인의 이름, 전쟁 이름과 공휴일, 기념일에 대한 역사 상식 등 역사 속의 흥미 있는 내용을 다양한 사진과 함께 엮었다. 우리 주변에 잘 알려진 문화재들의 이름이 어떤 생각에서 어떤 의미로 붙여졌는지를 설명한다. 또, 이들 문화재에 얽힌 사연들을 소개하고, 선인들의 생각과 시대상을 함께 읽는 법도 제시하고 있다.

답사 갈 때 알아두어야 할 역사상식과 혼동하기 쉬운 역사용어 및 상식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역사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임을 일깨워준다.

### 세상의 절반 여성 이야기

우리교육출판부 / 우리교육 / 2000년 / 285쪽 / 5,000원

이 책은 '성차별 깨뜨리기 입곱 마당'이라는 부제를 달고,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는 성차별을 짚어내는 책이다. '조선시대보다 고려시대의 여성이 자유분방했다'는 역사적 사실에서부터 오늘날 드라마 속의 여성상의 문제까지 성차별 문제를 두루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여성 문제가 여성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삶을 왜곡시키는 근본 문제라는 데 인식을 공유한 여성 문제 전문가, 교사 등이 모여 함께 쓴 글이다. 많은 예화를 통해 무심히 지나갔던 일상 생활 속의 성차별을 인식할 수 있다. 차분하게 성적 편견을 보여주며, 본문은 수필처럼 편하게 읽힌다. 다양한 예시 글을 실고, 그에 대한 활동을 제시하여 학생들에게 쉽게 접근하고 있다.

여성 문제의 한 부분만을 부각시키지 않고, 여러 방면에서의 사례를 제시하여 여성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 V. 조선의 성립과 발전

### 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

퍼시벌 로웰(조경철) / 예담 / 2001년 / 311쪽 / 12,000원

명왕성의 존재를 계산해낸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의 100여년 전 한국 기행기.

그는 1883년 12월 한양에 도착하여 그 해 겨울을 한국에서 지냈다. 원제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The land of the morning calm)'이다. 때로 남들이 보는 내 모습이 궁금해지기도 하는데, 서양인이 처음 만나는 한국이 어떤지 알 수 있게 하는 책이다.

지도에서 본 조선의 모습부터 부산항의 모습, 장안풍경, 고종황제의 알현, 조선의 건축양식, 조경양식 등 외국인의 시각에서 조선 말기의 정치, 경제, 사회, 지리를 세밀한 표현으로 접근한 작품이다.

V. 조선의 성립과 발전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1. 조선의 성립

**박영규 / 들녘 / 2001년 / 464쪽 / 10,000원**  
 이 책은 TV의 사극이나 역사소설 등을 통해서 단편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조선시대 역사의 공적인 흐름을 한 권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해 준다. 조선 왕실의 계승과 역대 왕들의 치세를 정사로 요약하여 조선 왕조의 전체상을 재미있고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이 책은 '일반인을 위한 훌륭한 교양서', '교과서와 같은 징검다리식 역사지식의 결함을 메워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다.  
 태조에서부터 순종에 이르기까지 27대에 걸친 왕들과 그 주변 인물들을 순서대로 잘 정리해 놓았고, 방대한 분량의 역사적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간략하게 핵심적으로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단편적으로만 기억하고 있는 우리 역사적 사건들을 큰 줄거리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준다. 또, 짤막하나마 야사나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는 현재의 해석, 당대의 세계 약사를 곁들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V. 조선의 성립과 발전

광해군 - 역사 인물 다시 읽기

3. 왜란과 호란

**한명기 / 역사비평사 / 2000년 / 312쪽 / 9,000원**  
 역사 속에서 폭군과 패배자로 기억되는 광해군. 이 책은 우리에게 잘못 알려진 역사 속 광해군의 모습을 객관적 시각으로 조명한 저서이다. 임진왜란을 거치며 언제 왕세자 자리에서 실족 당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 17년 간을 버텨낸 광해군의 인간적인 모습이 애처롭기도 하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아버지 선조의 뒤를 이어 천신만고 끝에 왕위에 오른 광해군의 어린 시절부터 외교전문가로서의 광해군의 모습까지 색다른 시각으로 광해군을 만나게 된다.  
 이 책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만을 더듬지 않으며 임진왜란에서 한국전쟁을, 조선에 참전한 명군을 통해 오늘날의 주한미군 문제를 반추해보기도 하고 광해군의 군비 강화책에서 한·미간의 미사일 협상을 끄집어내기도 한다. 그러면서 저자가 가장 강조하는 화두는 외교다. 광해군이 왕으로 있던 17세기와 지금의 상황이 별반 다를 바 없다고 말하는 저자는 주변 열강의 동향을 냉정하게 살피고, 유연한 외교정책을 통해 자강책을 마련한 광해군의 자세를 오늘날에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VIII. 주권 수호 운동의 전개

독도 평전 - 다큐멘터리와 소설을 넘어선 역사 읽기

1. 독립 협회와 대한 제국

**김탁환 / 휴머니스트 / 2001년 / 265쪽 / 8,000원**  
 이 책은 독도의 일생을 다룬 역사서이자 평전, 그리고 소설이다. 책은 섬의 탄생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섬의 생성과 함께 인간이 발을 내딛기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자연의 질서를 보여주며 시작된 책은 독도가 겪어온 일들을 차근차근 풀어어나간다.  
 다큐멘터리와 소설을 넘어선 역사 읽기. 독도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하는가? 육지에게 늘 자리를 내주고 물러나 있었던 독도! 민족 감정을 부추기며 일본의 군국주의를 향한 비난으로 우리 내부의 상처를 덮기 이전에, 독도와 독도 사람들의 음성으로 다큐멘터리와 소설을 넘어 그 속 깊은 이야기부터 들어가 하지 않을까? 그 파도림과 이중 국적(?)의 역사를!!

인물로 보는 친일파 역사

**역사문제연구소 / 역사비평사 / 2000년 / 282쪽 / 7,500원**  
 우리 시대의 부끄러움 - 일제의 잔재 친일파!!  
 아픈 역사만큼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의식 또한 많이 병들어 있다. 현실의 이익에만 집착하고, 그 외의 것에는 무관심한 것이 현실이다. 과거에 얽혀 있는 것은 분명 어리석은 일이다. 하지만 기질이 바로 잡혀 있지 않다면 미래 또한 어두운 것도 사실이다.  
 지난 50여년간 친일파들의 권력에 의해 원칙과 정의가 바로 서지 않은 것이 그 사실을 입증한다. 아직도 친일파 자손들이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 아직도 친일파들에게 단죄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하지 못하다. 청산하자. 친일부역배 청산문제는 단순한 목은 일이 아닐 뿐만 아니라 민족정기를 세우고 민족 생존을 토대로 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조국을 배반한 자는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응징을 받는다는 교훈을 주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IX. 민족의 독립 운동

장준하

김민수 / 사계절 / 1996년 / 237쪽 / 6,800원

이 책에는 <사상계>를 발행하여 민족의 지성을 일깨운 언론인으로, 민주주의 수호와 민권회복을 앞서서 외친 정치인으로, 우리 현대사에 깊은 획을 그은 장준하의 삶과 정신이 담겨 있다. 장준하는 일제 시대에 태어나 조국의 광복을 위해 총으로 싸우고 광복 후에는 어지러운 정국 속에서 거리의 바른 삶을 위해 글로 싸우신 분이다. 그가 펴낸 <사상계>는 당시 나라의 나아갈 길을 보여 주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또, 이 책은 영웅주의 인물 전기에 싫증난 사람들에게 새로운 인물상을 보여준다. 이 책을 통해 학생들은 우리의 현대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이 알 수 있게 될 것이며, 올바른 역사관 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기도 좋은 책으로, 우리 민족의 독립과 민주화와 통일을 향해 멈추지 않고 걸었던 장준하의 삶을 통해 진정한 나라 사랑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IX. 민족의 독립 운동

할머니 군 위안부가 뭐예요

1. 민족의 수난

한국정신대연구소 / 한겨레신문사 / 2000년 / 204쪽 / 6,500원

군 위안부 문제! 과연 우리는 이 문제로 얼마나 많이 고민해왔는지, 직접적으로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 그들을 조사 연구하고 또 진실을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문자답해 본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사, 연구하는 모임인 <한국정신대연구소>에서 일본군위안부와 관련된 모든 것을 문답으로 풀어쓴 책. 일본군 위안부란? 부처 위안부들의 생활상, 아직 돌아오지 못한 피해자들의 삶, 시민단체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떻게 노력해 왔으며,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일본은 역사교과서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이 문제는 단순히 과거사인가 등을 문답형식으로 기술했다.

2학년 공통

전 단원

고전소설 속 역사 여행

신병주, 노대관 / 들베개 / 2002년 / 290쪽 / 9,000원

이 책은, 고전문학 작품(소설 14편, 수필 2편)을 배경 시기 또는 집필 시기를 중심으로 하여 시대순으로 구성하여 조선 중·후기 사람들의 삶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의 모습을 엿볼 수 있게 되어 있다.

<춘향전>, <심청전> 등의 고전소설을 통해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들여다 본 역사서로, 소설의 상황이 실제 역사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으며 허구적인 장면 뒤에 숨은 역사적 실체는 무엇인지 꼼꼼하게 짚어 나갔다. <전우치전>에서는 당시 민중의 꿈과 희망을, <홍길동전>에서는 당시 사회의 높은 벽과 개혁사상가 '허균'의 꿈을, <허생전>에서는 조선시대 경제의 허와 실 등을 읽어낼 수 있다. 각 장의 끝부분의 짙막한 읽을거리 또한 조선시대를 이해하는 또 다른 재미를 준다.

역사에 관심 있는 학생에게는 물론이고, 특히 학생들에게 우리 고전문학을 읽도록 동기를 유발시키는 데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책이다.

교실 밖 국사 여행

역사학연구소 / 사계절 / 1993년 / 293쪽 / 8,000원

이 책은 우리의 역사가 자주성, 주체성을 가지고 연구되어야 한다는 것과 다양한 관점으로 역사를 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식에서 나온 책이다. 우리 역사를 원시·고대, 남북국, 고려, 조선 전기, 조선 후기, 한말, 일제, 해방 후의 여덟 시기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다. 많은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각 시기의 역사상을 함축하여 보여 줄 수 있는 주제를 고르고 그를 통하여 역사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있다. 연대기, 설화 등 사료 가운데서 주제를 쉽게 드러내 주는 자료를 직접 제시하여 주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서술 방식도 내용을 요약하는 형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더욱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다.

역사적 사실과 사건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가 역사의 흐름을 올바르게 이해하려 하는 사람에게 유용하며, 토론을 위한 자료로도 괜찮은 책이다.

##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1-3

**유홍준 / 장작과비평사 / 1993년 / 346쪽 / 8,000원**

이 책은 단순한 기행문이나 문화재 해설서가 아니다. 저자는 우리 국토와 문화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우리가 무심히 지나칠 뿐 별다른 의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유적들을 꼼꼼히 답사하면서 정확한 전문적 지식과 명확한 분석을 통해 여러 유물의 형태상 특징과 아름다움, 그 역사적 배경과 그것을 만든 인간의 이야기, 더하여 그 현재적 의미까지 밝혀내고 있다. 우리 문화재를 보는 안목과 심미안을 키워줄 수 있는 책이다. 우리의 것보다는 외국의 것들을 더 선호하고 더욱 잘 알고 있는 듯한 우리의 문화적 현실을 살펴볼 때,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줄 수 있는 이런 책의 필요성은 더 커진다.

모르고 지나치면 그저 아무 것도 아닌 돌덩이지만 이 책을 따라가며 배우면 훌륭한 문화유산이며, 가치 있는 보물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이 책은 우리의 문화재와 전통이 가지는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책이다.

## 바로 잡아야 할 우리 역사 37장면 1-2

**역사문제연구소 편 / 역사비평사 / 1997년 / 250쪽 / 6,500원**

과거를 보는 우리의 시각도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자신의 역사를 은폐하고 왜곡하는 사회에 대해서는 발전을 기대할 수가 없다. 모든 것은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진실 앞에 굴복하게 된다.

1권 - 한말·일제시기 - '애국'인가 '매국'인가, 상해임정·이승만 정권을 바로 알자, 해방전후 - 8·15, 유엔 그리고 분단, 친일파·독립운동가에 대한 대접이 바뀌어야 한다.

2권 - 6·25를 다시 생각한다, 1960년대 - 4·19와 한일협정, 한국문학의 거장 3인을 다시 읽는다, TV사극에 문제 있다, 우리의 반쪽, 북한을 바로 알자.

이상 두 권에서는 역사에서 중요한 부분인데도 잘못 알려진 부분을 쉽고 간결하게 이야기했다.

## 시와 이야기가 있는 우리 역사 1-2

**박만용 외 / 동녘 / 1996년 / 350쪽 / 9,000원**

노래, 시가들로 그 시대속으로 빠지게 하면서, 역사속 인물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는 이 책은 고조선의 건국부터 1960년 4·19혁명까지의 우리 역사를 소설 형식을 도입해 이야기체로 엮어내고 있다.

이 책은 넓게는 만주 벌판에서 좁게는 한반도 어느 외진 마을에 이르기까지 수천 년 이상 무덤 속에 묻혀 있어야 했던 조상의 뼈 한 조각 흙 한 줌이 말없이 전해 주는 우리의 이야기를 찾아갈 것이다.

우리 겨레의 기쁨과 슬픔, 좌절과 극복의 이야기. 다양한 장르의 원전을 풍부하게 인용하고, 역사적 사건을 소설 형식으로 엮어 내는 등 다채롭게 구성하였다.

## 역사 스페셜 1-5

**정종택 / 표형출판 / 2000년 / 300쪽 / 7,000원**

새로운 역사 읽기를 시도하며 대표적 역사교양물로 자리잡은 KBS의 '역사스페셜'.

이 책은 KBS 역사스페셜의 방송 대본과 녹화 테이프를 토대로 새롭게 구성한 작품이다. 1,2권에서는 고대중세사, 3권에서는 조선시대, 4권에서는 북한문화유산에 관한 소재들을 다루었다. 그 래픽 화면과 일반화면 및 기타 참고 도판들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방송 내용이 활자화하는 과정에서 비롯되는 문제점과 한계를 보완했으며, 역사 다큐멘터리를 소재로 출간된 기존의 책들과 뚜렷하게 차별화 된 작품이다.

## 우리 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2

**이배용 외 / 청년사 / 1999년 / 310쪽 / 9,000원**

여성에게도 역사가 있는가? 이 책은 왜 여성의 역사는 그토록 외면돼 왔는가? 라는 의문에 답하면서 여성들의 삶의 궤적을 추적, 한 올 한 올 복원해놓은 최초의 여성생활사이다.

1권에는 때론 활달하고 자유분방하게, 때론 짓눌려 살다간 여성들. 그 옛날 안방, 부엌, 빨래터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결혼과 가족,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종교와 문화생활 등 4개장으로 나눠 여성들의 삶의 궤적을 담았다.

2권에는 개화기부터 해방기까지 경제활동과 일상생활, 정치활동과 민족운동 등 3개장으로 나눠 여성들의 삶의 궤적을 담았다.

## □ 2학년 공통

### 중학교 국사 전단원

#### 5교시 국사시간

**윤중배 / 역사넷 / 2000년 / 343쪽 / 10,000원**

현직 중학교 역사 교사인 저자가 더 이상 따분하고 재미없는 역사 시간이 아닌 '역사의 세계에서 놀며, 즐기며, 웃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고, 또 그런 역사를 보여주고자 만든 책이다.

따라서 책의 설명 또한 기존의 역사책과는 방법을 달리한다. 까다로운 역사 용어나 고리타분한 표현 대신, 저자는 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내용을 고르고 친절하고 알기 쉬운 말투로 서술하여, 내용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우리 역사를 7개의 장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서술 방식을 취하여 재미를 더했다. 예를 들어 '통일신라에 대한 모의재판'에서, 저자는 삼국통일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이를 연극 대본으로 꾸미고 최치원, 김춘추, 대발해, 김부식 등의 인물을 등장시켜 내용을 풀어나가고 있는 등 다양하게 서술하였다.

이 책은 우리 역사에 관심과 흥미를 제고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주고 있다.

#### 역사신문 1-6

**역사신문편찬위원회 / 사계절 / 1995년 / 122쪽 / 9,500원**

신문 형식을 빌려 우리나라의 역사를 수록, 해석하여 색다른 형식으로 꾸민 역사책으로, 신문처럼 쉽고 재미있게 읽히면서도 역사가 주는 감동을 느낄 수 있다. 과거의 역사를 생생한 오늘의 일처럼 현장감 있게 느끼면서 이해할 수 있고, 시사 만평, 만화, 광고, 인터뷰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은 학생들에게 역사에 대한 호기심과 역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줄 수 있다. 일반대중용으로 쓰여진 제대로 된 통사(通史)로 총 6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국어 등의 교과서에도 그 내용이 활용되고 있다. 각 시대 및 역사상의 중요한 주제에 대해 보도 기사, 해설기사, 인물 인터뷰, 쟁점, 사설 등의 형식으로 자세히 설명했고, 여러 지도와 유물 등도 함께 있어 한 시대의 역사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이 책은 과거 역사를 그 시대의 시각에서 바라보며 생생하고 심층적인 보도로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 유물로 읽는 우리 역사

**이덕일 외 / 세종서적 / 1999년 / 326쪽 / 10,000원**

세상의 모든 유물들은 저마다 이야기거리를 갖고 있다. 유물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 유물 속에는 비밀이 있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2명의 저자가 공동으로 쓴 책으로 신비의 왕국 가야 그 비밀의 문을 찾아서, 신라금관의 주인공은 무당, 숙명의 라이벌 왕건과 진현 그리고 개태사 등 33편을 고대/고려/조선/근현대로 나눠 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고려청자의 아름다움 뒤에 있는 백성들의 고통과 서낭당, 장승, 솟대 등 후대에 미신으로 간주된 우리 유물의 나름대로의 역할, 동학농민봉기, 대원군, 독립문 등 우리 근대의 전환점에 있었던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인 시각으로 쓰고 있다.

#### 이순신이 갈릴레이를 만났다면

**현궁숙 / 청아출판사 / 2000년 / 416쪽 / 10,000원**

이순신과 갈릴레오는 16세기의 같은 시대 사람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이 다른 시대에 살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한국사와 세계사를 분리해서 배웠기 때문이다. 이 책은 100년 단위로 한국사와 세계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꾸몄다. 각 시대별 특징과 역사적 인물들을 비교해가면서 역사를 공부할 수 있는 책이다.

한국사와 세계 역사를 사진, 연대별로 알기 쉽게 비교 망라한 중고생용 역사서로서 기원 전 한반도의 역사와 이집트, 그리스와 로마사를 책 양면에 나란히 비교하고 고구려, 통일신라, 고려, 조선시대의 역사를 세계사의 주요 사건과 나란히 수록했다.

## 이야기 한국역사 1-13

이야기한국역사편찬회 / 풀빛 / 1997년 / 216쪽 / 5,000원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사진 자료나 삽화를 충분히 활용하여 더욱 현장감 있고 쉽도록 서술한 책이다.

우리 민족의 기원과 형성에서부터 오늘에 이르는 우리 역사 5천년의 실제 모습과 내용을 중심으로 짜여졌다. 역사적인 중요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중심으로 구성했고, 쉬운 역사적인 해설과 함께, 역사적 상황의 삽화와 기록화를 넣어 풍부한 내용을 갖추었다. 청소년들도 함께 볼 수 있는 역사책이 되도록 이야기체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학생들의 교과서에는 내용이 너무 추려져 있어 이해하기 어렵고 잘 이어지지 않는 편인데, 이 책을 보고 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을 쉽게 풀어낸 이 책은 우리 역사를 더욱 친근하게 느끼게 해 준다.

## 한 권으로 읽는 한국사

김양기 외 / 휴머니스트 / 2002년 / 220쪽 / 14,000원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제일 한국인 사학자가 참여하여 역사적 사실과 쟁점을 집약한 한국사 통사.

이 책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풀어낸 한국사 통사로서 사실과 상상력을 토대로 역사 서술의 두 축에서 본말이 전도되지 않도록 함과 동시에 특정의 관점을 강조할 때 생기는 한쪽으로 기울을 경계했다는 말이다. 고고학적 발굴사례와 자료들을 들어 역사적 사실을 입증하고 있어 마치 한국사의 현장을 걷는 듯한 생생함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구체적인 실제로부터 다가선 방법에서 비롯된다. 500장면의 사진으로 역사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으며, 특히 해설은 이해를 돕는 설명은 물론 새로운 역사해석까지 제시하고 있다.

## 한국 생활사 박물관 1-7

한국생활사박물관편찬위원회 / 사계절 / 2000년 / 98쪽 / 16,800원

역사학·고고학·민속학·인류학 등 관련학계 전문가들과 국내 최고 수준의 미술진이 참여하여, 선사 시대부터 현대에 이르는 우리 민족 생활사를 총체적으로 되살렸다. 보는 이(읽는 이)가 좀 더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역사를 느낄 수 있도록 '박물관'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 선사시대부터 20세기에 이르는 우리 민족의 생활사를 세밀히 살펴보고 있다. 종이로 만들어진 박물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독특한 책은 크게 전시 영역과 심화 학습 영역의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시리즈는 박물관 유물을 살아있는 역사로 바꾸어, 복원된 생활사를 뼈대로 삼아 한반도 10만 년 역사를 시대별로 재구성했다. 기존의 역사 서술은 특별하고 역사적인 부분만 다루어온 데 반해, 이 책은 옛 선조들의 일상생활의 흐름을 밝히고 정리함으로써, 역사학의 기초를 다지고 바른 역사관을 갖도록 기획된 한국생활사총서이다.

## 한국사 새로 보기

신복룡 / 풀빛 / 2002년 / 286쪽 / 10,000원

건국대학교 대학원장을 지낸 저자의 한국사에 대한 연구서.

이 책은 동아일보에 '신복룡의 한국사 새로 보기'라는 제목으로 연재되었던 글을 모은 것으로 한국 정치사를 전공한 저자는 우리 역사를 연구하면서 제도권 사학의 오만과 아집에 눈을 뜨게 되었고, 한국사학사를 명들게 한 식민지 사학에서 우리의 역사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이 철저하게 반영되어 있다. 일간지 연재로 실었던 내용에 다시 10편을 새로 추가해 지금까지 잘못 알려진 한국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자료의 재해석과 국내·외에서 발행된 각종 서적을 통해 설명했으며, 더불어 반론문을 함께 실어 설명했다.

## 한국사 이야기 1-15

이이화 / 한길사 / 1998년 / 340쪽 / 9,000원

이 책은 우리 역사를 민족사, 생활사, 민중사 중심으로 서술한 대중 역사서이다. 이 시리즈는 우리 역사의 시원과 틀이 형성된 고대사 부분을 다룬 1부(전4권), 고려시대를 다룬 2부(전4권)에 이어, 조선 건국에서 정일전쟁까지 중앙집권적인 양반 관료사회가 확립되고 통치 질서가 잡힌 조선 전기를 다룬 3부(전4권)으로 출간되었다.

'이야기'로서 역사를 복원했다는 점에서 '역사 대중화'의 분수령이 될 만한 저작이다. 또한 우리 역사이면서도 항상 뒷전에 밀려나 있던 발해 역사가 이 책 속에 생생하게 담겨 있다.

저자는 제야사학자로서 정사에 충실하되 다양한 일화·비화·민담을 끌어들이고 이를 매끄럽고도 술술 읽히는 문체에 실어내, 기존 역사책의 딱딱한 문장투와 고지식한 사실 나열에 갇힌 이야기를 생생하게 되살려 역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 일 반

## 70일간의 추리여행

켄 웨버(서필봉) / 새터 / 1999년 / 200쪽 / 5,500원

추리는 IQ가 아니라 관찰력이다.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는 능력은 물론, 문장 속에 숨어 있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예리한 관찰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숲도 보고 나무도 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논리적인 추리력을 키우는 열쇠다.

이 책에서는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범인을 잡기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다. 2주마다 7문제씩을 풀어서 70일 동안 추리력을 향상시키는 책으로, 첫째 주와 둘째 주에는 사건현장으로, 셋째 주와 넷째 주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의 정체를 파헤치고, 다섯째 주와 여섯째 주에는 머리를 짜내어, 일곱째 주와 여덟째 주에는 논리력을, 아홉째 주와 마지막 주에는 추리력을 점검할 수 있다.

<70일간의 추리 여행>은 사물을 보는 예리한 관찰력, 사건의 개요를 파악하는 능력은 물론 논리력과, 추리력을 향상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 개척자, 탐험가, 모험가

라이너 M.슈뢰더(이은화) / 좋은생각 / 2000년 / 278쪽 / 8,000원

이 책은 지난 1000년간 남보다 한 발 앞서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모험을 마다하지 않았던 위대한 탐험가 33인의 생을 압축하여 보여주는 기록이다. 작가는 딱딱한 전기나 역사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자유분방하면서도 현장감을 살린 문체로 환경에 만족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았던 이들의 생애를 조망한다.

이 책은 마르코폴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페르디난드 마젤란, 찰스 린드버그, 닐 암스트롱 등의 개척자들이 살았던 시대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아우르면서 인류 역사상 중요했던 순간들을 실감나게 묘사한다. 마치 여러 편의 단편소설이나, 탐정 소설을 읽는 듯한 기분이 드는 이유는 저자 자신의 폭넓은 인문학적 소양과 상상력으로 역사의 틈을 메우면서 역사적 사실을 눈앞의 것으로 다듬어낸 덕분이다.

한창 꿈을 키우며 자라나야 할 청소년들에게 도전하는 이에게 불가능이란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깨우치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 거창고등학교 이야기

배평모 / 한결음 / 2000년 / 400쪽 / 9,500원

박정희 전 대통령의 3선 개헌에 반대해 학생들이 데모를 일으킨 고등학교, 데모 주동 학생을 처벌하라는 정부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장 승인 취소를 당했으나 끈질긴 법정투쟁을 벌여 이를 무효화시킨 학교, 전두환 전 대통령 당시 문계 학생들을 추려서 삼청교육대와 유사한 특별교육대로 보내라는 지시도 끝내 거부한 학교, '전인교육'의 선구자로 알려진 거창고등학교의 자랑스런 이력들이다.

이 책은 입시를 위한 공부 이외에는 기대할 것도 해줄 것도 없는 우리의 교육현실 속에서도 '전인교육'이라는 교육 본래의 이념을 지켜온 대안학교 '거창고등학교'를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나 하나'의 이기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정한 그 무엇을 전해 줄 수 있다.

## 극장에서 풍류 먹기

백승극 / 디자인하우스 / 2001년 / 266쪽 / 8,500원

‘프리티 우먼’ ‘음식남녀’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등 17 편의 영화를 통해 각 나라의 음식과 테이블 매너를 독특하게 소개하는 책이다.

이들 영화를 ‘인생, 사랑, 문화’라는 세 가지 주제로 분류하고, 각각의 주제를 그 속에 등장하는 음식 문화와 매너로 연결시킨다. 일본 음식 문화를 알 수 있는 ‘담포포’에서는 라면 요리에 인생을 건 요리사의 장인 정신을 배우고, 프랑스 정통 요리가 등장하는 ‘프리티 우먼’에서는 매너를 익히며 사랑을 얻어내는 귀여운 여인의 마음을 읽게 되며, 스페인의 전통 요리가 곳곳에 등장하는 ‘하몽 하몽’에서는 노래 가사로 잘 알려져 있는 ‘베사메 무쵸’의 뜻을 알게 된다.

영화의 즐거위, 그 영화와 관련된 음식 문화와 매너, 그 나라의 고유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소개함으로써 영화를 보는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테이블 매너에 자신감을 갖게 한다.

## 끝까지 듣는 사람 끝까지 말하는 사람

무토 세에이(최수진) / 들녘미디어 / 2002년 / 222쪽 / 8,500원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반드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는 없다. 그저 상대방이 하는 말을 따라하거나 맞장구를 쳐주는 것만으로도 유익한 대화가 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말에 진심으로 귀기울여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있으면 행복하다’로 시작되는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듣기의 중요성과 남의 진심을 듣는 법, 제대로 듣기 위한 방법론 등에 대해 다룬다. 2부에서는 듣기를 통해 성공하는 직장인이 되는 비결과 이성관계의 듣기 노하우, 부모 및 부모자식 관계에서의 듣기 화법 등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꼼꼼하게 짚어주고 있다. 즉 ‘끝까지 듣는 사람’은 성공하는 직장인이, 사랑받는 연인이, 신뢰받는 가족이 될 수 있다. 반면 ‘끝까지 말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서 소외되거나 따돌림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옆에 사람은 많아도 진정한 친구를 얻기 어려운 현실에서 내가 먼저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가 되어 보면 어떨까?

## 나는 나답게 산다

황병기 외 / 산하 / 1998년 / 332쪽 / 7,500원

청소년들에게 진로에 대해 도움말을 주려는 어른들이 참 많이 있다. 대부분은 현재 어느 한 분야에서 성공한 입장에서 들려주는 이야기들이므로, 자신에 대해 아직 자신감을 갖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에는 그리 깊게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부담스럽지 않고 재미있다. 가벼운 마음으로 잠깐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보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야금의 달인 황병기, 영화감독 임권택, 산악인 허영호, 만화가 이현세 등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6편과 냉후한 학벌 사회에서 실력으로 우뚝 선 사람들의 체험담 모음수기 공모 수상작 16편도 함께 실었다. 이 책에 실린 많은 사람들은 안정되고 평탄한 길보다는 험난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고 정점에 선 사람이거나 현재 나의 꿈을 찾아 좋은 대학 안정된 학과가 아닌 개성을 살릴 수 있는 대학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고민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과 용기를 제공하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하게 할 것이다.

## 나는 나를 경영한다

백지연 / 다우 / 2000년 / 318쪽 / 8,000원

한국방송대상 앵커상을 수상했고 정보화 사회를 이끌고 갈 여성, 여대생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여성으로 선정되기도 한 저자 백지연이 당당하고 건강한 삶의 자세로 시원시원히 자신의 소신을 들려준다.

언론의 선정적 보도가 항상 여성에게 더 가혹한 현실에서, 주눅들지 않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서서 그 소신을 들려주는 모습은 처절하리 만큼 아름답다. 특히 결혼관과 이혼에 대한 이야기, 육아에 관한 제안들, 여성의 성공에 대한 백지연 만의 독특한 시각 등이 제시되어지고 있는 부분은, 신데렐라 콤플렉스에 젖어 있을지도 모르는 많은 여학생들에게 실제적이고 힘있는 도움이 되어 줄 것이라 생각된다.

소신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 그렇지만 오히려 당당하게 맞설 때 자기다움을 찾아 갈 수 있음을 우린 이 글을 통해 느낄 수 있다.



## 나는 늘 아프리카가 그림다

이지상 / 디자인하우스 / 1999년 / 304쪽 / 8,000원

이 책은 오염되지 않은 태곳적 원시가 남아 있는 땅, 낮에는 작열하는 태양 아래서 모든 것이 활활 불타 오르고 밤이면 빛 하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하나로 환원되며, 어떤 말과 의미도 장엄한 대자연 앞에서 숨을 죽이는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여행 전문가인 저자가 생생한 눈으로 확인하고 온몸으로 체험한 생명의 땅 아프리카 여행의 벽찬 감동과 함께, 책 곳곳에 저자가 촬영한 사진들과 함께 찍게 되는 과정을 담은 글이 실려있어 독자도 마치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 좋은 착각이 들게 한다. '아프리카의 생생한 숨결-뜨거운 인간의 생명과 열기-그들만이 가진 자유로움과 풍요로움-점점 질게 드리워져 가는 아프리카의 그늘-아직도 인류의 희망이 꿈틀거리는 땅, 아프리카' 순으로 짜여져, 아프리카의 모습을 생명력 넘치게 그려내고 있다.

반복되는 도시 생활, 학교 생활에서 오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광활한 아프리카 대자연을 맘껏 누비는 원초적 해방감 맛보는 것도 책을 읽는 값진 보람 아닐까!

## 나는 위대한 여성으로 태어났다

이노우에 카즈마 / 도색 / 2000년 / 222쪽 / 7,200원

이 책은 엔터테인먼트의 달인 : 마사 스튜어트, 할리우드 최고의 여성감독 : 노라 에프런, 미국 출판계의 뉴리더 : 티나 브라운, 인터뷰의 마술사 : 바바라 윌터스, '보통'으로 존재하고 싶은 대스타 : 조디 포스터,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 : 매들린 올브라이트, 토크쇼의 여왕 : 오프라 윈프리, 흑인 문학을 바꾸어 놓은 여성작가 : 테리 맥밀런, 히피가 낳은 올곧은 X세대의 여배우 : 워노나 라이더, 이들의 어린 시절부터 성공하기까지의 삶의 역정을 엮었다.

미래는 문화의 시대이다. 이 책에 소개되는 아홉 명의 여성들 대다수는 문화의 시대를 선도하는 뉴 리더로서, 자신의 개성과 자신감을 발판으로 위대한 여성 시대의 문(門)을 활짝 연 개척자들이다. 여러분도 이들 아홉 명의 여성들처럼 멋진 인생의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 내 인생을 바꾼 10번의 만남 1-4

애덤 잭슨 / 동방미디어 / 2002년 / 193쪽 / 7,000원

절망에 빠진 '나'는 이상한 중국 노인을 만나 10 명의 명단이 적힌 쪽지를 건네 받는다. '나'는 이 10 명을 한 명 한 명 찾아가 얘기를 들으면서 부, 행복, 사랑, 건강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을 하나씩 체득하게 된다.

'풍요로운 부의 비밀'을 깨달아 가는 사람은 30 대 전후의 월급장이로, 매달 산더미처럼 쌓이는 청구서 앞에서 절망하는 '나'이고, '풍요로운 행복의 비밀'을 찾아가는 사람은 돈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도 있지만 웬지 삶의 무미건조함을 느끼는 30대 전후의 '나'이다. 그리고 '풍요로운 사랑의 비밀'을 파헤쳐가는 사람은 아픈 실연의 경험으로 마음의 문을 닫고 살던 20대 후반의 '나'이고, '풍요로운 건강의 비밀'을 풀어나가는 사람은 대학교를 다니다 불치병에 걸린 '나'이다. 이렇게 각각의 '나'가 중국노인이 건네준 명단에 적합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한 가지 그 비밀을 알아가는 과정이 흥미롭다.

이 책은 부, 행복, 사랑, 건강,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며 읽는다면 더욱 재미가 있을 것이다.

## 너무도 진지한 너희들에게

나가오 가루비(오근영) / 국일미디어 / 2000년 / 227쪽 / 6,500원

"다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마라. 너는, 그 자체로 너무나 소중한니까. 지금 그대로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학교에서는 성적 때문에, 교문을 나서면 외모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당하고 비교하여 어느새 자그만 열등감이 가슴 저 밑바닥에 자리잡고 있는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작가의 첫 마디다.

이 책에는 학창시절 모범생과 거리가 멀었던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10대들에게 들려주는 30여 개의 이야기가 들어있다. 좋아하는 일을 100가지만 하고 나서 자살하라,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도 재주다, 하루종일 친구들과 물러다니면 무슨 일이 생길까 등 하나 하나의 이야기를 읽어 가노라면 놀랄 만큼 청소년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걸 느낀다.

그는 말한다. 10대는 고민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재미있고 신나게 보내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 놀라운 우리 겨레 예술가 이야기

**박윤규 / 미래M&B / 2000년 / 302쪽 / 6,800원**

우리 민족이 처음 이 땅에 생겨날 때부터 구한말까지 역사 인물을 통해 정치, 국방, 문화, 예술의 흐름을 한눈에 꿰뚫어볼 수 있도록 돕는 '놀라운 우리 겨레' 시리즈 5권 중 제 5권이다. 이 책에는 신선과 같이 살았던 백결 선생, 가야를 잊지 못해 슬픈 곡조의 음악을 연주했던 우륵, 새들도 속는 그림을 그렸던 솔거 같은 고대 예술가들을 비롯하여 절창으로 유명한 시인 정지상, 다섯 살에 이미 신동 소리를 들었고, 나중에는 신선처럼 살았던 김시습, 자유로운 영혼의 화가 장승업 등 뛰어난 예술적 재능으로 살다간 예술가들 15인의 흔적을 담았다.

그들이 이루려고 했던 세계는 어떤 것이었던가? 소설 기법 속에 살아 움직이는 작품 속의 예술가들에게서 '신선'을 지향했었음을 간파할 수 있다.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나라, 어진 가르침과 올바른 다스림이 펼쳐진, 진정한 평화와 아름다움이 가득한 나라가 바로 '신선'의 나라이다. 고대의 예술가들부터 누구도 붙잡을 수 없는 자유의 붓 장승업까지, 우리 조상들의 아름다운 예술세계를 감상해 보자.

## 다니엘 학습법

**김동환 / 규장문화사 / 2002년 / 278쪽 / 10,000원**

다니엘 학습법이란, 구약 성서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세상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기 위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공부하는 신본주의 학습법이다.

그는 우선 삶의 목표가 거둬야, 공부해야 하는 뚜렷한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며, 그렇게 일단 뜻을 정하기만 한다면 누가 뭐라지 않아도 학생 스스로가 목표와 시간, 건강 및 영성을 자발적으로 설정하고 관리, 시행하게 된다고 말하며 구체적인 학습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실제로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왜 공부하느냐고 물으면 높은 성적, 좋은 대학, 부모님의 기대 때문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궁극적인 목표나 지향점을 없이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만 좇아가자니, 공부는 피로우며 타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소 종교적 관점이기는 하나 삶의 목표를 먼저 정해 본다면 더 즐겁고 보람된 학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 방법을 이 책에서 찾아보자.

##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오미라 미쓰요 / 북하우스 / 2001년 / 286쪽 / 8,000원**

일본의 여성 잡지에 연재되었던 오미라 미쓰요의 상담글을 모았다. 절망의 끝에서 도움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한 편의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아온 오미라 변호사는 조심스러운 언어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감싸안는다.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폭력을 휘두르는 아이들, 등교거부와 원조교제 등으로 일탈을 거듭하는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오미라 변호사는 따뜻하고 진심어린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면 자살 기도, 각성제 복용, 상습적인 원조교제의 늪에서 빠져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선배 비행 청소년'이었던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고 권유한다. 그뿐만 아니라, 온갖 자격증, 고시 공부에 매달릴 때의 어려움과 에피소드도 함께 담아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자신감을 심어준다.

이 책은 자녀문제로 고민하는 부모, 방황과 비행으로 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청소년들에게 권하고 싶다.

## 독서클럽 이야기

**임영규 / 인간과자연사 / 2003년 / 340쪽 / 12,000원**

이 책은 저자의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하여 독서클럽이란 형태로 특기적성교육 시간에 적용하여 풀어낸 학교 독서교육의 생생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책이다.

저자는 오랜 동안 학교현장에서 독서교육을 실시해 오면서 교과와 연계된 독서교육이 되어야만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독서교육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독서클럽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의 입시경향 속에서 사고력과 논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방법의 독서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저자는 읽기 전/중/후 활동과 이야기식 토의, 통합적 토의, 토의망식 토의의 독서토론 모형을 도입하여 독서와 토론이 어우러진 동아리 활동을 전개하였다. 여기에는 이러한 다양한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활동자료와 토의 및 발표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동아리활동이나 사고력 및 논리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독서와 논술 및 구술능력 향상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님들의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 될 수 있다 - 영화, 애니, 만화 편 외 5권

**이태균 외 / 장년사 / 1999년 / 304쪽 / 8,000원**

<될 수 있다> 시리즈 총 6 권은 현재 청소년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거나 바람직한 대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지는 직업들을 모았다. 각권의 내용은 연애 / 가요편, 영화 / 애니메이션 / 만화, 요리편, 컴퓨터편, 디자이너편, 자유직업편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직업들 특징 중의 하나는 공부 잘 하고, 시험 잘 봐서 되는 것들이 아니다. 서슴없이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청소년들, 교실 밖에서 새로운 해답을 찾아 헤매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길라잡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저 직업을 소개한 데서 그치지 않고, 철저히 그 직업에 이르는 법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색이다. 직업현장을 취재하고, 그 직업을 얻기 위한 방법인 대학 혹은 학원 등을 소개했다. 아울러 그 직업의 전문가를 인터뷰한 내용도 실었다.

변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학생들의 장래 희망 직종은 다양해졌으나 그 직종을 준비하기 위한 사전 정보가 너무 없는 현실에서 이 시리즈는 현재 학생들이 가장 선택하는 분야의 직업들에 대한 훌륭한 참고 자료가 되리라 생각된다.

## 딤스, 자아를 찾아서

**버지니아 M. 엑슬린 / 아동드라마디어 / 2001년 / 302쪽 / 7,000원**

한때 심각한 정서장애를 겪었던 아이가 치료를 받게 되면서 건강하고 강한 성품의 아이로 변화하는 과정을 그렸다. 처음에는 자신을 거의 드러내지 않으려던 아이가 차츰 치료센터의 선생님에게 마음을 열면서 가족, 자신에 대해 하나 둘씩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맨 마지막에 실린 성장하여 청년이 된 딤스가 보내온 편지는 긍정적인 삶을 사는 훌륭한 사회인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놀이치료 전문가인 저자는 이 책의 주인공 딤스가 보이는 유아적 행동과 주위에 대한 두려움의 정체를 찾아내고, 딤스는 놀이치료를 받으면서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과거의 경험들을 되새기면서 더 이상 두려움이나 죄책감 밑에 숨지 않게 된다.

이 책은 1964년 쓰여진 이래로 전 세계 독자로부터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에 소개되어 교육학과, 심리학과를 비롯하여 교육과 심리, 인간발달에 관한 모든 분야에서 필독도서로 선정되어 왔다.

자신의 참모습을 찾아가는 한 아이의 모습에서 독자들은 진한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 딸들이 자라서 엄마가 된다

**수지 모르겐스텐(최윤정) / 용진닷컴 / 1997년 / 178쪽 / 6,000원**

위는 꼭 끼어야 하고 밑은 좀 짧아야 한다는 청바지의 미학을 고집하는 통통 튀는 딸과, 여기 저기 구멍난 팬티를 아무렇지도 않게 입는 수더분한 엄마가 경쾌하게 펼치는 릴레이식 구성의 소설이다.

이 소설은 각 장이 같은 제목으로 두 번씩 쓰여져 있다. 한 번은 엄마의 입장에서 한 번은 딸의 입장에서. 딸의 옷차림, 쇼핑, 생일파티, 가족동반 영화관람 등의 사소한 일상의 사건에서부터 음악레슨, 성적, 대학입시 등의 교육문제에 이르기까지 보통의 엄마와 딸이 있는 어느 가정에서나 일어날수 있는 엄마와 딸의 생각, 감정, 갈등, 욕망, 좌절 등이 코믹하면서도 날카롭게 그려지고 있다. 엄마의 목소리나 딸의 목소리가 충분히 자기 중심으로 나타나 있어 부모 자식간의 세대갈등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때로 연인이나 자매처럼 친밀하다가도 때로 질투하는 관계로 치닫기도 하는 보편적인 모녀관계의 섬세한 면면까지 포착하여 읽는 재미를 더해 준다.

엄마 독자들이나 사춘기 학생이나 모두가 읽어도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책으로 한 번쯤 역시 사지 생각해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 딸에게 들려 주는 작은 철학

**틀란트 시몬 셰퍼(안상원) / 동문선 / 1999년 / 294쪽 / 7,000원**

이 책은 독일 브라운슈바이크 대학의 철학교수인 저자가 그의 딸을 위해 쓴 책이다. '날맡은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칸트의 네 가지 질문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희망해야 하는가', 마지막으로 '인간이란 무엇인가'가 담겨 있다.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 그 동안 학교에서 배워 왔던 단편적인 철학적 지식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고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어렵게만 여겨왔던 철학을 쉽고 재미있게 펼쳐 보인다는 점이다.

이 책은 난해한 철학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도 독자 스스로 세계의 의미를 사유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이끌어준다는 면에서 청소년들에게 권할 만하다.

##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생각하기

마이클 J.겔브 / 대산 / 1999년 / 346쪽 / 7,800원

“당신의 뇌는 당신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다.”

인류 역사상 최고 천재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의 천재성을 따라잡는 방법을 소개한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한다. 뇌도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더욱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역설하여 천재가 되는 것은 나와 요원한 일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천재의 사고방식과 창의력을 불어넣어 주는 자기계발 지침서이자 희망과 확신을 주는 책이라 할 수 있다.

호기심과 실험정신, 지적 포용력, 좌우 두뇌계발 등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실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기록이 담긴 노트와 발명품, 창의력 계발의 열쇠인 천재적 특성의 일곱 가지 핵심 요소도 소개된다.

‘내 재능 가운데 가장 큰 재능은 무엇인가? 내 가슴 밑바닥의 욕구는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의 질이 최대한 증진될 수 있을 것인가?’ 등과 같은 의문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는 보람이 있을 것이다.

## 마음 가는 대로 해라 1-2

앤드류 매튜스(김승욱) / 특스북 / 2001년 / 231쪽 / 7,500원

작가가 말하는 ‘마음가는 대로 하라’는 혼허를 말하듯 ‘내 멋대로 굴라’는 말이 아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핑계를 대거나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인정하라는 말이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것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면서 성공할 수 있는 10가지 계명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 가는데, 읽으면서 ‘맞아, 맞아’라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담아내고 있다.

10개의 주요 주제가 더 작은 주제로 나뉘어져 무료함을 느낄 새도 없이 쉽게 읽을 수 있고 중간중간에 간주려 놓은 작은 주제는 핵심을 한눈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게다가 저자가 직접 그린 재미 있는 개그 컷이 들어 있어 친근한 느낌을 한층 더한다.

## 맹언니 백두대간 푸른 일기

맹명순 / 글토 / 2000년 / 292쪽 / 8,500원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굳건하게 뻗어있는 백두대간은 우리 국토를 이루는 한반도의 등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걸어 넘을 수 있는 능선은 지리산 천왕봉부터 설악산 너머 진부령까지 약 800Km구간이다. 오래 전부터 많은 산악인들이 이 백두대간 완주에 도전해왔다. 대부분은 여러 구간으로 끊어 오랜 시간을 두고 완주했으나 단번에 종주한 이들도 여럿 있다. 물론 거의가 남자다.

이 책은 46kg의 체중에 25kg의 배낭을 메고 지리산부터 설악산 넘어 진부령까지 53일 동안 여자 혼자 몸으로 백두대간을 완주한 저자의 산중일기다. 백두대간 전 구간의 산행과정 및 자연경관, 산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심, 도중에서 만난 산꾼들의 이야기 등이 생동감 넘치는 필치로 재미있게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저자의 과거 등산경험, 미국생활과 여행, 회사생활의 실수와 성공, 인생에 대한 사색 등이 총망라된 신선한 산중일기다.

나는 어리니까, 혹은 나는 여자니까 하고 꿈무늬를 빼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이 책을 통해 작가의 자신과의 싸움을 간접 체험하며, 나 자신의 저력도 함께 느껴보면 어떨까?

## 마보새 이야기

이상수 / 길 / 1998년 / 146쪽 / 6,500원

<장자>하면 떠오르는 한마디, 그건 ‘꿈’이다. 그는 꿈 같은 일생을 꿈처럼 호방하게 풀어놓았던 이야기꾼이었다. 장자는 우화와 이야기로써 철학을 한 사람이다. 그만큼 재해석할 수 있는 꿈을 넉넉하게 지니고 세월이 가도 늘 열려 있다. 지은이 또한 장자의 생각을 7편의 이야기로 다시 구성했다. 장자는 특히 기괴한 겉모습을 지닌 우의적 인물들을 많이 등장시켰는데, 이 책은 그 지리지 못난 인간형을 한국형으로 변신시켜 읽는 재미를 더한다.

비트겐슈타인은 “농담만으로도 훌륭한 철학책을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장자는 그 본보기라 할 만하다. 이 책은 이미 세상에 나와 있는 수많은 <장자> 해설서가 아니다. 끝없이 계속될 이야기인 <장자>를 지금, 여기, 마음으로 바라본 ‘또 한편의’ 이야기다.

이 괴상하면서도 슬프고, 대담하면서도 섬세한 이야기들이 어디서 왔는가? 끝머리에서, <장자>의 출전을 다음과 같이 밝혀두었다

“꿈속에서는 그것이 꿈인 줄 모르고 꿈속에서 또 꿈에 대해 무꾸리하기도”하는 우리는 “깨어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꿈이었던 줄을 안다.

이 책을 통해 잃었던 나를 스스로 만나보자.

## 박영선의 인터뷰 사람 향기

**박영선 / 나무와숲 / 2002년 / 304쪽 / 8,900원**

MBC 앵커로 낮이 익은 박영선 기자가 오랜 동안 취재와 방송생활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 엮었다. 각자 다른 표정, 다른 개성을 지닌 사람들과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녀는 세상을 보고 읽는 새로운 잣대를 발견했다고 말한다.

그녀가 만난 사람들의 층위도 다양하다. 작가와 정치인, 재벌그룹 총수 등 다양한 분야 16명이 주인공들이다. 수필가 피천득, 김수환 추기경, '예술은 사기'라고 말하는 비디오아티스트 백남준, 시인 김지하와 뮤지컬 배우 윤복희, 붉은악마 대표 신인철, 김영삼 전대통령과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전태일의 동생으로 미성사에서 노동학박사가 된 전순옥, 북에 사는 아내를 만났지만 한동안 딸문을 열지 못한 실항민 이몽섭 등이 그녀가 만난 사람들이다.

특히 김지하 시인의 방 귀퉁이에 쌓인 약봉지가 전하는 의미, 인터뷰 장소에 맨 얼굴로 등장한 윤복희의 당당함 등 등장 인물들의 인간적인 모습이 독자의 눈길을 머물게 한다. 결코 가볍지만은 않은 내용의 이야기들이 담겨있는 이 책으로 사람의 향기를 느껴보기 바란다.

## 반드시 만화가만을 원해라

**백예정 외 / 민음사 / 2002년 / 378쪽 / 10,000원**

제10회 대산 청소년 문학 수상 작품집. 소설 부문 대상을 받은 <소리의 무덤>, 시 부문 대상을 받은 <해> 등 총 17편의 소설과 23편의 시가 실려있다.

주목할 만한 작품으로는 소설에서는 대상을 받은 <소리의 무덤>과 가슴 아픈 시절을 담담하게 그려낸 <마법의 성>이다. 시에서는 금상을 탄 <타향>, 은상을 받은 <역무원> 등이 있다. 자신의 일상을 꼼꼼히 관찰하고 성실하게 언어로 걸러낸 작품들이 아름답다.

대상작 <소리의 무덤>은 버려진 오르간을 고쳐내는 고물상 할아버지와 외로운 할아버지를 조금씩 이해해 가는 소녀의 이야기를 잔잔하게 그려내고 있다. 작품집 제목이기도 한 <반드시 만화가만을 원해라>는 고등학생 소설 부문 동상작으로 만화가를 꿈꾸는 여고생 다섯 명의 이야기이다. 여기에는 십대의 임신·가출, 어려운 가정환경, 일류대를 고집하는 부모와의 불화 등 청소년들의 고민이 여과 없이 담겨 있다.

청소년들에게 '한 시대의 삶과 정신의 결정체이자 시대를 이끌어가는 힘의 원천'인 문학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고취시키고자 마련한 청소년문학상의 의도처럼 동료의 작품을 통해 문학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진다면 더 없는 성과일 것이다.

## 빌 게이츠 미래를 바꾸는 기술

**자넷 로(직인자) / 문학세계사 / 1999년 / 300쪽 / 7,800원**

세계 최고의 갑부이며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사의 회장 빌 게이츠가 이뤄낸 업적이나 그의 사업 전략, 성공 신화에 관한 책은 많이 출간되었지만, 인간으로서의 빌 게이츠의 삶을 본격적으로 다룬 책은 없었다.

이 책의 지은이 자넷 로는 빌 게이츠의 연설과 뉴스 기사,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빌 게이츠란 인간에 초점을 맞추어, 읽기 쉬운 독특한 평전을 만들어냈다. 소년 시절부터 하버드 대학 시절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빌 게이츠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이 책은 다양한 시각으로 그를 바라보게 한다.

인간 빌 게이츠의 성공 스토리는 인생의 원대한 포부를 지닌 사람들이 좀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꿈을 꿀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 빛깔있는 책들 036 - 옛책

**안준근 / 대원사 / 1995년 / 193쪽 / 4,800원**

우리나라는 옛 책이 많다. 옛날부터 출판문화가 발달되었고 유교의 영향으로 글을 읽을 줄 아는 것을 사람됨의 기본으로 쳐왔기 때문이다. 금속활자를 통한 인쇄는 세계 최초의 수준을 자랑한다. 그런데 실제로 옛 책이 어떤 출판과정을 거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의 옛 책이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서 출판되었는지, 또 그 여러 출판 기관에서 나온 책들은 서로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즉 고서의 판원과 필사본, 목판본, 인쇄본, 판화본 등 고서의 종류를 자세하게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옛 책을 통해 옛 문화를 알아보고 싶은 사람과 책을 손에서 놓기 싫어하는 사람은 한 번 필독하여 과거의 묵향을 오늘에 되살려 보기에 좋은 자료로 추천한다.

##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운가

강준만 외 / 인물과사상사 / 2000년 / 374쪽 / 9,000원

이 책은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운가'라는 부제로 단장한 시사인물사전 여덟째 권이다. 이 책에는 '폭력적 남성우월주의의 종언'을 주장하는 여성운동가 '법으로 법에 저항한 인권 변호사' '언론 개혁을 실천하는 참언론인' 등 국내외 시사인물 13인의 이야기가 실렸다. 이 중에는 '사회 참여적 지식인'의 탄생을 알렸던 에밀 졸라 등 국외인물도 있다.

각계의 인물 이야기를 아우르는 이 책은 크게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 즉 인간의 존엄성을 주제로 하고 있다. 자신의 삶을 통해 인간의 아름다움을 구현하려는 사람들의 인생살이와 주장, 앞으로의 방향 등을 가능해본다. 그리고 인권적 관점에서 바라본 재벌문제, 남성과 여성 간의 위계질서, 미국의 인종주의 등의 문제가 함께 다룬다.

한국에서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로 대접받는가? 우리는 인권 문제의 상당 부분을 이데올로기나 가치관의 문제로 돌리는 잘못을 자주 그리고 많이 범하고 있다. 이 책은 인권 문제는 이념과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100%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느냐,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기본적인 인간관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 사랑받는 사람들의 9가지 공통점

사이토 시게타(이유정) / 시학사 / 2000년 / 256쪽 / 8,000원

어디를 가든 환영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이 나타나면 주위가 온통 환해지는 듯한, 그래서 덩달아 모두 즐거워지는 사람. 그들이 사랑받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사이토 시게타가 이 책에서 그 답을 들려준다. 내 삶을 행복하게 꾸려갈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사랑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생생하게 짚었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인간의 성격과 행동양식을 생활 속의 많은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정신과 의사 특유의 날카로운 관찰력과 세밀함, 넉넉한 유머가 돋보이게 한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일상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게 해 주고 있다는 점이다. '아! 맞아. 나도 그랬었지. 그 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하는 속 시원한 감탄을 내뱉게 만든다. 일상의 소소한 부분들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하나하나 끄집어내는 저자의 관찰력과 통찰이 책 곳곳에 깊이 배어있다.

이 책을 손에 들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더 나은 인간관계를 맺는 비결을 알아보자.

## 사자같이 젊은 놈들- 전문가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구본형 / 김영사 / 2002년 / 232쪽 / 9,900원

창창한 미래를 가진 젊은이들은 자유로운 전문가가 되어 아침에 일어나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한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즐겁고 열정적인 삶을 살고자 한다. 더군다나 정해진 틀과 조직에 얽매이기 싫어하는 자유로운 젊은이라면 그런 심정은 더 할 것이다. 하지만 또 다른 딜레마는 막상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려고 하면 무엇을 하고 싶은 지도 모르겠고 먹고사는 문제도 만만치가 않다는 것이다. 자유가 주어지는 만큼 그 길에는 많은 준비와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러한 고민을 안고 사는 젊은이들에게 변화경영 전문가가 전하는 자기 지침서이다. 저자는 20 대의 공통분모를 안고 있는 7 명의 젊은이들을 등장시켜 그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삶을 풀어가는지 이야기 형식으로 전해준다.

새로운 삶을 개척하고 싶은 젊은이들이 꼭 보아야 할 책이다.

## 빛깔있는 책들123-산사의 하루

돈연 외 / 대원사 / 1992년 / 112쪽 / 4,800원

시인인 돈연 스님이 직관적이고 섬세한 문체로 써 내려간, 산사에서 살아가는 스님들의 이야기이다. 새벽을 깨우는 도량식으로 시작하여 예불, 후원의 공양 준비, 정갈한 발우 공양, 청소, 강원, 율원, 선방에서의 정진 등 소박하고 검소하며, 보이지 않는 엄격한 질서 속에서 서원을 지켜 나가는 수행자들의 생활을 사진과 함께 밀도 있게, 서정적으로 보여 준다. 수행과 깨달음 그리하여 이어지는 전법과 교화는 부처님 생애의 표상이다. 불교 수행자는 언제 어디서나 그 길이 삶의 나날이요 절서가 된다. 때문에 수행자의 하루 일과는 부처님께 드리는 예배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의 사찰은 종교 단체만이 아닌 문화 유적이 되어 있어, 국사 시간에 절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수학 여행이면 절을 찾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절마다 있는 대웅전이며 법고, 범종, 목어 등을 보고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인지 잘 알지 못한 채 지나치곤 했다.

이 책은 사찰과 예불, 아침공양, 청소, 산보, 정진수행 등 불교 수행자들의 삶과 문화 유적을 보는 시각을 배우는 좋은 지침서이다.

## 산중에서 길을 물었더니

서희동 / 은맹나무 / 2002년 / 349쪽 / 15,000원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참 '나'를 찾는 길은 무엇인가. 불교 신자이든 아니든 큰스님들에게 해답을 물어보고 삶의 지혜로 간직하고 싶은 것이다.

이 책은 토굴생활을 하시는 성수 스님에서부터 외국인 납자들을 지도하는 대봉 스님, 동국역경원 부원장을 지낸 석주 스님에 이르기까지 총 33분을 만나 그 분들이 승풍을 진작시키고, 어떻게 세상에 법문을 전할 것인가 하는 법문을 실었다.

이 세상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니 남과 나, 자연과 나를 분별하지 말라는 가르침이나 참선에는 방도가 없으니 오직 정진 수행해야 한다는 말씀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을 수도 있으나 직접 옹매 정진하여 깨달음을 얻은 분들의 말씀인지라 현대인과 불자들의 삶에 이정표가 될 만하다.

책에 실린 큰스님들의 얼굴은 편안하고 맑다. 온갖 집착과 탐욕에 찌든 현대인들의 일상에 고승들의 법문이 한줄기 맑은 바람이 될 것이다. 마음의 때를 씻어주는 큰스님들의 가르침을 듣는 기쁨을 권하고 싶다.

## 상상력과 전쟁

이휘연 외 / 인물과사상사 / 2002년 / 324쪽 / 9,000원

이 책은 문화계의 중심 인물 13인을 선정, 그들의 작품과 문화인으로서의 인생을 서술한 책이다.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세계적으로 알린 공헌자인 미야자키 하야오, 디즈니 왕국이라고까지 불리는 만화왕국을 건설한 월트 디즈니, 영화 타이타닉을 만든 제임스 카메론, 미국광고계의 인물인 데이비드 오길비, 한국의 영화감독 이명세와 개그맨 심형래 등 그들이 평소 숙고하고 고민한 상상력이 어떻게 문화상품으로 거듭나게 되는지의 과정과 상상력과 테크놀로지의 함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김기영 감독의 대표작인 '하녀'는 인간 본능을 해부한 심리극이기도 하지만 근대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인해 불거진 제반 문제점을 그려낸 사회극으로서의 면모 또한 갖고 있다. 이런 작품의 내용과 함께 그 작품을 만들게 된 김기영 감독의 평소 상상력과 문제의식, 그리고 예술가가 직관적으로 캐낸 시대의 비밀을 함께 보여준다.

예술 작품을 보면서 좀 더 깊게 작가의식과 사회와의 관계를 묻고 싶은 분들에게 어울리는 책이다.

## 상식의 오류사전 1-3

발터 크래머 외 / 트랜슬러(박영구외) / 경당 / 2001년 / 320쪽 / 9,000원

우리가 '상식'이라고 부르는 것들에 대해 의문을 품어본 적이 있는가? '상식'은 정말 사실 혹은 진실일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 진위여부를 따지기 보다 '여러 사람들에게 널리 믿어지는' 명제들을 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쪽을 택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들은 옳은 듯이 보이는 상식들 중에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을 조목조목 짚어낸다.

예를 들어 늑대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건 전설에서나 가능할 뿐 실제로는 완전히 무리라고 설명한다. 노벨이 니트로글리세린 폭약을 발명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폭발을 통제할 수 있는 다이내마이트를 발견한 것일 뿐 폭약은 발명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 물론 이 책은 사소한 주제만을 다지 않고, 정치와 역사, 기술, 경제, 의학, 환경 등 다소 묵직한 주제들 또한 과학적 근거를 통해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다.

우리들도 상식 속의 오류에 대한 비판과 의심의 문을 활짝 열어보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오류의 늪에 빠져 헤매는가를 안다면 한층 겸손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사물과 소식들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 생각하며 놀자 - 선생님이 들려주는 재미있는 이야기

박성철 / 청조사 / 2002년 / 176쪽 / 6,000원

이 책의 '병아리의 잘못된 생각' '잠자는 토끼를 깨운 거북이' 등 목차를 보면 절로 호기심이 솟아난다. 이 책에는 아이들에게 전해 줄 감동과 교훈이 가득 찬 이야기들이 실려 있으며, 자신이 이야기를 읽고 생각하는 공간도 있다.

이 책의 장점은 책 읽기를 싫어하는 아이들도 책이 지겨운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만큼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간다는 것이다. 아, 창의성은 이렇게 길러져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신하고 재미있고 감동적인 내용이다. 특히 네 칸 만화를 보면서 이야기를 읽으면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평소 책읽기를 즐겨하지 않는 학생들은 이 책을 읽어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제멋처럼 책과 함께 생각하며 재미있게 놀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 서른 일곱 명의 애인

**김은형 / 즐거운학교 / 2001년 / 321쪽 / 8,500원**

서른 일곱 명은 저자 김은형 선생님이 담임을 맡았던 학생들이다. 이 책은 아이들을 마치 애인처럼 생각하며 지낸 학교 이야기와 교사로서 겪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적은 교단일기이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진정한 관계 맺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리 교육이 여기까지 온 데는 소통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하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서로 이해하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교사로, 교육운동가로 그리고 때로는 학부모의 입장에서 더 나은 교육을 꿈꿔온 김은형 선생님의 지론이다. 독자들은 그가 문제야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의 기록을 읽으며, 문제야를 문제야로 고쳐서 쓰는 우리 사회가 실은 진짜 문제 있음을 깨닫게 된다.

교사가 본 학생들의 고민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보자.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 선생님

**에스더 라이트(유시주) / 푸른나무 / 2000년 / 224쪽 / 6,800원**

선생님들에 대한 추억이 없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학교 때 선생님에 얽힌 추억을 갖고 있고, 그들이 우리들의 삶에 끼친 영향을 생각한다.

이 책은 미국의 선생님 34인의 이야기이다. 세상의 수많은 스승 가운데 '선생님'이란 이름 석자를 달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34명의 필자들은 자신이 선생님이란 위치에서 느꼈던 애환과 아쉬움, 기쁨과 보람을 통해 "나는 왜 선생님이 되었을까?"를 고민하고 있다. 이들 희망에 찬 교사들이 교직에서 얻어낸 감동은 국경을 초월한다. 학생들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 학생들과의 가슴 아픈 추억담 등 교직 세계의 보람과 애환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이 책은 교사들이 왜 선생님의 길을 걷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고백서이기도 하다.

요즘처럼 사제간의 관계가 삭막해진 세상에서 이 책에 나오는 선생님들의 크신 사랑과 제자와의 특별한 관계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 진심으로 신뢰할 수 있고 참사랑과 열정으로 가르쳐 주실 선생님을 이 책에서 먼저 뵈는 것도 좋을 것이다. 온 가족이 함께 읽고 진정한 스승상, 진정한 학생상에 대해 생각하자.

## 세계 어디에도 내 집이 있다

**조연현 / 한겨레신문사 / 2002년 / 316쪽 / 9,500원**

현대인들은 너무 바쁘게 생활한다. 바쁜 와중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인생과 자연, 드넓은 우주와 인간에게 던져주는 오묘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산다. 그렇게 목적을 잃고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생각한다. 우리는 왜 살까. 우리는 왜 존재하는 것일까.

이 책은 국내 환경운동가, 생태탐험가 9명이 유럽 일대와 일본, 캐나다, 인도 등에 있는 13개 공동체 마을을 체험한 글이다. 세계 열세 곳의 공동체를 직접 몇 주일에서 몇 년까지 직접 살아보고 그 안에서 자신의 삶, 그 안에서 자신이 바뀌는 모습까지도 진솔하게 기록해 놓았다.

작가가 체험한 공동체 마을에서는 좋은 삶, 또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삶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한다. 그들 마을은 지금의 내 삶이 있기까지, 앞날에 대해 희망을 갖기까지 함께 주위에서 살았던 분들이 끼친 덕과 의미를 가르친다.

현대인들이 빠르게 돌아가는 삶의 바퀴를 잠시라도 쉬고, 삶의 진정한 모습을 찾고 싶을 때 권하고 싶은 책이다

## 세계 최초의 그림교과서

**요하네스 아모스 코메니우스(남예승) / 씨앗을뿌리는사람 / 1999년 / 192쪽 / 12,000원**

코메니우스는 아이들이 맛있는 밥을 먹듯이 학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최초로 학습서에 그림을 넣은 세계 최초의 그림 교과서를 저술하였다.

이 책의 저자인 코메니우스는 '그림책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열린 교육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교육자이다. 위대한 교육자들은 많았지만, 어린이를 위해 직접 책을 쓴 사람은 없었다. 오직 코메니우스만이 어린이들이 직접 볼 책을 쓴 셈이다. 러시아의 스트라호프 교수도 '세계의 그림 교과서'를 언어 학습을 위한 가장 창조적인 접근 방법을 택한 책이라고 평하고 있다.

이 책은 언어 학습은 물론, 아이들에게 일상적인 상황과 생생한 직업에 대한 이해, 올바른 가치관의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서이다.



## 세 번째 개똥을 씹으며

**이현주 / 한승출판사 / 1996년 / 334쪽 / 6,500원**

관심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우리의 교육현실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교육백년지계를 이야기하며 많은 교육제도를 만들고 실험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교육을 위한 대안은 화려한 교육개혁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현실에 있다고 이 책은 주장한다.

이 책을 쓴 세 명은 모두 중학교와 고등학교 현직 교사로 사명감과 학생들에 대한 애정이 가득한 젊은 교사들이다. 그들은 우열반 편성으로 인한 상처, 부모의 기대 따위로 고통받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도교육 안에서 버림받은 학생들이 사회에서 더 철저하게 소외되어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은 여성재교육기관의 화재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 제목으로 쓴 ‘세번째 개똥’은 현실에 안주하려는 자신을 채찍질하는 말로 교육현장에서 발견되는 많은 문제점에 대한 비판의 촉수가 무더지지 않길 바라는 젊은 선생님들의 마음의 표현이다.

한국 교육의 문제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려는 열정이 가슴을 훈훈하게 하는 책이다. 이 책을 읽으며 답우들과 교육현실을 돌아보고 좀 더 밝은 미래를 열려고 애쓰는 선생님들의 생각을 공유해 봄직 하다

## 세상에 홀로 서는 너희들에게

**마리언 라이트 에델만(최순희) / 김영사 / 1994년 / 122쪽 / 4,000원**

이 책은 자녀들을 위해 한 어머니가 들려주는 25가지 삶의 지표를 적은 글이다. 미국의 슈바이처 인권상 수상자이며 미시시피주 최초의 흑인 여성 변호사인 에델만 여사가 들려주는 생생한 인생 교훈서로 잔잔한 감동을 주는 책이다.

한국 간행물윤리위원회 선정 청소년 권장도서이기도 한 이 책을 읽음으로써, 아직 불확실하게 형성된 청소년들의 가치관, 인생관이 보다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한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부모님을 생각해 보는 계기도 될 것이다.

##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부모 이야기

**김승희 외 / 지성익셈 / 1998년 / 342쪽 / 7,000원**

시인, 소설가, 여성 학자, 의사 등 각계 전문가 15명이 자신의 자녀 교육관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견해를 담은 자녀 교육 지침서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부모 이야기’를 펴냈다. 이화 여대 이이영 교수는 일찍이 오늘날의 가정교육을 일컬어 “지지, 곧 해서는 안 되는 것은 가르치지 않고 ‘맘마’, 곧 욕망 충족만을 가르치는 자유 방임 교육”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정신의 연장선상에서 씌어진 책이다. 최소한의 규범을 안 지켜도 그냥 “잘한다, 잘한다”고 내버려두는 것은 예사이고, 초등 학교 학생들의 숙제는 으레 부모 몫이 되어버리고 만 것이 현실이다. 우리 사회의 망국적인 학벌 제일주의와 일류병에서 비롯된 이러한 현실을 진지하게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책이다.

## 세상에서 네가 제일 멋있다고 말해주자

**직은숙 / 문학동네 / 2000년 / 246쪽 / 7,500원**

시골 작은 중학교 선생님인 저자의 교실 일기로 하교한 아이들은 책가방 집어던지고 놀러 나가고, 학교 선생님은 이웃집 아주머니나 별반 다를 바 없는 체념이나 걱정보다는 여유와 희망을 갖는다.

저자가 여름방학 보충수업을 강요하지 말자고 한마디했다가 ‘짜가지 없는 젊은 것’이라는 말을 듣기도 하지만, 그래도 “학교는 끔찍하지만 그 속에서도 울고 웃고 자신을 발견해 내고, 삶을 통째로 나눌 수 있는 그 곳이 절망의 접점이요 곧 희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또 ‘어떻게 하면 리얼하게 병가를 내고 하루 쉬어볼까’ 궁리하는 서른이 훌쩍 넘은 철없는 사회인의 눈을 통해서 소설가의 가정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세상을 바꾸는 아이들의 33가지 이야기

잭 캔필드(김서정) / 중앙M&B / 2001년 / 210쪽 / 7,000원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로 유명한 잭 캔필드와 마크 박터 한센이 초등학생과 청소년을 위해 엮은 이 책은, 어린 시절 주변에서 겪을 수 있는 33가지의 이야기로, 어린 시절 사랑하는 오빠를 병으로 잃어야 했던 가슴아픈 기억을 가진 유명한 여자 축구 선수 미아 햄의 이야기와 불우한 어린 시절을 곳곳이 이겨낸 NBA 농구스타 칼 말론의 이야기 등 하나 하나가 잔잔한 감동으로 큰 울림을 주는 보석 같은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모두 3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1부 '사랑을 나누는 아이들'에서는 늘 가깝게 지내지만 그 소중함을 잊고 지내는 친구와 이웃,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묶었고 2부 '세상을 바꾸는 아이들'에서는 점점 믿음이 사라져 가는 이 세상을 순수한 아이들의 영혼으로 조금씩 바꿔 나가는 모습이 감동적으로 느껴진다. 마지막 3부 '지혜롭게 사는 아이들'에서는 세상의 온갖 편견을 지혜롭게 극복해 가는 이야기들이 소개되고 있다.

## 세상을 밝혀주는 지혜

유동범 / 시가있는마을 / 2001년 / 268쪽 / 7,900원

철학적인 깊이를 담고 있으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짤막한 우화들을 통해 삶의 지혜를 제시한 책이다. 이 글은 사랑, 믿음, 정치, 편견, 어리석음의 다섯 장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주제별로 탈무드, 중국과 인도 등에서 전해 내려오는 고전, 이슬람 수피와 불라의 이야기, 붓다, 공자의 이야기 등 삶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를 싣고 각각의 이야기마다 말미에 자기 성찰에 대한 짤막한 꼬리말을 덧붙여 독자로 하여금 한번 더 생각하게 만든다.

## 소유와의 이별

하이데마리 슈베르머(장예경) / 여성신문사 / 2002년 / 222쪽 / 8,000원

저자는 이 책에서 집도 재산도 없이 살아온 자신의 이야기와 함께 물질 세계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의미에서 영적 체험담,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상부상조의 의미를 되새기는 품앗이 운동 이야기 등을 담고 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는 책이다.

이 글의 저자는 심리학과 사회학을 공부하고 심리치료를 배운 뒤 도르트문트에서 심리 상담소를 개설했던 하이데마리 슈베르머는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주변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무일푼 인생을 자처하며 '돈 없는 삶'이라는 실험 인생을 몸소 실천한다. 그런 그녀의 돈 없는 삶의 체험이 생활 전반에 꼼꼼하게 묻어있으며 실제로 '즐겁게 베풀고 기꺼이' 받는 품앗이 생활의 면면이 의식주 전반에 걸쳐 드러나고 있다.

## 술타나 - 베일에 가려진 사우디아라비아 여성들의 이야기

진 세슨(이영선) / 문학세계사 / 2002년 / 279쪽 / 8,500원

이 책은 '술타나'라 이름 붙여진 한 사우디 공주가(신변의 위협 때문에 실제 이름은 공개되지 않는다) 자신과 가족들이 지나온 인생을 토대로 사우디 여성들의 참혹한 실제 삶을 들려주는 내용이다.

12년간 사우디 아라비아에 살며 여러 여성들과 만남을 가졌던 이 책의 저자 진 세슨은 어느 날 사우디 공주로부터 일기와 메모를 건네 받는다. 그녀가 전해준 글들은 사우디 여성들이 겪는 가혹한 규제와 충격적인 사실들에 대한 기록이었다.

열 여섯의 나이에 예순이 넘는 할아버지의 세 번째 부인으로 들어가야 했던 술타나의 언니 이야기, 침대 초반에 이미 아이를 낳게 되는 어린 소녀들 이야기, 간음죄로 판결 받은 소녀에게 가해진 끔찍한 처형, 교육도 받을 수 없고 여행도 맘대로 다닐 수 없으며, 초경 이후부터는 검은 천으로 온 몸을 두르고 베일로 얼굴을 가려야 하는 사우디의 모든 여성들...

이 책에 그려진 사우디 아라비아의 억압적인 현실은 전세계인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으며, 실제로 여성 인권 운동에 기여하게 한 책이다.

## 신화가 된 여자 오프라 윈프리

자넷 로위(신리나) / 청년정신 / 2002년 / 270쪽 / 9,000원

1998년, 오프라 윈프리는 힐러리 클린턴에 이어 두 번째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여성으로 뽑힌 인물이다. 그녀가 미국인들에게 얼마나 커다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이다. 그녀는 최초의 흑인 앵커이자, 보그지의 패션모델이었고, 'The Oprah Winfrey Show'로 존경과 사랑을 받는 방송인이며, 미국에서는 '오프라 현상'이라는 말까지 만들어졌을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여성이다.

이 책에서는 그녀의 시시콜콜한 사생활 이야기나 스타덤에 오르기까지의 과정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자신이 살아오면서 배웠던, 그리고 우리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과 교훈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오프라 윈프리가 역경을 어떻게 극복하고 성공을 일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엄청난 명성을 누리면서도 어떻게 삶의 진실된 모습을 잃지 않고 유지해 왔는지를 담고 있는 감동서이다.

## 씨앗을 지키는 사람들

안미란 / 창작과비평사 / 2001년 / 176쪽 / 6,000원

제5회 좋은 어린이 책 공모 창작 부문 대상을 수상한 공상 과학 소설이다. 이 책에서는 현대 문명이 파생시킨 문제를 진지하게 보여줌과 아울러 빼앗긴 씨앗을 둘러싼 갈등과 꿈을 그려낸 흥미진진한 미래 이야기이다. 이 글 속의 진희네 어머니는 연구소에서 새로운 범서 품종을 개발하는 연구원이다. 진희네 아버지는 박물관 원예사로, 있는 그대로의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썩장 씨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안 어머니는 크게 화를 낸다. 모든 씨앗은 특허 신청을 통해 기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씨앗을 키우는 것은 지적 재산권 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결국 진희 아버지는 외국 기업과 정치가의 음모에 의해 감옥에 가게 된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 '모든 씨앗은 원래부터 그걸 키우는 모든 사람의 것'임을 깨달은 어머니와 진희는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협동농장을 만든다.

가상의 미래 사회에 대한 묘사가 재미있을 뿐더러 지금부터 조짐을 보이는 여러 사회 문제에 대한 통찰이 빛나는 어린이 동화이다.

## 아름다운 파괴

이거룡 / 거름 / 2000년 / 208쪽 / 9,800원

인도는 과연 어떤 나라일까? 동국대 연구 교수이자 인도 철학자인 저자는 인도의 독특한 특징을 인도의 사상과 철학 속에서 발견하고자 한다. 초월, 진리의 다양성, 윤회와 업 등의 10 가지 주제를 통해 인도인의 사유 방식을 쉽게 설명한 이 책은 '인도의 철학과 문화'라는 저자의 대학 교양강좌 내용을 엮은 것이다.

저자는 자신이 유학 생활에서 겪었던 경험과 일상에서의 자질한 일화에서 인도사상의 실태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나간다. 이 책은 먼저 '무질서 속의 질서' '다양성 속의 통일'을 보여주는 인도 사상의 뿌리를 살피는 데서 시작한다. 저자에 따르면 힌두교의 종교적 포용력과 유연성은 '진리에 이르는 길은 여럿이다.'라고 생각하는 인도인의 사고에 따른 것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인도인의 사유방식을 푸는 중요한 열쇠인 체념과 초월, 업과 윤회, 깨달음에 이르는 방법 등을 명쾌하게 설명하면서 명상의 참다운 의미, 몸과 욕망에 대한 긍정, 서구의 합리주의에 대한 비판, 느낌의 미학과 인도인의 시간관 등을 두루 살피며 인도의 사상과 문화적 특징을 깊이 있게 짚어내고 있다.

## 아품을 먹고 자라는 나무

교육출판기획실 / 푸른나무 / 1988년 / 241쪽 / 6,500원

이 책은 작가들의 체험을 토대로 쓰여진 젊은 활동가들의 성장 체험기이다.

1장 그리움의 저편을 2장은 태어나려는 자, 3장은 함께 가는 노동자의 길, 4장은 인간과 역사에 대한 희망을 갖기까지, 5장은 가을과 출가의 변, 6장은 혼자 아닌 우리 모두가 7장은 동백꽃, 8장은 인생은 투쟁입니다, 9장은 오늘도 교실을 행하며, 마지막 10장은 옥에 티일지언정 나다움을 등 전체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삶의 갈피를 잡지 못하여 방황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길을 찾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다.

## 알이 닭을 낳는다

**최재천 / 도요새 / 2001년 / 276쪽 / 10,000원**

최재천 교수가 쓴 동물, 사람 그리고 환경 이야기. 앞선 책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삶을 녹여 낸 재미있는 동물 이야기 60여 편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다. 특히 이 책에는 환경운동에 관한 그의 애정어린 관심이 결집되어 있어 그 의미를 높여준다.

이 책의 제목이 자연과 인간 세계를 바라보는 그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준다. 닭이 알을 낳는 것이 아니라, 알이 닭을 낳는다는 것이다. 그의 스승인 에드워드 윌슨 교수에 따르면 '닭은 달걀이 더 많은 달걀을 얻기 위해 잠시 만들어낸 매체'일 뿐이고, <이기적인 유전자>의 저자 도킨스는 생명체란 유전자들의 복제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잠시 만들어낸 '생존 기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고로 영원한 것은 생명이 아니라 생명을 담고 있는 유전자이며, 내가 사는 이유 또한 나의 유전자를 포함한 종의 진화를 위해서라는 의미를 일깨워 주고 있다.

**박재영 / 굿인포메이션 / 1999년 / 286쪽 / 10,000원**

국제자원활동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와 우리 나라에서 시행중인 청소년 교류 및 파견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담은 책이다. 저자는 '국제자원활동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같이 일하고 여행을 함으로써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한다.

단순한 해외여행이나 어학연수가 아니라, 국제적 봉사활동을 통해 세계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수록하고 있다. 1부는 국제자원활동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국내외 단체에서 조직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골고루 싣고 있다. 2부에서는 청소년 교류 및 초청, 파견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3부에서는 국제회의 전문가를 소개하고 전국 대학생모의유엔회의를 소개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공격 성격의 국제 행사들은 개인이 관심만 가지면 모든 절차를 자신의 힘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한다. 물론 외국어는 필수적이다.

이 책은 세계 각 국에서 방학이나 학기 중을 이용해 선진국의 캠프문화를 익히고, 후진국의 기아나 개발에 도움을 줄 유익한 해외봉사캠프를 소개하고, 또한 주요 국제 기구의 인턴십 과정과 지원 방법 등을 상세하게 담고 있다.

## 어! 달력에 구멍이 뚫렸어요

**아브너 시모니 외(박윤정) / 한승 / 2000년 / 188쪽 / 7,000원**

이 책은 달력에서 사라질 열흘 속에 자신의 열두 번째 생일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고 낙담한 티발도라는 이름의 소년이 벌이는 모험을 그린 책이다.

이 책에는 16세기 이탈리아의 문화와 과학 환경들에 대한 재미있는 설명이 적절하게 배합되어 있다. 아버지와 산파였던 누나가 행하는 의술을 구경하는 티발도의 눈을 통해, 읽는 이는 당시의 의술을 가늠할 수 있고, 티발도의 학교 선생님들을 통해 천문학을 포함한 르네상스기의 여러 학문들을 살펴볼 수 있으며, 달력의 기초인 그레고리우스 달력을 되짚어 보는데 소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책이다.

## 어머니가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조안 라이언(이중인) / 미래M&B / 1999년 / 248쪽 / 6,800원**

케네디가(家)에서 시인 키플링까지 58 명의 어머니에 대해 쓴 글을 모아 '어머니가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미래M&B)을 내놓았다. 이 책은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옮길 줄 아는 지식인들의 글모음이다.

'나의 어머니, 조선의 어머니'는 남존여비의 세상에서 이름조차 없이 하대 받았으나 집안을 훌륭히 다스린 여인네들에 관한 짧은 일대기를 엮었고 김창흠, 김만중, 이황 등의 어머니는 "사람들이 행실 없는 사람을 욕하면서 '과부의 자식'이라고 하는데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해야 겨우 일반 사람의 대열에 끼일 수 있다."라고 가르쳤고, 김진규·이현일 등의 어머니는 "너희가 비록 글 잘한다는 소리가 있지만 나는 다만 한가지 선행을 했다는 말을 들으면 기뻐하며 잊지 않았다."하고 가르쳤다. 최규서·이세백 등의 어머니는 "선비들이 서울에서 살 때란 말이나?"라며 꾸짖고 자식보다 먼저 낙향한 이야기 등으로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 어머니는 나에게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하셨다

**데즈카 오사무(정윤아) / 누림 / 1999년 / 226쪽 / 7,000원**

자서전적 성격을 띤 이 책은 데즈카 오사무가 자라왔던 가정과 학교 생활, 주변인물에 대한 묘사와 자신이 어린이에게 가졌던 생각들이 한 명의 인격체가 완성되는 데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만화를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그의 만화에 담긴 사상들이 어디에 뿌리를 두었는지 알 수 있게 하며,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 무얼 의미하는지 힌트를 얻을 수도 있다.

데즈카 오사무는 좋아하는 일을 했고 좋아하는 일로 거인이 되었다. 작가는 그에게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면 그것은 만화 실력이 아니라 그의 삶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온 가족이 함께 읽는 신화 상상 동물 백과 사전1-2

**이인식 / 생각의나무 / 2002년 / 204쪽 / 13,000원**

이 책은 신화와 전설 속에 등장하는 상상 속의 동물을 총망라한 일러스트 중심의 백과사전이다. 1, 2 권에 소개된 130 종의 동물에 대한 그림과 조각, 기타 조형물의 형태로 남아있는 사진 자료를 수록한 것은 물론, 구체적인 형태의 일러스트를 함께 수록하였다.

헤리포터를 태우고 날아오르던 히포그리프, 신비한 숲 속의 유니콘과 켄타우로스, 요정, 엘프, 흡고블린 등 사람을 닮은 괴물과 파충류, 양서류, 어류, 조류 등 기묘묘한 신화 상상 동물들을 총망라하여 소개하고 있다.

## 일곱 가지 남성 콤플렉스

**여성을위한모임 / 현암사 / 1994년 / 244쪽 / 6,500원**

우리 사회의 남성들은 어려서부터 속마음을 내보이는 것을 차마 못 보일 것을 보이는 것처럼 금기시해 왔으며, 선형적으로 주어진 '남성다움'의 골레 속에 진정한 자아의 모습을 속박 당해 왔다. 이 책은 이처럼 사회의 관습에 의해 한 겹 포장된 남성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런 상태로 밝혀 보이는 데 목적을 두고 씌어졌다.

무엇보다 혼하지 않게 남성 콤플렉스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서 흥미롭다. '여성을 위한 모임'에서 만들어진 것이라 객관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다. 적어도 남자들의 우월감은 배제되어 있을 테니 말이다. 콤플렉스에서 자유로운 남자가 존재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콤플렉스가 어쩌면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어디에도 구속되거나 영향 받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위하여 이 책을 읽어보자.

## 일곱 가지 여성 콤플렉스

**여성을위한모임 / 현암사 / 1992년 / 251쪽 / 6,500원**

이 사회에서 여성은 거칠고 비인간적인 차별에서 미묘하고 은밀한 불평등에 이르기까지 그 사회와 사회 계층 혹은 직업과 결혼 여부에 따라 제각기 다른 차별을 경험한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여성 콤플렉스와 함께 우리만이 갖게 된 콤플렉스를 찾아내 우리 여성이 이 속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 조사하여 보여 줌은 물론, 이를 통해 모든 여성이 사실은 비슷한 삶을 공유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여성들이 속으로 앓고 있는 일곱 가지 여성 문제의 뿌리를 찾아 사례를 통해 풀어낸 콤플렉스 해결서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여성이기 때문에 이래야 한다'라는 갖가지 관념과 콤플렉스 속에서 하나의 존엄한 인격체로 성장하기 위해 찾아야 할 여성 스스로의 가치를 챙겨볼 직하다. 앞으로도 양성으로서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갈 여학생, 남학생 모두에게 이 책을 권한다.

## 잃어버린 꿈을 찾아서

**우봉규 / 매일 / 2002년 / 119쪽 / 5,500원**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져 있으면서 두 아들과 소를 주제로 그림 몇 점만을 남긴 채 방탕한 생활로 생을 마친 이중섭을 모델로 삼아, 가난하지만 그림을 그리는 꿈을 가진 바닷가 소년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각박한 현실에 맞지 않는 자신의 꿈을 포기하려 하는 소년이지만, 결국에는 꿈을 찾아 실현한다는 이야기이다. 평범하지 않은 추상적인 삽화가 아이들에게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꿈보다는 현실이 더 절박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꿈을 잃지 않는 사람들을 그린, 어른들을 위한 그림 동화로 일제 시대와 6.25라는 힘겨운 시대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꿈을 그렸던 화가, 이중섭을 모티프로 60, 70년대, 바닷가 마을의 가난한 소년이 꿈을 짓밟는 각박한 현실 속에서 잠시 꿈을 놓치지만, 결국은 다시 자신의 꿈을 찾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자연을 꿈꾸는 뒷간

**이동범 / 들녘 / 2000년 / 232쪽 / 9,000원**

충남 아산으로 귀농하여 스스로 무공해 유기농을 실천하고 있는 저자가 전국을 발로 뛰며 쓴 '전통 뒷간'에 대한 흥미진진한 보고서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음식을 먹고, 거름이 되면, 밭에 주었던' 한국 고유의 '뒷간'문화를 되짚고, 우리나라에서 특히 발달한 요강문화, 똥뚫이, 똥개 등에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 뒷간과 관련된 풍부한 우리말 등을 소개하면서 귀중한 '똥'을 무조건 더러운 것으로 치부해 물과 섞어 흘려 버리는 현대의 수세식 변기야말로 환경 오염의 주범이라고 꼬집는다.

또한 지역, 계층, 자연 환경 등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했던 전통 뒷간의 형태를 소개하고, 귀농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 쓰고 있는 전통과 현대를 접목시킨 생태적 뒷간의 사례와 만드는 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한다. 우리의 전통 뒷간이 생태 순환의 원리에 충실할 뿐 아니라, 아름답고 위생적이기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주는 책이다.

## 자연을 읽는 지혜

**한동환 외 / 푸른나무 / 1994년 / 195쪽 / 6,800원**

풍수에 대한 비과학적인 인식을 체계적인 지리학을 토대로 재해석하고, 생태주의 운동의 차원에서 자연과 더불어 조화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 모색하는 풍수지리서이다.

이 책은 풍수의 이론과 역사 그리고 답사를 통해 자연과 인간이 '상생 관계'에 있음을 강조한다. 또한 '음양오행' '명당' '혈' '비보압승' 등을 쉽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 자유가 그림겨든 배낭 메고 떠나라

**유길조 / 책읽는사람들 / 2001년 / 350쪽 / 12,000원**

여행 첫 기착지인 영국에서 페리 호를 타고 스페인을 거쳐 열차와 버스를 이용하여 이탈리아와 그리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등 40일 동안 유럽 각 국의 도시를 여행하면서 날짜별로 꼼꼼히 기록한 배낭 여행기이다.

민박과 호텔을 이용하면서 겪은 갖가지 고생담과 숙박 업소에서 주의해야 할 점등을 자세하게 알려 주고, 도시간 이동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방법, 여행지에서 볼거리 등을 알려 준다.

저자는 현지 문화를 몸으로 체득하기 위해 많은 사람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특히 미술관을 빼놓지 않고 관람했다. 떠나기 전에 관련 자료를 숙지하고, 여행 가이드 북 대신 '미술 해설서'를 손에 들고 갔던 만큼, 현장에서 직접 본 미술 작품을 새로운 시각에서 설명하고 있다. 여자 혼자 떠난 배낭 여행 중에 일어난 갖가지 에피소드들도 소개한다.

## 자유와 무늬

**고종석 / 개마고원 / 2002년 / 336쪽 / 10,000원**

1부에는 『시사저널』 '문화비평' 난에 연재했던 글이, 2부에는 『한국일보』 '이런 생각' 난에 실었던 글이, 3부에는 『씨네21』의 '유토피아 디스토피아'에 실었던 글이, 마지막 4부에는 『우리 교육』 등 각종 매체의 글이 묶여 있다. 인문적 교양과 열린 사유, 단아한 문장으로 '고종석표' 글쓰기를 보여주고 있는 에세이스트 겸 칼럼니스트 고종석씨의 글 모음집이다.

<자유와 무늬>라는 제목에서부터 저자가 지향하는 문장과 사유의 세계가 잘 드러난다. 이를테면 저자는 일질 권력의 계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주의자'이며 언어와 사상의 섬세한 '무늬'에 주목하는 '스타일리스트'인 것이다.

현실정치, 주류미디어, 마이너리티, 모국어와 사상 등 '세상 돌아가는 모든 일'이 저자의 날카로운 시선에 잡혔다. "공리주의적으로 말해서 누구에게도 해롭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들에게 이로운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선이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성애자들의 '선의의 무심'이 그 예다"같은 통찰력 있고 간결한 사유와 문장을 만나는 것은 즐거움을 준다.

## 잘 노는 녀석이 공부도 잘 한다

박인성 / 소담출판사 / 2001년 / 279쪽 / 7,500원

우리나라에서 서울대에 들어간 학생들은 일단 객관적으로 학습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봐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이 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대학생이 쓴 글이기에 고등학생들에게는 더 현실감 있게 다가올 것이다.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과목별 공부 방법과 책 뒷부분에 실린 다른 대학생들의 이야기들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서울대 치의예과 재학생(98학번)인 저자는 공부와 연애하는 마음을 가지면 누구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물론 공부는 사랑처럼 순간적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연애다. “공부의 재미는 만들어 가는 것, 드라마를 보듯, 뮤직비디오를 보듯, 우리 스스로 공부를 재미있게 만들어 가자. 공부하는 감각은 한꺼번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통해서 서서히 개발된다.”

그는 실제로 공부 잘 하는 방법을 과목별로 하나하나 제시한다. “신나게 시험을 치는 법”과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논술.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 방법” 등 선배로서의 경험과 비결도 들려준다. 11명의 다른 대학생들이 입시 공부 과정에서 아쉬웠던 점들을 털어놓은 대목도 눈여겨볼 만하다.

## 잠깐만요! 티데만씨

악셀숄로테(송재홍) / 이른과실천 / 2002년 / 145쪽 / 8,000원

이 책은 잃어버린 ‘순간’을 찾아다니는 티데만의 여행을 기록한 ‘나’의 일기다. 어린 왕자처럼 여정 중에 만난 사람들과 색다른 경험을 통해 ‘시간’에 대한 여러 가지 철학적 성찰을 담고 있다.

일상적인 것에 의문을 품는 주인공인 티데만씨의 ‘순간 찾기’ 여행에서 드러나는 것은 ‘시간’이라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틀에서 허둥대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다. 이들을 통해 티데만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 ‘과연 당신들은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흔히 인생살이를 다람쥐 쳇바퀴에 비교한다. 바쁘게 돌아가는 어른들의 세계로 진입하기 직전의 10대들이 이 책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 중국 상인, 그 4천 년의 지혜

차오 티엔생(김장호) / 가람기획 / 2000년 / 247쪽 / 9,000원

전체 9장으로 구성된 이 책의 1장에서는 범려, 소평, 여불위 등 대표적인 중국 상인 5명의 이야기를 소개하였고 2장에서는 유상(儒商), 군상(軍商), 정상(正商) 등 상인의 종류와 행동 규범, 호칭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또 3장에서는 중농억상(重農抑商) 정책에 따라 억압받았던 상인들의 지위에 대해 살펴보았다. 4장에서는 상인과 봉건 정치세력 사이의 유착 관계에 대해, 5장에서는 상방(商幫)으로 불리는 상인들의 조직을 다루었다. 6장에서는 ‘사상규약’ ‘사상십요’ 등 상도의상 반드시 지켜야 할 규범들을 설명했다.

여기에는 ‘큰 거래는 여러 사람과 함께 상담하고 독단이나 속단으로 하지 말라’ ‘손님에게 친절하게 웃는 얼굴로 대하라’ ‘공무로 나갈 때는 조심스럽고 공손하게 행동하라’ 등의 행동 지침이 담겨 있다.

## 지치고 힘들 때 읽는 책 1-2

김인경 / 예문서관 / 2002년 / 206쪽 / 6,000원

기도와 명상 시간에 문득 떠오른 말들을 책으로 엮은 것이다. 힘든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고추잠자리나 미운 오리새끼, 그리고 운동화 한 켤레의 주인공을 등장시켜 따뜻하고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해 준다. 지은이는 희망과 용기야말로 삶의 변화시키는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이제는 정말 끝이구나 하는 절망의 여름 한가운데 있을 때, 사는 것이 왜 그렇게 힘든지 작은 일에도 화가 날 때, 선택의 기로에서 어찌해야 할지 모를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사랑의 회복’이다.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자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면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으며, 그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용기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

하루하루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는 이들이 살아갈 희망의 끈트머리라도 잡을 수 있기를, 그리하여 용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상처받고 신음하는 이들의 마음 속에 가랑비처럼 스며들 수 있는 그런 한 구절을 찾아낼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망한다.

## 찰리 채플린

**데이비드 로빈슨(지현) / 시공사 / 1998년 / 171쪽 / 7,000원**

이 책은 국제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영화사 연구가인 데이비드 로빈슨의 작품으로 채플린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

배우이자 감독, 시나리오 작가로 전 세계에 이름을 날린 찰리 채플린의 우스꽝스러운 행동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의 인생 전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자칭 직업가수인 아버지와 연극무대를 전전하며 생계를 걱정하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채플린은 빈곤한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디킨즈의 '올리버 트위스트'를 읽으며 꿈을 키웠다. 정신분열증에 걸린 어머니로 인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는 어머니로 인해 첫 연극무대에 설 수 있었고 그럼으로써 가능성을 인정받은 배우였다. 개인적으로는 유명세를 치르던 당시에도 불우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로 인해 더욱 성숙해진 배우로 후세에까지 명성을 날릴 수 있었다.

역경을 딛고 일어나 자신의 꿈을 끝내 이루는 채플린의 일대기를 보면서, 자신의 타고난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불굴의 의지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느낄 수 있다.

## 참 좋은 이야기

**법정 / 동쪽나라 / 2002년 / 160쪽 / 7,500원**

법정 스님이 쓰신 글 중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만을 가려 뽑아 두 권의 책으로 엮었다. 그 중 한 권인 이 책은 사랑과 평화, 봉사과 희생, 나눔의 정신을 일깨워 주는 서툰 한 편의 이야기가 실려있다. 삶에 대한 훈훈한 메시지가 잔잔한 감동을 준다.

서정적이면서도 시선을 붙잡기에 충분한 컬러 삽화와 경어체에서 아이들을 위한 스님의 배려가 느껴진다. 자칫 뜬구름 잡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치부될 수도 있었겠지만, 삶의 체험이 녹아 들어간 글은 쉬우면서도 절절하게 읽힌다.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져만 간다. 그런 속에서도 스님은 내일의 주인공인 어린이와 청소년이 이웃과 더불어 선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간절하게 소망한다. 페이지마다 스님의 맑은 마음을 만날 수 있어 가슴 뭉클하다.

## 창가의 토토

**구로야나기 테스코(김난주) / 프루메테우스 / 2000년 / 239쪽 / 7,500원**

요즘 교실이 붐비되어 간다고 모두가 입을 모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교육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교사와 학생, 나아가 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도모에 학원이라는 초등학교에서 이 책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한 저자가 겪은 아름다운 시절을 그리고 있다. 지금의 대안학교와 비슷한 이 초등학교에서는 자연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가르치는 스승과, 아이들 하나 하나를 살리는 탁월한 수업방식이 있었다.

풍요롭지는 않지만 여유롭게 시간이 흐르던 때의 이 이야기는, 물질은 넘쳐 나지만 고된 학업과 과외에 시달려 머리와 가슴이 점점 메말라 가는 우리 아이들을 포근하게 보듬어 주기에 충분하다.

## 책 읽는 사람이 세계를 이끈다

**김영진 / 용진닷컴 / 1995년 / 256쪽 / 8,000원**

독서의 즐거움을 5 배 높이는 법! <한국수필문학상> 본상을 수상한 독서 가이드북. 전문적인 독서론이기보다는 삶에 필수적인 공기나 물을 섭취하듯이 자연스럽게 독서에 대한 일화나 경험담을 소개하고, 독서에 대한 생각들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함께 제시했다.

책읽기를 시작하려는 사람, 책읽기가 어려웠던 사람에게 주는 독서 길잡이. 독서에 관한 단상과 책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풍부하게 들어 있다. 청소년들에게는 독서의 당위성과 재미를, 직장인들에게는 성공의 비법을, 그리고 어머니와 여성에게 자녀와 가정을 바로 이끄는 길을 제시해 준다.

이처럼 전문회부장관은 추천사에서 '이 책은 독서론이라기보다는 삶의 응원가요, 생활인의 활력을 돋구는 휘파람 소리'라며 일독을 권한다.



## 책 읽는 소리

**정민 / 마음산책 / 2002년 / 255쪽 / 9,000원**

이 책은 독특한 글 쓰기를 보여주고 있는 젊은 한문학자 정민 교수의 고전독서 에세이다. 이 책은 모두 3부 47편의 글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 '옛 글을 읽는 까닭'은 독서와 관련된 글들로 책읽기와 글 쓰기에서 미끄러져 나온 생각들, 옛 사람의 흥미할 만한 일화들이 등장한다. 제2부 '마음 속 옛 글'은 옛 글의 행간에서 옛 사람의 내면 풍경을 들여다본 것이다. 그리고 제3부 '옛 글과 오늘'은 고전을 오늘의 삶과 이어 보려는 생각들이 담긴 글들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다섯 수레의 책과 정보의 양'과 '책읽기와 깨닫기' 편에서는 한 권의 책을 읽어도 끝없는 사색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던 선인들의 독서방식과,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정보를 향유하면서도 사색 없이 빈 지식만 쌓고 있는 인터넷 시대의 독서세태를 비교하며 독서에 있어 사색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따뜻한 그의 글을 읽으면서 300년 전 바쇼의 기행문에서 일본 문화의 다른 한 면을 발견하는 묘미가 있다.

## 처음 그 설렘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

**파멜라 심스(신봉민) / 양철북 / 2002년 / 288쪽 / 9,000원**

교육행정에 관한 석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파멜라 심스는 10대 학생들에게 '교육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질문을 던졌다. 학생들의 대답은 의외였다. 바로, 자신을 믿어주고 용기를 주는 교사와 편안한 교실이라고 답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심스는 소설 형식을 빌어 책으로 엮었다. 진정한 교육은 학생과 선생이 진정한 유대 관계를 맺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심스의 '위대한 교사(great teacher)'론을 담은 이 책은 캐나다에서 처음 출간되어, 미국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스트 카운티 초등학교를 무대로 제인 매디슨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차분하게 펼쳐진다. 선생님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아이의 행동에 얼마나 큰 영향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학교 개혁의 중심에 아이들과 인간적인 교감을 맺는 교사가 있어야 함을 보여 준다.

##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

**데이비드 슈워츠(서민수) / 나라 / 2002년 / 370쪽 / 9,500원**

삶을 시시하게 살기엔 너무 짧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삶을 윤택하게 살 수 있을까? 저자는 "크게 생각할수록 크게 이룬다."라고 단 한 마디로 말한다. 이 당연한 법칙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누구나 실천하진 못한다. 저자는 우리에게 '큰 생각'의 엄청난 힘을 이용하여 성공, 행복, 만족을 얻게 해줄 수십 가지의 재치 있고 실제적인 개념, 기법, 원리들을 발견하게 해 준다. 더불어 그 각각의 기법마다 실증적인 사례가 곁들여져 빠른 이해를 돕고 있다. '크게 생각하는 것의 마술'을 일으키는 기본 원리와 사고 방식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훌륭하며 가장 위대한 '사고 정신'에서 유래한다. '사람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바와 같이 된다.'라고 기록한 예언자 <다윗>과 같은 정신이고, '위대한 인물이란 생각이 세계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한 <에머슨>과 같은 정신이며, '정신은 독자적 세계이며 천국을 지옥으로 바꿀 수도 있고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도 있다.'라고 <실락원>에 서술한 <밀턴>같은 정신이다.

## 파괴를 위한 과학, 무기

**제이슨 리지(전대호) / 지호 / 2002년 / 167쪽 / 8,900원**

이 책은 무기, 유전자, 통신, 질병, 비행 등 다섯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명이나 발견을 이뤄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대부분의 청소년용 과학 서적이 한 인물의 전기나 흥미 위주의 토픽 중심으로 구성된 데 반해 이 시리즈는 각 분야의 이야기를 토픽처럼 연결해 과학사 전체를 훑어 볼 수 있게 했다. 제1편 '파괴를 위한 과학, 무기'편은 점점 정교해지고 있는 전쟁무기의 발전사를 불화살에서 핵탄두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생명의 암호를 풀다, 유전자'편은 DNA를 다루는 유전공학을 증으로 생명의 비밀을 푸는 과정이 어떻게 전개돼 왔는지, '더 멀리 더 가까이, 통신'편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네트워크 사회가 앞으로 어디까지 진화할 것인지, '세균과의 전쟁, 질병'편은 세균 이론이 현대의학 분야에 끼친 영향과 에이즈 등 주요 질병을, 마지막 '목숨을 건 도전, 비행'편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비행기와 우주선, 위성을 발명케 했으며 호기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하나뿐인 친구에게 주는 나의 자서전

편집부 / 글담 / 2000년 / 144쪽 / 6,300원

이 책은 친구에게 주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서전이 된다. 오직 하나뿐인 친구에게 들려주는 자기만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고, 처음 만난 날의 이야기부터 옛날이야기, 또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까지 ... 소중한 이야기를 담아 더욱 값진 책이 될 수 있도록 꾸미는 것이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1권은 소중한 사람에게 주는 나의 자서전, 2권은 우정 앨범, 우리에게 비밀은 없어, 3권은 하나뿐인 친구에게 주는 나의 자서전, 4권은 프로포즈, 내가 적어 그대에게 주는 세상에 단 한 권뿐인 시집 등이 눈길을 끈다.

## 하얀 사랑

정채봉 / 샐터 / 2003년 / 207쪽 / 6,500원

지난 2001년 1월 9일 타계한 동화작가 故 정채봉씨가 생전에 병상에서 제목을 짓고 마지막으로 받아 본 책이다. 병상을 찾는 여러 지인들에게 직접 선물하기도 했었던 이 책은 97년 발표한 작품들을 다시 엮어 '어른을 위한 동화'로 새롭게 만든 것이다.

한 여자가 고등학교 때 짝사랑한 선생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을 그린 책이다. 모두들 한때의 감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졸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나서도 그 선생님을 잊지 못하고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고 늙은 후 부상으로 실명하게 된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 보살피게 된다.

이 책에는 잃어 가는 순수와 동심을 정채봉 특유의 언어로 묘사한 30편의 동화가 실려 있다. 성인동화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그답게 수록된 글들에서는 한결같이 맑고 투명한 언어가 숨을 쉬고 있다.

## 왜, 지금, 청소년?

서동진 외 / 또하나의문화 / 2002년 / 333쪽 / 8,000원

집대를 위한 대안 문화+교육 공간 '하자센터'의 이야기를 담은 하자총서 제1권. 1998년 봄부터 1999년 겨울까지의 하자센터 준비 과정을 기록했다. 최근 하자센터로 들어오는 자료 및 강의 요청이 부쩍 늘자, 하자센터의 경험을 좀더 체계적으로 전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1999년 5월 문을 연 하자센터의 공식 명칭은 '서울시립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연세대학교 청년문화센터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관+민+산+학 네트워크이자 청소년 문화작업장이었다. "뻘뻘한 아이들", "노는 아이들"의 능력을 발견하고, 각자의 개성을 키워주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 개발, 운영중이다.

하자센터를 세우기까지의 문제의식은 "청소년을 읽는다, 시대를 읽는다" 장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준비 과정에서 써어진 글과 세미나 결과를 모은 것으로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 문제해결의 패러다임 전환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 호랑이 나라

데이비드 리치 / 늘봄 / 2002년 / 319쪽 / 8,000원

'서울은 내가 살아온 도시 중 최고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데이비드 리치씨의 서울 탐험기. 서울 스킵스에 연재되었던 칼럼을 모아 엮은 것으로, 삶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위트를 느낄 수 있다.

한글과 영문 병용으로 표기되어 있어 서울을 찾는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에 보다 친숙하게 접근하는데 유용하다. 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그의 글을 통해, 우리가 잊거나 잃어버렸던 서울의 정취와 매력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준다.

전국 곳곳에 몰려 있는 작은 카페들이나 베이커리점, 혹은 대형서점, 지하철, 지하상가, 소주, 호두과자나 봉어빵에 이르기까지.. 이 책을 읽고 있으면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고 당연시하였던 사소한 것들이 뜻밖의 이국적인 아름다움을 지녔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항상 우리 옆에 있어서 그 의미를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들이지만, 또한 외국인의 눈에 비치는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떠한 지에 대한 궁금증도 해결이 될 것이다.

## 희망의 받을 일구는 사람들

**안철환 / 마가솔 / 1999년 / 278쪽 / 8,500원**

지은이는 내린천의 지류인 방태천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농사와 그림을 본업으로 삼고, 투망으로 열목어, 모래무지, 꺾지 등 토종 민물고기를 잡는 남획꾼들을 감시하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는 최용건 화백의 이야기에서부터 경기도 광주 곤지암에서 전원 카페 '들꽃풀꽃'을 운영하는 김혜운 씨의 이야기까지 아주 소박한 삶의 전경이 담겨 있다.

출세와 무한 경쟁의 늪에서 사람다운 삶을 찾을 수 없다는 판단은 오늘날 물질 문명에 대한 깊은 반성이 뿌리를 대고 있다. 그 대안적인 삶을 찾아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도시를 박차고 나간 사람들의 소박한 삶에서 행복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구하고 있다.

이 책은 획일적인 가치를 넘어 다양성이 존중되는 새로운 시대의 가치가 행복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이러한 삶들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더 많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 ET 할아버지와 두밀리 자연 학교

**채규철 / 소나무 / 2002년 / 250쪽 / 7,000원**

두밀리 자연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저자의 자연 학교 철학과 실례를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저자의 어린 시절과 풀무학원, 유학 시절 경험했던 덴마크의 자유 학교, 자연 학교를 만들고 이끌어가는 20여 명의 선생님과 자연학교를 일군 사람들, 그리고 자연학교를 다녀간 학생들에 얽힌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자연 속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밝고 건강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책이다.

화상으로 문드러진 얼굴 가득 해맑은 웃음을 짓고 자연과 하나되는 교육을 주창하시는 할아버지 선생님. 그 분이 살아온 내력 앞에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말로 하지 않고 실제로 '이상적인 교육'을 실천하시는 분의 이야기다.

# 고등학교

국 어	/	243~268
사 회	/	265~270
수 학	/	271~279
과 학		
물 리	/	281~287
화 학	/	288~294
생 물	/	295~300
지 구 과 학	/	301~309
기 술·가 정	/	311~332
체 육	/	333~335
음 악	/	337~353
미 술	/	355~369
영 어	/	371~381
국 사	/	383~422
지 리		
한 국 지 리	/	423~435
세 계 지 리	/	436~437
일 반	/	439~468

# 국 어

## ▣ 국어(상)

### 1.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

#### 1) 황소개구리와 우리말

#### 우리말의 속살

전소영 저 / 장해 / 2000년 / 358쪽 / 10,000원

이 책은 우리가 쓰는 말을 통해 우리 것의 소중함을 일깨워 많은 사람들이 모국어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취지에서 씌어졌다. 그래서 우리말의 어원을 재미있는 이야기식으로 더듬어 그 말의 밑바닥에 깔린 우리 민족의 사상과 정서, 나아가 의식구조의 지면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 책을 읽을 독자들이 전문인만이 아니라란 점을 감안하여 되도록이면 쉽고 재미있게 우리말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준다.

#### 우리 글 같고 닮기

이수열 저 / 한겨레 신문사 / 1999년 / 334쪽 / 9,500원

외래의 말과 글이 우리 국어에 어떤 악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주는 우리말 안내서이다.

저자는 국어교과서에 실린 국어답지 못한 표현들을 유형별로 조목조목 열거해놓고 올바른 국어표현을 제시한다. 또 잘못된 교과서로 인해 빚어진 국어의 혼란상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신문과 방송, 문학 작품에 만연한 국어의 오염실상도 덧붙여 놓았다.

#### 국어의 풍경들

고종석 저 / 문학과 지성사 / 1999년 / 300쪽 / 8,000원

이 책은 실증적 사실 관계가 분명치 않은, 이데올로기에 휩쓸린 한국어사 서술에 대해서 강력한 비판을 서슴지 않으며, 음성·음운·형태소·단어·문장·의미·통사·화용·한국어사·언어사회학 등 학교 문법에 일반적으로 담긴 내용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이상적인 언어를 위해 규범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언어의 용법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말이 과연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 운용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한다.

#### 영어 공용어화 과연 가능한가

한학성 저 / 책 세상 문고 / 2000년 / 128쪽 / 3,900원

이 책에서는 영어공용어화를 주장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부실한 영어교육체제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강조한다. 저자의 정책적 제안 가운데 하나는 영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자는 것. 또한 영어 교사들의 영어 능력을 교육부 차원에서 엄격하게 검정해야 하며 실력 있는 영어 교사를 배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 1.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

#### 2) 그 여자네 집

#### 그 여자네 집

김용택 저 / 장작과 비평사 / 1998년 / 104쪽 / 5,000원

이웃마을에 살던 한 여자의 마음과 일상을 서정적으로 그려낸 '애인'을 비롯하여 사랑하는 여자의 집을 은은하고 아름답게 묘사한 '그 여자네 집' 외 '사람들은 왜 모를까' 등 40여 편의 시를 모았다. 시인의 길을 인간의 길 위에 놓고 있는 이 시집은 우리를 가없는 마음의 집으로 데려간다. 그 속에서 잊혀진 아름다운 추억을 되살린다. 산문시는 섬진강 물줄기처럼 맑은 시세계를 이끌어

냈다.

1.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  
2) 그 여자네 집

너무도 쓸쓸한 당신

박완서 저 / 장작과 비평사 / 1998년 / 304쪽 / 7,500원

원로 작가인 박완서의 여덟번째 소설집이다. 풍요와 편리를 좇아 질주해온 지난 30여 년 동안 우리의 삶이 어떻게 왜곡되었고 마침내 우리 손에 남겨진 것은 무엇인가를 묻는 작품들이다. <마른꽃>, <환각의 나비>, <그 여자네 집>, 등 주로 노인들의 이야기를 그린 9편의 단편과 1편의 콩트가 수록되어 있다.

우리 시대의 소설가 박완서를 찾아서

권명아, 김영연, 박완서 저 / 용진닷컴 / 2002년 / 256쪽 / 11,000원

'한국문학의 축복'으로까지 불리는 작가 박완서의 문학앨범으로, 그의 삶과 문학 세계 전반을 개인 사진 자료 등과 함께 살펴볼 수 있다. 작가가 이야기하는 자신의 인생과 문학론, 동료 소설가, 딸이 본 작가, 작가 연대기, 자선 대표작 2편과 작품론, 연보, 작품 목록 등 연구자료까지 수록했다. 이 책은 수많은 고통과 좌절 속에서도 문학을 자존심으로 여기고 살아온 작가 박완서의 면모를 여러 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게 돕는다.

마사코의 질문

손연자 저 / 푸른 책들 / 1999년 / 211쪽 / 6,000원

일제 식민 시대 억압받던 우리민족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그린 동화집. 어린이들에게 역사의 진실을 바르고 생생하게 일깨워 주는 책이다. 이 책은 생체 실험, 관동대지진, 정신대 문제 등 일제 시대에 있었던 이전까지 다루지 못했던 역사적 사실들을 담았다. 일제에 의해 투옥된 이후 생체 실험을 당했던 윤동주 시인, 관동대지진 당시 학살당한 조선인들, 일본 군인들의 위안부로 끌려간 조선의 여자들 등 작가는 어려운 문제들을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쉽고도 감동적으로 그려냈다.

중군위안부

이토 다카시 저 / 눈빛 / 1997년 / 174쪽 / 10,000원

일본인 사진작가 이토 다카시가 91년부터 97년 초까지 한국, 북한, 대만, 필리핀 등지를 답사하며 만난 위안부 할머니 27명의 이야기와 사진 100여장을 수록한 책이다. 반성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일본의 무성의한 태도 속에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군 위안부 문제가 사실적으로 일본인에 의해 소개된 책이라 더 의의가 크다.

1.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  
보충심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윤동주 저 / 정목 / 2000년 / 190쪽 / 5,000원

28세의 젊은 나이로 이국 땅 차디찬 감옥 속에서 생을 마감한 민족시인 윤동주의 유고시집.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있어서 당시의 일제 시대에 살면서 고뇌하고, 섬세하고 예민한 감정을 드러내면서도 끝까지, 부끄럼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야 한다는 소명의식을 시적으로 승화시킨 작품이 바로 그의 대표작인 '서시'이며, 이 시가 윤동주의 삶의 태도를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 읽기의 즐거움과 보람  
보충심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저 / 문학사상사 / 1999년 / 352쪽 / 8,000원

시골 초등학교의 반장인 엄석대의 독재에 맞서는 서울에서 전학 온 한병태의 시선을 통해 어른 세계에서 벌어지는 정치적인 권모와 술수를 통렬하게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이문열의 정치적 통찰이 얼마나 날카롭고 정확한가를 알 수 있다.

2. 짜임새 있는  
말과 글  
1) 용소와 며느  
리바위

한국 설화 문학 연구

장덕순 저 / 도서출판 박이정 / 1995년 / 512쪽 / 20,000원

이 책은 한국설화의 특성과 그것이 서사 내지는 서정문학에 끼친 영향과 고구하면서, 종으로는 한국 문학사의 원류를, 횡으로는 한국문학 전반의 설화성을 살피고 있다. 문학적인 방법으로 설화 자체와 그 설화와 문자화된 문학과의 관련성을 고찰하였다.

한국 대표 설화 상, 하

이만기 엮음 / 도서출판 빛샘 / 1997년 / 301쪽 / 7,000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문학 교육이 학교 바깥이나 개인들의 독서 체험과 맞물리도록 한국의 설화를 두 권으로 묶었다. 국어와 문학 교과서에 실린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선정하여 학생들이 무엇을 선택하여 읽을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고 마음놓고 골라 읽을 수 있는 책이다.

문학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암시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취지로 자연스럽게 작품을 읽는 가운데 문제를 발견, 독자의 안목이 성장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이윤기의 그리스 로마 신화 1, 2

이윤기 지음 / 용진닷컴 / 2001년 / 351쪽 / 12,000원

이 책은 국내 정서와 상상력의 프리즘을 통과한 신화서이고, 독자를 신화 읽기의 주인공으로 앞세운다는 점이다. 장황한 연대기적 구성과 서술, 혹은 간단한 몇 줄 요약으로 건너뛰는 일방통행은 없다. 이론적인 신화에 대한 비평과 해석으로 치우치지도 않는다. 저자는 신화에 대한 해박함을 토대로 중형무진 막힘 없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독자를 위한 신화 이야기를 엮었다.

신화, 인류 최고의 철학

나카자와 신이치 저, 김옥희 역 / 동아시아 / 2003년 / 240쪽 / 10,000원

이 책은 나카자와 신이치 교수가 일본 주요[中央] 대학 비교종교학과에서 했던 강의를 번역, 출간한 것이다.

카자와 신이치는 신화는 끊임없이 변화와 변형을 해왔지만, 그 중심에 타올랐던 철학적 사고의 마그마의 열이 아직도 잘 보존되어 있으므로, “신화를 배우지 않는 것은 인간을 배우지 않는 것과 같다” 라고 주장한다. 신화를 재미있고, 환상적이지만 황당한 이야기, 혹은 인간의 이성이 개화하기 전에 태어난 불완전한 사고의 파편쯤으로 여기는 생각을 뒤집는데 주력한다.

2. 짜임새 있는  
말과 글  
2) 나의 소원

백범일지

김구 저, 도진순 주해 / 들베개 / 2002년 / 456쪽 / 9,500원

이 책 『백범일지』는 백범의 친필 원본은 물론, 등사본과 필사본, 여러 가지 출간본 등 여러 저본을 일일이 면밀하게 검토, 대조하여 교감한 책이다. 뿐만 아니라 사진류, 고전, 규장각 자료 등의 고문서, 수많은 회고록, 일본, 중국 등 해외의 임정 관계 자료까지 두루 활용하고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원본의 미흡한 점과 착오 등을 수정, 보완하였다.

몸으로 쓴 통일 독립 운동사

우사 연구회 편, 송남현 등 저 / 한울 / 2000년 / 303쪽 / 18,000원

백범과 함께 남북협상에 동행했으며, 광복직후 남조선 과도입법의원 의장으로 좌우합작운동의 거두였던 우사 김규식의 5권짜리 전집이다. 우사의 삶과 정치역정을 연구해온 우사연구회(회장 송남현)에서 묶어낸 이 전집은 「우사 김규식, 생애와 사상 1·2·3」 과 그의 영문시를 모은 「양자유경(揚子幽景)」, 수행비서출신인 송남현씨의 회고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시정부의 숨겨진 뒷 이야기

이현희 저 / 학연문화사 / 2000년 / 431쪽 / 12,000원

이 책의 지은이 이현희 교수(성신여대)는 30여 년 동안 임시정부에 관해 연구해온 사학자다. 그동안 모은 자료 가운데 흥미 있는 사실들을 중심으로 쉽게 써 놓은 글들을 한데 엮은 것이다. 모두 35개의 주제로 나누어 임시정부(1919~1945) 27년사를 움직이고 이끌어온 이동녕, 김구, 조소앙에서부터 지청천, 이범석에 이르기까지 민족지사들과 그들에 얽힌 임정의 뒷이야기들을 흥미롭게 정리했다.



2. 짜임새 있는  
말과 글  
2) 나의 소원

고쳐 쓴 한국 현대사

강만길 지음 / 창작과비평사 / 2002년 / 436쪽 / 9,000원

1984년 출간되어 학계와 독서계에 선풍을 불러일으킨 저자의 역저로 『한국근대사』, 『한국현대사』를 전면적으로 증보하여 내용은 통사(通史)이다. 조선후기부터 전두환, 노태우 정권 시기와 문민정부의 등장까지 서술하고 있는 이 책들은 원저 출간 이후 10년간 축적된 역사학계의 업적과 그동안 이용할 수 없던 북한 학계의 연구성과까지 아우르면서 원저를 전체적으로 손질하여 증보한 것이다.

2. 짜임새 있는  
말과 글  
보충 심화

스승 가람 이병기

최승범 지음 / 범우사 / 2001년 / 219쪽 / 7,000원

이 책은 전북대 명예교수요, 고하문예관 관장으로 있는 저자가 지난 30여년간 스승을 향한 그리움이 일 때마다 여기저기 발표하고 써놓은 글들을 모아 2001년 6월 가람선생의 달을 맞이하여 펴냈다.

서지학과 국문학 분야에 공로가 큰 가람 선생의 업적을 되돌아보고, 그의 인간상과 독서론, 가람의 한시와 시가 연구, 가람 산문의 매력 등에 대해 써여 있다.

근원 수필

김용준 지음 / 범우사 / 2000년 / 176쪽 / 6,000원

근원 김용준(1904~67)은 북으로 간 화가였지만 그 빼어난 글솜씨와 한국미에 대한 넓고 깊은 생각이 남한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메아리쳤던 학자였다.

1920년대 그는 화가의 꿈을 안고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미술학교를 졸업했다. 전공은 유화였으나 그는 우리 민족의 전통을 새롭게 인식하고 지필묵을 들기 시작했다. 문인화의 세계는 곧 그의 앞마당이 되었다. 그가 추구한 우리의 미의식은 고담미(枯淡美)였다. 우아하면서도 격조 있는 세계는 옛 선비들의 고향이기도 했다.

3. 다양한 표현과  
이해  
1) 봄봄

동백꽃

김유정 저 / 정목(정목사) / 2000년 / 262쪽 / 5,000원

‘동백꽃’은 향토색 짙은 농촌을 배경으로 인생의 봄을 맞이하여 성장해 가는 충동적인 청춘 남녀의 애정을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닭싸움인데 첫 장면에서부터 닭싸움이 나온다. 닭싸움은 ‘나’와 ‘점순이’의 갈등의 표면화되면서 애증의 교차이기도 하다.

이러한 여러 번의 닭싸움을 통하여 두 사람의 갈등·화해 관계가 이루어지는 심리적 전개가 소설적 재미를 더해 주며, 마름의 딸과 조각인의 아들이라는 신분적 차이를 웃음으로 처리하는 기법이 두드러진다.

신경림의 시인을 찾아서

신경림 저 / 우리교육 / 1998년 / 352쪽 / 8,000원

1천 편의 시를 외운다는 시인 신경림이 시인들의 이야기를 모아 엮었다. ‘부는 한쪽 눈의 창녀가 양지쪽에 기대앉아’있던 신동엽의 ‘종로오가’에서 ‘무수한 포탄의 작렬과 함께 세상엔 없는’ 박인환의 고향 강원도 인제까지 꼼꼼하게 답사한 기행문집이자 이들의 시 세계를 갈무리한 해설집이다.

한 편의 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뿐만 아니라 시인의 인생, 사상, 삶의 조건 등을 굵은 포물선 그리듯 가능하여 읽어 나가야 한다는 저자의 생각이 깔려 있다.

청소년이 꼭 읽어야 할 한국 대표 명작 단편선

김동인 등 저 / 인화 / 2000년 / 326쪽 / 7,500원

어른이 되어서도 기억 속에서 떠나지 않는 감동적인 장면 중에는 청소년기에 읽었던 명작들이 있다. 청소년기는 민감하고, 감수성이 발달한 시기이다. 따라서 그에 맞는 올바른 양서는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에 청소년기에 꼭 읽어야 할 한국 명작을 엮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작가 8명의 작품 14편이 들어 있다. 또한 작품에 따른 해설을 함께 실어 작가와 작품세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3. 다양한 표현과 이해

소나기 - 다시 읽는 황순원

1) 봄봄

황순원 저 / 맑은 소리 / 1998년 / 126쪽 / 5,000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논술시험을 치를 중고등학생들까지 청소년들에 초점을 맞춰 한국 근현대 소설문학을 선별한 '다시 읽는 명작 시리즈'의 첫 번째 권이다. 교과서에도 나오는 '소나기', '밭', 한겨울 깊은 산골마을의 아름다움을 그린 '산골아이', 도망간 젊은 아내에게 향한 분노와 고독을 독짓는 일에 삭이며 사는 노인의 이야기 '독 짓는 늙은이' 등 총 4편의 소설이 실렸다.

3. 다양한 표현과 이해

탈춤

2) 봉산탈춤

채희완 저 / 대원사 / 1992년 / 134쪽 / 4,800원

봉산탈춤이나 강령탈춤은 물론 송파산대놀이, 수영들놀이, 통영오광대, 양주별산대놀이, 하회별신굿 등 탈춤에 쓰이는 탈의 종류와 특징, 탈춤의 양식과 사회문화사적 배경을 알아보고 탈춤이 가지는 현재적 의미를 해당 사진들과 함께 재조명한 책이다.

한국가면극선

이두연 저 / 고문사 / 1997년 / 448쪽 / 20,000원

이 책은 우리나라의 민속극 중에서, 대화가 별로 없는 북청사자놀이와 강릉관노 가면극을 제외한 11가지 민속극의 대사를 수록하고 있다. 각 가면극의 역사적 유래와 특징, 이본관계 등에 관한 해제와 함께 대사에 나오는 어려운 고사성어와 한시, 여투 등을 상세히 주석하고 있다.

이 책은 단순 몸동작으로서의 극이 아닌 의미 있는 문화양식으로서의 가면극을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학생들이 배운 봉산탈춤뿐만 아니라, 그 외의 우리나라 가면극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한국 시나리오 선집 19

영화진흥위원회 저 / 커뮤니케이션북스 / 2002년 / 941쪽 / 15,000원

2001년에 선정된 시나리오를 묶어낸 책으로. '고양이를 부탁해', '번지점프를 하다', '봄날은 간다', '킬러들의 수다', '파이란' 등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줬던 영화들의 시나리오를 볼 수 있다.

봉산탈춤

박전열 저 / 화산문화 / 1999년 / 250쪽 / 12,000원

봉산탈춤은 한국을 대표하는 중요무형문화재이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살아 있는 민속문화이다. 봉산탈춤은 한국민속극의 정수를 드러내는 가면극으로 민간 신앙과 가족의 문제, 계층간의 갈등 문제, 파계승에 대한 비판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는 봉산탈춤의 유래와 변천, 구성, 양식, 전승 현황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수록하였다.

3. 다양한 표현과 이해

옛시조 감상

보충 심화

김중오 저 / 정신세계사 / 1998년 / 380쪽 / 10,000원

겨레의 얼이 담겨있는 옛 시조를 모아 놓은 책으로 총 345편의 시조가 9개의 주제로 나뉘어 담겨 있다. 이전까지의 시조 감상이 문학적, 교육적 가치의 측면에서만 다루어졌지만, 이른바 '잡스러운 것'(평민들의 시조)까지 포괄하여 한국 시조 전반을 개괄하고자 한 책이다.

우리 희곡 재미있게 읽기

김미도 저 / 연극과 인간 / 2000년 / 708쪽 / 20,000원

이 책은 일반인들을 위한 희곡입문서의 역할을 하면서도 또한 한국 고유의 희곡론을 위한 준비과정이라는 의미까지 포괄한다. 서양 희곡의 형식과 양식이 어떻게 한국에서 수용되고 발전되었는지 그 과정을 소개함으로써 우리 연극의 한국적 정체성과 앞으로의 방향을 이끌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3. 다양한 표현과 이해  
보충 심화

한국현대명작희곡선집

김성희 저 / 연극과 인간 / 2000년 / 616쪽 / 18,000원

이근삼의 <아벨만의 재판>, 오태석의 <자전거>, 이만희의 <피고지고 피고지고> 등, 현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희곡 10편이 해설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4. 바른 말 좋은 글  
1) 말 다듬기

스토리텔링 - 대화와 협상의 마인더스

아네트 시몬스 저 / 한연출판사 / 2001년 / 326쪽 / 9,800원

책의 전반부는 이야기의 힘에 대해서, 후반부는 실제적인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이야기의 예시와 이야기할 때 주의해야 할 여러 가지 몸짓, 상황, 억양, 타이밍 등에 대해 쓰여 있다.

나를 가장 잘 표현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윤지영 저 / 책이 있는 마을 / 2001년 / 268쪽 / 9,000원

대중을 상대로 하는 스피치 요령은 물론 작은 모임에서의 인사말에서부터 브리핑, 연설, 강연에 이르기까지 프리젠테이션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략과 실전기술이 상세하게 다루어져 있다.

아킬레스는 왜 거북을 이길 수 없을까

양은덕 저 / 창작과비평사 / 2001년 / 238쪽 / 7,500 원

이 책은 철학을 개념이나 지식이 아니라 문제 또는 주제를 중심으로 다루어, 단편적인 지식보다는 철학하는 힘을 길러주고자 한다. 생활 주변의 친근한 예, 개성 넘치는 삽화 때문에 쉽게 읽어나갈 수 있지만, 이 책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결코 가볍지 않은 근대와 현대 철학을 오가는 심오한 이야기들이다.

4. 바른 말 좋은 글  
2) 문장 다듬기

나의 한국어 바로 쓰기 노트

남영신 저 / 마지글방 / 2002년 / 314쪽 / 9,000원

이 책은 한국어를 바로 쓰도록 하기 위한 일종의 문법서로서 문법이론보다는 적절한 예문과 연습 문제들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어를 학습하고 그 잘못을 교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조사·어미·호응·생략·축약·높임말·시제 따위의 올바른 쓰임새를 소상히 일러주고 있다.

이렇게 해야 바로 쓴다

한효석 저 / 한겨레신문사 / 2000년 / 406쪽 / 12,000원

이 책은 '글쓰기의 기초부터 한 편의 논술문을 완성하기까지'를 가르쳐 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학생들이 논술문을 쓰기 위해 배우는 모든 내용이 망라된 셈이다.

4. 바른 말 좋은 글  
3) 글 다듬기

국어의 풍경들

고종석 저 / 문학과 지성사 / 1999년 / 300쪽 / 8,000원

이 책은 음성, 음운, 형태소, 단어, 문장, 의미, 통사, 화용, 한국어사, 언어사회학, 북한말의 풍경 등 학교 문법의 내용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규범적 고찰이 아닌 다양한 생활 용례를 통해 언어의 실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중딩고딩을 위한 대중매체 읽고 쓰고 생각하기

김슬용, 송재희 저 / 세종서적 / 2002년 / 374쪽 / 9,000원

"논술을 위한 제일 첫걸음이자 가장 훌륭한 방법은 제 생각을 넓히는 일이며, 독서는 그 중 최선이다." 라는 전제 아래 이 책은 학생들과 밀착해 있는 텔레비전, 영화, 만화, 책, 가요 등 대중매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물꼬를 터주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

4. 바른 말 좋은 글  
3) 글 다듬기

오류를 알면 논리가 보인다

탁석산 저 / 책세상 / 2001년 / 176쪽 / 8,500원

이 책은 제대로 쓰고 읽고 말하고 생각하기 위한 책이다. 실생활에서도 충분히 접할 수 있는 오류들을 예로 들며 어렵게만 느껴지던 논리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신문 사설이나 칼럼에 평점을 매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스스로 평가해볼 수 있도록 배려한 점이 돋보인다.

고치고 더한 수필로 배우는 글읽기

적시안 저 / 문학과지성사 / 2001년 / 296쪽 / 8,500 원

글을 쓰는 요령이나 방법을 직접 가르쳐주는 책이 아니라, 영상매체에 매몰된 요즘 신세대들의 빈약한 독해 능력을 위해, 기본적인 의미 이해는 물론이고 필자의 상황과 관점을 면밀히 고려하여 글의 진면목을 파악해 내는 등의 깊이 있는 글읽기에 대한 자세한 안내자가 되고자 한다.

왜냐면 - 신문으로 배우는 논술

한효석 저 / 한겨레신문사 / 2002년 / 310쪽 / 10,000원

2002년 한 해의 주요 시사 문제에 대해 해당 분야의 이해 당사자,교사, 학생, 시민운동가, 공무원, 노동자 등 100여 명에 이르는 다양한 계층의 토론자들의 입장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주제에 따라서는 주장 뒤 반론, 또 그 반론에 대한 재반론이 있기도 했다.

5. 능동적인 의사  
소통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1)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정약용 저, 박석무 옮김 / 장작과비평사 / 2001년 / 296쪽 / 8,000원

다산 정약용 선생이 강진에서 유배생활 중에 보낸 편지들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슨 공부를 할 것인가, 그리고 생계를 꾸리고 친구를 사귀는 방법 등을 아들에게 자상하게 일러주는 다산의 따스한 면모와 함께, 형님 손암 정약전(丁若銓)과 주고받은 편지를 통해서 형제간의 우애와 대학자로서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서승의 옥중 19년

서승 저, 김경자 옮김 / 역사비평사 / 1999년 / 284쪽 / 8,000원

이 책은 1971년 '재일교포학생 학원침투 간첩단사건'으로 체포된 뒤 1990년까지 장기수 생활을 한 재일교포 서승 씨의 옥중기록으로, 암울했던 한국 정치사의 기록이자 인권사에 길이 남을 책이다.

역주 매씨서평

정약용 저, 이지영 옮김 / 문학과지성사 / 2003년 / 1,053쪽 / 60,000원

이 책은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선생의 저술인 『매씨서평梅氏書平』을 역주한 것이다. 유교(儒敎)의 경전(經典) 가운데 중요한 전적으로 오늘까지 전해오는 『상서尙書』에 대해, 그 일부분이 위작(僞作)임을 구체적인 고증을 통해 밝혀놓은 것이 『매씨서평』이며, 다산의 저술 가운데에서도 그가 심혈을 기울여 이룬 역작이다.

다시 읽는 하멜 표류기

강준식 저 / 용진닷컴 / 2002년 / 312쪽 / 10,000원

서양인의 관점으로 정리된 최초의 '코리아 리포트'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하멜표류기는 한국학 연구의 상징적인 고전이다.

하멜 일행이 13년 간 조선에 머무는 동안 다양한 계층의 인물과 접촉하며 당시 조선사회를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입장에서 관찰한 기록으로, 조선 후기 정치, 교육, 문화, 풍속 등을 연구하는데 소중한 기초 자료로 쓰일 수 있다.

5. 능동적인 의사소통 나는 고발한다 - 드레퓌스 사건과 에밀 졸라

1)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 니콜라스 할라즈 저, 황익방 옮김 / 한길사 / 1998년 / 410쪽 / 13,000원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프랑스를 내전의 위기까지 몰고 갔던 드레퓌스 사건을 니콜라스 할라즈가 엄밀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조명했다. 이 책을 읽은 후, 당신은 거짓을 증오하고 위선을 혐오하고 진실을 밝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의 대열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5. 능동적인 의사소통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2) 구운몽 이덕일 저 / 김영사 / 2000년 / 398쪽 / 10,900원  
300년이 넘게 유지되어 온 송시열 신화의 비밀, 성인과 악마라는 극단적 찬사와 저주 사이에 놓인 그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인가? 이 책은 송시열과 그들이 만들어낸 조선사와 이로부터 이어지는 한국사의 그늘, 그 숨겨진 비극적 역사의 실체와 진실을 추적하였다.

꿈의 해석(상·하)

지그문트 프로이트 저, 서석연 옮김 / 범우사 / 2002년 / 802쪽 / 16,000원  
우리 인간의 꿈을 재료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전개되는지를 ‘무의식’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지고 밝혀낸 프로이트의 최대의 역작으로, 정신분석학에 있어서 확고부동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걸리버 여행기

조나단 스위프트 저, 이동진 옮김 / 해누리기획 / 2001년 / 496쪽 / 12,000원  
인류 문명사회의 부패와 탐욕, 위선을 풍자하고 있는 ‘걸리버여행기’는 걸리버가 초미니 제국인 킬리퍼트와 거인족의 나라 브룸딩나그, 하늘을 나는 섬나라 등을 여행하며 겪은 환상적인 모험담을 담고있다.  
언뜻 단순한 항해가의 모험담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는 문명사회와 부패한 권력층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날카로운 풍자가 숨어 있다.

변신

프란츠 카프카 저, 박관덕 옮김 / 범우사 / 1989년 / 465쪽 / 9,000원  
‘변신’, ‘단식수도자’, ‘유형지에서’를 포함한 대부분의 중, 단편에서 카프카는 모순되고 기괴한 형상의 창조 그리고 꿈, 변신의 모티프를 통해 현대인의 자기소외 과정을 충격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5. 능동적인 의사소통 허균평전

보충 심화 허경진 저 / 돌베개 / 2002년 / 423쪽 / 13,000원  
시대를 앞선 개혁사상과 예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추구했던 조선시대 비운의 지식인 교산 허균의 평전이다. 시대를 거역했던 자유인 허균의 파란만장한 삶의 궤적을 생생하게 그려내는 한편, 남아 있는 논설과 한시·소설 등의 문학작품을 통해 조선의 대문장가 허균의 정치 개혁사상을 재조명하고 있다.

6. 노래의 아름다움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2

1) 청산별곡 한국역사연구회 저 / 청년사 / 1997년 / 551쪽 / 13,000원  
고려시대 사람들의 생활사. 이를테면 농민의 한해 살이는 어떠했나, 고려인들은 어떤 의료혜택을 받았나, 고려장은 정말 고려의 제도였나, 원나라 마지막 황후가 고려 여인이었다는 게 사실인가 등등의 질문을 통해 고려사회와 사람들을 설명해 나간다.

6. 노래의 아름다움 보길도에서 온 편지

2) 어부사시사 강제운 저 / 이학사 / 2000년 / 229쪽 / 8,000원  
<보길도에서 온 편지> 속에는 시인이 섬 생활에서 걸러낸 짧은 산문과 시들이 들어 있다. “~합니다”체로 조곤조곤, 혼자 살면서 있었던 일과 섬마을 사람들과 고산의 섬 보길도를 이야기한다.

6. 노래의 아름다움  
3) 진달래꽃

시 읽기의 행복

강희근 저 / 을유문화사 / 2000년 / 374쪽 / 12,000원

저자는 독자들이 시 앞에서 경직된 태도를 가지고 도식적인 시 분석을 따라가는 시 '감상'을 지양하고, 시가 독자를 흔들어 주는 만큼 흔들리면서 시를 맛보라고 권한다.

김소월, 윤동주에서 하재봉, 류시화, 정호승까지 시대와 경향을 두루 아우르는 총 59명의 국내 시인의 작품이 실려 있다.

시 읽는 기쁨

정효구 저 / 작가정신 / 2001년 / 334쪽 / 8,900원

이 책은 해설집이 아니다. 시 읽는 즐거움을 좀더 맛보기 위한, 지극히 쾌락주의적인 책이다. "이 책을 권한다, 이 시는 이래서 좋다"라고 꼭 짚어 말해버려서 김새게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읽어보세요"라고 던지지 건넨다.

6. 노래의 아름다움  
4) 유리창

소설 소현세자 상하

박인식 저 / 장작과비평사 / 1996년 / 548쪽 / 12,000 원

병자호란(1636년)을 전후한 민족적 고난과 치욕의 역사를 탄탄한 문장으로 다룬 소설.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를 반성을 바쳐 추적한 작가는 소현세자의 의혹에 찬 죽음을 독특한 추리기법으로 추적하면서 역사의 진실을 가린 장막들을 하나하나 걷어낸다.

6. 노래의 아름다움  
5) 광야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증언집1)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편 / 한울 / 1993년 / 314쪽 / 7,500원

이 책은 군위안부 당사자들의 살아 있는 증언집이다. 이 증언집에는 약 70여 명의 국내 신고자 중 본인의 기억이 보다 뚜렷하고, 그 내용이 역사자료, 문서와 대조가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19명을 선정하여 그들의 증언을 정리·기록하였다.

미국민중저항사 1·2

하워드 진 저, 조선예 옮김 / 일월서각 / 2001년 / 720쪽 / 24,000원

콜롬부스가 아메리카에 첫발을 내딛은 1492년부터 19세기 말까지의 미국을 지배층의 시각으로 본 것이 아닌 피 지배계급인 민중의 시각에서 바라본 미국사이다. 미화된 역사가 아닌 사실에 충실한 미국사를 접할 수 있다.

6. 노래의 아름다움  
보충 심화

백석 전집

백석 저, 김재용 엮음 / 실천문학사 / 1997년 / 520쪽 / 23,000원

쓰여진 시기를 구분해 묶음으로써 백석 문학의 전모를 흐름별로 살필 수 있으며, 상세한 작가, 작품 연보를 바탕으로 당시 백석을 둘러싼 정치적 상황을 참고할 수 있다. 편자인 김재용 교수의 해설은 민족주체의 정신으로 모국어어를 지키고 북방정서를 빼어나게 형상화한 백석 시에 대한 접근을 돕는다.

7. 생각하는 힘  
1) 장마

엄마의 말뚝

박완서 저 / 세계사 / 2002년 / 430쪽 / 10,000원

분단, 기억, 여성, 가족 등 박완서의 문학을 대표하는 많은 대표적 키워드들이 함께 어우러져 탁월한 화음을 일궈내고 있는 대표작으로 모두 세 편으로 되어 있다.

7. 생각하는 힘  
1) 장마

관촌수필

이문구 저 / 문학과 지성사 / 2000년 / 399쪽 / 9,000원

잡지 발표를 거쳐 1977년 단행본으로 묶여 나온 이 연작소설집은 작가의 고향인 충남 보령 관촌마을을 배경으로 한 자전소설이다.

소설의 태반은 한국전쟁기를 그리고 있는데, 그로부터 20여 년 뒤 고향을 찾은 작가가 옛일을 회상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한문투와 토속어가 적절히 어우러진 작가 특유의 문체미학은 우리 문학사에 길이 남을 성과물이다.

태백산맥

조정래 저 / 애념 / 2002년 / 353쪽 / 8,000원

『태백산맥』이 다루고 있는 시간은 1948년 10월부터 6.25전쟁이 끝나고 휴전이 조인되어 분단이 고착화된 1953년 10월까지이다. 『태백산맥』은 그 시대를 살다 간 수많은 인간 군상들의 삶의 기록이다.

우리문화의 상징세계

김중대 저 / 다른세상 / 2001년 / 443쪽 / 14,000원

우리문화 속에 잠재해온 동물의 다면적 상징을 여러 각도에서 규명한 흥미로운 저작이다.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동물들에 관한 민요나 민담은 그 자체만으로도 흥미롭다.

중고생이 읽어야 할 한국단편소설 베스트30

김동인 외 저 / 예문서관 / 2002년 / 624쪽 / 12,000원

대학 수험능력 시험과 논술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으로서 현대 소설사의 흐름에 따라 반드시 읽어야 할 작품들만을 엄선하여 수록하였다. 근래에 와서 수능과 논술에서 작중인물의 성격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에 따라 인물의 성격을 일일이 분석하여 밝혔다.

7. 생각하는 힘  
2) 기미독립 선언서

꿈갓흔 옛날 피 압흔 이야기

한도신 저 / 들베개 / 1996년 / 284쪽 / 6,000원

재미교포 김동수 교수가 어머니의 수기를 정리한 것이다. 이 기록을 남긴 고 한도신(韓道信) 여사는 1895년 평남 고령에서 태어나 반평생을 독립운동가의 아내로 살다, 1968년 자식들을 따라 미국으로 건너가 1986년 92세를 일기로 이 세상을 떠났다.

1894년 경복궁을 점령하라

나카즈카 이키라 저 / 푸른역사 / 2002년 / 248쪽 / 10,000원

이 책은 일본인 학자가 자국의 군국주의적 역사를 반성하면서 쓴 폭로글이다. 일본의 역사 위조가 근대 일본에서 조직적으로 이루어져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7. 생각하는 힘  
보충 심화

고교생이 알아야 할 한국인의 의식구조

이규태 저 / 신원문화사 / 2001년 / 296쪽 / 7,900원

‘한국의 자생 문화’와 같은 역사·의식의 테두리 안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세대에 표출되는 한국인의 정체성, 특히 의식구조의 변수를 그때그때 추려 신문에 반영한 것을 한데 모아 엮은 모음집이다.

8. 언어와 세계

남북한말 사전

조재수 저 / 한겨레 신문사 / 2000년 / 614쪽 / 20,000원

남북한 및 중국, 옛 소련 지역 동포들의 우리말 기본 어휘 가운데 서로 차이는 것을 비교하고 새 어휘를 사전 형식으로 풀이해 보였다. 남북의 언어현실을 비교 검토하여 1만 5천 어휘를 다루고 있다.

8. 언어와 세계  
1) 동국신속삼강  
행실도

**표준중세국어문법론**

고영근 / 집문당 / 1998년 / 420쪽 / 15,000원

새로운 학교문법 통일안의 체계와 용어에 준거하여 주로 15세기 국어의 문법전반을 다룬 전 공서이다. 본문 끝에는 연습 문제를 두어 이론의 활용화를 꾀하였다.

**한국의 풍속화**

정병모 저 / 한길아트 / 2000년 / 463쪽 / 40,000원

오랜 역사와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나라 풍속화를 집대성한 책. 풍속화는 역사, 민족, 복식 등 선조들의 삶을 연구하는 귀중한 자료이다.

**조선시대생활사 2**

한국고문서학회 저 / 역사비평사 / 2000년 / 340쪽 / 12,000원

각종 고문서에 나타난 개인의 일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조선사람들의 생활사를 복원한 저서. 여러 사료들의 실질적 검토를 통해 아주 세세한 부분을 묘사하면서 그 시대를 되살리는 역사 서술 방식을 취하고 있다.

**조선왕조 충의열전**

최완수 저 / 돌베개 / 1998년 / 349쪽 / 10,000원

세종과 문종 사후, 끊임없이 진행되는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 위협을 경계하고 이를 견제하다 죽임을 당한 김종서와 세조 등극 후 단종 복위를 기도하다 끝내 참혹한 멸문지화를 당하고 만 사육신의 생애, 그리고 조선 초기의 정치사를 세밀하게 복원하여 열전 형식으로 정리한 책이다.

**우리 옛 이야기 들려주기**

서정오 저 / 보리 / 2000년 / 223쪽 / 7,000원

소리내기, 드러내기, 꿰어 말하기, 몸짓과 손짓, 눈길, 표정, 자세, 이야기 주고받기 등 옛이야기 구연 방법, 옛이야기 되살리기 방안, 민담을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입말(구어체)로 다시 쓴 옛이야기 열두 마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8. 언어와 세계  
2) 삼대

**태평천하**

채만식 저 / 창작과비평사 / 1993년 / 296쪽 / 5,000원

구한말부터 개화기 식민지 시대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친 가족의 이야기를 사실주의적 태도에 입각하여 그리고 있는 장편소설이다. 윤직원 일가의 이야기로 소설 내적 시간은 윤직원이 명창 대회를 구경하러 간 날부터 그 다음날 아침까지이다.

**북간도 상하**

안수길 저 / 삼중당 / 1994년 / 415쪽 / 각 5,000원

1870년 조선 말기로부터 1945년 광복까지 만주로 이민간 우리 민족의 수난사를 4대에 걸친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2**

한국역사연구회 저 / 역사비평사 / 1998년 / 282쪽 / 9,000원

한국인이 살아온 지난 100년 동안의 삶을 생활사적으로 접근, 주제별로 생생하게 펼쳐낸 사회·문화사. 근대화라는 이름 하에 정신없이 보낸 한 세기, 우리가 얻은 것과 잃은 것을 되돌아보며 현재의 의미를 살핀다.



8. 언어와 세계  
2) 삼대

가족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권명아 저 / 책세상 / 2000년 / 166쪽 / 3,900원

우리 문학에서 가족 문제는 어떤 식으로 투영되고 그것은 근대 이후 어떤 과정을 거쳐 나타나는가를, 한국전쟁 직후의 작품들부터 박완서, 방현석, 신경숙, 배수아, 은희경 등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

■ 국어(하)

1. 국어가 걸어온 길 우리말 어원 연구

최창열 저 / 일지사 / 1986년 / 340쪽 / 12,000원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말들 가운데 그 본연의 의미가 죽어 가고 있는 말이 적지 않다. 이러한 말들의 뿌리를 캐내어 그 근원적인 의미를 재조명하여 오늘날의 용법과 말뜻에 되살려 놓음으로써, 이름답고 의미심장한 본연의 참모습을 찾아 더욱 새롭게 하고자 의미론의 관점에서 우리말 어원 연구를 하였다.

우리말의 나이를 아십니까

박숙희, 유통숙 편저 / 서문관 / 1995년 / 304쪽 / 6,000원

고려, 조선, 개화기, 일제강점기, 광복 이후로 나누어 새로 태어난 말을 정리하였다. 기본 구성은 표제어, 생성 시기, 유래, 잘못 쓴 예 순으로 되어 있다.

1. 국어가 걸어온 길  
1) 고대국어 국어사 개설

이기문 저 / 태학사 / 2001년 / 240쪽 / 8,000원

국어의 계통을 알타이 제어와 비교한 뒤, 국어의 형성과 문자 체계를 정리하고 국어사의 제 단계를 구분하였다.

삼국사기

김부식 저 / 을유문화사 / 1996년 / 545쪽 / 8,000원

삼국사기는 고려 인종 23년(1145)에 찬진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 왕조를 대상으로 한 기전체 역사책이다.

삼국유사

일연 저, 김원중 역 / 을유문화사 / 2002년 / 622쪽 / 9,000원

삼국사기가 여러 사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정사이므로 그 체제나 문장이 정제된 데 비하여, 삼국유사는 일연 혼자 손으로 씌어진 이른바 야사이므로 체제나 문사가 삼국사기에 못 미치나, 거기서 볼 수 없는 많은 고대 사료들을 수록하고 있어 돌도 없이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문헌이다.

1. 국어가 걸어온 길  
2) 중세국어 훈민정음 연구

강신항 저 / 성균관대출판부 / 1999년 / 486쪽 / 12,000원

책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 의의를 다양한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훈민정음을 이해하는 데 가장 좋은 길잡이이다.

1. 국어가 걸어온 길  
2) 중세국어  
**일본 소학집주 상, 하**  
김혁제 역 / 명문당 / 2002년 / 180쪽 / 8,000원  
소학은 1187년(남송 순희 14)에 완성되었으며, 내편 4권, 외편 2권의 전 6권으로 되어 있다. 내용은 일상생활의 예의범절, 수양을 위한 격언, 충신·효자의 사적 등을 모아 놓았다.

1. 국어가 걸어온 길  
3) 근대국어  
**개화기 신문 논설의 서사 수용 양상**  
정선태 지음 / 소명학술 / 2001년 / 645쪽 / 27,000원  
절반 이상이 희귀한 논설자료로, 전문가는 물론 일반독자도 선명한 활자본으로 1백 여년 전의 논설을 읽으며 과거로의 시간여행을 맛볼 수 있다. 이 논설들은 이야기 형식을 빌어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어 누구라도 가볍게 읽을 수 있다.

1. 국어가 걸어온 길  
보충 심화  
**우리말의 뿌리**  
안규옥 저 / 학민사 / 1995년 / 337쪽 / 6,500원  
우리말 어휘 가운데서 일부 단어들에 한하여 역사 이야기와 전설, 옛날 말과 방언 등을 문헌적으로 고증하고 분석하여 그 어원과 유래를 밝힘으로써 우리말을 더욱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발간하였다.

**중세어 자료 강해**  
고영근, 남기심 공편 / 집문당 / 2002년 / 476쪽 / 18,000원  
15세기~16세기 초의 150여 년에 걸친 중세어의 실상과 한글 사용의 역사, 문자와 표기법, 음운, 형태, 통사, 어휘, 문체뿐 아니라, 향찰, 이두·구결 등 차자 자료의 해독과 중세 이후의 어학 자료·문학작품을 이해토록 하였다.

2. 정보의 조직과 활용  
**중딩고딩을 위한 대중매체 읽고 쓰고 생각하기**  
1) 다매체 시대의 언어활동  
김슬용, 송재익 저 / 세종서적 / 2002년 / 374쪽 / 9,000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논리적인 사고라는 방법의 틀을 가지고 대중문화를 제대로 읽는 방법을 통해 대중문화의 본질과 아울러 논리적인 힘을 키워주는데 목적이 있다.

**대중매체의 이해와 활용**  
강상연 외 14인 저 / 한나래 / 2002년 / 456쪽 / 16,000원  
여러 가지 대중 매체의 특성과 오늘날의 매체 환경 및 매체 현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러한 매체들을 독자의 입장에서 유용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2. 정보의 조직과 활용  
1) 다매체 시대의 언어활동  
**부자 신문 가난한 독자**  
손석춘 저 / 한겨레신문사 / 2002년 / 302쪽 / 9,000원  
부자 신문들의 과거 행적을 들추는 1부와 세무조사 앞에서 도리어 언론의 자유를 부르짖는 부자 신문들을 비판한 2부, 한겨레신문의 '손석춘의 여론읽기' 칼럼을 모은 3부와 언론개혁운동의 오늘과 내일을 전망해본 4부로 이루어져 있다.

2. 정보의 조직과 활용  
1) 다매체 시대의 언어활동  
**광고와 대중문화**  
김병희 저 / 한나래 / 2000년 / 337쪽 / 16,500원  
현대 사회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최근의 우리 광고들을 다각적으로 비평하고 있다. 즉, 구체적인 광고 읽기를 통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문화를 읽고 있다.

2. 정보의 조직과 활용  
2) 허생전

**열하일기**

박지원 저 / **슬출관사** / 1997년 / 298쪽 / 7,500원

허생전은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이 중국을 여행하고 돌아와 그곳 문인·명사들과의 교류 및 문물제도를 접한 결과를 기록한 <열하일기>의 한 부분인 '옥갑야화'에 실린 이야기이다.

**고전 소설속 역사 여행**

노대환, 신병주 저 / **들베개** / 2002년 / 290쪽 / 9,000원

조선 중·후기의 고전소설 16편을 통해 당시 사회 현실을 들여다보고자 고전소설들의 문학적 특징과 의미보다는 그것들이 비추는 당시 사람들의 삶과 사회 상황에 관심을 쏟고 있다.

**그렇다면 도로 눈을 감고 가시오**

박지원 저 / **학고재** / 1997년 / 342쪽 / 10,000원

이 산문집에는 새롭게 떠오르는 민(民)의 세계에 주목한 근대지향적 세계관이 담겨 있다. 백성에게 이롭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비록 이적(夷狄)에게서 나온 것이라도 취해야 한다는 학문관, 당대 지식인의 허위의식에 대한 통렬한 질책, 양심적인 지식에 대한 아낌없는 찬사 등 위대한 사상가로서의 면모가 담겨 있다.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 실록**

박영규 저 / **들녘** / 1996년 / 464쪽 / 10,000원

국역본으로 430여 권에 이르는 방대한 내용을 500여 페이지로 요약한 축약본, 비전공자를 위한 본격적인 대중 역사서이다. 조선 27대에 걸친 왕들과 주변 인물들을 차근차근 정리한 이 책은 역대 왕들의 치적과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중심으로 읽기 쉽게 기술해 나간다.

2. 정보의 조직과 활용  
보증 심화

**책의 역사**

브뤼노 블라셀 저 / **시공사** / 1999년 / 160쪽 / 7,000원

이집트 파피루스를 펠치고 앉아 지혜의 세계를 응시하던 필경사로부터 수도원에서 신앙심과 인내심으로 한글자 한글자 성서를 완성해나가던 중세를 거쳐 마침내 인쇄술이라는 기술혁명을 통해 대중에게 보편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한 책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휴전선의 무지개**

곽학송 외 9인 저 / **문학과 지성사** / 2002년 / 290쪽 / 8,500원

하나의 뿌리를 갖고 있지만, 남과 북으로 나뉘어 수십년의 세월을 지내온 우리의 현실. 바로 그 '분단'의 비극을 담은 작품들을 한데 모았다.

3. 함께하는 언어 생활

**나의 한국어 바로쓰기 노트**

남영신 저 / **까지** / 2002년 / 315쪽 / 9,000원

조사의 미묘한 차이를 비롯하여 어미의 사용, 문장 성분의 중요성, 높임법, 시제 등을 깊이 있게 읽어볼 수 있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책이다. 문법보다는 적절한 예문과 연습 문제들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어를 학습하고 그 잘못을 교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 단원을 마무리하면서 읽어도 무방하다.

3. 함께하는 언어 생활

**청년을 위한 한국현대사**

1) 역사 앞에서

박현채외 저 / **소나무** / 1992년 / 406쪽 / 6,800원

우리 현대사에서 제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집단인 청년과 학생들을 위해 쓰여진 게 큰 특징이다. 분단 50년의 뒤뜰된 역사, 그래서 좌절과 분노로 점철된 역사를 감성적 차원을 넘어 투명한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게 우리의 현실에 기반한 역사의 흐름을 서술해 나가고 있다.

3. 함께하는 언어 생활

한국 전쟁의 기원

1) 역사 앞에서

브루스 커밍스 저 / 김자동 옮김 / 일월서각 / 1986년 / 583쪽 / 8,000원

1977년 워싱턴에서 비밀 해제된 자료, 관계자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새롭게 정리한 우리의 현대사다.

고운 말 바른 표현

이은정 저 / 백산 출판사 / 1996년 개정판 / 381쪽 / 10,000원

오랫동안 국어연구소에 재직하면서 우리말 연구에 심혈을 기울여온 저자가 '표준화법안'에 기초를 두고 구체적이고도 사실적인 예를 통해 우리 언어의 상식 및 예절을 알려준다.

3. 함께하는 언어 생활

육 카타르시스의 미학

2 어느날 심장이 말했다

김열규 저 / 사계절 / 2003년 / 334쪽 / 12,000원

육이 언어의 한 영역에서 어떤 언어 전략을 갖고 있으며,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육 안에 인간의 성이 어떻게 자리잡고 있는지, 한국인들의 인간에 대한 3대 악덕으로부터 육이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는지를 문학 작품, 탈춤, 판소리, 민담, 일화 등의 다양한 예문에서 육의 풍속사와 사회학적 의미를 고찰했다.

우리말 속 일본말

박속희 저 / 한울림 / 1996년 / 301쪽 / 7,300원

이 책은 순일본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식 외래어로 나누어 모두 270여 단어를 실었다. 낱말마다 자세하게 풀이를 하였고, 최대한 생활 속에서 자주 쓰는 쉬운 말로 바꾸었다.

재미나는 우리말 도사리

장승옥 저 / 하늘 연못 / 2001년 / 304쪽 / 12,000원

지은이는 이 책에서 2784개에 이르는 우리말을 찾아내 그 어휘의 뜻과 올바른 쓰임새를 이미 정평이 난 그의 맛깔스런 글솜씨로 요리해 풍요한 말의 성찬을 준비한다.

3. 함께하는 언어 생활

우리말 지르잡기

보충 심화

박권오윤 저 / 문학수첩 / 2002년 / 368쪽 / 9,800원

언론과 문학 작품, 국정 교과서, 대하 소설 속에서 잘못된 문장이나 단어를 끄집어내어 바로 잡고 있다.

고교생이 알아야 할 말하기·듣기

상낙수 저 / 신원문화사 / 1996년 / 349쪽 / 7,000원

'화법'의 이론을 소개하여 '말하기·듣기'의 개념, 유형, 절차와 내용을 익히고, 올바른 발음과 태도를 알 수 있게 하였다.

화술 1,2,3의 법칙

데일 카네기 저 / 들녘미디어 / 2003년 / 263쪽 / 9,500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 앞에서 자신 있는 언어생활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이는 체계적인 훈련과 연습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화술을 통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능동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기술을 배운다.

4. 효과적인 표현  
1) 민족 문화의 전통과 계승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

오주석 / 숲 / 1999년 / 228쪽 / 9500원

조선 시대를 대표하는 화가 아홉 명의 걸작 열두 점을 충실하게 해설한 우리 옛 그림 감상책이다.

**세계 최고의 우리 문화 유산**

이중호 지음 / 벌저라인 / 2001년 / 333쪽 / 13,000원

‘동시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한국의 문화유산’을 크게 고대문화, 과학문화, 생활문화, 예술문화의 4부분으로 나누고, 그 속에서 고인 돌, 비파형 동검, 초가집, 온돌, 김치, 석굴암 등을 포함하여 모두 19개의 문화유산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

**나의 아버지 박지원**

박중채 / 들베개 / 1998년 / 438쪽 / 15,000원

국가책에 실학자의 하나로서 평범하게 기술된 연암의 다양한 면모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이며, 18세기 영·정조 시대의 지성사와 사회사에 대한 보고서이기도 하다.

**한국인에게 문화가 없다고?**

최준식 / 세계절출판사 / 2000년 / 278쪽 / 9000원

유교문화, 샤머니즘, 물질적/정신적 문화유산 등의 주제를 통해 한국문화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확대, 발전시켜 보여 주고 있다.

4. 효과적인 표현  
2) 눈길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지아오 보 / 뜨란 / 2002년 / 247쪽 / 8000원

중국 인민일보 사진기자인 작가가 지난 20여 년 동안 부모님의 생활 모습을 꾸밈없이 촬영한 사진과 백년에 걸친 가족사를 추억한 정감 어린 글들을 모은 책이다.

**당신들의 천국**

이청준 / 문학과지성사 / 1996년 / 459쪽 / 8800원

자유 의지와 사랑의 교감에 기초한 실천적 힘, 위나 밖으로부터가 아닌 안으로부터의 자생적 의지나 운명에 기초한 천국을 향한 소망과 그 실현 가능성을 진지하게 타진해 본 작품이다. 힘의 정치학이나 정의의 윤리학, 사랑의 종교학 등 여러 측면에서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다.

**이청준 깊이 읽기**

권오룡 편 / 문학과지성사 / 1999년 / 390쪽 / 13,000원

이청준이 권오룡 교수와 나눈 최근 대담에서부터 자전적 에세이, 인물론, 개별 작품론, 지인들이 바라본 일상 속의 그의 모습, 연보, 참고 문헌에 이르기까지 작가론과 작가론을 위한 기본 자료들 등 이청준의 문학세계 35년을 결산하는 평론모음집이다.

**천리 도망은 해도 팔자 도망은 못한다더니**

신봉선 / 작가정신 / 1999년 / 330쪽 / 7500원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의 어머니 신봉선 씨가 낡은 대학노트 여덟 권에 뽀뽀하게 적어낸 70 평생의 이야기. 이 책은 지난 20여 년간 풀빵 장사와 분식집, 만화방을 하면서 한평생 아픈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희생한 한 어머니의 자화상이다.

4. 효과적인 표현  
보충 심화

인연

피전득 지음 / 샘터사 / 2002년 / 272쪽 / 8000원

인간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배울 수 있는 책으로 한편 한편에 담긴 맑은 언어가 가슴을 파고 들며 잃어버린 순수를 되찾게 하는 힘을 지니고 있다.

어머니의 전설

정동주 지음, 권태균 사진 / 이룸 / 2002년 / 296쪽 / 12,000원

이 땅을 살아온 그리고 살아갈 여성들의 이야기가 생생히 담겨 있다. 구전가요를 모티브로 우리 여인네들의 기구한 삶을 풀어 가는 이 책은 딸로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살아온 여성들의 모습을 안타까운 그리움으로 되돌아보게 한다.

5. 감동을 주는  
언어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 이야기

정민 저 / 보림 / 2002년 / 192쪽 / 12,500원

한시를 읽는 즐거움은 무엇보다도 '언어의 묘미'를 깨닫게 된다는 데에 있다. 한시 속에는 사물을 다르게 보는 방법, 돌려서 말하는 은근함,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언어의 공백, 마음을 울리는 여운, 삶을 충만하게 하는 향기로 충만하다. 어린이와 청소년뿐만 아니라, 한시가 어렵다고 생각했던 어른들을 위한 입문서로도 훌륭하다.

5. 감동을 주는  
언어

겸재를 따라가는 금강산 여행

1) 관동별곡  
(정철)

최완수 저 / 대원사 / 1999년 / 304쪽 / 15,000원

저자는 조선시대 진경산수화의 창시자 겸재 정선(1676~1759)이 그린 금강산 진경들을 충실한 해설로 소개했다. 겸재가 실제 사생답사하던 코스를 따라 감상할 수 있도록 순서를 꾸몄다.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유흥준 저 / 장작과 비평사 / 1994년 / 406쪽 / 8,000원

역사학, 고고학, 민속학, 미술사 등을 넘나드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저자는 씨줄과 날줄로 옷감을 짜고(답사여행), 거기에다 정교한 무늬를 넣은(문화재 해설), 아름다운 비단옷(문화유산 답사기)을 선보였다.

5. 감동을 주는  
언어

간디자서전

2) 간디의 물레

마하트마 K 간디 저, 함석헌 옮김 / 한길사 / 2002년 / 582쪽 / 15,000원

20세기 최고의 위인으로 일컬어지는 간디의 자서전을 그의 삶의 길을 따라갔던 함석헌 선생이 옮겼다. 이 책에서는 간디의 부끄러운, 숨기고 싶은 치부까지도 솔직하게 드러냈다. 간디의 인간적인 고민들을 엿볼 수도 있는 책이다.

월든

헨리 데이빗 소로우 저, 강승영 옮김 / 이레 / 2001년 / 486쪽 / 9,800원

소로우가 2년 동안 홀로 '월든' 호숫가의 숲에서 지낸 숲 생활의 산물이다. 그러나 이 책은 단순한 숲 생활의 기록은 아니다. 그것은 자연의 예찬인 동시에 문명사회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며,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구속받지 않으려는 한 자주적 인간의 독립 선언문이기도 하다.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헬렌 니어링 저, 이석태 옮김 / 보리 / 1997년 / 248쪽 / 6,800원

헬렌 니어링이 남편 스코트 니어링의 죽음 8년 뒤에 쓴 작품으로, "〈아름다운 삶...〉은 전기가 자서전이 아니라 그 사람(스콧 니어링)의 존재에 대한 헌사(獻辭)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5. 감동을 주는 언어

유시민의 경제학 카페

2) 간디의 물레

유시민 저 / 다른세상 / 2001년 / 443쪽 / 14,000원

이 책은 경제학이 어떤 철학적 토대 위에 서 있으며, 그것이 실제 경제현상을 어디까지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 복잡한 세상사의 근저에는 어떤 경제적 문제들이 얼기설기 놓여 있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다고 믿었던 경제적 통설들이 갖고 있는 의외의 거짓과 진실 등에 관해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준다.

5. 감동을 주는 언어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2

보충 심화

최상일 저 / 돌베개 / 2002년 / 308쪽 / 18,000원 (부록 CD포함)

라디오 방송의 PD가 전국을 '무른 메주 밭' 돌아다니며 녹음하고 기록해 온 우리 소리들을 정리한 두 권의 듣직한 민요 소개서이다. 이 책은 그 민요 찾기의 여정을 담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렵게 모은 소리들이 어떤 때에 불리웠는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친절히 설명하는 해설서이다.

6. 표현과 비평  
1) 산정무한

나의 북한 문화유산답사기 (하) : 금강예찬

유용준 저 / 중앙M&B / 2001년 / 396쪽 / 12,000원

이 책은 최남선 이래 지난 반 세기 동안 끊어진 금강산 기행문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며, 여러 금강산 소개서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 내용을 사진과 그림 그리고 금강산에 전해 내려 오고 있는 전설 등으로 쉽게 소개하여,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게 했다.

금강 기행문선

윤석달, 이남호 엮음 / 작가정신 / 1999년 / 248쪽 / 8000원

고려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문인들이 금강산을 유람하고 쓴 뛰어난 기행문 중 이곡 - <동유기>, 남효온 - <금강산유기>, 김창협 - <동유기>, 한설야 - <금강산유기>, 정비석 - <산정무한>, 이광수 - <금강산유기> 등 10편을 가려 뽑아 엮은 책으로 기행문 중에서 돋보이는 명문들만을 골라 엮었다.

금강산은 부른다

조선일보월간조선부담행본팀 / 조선일보사 / 1998년 / 244쪽 / 9500원

금강산의 지리와 자연, 역사, 문화, 명승지 등에 대한 소개뿐 아니라, 금강산 관광 수속, 준비물, 관광 코스 등 실용가이드, 명승 구역별 개념도, 원색 조감도, 금강산 관련 노래 악보 수록 등 금강산 관련 모든 정보가 들어 있다.

자전거 여행

김훈 저 / 생각의 나무 / 2000년 / 328쪽 / 9800원

지은이가 1999년 가을부터 2000년 봄까지 '풍류'이라 이름 붙인 자전거 하나에 의지해 우리 국토 구석 구석의 아름다운 모습을 두루두루 걸어 올린 기행문이다.

6. 표현과 비평  
2) 외국인의 눈에  
비친 19세기  
말의 한국

이방인이 본 조선 다시 읽기

신복룡 저 / 풀빛 / 2002년 / 256쪽 / 10,000원

저자인 신복룡 교수가 개항기에 한국을 다녀간 서구인들의 한국견문기를 수집하여 번역하고 주석을 달았다. 저자는 백여 년 전 이 땅을 찾아온 서구인들의 글과 사진을 통해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되짚어 보고 있다.

6. 표현과 비평  
2) 외국인의 눈에  
비친 19세기  
말의 한국

파란 눈에 비친 하얀 조선

백성현, 이한우 엮음 / 새날 / 1999년 / 392쪽 / 12,000원

이 책은 서양 자료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나타나는 16세기 말 이후 일제 시기까지의 일러스트레이션을 총체적으로 소개하며, 하멜 이후 어떤 형태로든 조선을 다녀간 서양인들이 자국에 돌아가 보고 느낀 바를 삽화로 표현한 것들이다. 그리고 거기에 여행담과 체험담을 연결지어 재미있는 읽을 거리로 구성했다.

당신들의 대한민국

박노자 저 / 한겨레 신문사 / 2001년 / 301쪽 / 8500원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각 종의 패거리문화, 전근대적 우상숭배, 맹종에 길들여진 냉소주의, 특권층의 계급적 배타주의, 위로부터 강요된 민족주의, 폭력문화 등 사회 전반에 팽배한 부조리에 날카로운 칼날을 들이대고 있다.

맥시멈 코리아

스콧 버거슨 저 / 자작나무 / 1999년 / 318쪽 / 8500원

지구촌을 떠돌며 문화기행을 하고 있는 스콧 버거슨이 3년여의 예사롭지 않은 한국 생활을 경험하고서 한국의 깊숙한 부분까지 파고들어 그에 대한 스물 한 개의 에세이로 표현하고 있다. 이 에세이를 통해 그는 한국을 '뒤죽박죽의 나라'라는 압축적인 한 마디로 표현한다.

6. 표현과 비평  
보충 심화

고치고 더한 수필로 배우는 글읽기

최시한 저 / 문학과지성사 / 2001년 / 296쪽 / 8500원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읽는 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그것을 체계적으로 기르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읽기의 기초 훈련에 가장 알맞는 수필을 대상으로 기본원리를 세우고, 그에 따라 실제 연습을 하도록 마련된 책.

시의 길을 여는 새벽별 하나

김상옥 저 / 푸른나무 / 2001년 / 287쪽 / 7600원

전교조 해직교사의 참교육의 희망을 담은 시 읽기 길라잡이 책으로 학생들이 어렵게만 느끼는 시를 좀 더 쉽게 이해하고 시를 보는 눈을 넓혀 주며 시를 머리로 혹은 암기하는 것이 아닌 가슴으로 느끼도록 해 주는 책이다.

7. 전통과 창조  
1) 춘향전

춘향의 딸들, 한국 여성의 반쪽짜리 계보학

백문임 저 / 책세상 / 2001년 / 170쪽 / 4,900원

봉건적 신분제에 저항하는 투사이자 지고지순한 사랑에 몸을 던지는 청순 가련형의 여자로서, 한때는 목숨 걸고 정절을 지키는 봉건제 열녀이자 신분상승에 성공한 하층 여성에 이르기까지 여러 모습으로 얘기할 수 있는 춘향이라는 인물이 현대 대중물 여주인공의 이미지와 운명을 결정 짓는 가장 중요한 원형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탐구한 책이다.

사랑사랑 내사랑아

조현설 저 / 나라말 / 2002년 / 228쪽 / 8,500원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우리 고전의 대표작인 '춘향전'을 읽기 쉬우면서도 유익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다. <춘향전>의 많은 이본 중 가장 대중적인 <열녀춘향수절가>를 선택해 청소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7. 전통과 창조  
1) 춘향전

꿈꾸는 춘향 - 판소리여섯마당 뜯어보기

설중환 저 / 나남출판 / 2000년 / 360쪽 / 10,000원

판소리 여섯마당(춘향가, 심청가, 변강쇠가, 수궁가, 흥보가, 적벽가)을 현대적 맥락으로 풀어내고 있는 책. 곳곳에 인용된 판소리의 구성진 맛과 너무 차이가 나지 않게 자연스런 문장으로 논리를 풀어내 이야기 책을 읽는 것처럼 부담이 없다. 또한 사전적 의미에서 벗어나 내용이 지니고 있는 사회적 의미를 현대적 감각에 맞게 읽기 쉽게 서술해 나가고 있으며, 당시의 정치, 사회를 바라보고 비판하는 해학의 기능으로서 판소리를 이해하는데 충분한 요소를 담고 있다.

우리 소리 우습게 보지 말라

김준호, 손심심 저 / 이른과 실천 / 1997년 / 268쪽 / 8,000원

신시대 소리꾼 허준호, 손심심 부부가 우리 소리에 대한 애정과 긍지, 자부심을 담아 엮어낸 음악 교육서이다. 이 책은 판소리, 민요 등에 남아있는 생활문화의 흔적을 훑으며 국악의 이해와 감상법을 담고 있다.

판소리의 세계

판소리학회 저 / 문학각지성사 / 2000년 / 374쪽 / 15,000원

판소리를 학술적으로 연구해 이론화하고 판소리 공연물의 정립과 보존, 발전에 힘써온 판소리 학회에서 판소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쉽게 풀어쓴 개설서이다.

7. 전통과 창조  
2) 건축과 동양 정신

우리 옛 건축과 서양건축의 만남

임석재 저 / 대원사 / 1999년 / 383쪽 / 15,000원

오랫동안 서양 건축사를 연구해온 저자가 한국 전통 건축의 특징을 서양 건축과 비교 분석한 책. 건축과 교수인 저자는 지붕과 처마, 나무와 기둥, 돌과 담, 길과 여정, 대청과 비대청 등 18개의 아이টে으로 한국 건축에 대한 일방적인 우위 주장이나 서양 문화에 대한 맹목적인 찬사를 피해 두 건축 상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짚어내고 있다.

건축, 음악처럼 듣고 미술처럼 보다

서현 저 / 호형출판 / 1998년 / 300쪽 / 14,000원

건축 감상의 길잡이 책으로 서울의 대표적 건물을 비롯해 우리의 대표적 옛 건축물의 예술적 가치와 인문적 의미까지를 풀어 쓴 책.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도 비교적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교과서처럼 난도를 점층시키면서 독자들에게 건축의 의미를 이해시키려 한 점이 돋보인다.

압과 삶의 공간

김봉렬 저 / 이상건축 / 1999년 / 335쪽 / 18,000원

우리의 정신과 삶이 담겨 있는 우리 건축 답사기로서, 한국 전통건축의 전체 맥락과 구성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의 시대정신을 알 수 있고 우리 건축 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사색이 가능하다.

건축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

최부득 저 / 미술문화 / 2001년 / 205쪽 / 10,000원

건축의 안팎에 살고 있는 누구에게나 건축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이 무엇이며, 또 그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를 재인식하게 하고, 건축의 본질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의 정신에 있다는 사실을 일반인들도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정리하고 있다.

7. 전통과 창조  
보충 심화

오주석의 한국의 美 특강

오주석 저 / 도서출판 숲 / 2003년 / 280쪽 / 15,000원

전국을 돌며 우리 미술의 아름다움에 대한 강연을 해왔던 저자가 이 강연을 한권의 책으로 묶었다. 강연 분위기를 고스란히 살린 문장 덕분에 쉽고 재미있게 읽혀, 누구라도 부담없이 읽을 수 있다. 슬라이드를 틀듯이 적재적소에 실려 있는 그림 덕분에 페이지를 넘겨가며 그림을 찾아 설명과 일일이 대조하는 수고도 덜었다.

한국미술, 그 분출하는 생명력

강우방 저 / 월간미술 / 2001년 / 296쪽 / 15,000원

선사 시대의 빗살무늬토기, 불상의 광배, 백제 금동 대향로, 사천왕상, 용면화, 조선 감로탱, 추사의 글씨 등 한국 미술사에 이로 새겨진 걸작들을 쉽고 감성적인 언어로 설명하였다.

고전수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상익 외 저 / 집문당 / 1999년 / 478쪽 / 18,000원

비소설 고전산문을 해제, 풀이, 작품요약, 이해 감상, 지은이 순으로 알기 쉽게 소개한다.

# 사 회

## 1. 국토와 지리 정보 1. 국토인식과 지리정보

### 이야기가 있는 경북궁 나들이

**강경선의 4인 저 / 역사넷 / 2002년 / 269쪽 / 9,000원**

경복궁의 역사와 내부구조 등에 대해서 쓴 보기 드문 답사 안내서이다. 실제 답사에서 쓰임새를 높이기 위해 서술순서는 답사하는 사람이 다니는 코스에 맞추어 광화문에서 시작하여 동궁으로 끝나는 목차를 가지고 상세히 기술하였다. 특히 이 책의 이야기 주제는 궁급한 것, 눈여겨보아야 할 것을 골라서 퀴즈로 만들었는데 퀴즈를 풀어보면서 답을 예상하거나 추리해 보는 것도 색다른 경북궁 보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다.

### 택리지

**이중환 저 이익성 역/ 율유문화사/ 2002년/ 318쪽/ 8,500원**

풍수지리적인 요소를 강조하면서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자연 현상과 인간 생활과의 관계를 찾으려고 한 점에서 최초의 인문지리서로 평가받는 이 책은, 지리서이지만 정치, 경제, 교통, 인심 등 18세기 중엽 조선의 사회상을 생생히 반영하여, 오늘날까지 조선 후기 시대를 이해하는 자료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다. 기존의 지리서들과 달리 행정 구역이 아니라 생활권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여 근대 지리학의 맹아를 제시한 책으로 꼽힌다.

### 한국 고지도 발달사

**이상태 저/ 예안 / 1999년 / 264쪽 / 20,000원**

한국 지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연구, 정리하고 고지도 사진 및 자료를 첨부하여 쓴 고지도 연구의 기본 필독서이다. 김정호에 대해서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 한국 전통지리사상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민음사 / 1994년 / 334쪽 / 8,000원**

우리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지표의 사물과 현상을 역사적인 시각에서 살펴보고 분석하며 또 우리가 의미를 미처 부여하지 못하고 있었던 새로운 면을 모색하기 위해 여러 학문 분야의 연구자들이 발표한 논문을 편집했다. 우리 국토에 대한 자연관의 배경이 되는 지리사상과 지도를 통한 조선시대 지식인의 공간지식과 국토에 대한 인식, 도시 역사지리의 중요한 부분을 조사 분석한 연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금남선생 표해록

**최부 저 최기홍 옮김 / 교양사 / 1997년 / 290쪽 / 7,000원**

1488년 윤1월 1일 제주를 출발하기 전부터 6월 4일 압록강을 건너오기까지를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날짜 순으로 기록하는 일기체 형식으로 되어 있다. 중국 양자강 이남에 있는 절강성에서부터 우리나라 의주에 이르기까지 지나 온 지방과 관련된 역사적 배경·정객·무인·문인·시인·서예가·효자·열부 고사를 기록하고 있다.

1. 국토와 지리 정보  
1. 국토인식과 지리정보

우리 옛 지도와 그 아름다움

한영우, 안위준, 배우성 공저 / 호명출판 / 1999년 / 267쪽 / 20,000원

옛 지형의 모습과 함께 지도의 아름다움과 의미, 선조들의 국토에 대한 정신 등을 엿볼 수 있는 책. 국립중앙박물관이 처음 발굴하고 공개한 '동국대전도'와 병인양요 때 프랑스가 약탈해간 '한국본 여지도'의 역사적 의의 등을 실어 매우 흥미롭고 수준 높은 내용이 가득하다.

그대가 본 이 거리를 말하라

서 현 / 호명출판 / 1999년 / 302쪽 / 12,000원

건축가가 보는 도시의 건물, 도로, 공원, 광장과 같은 물리적인 요소와 이 거리의 실질적 모습을 만들어 가는 시민들의 역할을 적절하게 배합한 책으로, 도시 형성의 주체임을 자각케 한다.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익숙한 거리를 지리적,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도움을 주며, 실질적 공간 형성의 냉혹한 현실을 파악케 한다.

경기북부와 북한강(답사여행의 길잡이 9)

한국문화유산답사회 엮음 / 들배개 / 2002년 / 344쪽 / 12,000원

이 책은 답사여행의 길잡이 경기북부와 북한강에 대한 안내서이다. 크게 3개 권역 8개 코스로 나누어 기초적인 답사지식, 전설, 인물에 얽힌 이야기, 문양, 그림, 사진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말미에는 「풍수지리, 땅은 살아 숨쉰다」를 붙여 풍수지리의 일반론과 경기북부지역 왕릉을 중심으로 음택풍수를 고찰하고 묘지풍수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안내서이다.

1. 국토와 지리 정보  
2. 지리정보와 지도

길 위에서 띄우는 여행편지

남정우 저 / 성하출판 / 2001년 / 223쪽 / 8,500원

이 책은 사진을 전공한 필자가 도보로 국토를 여행하면서 적은 국토기행시리즈이다. 이번 19호선은 다도해 남해로부터 섬진강변과 지리산 자락을 지나 장수, 무주, 영동, 충주를 거쳐 강원도 원주에 이르는 446.3km의 구간이다.

특히 사진을 통한 여행지의 설명은 학생들에게 지리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축제로의 여행

백남전 저 / 성하출판 / 2001년 / 389쪽 / 10,000원

이 책은 문화관광부 선정 전국 4대 우수축제로 선정된 '진도영등축제', '금산인삼축제',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물론 '부산국제영화제', '춘천국제마임축제'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학생들에게 지리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훌륭한 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다.

그 곳에 가보고 싶다 10: 전남, 빛고을

KDIC 관광정보팀 편 / KDIC / 1997년 / 393쪽 / 8,000원

그 곳에 가보고 싶다 10번째 시리즈인 전남·빛고을은 관광지, 문화사적, 레저, 답사, 역사, 지리, 특산물, 별미집, 숙박 등 관광테마별 관광정보가 수록되어있다. 특히 지역 색선별 편집과 테마별 찾아보기는 지리정보를 획득여행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훌륭한 안내서가 될 것으로 믿는다.

그 곳에 가보고 싶다 9: 전북, 비사벌

KDIC 관광정보팀 저 / KDIC / 1997년 / 382쪽 / 8,000원

그 곳에 가보고 싶다 8번째 시리즈인 전북·비사벌은 관광지, 문화사적, 레저, 답사, 역사, 지리, 특산물, 별미집, 숙박 등 관광테마별 관광정보가 수록되어있다.

특히 지역 색선별 편집과 테마별 찾아보기는 지리정보를 획득여행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훌륭한 안내서가 될 것으로 믿는다.

1. 국토와 지리 정보  
2. 지리정보와 지도

경북 북부(답사여행의 길잡이 10)

한국문화유산답사회 역음 / 들배개/2001년 / 449쪽 / 5,000원

이 책은 답사여행의 길잡이 경상북도편 중 북부지역에 해당하는 유적에 대한 안내서이다. 크게 4개 권역 10개 코스로 나누어 기초적인 답사지식, 전설, 인물에 얽힌 이야기, 문양, 그림, 사진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경북 북부 전체를 보여주는 권지도, 몇 개의 코스를 하나로 엮은 부지도, 각 코스를 자세히 보여주는 코스별 지도를 그려놓아 학생들에게 지도 읽는 법을 손쉽게 익힐 수 있는 안내서이다.

그곳에 가보고 싶다 8:충남, 한밭

KDIC 관광정보팀 저 / KDIC년 / 1997 / 396쪽 / 8,000원

그곳에 가보고 싶다 8번째 시리즈인 충남·한밭은 관광지, 문화사적, 레저, 답사, 역사, 지리, 특산물, 별미집, 숙박 등 관광테마별 관광정보가 수록되어있다. 특히 지역 색선별 편집과 테마별 찾아보기는 지리정보를 획득여행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훌륭한 안내서가 될 것으로 믿는다.

계곡여행 100배 즐기기

신성순 저 / 중앙M&B / 2000년 / 185쪽 / 8,000원

숨겨진 무공해 청정계곡 45곳을 강원도 북부와 남부, 경기도, 충청남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별로 나누어 실측 정밀 지도와 사진 등을 통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주변의 관광지와 향토 맛집, 숙박 및 대중교통 정보를 수록하여 지역조사학습에 활용도가 높고 여행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다.

경남(답사여행의 길잡이 14)

한국문화유산답사회 역음/들배개/2002년/343쪽/13,000원

이 책은 답사여행의 길잡이 경남 편에 해당하는 유적에 대한 안내서이다. 크게 3개 권역 6개 코스로 나누어 기초적인 답사지식, 전설, 인물에 얽힌 이야기, 문양, 그림, 사진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경남지역 전체를 보여주는 권지도, 몇 개의 코스를 하나로 엮은 부지도, 각 코스를 자세히 보여주는 코스별 지도를 그려놓아 학생들에게 지도 읽는 법을 손쉽게 익힐 수 있는 안내서이다.

II.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1. 지형과 인간 생활

러시아의 지리

원학익 외 / 이카넷 / 1999년 / 460쪽 / 22,000원

러시아의 생활과 풍토를 지리적인 관점에서 종합하면서, 광대한 영토와 다양한 자연환경 속에 있는 러시아의 지리적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제1부에서는 러시아의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을 다루었고, 제2부에서는 러시아를 9개의 지역으로 구분하면서, 각 지역별 특성을 상세히 소개하였다. 또, 제3부에서는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는 극동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지오 팩츠

미국 지리학회 저 / 해냄 / 2000년 / 251쪽 / 19,800원

<내셔널 지오 그래픽>의 명성이 고스란히 담긴 교양과 지식의 보고이자, 자연과 과학, 역사와 문화에 대한 교양과 지식의 폭을 넓혀주는 지오 그래픽 여행으로의 안내서이다.

거짓말 같은 오지의 산

김부래 / 산악문화 / 2001년 / 304쪽 / 15,000원

월간 <사람과 산> 태백주재기자로 활동하며 연재한 '오지의 산'을 묶어 책으로 펴냈다. 강릉·평창권, 정선권, 삼척권, 태백·영월권으로 나누어 강원도에 위치한 오지의 산들을 빠짐없이 보여준다. 산행길잡이를 함께 실어 교통, 먹거리, 지도 등도 참고할 수 있다.

II. 자연환경과 인간생활

1. 지형과 인간 생활

사막(창해 ABC북 47)

장 로이크 르 클레크 저 김보현 역/창해/2002년/128쪽/9,000원

지형학, 인간, 환경에 따라 나누어진 항목들을 재구성하여 설명함으로써 사막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사막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가나다순에 따라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다. 세계의 주요 사막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고, 중요한 개념들은 별도의 상자 글에 담았다.

III. 생활공간의 형성과 변화

2. 도시체계와 내부구조

경기남부와 남한강(답사여행 길잡이 7)

한국문화유산답사위원회 / 돌배개 / 2002년 / 369쪽 / 10,000원

이 책은 답사여행의 길잡이 경기남부와 남한강에 대한 안내서이다. 크게 3개 권역 7개 코스로 나누어 기초적인 답사지식, 전설, 인물에 얽힌 이야기, 문양, 그림, 사진들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경기남부와 남한강 전체를 보여주는 권지도, 몇 개의 코스를 하나로 엮은 부지도, 각 코스를 자세히 보여주는 코스별 지도를 그려놓아 학생들에게 지도 읽는 법을 손쉽게 익힐 수 있고 조선시대 최초의 계획도시인 수원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III. 생활공간의 형성과 변화  
보충 심화

관광 서울·인천·경기

최선용, 이순용 편 / 성지문화사 / 2001년 / 200쪽 / 10,000원

한국 관광 시리즈 중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의 관광지와 숙박 및 교통정보를 사진과 지도로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특히 시 군 구별, 현향 및 안내지도, 서울·인천·경기도 전도, 1:30만 경기·강원도로지도 등이 수록되어 있어 여행과 지도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훌륭한 안내서가 될 수 있다.

IV. 환경문제와 지역문제

2. 지역개발과 환경보전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전우익 저 / 현암사 / 2002년 / 130쪽 / 6,500원

그 이야기에는 자연의 섭리와 세상살이의 이치가 질그릇처럼 녹아 있고 혼탁한 세상을 사는 맑고 깨끗한 지혜가 무르익어 있다. 특히 개발에만 치중되어 있는 현대사회에서 학생들에게 자연 친화적인 관점을 제공하여 가치관 형성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환경 상식 100가지

구자연 / 현암사 / 2000년 / 428쪽 / 9,500원

환경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환경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일이다. 이 책은 일상 생활 속에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 했을 환경 문제에 관한 의문을 풀어 주고 그에 대해 알기 쉽게 해설한 책이다.

V. 문화권과 지구촌 형성

1. 종교와 문화의 다양성

세계문화지리

류제현 편역 / 살림 / 2002년 / 330쪽 / 32,000원

방대하고 다양한 내용과 양질의 수록 자료로 인기가 높아 대학에서 문화 지리 교재로 활용되어 온 <The Human Mosaic>를 번역한 책이다.

지중해 문명 산책

김진경 저 / 지식산업사 / 2001년 / 444쪽 / 20,000원

아테네, 그리스인, 이집트, 로마, 히포크라테스...지중해의 자연과 인간, 예술과 사상 등을 소개했다. 지중해 연안 고적에 얽힌 역사적 이슈를 축으로 각 사건별 관련 이야기와 문화 상식 등이 컬러 사진과 함께 실려 흥미롭게 구성되어 있다.

V. 문화권과 지구촌  
형성

최초의 탐험가(탐험의 세계사1)

2. 상업의 발달과  
생활권의 확대

김신 저 / 도서출판 두남 / 1997년 / 240쪽 / 11,000원

저자는 탐험의 발달 단계를 「최초의 탐험가」 「황금의 제국」 「대항해자의 시대」로 나누고, 각 시대 탐험 활동의 형태와 발전상의 변모를 통사적으로 밝히면서 각종 사진과 삽화를 곁들여 재미를 더했다.

항해술의 발달, 점점 넓어지는 항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려는 끝없는 열망 등은 세계의 역사뿐 아니라, 경제 사회상의 변화도 같이 담고 있다는 얘기다.

탐험지도의 역사

R.A. 스킨튼 저 / 새날 / 1995년 / 386쪽 / 15,000원

「탐험지도의 역사」 오랫동안 탐험과 고지도 연구를 해온 대영박물관 지도실장 R.A.스킨튼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집필한 책이다. 이 책은 탐험과 옛 지도에 얽힌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그것이 세계지도 발달에 끼친 영향을 지도와 곁들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세계의 민족지도

21세기연구회 저 / 살림 / 2001년 / 262쪽 / 8,000원

이제 새롭게 다가올 21세기는 국제화로 국경 없는 시대라고 한다. 하지만 이런 국제화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와 소수민족을 위한 것일까? 이 책은 왜 세계에서 민족분쟁이 끊이지 않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 보려는 작은 시도로 세계분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의 세계지리 읽기

육한석, 이영민 공저 / 한울 / 2002년 / 277쪽 / 12,000원

이 책은 세계를 지리적인 구분만이 아니라 문화의 지역적 다양성이라는 특징과 더불어 지역에 대한 통찰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지역 통계 및 그래프를 통한 시각적 자료와 자세한 설명으로 거부감이 덜하게 꾸며졌다.

여기가 어디죠? : 지도와 항해술

A.G 스미스 저, 권경희 역/이지북/ 2002년 / 266쪽 / 14,000원

사람들이 물리적인 공간을 어떻게 도면으로 제작하고 자신들의 위치를 표시해 왔는가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들어 있다. 이 책에 수록된 풍부한 그림과 섬세한 스케치는 바빌로니아에서부터 스칸디나비아로, 북아메리카에서 중국으로, 그리스에서부터 폴리네시아까지 다채로운 여행으로 안내하며, 지도 제작에 나타난 천체적인 기법과 발명의 역사 등 지도와 항해술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 줄 것이다.

유럽의 대항해 시대 :엔리케에서 제임스 쿡까지

김성준 저 / 신서원 / 2001년 / 321쪽 / 12,000원

콜럼비아, 뱌쿠버, 베랑해, 브라질, 베네수엘라, 태평양, 몬트리올, 루이지애나... 등은 이 해역을 항해했던 이들의 이름에서 따온 것들이다. 그리고 보면 항해가들의 이야기가 곧 유럽팽창의 역사 그 자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책은 유럽이 한창 미지의 대륙으로 팽창해나갈 무렵, 그 구체적인 실천가였던 항해가들의 이야기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V. 문화권과 지구촌  
형성

극지방을 향한 대도전

3. 세계화와  
지역화

베르트랑 앙베르 저 권재우 역/ 시공사/1997/223쪽/ 7,000원

극지방이라는 불모지를 향한 탐험가들의 도전과 탐험사를 통해 극지방이 개발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V. **문화권과 지구촌  
형성**

3. **세계화와  
지역화**

**중국의 산업지리**

**전승림 외 / 백산출판사 / 2001년 / 308쪽 / 15,000원**

중국 산업발달을 종합적으로 정리했고 지역적으로 각각의 산업이 어디에 발달되어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중국의 산업 발달을 지리학적으로 고찰했다. 중국 산업발달의 기본조건을 자연환경과 인적자원을 중심으로 살폈고 중국의 각 산업에 대한 발달 과정과 현황과 그러한 발전의 지역적, 지리적 분포양상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했다.

**몽골의 문화와 자연지리**

**박원길 저 / 민속원 / 1999년 / 426쪽 / 20,000원**

몽골 안내서. 몽골의 지리적 위치와 특징, 몽골의 역사, 유목생활, 몽골의 5대 가축, 몽골의 문화와 습속, 자연 지리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부록에 함호골숨의 구전설화와 주몽 건국 설화를 비교했다.

**알고 나면 신기한 지리이야기**

**세계 박학 클럽, 윤명연 옮김 / 글담 / 1999년 / 240쪽 / 5,800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계 지리에 대한 신기한 이야기를 재미있고 생생한 관련 사진과 함께 소개하였다. 아직도 다 비밀이 벗겨지지 않은 비밀의 땅 지구, 지구촌에서 벌어지고 있는 알쏭달쏭한 신기한 지리이야기가 펼쳐져 있다. 청소년들에게 지금껏 읽어보지 못했던 세계 지리에 대한 새롭고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 줌으로써 자신의 감각, 지각의 세계를 넓혀 줄 수 있을 것이다.

X. **사회변동과  
미래사회**

1. **대변혁의 시대**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통계 상식 백가지**

**김진호 / 현암사 / 2002년 / 311쪽 / 9,800원**

통계를 통해 두려움 없이 숫자를 대하고 논리적으로 판단하여 숫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하는 책이다. 정보화 시대의 매개 수단으로 이용되는 통계적 정보놀이의 허상을 사례를 통하여 밝히고 있다. 그리고 통계 정보를 활용하고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 수학

## ■ 수학(가)

### 1. 집합과 명제

#### 머리가 좋아지는 논리퍼즐

**아이자와 이키라 저 / 박 화역 / 홍 / 2002 / 182쪽 / 10,000원**

이 책에서는 논리 퍼즐의 명작을 이용하여 논리적인 두뇌를 만들기 위한 기본 훈련을 할 수 있는 책이다. 논리에 약한 초급자를 위한 문제도 있지만 퍼즐 상급자들을 위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새로운 사고방법과 고급퍼즐도 새롭게 수록되어 있다.

#### 수학의 증명 방법 (1)

**아주대 교수 전재석 감수/황순현외 2명 역 /1997년 / 253쪽 / 6,500원**

동일한 단원에 속하는 문제 뿐만 아니라 단원을 조월한 여러 가지 문제를 풀 때는 공통으로 사고 방법이나 기교가 있다.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 문제를 풀 때 그것을 풀기 위해 필요한 정리나 공식 등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 지식들을 활용하기 위한 사고 방법이나 기교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책은 우리가 증명과 친해지고 증명을 잘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고방법과 기교들을 소개하고 있다.

#### 카이스트 천재들의 수학공식 7가지

**권승희외 저 / 맑은소리 / 2002 / 236 쪽 / 10,000원**

카이스트 학생들만의 수학문제풀이 비밀 노하우를 7가지로 정리해 알려주고 있는 이 책은 이제부터 수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 재미없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많은 학생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줄 것이다. 즉, 이제부터 모든 수학문제는 책에서 제시하는 7가지 공식에 대입하면 모두 풀 수 있게 된다.

#### 교실밖 수학여행

**김선파 · 여태경 지음 / 사계절 / 1998년 / 323쪽 / 7,500원**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 다섯 개로 나누어져 있다. 수와 집합, 방정식과 부등식, 함수, 기하, 최신수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구성은 고등학교 1학년 수준에 맞추어진 것이다. 교과서 속에 들어 있으면서도 수업 시간에 빠뜨리기 쉬운 수학의 중요한 개념과 원리를 체계적이고 재미있게 풀어 줌으로써, 수학의 기초를 튼튼히 해 주는 특징이 있다.

### 1. 집합과 명제

#### 2) 집합의 연산 법칙

#### 수학은 아름다워(2)

**육인선 지음 / 디딤돌 / 1992년 / 256쪽 / 3,500원**

이 책은 “수학은 아름다워 (1)”에 이어 육인선씨가 두 번째로 펴낸 책이다. 현직 수학교사로 수업과 관련된 재미있고 흥미있는 이야기들로 꾸며져 있다.

수학의 기초가 되는 집합론과 실수, 복소수, 함수, 행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수학의 구조 등에 대하여 정리하였다.

### 1. 집합과 명제 3) 명제의 참, 거짓

#### 수리 철학

이건장 저 / 경문사 / 2000년 / 396쪽 / 16000원

수리 철학의 역사와 고대 개념에서부터 수리 철학의 근대개념과 현대적 개념, 수학적 추론의 본질, 순수수학과 응용수학의 본질, 현대수학의 기본 사상과 역사 등을 썬내려 갔다.

#### 수학 유전자

케이스 데블린 저 / 전대호 역 / 까치 / 2002년 / 354쪽 / 12000원

수학을 할 수 있는 인간의 능력이 어떻게 진화를 통해서 형성되었는가를 논의하고 있는 책. 저자는 수학적 능력의 형성과 문법적 언어의 형성이 단일한 발전의 양면이라는 과감한 주장을 펼친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저자는 인간 뇌의 진화, 수학, 언어학 등의 광범위한 영역을 분석한다.

#### 스파게티에서 발견한 수학의 세계

알브레히트 보이텔슈파어 저 / 이글리오 / 2001 / 315쪽 / 10,000원

독일의 젊은 수학자가 이탈리아를 6주간 방문하여, 전공 분야가 같은 그곳의 수학자들과 나누는 대화와 공동 연구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미지의 나라에 대한 사랑이 담긴 이야기, 학문적 활동, 수학과 철학의 신비로운 주제인 무한에 대하여 알기 쉽게 수록했다. 부제는 '어느 젊은 수학자의 이탈리아 여행'으로, 읽으면 정신이 계단식으로 성장하게 만드는 책이다.

### 2. 실수와 복소수 1) 실수

#### 골드바흐의 추측

이포스틀로스 독시아디스 저/생각의 나무/2000/270쪽 / 7,500원

이 소설은 현대 수학의 물줄기를 둘러놓은 일련의 성과들을 이해하기 쉽게 한 줄기로 꿰었다. 마누잔, 괴델, 튜링 등 현대 수학의 거장들이 허구의 주인공 페트로스의 삶을 이리저리 엿어내는 동안, 독자는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보는 것과 같은 재미도 느낄 수 있다.

### 3. 식의 계산 1) 다항식과 그 연산

#### 수학이 또 수군수군

샤르탄 포스키트 저 / 이중호 역 / 김영사 / 1999년 / 170쪽 / 3900원

이 책은 수학을 일상생활에서 접근해 나가기 때문에 무척 재미있다. 수학의 접근 방법을 뒤엎은 책으로 수학사적인 접근, 시대적인 접근이 아닌 우리 생활에서의 접근, 가까운 곳에서 출발하는 우리 생활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일깨워 주는 책이다.

#### 수학이 수군수군

샤르탄 포스키트 저 / 유광태 역 / 김영사 / 1999년 / 156쪽 / 3900원

수학의 기초부터 계산기에 대한 이해, 직각, 속셈법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만화를 보듯 부담 없이 웃다보면 어느새 공부가 되는 책. 수학, 과학과 역사, 예술 등 딱딱해지기 쉬운 분야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3. 식의 계산 2) 나머지 정리

#### 답이 없는 문제

나카타 노리오 저 / 김정환 역 / 홍출판사 / 2002 / 196 쪽 / 9500원

이 책은 사람들이 수학을 재미있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의 실생활과 수학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준다. 이 책을 읽고 수학이 우리의 실생활과 얼마나 가까운 학문인지 알게 된다면 조금은 수학이 친숙하게 느껴질 것이다.

### 3. 식의 계산 4) 약수와 배수

#### 수학성적 30점 더 올리기

김철한외 저 / 현재 / 2002년 / 256쪽 / 9000원

이 책은 수학 때문에 무진장 고생한 학생들의 '수학정복기'다. 또한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끔 필진을 각과별로 고루 선별했다. 수학 때문에 골치를 썬히다 나름대로 수학을 정복한 서울대생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이다.

### 3. 식의 계산 5) 유리식과 그 계산

#### 마법의 수학나라

크리스티매간지니 저 / 박영호역 / 맑은소리 / 2000/ 184쪽/ 6000원

이 책은 신기한 퀴즈를 통해 흥미를 이끌어 낸 후, 그 결과에 호기심을 갖도록 자극해 수학의 세계와 자연스럽게 친숙해지도록 도와준다.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현상들에서 수학의 기본법칙과 현대 수학의 이론을 끄집어내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고 흥미롭게 써여져 있으며 수학에 대한 즐거움뿐만 아니라 수학이라면 무조건 거부하는 청소년들을 배려한 책이다.

#### 수학을 다시 시작하는 책

미야구지유우지 저 / 김상운 역 / 자음과모음 / 2000/ 336쪽/9900원

여러 가지 수학적 개념을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설명한 수학 입문서. 수학의 에피소드, 재미있는 수학퍼즐, 미처 알지 못했던 신기한 수학적 개념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그동안 모르고 지나왔던 수학의 원리들을 기초부터 알기 쉽게 설명하여 기초가 부족한 학생이나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다.

#### 마법의 수학나라

크리스티매간지니 저 / 박영호역 / 맑은소리 / 2000/ 184쪽/ 6000원

이 책은 신기한 퀴즈를 통해 흥미를 이끌어 낸 후, 그 결과에 호기심을 갖도록 자극해 수학의 세계와 자연스럽게 친숙해지도록 도와준다. 우리 생활 속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현상들에서 수학의 기본법칙과 현대 수학의 이론을 끄집어내어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재미있고 흥미롭게 써여져 있으며 수학에 대한 즐거움뿐만 아니라 수학이라면 무조건 거부하는 청소년들을 배려한 책이다.

### 3. 식의 계산 6) 무리식과 그 계산

####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사이먼 싱 저 / 박병철 역/ 영림 카디널 / 1998 / 399쪽 / 9,500원

프랑스 수학자 페르마가 남긴 수학 역사상 최대의 수수께끼 '페르마의 정리'가 앤드루 와일스 영국 수학자에 의해 풀리게 되는 과정을 속도감 있는 필체로 끌여가는 감동적 기록이다. 수학공식을 둘러싼 실패와 성공의 드라마이다.

### 4. 방정식과 부등식

####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수학

고루토 나오키 저 / 안소현역 / 오늘의책 / 2002년/ 318쪽/ 11000원

수학이라면 지끈지끈 골머리부터 아파올 이들이 있을게다. 그런 독자를 위해 에세이처럼 쉽게 수학원리를 깨우치게끔 도와줄 책이다. 이 책에서 수학에 그리스의 형식논리학이 더해져서 모든 과학의 기초가 되기까지의 과정 등 수학이 걸어온 역사적 배경을 친절히 설명해 준다.

#### 즐거운 365일 수학

전미국수학교사협의회 편 / 팬더-북 / 1997년 / 270쪽 / 6,000원

우리 수학교육의 문제점이 입시위주의 기계식 문제풀이에 있는 데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문제집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책은 수학에 있어서 논리적인 사고의 전개는 실로 흥미진진하다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수학은 재미있는 학문임을 일깨워 준다.

#### 흥미있는 수학이야기

이만근·오은영 지음 / 수학사랑 / 1997년 / 238쪽 / 6,800원

이 책 대부분의 소재는 저자가 학생들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 중에서 반응이 좋았던 것을 택하였으며, 구체적인 사실 및 연대 등의 수학적 내용은 뒤에 나열된 참고문헌을 참조하여 정확하게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고등학교 1학년정도의 학생이면 반드시 권장하고 싶은 도서이다.

#### 4. 방정식과 부등식 4) 연립방정식

### 수학은 아름다워1

육인선 외 저 / 동녘 / 2002년 / 218쪽 / 7700원

이 책에는 수학이 어렵고 딱딱한 과목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재미있는 과목임을 알게 할 흥미진진한 수학사가 가득 담겨 있다. 숫자가 어떻게 생겨나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 수학사에 길이 남을 수학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배우는 법칙이나 정리는 누가, 어떻게 발견했는지 등 인류사에 길이 남을 수학적 발견과 그 뒤에 감춰진 이야깃거리 등이 주제별로 전개된다.

### 세상을 바꾼 다섯개의 방정식

마이클 길렌 저 / 서운호외 역 / 경문사 / 1997년 / 316쪽 / 8000원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과학적 업적과 이를 성취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살아 있는 과학의 역사이며 위대한 발견이 켜여 있는 이야기 다섯 편이다. 수학에 서투른 독자도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과학의 발전과정이 흥미롭게 전개된다. 고대부터 근세까지 사람들이 갖고 있던 그릇된 인식과 편견 등이 밝혀진다.

### 수학의 스캔들

테오니파파스 저 / 고석규외 역 / 일궁일궁일 / 1999 / 166쪽 / 6000원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수학사 이면의 재미있고 괴이한 이야기를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으며, 유명한 수학자들의 경쟁심과 속임수, 그리고 기행을 통해 그들의 진솔하고도 인간적인 모습을 맛볼 수 있다.

### 수리철학의 기초

버너르드 러셀저 / 임정대역 / 경문사 / 2002 / 266 쪽 / 15,000원

이 책은 원래 초심자를 위해 쓴 입문서이며, 복잡한 논의를 위한 목적으로 쓰여지지 않았다. 수학의 기초론에 관한 철학적 사상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입문서. 수의 정의, 유한성과 수학적 귀납법, 유리수, 실수 그리고 복소수, 선택의 이론과 곱셈에 관한 공리, 명제함수 등으로 구성되었고 수학기초론의 3대 입장인 논리주의, 직관주의, 형식주의의 개요를 소개했다.

## ▣ 수학(나)

### 1. 도형의 방정식

#### 수학의 기교적 해법 (2)

**이주대 교수 전재석 감수/황순현외 2명 역 /1997년 / 253쪽 / 6,500원**

이 시리즈는 단원별 학습법, 즉 “중적인 학습법”에 의하여 각각의 지식을 습득한 학생들에게 “형적인 학습법”을 가르쳐, 그 들 속에 잠재하고 있는 능력을 끌어내어 문제풀이 능력을 배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4. 삼각함수 2) 삼각함수

#### 수학공부 개념있게

**고중숙 저 / 푸른나무 / 2000 / 296쪽 / 10,000원**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차근차근 짚어 주는 수학 지침서이다. 수학의 기초부터 구조론, 집합론, 함수론, 통계에 이르기까지 수학의 전반적인 기초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 웃기는 수학이지 뭐야

**이광연 저 / 경문사 / 2002년 / 288 쪽 / 8000원**

재미있게 배우는 수학이야기이다. 수학에 좀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하여 유머 식으로 엮었다. 신화와 수학, 그리스의 신비, 말이 필요없는 증명 등 54개장으로 나눠 삽화와 함께 수학의 다양성과 재미있는 현상이 실려 있다. 수학에 관한 유머는 물론이고 역사 속의 다양한 수학 이야기로 수학에 관한 관심을 유도한다.

### 4. 삼각함수 3) 삼각함수의 성질

#### 화이트 헤드의 수학에세이

**화이트헤드 저 / 청음사 / 1993 / 236쪽 / 8,000원**

이 책은 수학자체를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다. 수학공부를 정식으로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수학이 무엇에 관한 학문인가, 자연현상에 적용될 때 수학이 왜 필연적으로 엄밀한 사고의 바탕이 되는가 따위를 알리기 위해 쓰였다.

### 대수

#### 이스탄불에서 수학을 배우자

**니카다 노리오 저 / 황소연 역 / 이지북 / 2001년 / 214쪽 / 8500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을 건설한 메소포타미아. 동서 문화의 접점인 그곳의 수학은 어떤 모습일까? 수학의 커다란 두 개 기둥, 인도의 대수와 그리스의 기하학의 뿌리를 찾아보고 수학사와 세계사를 한꺼번에 아우른 책. 이스탄불을 찾아다니며 그에 얽힌 수학의 역사와 수학자의 업적, 수학 문제를 설명하고 그것들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이야기한 책이다.

### 대수 수열

#### 재미있는 영재들의 수학퍼즐

**박부성 저 / 자음과모음 / 2001년 / 260 쪽 / 8500원**

퍼즐리스트가 엮은 수학퍼즐 100선. 이 책의 진가는 독자들의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동시에 깊이 있는 논리적 수학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 수학의 발상법 (3)

**이주대 교수 전재석 감수/황순현외 2명 역 /1997년 / 253쪽 / 6,500원**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그 규칙을 발견하고 추상적인 사실을 구체화하는 것이 사물을 추리하고 해명하는 데 중요하다. 예리한 관찰을 하기 위해서는 주제를 분류, 정리하고 세심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정보가 가득 찬 기호를 구체적으로 써 보는 것 따위가 매우 중요하다.

대수  
수열

생각하는 수학

야노 겐타로 저/ 정구영 역/ 사이언스북스/ 2002년/ 270쪽/ 9000원

수학의 역사를, 세세한 계산이나 기교에 매달리지 않고 생각의 역사이자 개념의 역사라는 관점에서 정리해 본 책. 유사 이전에 인간이 어떻게 수의 개념을 파악해 갔는가 하는 이야기를 시작으로, 그리스 수학, 중세 수학 그리고 17세기 수학의 주된 개념과 원리를 더듬어 봄으로써 수학적 개념과 원리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하  
공간도형

수학 먹는 달팽이

이브망 에르스쿠비치 저/ 문선영 역/ 까치/ 2000년/ 351쪽/12000원

자연과 생활 속에 숨겨진 여러 가지 수학법칙들을 콩트의 형식을 빌려 재미있게 풀어 쓴 수학 교양서이다. 수학에 대한 단순한 소개서가 아니라 수학적 개념과 인류 사상의 발전에 미친 역사적 사실을 함께 소개한다. 이 책은 수학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을 없애면서 황금비, 로그 나선 등 수학과 관련된 여러 개념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아라비안 나이트와 그리스 신화, 소설의 형식을 다양하게 활용해 독자의 흥미를 더해 준다.

사고력을 키우는 수학책

오키베 츠네하루 저/ 안소현역/ 을지외국어/ 2002/ 248 쪽/ 9500원

이 책은 수학의 추상화를 통해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일이 연관되고, 어떤 곳에서 사용하던 방법이 다른 분야에도 적용되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가우스와 아르키메데스 등 위대한 수학자들의 사고력과 친숙한 연구를 예시하여 수학의 본질에 접근하고 수학적인 사고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을 제공하고 또한 그것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수학이란 무엇인가

리차드 쿠랑 저 / 경문사 / 2002 / 342쪽 / 30,000원

초보자와 학자, 학생과 교사, 철학자와 공학자를 위한 이 책은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수학 세계의 초상을 제공하는 수학적 보물의 놀라운 집결체이다. 이언 스투어트 교수가 새로운 단원을 보태어 시대에 맞도록 개정한 제2판은 최근의 수학 발전의 새로운 내면을 보여주었으며, 4색정리, 페르마의 마지막 증명법을 서술하였다.

유클리드의 창:기하학 이야기

레오나르드 블로디노프 저/ 까치/ 2002년 / 318쪽 /12,000원

고대에서 최근 이론에까지 이어진 기하학 발전의 역사를 흥미롭게 설명한 유익한 책이다. 「유클리드의 창 : 기하학 이야기」를 통해 이 책의 저자인 블로디노프는 그리스인의 평행선 개념에서부터 최근의 고차원 공간 개념에 이르는 기하학의 역사를 다섯 번의 기하학 혁명을 통하여 흥미롭고 훌륭하게 안내한다.

기하  
벡터

수학적 발견의 논리

임레 라카토스 저 / 우정호 역 / 이브케 / 2001년/ 322쪽/ 20,000원

이 책은 18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수학사를 역사 발생적으로 분석하면서 수학의 발생이 어떤 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는가를 교사와 학생간의 대화형식으로 논리한 책. 라카토스는 포퍼의 철학적 입장을 수학에 적용해 수학적 지식의 성장을 <증명과 반박>의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확률과 통계  
확률

이상한 나라의 수학

나카타 노리오 / 김예숙 역 / 홍 출판사 / 2002/ 196 쪽/ 9500원

어떤 학문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라고 생각한 수학을 저자는 미스터리의 관점에서 바라본다. 미스터리를 즐기는 미스터리 교수를 따라 중남미 지방을 탐방하면서, 심장형을 작도하고, 달력의 주기를 계산해 보고, 365라는 숫자로 여러 가지 식을 만들고, 닭은 도형을 그리다 어느새 수학이라는 세계에 심취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확률과 통계  
확률**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
**마틴 가드너 저 / 김진권 역 / 푸른미디어 / 2000년 / 240쪽 / 8000원**

이 책에 소개된 것과 같은 수학 게임, 퍼즐, 논리 역설, 어크로스틱 시 등은 어린아이들 특히 소녀를 광적으로 좋아했던 케럴이 그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만들어 낸 것이 대부분이다. 이 책은 젊은이에서 늙은이까지, 게임광에서 전문 수학자까지 모든 사람이 흥미를 가질 케럴의 게임과 수수께끼, 연작시, 일기와 편지 속에서 발견된 그 밖의 흥미진진한 것들을 담고 있다.

**피사의 탑에서 수학을 배우자**
**니카다 노리오 저 / 최현숙 역 / 이지북 / 2001년 / 214쪽 / 8500원**

수학 교과서에서 배운 것들이 일상 생활에 쓰이는 일은 거의 없다. 수학이라는 것은 쓸모 없고 딱딱하기만 한 것일까? 피사의 사탑을 찾아다닌 저자가 그에 얽힌 수학의 역사와 수학자의 업적, 수학문제를 설명하고 그것들이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활용되는 사례를 이야기했다.

**수학자의 신문읽기**
**파올로스 / 김동광 역 / 경문사 / / 320쪽 / 8000원**

우리는 무척이나 많은 숫자들에 둘러싸여 살아간다. 임금인상을 둘러싼 숫자싸움, 선거의 득표수, 은행계좌번호, 나를 나타내는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 어떤 이들은 이런 정량화가 디지털 사회의 본질이라고 주장하기는 하지만, 우리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언뜻언뜻 숫자놀음의 허구적 측면을 발견하게 된다. 아니 꼭 집어 지적하기는 힘들어도 무언가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다. 저자 파올로스는 이 책에서 이런 느낌이 단순한 기우가 아님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숫자를 보면 인생의 답이 보인다**
**조지 샤프너 저 / 이연수 역 / 진명 / 2002 / 261쪽 / 6400원**

우리는 어떻게 태어나,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책은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숫자'에서 찾는다. 특히 골치 아픈 수학 이론이나 방정식 대신 간단한 사칙연산과 아주 쉬운 산술적 사고로 삶의 핵심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길로 안내하고 있다.

**확률과 통계  
순열과 조합**
**수학귀신**
**H.M.엔첸스베르거 저 / 고영아 역 / 비룡소 / 1997년/294쪽/14000원**

독일의 저명한 작가 엔첸스베르거의 청소년을 위한 수학소설이다. 수학을 싫어하는 한 소년이 수학의 원리를 깨우치기까지를 베르너의 삽화를 첨부해 알기 쉽게 수록했다. 이 책의 저자는 놀랍도록 단순한 대화 안에서 수학의 비밀을, 수학의 원리를 끌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단순히 수학의 기본 원리를 제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 내용을 문학적 장치와 교묘하게 결합시키고 있다.

**확률과 통계  
통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통계상식 100가지**
**김진호 저 / 연암사 / 1997년 / 312쪽 / 9800원**

우리는 대부분의 정보가 통계와 수치로 나타나는 현대 사회에 살고 있다. 하지만 숫자 얘기만 나오면 자신없어 하는 사람이 많다. 이 책은 우리가 늘 대하는 신문이나 각종 정보 자료에 나타난 실례를 들어 숫자에 관한 다양한 내용을 쉽고 흥미롭게 풀이하고 있다.

**확률과 통계  
의사결정 과정**
**돈 버는 수학**
**모턴 데이비스 저 / 한승 출판사 / 2002 / 262쪽 / 9,000원**

돈과 관련된 수학을 생동감 있고 실질적으로 소개함으로써 재테크에 대한 우리의 판단력을 크게 향상시켜준다. 아울러, 대출이나 용자를 받을 때 나에게 바람직한 조건을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방법도 다루고 있으며, 직관을 시험하는 즐거운 퀴즈, 이해를 돕는 다양한 사례와 도표, 수학과 논리학의 잡다한 경제적 응용들을 통한 최적의 전략을 제시한다.

해석  
다항함수의 미분법

## 수학의 몽상

이진영 저 / 푸른숲 / 2000년 / 298쪽 / 9800원

기발한 상상력을 통해 수학을 뒤집고, 우리에게 수학의 원리를 쉽고도 재미있게 들려준 책이다. 동화, 소설, 시나리오, 논문 등 형식을 파괴하고 허구적인 전설까지 만들어가며 엄밀함을 자랑하는 수학의 뿌리를 흔들어 놓는다. 수학에 가볍고 유쾌하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다.

해석, 확률, 알고리즘  
수열, 극한개념, 패턴

## 수학교사를 위한 프랙탈 기하

Heinz-Otto Peitgen 역/신인선, 류익찬 역/경문사/1999/ 160쪽/10000원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닮음(프랙탈), 카오스 게임, 복잡도라는 세 개의 단원 아래 각각 주요목표, 개념 및 연계, 수학적 배경, 학습 활동지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학습 활동지로, 각 단원마다 10개 정도의 학습지가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쉬운 방법으로 이들 아이디어를 드러내는 일련의 전략적 활동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게임이론  
기하

## 뷰티풀 마인드

실비아 네이사 / 신현용 역 / 승산 / 2002 / 760쪽 / 18000원

이 책은 1949년 27쪽 짜리 논문 하나로 150년 동안 지속되어 온 경제학 이론을 뒤집고, 신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수혈한 천재수학자 존 내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책은 그의 삶 속에 살아있는 가슴 벅찬 감동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가 무엇보다도 비중을 두고 펼쳐 보인 것은 천재의 '인간 정신'이다. 업적보다도, 그 업적에 이르게 된 천재의 정신적 맥락을 파헤치고 있는 것이다.

해석  
무한

## 무한의 신비

애머 액셀 / 신현용, 승영조 역 / 승산 / 2002 / 301쪽 / 12000원

무한은 무엇이며 어떻게 연구되어 왔는가? '무한'의 개념이 수학사에 어떤 위치로 자리매김 되었으며 수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 개념이 어떻게 증명이 되었는지 탐구한 책이다.

교양  
수학과 음악의  
관련성

## 수학과 음악

에드워드 루스스타인 저 / 경문사 / 2002 / 284쪽 / 16,000원

수학과 음악, 두 예술의 대상에 대한 명확함과 대상의 아름다움이 맞닿음을 학문적이 아닌 예술적인 접근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책은 왜 이러한 연관성이 우연이나 우발적인 것이 아니며, 왜 각 활동의 속성이 지닌 심오한 특성을 드러내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해석  
수열의 극한

## 수학이 나를 불렀다

로버트 카니겔 저 / 사이언스 북스 / 2000 / 406쪽 / 13,000원

이 책의 원제는 'The Man Who Knew Infinity'. 우리말로 '무한(無限)을 알았던 사람'이다. 그 주인공인 인도의 천재 수학자 스리니바사 라마누잔(1887~1920)은 신(神)과 0과 무한 속에서 살다가 서른 셋의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한 사람이다. 라마누잔은 빈번히 시험에서 낙제해 학교를 졸업할 수 없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혼자서 수학을 공부한 라마누잔은 당시 영국 최고의 수학자였던 하디의 도움으로 영국에서 수학공부를 하여 수학 하나로 영국과 세계를 정복한 천재 수학자였다.

알고리즘  
수와 알고리즘

## 게임 개발 수학적 테크닉

가이 W. 벡키 톰슨 저 / 정보문화사 / 2002 / 320쪽 / 13,000원

'무한 게임 우주'를 창조한다는 목표 아래, 난수 생성, 예측 가능성, 확률, 프랙탈 생성 등의 주제를 다루며, 다양한 방법이 모색된다. 또한 프로그래머들에게, 플레이어들의 상상력을 만족시키는 멋진 게임 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최선의 팁과 기법들, 참고 서적 등을 제시하고 있다. 부록 CD-ROM은 알고리즘과 소프트웨어 및 소스 코드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 책의 예제들을 만들고 시뮬레이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의사결정의 최적화  
게임그래프와  
최적화

### 3D 게임 프로그래밍 & 컴퓨터 그래픽을 위한 수학

Eric Lengyel 저 / 정보문화사 / 2002 / 438쪽 / 20,000원

이 책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전문적인 품질의 3D 그래픽 엔진을 개발하는 데 필요할만한 수학적 기법들을 설명한다. 벡터 기하학과 선형 대수 같은 분야의 상당히 기본적인 수준에서 시작해서, 조명과 가시성 판단 같은 3D 게임 프로그래밍의 좀더 고급의 주제들로 나아간다. 특히, 단지 중요한 공식들을 제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식들이 나오게 된 유도 과정들을 제시함으로써 게임 프로그래머들이 사용하는 수학적 도구들에 깔린 원리와 개념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선택과 방법  
세기의 방법

### 20세기 수학의 다섯가지 황금률

John L. Casti 저 / 경문사 / 1999 / 371쪽 / 17,000원

황금률이란 "뜻이 심원하여 인생에서 썩 유익한 잠언"이라는 의미이다. 이 책은 20세기를 빛낸 가장 위대한 수학의 법칙들인 게임이론, 위상수학, 특이점 이론, 계산이론, 최적화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기하(이차곡선)  
포물선, 쌍곡선,  
타원

### 원뿔에서 태어난 이차곡선

남호영 외 저 / 수학사랑 / 2001 / 204쪽 / 8,000원

이차곡선을 알기 쉽게 설명한 이론서로써, 원뿔곡선에의 유래부터 실생활의 응용 예까지를 이론과 더불어 모래를 이용한 실험, 작도, 그림자를 이용한 방법 등의 다양한 접근과 GSP, GrafEq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도형  
선분의 길이

### 타지마할에서 수학을 배우자

나카다 노리오 / 이지북 / 2001 / 214쪽 / 6800원

일상생활에서의 책, 명암, 복사용지, 장롱 등은 가로 세로의 비율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인도인들은 파르테논신전을 어떤 비율로 건축하였을까. 미인의 기준은 어떻게 등 여러 가지의 궁금증을 수학의 황금비를 통해 수학에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

해석  
미분법

### 오일러가 사랑한 수 e

엘리 마오 지음 / 경문사(수학) / 2000년/348쪽/ 20,000원

파이 ( $\pi$ ) 이야기는 학술적으로, 대중적으로 많이 다루었다. 하지만 파이의 가까운 친척뻘인 숫자 e는 그만큼 대우를 받지 못했다. 수학에서의 중심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숫자 e의 역사가 일반 독자들을 위해 기록된 적은 일찍이 없는데 그 틈을 이 책이 메워주고 있다. 이 책은 수학에 대해 별다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일반 독자들을 위해 쉽게 설명했으며, 숫자 e에 대하여 수학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관점에서도 이야기한다.

# 과학

## ■ 물리

### 2. 에너지

#### 1) 힘과 에너지

#### 아인슈타인이 이발사에게 들려준 이야기

로버트 L. 윌크 저/ 이창희 역/ 해냄 / 2001년 / 309쪽 / 8,500원

이발사나 아인슈타인에 대해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아인슈타인이 이발소 의자에 앉아 이발사에게 해주었을직한 이야기를 모은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일상적 현상에 대한 수많은 과학적 호기심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흥미진진한 과학 이야기로 100여 개의 질문에 대한 놀랍고도 명쾌한 대답이 실려있다.

#### 수업시간에 못다 한 신나는 과학이야기

오오츠키 요시히코 / 한울림 / 2000년 / 204쪽 / 7,000원

과학에 흥미를 잃었거나 과학을 좋아하지만 좀 더 가까이 느끼고 싶어하는 많은 중·고등학교 생 독자들을 위해 최대한 과학 수업시간에 배우는 교과 내용 흐름에 맞춘 책이다. 예를 들어 '벼락에게 인체는 금속과 똑같다' 라든지 '당신은 인력 엘리베이터로 몇 kg의 짐을 나를 수 있는가' 와 같이 평소 과학시간에는 접하지 못하는 부분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책이다.

#### 소매치기도 뉴턴은 안다

최상일 / 출판사 한승 / 2002년 / 294쪽 / 9,000원

'소매치기도 뉴턴은 안다.' 이 책은 물을 끓일 때 뚜껑을 덮는 이유, 날 달걀과 삶은 달걀을 구별하는 방법, 별까지의 거리를 재는 방법 등등 우리 주변에 늘 존재하는 물리학의 법칙들을 일화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 자석은 마술쟁이

테리 디어리, 바바라 앨런 저/ 송현옥 역 / 주니어김영사 / 2002년/138쪽 / 3900원

내용 중간 중간 과학 실험을 끼어 넣어 마치 어린이 맥가이버를 보는 듯 하다. 이 책에서는 정전기와 전자석 등 물리의 전기 분야에 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되어 실험도 함께 소개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책이다.

#### 놀이공원에 숨어있는 과학

테리 디어리, 바바라 앨런 저/ 송현옥 역 / 주니어김영사 2002년/ 143쪽/ 3,900원

뉴턴의 법칙, 마찰력, 공기의 저항, 갈릴레이의 과학이야기 등 여러 가지 역학에 관하여서 꾸러기 가족들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실어 놓았다. 또한 중력, 도르래만들기, 달걀로 하는 관성 실험 등 여러 가지 역학에 관련된 실험들이 함께 수록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책이다.

2. 에너지  
1) 힘과 에너지

전기 없이는 못살아

테리 디어리, 바버라 앨런 저/ 송현옥 역/ 주니어김영사 2002년 / 143쪽 / 3,900원

전기에 관한 내용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정전기, 번개와 전기, 라이덴 병, 전기회로, 도체와 부도체 등 여러 가지 내용과 실험이 함께 제시되어 있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전기에 대하여 보다 흥미롭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는 책이다.

로빈슨, 에버랜드에 가다!

박영수 저/이우일 일러스트/뜨이들/ 2001년 / 174쪽 / 7,900원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곳, 한번 가면 또 가고 싶어하는 곳. 놀이공원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꿈과 환상의 공간이다. 또한 놀이공원은 호기심의 공간이기도 하다. 롤러코스터는 어떻게 연료도 없이 그렇게 빨리 달릴 수 있을까? 범퍼카는 어떤 원리로 움직이는 걸까? 등등..... 언뜻 생각하면 뭔가 엄청 복잡하고 어려운 과학이 숨어 있을 것 같지만 이 책을 통해 간단히 이해할 수 있게 된다.

2. 에너지  
1) 힘과 에너지  
2) 전기 에너지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물리의 세계 1, 2

토마스 디징어 저/ 권세훈 역 / 에코리브르 / 2002년 / 199 쪽 / 11,000원

어린 안과 그의 할아버지 그리고 도중에 만나는 그들의 친구들과 떠나는 물리학의 다양한 기적을 경험하는 모험 여행이다. 물리학의 법칙·공식·가설 등의 이론을 다룰 때 무엇보다도 우리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현상들을 간단하고 재미있는 실험을 통해 학생 스스로 생각하고 원리를 터득할 수 있도록 해준다.

2. 에너지  
2) 전기 에너지

전기가 찌릿찌릿

닉 아놀드 저/이중호 옮김/주니어김영사/ 2001년 / 165쪽 / 3,900원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으로 과학에서 물리, 또한 물리에서 전기를 꼽을 것이다. 이 책은 이렇게 전기 분야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전기의 발생 원인에서부터 전기에너지에 이르기까지 재미있으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놓았다고 할 수 있다.

2. 에너지  
1) 힘과 에너지,  
2) 전기 에너지,  
3) 파동 에너지

노벨상이 만든 세상 - 물리학

이중호 저/ 출판사 나무의 꿈/ 2002년/ 326쪽/ 10,000원

시대가 바뀔수록 인간들이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건 날로 진보해가고 있는 과학 기술의 공이 크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과학 기술의 발전을 한층 가속화시키고 있는 장본인이 노벨상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것이다. 이 책은 물리학 분야의 노벨상 수상작과 그 작품들이 세상에 끼친 영향을 다룬 '노벨상의 사회사'라 할 만하다.

물리학의 세계:그림으로 보는 물리이야기6

박찬, 임재호, 조경현 공저/ 교학사/ 2002년/ 431쪽/ 20,000원

역학, 열적 성질, 전자기와 빛의 성질, 현대물리의 기초가 되는 개념, 현대물리의 여러 분야를 이야기식으로 전개하여 쉽게 큰 부담없이 읽어 내려가도록 하였다. 한 페이지마다 6개의 칸 안에 그림과 본문을 함께 엮어 마치 만화 같은 시각적 효과를 내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그림을 통해 물리를 친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대부분의 그림을 손으로 직접 그렸다.

재미있는 물리여행1- 역학, 유체, 열, 진동

루이스 엡스타인 등저/백운선 역/ 김영사 / 1988년/ 270쪽/ 5,500원

"Thinking Physics"라는 원제목이 시사해 주듯이 문제를 읽어 본 다음 바로 해답을 펼쳐 보는 게 아니라, 문제의 핵심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고, 그 해답을 유도해 내려 노력하는 과정에서 단순한 물리 원리의 습득만이 아니라 독자에게 과학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생각'이 중심이 되는 생활 습관까지도 길러준다.

2. 에너지

- 1) 힘과 에너지,
- 2) 전기 에너지,
- 3) 파동 에너지

물리 가볍게 뛰어넘기

**최명희 저/ 동녘/ 1997년/ 278쪽/ 6,000원**  
 보기 드물게 여성 저자가 집필한 과학 도서인 만큼 꼼꼼하고 세심하게, 친절하고 재미있게 예까지 들어가면서, 꼭 엄마 품에 안겨 동화책을 읽는 듯 유년기의 경험들과 연결 지어 물리를 생각하게 해 주는 책이다.  
 운동량과 회전운동, 자기와 전자기 유도와 같은 어려운 개념들을 “하늘을 향해 뿌리 내리는 식물”, “전기 시집 보내기” 등의 재미있는 이야기로 엮었다.

도구와 기계의 원리

**데이비드 맥컬레이 글, 그림 / 박영재 · 박은숙 공역 / 서울문화사 / 2002년/ 400쪽 / 29,800원**  
 누구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쉽게 설명하기는 어려운 일상도구들의 작동원리를 적고 있는 책이다. 각 장의 처음에는 매머드와 관련한 짧고 유쾌한 이야기로 그 원리에 대한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퀴즈로 보는 물리이야기

**박성식 저/ 도솔 / 2002년/ 287쪽 / 7,900원**  
 학교에서 배우는 물리의 큰 틀에서는 벗어나지 않은 채 이 책의 장점이야. 즉 고전 물리를 중심으로 진행해 나갔다.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물리라면 그저 어렵거나 지루하며 딱딱하게 여기는 현실을 고려하여 평소 학생들이 재미있어 하던 예를 문제로 만들어 토론식으로 꾸며 놓고 있다.

재미있는 물리실험

**가리펠슈타인 저/ 장명록 역/ 팬더북 / 1997년/ 286쪽 / 6,000원**  
 우리들의 생활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간단한 도구나 사물을 이용하여 손쉽게 실험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을 골라 알기 쉬운 설명을 곁들여 이야기를 이끌어 가고 있다. 한 마디로 말해서 이 책은 까다롭다고 생각되는 물리학을 간단한 실험으로 일깨워 주는 재미있는 이야기책이다.

고교생이 알아야 할 물리 스페셜

**신근섭, 이희성 공저 / 신원문화사/ 2001년/ 294쪽 / 8,000원**  
 개념 정리가 체계적으로 비교적 잘 되어있고, ‘운동의 법칙’, ‘물체의 무게’, ‘에너지의 변환과 보존’, ‘자석 이야기’등 여러 가지 테마로 구분, 물리 학습에 관건이 되는 핵심 내용만을 실어 수험생들이 물리에 자신감을 갖도록 했다. 고교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참신하게 편집되어 있고, 그림과 일러스트를 통해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아인슈타인 뛰어넘기

**과학동아편집부/ 이커데미서적/ 1998년/ 224쪽/ 9,800원**  
 첫 부분에 빛과 시간의 개념을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하며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던 사고의 틀을 깨고 있다. 블랙홀, 우주의 대폭발 이론, 입자물리학, 통일장이론 등의 내용이 고등학생들에게 다소 이해하기 힘들고 생소한 면이 있지만, 제 6부 통일장 이론에서 “힘은 장(field)으로 표현된다”를 읽어보면 장에 의한 힘, 전자기파에 대해 고등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았다.

쉽고 재미있는 과학의 역사 1

**에릭 뉴트 저/ 이민용 역/ 이글리오/ 1998년/ 224쪽 / 7,000원**  
 과학사 책은 자연과학의 원리를 배우는 책이 아니다. 과학사를 통해서 합리적인 사고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를 배우며 자기 생활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역사를 통해서 잘된 것은 더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은 절대 되풀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책에서는 과학자들이 어떻게 합리적인 사고를 했으며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는지 등이 잘 설명되어 있다.

2. 에너지  
 1) 힘과 에너지,  
 2) 전기 에너지,  
 3) 파동 에너지

## 쉽고 재미있는 과학의 역사 2

에릭 뉴트 저/ 이민용 역/ 이글리오/ 1998년/ 224쪽 / 7,000원

‘국내에서 첫 출간된 청소년용 과학사’라고 일컫는 이 책은 탈레스에서 빅뱅 이론, 양자 물리학, 유전 공학까지 끝없는 진리 탐구의 역사를 풍부한 사진 자료와 이야기로 읽는다. 과학사 책은 자연과학의 원리를 배우는 책이 아니다. 과학사를 통해서 합리적인 사고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는가를 배우며 자기 생활에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알짜배기 과학상식

서울과학고교사 저/ 진선출판사/ 1995년/ 218쪽 / 6,500원

기초과학, 시사과학, 생명과학, 생활과학, 우주과학으로 나누어 멀게만 느껴지던 과학을 생활 속에서 쉽게 느낄 수 있는 과학적 현상을 이용하여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이 아닌 듯 쉽게 소개하고 있다.

## 아인슈타인이 이발사에게 들려준 이야기

로버트.윌크 저/ 이창익 역/ 해냄/ 2001년/ 309쪽 / 8,500원

과학에 대한 예비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이발사에 관한 책도 아니고, 아인슈타인에 대해 다루고 있지도 않다. 책제목처럼 이 책은 일상의 과학,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발소 의자에 앉아 이발사에게 해주었을직한 이야기들을 모은 것이다. 이 위대한 과학자에게는 아무 것도 아닌 일이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아주 궁금한 현상들의 설명인 것이다.

## 재미있는 물리여행 2

루이스 엠스타인 저/ 백운선 역/ 김영사/ 1988년/ 522쪽 / 4,300원

계산이나 수식으로 가득차서 어렵고 지루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딱딱한 물리 이론을 일상 생활 속에서 흔히 경험하는 현상을 예로 들어 알기 쉽고 재미있게 해설한 문답식 물리학 입문서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왜 그럴까?라는 의문을 가져봄 직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들이 많이 나와 있다.

## 만득이의 물리귀신 따라잡기 1

이궁주복 글, 그림/ 도서출판 한승/ 1998년/ 204쪽/ 6,000원

과학을 좋아하고 관심 있는 중학생, 물리를 잘 해 본 적이 없거나 계산 문제는 잘 푸는데 수능 문제는 잘 못 푸는 고교생, 통합 교과형 논술 고사를 준비하는 입시생, 물리가 전공은 아니나 자연 현상에 호기심을 갖고 있는 대학생이나 일반인들을 위한 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물리를 재미있고 쉽게 풀이했다.

## 만득이의 물리귀신 따라잡기 2

이궁주복 글, 그림/ 도서출판 한승/ 1998년/ 202쪽/ 6,000원

물리 공식을 외워 그 공식의 틀에 맞는 문제만을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 공식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왜 그런지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물리를 잘 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일반 교과서나 참고서와는 다른 느낌을 주기 위해 저자는 ‘만득이와 귀신’을 등장시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대화를 통해 차근차근 자연 법칙과 연결시켜 준다.

## 눈으로 보는 물리

후지이 키요시 등 저 / 명화남 역/ 이카데미서적/ 1998년/ 327쪽/ 6,000원

뉴턴 시대와는 달리, 현대에 와서 우리들은 물리학 이론에 기초를 둔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문화권에 속해 있다. 따라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 사람과 자연의 관계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 2. 에너지

- 1) 힘과 에너지,
- 2) 전기 에너지,
- 3) 파동 에너지

## 사회 속의 과학, 과학 속의 사회

이관수 · 오동훈 저 / 한샘출판사/ 1995년/ 217쪽/ 5,500원

과학사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이 결코 사회와 유리된 것이 아니며, 뉴턴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몇몇 천재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져 온 것도 아님을 알 수 있다. 과학의 진보에는 그 시대의 정치·경제·사회의 여러 측면들이 깊이 관련되어 있으며, '무명'의 수많은 과학자들의 땀과 노력이 스며 있음을 알게 된다.

## 불가사의한 과학나라 여행

구가 가스토시 · 사쿠마 이사오 저/ 출판사 자음과 모음/ 2000년/ 209쪽/ 8,500원

생활 속의 작은 물음표에서 출발해 여러 가지 다양한 과학의 문제들과 아직도 풀리지 않는 신비한 현상들을 쉽게 풀이함으로써 우리에게 궁금증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

## 과학원리로 떠나는 창의력 여행

송은영 저/ 출판사 한울림/ 1998년/ 224쪽/ 7,000원

생활 속의 작은 문제에도 창의력은 발휘될 수 있다. 창의력은 작은 문제에 시작되지만 세상의 모습을 바꿀 수 있을 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창의적인 발상은 과학과 만나야 비로소 세 빛을 발한다.

이 책에 소개된 창의적 발상들은 학생들에게 자유로운 사고와 참신한 발상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재미와 참신한 세계로 안내할 것이다.

## 내가 듣고 싶은 과학교실

데이비드 엘리엇 브루디 &amp; 아놀드 R. 브루디 박사/출판사 가람기획/ 2001년/ 375쪽/ 10,000원

이 책은 르네상스 시대부터 20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의 과학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7가지 발견과 그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노력한 비범한 과학자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중력과 물리학의 기본법칙, 원자의 구조, 빅뱅, 우주의 탄생, 세포와 유전학 등 물리학, 화학, 생물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기초과학을 다루고 있으면서도 수식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 최경희 교수의 과학아카데미

최경희 저/ 동녘/ 2000년/ 250쪽/ 8,000원

이 책은 STS 교육철학에 바탕을 두고 이제껏 수업시간에 생각해 보지 못했던 과학의 다양한 측면을 함께 생각해 보고 과학과 가까워지고 과학을 직접 나 자신과 연관지어 활용해 보자는 의도에서 쓰여졌다.

즉, 끊임없이 생각할 거리를 제공하여 과학을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살아있는 과학책이라고 할 수 있다.

## 사고력을 기르는 과학아카데미

다나카 미노루 저/ 한울림/ 1998년/ 224쪽/ 6,000원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여러 문제를 과학적 개념으로 쉽게 풀이한 교양 과학서로서 과학사에서 등장하는 수많은 발명과 발견 이야기, 그리고 개념들을 88개의 퍼즐로 해결할 수 있게 한다. 역학, 운동, 빛, 전기, 소리 등 결코 가볍지 않은 주제를 재치있게 다룬 점이 돋보이는 책이다.

## 해리포터 사이언스

정장훈 · 이정모 저/ 휘슬러/ 2002년/ 231쪽/ 12,000원

'해리포터 사이언스'는 소설이나 영화의 형태로 포장된 마법의 세계를 현실의 높이에서 과학의 눈으로 쉽게 엮어 낸 "머글의 마법서"다. 우리가 평소 어렵게만 느껴졌던 과학의 많은 부분을 해리포터의 마법과 비교하면서 설명해 놓은 덕분에 평소 과학에 그리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과학의 원리와 실재를 깨닫게 된다.

2. 에너지

- 1) 힘과 에너지,
- 2) 전기 에너지,
- 3) 파동 에너지

아인슈타인도 몰랐던 과학이야기

로버트L.윌크 저/ 해냄/ 1998년/ 326쪽/ 8,000원

우리 생활주변에서 갖게 되는 의문과 호기심, 과학적 현상을 알기 쉽게 해설한 저서이다. 흥미 있는 과학이야기, 비누는 때를 어떻게 알아볼까, 뚜껑이 닫힌 냄비와 열린 냄비, 음식의 칼로리는 어떻게 측정할까, 파도의 비밀, 냉동실에서 음식이 마르는 이유, 물고기도 잠수병에 걸릴까, 우주의 영구기관 등 모르고 있던 과학의 세계를 명쾌히 해설했다.

생활속의 물리이야기 1, 2

김상수 저/ 자작B&B/ 1999년/ 216쪽/ 7,000원

전반적인 물리 분야를 폭넓게 다루고 있으면서도 생활 속의 의문들을 알기 쉽고 재미있게 해설함으로써 과학적인 사고의 지평을 넓혀 줄뿐만 아니라 기초적인 과학의 세계로 깊이 있게 안내 해 줄 것이다. 물리를 재미없는 과목으로만 생각하는 중고생들에게 추천해 줄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과학사 X파일

최성우 저/ 사이언스북스/ 1999년/ 331쪽/ 8,000원

과학저널리스트인 저자가 펴낸 이 책은 이처럼 과학사 이면에 감추어진 진실을 들춰낸 대중 과학서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그동안 잘못 알려진 과학이론, 부풀려지거나 미화된 과학자들의 업적, 우연과 실수가 빚어낸 위대한 발명 등에 얽힌 얘기를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다.

뜯어봅시다

과학동아편집부 저/ 아카데미서적/ 1998년/ 222쪽/ 9,800원

부담감 없이 생활주변의 물건의 작동원리를 과학적으로 다양한 사진과 알기 쉬운 필체로 설명하고 있다.

롤러코스터의 회전-에너지보존법칙과 원심력, 바이킹의 낙하-무중력과 가속도, 범퍼카의 충돌-작용과 반작용등은 교과서 에너지 단원 중에서 힘과 운동에너지와 관련이 많다.

과학의 천일야화

필립 블랑제 저/ 문신원 역/ 이글리오/ 2000년/ 342쪽/ 8,500원

'천일야화'의 틀을 그대로 본뜬 과학교양서. 샤라자드가 매일 밤 학문, 특히 과학 분야에서 있었던 중요한 지적 주제들을 한 편씩 들려준다. 진(지니)과 샤자만 왕, 왕의 딸 이르바나, 신드바드, 알라딘과 '나'는 양탄자를 타고 공룡 시대를 탐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자 속으로 들어가보기도 한다.

세계를 변화시킨 12명의 과학자

스티브파커 저/이중호 옮김/두산동아/ 2001년/ 295쪽 / 9,800원

오랜 옛날부터 세상을 놀라게 한 위대한 발명과 발견들이 오늘의 첨단 과학 시대를 탄생시켰다. 이 책은 사회 여러 분야의 권위자들로부터 의견을 물어 12명의 위대한 과학자를 선정하여 그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펠레리만의 물리학 강좌1

야콥 펠레리만 저/이성배 펴냄/팬더북/ 1995년/ 288쪽 / 6,000원

이 책의 저자인 펠레리만은 명탐정 홈즈와 같은 통찰력을 가지고 사물에 접근해 물리학적으로 명쾌하게 문제를 풀어 보임으로써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매력을 느끼게 한다.

단지 딱딱한 과학도서를 재미있게 읽도록 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해주며, 물리의 전반적인 영역을 활용하여 실생활 속의 물리를 느끼게 해준다.

## 2. 에너지

- 1) 힘과 에너지,
- 2) 전기 에너지,
- 3) 파동 에너지

## 에너지와 엔트로피

G.N.일렉시에프 저/이병석 외 옮김/일빛/ 2001년/ 278쪽 / 10,000원

역학적, 전자기적, 화학적, 열적인 운동 형태에 대한 발견과 연구가 있는 뒤 이 같은 운동 형태를 정량화하는 일반적인 척도로써의 에너지를 보여줌으로써 물질계의 변화가 에너지의 전이 또는 에너지 형태의 전환을 동반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준다.

## 알짜배기 과학공식

서울과학고 선생님들 지음/ 진선출판사/ 1996년/ 405쪽 / 8,500원

과학의 이론이나 법칙을 장황하게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간략하게 수식을 써서 표현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론이나 법칙에 대한 공식이다. 따라서 하나의 공식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으므로, 그 공식을 이해하는 것은 곧 자연 현상을 포괄적이면서도 함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된다.

## 신나는 물리 실험

신나는 과학을 만드는 사람들 저/한샘출판사/ 1995년 / 207쪽 / 5,500원

생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로 실험을 한다면 부담 없이 과학적 원리에 접근할 수 있고 과학이 재미있게 느껴질 것이다.

이 책에서는 이렇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실험을 통해 운동의 원리, 힘, 에너지, 전기와 자기 등을 설명하고 있다. 교과서의 에너지 전체 부분의 이해에 두루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 2. 에너지

- 4) 에너지의 전환과 보존

## 에너지 대안을 찾아서

이필렬 저/ 장작과비명사/ 1999년/ 271쪽/ 9,000원

이필렬 교수는 학자의 사회참여활동의 일환으로 원자력발전의 위험성과 에너지 문제에 관해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글을 발표해왔다. 『에너지 대안을 찾아서』에 실린 여러 글들도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금까지의 단순한 주장이나 논의에서 벗어나 문제를 좀더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원자력을 넘어선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찾으려는 의도에서 씌어졌다.

## 미래의 에너지

에머리르빈스, 페터에니케 저/ 임성진 역/ 생각의나무/ 2001년/ 397쪽/ 15,000원

인간과 환경을 위한 완전한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모색하면서, 세계적 차원으로 이행될 수 있는 개별적인 사례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대책 수립의 비전”이라는 이론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재생 에너지 투입을 강화시킴으로써,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 생태적으로도 수용할 수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매력적인,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담은 녹색전략이다.

## 에너지 민주주의

이이다데츠나리 저/ 제진수 역/ 이후/ 2002년/ 253쪽/ 13,000원

한국은 2000년 말 기준으로 세계 7위의 핵발전 대국이다.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40.9%로, 핵은 최대 전력 공급원이 되었다.

‘에너지 민주주의’는 북유럽 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환경 중심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인 탈원자력, 탈화석연료, 탈중앙집권적 정책의 흐름을 소개한다.

## 2. 에너지

## 해리포터의 과학

로저하일필드 저/이한음 역/ 해냄/ 2002년/ 398쪽/ 12,000원

전세계에 판타지 열풍을 일으키며 마법의 세계를 활짝 연 해리 포터. 이제 마법의 성 호그와트를 접수한 머글 과학자들이 물리학, 생물학, 유전학 등을 총동원해 해리 포터의 비밀을 파헤친다.



## ▣ 화학

### 3. 물질

#### 1) 전해질과 이온

#### 살아있는 112가지 원소에 얽힌 재미있는 화학상식

오미야 노부미쓰 저/ 오근영 역/ 맑은장/ 2001년/ 264쪽/ 7,000원

전기분해의 역사적 사실을 자연스럽게 설명 해주었으며 2천년 전에 발견된 바그다드 전지 등을 설명 해주어 과학에 들어 있는 개념들에 흥미를 가질 수 있게 하였다. 이 책은 인간과 물질 사이에 드러난 화학의 꿈을 펼쳐 보이게 많은 내용을 담았다.

#### 즐거운 화학학교

마노루프 · 라자루프 · 라이루프 저/ 나라사랑/ 1991년/ 239쪽/ 3,500원

화학사 중에서 근대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주제의 흐름을 따라 실감나게 소개되어 있다. 따라서 화학은 너무 딱딱하게 생각해서 흥미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다시 화학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 줄 것이다.

#### 화학 이제 쉽게 배웁시다

현종오저/ (주)우리교육/ 1995년/ 262쪽/ 5,000원

화학의 중심이 되는 지식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 중점을 두고 서술하고 있어서 기본적인 화학의 지식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함께 추적해 들어가면서 상상력을 키울 수 있게 해 준다.

#### 끝내주는 원자 이야기

정원상 저/ 미+미/ 2000년/ 179쪽/ 6,500원

쉽게 친숙해질 수 있도록 책의 내용이 꾸며져 있으며 원자에 대한 물리를 자세히 소개하려면 수식을 많이 쓰거나 어려운 개념을 도입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주제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야기들을 삽화와 함께 쉽게 설명하여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 연금술 이야기

엘리슨 쿠더트 저/ 박진희 역/ 민음사/ 1995년/ 353쪽/ 8,000원

연금술 이론의 종교적인 배경, 신화적인 측면, 야사, 연금술과 화학과의 관계, 연금술의 대략적인 발전과정 등을 이야기 식으로 재미있게 써 놓았으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책을 넘길 수 있다.

#### 알고 보면 너무나 오묘한 원자의 세계

요네야마 마사노부 저/성지영 역/ 이지북/ 2002년/ 238쪽/ 8,500원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 입자 원자. 그 원자는 과연 어떻게 이루어져 있을까? 또 어떻게 결합하여 물질을 이루는 것일까? 원자의 결합, 이온, 수용액의 전기 분해, 산성과 염기성 등 원자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준다.

#### 물의 세계

요네야마 마사노부 저/ 홍성민역/ 이지북/ 2002년/ 264쪽/ 8,500원

물의 근본 원리를 재미있고 쉽게 알 수 있도록 학생들과 선생님 사이의 문답식으로 꾸며져 있고 또 이 책 속의 주인공중 한 명인 H<sub>2</sub>O를 성립 가능하게 한 화학자 아보가드로의 일화를 마치 그 시대 속에서 지켜보듯이 생동감 있게 나타내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교양 과학책이다.

### 3. 물질

#### 1) 전해질과 이온

#### 몸 속 원소 여행

**요시자토 가쓰토시 저/ 현종오역/ 이카데미서적/ 1998년/ 205쪽/ 5,000원**

생명은 아주 복잡하게 작용하지만 그 기본은 물질이며,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인 29종의 생체 원소에도 원소로서의 기원이 있다. 생물은 환경으로부터 원소를 받아들여 몸을 구성하고 원소는 끊임없이 몸 속으로 들어가고 나오기를 반복한다. 이 책에서는 원소의 이와 같은 여행 중에서 미량 원소의 여행을 거시적 또는 미시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 생활 속의 화학

**W. 릭스너G. 빅너 저/ 박택규 역/ 전파과학사/ 1992년/ 263쪽/ 3,500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귀중한 그림이 미술전문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분석화학자가 가짜임을 밝혀냈다면, 트로이 전쟁과 청동기, 벤젠의 구조와 거북 등 그리고 나일론과 페니실린 발견 뒤에 얽힌 이야기, 과학 소설을 인용해서 미래 사회를 예측하는 등 매우 수준 높은 내용을 흥미있고 쉽게 서술한 책이다.

#### 입체로 읽는 화학

**이인호 저/ 자작나무/ 1994년/ 295쪽/ 5,000원**

기나긴 인류의 역사를 거치는 동안 수많은 화학자들은 모든 물질은 '원소'라는 작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혀내고 갖가지 자연물에서 원소를 하나 둘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학생들은 주변 생활에서 출발하여 인간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이 과학의 진실임을 보여주고 치밀한 탐구력과 인내가 과학의 정진임을 일깨워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화학의 첫걸음

**사키가와노리유키 저/ 김동훈 역/ 이카데미 서적/ 1999년/ 282쪽/ 6,000원**

화학은 물질의 성질과 구조 및 그 변화를 중심으로 다루는 학문이다. 이 책에서의 내용은 물질의 미세구조에 초점을 두고 원자 및 분자의 구조와 화학 결합의 기본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였으며 기초적인 과학 상식만 있으면 누구나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민 책이다.

#### 생활 속의 화학이야기 - 1

**김상수 저/ 크레파스/ 2000년/ 223쪽/ 8,000원**

원소들이 어찌하여 어느 시기에는 많이 발견되고 어느 시기에는 적게 발견되었을까? 또한 원소는 왜 19세기에 많이 발견되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의 선조들의 이야기와 세계의 인류가 생활 속에서 또는 우연히 창조적인 노동을 통하여 원소를 발견한 역사를 짚막하면서도 재미있게 엮었다.

#### 신기한 화학매직

**야마자키 이키라 저/ 임승원 역/ 전파과학사/ 1992년/ 203쪽/ 3,500원**

책을 많이 읽으면 좋다. 그러나 이 책은 읽기만 한다면 별로 재미가 없을 것이다. 이 책은 반드시 부엌이나 슈퍼마켓이나 문방구, 약국에서 재료를 구입하여 실험을 해보면서 화학의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책이다. '편리한 만큼 위험을 알고 타라'라는 책의 머리말 속의 내용이 인상적이다.

#### 이온 인터뷰

**요네야마 마사노부 저/ 현종오 역/ 이카데미 서적/ 1997년/ 264쪽/ 6,000원**

책의 내용 구성은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의 근원인 동시에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바탕이 되는 물의 특성과 이온의 성질을 이해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저자는 생활에서 접하기 쉬운 현상을 보기로 들어 대화체로 설명하는데 대화 중에 학생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내용을 등장인물이 질문해주기 때문에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3. 물질

1) 전해질과 이온

화학반응 매끄러운 충돌

최숙영 저/ 성우/ 2002년/ 178쪽/ 12,000원

월간 '과학동아'를 발행하는 동아사이언스의 최초의 단행본. '과학'이라는 분야에서 풍기는 어려움과 딱딱함을 적극 배제하고, 일상에 살아 숨쉬는 생생한 과학을 전달하기 위해 현직 교사들과 전문 연구자들이 엮은 '보는 과학책'이다. 긴 설명을 생략하게 만드는 다양하고 풍부한 사진과 일러스트는 최첨단의 지식을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알고 보면 쉬운 화학반응식

요네야마 마사노부 저/ 송성호 역/ 이지복/ 2002년/ 231쪽/ 8,500원

이 시리즈는 학생 시절 암기는 서투르고 시험 공부는 질색이어서 성적이 좋지 못했지만 실험이나 만들기를 좋아했던 저자가 자신과 같은 독자들을 위해 쓴 책이다. 화학이란 분야를 식으로 정리하기보다는 그 과정과 과정 중에 나타나는 모든 반응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꿈의 신소재가능성 고분자

다케모토 기이지 지음/ 전파과학사/ 1991년/ 171쪽/ 2,500원

고분자 화학이 만들어 내는 제품이 어떻게 폭넓은 고성능, 고기능의 재료로 될 수 있는가를 주위의 구체적이 예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소개하며 또 고분자 재료의 연구 개발이 어떻게 단백질 공학이나, 컴퓨터 그래픽 등의 새로운 기법의 도움을 받아서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하려고 하는가도 나타난다.

3. 물질

2) 산과 염기의 반응

그림으로 이해하는 열역학

小暮 陽三 저/ 성안당/ 1997년/ 197쪽/ 7,500원

열역학은 에너지와 엔트로피를 두 축으로 한 학문이다. 에너지를 봐도, 고등학교에서 배운 역학이나 전자기학의 에너지와는 상당히 사정이 다르다. 엔트로피와 얽혀서, 그 때 그 때의 조건에 따라, 모습을 바꾸고, 형태를 바꿔, 여러 가지 종류의 에너지가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난해한 대명사로 된 엔트로피를 만화를 이용해서 쉽게 설명하였다.

알고 보면 신기한 열의 정체

요네야마 마사노부 저/ 이지복/ 2002년/ 227쪽/ 8,500원

열은 일상 생활에서 쉽게 만나게 되는 현상이면서 물리 화학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열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가 잘 되어 있으며 적절한 예들을 일상생활에서 찾아 이해가 쉽다.

화학이 좋아지는 책

요네야마 마사노부 저/ 권동숙 역/ 전파과학사/ 1987년/ 235쪽/ 2,500원

해마다 수만 명의 고교생이 화학이라는 과목과 씨름을 하게 되지만, 그 중의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화학공부에 싫증을 느끼고, 심지어는 화학기피증에 걸려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학생들에게 어디 한번 화학에 도전해 보자는 마음을 되찾게 할만한 책이라 생각한다.

쉽게 배우는 무기화학

야마자키 아미라 저/ 편집부 역/ 대광서림/ 1994년/ 155쪽/ 6,000원

이 책은 무기화학의 세계가 얼마나 광범위한지, 무기화학과 관련된 자연현상은 무엇이며 이 용법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다. 이 책에서는 많은 용어들을 그림을 곁들여서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책장을 훑 훑 넘기다 보면 이후에 접하게 되는 여러 화학강의 등에서 전문용어에 겁먹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

### 3. 물질 2) 산과 염기의 반응

#### 油脂化學의 智識

原田一郎 저/ 편집부역/ 機電研究士/ 1994년/ 168쪽/ 7,000원

유지의 생산·판매에 종사하는 실업인 및 앞으로 식품화학, 유지화학의 문을 뚫고 나아가려고 하는 학생에게 유지화학의 기초지식을 습득하는데 유용하다.

#### 생활은 화학이다

전장림 저/ 知와 사랑/2000년/ 192쪽/ 8,000원

화학에 입문하는 단계에서 화학에 흥미를 갖게 하지 못하면 많은 학생들이 화학을 기피할 것이고 우리는 화학이 주도할 새 시대에서 뒤쳐질 것이다. 이제까지 화학이 환경을 오염시켜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공해를 해결하는 것도 화학의 영역이다. 화학에 대한 흥미와 필요성의 인식, 이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 생활이 담긴 화학 에세이

적병순, 강성주 공저/ 대한고과서/ 1999년/ 249쪽/ 7,000원

산과 염기의 종류와 중화반응을 개념적으로만 설명하거나 소개하지 않고 생활 주변의 산과 염기로 소개 하였다.

특히 이 책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화학적 현상을 소재로 삼아 화학 상식에 대한 간결한 설명과 그에 얽힌 이야기들을 모아 엮었다.

#### 재미있는 화학 과학 탐구

J·P 반클리브 저/ 김도옥 역/ 미래사/ 1993년/ 232쪽

재미있는 화학 실험들로 이루어져 있어 “화학도 재미있다”, “화학교육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이다”, “화학은 탐구 교육이다”란 생각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화학은 어렵고 딱딱하다, 화학은 배우면 배울수록 재미가 없다는 생각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화학재치문답

요네야마 마사노부 저/ 박택규 옮김/ 나라사랑/ 1994년/ 220쪽/ 3,500원

알 듯 모를 듯한 우리 주변의 화학 현상 100가지를 비슷한 것과 비슷하지 않은 것을 대비시키는 방법으로 쉽고 재미있게 풀이한 상식 문답집으로 화학을 재미있게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수업 중에 화학에 대한 이야기 자료도 많이 있다.

### 3. 물질 3) 반응 속도

#### 화학이 싫어지는 사람들을 위한 책

요네야마 마사노부 저/ 김범성 / 이카데미 서적/ 243쪽/ 6,500원

우리가 어렵게만 생각해 왔던 화학의 개념들과 법칙들을 이해하기 쉬운 말로 ‘번역’해 주는 책이다. 우리에게 친숙한 예와 비유를 통해 딱딱한 화학의 개념들을 소화하기 쉽게 만들어 주고 있다. ‘화학이란 어려운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이 책을 차근차근 읽다 보면 어렵고 짜증나는 것으로 여겼던 화학의 개념들이 어느 사이 친근하고 재미있는 것으로 보이게 되리라 믿는다.

#### 약사는 약을 안먹는대요

하리자끼 유지 저/ 김극진 역/ 가서원/ 1992년/ 272쪽/ 4,800원

인간의 체질과 기질은 끊임없이 변하며 건강법도 사람과 시간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자연 치유력, 자가진단, 식이요법, 호흡법, 배설법, 정신건강, 건강 강화법, 한방요법, 침구요법, 단식요법 등 여러 가지 의학적 사실과 예들을 통해 자신의 건강비결을 일상생활 속에서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 설명하고 있다.

### 3. 물질 3) 반응 속도

#### 에피소드과학사(화학이야기)

A·셋클리프 저/ 조경철역/ 우신사/ 1991년/ 281쪽/ 3,800원

실험실이나 화학식만이 과학의 내용일 것이라는 우리의 왜곡된 상식을 바로 잡고 과학의 역사에 숨겨진 뒷얘기들과 여러 일화를 재미있게 구성하였으며 또한 진리에의 갈증을 풀기 위해 일을 연구에 몰두한 과학자들의 삶과 신념을 통해 올바른 인생에 대한 교훈을 일깨워준다.

#### 화합물, 뒤섞인 하모니

최원호·최숙영 공저/ DSB(Donga Science Books)/ 2002년/ 183쪽/ 12,000원

가정상비약, 석유, 플라스틱, 세라믹스, 염료, 나일론, 치약 등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소재를 통해 인간의 몸과 자연을 관찰하고 도구와 기술의 발전을 따라 그것을 연구한 사람들의 삶과 역사 그리고 문화를 살펴보면서 누구나 과학의 매력에 빠질 수 있게 만들었다.

#### 열, 따뜻한 메시지

조광익 저/ DSB(Donga Science Books)/ 2002년/ 177쪽/ 1,2000원

목욕탕, 자동차, 냉동인간, 에어컨, 주방용품, 구들 등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소재를 통해 인간의 몸과 자연을 관찰하고 도구와 기술의 발전을 따라 그것을 연구한 사람들의 삶과 역사 그리고 문화를 살펴보면서 누구나 과학의 매력에 빠질 수 있게 만들었다. 선명한 사진 자료와 간결하면서도 깊이 있는 내용을 잘 편집하였으며, 아시나요 코너와 간단하게 실험할 수 있는 탐구마당을 통해 흥미와 호기심을 갖고 과학적 사실을 응용할 수 있도록 했다.

#### 화학 반응은 왜 일어 나는가

우에노 케이이 저/ 편집위원대표 현중오 감수/ 이커데미서적/ 1998년/ 226쪽/ 6,000원

화학반응이 왜 일어나는가? 라는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생활 주변의 친근한 사례들로 쉽게 접근하여 독자들이 딱딱하고 재미없게 느끼는 개념들을 쉬운 비유로 설명하였다. 설명을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화학 반응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 흥미를 갖게 했으며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화학 변화가 어떠한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그 원리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다.

#### 논리와 함께하는 화학 이야기

주은조 저/ 김학성, 이세영 감수/ 백양 출판사/ 1995년/ 271쪽/ 5,500원

화학은 인간이 생산해내는 모든 물질에 이용되고 있어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오랜 옛날에는 돌로 황금을 만들 수 있다는 것과 같은 장기간의 실험과 무수한 실패로부터 물질을 변화시키는 과학인 화학을 찾아냈다고 한다. 이 책은 77편의 글들을 수록했으며 우리 실생활과 연계해서 화학반응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설명했다.

#### 신나는 화학실험

신나는과학을만드는사람들 저/ 한샘출판사/ 1994년/ 238쪽/ 5,500원

과학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 실험은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실험은 정직하며, 실험은 다양한 사고력과 탐구력을 길러준다. 가정에서 가족들과 저녁 식사 후에 간단해 해 볼 수 있는 실험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어 딱딱한 과학에 대한 흥미를 더해주고 학생들의 사고력을 증진시켜 줄 수 있다.

#### 생각하는 화학

이중호 편역/ 도솔/ 1994년/ 343쪽/ 5,000원

소련의 유명한 화학자들이 화학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화학에 관심을 가진 독자들을 위하여 화학 전반에 관한 이론들을 옛날 이야기를 들추어 가면서 재미있게 서술한 책이다.

3. 물질  
3) 반응 속도

## 양초 한 자루에 담긴 화학 이야기

마이클 패러데이 저/ 박태규역/ 서애문집/ 1998년/ 172쪽/ 6,000원

청소년들을 위한 대중 강연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양초에 불이 붙었을 때 일어나는 연소와 불꽃의 원리, 연소 생성물로 존재하는 수소라는 기체의 특성, 그리고 공기와 연소의 관련등을 실험을 통해 밝혀 주고 있다.  
이 책을 통해 패러데이의 촛불에 대한 신비로움과 자연에 대한 외경을 엿볼 수 있다.

## 신나는 화학

전화영 저/ 동녘/ 1995년/ 272쪽/ 4,500원

화학의 멋진 세계로 이끌어준 생활 과학을 학생들과 함께 할 때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저자가 이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기초적인 화학 지식을 포함하면서 쉽고 재미있게 편성한 도서로, 학생들은 화학은 어렵고 골지 아픈 것이 아닌 매력있고 신나게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촉매란 무엇인가

다나카 겐이찌, 미야하라 고오시로오 저/ 전파과학사/ 1981년/ 242쪽/ 1,200원

우리의 생활환경에 큰 변혁을 가져다 준 촉매란 무엇이며,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인간을 포함하여 동식물의 생명이 효소의 촉매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학반응들의 미묘한 균형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효소도 또한 촉매의 일종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촉매에 관한 화제는 끝도 없이 확대된다.

3. 물질  
원자구조, 화합물,  
화학결합, 반응열

## 신비계의 화학적 규명(I)

변중철 저/ 대신/ 2000년/ 261쪽/ 10,000원

자연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에 사람들은 자연의 신비에 대한 체감온도가 낮았을 것이다. 신비 세계에 대한 사랑, 화학의 비밀과 그 기적을 규명하려는 기본적인 욕망이 바탕이 되어 쓰여진 도서이다.

이 책은 일상생활에서 전개되는 다양한 상황의 궁금증을 과학적 개념과 합리적인 사고로 기술함으로써 자연과학 자체에 대한 시각을 넓고 깊게 확장 시킬 수 있는 좋은 지침서이다.

## 같기도 하고 아니 같기도 하고

로얼드 호프만 저/ 이덕환 역/ 까치/ 1996년/ 375쪽/ 12,000원

화학에는 원천적으로 감추어진 긴박감이 있기 때문에 재미있다. 화학에서 취급하는 실험적 사실이나 현상은 물론 그것을 이해하는 방법에는,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요소들의 정교한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 물질과 물질의 변환에서의 그런 대립이 바로 우리의 마음 속에 감명을 준다.  
이 책은 이러한 내용을 일상생활과 접목시켜 화학이 과연 얼마나 재미있는 분야인가를 부담없이 보여주는 좋은 도서이다.

## (그림으로 보는) 분자세계와 대칭성

에드가 하일브루너의 저/ 이덕환 역/ 한국경제신문사/ 1996년/ 193쪽/ 13,000원

대칭이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활용하고 있는 개념이다. 자연적으로 만든 것은 물론이고 인간이 만든 것은 어느 것이나 대칭성이 있어야 안정적이고 아름답다고 느낀다. 이 책은 대칭의 개념이 무엇이고 화학에서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를 많은 원색 그림과 알기 쉬운 글로 설명하고 있다.

3. 물질  
공기

## 일요일의 화학여행

이반만 리론프, 도브리D, 라자루프 공저/ 김정흠 옮김/ 열림원/ 1993년/ 232쪽/ 4,000원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동시에, 인류는 갖가지 신기한 현상들을 이용해 왔다. 자연의 신비를 하나하나 더듬어 가면서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공리해 온 것이다.  
현재 우리를 주변에는 지구의 내부나 다른 천체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 그러한 것들은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것들이다.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인공의 것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들을 소개하면서 누구나 쉽게 합성을 이해할 수 있게 쓴 책이다.

3. 물질  
생활속의 화합물

우리 주변의 화학물질

우에노 게이에이 저/ 이용근 옮김/ 전파과학사/ 1993년/ 236쪽/ 3,500원

제I부에서는 우리들의 주변을 둘러싼 생물, 무생물의 물질 세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제II부에서는 화학물질의 정체를 알기 위해 필요한 화학의 기초지식에 관한 설명이다. 제III부에서는 우리들의 주변에서 자주 사용하는 대표적인 화학물질의 정체에 대해 설명한다.

3. 물질  
금속과 그 이용

나, 화학 맞아?

오미야 노부미쓰 저/ 오근영 옮김/ 도아/ 1997년/ 264쪽/ 2,800원

우리의 상식을 뒤엎고 무지에서 눈을 뜨게 하는, 화학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모아 전하려는 뜻으로 쓰여져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과 물질 사이에 드러난 화학의 꿈을 펼쳐 보이고 싶다는 생각을 담은 책이다.

술술 읽히는 과학

즈치다 겐조 원문감수/ 현종오 감수/ 아카데미서적/ 1998년/ 204쪽/ 6,000원

그냥 술술 읽어가면 이해가 저절로 되는 책이다. 화려한 문체나 요사스런 참고서와 같은 분위기의 책은 아니지만 꾸준히 읽다보면 과학이 손에 잡힐 것으로 믿는다. 다소 어색한 그림도 있지만 독자들에게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넣은 그림들이다.

3. 물질  
우리 주변의 물질

화학 재치 문답

오네야마 마사노부 저/ 박택규 옮김/ 전파과학사/ 1994년/ 220쪽/ 3,500원

다이아몬드는 연필과 비슷하다. 어떤 점이? 같은 원소로 되어 있으므로, '드라이아이스와 나프탈렌은 비슷하다. 어떤 점이? 승화성이 있다는 점에서' 얼핏 보아서 비슷하지 않으면서 화학적으로 보면 비슷한 것을 나열한 것과 비슷하지만 화학적으로는 다른 것을 나열하여 비교한 내용들이다.

3. 물질  
이온과 전류

화학 여행

방태철·김중윤 저/ 벽호/ 2000년/ 220쪽/ 6,500원

학생들이 과학을 더욱 관심있게 공부하도록 하려면 보다 쉬워야 하고 개념과 원리를 잘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관찰할 수 있는 것들을 어려운 수식이나 법칙들을 쓰지 않고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책은 우리들에게 친근한 예를 많이 들어 가면서 개념과 원리가 무엇인지를 쉽게 설명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원소, 만물의 아이콘

최원호 저/ DSB(Donga Science Books)/ 2002년/ 183쪽/ 12,000원

생명과 노화, 다이아몬드, 숯, 금 등의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소재를 통해 인간의 몸과 자연을 관찰하고 도구와 기술의 발전을 따라 그것을 연구한 사람들의 삶과 역사 그리고 문화를 살펴보면 누구나 과학의 매력에 빠질 수 있게 만들었다.

3. 물질  
중화반응

H<sub>2</sub>O... 수소 둘 산소 하나

우에다이라 히사시 저/ 대표감수 현종오/ 아카데미서적/ 1997년/ 211쪽/ 6,000원

우리 주위에는 공기, 물, 땅이 있다 특히 지구의 2/3는 물로 채워진 바다로 되어있으며 사람만 하더라도 단백질이나 핵산처럼 생명현상을 유지하는 주역은 아니지만 몸의 약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다. 이러한 물에 대하여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이 책에서는 주변의 여러 가지 현상과 더불어 분자상태의 물의 구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 생물

### 4. 생명

#### 1) 물질대사

(광합성과 호흡)

#### RNA 효소의 촉매작용

박인국 저 / 동국대학교출판부 / 2000년 / 288쪽 / 9,000원

1982년 콜로라도 대학의 Tom Cech 교수가 Tetrahymena thermophila로부터 group 1 intron ribozyme (RNA enzyme)을 처음 발견한 이래 밝혀진 여러 타입의 리보자임의 구조와 촉매기작의 특성을 중점적으로 다룬 책이다.

#### 효소화학

안용근 저 / 정문각 / 2001년 / 634쪽 / 20,000원

효소단백질의 구조, 효소의 다중성, 활성부위, 보조효소, 촉매 메커니즘, 효소반응 속도론, 효소의 특이성, 효소의 생성과 조절, 생명현상과 효소 등으로 장을 나누어 효소가 갖는 생체촉매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서술하였다. 나아가 식품공업, 의약품공업 등 산업과 관련된 분야와 분석 등 응용적인 면도 폭넓게 다루고 있다.

#### 광합성의 세계

이와나미 요조 저 / 아카데미서적 / 2000년 / 248쪽 / 6,500원

부제: 지구 상의 생명을 지지하는 비밀. 식물이 자급자족을 위해 택한 가장 합리적이고도 고도의 합성 작용인 광합성. 사람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식물의 기생충이다라는 명제를 전면 부정할 수 없게 하기도 하는 광합성 작용의 ABC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냈다.

### 4. 생명

#### 2) 자극과 반응

#### DNA와 유전자의 신비

필 게이즈 / 지경사 / 2000년 / 220쪽 / 5,500원

유전자는 모든 생물체에 대한 자연의 기본 설계도이다. 유전자에 대한 과학자들의 연구는 지난 10여 년 동안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 이제는 유전자를 통해서 그 사람이 똑똑할지, 폭력적일지, 심지어는 정신질환을 앓을 것인지까지 알 수 있다고 한다. 이 책은 DNA와 유전자에 관한 최근의 연구가 어떤 이득을 가져다줄지, 또 어떤 위험을 불러일으킬지 말해준다.

#### 유전자와 생명복제에 관한 100문 100답

이마가사 게이스케 / 고려문화사 / 2001년 / 225쪽 / 8,000원

100문100답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상식을 넓히자는 의미에서 쓰여진 책이다. 어떤 전문적인 내용을 기대한다기 보다는, 신문을 읽을 때 좀 더 잘 이해하면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학자가 저술한 전문서적이 아닌 저널리스트가 일반인들을 위해 쓴 책이다.

#### 유전학의 탄생과 멘델

에드워드 에델슨 / 바다출판사 / 2002년 / 148쪽 / 8,000원

생물의 닳은꼴에 숨어 있는 원리를 실험으로 입증한 과학자, 멘델! 멘델에 의해 생물학이 단순히 생물의 생활상을 기록하는 학문에서 관찰결과를 분석해 법칙을 찾아내고 새로운 사실을 추측할 수 있는 과학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 이기적 유전자

리처드 도킨스 / 올유문화사 / 2002년 / 432쪽 / 12,000원

1993년 초판이 발행된 이후 사회생물학의 논쟁이 되었던 유전적 요인과 환경, 문화적 요인 가운데 인간의 본질을 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게 한 문제작이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초판에서 다소 애매하게 설명된 개념이나 동물생태학의 용어 설명을 알기 쉽게 번역하였다.



#### 4. 생명

##### 2) 자극과 반응 (자극의 수용과 반응)

### 신비 짱 퀴즈 과학상식:인체편1

양대성 저/ 글승이/ 2002년/ 222쪽/ 8,000원

초등학생을 위한 과학상식. 이 책에는 감각기, 신경순환계, 소화기 등 우리 인체에 대한 호기심과 인체 상식에 대한 내용이 실려 있다.

### 인체가 궁금할 때 히포크라테스에게 물어 봐

양대성 저/ 아이세움/ 2002년/ 143쪽/ 7,000원

평소에 숨을 쉬고, 밥을 먹고 소화시키고, 변을 보고 이처럼 일상생활이 자연스럽기만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가 자는 사이에도 우리 몸은 쉬지 않고 일을 한다. 이런 수많은 우리 몸의 변화들에 귀를 기울리는 이 책은 히포크라테스의 친절한 설명으로 어려운 몸에 관한 이야기를 쉽고 유익하게 설명하고 있다.

### 인체

필리프 코마르 저/ 시공사/ 2001년/ 160쪽/ 7,000원

수분과 지질, 단백질, 탄수화물, 핵산 등의 유기 화합물로 이루어진 인체는, 어떤 기계보다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질서를 따라 움직인다. 사체 해부가 금지되었던 중세 이전까지 인체는 영혼과 구분되지 않은 채 상징체계의 영역에 속해 있었다. 오늘날 가장 이상적인 건물 구조의 모델이 되기도 하는 인체를 에로티시즘과 해부학 측면에서 분석했다.

### 튼튼상식(인체 동,식물)

편집부 편/ 신서출판사/ 2002년/ 186쪽/ 8,000원

문화, 문물, 과학, 기술, 자연 등 인간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중에서도 어린이들에게 제일 알쏭달쏭하고 흥미 있는 것들만 골라서 실었다. 또한 글을 읽으면서 비판적인 생각을 기를 수 있도록 노력했다. 글을 읽고 정리하고 그 내용을 비판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은 학습의 기초가 되는 논리력, 사고력을 기르는 데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 깜짝 과학퀴즈 2(인체과학편)

정지영 저/ 아이엘비/ 2002년/ 186쪽/ 7,500원

우리 주변의 위대한 과학 또는 황당한 사연이 담겨있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과학상식을 퀴즈를 풀면서 하나하나 알아나갈 수 있다. 또한 어린이들이 딱딱하게 느껴거나 지루하지 않도록 재미있는 만화로 꾸몄다. 초등학교 저학년이 꼭 풀어야 할 유익한 학습만화이다.

### 깜짝 과학퀴즈 3(인체과학편)

정지영 저/ 아이엘비/ 2002년/ 186쪽/ 7,500원

어린이 여러분들이 딱딱하게 느껴지거나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는 만화로 꾸몄습니다. 보다 다양한 퀴즈 문제를 하나하나 재미있게 풀어 나가다 보면 과학상식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난 박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이 꼭 풀어야 할 유익한 학습 과학 만화입니다.

### 손쉽게 배우는 인체구조와 기능

강현숙 외 공저/ 군자출판사/ 2002년/ 318쪽/ 20,000원

이 책은 독자가 알아야 할 해부학적 구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게 하였고, 복잡한 생리학적 요소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해 놓았다. 독자들이 책의 무게 때문에 지치지 않으면서 충분한 학습할 수 있게 쉽고 다양한 시각적인 자료를 삽입하였다.

#### 4. 생명

##### 2) 자극과 반응 (자극의 수용과 반응)

### 인체생리학

**이강이 저/ 현문사/ 2002년/ 480쪽/ 27,000원**

본래 생리학은 형태와 구조들을 암기해야 하는 해부학과는 달리 그 기능을 이해해야 하는 학문이므로 이해에 도움이 되는 많은 그림과 도표를 원색화하여 실으려고 노력하였으며 제한된 지면이지만 각 내용마다 생리학의 새로운 지식을 포함시키려고 하였다.

### 인체집중탐구

**기우리아노 폰나리 저/ 윤철중 옮김/ 예림당/ 2002년/ 쪽/ 20,000원**

우리 인체에 대한 해부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책. 근육과 뼈, 혈액과 여러 기관들이 긴밀하게 얽혀 있는 우리 몸 속을 한 눈에 볼 수 있다. 각 부위에 덮혀 있는 종이를 열면 그 기관이나 조직에 대한 상세한 그림이 나온다. 자세한 설명과 그림으로 해부학적 지식 뿐 아니라 인체의 신비도 느낄 수 있다.

### 새천년 과학이야기 : 동물, 식물, 인체편

**나이테 저/ 곱둥산/ 2002년/ 179쪽/ 6,000원**

학생들을 위한 과학이야기 책으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동물, 식물, 인체의 궁금증을 질문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풀이해 놓은 책이다.

### 난 궁금해 ! : 인체의 비밀

**박애라 저/ 그린북/ 2002년/ 176쪽/ 7,800원**

어린이들이 호기심이 많은 것은 당연한 것이다. 특히 좀 자랐다 싶으면 자신의 신체 말고도 궁금한 점 투성이다. 엄마, 아빠한테 곤란한 질문을 하면 웃어 넘기거나, 장난식으로 얘기 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이 책 한권이면 신체에 관한 궁금증이 확실하게 풀릴 수 있다.

### 인체의 오묘한 신비

**스티븐 주안 저/ 시아출판사/ 2001년/ 258쪽/ 8,500원**

머리가 큰 사람일수록 더 영리할까? 주사기로 뇌의 기억을 옮길 수 있을까? 여자들은 왜 남자들보다 갈비뼈가 더 많을까? 마이클 잭슨의 피부가 하얗게 변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등 불가사의하고도 흥미진진한 우리 몸의 신비를 파헤치고 있는 책이다.

### 살아 있는 뼈 :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신나는 인체탐험

**여은미 저/ 아이세움/ 2002년/ 208쪽/ 7,000원**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경험과 흥미로운 정보, 재미있는 그림이 멋지게 어우러진 신나는 인체 탐험 <머리에서 발끝까지> 시리즈이다. 이 시리즈는 아이들이 자기 몸에 대해 호기심을 갖고 그 속에 감춰진 원리를 조금씩 알게 되면서 과학에 자연스레 다가서게 해주는 책이다.

### 인체기행

**권오길 저/ 지성사/ 2000년/ 344쪽/ 9,000원**

권오길 교수와 함께 떠나는 인체여행이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실생활과 관련된 재미있는 인체 이야기를 담은 책. 마음의 본체는 심장일까 뇌일까, 사람은 언제부터 늙기 시작할까, 문신은 왜 지워지지 않을까 등등 인체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이했다.

### 인체여행(꼬불꼬불)

**최달수 저/ 문공사/ 1999년/ 30쪽/ 10,000원**

어린이를 위한 인체 학습서이다. 내 몸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 무엇이 나를 먹고 자고 걷고 뛰고 말하고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걸까. 우리 몸의 전반적인 구조, 얼굴, 뇌, 허파, 심장 등 15개 장으로 나눠 원색의 재미있는 그림으로 신체의 구조와 역할을 들려준다. 울 컬러로 생생하게 보여 준다.

4. 생명  
2) 자극과 반응  
(자극의 수용과  
반응)

인체, 부드러운 톱니바퀴

임혁 저/ 성우/ 2002년/ 180쪽/ 12,000원

월간'과학동아'를 발행하는 동아사이언스의 최초의 단행본이다. '과학' 이라는 분야에서 풍기는 어려움과 딱딱함을 적극 배제하고, 일상에서 살아 숨쉬는 생생한 과학을 전달하기 위해 현직 교사들과 전문 연구자들이 엮은 '보는 과학책'이다.

참았던 내 방귀 어디로 갔을까? : 인체상식편

열린서당/ 현민시스템(곰자지)/ 2001년/ 175쪽/ 7,500원

참았던 내 방귀 어디로 갔을까 - 인체상식 편은 어려운 인체 원리를 만화와 문답 형식으로 쉽고 재미있게 풀어쓴 책이다. 지금 몸 속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우리 몸은 어떻게 먹고 움직이고 웃고 말하고 성장할까? 내가 태어나 자라서 어른이 되기까지 우리 몸 속에선 수많은 세포와 기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 몸의 궁금하고 놀라운 비밀을 재미있게 담았다.

4. 생명  
2) 자극과 반응  
(신경과 호르몬  
의 조절 작용)

3일만에 읽는 뇌의 신비

야마모토 다이스케 / 서울문화사 / 2002년 / 228쪽 / 8,000원

100점이 넘는 알기 쉬운 삽화와 도표를 통해 뇌의 구조와 기능, 다양한 단련법과 기억력 개발법, 스트레스 해소와 질병예방법까지, 신비한 뇌의 세계로 떠나는 3일간의 짜릿한 지적 탐사.

뇌호흡 워크북1 : 파워 브레인을 위한

한국인체과학연구원 / 한문화 / 2002년 / 96쪽 / 5,500원

뇌호흡 실천서로 현재 자신의 뇌 상태를 진단하고, 뇌 구조를 익히고, 뇌호흡 그리기를 통해 좌우뇌를 활성화시켜 준다.

뇌에 관해 풀리지 않는 의문들

김중성 저 / 지호 / 2000년 / 288쪽 / 10,000원

인간의 머리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가. 아니면 나빠지는가. 뇌에 관한 동물들의 풀리지 않는 의문을 가려 뽑아 이야기 형식으로 수록한 책이다. 여성의 가슴은 왜 커졌을까, 친구의 뇌를 이식하면 나는 누가 될까, 너그러운 성격도 뇌가 결정, 머리통이 크면 머리도 좋을까 등 머리와 뇌에 관한 갖가지 궁금한 상식들을 알기 쉽게 해설했다.

뇌 속의 놀라운 비밀

스티브 파커 / 승산 / 2000년 / 64쪽 / 6,000원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고 있는 뇌. 뇌는 언제 위가 비었는지, 오줌 보가 가득차 있는지 알려준다. 또한 소리진동을 귀가 알아들을 수 있게 소리로 바꾸어 준다. 우리 몸을 조절하고, 통합하고, 예측하는 뇌의 기능을 알기쉽게 꾸민 그림책이다.

뇌:학습과기억의구조

박찬용 / 서울대학교출판부 / 1998년 / 234쪽 / 10,000원

신경과학의 발달과정을 개괄하고 뇌의 구조, 그리고 뇌의 구성 단위인 뉴런의 기능을 알기 쉽게 살펴보고 학습과 기억의 생리학 및 행동학 그리고 학습과 기억의 진화를 다루었다. 또 신경회로, 신경가소성, 그리고 기억의 세포 및 분자생물학에 관한 지견을 살폈다.

교수님 환경호르몬이 뭐가요?

송보경 / 석탑 / 2002년 / 240쪽 / 7,000원

이 책은 환경테러리스트인 환경호르몬의 정체와 그에 대한 대책을 담고 있다. 이 책의 환경호르몬에 대한 소비자의 태도와 관련된 내용은 이 최종보고서를 기초로 하였다. 이 책에서는 환경호르몬의 심각성을 깨닫고 우리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우게 하는 책이다.

## 4. 생명

2) 자극과 반응  
(신경과 호르몬  
의 조절 작용)

## 환경호르몬 방어를 위한 처방전

도변용이 / 전남대학교출판부 / 2002년 / 262쪽 / 11,000원

각각의 환경호르몬에 관한 정보나 연구성과를 생활자의 시점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환경호르몬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공통의 주제이다.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그 인체나 생태계에의 영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그 문제의 해결을 향하여 소비자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되고, 또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 환경호르몬과 다이옥신

와타나베 류지 / 곽지사 / 1999년 / 280쪽 / 8,000원

다이옥신은 현대의 물질문명이 탄생시킨 최대의 재난으로 환경호르몬의 독성과 오염실태에 대해 충격적인 보고를 하며, 우리의 생활과 관련하여 그 피해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 현대의 물질문명이 탄생시킨 최대의 재난인 다이옥신을 없애기 위한 산업구조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점을 강조하였다.

## 환경호르몬으로부터 가족을 지키는 50가지 방법

미야니시 나오코 / 삼신각 / 2000년 / 264쪽 / 9,500원

20세기 자본주의의 공업문명 속에서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너무나 광범위하게 퍼져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과 산업 전반에 구조적으로 깊숙이 침투해 생활환경을 형성하고 있는 '내분비 교란물질'에 대해 설명했다.

## 신경호르몬

김경진 / 이카넷 / 2000년 / 334쪽 / 20,000원

대우학술총서 476. 신경호르몬에 관한 연구서이다. 신경전달물질은 시냅스 틈으로 분비되어 시냅스 후 뉴런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신경호르몬의 개요 및 분자생물학, 갑상선자극호르몬, 성선자극호르몬 등을 심도 있게 설명했다.

## 환경호르몬 위기

즈네카게 준이치 / 한국생산성본부 / 2000년 / 200쪽 / 7,500원

최근 들어 심각한 피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환경호르몬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밀도 있게 파헤친 연구서. 연속발정 상태의 암컷을 비롯해 암컷화되는 다마천의 잉어를 통해 혼란에 빠진 성을 그렸고 전례 없는 무단 소각의 오염과 뒤늦은 대응을 신랄하게 꼬집었다.

## 4. 생명

## 3) 생식

## 유전자 속의 놀라운 비밀

프랜 보크윌 / 승산 / 2000년 / 32쪽 / 4,500원

세상의 그 수많은 사람중 나와 똑같은 사람이 없는 이유는 뭘까? 우리 몸의 수많은 신비로움이 단 하나의 세포로부터 출발해 하나씩 벗겨진다. 유전자 이야기를 통해 세상에서 하나뿐인 나를 알고 사람사이의 차이점을 발견해 보자

## HUMAN FUTURE : 부자의 유전자 가난한 자의 유전자

프랜시스 후쿠야마 / 한국경제신문사 / 2003년 / 504쪽 / 13,000원

인간 계능 프로젝트가 완성되면서 '생명공학기술'이 21세기 인류 사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이 책에서 인간복제의 실현 가능성과 그에 따른 혼란을 예측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제기하고 있다.

#### 4. 생명

##### 3) 생식 (태아의 발생 과정)

### 신의 선물(만화로 보는 임신 출산 육아이야기 1)

TAKEDA KYOKO / 시공사 / 2001년 / 258쪽 / 4,800원

정보를 주는 실용만화하면 왠지 재미없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출간된 '만화로 보는 임신·출산·육아 이야기 시리즈'는 이런 고정적인 실용만화의 이미지를 단번에 날려 버린다. 비록 초보 엄마들을 대상으로 한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이야기이지만 계층을 떠나 남녀노소 모두 흥미 있게 읽을 수 있는 작품이다.

### 인공 수정과 수정란 이식

임경순 / 민음사 / 1998년 / 312쪽 / 19,000원

인공수정과 수정란 이식기술에 대한 선진국의 최첨단 연구결과들을 설명하고 이 기술의 활용방법 및 이용효과와 문제점을 해설한 전공서이다. 가축의 인공수정, 정액의 채취, 수정란 이식의 의의, 수정란의 착상과 임신 진단, 기구의 세척과 멸균 등을 설명했다.

## ▣ 지구과학

### 5. 지구

#### 1) 지구의 변동

#### 이주 쉽고 재미있는 지구과학

**자중환 저/ 예가/ 2000년/ 244쪽/ 6,500원**

초,중학생 수준이면 읽을 수 있는 이 책은 지구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돕는다는 측면에서 꼭 읽어야 할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우주공간에서 태양계, 행성들의 탄생이야기를 상세하게 설명한다.

#### 지구과학 탐사

**임태훈 저/ 동녘/ 1994년/ 292쪽/ 6,500원**

이야기하듯 교사-학생의 대화를 통하여 지구과학의 여러 내용을 풀어나가도록 구성되었다. 대화 속에서 사건들과 관련사실등을 각각 소개하여 설명한다. 지구의 나이, 운석과 크레이터, 지구 생성등의 지구탄생 이야기부터 지진, 화산 등으로 살아 숨쉬는 지구이야기, 지구의 대다수를 차지한 바다와 대기로 이어져, 지구 밖 우주의 이야기까지 점차적으로 넓게 이야기가 전개된다.

#### 최경희교수의 과학아카데미1(지구과학,물리)

**최경희 저/ 동녘/ 2000년/ 250쪽/ 8,000원**

과학시간에 배우는 내용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와 과학기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함께 생각해서 대처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업시간에 생각지 못했던 과학의 다양한 측면을 함께 생각해 보고 점차적으로 과학에 다가가 우리 자신과 연관지어 활용해 보자는 것이 이 책의 의도이다.

#### 땅. 가이아의 갑옷

**김동영 저/ 성우/ 2002년/ 185쪽/ 12,000원**

“땅”이라는 주제를 인간, 자연, 기술, 역사, 문화영역으로 정리하였으며 탐구마당을 통해 읽을 거리와 십자말 등을 제시하고 있다. 땅에서 인간이 얻는 석유에서 반도체의 재료까지 유용성을 이야기하고 암석의 생성, 우리나라와 세계의 지질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구성하였으며 땅의 소중함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 지구 46억년의 역사

**장순근 저/ 기림기획/ 1998년/ 256쪽/ 8,500원**

지구는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지진과 화산은 왜 일어나는가? 한때 지상을 휩쓸었다고 생각되는 무시무시한 공룡들은 어떻게 지상에서 사라졌는가? 대륙이 이동한다는데 사실인가? 이런 것을 그냥 넘기면 넘길 수도 있지만,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의심스럽고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에서는 지구의 오랜 역사와 그 위에서 일어났던 지구 자체와 생물들의 변화를 가능하면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했다.

#### 지구물리학(알기쉬운)

**로버트 J. 릴리 저/ 김기영외 편/ 시그마프레스 / 2001년/ 372쪽/ 16,000원**

지구현상으로서의 판구조론을 제시하고 대양저와 대륙 연변부, 대륙 열곡 및 여러 유형의 산맥 발달과정을 설명한다. 이어서 자연지진, 인공지진파, 중력, 자력, 지열 등의 지구물리학적 방법들이 지구를 연구하는데 특히 전체적 지구구조와 판구조론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기여하는가를 보여 주는 순서로 기술되어 있다.

5. 지구  
2) 대기과 해양

지구환경과학II - 대기·해양·우주·환경

한국지구환경학회 저/ 대한교과서/ 2000년/ 338쪽/ 12,000원

요즘에는 지구 환경 파괴를 비롯한 전지구적 환경 변화에 대한 인류의 관심으로 지구과학적 접근과 연구 개발의 필요성을 실감한다. 이런 변화에 맞춰 이 책에는 학생들이 지구과학에 대한 점진적 이해를 돕기 위해 기본적인 내용들로부터 응용적 내용까지 잘 정리되어 있으며 알찬 설명과 각각의 내용에 대한 참고 사진과 그림들이 적절하게 잘 인용되어 있다.

5. 지구  
2) 대기과 해양  
(지진과 화산  
활동)

가이아의 향기

작용주 저/ 팟북/ 2001년/ 231쪽/ 12,000원

고대 그리스인들이 대지의 여신을 지칭하듯이 저자는 지구를 '가이아'로 표현하고 있다. 대륙 이동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가 어떤 식으로 발전해오고 있는가를 그림과 함께 알기 쉽게 표현했다.

땅-가이아의 갑옷

김동영 저/ 성우/ 2002년/ 187쪽/ 12,000원

사람들을 갑자기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지진,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이 즐겨찾던 온천, 우리 생활 구석의 많은 것들과 살아 숨쉬듯 생동하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소개했다. 인간, 자연, 기술, 역사, 문화의 분야로 나눠 광물 이야기, 땅속이야기, 백두산, 한반도의 지진, 반도 체, 수성론 대 화성론, 화산섬 제주도, 뉴질랜드 등을 설명했다.

가이아-지구의 체온과 맥박을 체크하라

제임스 러브록 저/ 김기협 역/ 김영사/ 1997년/ 192쪽/ 15,000원

72년 주창된 가이아 이론의 핵심은 '항상성'이라는 개념이다. 마치 병이 났더라도 쉽게 원기를 회복하는 생물체의 원상회복능력처럼 지구의 대기, 바다 등 다양한 구성요소들이 장기간 큰 변화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이다. 가이아의 해부학 부분을 그림과 함께 본다면 움직이는 지각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쉬워지리라 생각된다.

화산이 왈각왈각

애니타 개너리 저/ 김영사/ 2000년/ 130쪽/ 3,900원

땅 속 깊은 곳에서 용솨솨 솟아 올랐다가,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화산. 화산에 대한 꼭 필요한 정보가 이야기하듯 재미있게 담겨 있다. 화산은 왜 분출하는지, 화산이 분출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현상들을 그림, 만화를 곁들여 안내하고 있다.

지구가 지글지글

뽀 포우키 저/ 김영사/ 2000년/ 124쪽/ 3,900원

우리 생명의 터전인 소중한 지구에 대해서 만화로 재미있게 엮은 책이다. 어머니, 지구와 지구는 어떻게 태어났을까? 여러분은 태양 주위를 몇 바퀴나 돌았는가? 인도 대륙이 아시아 대륙을 만났을 때, 땅이 흔들릴 때와 폭발할 때 등을 수록했다.

5. 지구  
2) 대기과 해양  
(해양과 우리  
생활)

해양심층수

高橋正征 저/ 안희도 역/ 과학기술/ 2001년/ 146쪽/ 8,000원

해양심층수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연구서로서 미래형 자원인 해양심층수의 순환과정과 심층수의 성분, 심층수로 인하여 생기는 용승 등이 설명되어 있으며 심층수를 이용한 냉방, 청량음료 등 식품이나 화장품으로 개발되는 심층수 이용법, 심층수를 이용한 어업, 제약산업 등 미국이나 일본 세계 각지의 심층수 이용현황에 대하여 설명되어 있다.

5. 지구  
2) 대기와 해양  
(해양과 우리  
생활)

## 우리바다 해양생물

재중길 외2명 저/ 다른세상/ 2002년/ 392쪽/ 23,000원

서귀포 앞바다의 비경을 담은 책이다. 450여 컷의 명료한 컬러 사진에 신비로움을 간직한 340여종의 바다생물 이야기가 실려 있다. 책은 해양동물을 해면-자포-편형-유형-태형-연체-환형-절지-척삭 동물로 나누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 바다의 신비

조양기외 2명 저/ 전남대학교출판부/ 2000년/ 9,000원

지구의 3분의 2 이상을 덮고 있는 바다는 많은 생물이 살고 있는 생명의 보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 바다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나 적다. 이러한 바다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설명과 엘니뇨에 대한 설명, 해류와 조석현상, 해저지형, 살아있는 갯벌의 중요성 그리고 해양오염과 적조현상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다.

## 아름다운 바다

앤드루바이어트 외 저/ 김용서 역/ 사이언스북스/ 2002년/ 382쪽/ 40,000원

바다는 미래의 유산이다. 우리 세대에서 망쳐서는 안 되는 소중한 미래의 보물이다. 우리의 후손들도 아름다운 바다 생물들이 더불어 사는 코발트빛 바다. 밀려온 하얀 파도가 활고 가는 상아 빛 모래 해안, 바다 생물들이 분주히 돌아다니는 끝없이 펼쳐진 황금색 갯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이 책은 바다에 관한 신비로운 사실들이 담겨 있는 책이다.

## 바다는 왜

장순근 저/ 지성사/ 2000년/ 160쪽/ 9,000원

미래의 바다에서는 인간에게 바다란 무엇인지? 어떤 식량, 어떤 자원, 어떤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지? 전지구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바다를 어떻게 보존하고 얼마나 친환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지 등 바다와 연관된 갖가지 궁금증과 물음을 알기 쉽게 해결해주고 있는 책으로 흥미 있는 내용을 원색 사진과 함께 알기 쉽게 설명했다.

## 살아있는 갯벌이야기

백용애 저/ 창조문화/ 1999년/ 246쪽/ 12,000원

인류의 미래자원의 보고인 우리나라의 갯벌에 대해서 쓴 책으로서 갯벌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생명체들을 소개했다. 학술적 보다는 구수한 입담으로 친근하게 꾸며고, 풍부한 화보와 전국 유명 갯벌의 약도까지 소개되어 있다.

## 미래가 보이는 해양의학과 과학

김세권 저/ 양서각/ 2000년/ 344쪽/ 9,000원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해양 동식물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탐구한 책으로 해양의 학에서는 성인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생선지방을 비롯해 입냄새 제거에 탁월한 해조성분, 인공 피부로 활용되는 키틴, 해조류의 알긴산 등에 대해 설명되어 있고 해양과학에서는 생명의 기원과 바다관계, 해양미생물을 이용하여 21세기의 자원문제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루었다.

## 갯녹음 연안을 바다숲으로

로저하이필드 저/ 이한음 역/ 해냄/ 2002년/ 398쪽/ 12,000원

바다숲을 조성하는 기술개발을 전제로 연안이 사막화되는 갯녹음 현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극복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날로 심각해지는 연안 환경오염으로 우리의 삶에까지 직접적인 위협을 주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에게 갯녹음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는 안목을 키워줄 것이며 또한 그에 대처할 수 있는 연구나 행동지침서로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5. 지구  
2) 대기과 해양  
(해양과 우리  
생활)

### 소금과 문명(Salt and Civilization)

새뮤얼 애드세드 저/ 박영준 역/ 지오/ 2001년/ 358쪽/ 15,000원

원시시대부터 오늘날까지의 독특한 소금사에 대해 다루었다. 소금에 대한 다각도의 고찰을 통해 한 줌의 소금이 인류의 역사와 이 세상을 어떤 식으로 중흥무진 누벼왔는지를 설명했다. 소금의 생산, 분배, 소비, 과세의 측면을 살피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사회와 문화적 의미를 밝혔다.

5. 지구  
2) 대기과 해양  
(지진과 화산  
생활)

### 우리가 알아야 할 지진

변진섭 저/ 경문사/ 1998년/ 175쪽/ 6,000원

불안정한 지표는 일본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에도 크지는 않지만 최근 수년간 예전에 비해 약한 지진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자연은 갑작스러운 것이어서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이 책에서는 자연현상에 안전지대는 없다는 뜻에서, 지진에 대해서도 역시 경각심을 가질 것을 권한다.

### 지구에 관한 1000가지 비밀

니콜라우스 렌즈 저/ 전재민 역/ 자음과모음/ 2001년/ 311쪽/ 8,700원

지구의 역사를 비롯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하늘, 바다, 열대우림, 산, 강, 사막, 극지방, 땅속의 비밀 그리고 지구를 터전으로 살고 있는 인간을 비롯한 각종 생물들의 경이로운 생태계와 지구와 텔레야 뿔 수 없는 관계에 있는 천체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등 지구에 관한 1000가지 궁금증에 얽힌 신비를 풀어본다.

### 지구의 생성과 진화

유강민 저/ 시그마프레스/ 2002년/ 354쪽/ 12,000원

연세대 사이버지원교육센터에서 이뤄진 인터넷 강의에서 오고간 질문들과 그에 대한 답변을 묶은 책이다. 지구와 관련된 모든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실제 대학생들이 수업 받으면서 궁금한 내용을 질문하고 토론식으로 해답을 구해가는 것을 보여준다.

### 아주 쉽고 재미있는 지구과학

자중환 저/ 예가/ 2000년/ 244쪽/ 6,500원

지구는 언제 이 우주에 탄생했을까? 아주 쉽고 재미있는 지구과학 길라잡이로 우주 공간의 은하계와 초신성의 폭발, 태양계의 성립 등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아울러 원시 행성의 응축과 분열 운동에서부터 지구탄생의 과정을 설명했다.

### 지구는 왜 둥근가

이희성 저/ 우리교육/ 1997년/ 232쪽/ 4,500원

지구과학, 물리, 화학, 천문이야기를 학생과 선생님의 문답형식으로 제공했다. 그러니까 학생이 궁금해할 만한 것을 질문해두었고 그에 관해서 선생님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는 식이다.

### 잠 못 이루는 행성

어네스트 지브루스키 저/ 이진희 역/ 들녘/ 2002년/ 416쪽/ 15,000원

전염병을 비롯하여 지진, 화산, 해일, 태풍 등 인간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모든 자연재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 자연재해의 양상이 마치 신문기사를 보듯이 생생하게 묘사되며, 이들 재해의 자연과학적 원리 및 이에 대응하는 공학기법들이 서술되어 있다.

5. 지구  
2) 대기와 해양  
(일기와 기후)

신선한 대기를 느끼다

**조명아 저/ 상우/ 2001년/ 201쪽/ 12,000원**  
 과학 교과서를 뛰어 넘어 교실에서 교실 밖으로 과학을 재미있게 나누는 이야기거리가 많은 책이다. “선생님도 놀란 과학 뒤집기” 코너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대기에 관한 의문을 풀어놓았으며 “모험이 따라잡기”에서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실험을 통해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게 하였다.

기후 변동

**토마스 그레텔 저/ 사이언스북스/ 1999년/ 234쪽/ 18,000원**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대도시의 광스모그 현상, 산성비 등으로 대표되는 지구 환경의 일반적인 문제를 전문적인 지식의 기반 속에서 기술하였다. 기후변동의 개념을 시작으로 한 이 책은 기후 변동사가 우리에게 어떤 현상을 보여주는가, 기후변동은 인류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탐구하였다.

날씨토픽

**반기성 저/ 명진출판/ 2000년/ 254쪽/ 8,800원**  
 현역 장교이며 기상연구가가 전하는 날씨 이야기이다. 간단한 기상사전을 앞부분에 달고 뒷부분에는 조조를 물리친 제갈 공명의 남동풍을 비롯해 일본군의 진주만 기습을 도와준 안개, 걸프전의 기상전과 같은 날씨에 얽힌 세계사 속의 일화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별 날씨의 특징과 그에 얽힌 이야기를 흥미 있게 서술하였으며 사막화와 대기오염, 기상이변, 엘니뇨로부터 환경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

구름, 바람으로 읽는 기상

**이다 무즈지로 저/ 아카데미서적/ 1998년/ 257쪽/ 6,000원**  
 매일 빈번히 변화하는 기상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유달리 높아지면서 최근 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서도 날씨에 관한 사항에 중점을 두어 다루고 있다. 기상에 대한 일반적인 상식을 그림과 함께 평이하게 서술하여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의 공부나 상식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한국의 기후

**이현영 저/ 법문사 / 2000년/ 237쪽/ 12,000원**  
 한국의 기후특성을 결정짓는 기후인자인 동시에 지리적 요소인 위치, 지형, 해양과 이들 인자의 영향을 가지적으로 나타내는 식생과 한국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중규모의 대기순환, 기단, 전선 등 종관특성을 다뤘다. 아울러 기후인자와 기후요소의 결합으로 나타나는 계절, 몬순, 장마 등의 물리적인 과정을 학생들이 알기 쉽도록 세심한 배려를 한 책이다.

하늘의 과학자들-구름 속으로 떠나는 과학여행

**제임스 트레필 저/ 장석봉 역/ 지호/ 2001년/ 315쪽/ 13,000원**  
 책의 저자인 트레필은 하늘을 지구를 감싸는 대기와 태양으로 한정지었는데 그 중 대기에서는 대기현상으로 하늘빛과 노을, 구름의 생성과 기후현상, 햇빛에 의한 색깔, 번개와 천둥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는 그러한 현상들을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을 통한 느낌과 이론을 함께 흥미롭게 서술하였다.

5. 지구  
3)태양계와 은하

별자리 여행(CD-ROM과 함께 가는)

**곽영직, 김중섭 저/ 사이언스북스/ 1998년/ 347쪽/ 10,000원**  
 부록으로 별자리 및 여러 천체에 관한 정보를 담은 CD-ROM을 제공한다. 인터넷 검색브라우저를 이용하여 자신이 찾고자 하는 별자리를 찾아 볼 수도 있고, 기타 태양계와 혜성, 소행성, 인공위성에 대한 이미지와 지구에 대한 이미지가 다수 들어 있어 활용가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책 첫머리의 우주에 관한 글이 인상적이며 주로 계절별로 별자리를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5. 지구  
3)태양계와 은하

태양계 여행(CD-ROM과 함께 가는)

곽영직, 김중섭 저/ 사이언스북스/ 2000년/ 308쪽/ 15,000원

가볍게는 별자리에 대한 책이나 무겁게는 천체역학이나 물리학에서 범주를 좁혀 태양계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7차 교육과정 과학의 지구과학 분야 중 천문학에 해당하는 교과내용은 크게 태양계와 별과 우주의 두 개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단원인 태양계에 대한 내용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5. 지구  
3)태양계와 은하

우리가 알아야 할 우주의 모든 것

이케우지 사토루 저/ 김수진 역/ 아세아미디어/ 2002년/ 336쪽/ 10,000원

우주론에 대한 입문서로서 과거 우주를 보았던 관점과 현재 우주를 바라보는 인간의 시각, 그리고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성장과 우주의 끝을 조명해 봄으로써 올바른 우주관을 가지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교과서의 별과 우주 단원을 공부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우주를 즐기는 지름길

박석재 저/ 전문우주기획/ 2001년/ 302쪽/ 8,000원

어느 정도 천문학을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꼭 봐야 할 책이다. 우주를 즐기기에 너무나 많은 수식이 수학책처럼 나열되어 있어 마치 수학에 관한 책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반응이 있으나, 단순한 말로만 접하던 우주에 관한 물리법칙을 수학적으로 뒷받침하여 본질적인 이해를 돕도록 쓴 책이다.

저랑 우주여행 하실래요

이대택 저/ 지성사/ 2001년/ 184쪽/ 12,000원

우주여행이 가능한가 하는 질문에서 출발하여 우주선과 관련된 기초상식, 우주비행사(우주인)로 선발되는 과정, 우주에 갔을 때 겪게되는 생활과 신비한 경험들, 그리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과정을 다양한 삽화와 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다.

호두 껍질 속의 우주

스티븐 호킹 저/ 김동광 역/ 까치/ 2001년/ 216쪽/ 23,000원

아인슈타인 이후로 가장 훌륭한 이론물리학자로 꼽히는 스티븐 호킹 박사가 1989년에 발간한 '시간의 역사' 이후로의 연구성과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한 책이다. 천문학과 우주론에 대하여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다소 어려운 수준일 수 있으나 어느 정도의 전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대의 천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어야 할 책으로 추천한다.

우주의 수수께끼

게르하르트 슈타इन 저/ 이민용 역/ 이글리오/ 2000년/ 248쪽/ 10,000원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물리학적 우주로서 우주의 탄생과 진화에 관한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생물학적 우주로서 생명체가 살고 있는 지구와 지구이외의 외계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우주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주의 탄생과 성장,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명체를 수학적 증명을 통해서 우주에 대한 개념을 잡기에는 충분한 내용이다.

NASA 우주개발의 비밀

토머스 D.존스 저/ 채연석 역/ 아라크네/ 2003년/ 338쪽/ 12,000원

머지 않은 장래에 티켓을 끊어 우주여행을 할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라고 과학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우주여행은 비행기를 타는 것과는 분명 다르다. 어떻게 다른지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 이 책의 또 다른 저자는 실제로 우주여행에 참여해본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과학자보다도 생생한 우주여행의 경험과 느낌을 전달해 준다.

5. 지구  
3) 태양계와 은하

## 우주가 우왕좌왕

샤르탄 포스키트 저/ 김예원 역/ 김영사/ 1999년/ 166쪽/ 3,900원

앗! 이렇게 시리즈의 다섯 번째인 이 책은 기본적인 우주와 태양계에 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전체적인 은하와 우주의 형태에 대해 개념을 잡고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지구와 태양계에 관한 이야기의 순서로 기술되어 있다.

## 스티븐 호킹의 우주

데이비드 필킨 저/ 동아사이언스 역/ 성우/ 2001년/ 258쪽/ 25,000원

스티븐 호킹의 천문학적 이론들이 학자들 사이에서는 호평을 받았으나 대중적으로는 큰 공감을 얻지 못한 것은 너무 어려운 설명을 인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는데, 저자 데이비드 필킨은 가장 쉬운 우주론을 기치로 내걸고 호킹의 우주론을 퍼내기에 이르렀다.

## 우주의 비밀(온가족이 함께 읽는)

요아힘 부블라트 저/ 한영희 역/ 생각의나무/ 2002년/ 254쪽/ 25,000원

과학은 전문가들만의 것이 아니라 서로 공유되는 인류의 재산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는 바이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난해하게 생각하는 우주에 관한 많은 과학적 결과물들이 과정보다는 결과만 제시되어 대중들은 연구과정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다고 생각하는 저자에 의해 과학의 지속적 대중화에 걸맞게 쉽게 이해하도록 쓰여졌다.

## 화석. 생명의 조각퍼즐

김현빈 저/ 성우/ 2002년/ 191쪽/ 12,000원

화석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인류의 진화 과정과 문화의 변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화석으로부터 알 수 있는 것과 인간에게 친근하면서도 두려운 대상이었던 공룡의 멸종이유, 공룡이 인간세계에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우리가 영화 속에서 쉽게 보는 공룡과 진짜 공룡의 차이점 등을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다.

## 우주. 광년의 시네마

구자욱 저/ 성우/ 2002년/ 192쪽/ 12,000원

어떤 이는 새롭고 거대한 미지의 세계인 우주를 탐험하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고 우주여행을 할 정도로 인간의 호기심은 거대한 것 같다. 이 책에서는 문답형식으로 우주의 무중력을 소개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무중력, 진공, 우주복 등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킬 이야기로 구성되었다.

5. 지구  
3) 태양계와 은하

## 깨끗한 물을 지키자(만화·지구를 지키자)

오구라 노리오 저/오종민 역/ 동화기술 /2000년 7월 30일/ 181 페이지 / 4,500원

만화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청소년 및 모든 사람이 쉽게 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 뿐인 지구를 이제부터 가꾸고 정리해야 하는 청소년에게 일상생활에서 쉽게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6. 환경  
2) 생물농축

## 최열아저씨의 지구촌 환경 이야기

최열/ 청년사 /2002년 4월 / 2권 각 168 페이지 / 각 7,500원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쓴 먹물거리, 쓰레기, 물, 공기, 에너지, 생태계에 관한 이야기이다. 갖고 싶은게 많을수록 쓰레기도 늘어난다며 주위의 예를 들어 광우병, 수돗물 바이러스 등 환경 폐해를 쉽게 설명한 글이다.

6. 환경  
3) 온실효과

녹색은 적색이다

폴 먹가 저/조성만 역/북막스원/2002년 08월 / 184 페이지 / 7,000원

환경문제에 대한 책이지만 다른 많은 환경 관련책들이 생태주의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것에 비해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쓰여졌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저자는 환경과 과학을 대립시키는 생태주의를 비판하며 환경위기는 과학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과학을 사용하는 사회의 작동방식에서 비롯함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어린이 환경사전

이장영 / 계림북스클 / 2002년 07월 / 223 페이지 / 8,500원

지구의 환경부터 우리 주위의 환경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환경 지식이 담겨 있다.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곧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설명되어 있다. 청소년들에게 우리의 환경을 보다 잘 이해하고 사랑하며 지켜 나가는 마음을 심어 준다.

청소년 환경교실

이상훈 / 따님 / 2002년 04월 / 238 페이지 / 7,600원

환경의 중요성이 자꾸 부각되면서 교과과정에도 환경과목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환경오염이 무엇인지, 환경문제란 무엇인지 나름대로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좀더 자신의 문제로 인식을 할수 있게 도움을 줄 것이다.

만화로 배우는 환경교실

래리 고닉 등저 / 정일남 역 / 국제 / 1997년 09월 / 230페이지 / 6,500원

환경과학에 관한 주요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즉, 화학적 순환, 먹이망, 농사, 인구성장, 에너지원과 자원, 쓰레기 폐기와 재활용, 도시공해, 산림벌채, 오존 고갈, 지구 온난화 등이 그것이다. 더불어 이 책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열역학이나 인구역학의 논쟁 그리고 복잡한 시스템의 양상과 더불어 생태학의 맥락 안에서 다루고 있다.

환경이 육신육신

니콜라 바버 저/ 문정균 역/ 주니어 김영사/ 2000년 05월 / 140 페이지 / 3,900원

이 책을 보면 과학의 유해한 점과 과학의 유용한 점을 알 수 있다. 과학에 의해 환경이 파괴되었고 파괴된 환경의 보호를 위해 다시 과학의 힘을 빌리는 실정이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는 길잡이 책이다.

인간과 도시환경

김수봉 저/ 대영문화사 (임준환) | 2002년 08월 | 17,000원

조경학, 도시계획, 건축, 토목, 환경설계 그리고 환경과학 등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참고서이며, 인간과 도시환경과의 관계의 정립과 환경을 생각하는 의식을 고양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다.

엘니뇨와 라니냐

마이클 그랜즈 저/ 아루케 / 2002년 / 368쪽 / 20,000원

엘니뇨와 라니냐의 메커니즘과 실체에 대해 명쾌하게 해설한 책으로 엘니뇨와 라니냐는 무엇이며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엘니뇨와 라니냐를 예보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 상세히 설명한다.

6. 환경  
3) 온실효과

지구의 수호신 - 오존층

시마자키 타즈오 저/ 아카데미서적/ 2001년/ 259쪽/ 6,000원

현재 성층권 오존이 프레온 같은 인간 활동의 산물들의 작용으로 파괴되어 자외선을 흡수할 수 없게 될 정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면서 이제 환경문제는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음을 느끼고 새로운 시각에서 생활을 돌아보게 한 책이다.

과

학

지구  
과학

# 기술·가정

- I. 가족과 일의 이해
- 1. 가정생활의 설계
- 1) 가족생활의 변화

##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코비(김경섭) / 김영사 / 1998년 / 460쪽 / 9,900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처세술을 인생철학의 차원으로 끌어올렸던 스티븐 코비의 저작 나의 변화를 통해 남을 변화시킨다는 인간관계의 철학과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전략적 사고법을 가족 문제에 적용시켰다.

## 나는 제사가 싫다.

이아천작 / 이프 / 2001 / 272쪽 / 7,500원

한국의 기혼여성이라면 누구나 제사가 거부장작이고 성차별적인 유교문화의 핵심이라는 데에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한국의 대다수 기혼남성들에게 제사는 끝까지 지켜할 미풍양속이고 신성한 의식이다. 이 책의 저자는 그들에게 이렇게 외친다. '그렇게 좋은 거라면, 남성들, 당신들이 다 가져가라'고, '왜 그 좋은 것을 여성에게 강요하느냐'고 말이다.

## 재혼 가족관계

김중숙 / 한국문화사 / 2003 / 216쪽 / 9,000원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 중 증가하고 있는 재혼가족을 문제가족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70~80년대 인구 통계적 지표와 면접으로 재혼가족과 가족관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표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미래의 행복한 재혼가족과 가족관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 책이다.

## 아주 작은 차이

알리스 슈바르처 저 / 이프 / 2001 / 331쪽 / 8,000원

20년 전의 독일여성 10여명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들의 사례 하나하나를 특수하지만 당혹스러울 정도로 '보편적'이다 등장하는 여성들의 위치는 다양하지만 놀라운 정도로 동일한 성적 억압에 처해 있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은 20년의 세월과 지구 반 바퀴의 거리를 넘어 우리나라 여성들의 상황과도 너무나 똑같다.

## 새 여성학강의

한국여성연구회 / 동녘 / 1999 / 380 쪽 / 10,000원

한국 여성 현실의 정확한 이해와 21세기의 전 망을 담은 새로운 여성학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아 한국 여성연구소가 기획출간하게 되었다. 한국 여성 연구소는 10여년간 여성 학술 연구 단체로 활동해 온 한국 여성 연구회가 보다 전문적인 여성 연구 단체로서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해 1998년 10월 새로이 발족한 것이다.

- I. 가족과 일의 이해
1. 가정생활의 설계
- 1) 가족생활의 변화

## 신 자유주의적 ‘반격’하에서 핵가족과 ‘가족위기’

**이미경 / 궁감 / 1999 / 100쪽 / 6,000원**  
 페미니즘적 비판의 쟁점을 수록했다. 페미니즘의 반격과 전통에 대한 내용과 핵가족의 형성과 가족의 위기 등의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

## 발전주의 비판에서 신자유주의 비판으로

**다니엘슨외 저 / 과학연구실 / 1998년 / 272쪽 / 10,000원**  
 여성과 발전에 대한 구조적 시각들, 세계적 규모에서의 자본축적과 가부장제 등 신자유주의의 등장으로 새로워진 비판적 시각에 대해 담고 있다.

##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존 그레이 / 김경숙 역 / 친구미디어 / 2000 / 360쪽 / 9,000원**  
 남자와 여자의 차이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이성을 이해하면서 서로의 말을 들어주고, 말을 걸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남자와 여자의 다른 사고방식과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다.

## 당신들의 대한민국

**박노자 / 한겨레신문사 / 2001 / 301쪽 / 8,500원**  
 한국보다 더 한국을 잘 아는 러시아 태생의 구화 한국인 박노자의 칼럼을 모아 엮은 것이다. 한국 사회에 남은 뿌리깊은 잔근대성을 질타하는 그의 글은 늘 우리들을 각성하게 한다.

## 아직도 가야할 길

**M 스콧랙 / 신승철역 / 열음사 / 2002 / 458쪽 / 9,500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수많은 도전에 부딪힌다. 한 발짝 도약해야 할 때 두려움 때문에 그냥 뒤처지지만 경험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어려운 고비 앞에서 서성거리지 말자. 그 대신에 고통스런 현실을 뛰어넘을 힘을 주는 <아직도 가야할 길>을 읽자.

## 나의 아내 나의 사랑

**김재원 저 /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 / 2002 / 247쪽 / 8,000원**  
 자자가 여원 잡지 발간인 때부터 아내 사랑이라는 테마로 매달 한 페이지씩 써 내려갔던 칼럼들을 재순질해 새로이 엮으면서 ‘아내를 이렇게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담았다. 한국의 남편들이 가정 내에서 자자하고 있는 민행에게 대해 철저히 해부하면서 가정 행복 경영의 주체는 아내와 더불어 남편임을 재차 강조한다. 아내를 사랑하는 총 1개의 행동지침을 일러준다.

## 된장을 연주하는 여자

**도완녀 저 / 해냄 / 휴머니스트 / 2002 / 252쪽 / 9,000원**  
 늦서양에 빠져 5짜 9년을 단장마을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세 아이 여대 문수 보현 그리고 풍요로운 자연과 벗하며 사는 삶을 보여준다. 부부 이야기 산골 생활 이야기 자연주의적 재교육 이야기와 함께 된장으로 만드는 맛깔스런 새 음식, 소박한 산골 음식들을 소개한다.



- I. 가족과 일의 이해
- 1. 가정생활의 설계
- 1) 가족생활의 변화

## 영혼의 식탁

잭 캔필드 저 / 휴머니스트 / 2002 / 252쪽 / 9,000원

<영혼의 식탁 12는 가족간의 사랑에 대한 감동적인 에피소드들로 구성되어 있다. 닭고기 스프 시리즈 중의 하나인 이 책들은 항상 당연시 여기는 가족들의 소중함을 잘 짚어 전해준다. 1판에는 자를 키우는 과정에서 겪은 부모들의 이야기 부모의 사랑을 느낀 자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2판에는 산이 내려준 최고의 선물인 아이를 맞이하는 부모들의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다.

이 책은 첫 출산에 대한 기쁨과 두려움, 기다림의 열달 과정에서 주야 했던 위험한 고과와 노력,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최고의 순간들을 들려준다.

##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이시이 저 / 황소연 역 / 큰나무 / 2002 / 240쪽 / 8,000원

저자는 사랑하는 두 사람이 공통된 인식을 갖고 공통된 목표를 향해 갈아가지 않으면 함께 살아가려고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데 있어 반드시 마련해야 할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한다.

세상에는 다양한 성격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는데 이 중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바로 친구와 지우의 결혼 생활을 결정짓는 길잡이 이 되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 일이냐 아기냐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는 여자

베티나원히 저 / 이홍경 역 / 글담출판사 / 2002 / 302쪽 / 8,800원

아가 태어나며 여성은 역할에 변화가 생긴다. 엄마에게 주어진 역할과 앞에서 주어진 역할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알려준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여성들이 직업, 가정 그리고 개인생활을 어떻게 병행해 나갔는지 경험담을 풍부하게 실어 공감을 자아낸다.

## 성공하는 가족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코비 / 김영사 / 1998 / 460쪽 / 9,900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저세상을 인생철학의 차원으로 끌어올렸던 스티븐 코비의 저작 나의 변화를 통해 남을 변화시킨다는 인간관계의 철학,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는 전략적 사고법을 가족 문제에 적용시켰다.

## 만화로 보는 결혼이야기

배수원 저 / 정어 / 2002 / 165쪽 / 7,800원

이 책은 그동안 Dam 사이트에 연재된 '만화로 보는 결혼이야기'를 묶어낸 것이다. 사랑과 위층, 이대층에 살고 있는 결혼 4년 차의 맞벌이 주부인 저자는 현실과 분리되지 않은 생활 속의 부부 이야기를 만화로 엮었다.

결혼 후 사대 식구들과 남편 사이에서 겪는 소소한 갈등과 에피소드를 소재로 한 만화와 함께 만화를 본 주부들의 간단한 소감도 곁들여 편집했다. 결혼 후 누구나 겪을 법한 일들이 궁급하다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다.

## 폴스웨츠 박사의 10대 자녀와 대화하는 방법

폴스웨츠 저 / 궁경희 역 / 세종서적 / 2002 / 236쪽 / 10,000원

커뮤니케이션을 전공한 폴스웨츠 박사와 사춘기에 접어든 10대 아들 저자가 10대 자녀와 대화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를 놓고 함께 고민하며 쓴 책 부모와 10대 자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

부모로서 성장과정에 있는 10대 자녀에 대해 새롭게 알아야 할 지식들과 그에 맞는 의사소통 기술, 또 자녀와의 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가져야 하는 태도 및 실천 방법 등 10대 자녀와 대화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이고도 실용적인 지침들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는 워크북이다.

- I. 가족과 일의 이해
- 1. 가정생활의 설계
- 1) 가족생활의 변화

## 폴로이드의 오래된 집

존 이브스 저 / 지소철 역 / 뚝인들 / 2000 / 263쪽 / 8,000원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 오래된 집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아버지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된 이야기다. 이 책은 아버지와 함께 육체노동을 하면서 겪은 마음의 변화를 소개한다. 살아오는 동안 한 번도 육체노동을 해본 적 없는 젊은 건설현장을 신인 아버지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차근차근 일을 가르치기보다는 자기 알에만 집중하는 아버지를 보자 젊은 화가 차밀고 아버지와는 같듯이 시작하는데 여러 가지 사건과 과정을 통해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부자간의 정을 느끼게 되는 책이다.

##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지아오 보 저 / 박지민 역 / 뚝인들 / 2002 / 247쪽 / 8,000원

글 한편 사진 한 장이다 마치 유순한 풀이 돋아나 있는 듯한 이 책은 눈보다는 가슴으로 깊이 만나는 사진 산문집이다. 중국 인민일보 사진가 지아오 보가 지난 20여 년 동안 부모님의 생활 모습을 꾸밈없이 촬영한 사진과 백년에 걸친 가족사를 추억한 정감 어린 글이 담겨 있다.

##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는 58가지 방법

백창화 저 / 사람과 사람 / 1998 / 224쪽 / 6,800원

나보다 부모님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홀어머니의 딸로 태어나 홀로 되신 사 아버지를 모시는 며느리 한 아이의 엄기인 평범한 주부 백창화씨는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는 58가지 방법>에서 효도의 기본 마음가짐을 이렇게 얘기한다. 이것이 가정의 화목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여까지 구체적 효도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행복한 가정 만들기의 경험과 지혜를 만날 수 있다.

## 부부일기

조양희 저 / 해냄 / 2002 / 192쪽 / 9,000원

중기집 만병괴로사의 혹독한 시집살이 20년 동안 고치지 못한 남편의 고약한 술버릇 아내의 자진 안락사의 흔적까지 않은 성격 차이 등 어느 부부들처럼 수많은 문제를 품고 살았던 조양희 부부의 이야기이다. 이 책에서는 '우린 정말 안 맞더라'는 말을 안버릇처럼 되며 20여 년 동안 살아온 부부가 매일 아침 5분씩 칭찬하기를 통해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게 되는 과정을 그렸다.

##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는 58가지 방법

백창화 저 / 사람과 사람 / 1998년 / 224쪽 / 6,800원

나보다 부모님의 눈높이에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홀어머니의 딸로 태어나 홀로 되신 사 아버지를 모시는 며느리 한 아이의 엄기인 평범한 주부 백창화씨는 <부모님을 편안하게 모시는 58가지 방법>에서 효도의 기본 마음가짐을 이렇게 얘기한다. 이것이 가정의 화목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구체적 효도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행복한 가정 만들기의 경험과 지혜를 만날 수 있다.

## 고향생각

이상훈 / 두산기적 / 1999년 / 160쪽 / 6,800원

고향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 사골 할아버지 할머니의 주름이 가득한 얼굴, 낯익은 인심, SBS 「좋은 세상 만들기」에 방영된 글 모음집이 나왔다. 담당 프로듀서인 저자의 빛 바랜 일가장 속 추억과 시청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았던 '고향'에서 온 편지를 모은 것이다. 잊고 싶었던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을 이런저런 떠오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어릴 적 고향에 대한 향수를 느끼게 하는 글들과 부드러운 칼라의 삽화가 잘 어울렸다.

- I. 가족과 일의 이해
- 1. 가정생활의 설계
- 6) 가족생활주기와 생활 설계

## 정년 이후 20년은 이렇게 살아라

스즈키케이조 작 / 자유문학사 / 1998년 / 224쪽 / 8,000원

장년 이후의 삶을 조인한 실용서 장년 이후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는 다섯 가지 요소 장년 이후의 인생 설계 과제 장년 이후의 라이프 플랜 장년 이후의 건강 장년 이후의 라이프 스타일 등 정년 이후의 삶을 조언했다.

## 바람난 부부의 세계여행기

여세호, 배영신 저 / 중앙 / 2001년 / 319쪽 / 8,000원

서른 두 살 동갑내기 카피라이터 남편과 방송작가 아내 이들이 이혼한 뒤 함께 2년 20일 동안 세계 40여개 국을 여행하면서 실시간으로 하이텔에 연재했던 글들을 세 권의 책으로 묶어냈다. 이 책은 그 중 1권으로 아시아와 북유럽에서 있었던 일들로 엮어냈다. 바람난 부부가 자구책을 헤매며 체험한 세상과 세상 사람들 그리고 부부싸움과 화해에 관한 솔직한 기록이 담겨져 있다.

## 새로 짓는 우리집

여성민우회 / 학민사 / 2001 / 247쪽 / 8,000원

이 책은 한부모 가족들이 우리 사회의 무지와 편견을 극복하고 사회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사항들을 정리한 안내서이다. 주위의 편견을 극복하는 법, 헤어진 시집사(관공)들과의 관계설정, 경제적 독립, 아이들 교육문제, 재혼문제 등 한부모 가족이 현실에서 부딪치는 어려움들을 상담의 형태로 진지하게 해설해 주고 있으며 부록으로 한부모 가족에 도움이 되는 법과 제도, 기관, 도서, 영상물, 사이트 등도 소개하고 있다.

## 재혼 가족관계

김중숙 / 한국문화사 / 2003년 / 216쪽 / 9,000원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족형태 중 증가하고 있는 재혼가족을 문제가족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70,80년대 인구 통계적 자료와 면접으로 재혼가족과 가족관계(부부, 자녀, 형제, 조부모 관계 등)의 실태를 파악하고 자료에 대한 이론적 분석을 통해 미래의 행복한 재혼가족과 가족관계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한 책이다.

## 단지 현명한 부모를 두었을 뿐이다

박정일의 저 / 굿인포메이션 / 286쪽 / 8,200원

무관심한 카드사용으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마는 젊은이 다 큰 자녀의 카드대금을 반년치 대신 결제해 주어야 하는 부모, 용돈의 범위를 넘어서는 소비를 부채질하는 사탕이던 현실 속에서 아이들에게 돈의 참다운 가치와 올바른 사용법을 알려주는 부모의 경제교육법을 실천적인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담았다.

##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될까요

이시이(황소연) / 큰나무 / 2002년 / 240쪽 / 8,000원

자지는 사랑하는 두 사람이 공통된 인식을 갖고 공통된 목표를 향해 갈아가지 않으면 함께 살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데 있어 반드시 마련해야 할 가장 중요한 토대라고 강조한다.

세상에는 다양한 성격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는데 이 중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바로 친구와 지우의 결혼 생활을 결정짓는 갈림길 이 되는 것임을 명심하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다.

- I. 가족과 일의 이해
- 1. 가정생활의 설계
- 7) 배우자의 선택과 결혼

- I. 가족과 일의 이해
- 1. 가정생활의 설계
- 7) 배우자의 선택과 결혼

## 된장을 연주하는 여자

도완녀 / 해냄 / 휴머니스트 / 2002년 / 252쪽 / 9,000원

늦사당에 빠져 5짜 9년을 단장마음에서 사랑하는 남편과 세 아이 여대 문수, 보현, 그리고 풍요로운 자연과 벗하며 사는 삶을 보여준다. 부부 이야기, 산골 생활 이야기, 자연주의적 재교육 이야기와 함께 된장으로 만드는 맛깔스런 새 음식, 소박한 산골 음식들을 소개한다.

## 결혼과 가족

김정옥 등저 / 학지사 / 1998년 / 489쪽 / 12,000원

이 책은 결혼과 가족에 관련된 보다 중요한 선택들에 대한 개념을 시작으로 사랑 성역할, 이성계 배우자 선택, 건강한 결혼생활, 부모자녀 관계, 이혼 등을 다루어 성공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명한 책.

## 행복한 결혼 멋진 이혼 : 결혼의 정신분석적 이해

Leon J. Saul / 학지사 / 1996년 / 269쪽 / 7,000원

정신역동분석가 사울 박사 부부갈등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와 나는 만남, 내용과 치료 과정을 심도있게 제시한다. 갈등의 주요 원인 아동기의 감정양식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필요로 한다는 주장을 펴며, 그것을 치유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 결혼과 사랑의 미학

조이스 허기트 저 / IVP출판부 역 / IVP(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 1993년 / 197쪽 / 5,000원

결혼 서약의 엄숙한 의미 서로를 이해하는 대화법 부부의 연합 사랑과 복종, 기도의 동역, 부모의 소명, 배야 하는 성과 그 문제들, 결혼 생활의 긴장과 고통, 사부와 돈 등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

## 만화로 보는 결혼이야기

배수원 / 청어 / 2002년 / 165쪽 / 7,800원

이 책은 그동안 1km 사이트에 연재된 만화로 보는 결혼이야기를 묶어낸 것이다. 사랑과 위층, 아래층에 살고 있는 결혼 4년 차의 맞벌이 주부인 자라는 현실과 분리되지 않은 생활 속의 부부 이야기를 만화로 엮어 내어 인터넷 연재 당시 보는 이들의 공감을 불러 일으켰다. 결혼 후 사대 식구들과 남편 사이에서 겪는 소소한 갈등과 에피소드를 소재로 한 만화와 함께 만화를 본 주부들의 간단한 소감도 곁들여 편집했다. 결혼 후 누구나 겪는 법한 일들이 궁금하다면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다.

## 행복한 임신 행복한 가정

주부길 저 / 한국가정사역연구소 / 2002 / 70쪽 / 4,000원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출발점은 바로 임신과 출산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임신이 대견히 축복받는 일이며 얼마나 소중한기를 말해주며 아울러 태교는 꼭 임신 중에만 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결혼 전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다테의 현실과 또한 무분별한 제왕절개 현상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어 이러한 현실에 대해 반성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 현명한 아이로 키우는 독서 육아법

렘 폭스 저 / 공병희 역 / 중앙M&B / 2002년 / 181쪽 / 8,000원

2차원 여관의 읽기 쓰기 능력에 대해 연구해 온 저자가 현명한 아이로 키우는 독서 육아법을 소개한다. 아이에게 책을 읽히는 것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 설명함과 동시에 독서 육아법의 원리와 방법을 가르쳐 준다.

- I. 가족과 일의 이해
- 1. 가정생활의 설계
- 9) 출산과 육아

- I. 가족과 일의 이해
- 1. 가정생활의 설계
- 9) 출산과 육아

## 아이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육아:아이만의 특별한 세계 이해하기

**이리나 프레코프 등 저 / 장혜영 역 / 용진닷컴 / 2002년 / 190쪽 / 8,000원**  
 여덟 살까지 아동의 인격 발달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부모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지침을 일러주고 있는 책이다.

## 고맙다 아가야! 널 키우다 보니 내가 컸구나

**편집부 편 / 좋은엄마 / 2002년 / 267쪽 / 10,000원**  
 어른의 마음이 작은 아이로 하여금 얼마나 자랄까 하겠지만 아이를 키워 본 사람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이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부모의 상을 함께 찾기 위해 엮은 책이다.

## 아빠를 바꾸는 엄마의 지혜

**후지모토 유코 저 / 김관호 역 / 시아출판사 / 2002년 / 152쪽 / 8,000원**  
 아가 태어난 양는 평소보다 몇 배가 더 바빠진다. 자녀 양육은 양가 시작하고 양가가 풀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 책은 우리의 아빠들에게 양가의 똑같은 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책입니다.

## 아동발달

**장휘숙 저 / 박영사 / 2002년 / 484쪽 / 22,000원**  
 아동의 특성을 크게 아동발달의 학문적 특성 발달의 지적 인지적 발달 사회적 발달 등 발달의 맥락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아동발달의 이론적 조망 태아의 발달 출산과 신생아의 발달 그리고 인지적 발달에서는 피아제와 비고츠키의 이론과 정보처리 이론 및 청의성의 발달영역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 발달에서 가정 애착과 정서의 발달 자기에 대한 이해와 성격 및 성격형성의 발달을 제시함으로써 아동발달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 아동발달 심리

**이연섭 등저 / 학지사 / 2001년 / 361쪽 / 15,000원**  
 이 책은 기존 아동발달 심리 흐름을 중심으로 최근의 연구 성과물인 양의 발달에 대한 이해 차이의 다원적인 해석 도덕성의 발달 창의성의 발달 생태학적 접근 등 새로운 관점들을 가미했다.

##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

**강문희 저 / 다음세대 / 2001 / 104쪽 / 4,000원**  
 부모들과 자녀의 대화가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시한 지침서. 자녀의 대화의 중요성 어린이 대화의 특징 어린이의 의사소통 능력 발달 부모-자녀 대화 방법의 일반적 원칙 대화할 때의 유의점 칭찬하기와 야단칠 때의 효과적인 대화 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부모와 자녀간의 효과적인 대화방법을 제시했다.

## 천재를 만드는 유태인의 가정교육법

**유태영 저 / 국민일보 / 2001 / 100쪽 / 8,500원**  
 이스라엘로 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교수로 오랜 경험을 쌓은 유태영 박사의 생생한 이스라엘 현지 체험기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그들이 행하는 교육의 실체를 우리의 정서에 어울리도록 소개해 우리의 교육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자녀교육에 보탬이 되도록 했다.  
 이 책은 이스라엘에서의 교직 경험이나 두 자녀를 현지 교육기관에서 교육시킨 경험과 그 사회에서 경험했던 일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 I. 가족과 일의 이해
- 1. 가정생활의 설계
- 9) 출산과 육아

## 아동발달

유호순 / 창지사 / 1998년 / 392쪽 / 13,000원

이 책은 태아에서부터 아동기까지 인간의 발달에 관한 제 측면을 여러 입장에서 서술하고 있다. 어린이가 성장해 가면서 거치는 각 단계들과 그것이 어린이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각 시기마다 어른이 취해야 할 태도와 지침들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이해를 돕는다.

## 아동의 세계 : 태내기에서 청년기 발달까지

이명.조연순 공저 / 양서원(박철용) / 1997년 / 662쪽 / 20,000원

부모들에게 아란 어떤 존재며 어떻게 자라나기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들려 줄 것다. 암나 뱃속의 태아가 어떤 과정을 걸쳐 태어나는지 태어난 신생아는 어떤 행동을 하며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영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은 무엇이며 그 때 부모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유아기 아동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동기에는 어떤 신체발달을 하며 지적 발달과 성격 발달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마지막으로 청소년기에는 어떠한 변화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 사례를 들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다.

## 임신과 출산 그 소중한 사랑을 위하여

황영진 저 / 건강다이제스트사 / 2002 / 362쪽 / 10,000원

신부와 전문의 의학자인 자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항들을 문답식으로 읽어 쉽게 설명한 안내서이다. '임신 전 여성은 어떤 건강 체 크를 해보는 것이 좋을까요?', '임신여부를 소변검사로 확인하면 정확 한가요?', '임신 중 과도하게 체중이 는 것을 주의하는 방법은 없습 나까?' 등 280여 가지 임신과 출산과 관련한 질문들을 12개 주제별로 나눠 묶었다.

## 딸기엄마의 생생 출산일기

최연희 저 / 청어람미디어 / 2001 / 199쪽 / 8,500원

딸기 엄마인 백살구의 임신의 준비 과정에서 임신 기간 중의 여러 가지 변화 및 알아야 할 내용과 출산과 아기 돌보기에 이르기까지 주변의 등장인물들과 함께 귀여운 그림으로 알기 쉽고 재미있게 표현하였다.

## 결혼과 가정

김시업 / 학지사 / 1999년 / 441쪽 / 13,000원

개인의 연령 증가와 변화되는 생활주기에 맞추어 그 때그 때의 핵심 현상을 한 장의 주제로 삼아 내용을 구성하였다. 결혼 동기 가족의 기능, 남녀 성역할 남 처자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이성교제, 사랑, 성, 배우자 선택, 결혼 결정의 현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생활예절과 국제매너

한홍렬 / 인간사랑 / 2001년 / 248쪽 / 10,000원

생활예절과 외국여행에 대한 예절 등을 소개한 책으로 예절과 매너의 이론적 기초, 우리의 가정의례 형성과 변천, 일상생활 예절 비즈니스 매너 및 외국여행에 대한 예절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외국여행에 대한 예절로서 여행의 예절 호텔에서의 예절 관공에서의 예절 방문예절 식사예절 파티에서의 예절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어 가정생활의 예절과 더불어 생활예절의 전반사항을 두루 안내하고 있다.

## 통과의례와 우리 음식

조후중 외 저 / 한림출판사 / 2002년 / 220쪽 / 10,000원

우리 나라의 통과 의례의 의미와 의례 음식을 소개한 책으로 통과 의례와 관혼상제 출신의례 백일, 돌 · 생일, 책례, 관례와 계례, 혼례, 수연례, 상례, 제례 등이 수록되어 있다.

- I. 가족과 일의 이해
- 2. 가정 생활의 실제
- 1) 초파와 행사
- 계획

- I. 가족과 일의 이해
2. 가정생활의 실제
- 2) 행사 음식 준비하기

## 한국음식대관 제5권 : 상차림 기명 기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편저 / 한림출판사 / 2002년 / 570쪽 / 60,000원

일상식 상차림 의례상 차림 상례·제례 상차림 명절음식과 계절음식 상차림 민속산상 상차림, 기명·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전통생활문화의 전승·보존을 위해 고급 문헌기록을 포함한 전통식에 대한 학계의 연구결과를 집대성한 총 6권 중 5권인 「상차림·기명, 기구」를 설명한 책으로서 의의가 있다.

## 초대손님을 위한 상차림

하숙정 저 / 수도출판문화사 / 1995년 / 222쪽 / 45,000원

초대 손님을 위한 상차림의 자칫사로 가는 부페 술상차림 기본 부페 상차림 기본 부페 후식 상차림 외국인을 위한 교자상차림과 후식상차림 어린이 한식상차림 어린이 생일 양식상차림 어린이 후식상차림 합반이상 합 주안상차림 합 교자상차림 폐백상차림 김들이 상차림 살내 부페 각테일 상차림 살내 부페 상차림 정월 교자상차림 정월 후식상차림 추석 교자상차림 추석 후식 상차림 주식으로 꾸미는 상차림 간편한 즉석 상차림 가정의례 상차림 등이 수록되어 있다.

## 초대요리

편집부 저 / 삼성출판사 / 2002년 / 95쪽 / 5,800원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각 주제별 요리법을 시간과 함께 조리법의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재료 고르는 법, 재료 보관 및 재료 손질법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 명절날 때때음식

출판부 저 / 용진닷컴 / 2002년 / 128쪽 / 5,800원

힘들고 부담스러운 명절날의 차례 차내기 음식 만들기부터 상차리기 기본 예법까지를 자세히 다루고 있다. 각 명절 음식뿐만 아니라 기존 명절 음식 대신 손쉽게 해먹을 수 있는 한끗 음식과 남은 명절 음식으로 만드는 특별 메뉴까지 소개하고 있다.

## 모임과 손님초대가 즐거워지는 특별한 날의 초대요리

방영아 저 / 삼성출판사 / 2002년 / 116쪽 / 5,800원

모임과 손님초대를 했을 때 유용한 다양한 초대요리가 수록되어 있다. 한식요리부터 양식의 테이블 세팅법, 일식 중국요리 등을 소개하고 있다. 다양한 메뉴와 자세한 설명, 조리과정 하나 하나의 사진까지 수록되어 있어 설명대로 친절히 따라하면 하면 초보자도 쉽게 요리를 만들 수 있다.

- I. 가족과 일의 이해
2. 가정생활의 실제
- 3) 방문과 접대의 예절

## 전통 생활 예절

김신연 저 / 민속원 / 2001년 / 250쪽 / 9,000원

전통예절을 중심으로 한 생활예절사이다. 관례, 혼례, 상례, 제례, 차생활 등 우리 전통예절 전반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면서 학교, 통신상, 보행, 공공장소 등에서의 예절을 다룬 공동체 예절, 전화·징호·경야법 등에 대한 대화예절, 해외여행과 외국인을 만났을 때의 예절을 다룬 자문예절 등 생활에서의 예절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 생활예절

김유진 저 / 예림출판사 / 1999년 / 138쪽 / 4,000원

생활속의 각종 예절상식을 알기 쉽고 간결하게 정리한 책이다. 휴대폰 예절, 전화예절, 네티즌 예절 등 최근의 통신예절을 비롯해 전시장 예절과 식생활 예절, 공공 예절과 교통수단의 예절, 학교 생활의 기본예절 등을 그림과 곁들여 소개하고 있다.

- I. 가족과 일의 이해
- 2. 가정생활의 실제
- 3) 방문과 접대의 예절

## 우리 차 세계의 차 바로 알고 마시기

최성희 / 중앙생활사 / 2002년 / 306쪽 / 10,000원

차의 유래와 종류, 차의 제조, 차의 성분, 차의 맛과 향기 분석, 차 추출물의 효과와 이용 등 학문적 지식과 더불어 녹차·홍차·우롱차 마시는 방법, 여러 가지 차를 취함에 맞게 블렌딩하는 방법, 홍차를 맛있게 마시는 방법, 차와 다구의 선택 및 보편요령 등 일상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특장이다. 컬러 화보와 사진자료, 도해를 곁들여 내용의 빠른 이해를 도와준다.

- I. 가족과 일의 이해
- 2. 가정생활의 실제
- 4) 생활용품의 종류와 활용

## 옷감 짜기

김영옥 글, 김형준·정진희 그림 / 보림 / 1996 / 45쪽 / 9,000원

인류가 처음으로 입은 털 가죽에서 삶의 발명과 원시 베를 고안할 때까지의 과정을 그림과 함께 설명하였다. 삼베, 비단, 무명 등 우리 전통 옷감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잘 나타나 있다. 이 책은 민족의 삶과 함께 발전되어 온 우리 옷감에 대하여 그림과 함께 설명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우리의 전통 문화와 과학의 우수성을 알 수 있다.

- I. 가족과 일의 이해
- 2. 가정생활의 실제
- 5) 생활용품 만들기

## 전통 옷감

민길자 / 대원사 / 1997 / 125쪽 / 4,800원

전통 직물에는 마직물, 면직물, 견직물, 모직물이 있는데 오늘날까지 제작되는 것에는 대마 직물인 배미포, 자마 직물인 모시(저포), 면직물인 무명(목면), 견직물인 명주와 각종 주·사·라·능·금·단 등이 있다. 특히 섬세하고 창아한 배와 모시, 질박하고 단소한 무명, 단아하고 온화한 명주는 가장 한국적인 직물들로 한국의 전통미를 잘 드러낸다. 우리의 제작 기술은 옷감뿐만 아니라 카펫이나 러그에도 남아 있다.

## 한국 전통직물사 연구

민길자 / 한림원 / 2000 / 246쪽 / 20,000원

이 책은 우리 나라의 고대 견직물 연구의 기초적 작업으로 고문헌에 기술된 견직물 관계 자료를 조사하여 그것을 각종 견직물 관계 고문헌과 비교 검토한 책이다.

## 씨실 날실

주강현 글, 안경의 인형 제작, 연출 / 보림 / 2001 / 45쪽 / 7,500원

이 책은 인형으로 만든 사실적인 인물과 배경을 통해 옛날에 옷 만드는 과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씨실 물레 베틀 등 옛 조상들이 사용했던 각종 갈쌈 도구와 생활 도구 하나 하나에서 소박한 우리 문화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 옷감의 문양 사전

이지미 테루미코·야기 카즈코 / 라사라패션월드 / 2001 / 168쪽 / 13,800원

패배기 스타라이프부터 프렛까지 여러 가지 옷감의 무늬에 대한 역사나 유래, 용도 등을 풍부하고 아름다운 사진과 함께 담고 있는 책이다. 스타라이프, 체크무늬, 프린트무늬 세계의 전통무늬 일본의 전통무늬 등을 비주얼에 중점을 두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 직물염색기법

케이트 부루턴 / 예경 / 1998 / 144쪽 / 19,000원

이 책은 염료를 사용하여 섬유에 물들이는 기술과 세부적인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여러 종류의 독특한 염색표현에 대한 연구와 함께 염료와 화학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까지도 설명하고 있다.



- 1. 가족과 일의 이해
- 2. 가정생활의 실제
- 5) 생활용품 만들기

## 의복 구성

**이병홍 · 최영순 / 교학연구사 / 2002 / 332쪽 / 25,000원**

이 책은 의복 제작 과정을 어렵게만 생각하고 기초가 부족한 초보자 및 응용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디자이너가 의도하는 다양한 디자인의 옷을 혼자서도 쉽게 제작할 수 있도록 기초는 잘법 교재인 봉제기법에서 제시한 각 부분별 기초 봉제의 제작 방법을 토대로 하여 의복 제작의 전 과정을 실물제작을 통해 시각적인 단계별 사진으로 상세히 설명하였다.

## 새로운 부분 봉제 - 내 손으로 척척 305

**YUTAKA SHIMANAKA / 라사리패션정보 / 2000 / 240쪽 / 11,800원**

자신이나 가족들의 옷을 손수 만들고 싶은 아에게 디자인과 패턴 봉제를 알기 쉽게 소개한 책이다. 이 책은 실무교육을 위주로 연구한 의류제작 특히 봉제분야의 세분화 작업에 필요한 요령과 원리를 정리 수록하여 경험과 이론적 실무기능을 한데 모아 우리 실정에 맞도록 기술되었다.

## 쉽게 사진으로 배우는 봉제 기법의 기초 : 옷 만들기

**정예민 · 조필교 공저 / 전원문화사 / 2001 / 150쪽 / 20,000원**

기초적인 봉제기법을 사진으로 설명하였다. 디자인 전공자가 아닌 가정과 교수들이 지은 책이므로 감각보다는 기초와 기술부분에 신경을 썼다. 실제로 재봉틀을 앞에 놓고 시작하려는 사람들, 스티치를 하나하나 배우고 주머니를 달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 아이 옷 리메이크

**최정아 / 시공사 / 2002 / 213쪽 / 13,200원**

엄마 아빠가 입던 옷들 아이들이 입던 옷들을 새롭게 만들어 입는 방법을 소개한 책. 헌복 차로 만든 드레스 실용이 난 남방으로 만든 카우보이 셔츠 등 헌 옷들을 재활용하여 멋진 아이들의 옷을 만들어 보는 내용이 담겼다.

## 사랑으로 만드는 내 아이 옷 & 소품

**이귀현 · 조영라 공저 / 시공사 / 2002 / 190쪽 / 13,600원**

옷 만들기의 기본인 기초 미름잡부터 재단 전체 미름잡과 상체 미름잡까지 미름질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부분이 초보의 수준에 맞도록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며 작품마다 디자인을 할 때 알아두어야 할 힌트들도 덧붙여 있다.

## 옷은 사람이다 : 이영재의 신사복 이야기

**이영재 / 은행나무 / 2001 / 271쪽 / 15,000원**

이 책은 사중 사립의 체형 체질 직업 환경 여건에 따라 옷을 달리 만들고 입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자사의 옷과 관련한 해박한 지식과 인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체와 옷의 연관성, 옷의 미학, 소재와 색상, 인체 공학, 올바른 착용법 등에 대한 유익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 옷 색깔 맞춰 잘 입는 비결

**편집부 / 주부생활(학원사) / 1996 / 198쪽 / 9,800원**

이 책의 내용은 옷을 잘 입기 위한 기본 이론을 시작으로 '오늘은 어떻게 입을까?'라는 주제를 설정 매일 같이 입아야 하는 '옷입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체형의 결점을 극복하여 자신있게 입는 법 6가지, 톱다자이너들이 가르쳐주는 개성있게 입는 법 6가지 방법을 소개한다. 또 체형을 9가지로 분류 체형에 따라 어울리는 아지 색상을 선정 분위기에 따라 옷 색깔 맞추어 입는 방법과 화장 테크닉을 상세하게 담았다.

- 1. 가족과 일의 이해
- 2. 가정생활의 실제
- 5) 생활용품 만들기

## 우리옷 이천년

**한국복식문화2000년조직위원회 / 미술문화(미술사학연구회) / 2001 / 191쪽 / 15,000원**  
 실린 사진들만 보아도 과거에 대한 신비한 상상에 빠질 수 있다. 전문자들처럼 아주 충실한 내용이라 할 수는 없으나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인들에게는 더 쉽게 다가간다. 사극에 나오는 의상들을 단 한번이라도 눈 여겨 본 사람이라면 이 책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 인물화로 보는 조선시대 우리옷

**권오장 / 현암사 / 1998 / 192쪽 / 30,000원**  
 신분별로 명미한 조선시대 우리 옷 10여 점을 철저한 고증을 받아 그리고 해설한 책이다. 태조, 영조, 의친왕, 명성황후 등이 입은 궁중 복식을 비롯하여 종교 복식, 사대부 복식, 민속복 등 조선시대 복식을 글과 그림으로 알기 쉽게 보여 준다.

## 손뜨개 가방 & 소품 DIY

**자은주 / 용진닷컴 / 2002 / 150쪽 / 9,800원**  
 최근 유행되고 있는 토트백이나 바게트백을 내손으로 직접 만들어 볼 수 있으며 손뜨개로 자신이 원하는 색깔과 모양의 다양한 가방과 소품을 만들도록 여러가지 도안과 소품을 소개하고 있다. 처음 손뜨개를 하는 사람들도 쉽게 만들도록 상세한 설명과 만드는 과정에 대한 이미지를 담고 있으며, 재료를 살 수 있는 곳의 위치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 꼭 갖고 싶은 십자수 소품

**편집부 / 서울문화사 / 2001 / 204쪽 / 12,000원**  
 이 책은 많고 많은 십자수 책들 중에서 예쁜 도안으로 승부한다. 자세하고 찬철한 설명과 함께 응용 가능한 패턴들이 가득하다. 십자수를 처음 배우는 초보자에게 아주 알맞은 책이다. 도안들도 아가사까지하고 또한 예쁘고 한눈에 들어와서 십자수를 하는데 어려움 없이 하게되는 책이다. 책 도안들도 여러 군데 이용할 수도 있고 정말 작은 소품들을 만들기에 안성맞춤이다.

## 비즈로 만든 패션소품 70:알알이 구슬을 꿰어 만든다

**김정희 / 시공사 / 2002 / 157쪽 / 12,500원**  
 자칫 무섭고 자칫 바가지 위문 작은 구슬들 하지만 이런 구슬들이 모이고 정성과 시간을 다하면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름다운 액세서리와 장식이 됩니다. 이 책에서는 초보자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기본형부터 좀더 차별화되고 개성으로 가득한 명품비즈까지 골고루 담겨 있어 비즈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라면 누구라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생활속에서 꼭 필요할 때 바로 꺼내 나만의 비즈 액세서리와 장식품을 만들 수 있는 비즈의 기본이 되는 책입니다.

## 손바느질로 만든 주방소품 62

**편집부 / 서울문화사 / 2001 / 92쪽 / 7,500원**  
 한뼘 한뼘 손으로 바느질한 소품은 감안을 정겹게 한다. 가정에서 직접 만들 수 있는 주방소품 제작법 안내서이다. 기초 바느질법에서부터 재봉틀 사용법을 소개하고, 다양한 재료로 만드는 식탁보, 냅킨, 킷반침, 방석 등을 제작 과정을 보여주는 화보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 주거 공간의 계획과 설계

**최재순 외 / 기문사 / 2000. 03 / 236 쪽 / 12,000**  
 주택 설계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과 일반인을 위한 갑잡이로서 주거학을 전공하거나 주택상담 주택점검 관련분야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기초설계 교과서로서 기획되었다. 주택을 개조하거나 증·신축하려는 일반인의 실제생활에도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주거생활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려는 연구자들의 입문서로서도 이용되도록 많은 정보를 수록하고 있다.

- 1. 가족과 일의 이해
- 2. 가정생활의 실제
- 6) 주거 공간의 계획

- I. 가족과 일의 이해
2. 가정생활의 실제
- 6) 주거 공간의 계획

## 아침이 행복해요, 작은집 인테리어 199

편집부 / 서울문화사 / 2002 / 252쪽 / 12,000

작은 집을 만들고 예쁜 작은집을 꾸미기 위하여 인테리어의 포인트를 한눈에 꼭 들어오게 짚은 책이다.

처음으로 인테리어를 시도하는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로 인테리어 레슨 코스를 비롯해 작은집에서의 정리정돈에 필요한 아이템을 소개하고 살기 편하게 꾸민 20~30평형대 아파트 실례를 수록

- I. 가족과 일의 이해
2. 가정생활의 실제
- 7) 나의 주거 공간 꾸미기

## 실내디자인의 이해

김대년, 최정신 / 교문사 / 2000 / 254쪽 / 23,000원

실내 디자인 교재로서 우리나라의 실내 디자인 변천사뿐 아니라 서양의 실내 디자인 변천 또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실내 디자인의 개념에서부터 실내 디자인의 변천, 실내 디자인의 이론, 실내공간의 구성요소와 재료, 실내 디자인의 실제까지 실내 디자인에 관한 기초를 알기 쉽게 설명했다.

## 실내디자인과 색채

인테리어 산업협회 / 국제 / 윤혜림, 강순길 공동출판 / 2001 / 102쪽 / 12,000원

실내디자인 색채에 대한 효과적인 활용법을 소개한 책 기호와 풍토가 창출하는 지역의 색과 일본의 예마키모노에 펼쳐진 화려한 색채 식도락 문화를 통해 본 색채 및 인테리어 컬러와 조명, 소재를 살린 인테리어 구성 등을 용어해설과 함께 자세하게 수록했다.

- II. 생활기술
3. 에너지와 수송기술
- 1) 에너지 자원의 종류

## 원자력 에너지 그후 100년

이근 라센 저/ 김채룡 역 / 전파과학사 / 1997 / 222쪽 / 7,000원

19세기 말 베타방사능을 발견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원자력의 발달과정을 쉽게 소개하고 방사능의 본질과 방사능 동위원소 이용, 원자력 발전과 이용에 관한 기술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 에너지와 환경

정석진 외 / 삼성실업 / 2000년 / 620쪽 / 20,000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총체를 의미하는 에너지 개념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현황과 문제점, 석탄에너지 기술, 석유 및 천연가스 이용 기술, 핵에너지, 더 나아가 환경보존을 위한 미래의 청정 에너지 개발을 위한 기술 등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해양에너지공학

상원준남 외 저/ 홍석원 외 역 / 신기술 / 1995 / 228쪽 / 18,000원

우리 나라와 같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지리학적 조건에 비추어 볼 때 연구할 가치가 있는 자연 에너지의 하나로, 조력에너지를 비롯해 해류 및 조류에너지, 파랑에너지, 해양에너지, 에너지를 이용한 연분차 에너지와 바이오매스에너지, 취득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등 해양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에 대해 폭넓게 기술한 책이다.

## 에너지

박이동 저 / 대영사 / 2000 / 344 쪽 / 10,000원

에너지란 무엇인가부터 에너지의 유형과 형태 및 저장 보존 시장원리까지 설명하고 있다. 특히 열역학 원리의 신기술, 자연 에너지 냉난방 및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어 에너지의 기본원리부터 환경까지 총 망라하여 고차하고 설명하고 있어 에너지의 여러 가지 형태를 중심으로 참고하면 좋다.

- II. 생활기술
- 3. 에너지와 수송기술
- 1) 에너지 자원의 종류

## 에너지 전환의 현장을 찾아서

**이필렬 저 / 궁리 / 2001 / 190 쪽 / 9,000원**

화석에너지에 기반한 중앙집중적인 에너지 시스템에서 태양에너지에 기초한 분산적·분권적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독일의 사례를 바탕으로 기술하면서 에너지 전환의 방향을 제시한 책. 기후 변화와 에너지 자원 고갈이라는 에너지 위기의 심각한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에너지 시스템의 전환을 제시하고 에너지 전환을 이미 시작한 독일의 현장을 통해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 지구온난화 문제와 에너지 혁명

**김중달 저 / 형설출판사 / 1999 / 300 쪽 / 14,000원**

석유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 오늘날 온실 효과로 인한 지구온난화 문제는 인류를 새로운 상황으로 내몰고 있으며 세계경제구조의 재편으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구온난화의 영향과 우리의 현실을 분석하고 극복방안들을 부문별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에너지전환의 역사와 장애 요인을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분석하고 있다.

## 에너지 민주주의

**제진수 저 / 이후 / 2002 / 254 쪽 / 13,000원**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탈원자력·탈화석연료·탈중앙집권적 정책을 내세우며 추진하고 있는 운동의 흐름을 이 책은 '에너지 민주주의'라 명명하여 소개한다. 이 책은 에너지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공공 공분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 시민주의가 자신의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민주주의 즉 에너지 민주주의가 빠져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이 책은 일본과 한국의 정책가, NGO,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 II. 생활기술
- 3. 에너지와 수송기술
- 2) 에너지 자원의 이용

## 에너지와 생활

**정용희 저 / 청문각 / 1999 / 162 쪽 / 8,000원**

우리가 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일들을 에너지라는 측면에서 기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 일상생활의 외적인 활동뿐 아니라 내적인 활동까지 다루었다. 에너지의 변화를 주역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긍정적인 사회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또한 에너지의 순환을 통해 윤회를 들여다보았으며 에너지 이용에 따르는 문제점과 에너지원 고갈에 대한 대책으로 대체 에너지를 소개하고 있다.

- II. 생활기술
- 3. 에너지와 수송기술
- 3) 수송 기술의 발달

## 자동차 전쟁

**채영석 저 / 기한재 / 2002 / 262쪽 / 9,000원**

이 책은 자동차에 관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것을 바탕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한국 자동차의 전투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자동차에 흥미를 갖는 학생들에게 미래 산업으로서의 자동차공학을 소개한다.

## 한국의 자동차 산업

**조동성 저 / 서울대학교 출판부 / 1998 / 308쪽 / 14,000원**

한국 자동차 산업의 현황과 구조 문제점과 향후 전망을 소개한 책으로 한국 자동차산업 발전 과정을 개관하고 조립생산성 기술 및 신제품 개발 부품업체 관리 세계화 전략 유통구조 한국 자동차산업의 구조조정으로 나눠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에 대한 이해를 돕는 책이다.

## 자동차 디자인 100년

**구상 저 / 조형교육 / 1998 / 232쪽 / 18,500원**

100년 넘는 자동차 역사를 시대적 시간적 분류를 거쳐 연대별로 장대한 자동차 소개서 자동차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새롭게 탄생 변화해 온 양상을 분석하고 세계의 유명한 자동차 메이커의 사진자료와 함께 각 모형의 특징과 의미를 소개하고 있다.

- II. 생활기술
- 3. 건설 기술의 기초
- 3) 건설 구조물의 시공 원리

## 철근콘크리트 구조설계

**이시학 / 형설출판사 / 2002 / 476쪽 / 25,000원**  
 건축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쉽고, 나아가 현장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책.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을 알기 쉽게 풀이했다. 허용응력설계법을 해석할 수 있도록 정확한 해설과 예제를 곁들였으며 사무실의 예를 들어 실제 구조물을 설계하는 과정을 해석했다.

## 건축 설계 제도

**석진옥 외 / 기문당 / 2000년 / 224쪽 / 17,000원**  
 건축설계 및 실내건축설계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건축설계 지침서이다. 제도의 의의, 설계의 진행과정, 설계도서의 종류 등을 개괄적으로 구성했으며, 제도의 규칙과 방법 및 기본연습과정을 실었다. 또한 실내건축과정을 비롯해 실무에서 적용되는 건축설계 과정 및 건축설계과정을 덧붙였다.

## 건축설계 이야기 1

**권도용 / 기문당 / 2000년 / 255쪽 / 10,000원**  
 쉽게 풀이한 건축설계 지침서 건축가의 책임과 권한 법적 기준과 도덕적 기준 설계기법과 설계의 질 건축설계와 인테리어 시스템 동선 흐름에 맞는 평면계획 파단계단의 자연채광과 환기의 필요성, 방수설계와 보수의 기본 등 건축설계에 대한 생각을 담은 글이다.

## 건축설계 이야기 2

**권도용 / 기문당 / 2000년 / 286쪽 / 10,000원**  
 건축과 설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건축가의 신문집 골치 아픈 건축가와 기본 좋은 건축가 설계조직에서의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등 3편의 글을 신고 건축설계에서 자칫 기 쉬운 부분을 창과 문, 계단, 구조, 설비 등 5개 분야로 나눠 지적했다.

## 한국 토양에 맞는 전원주택 설계집

**이심 발행 / 장작과비평사 / 1999 / 270쪽 / 9,000원**  
 주택은 생활을 담는 그릇이다 따라서 집을 짓는 행위는 삶을 구축하는 또 다른 방식으로 여겨도 무방할 것이다 제대로 된 주택을 마련하기까지 집주인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은 부자극로 많다 그 중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제대로 된 설계를 하는 일이다.

## 건축과 색채

**미야고 히로시 외 / 이화철(번역) / 이집 / 2001 / 110쪽 / 13,000원**  
 색채 설계에 대한 실천적 이론을 정리한 책 건축계획에 있어서 설계의도 공간행과의 관련성 위치 및 지역의 적합성 프레젠테이션 자신의 인테리어에서 건축 도시장관의 색채 설계 등을 풍부한 사진과 함께 프로세스를 따라 정리하여 색채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 자동차 과학

**전장 저 / 아카데미 서적 / 1999 / 268쪽 / 12,000원**  
 자동차의 과거와 현재 동력 발생장치인 엔진과 배기 기압 동력전달장치와 변속기 타이어나 제동장치 자동차 안전 백과 등 자동차의 모든 것을 컬러사진과 함께 설명하고 미래의 자동차를 소개함으로써 미래의 자동차 기술에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책이다.

- II. 생활기술
- 3. 에너지와 수송기술
- 4) 수송 기술의 발달

## 내연기관

조기현 저 / 동진 출판사 / 2001 / 400쪽 / 15,000원

저자들의 현장실무에서 수년간 연구 개발해 온 기술적인 사항들을 응용기술 차원에서 적용함으로써 내연기관의 기본지식과 함께 산업분야에서 응용되어지는 부분까지 함께 습득하거나 참고자료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다. 각 장마다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그림들이 많이 삽입되어 있고, 학습에 매우 유용한 기술 기원의 운전 및 정비부분을 추가하여 한층 이해를 쉽도록 하였다.

## 엔진튜닝 테크닉

한국자동차산업 연구회 저 / 글든벨 / 2001 / 268쪽 / 15,000원

이 책은 엔진 각 장치의 튜닝 위치 살해 측정 데이터에 의한 튜닝 방법의 제시 사진으로 나타낸 튜닝 전·후의 비교, 튜닝 위치 선정의 오관 및 측정 오차의 발생에 의한 트러블 발생 원인 등을 빠짐없이 다룬 엔진 튜닝에 관한 책이다.

## 자동차 공학 개론

교과관련 즉화유아 저 / 동명사 / 1998 / 310쪽 / 13,000원

자동차 발달사, 자동차에 대한 정의를 기술원과 디젤 엔진 등 자동차용 엔진 소개 설명서, 피스톤, 크랭크축으로 이루어진 엔진 분체 소개, 연료장치, 냉각장치, 윤활장치, 조향장치, 환기장치 등 자동차 공학 전반을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 차량 동역학

김상섭 저 / 피어슨에듀케이션코리아 / 2002 / 426쪽 / 25,000원

이 책은 공학법칙의 기본과 차량의 성능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인 방법을 너무 어렵지 않게 다루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역학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해석을 위한 방정식을 소개하고 있다. 전문적으로 공학을 연구하지 않은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고, 논외된 대부분의 법칙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넣었다.

## 운송수단 디자인

구상 저 / 조영교육 / 2000 / 244쪽 / 15,000원

자동차를 포함한 다양한 운송수단 디자인의 전반을 다루고 있는 책으로 운송수단의 개요, 위치 변화, 타이어 등의 하드웨어와 디자인과 관련된 발상, 설계 등을 분석해 놓았다. 그밖에 대체 에너지와 미래의 운송수단에 관한 내용으로 다양한 운송기술을 이해할 수 있다.

## 자동차 생활 길라잡이

이진우 저 / 구미서관 / 2002 / 188쪽 / 10,000원

자동차 교통 환경에 새롭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성숙한 교통문화 시민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주는 자동차 생활 서적 공동체 사회에서 요구하는 올바른 교통 수칙과 자동차의 역사, 제도, 법규, 구조 등을 소개하는 책이다.

## 비행기는 어떻게 진화할까

근도지로 저 / 이카데미 서적 / 2000 / 276쪽 / 6,800원

라이트 형제가 동력비행에 성공한 이후 백년 동안 진화를 거듭해온 비행기의 발전과정과 미래를 정리한 책으로 인간이 20세기에 이룩한 기술적 성과 가운데 교통분야에서 가장 주요한 발명품이 비행기임을 보여준다. 이 책은 수송기술 전반에 관한 이해를 돕는 참고서적으로 활용 될 수 있다.

## 타이어 공학

김양우 저 / 글든벨 / 2002 / 222쪽 / 12,000원

타이어에 관한 기초적인 내용부터 자동차 전문인으로서 알아두어야 할 전문적 용어까지를 총정리 해놓은 책이다. 자동차의 구성부품으로써 타이어에 관한 일반적인 지식 및 전문 지식을 광범위하게 다루었으며, 타이어의 발전사, 구조 및 성능시험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 자동차 엔진

조진호 저 / 학연사 / 2002 / 524쪽 / 18,000원

자동차의 내연기관 기술인 엔진과 디젤 엔진에 대한 내용을 사술한 책으로 연비절감을 위한 린번형 엔진까지 소개하고 있어 엔진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의 이해를 돕는다.

## 자동차용 가솔린 엔진

중도태부외 저 / 글든벨 / 2000 / 302쪽 / 15,000원

자동차용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가솔린 엔진의 현황과 미래의 대체 엔진을 비교해 고효율 화 등 미래에 개발될 가능성에 대한 엔진을 기술했으며 연비의 향상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또한 배기의 정청화, 진동 및 소음 저감 기술의 향후 전망과 성능 향상을 위한 엔진의 각 계통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효과적인 설명을 더하고 있다.

## 자동변속기

윤용식 저 / 글든벨 / 1997 / 376쪽 / 13,000원

자동변속기(Auto Transmission)의 개요, 소형·중형 자동차로 나누어 각 변속기의 구성, 변속 패턴, 조립 등을 사진 도해와 함께 설명하고 있는 책으로 자동변속기의 고장진단, 분해, 조립, 점검 등을 상세히 제시하는 자동차 전공서적이다.

## 자동차 구조학 개론

김선일 저 / 동진 출판사 / 2002 / 610쪽 / 16,000원

자동차 구조에 대한 기초 지식으로 자동차의 총론을 포함해 엔진의 일반, 엔진 주요부, 밸브 장치, 윤활 장치, 냉각 장치, 연료 장치, 흡·배기 장치, LPG 장치, 전자제어 연료 분사 장치, 디젤 엔진, 전자제어 디젤연료 분사 장치, 내연 기관의 성능 등을 제시한 책이다. 자동차 공학을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책이다.

## 자동차가 부릉부릉

명료진 저 / 김영사 / 2000 / 190쪽 / 3,900원

현재의 자동차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만화와 함께 흥미롭게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책이다. 우리 나라의 과거로부터의 현대까지 다양한 자동차의 종류를 소개하고 있어 부담없이 읽으면서도 자동차 전반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 자동차 디젤 기관

윤준규 저 / 미전사이언스 / 2002 / 344쪽 / 14,000원

자동차 연소기관 중 디젤 기관에 대한 기본원리와 실체를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하였으며, 현재와 미래의 신기술에 중점을 두었다. 연료분사장치에 대하여 큰 역점을 두어 편찬된 이 책은 기계적인 원리로부터 전자제어 시스템까지 구성의 이해가 높다.

- II. 생활기술
- 3. 에너지와 수송기술
- 5) 자동차의 구조

## 자동차 기술린 기관 공학

**정찬문 저 / 미전 사이언스 / 2002 / 452쪽 / 15,000원**  
 자동차 내연기관의 열역학적 사이클, 흡·배기 과정 기술린 기관의 성능특성 및 출력의 산정 기술린 기관의 구조와 개요, 기관의 주요부, 윤활 장치와 냉각 장치, 연료 공급 장치 등 자동차의 기술린 기관을 상세히 설명한 책이다.

## 신편 내연기관

**이주성 저 / 선학 출판사 / 2001 / 464쪽 / 15,000원**  
 자동차의 내연기관에 대한 기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책으로 내연기관의 분류 및 특징과 열역학적 원리, 운전 및 장비를 비롯하여 산업분야에서 응용되어야 하는 부분까지 함께 습득하고,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책이다.

## 자동차 전쟁

**채영석 저 / 기한재 / 2002년 / 262쪽 / 9,000원**  
 이 책은 자동차에 관해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한 것을 바탕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한국 자동차의 전략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자동차에 흥미를 갖는 학생들에게 미래산업으로서의 자동차공학을 소개한다.

## 자동차가 부릉부릉

**명로진 / 김영사 / 2000년 / 190쪽 / 3,900원**  
 현대의 자동차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민화와 함께 흥미롭게 내용을 전개하고 있는 책이다. 우리나라의 과거로부터의 현대까지 다양한 자동차의 종류를 소개하고 있어 부담 없이 읽으면서도 자동차 전반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 자동차 공학 & 정비

**신현승 저 / 골든벨 / 2002 / 222쪽 / 15,000원**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이 세계 5위를 기록하면서 자동차 관련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자가 운전자도 늘어나면서 기본적인 자동차 정비에 관한 교육이 요구되어 있는데 이 책은 자동차 기판, 동력전달장치, 제동장치, 전장장치의 이론과 자동차 기판, 새시, 전기 장비 및 검사용 기계기구 사용법, 고장진단과 대책 등 자동차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놓았다.

## 자동차의 모듈 혁명

**박선규 저 / 보성각 / 2002 / 214쪽 / 14,000원**  
 미래의 자동차는 어떤 형태로 변화할 것인가 그 변화에 맞추기 위해 자동차업체는 어떠한 생존전략을 가지고 변화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인가, 미래의 자동차 산업을 조망해 보면서 모듈화의 형태는 어디까지 진행될 것이며 모듈화의 용어가 새로운 용어로 변화할 정도의 혁명적 변화는 과연 일어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고 있다.

## 자동차 10년 타기

**임기상 저 / 경영사 / 2001 / 160쪽 / 15,000원**  
 차의 평균 수명이 78.3년을 생각할 때 심각한 낭비임을 깨닫고, 인건비도 경제적인 운전으로 효과적인 자동차생활을 위한 지침서다. 운행 전 점검을 비롯해 정기 점검 무리하게 운행하는 차의 점검, 부품 교환 방법, 경제적인 자동차 관리 등에 대해 소개했다.

- II. 생활기술
- 3. 에너지와 수송기술
- 6) 자동차의 관리



## 한옥의 향기

신영훈 / 대원사 / 2000년 / 324쪽 / 18,000원

고블 맹사성의 옛집 인동 물돌이 마을의 대종가 양진당 사계 유성 통선생의 고택 충효당 예학의 거두 동춘당의 고택 녹차 향내 그윽한 보성의 광주 이씨택 등 전국에서 손꼽히는 한옥의 생김새며 그 안에 담긴 철학적 의미를 사진과 함께 실었다. 이 책은 한국의 종가집 순례가 주를 이루며 사라져 가는 종가집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수백 년의 역사를 간직한 옛 살림집의 미학 한옥에서 찾아낸 여러 무늬들의 숨겨진 의미를 해석했다.

이 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단순한 옛 건축이 아니라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본다는 데 있다. 공평이나 시작처럼 안내문을 보고 상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림을 하고 있는 그에서 삶의 흔적이 그대로 느껴지는 한옥의 모양새를 요묘조묘 살펴보는 것이다. 그리고 한옥 배치도를 잘기렸는데 글이나 사진으로는 한눈에 파악하기 어려운 집의 평면을 그림으로 꼼꼼히 보여주었다. 글과 그림을 맞춰가면서 읽으면 새로운 재미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세계의 건축

필립 윌킨스(김승제 역) / 공간사 / 2002년 / 160쪽 / 8,000원

세계의 건축물을 시대별 지역별 건축양식별로 분류하여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또한 책이 작고 간편하지만 내용과 그림이 수록되어 있어 이해하기 편하고, 세계의 유명 건축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입문서이다.

## 클라시커 50 : 20세기 건축

크리스티나 하벨리크 저 / 해냄출판사 / 2002 / 292쪽 / 15,000원

쏟아졌던 것이 이름답다고 와친 기능주의 건축에서부터 이름다음 그 자체의 기능에 주목했던 표현주의 건축 그리고 인권을 너무 많이 버린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좌익의 건축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20세기에 나타난 건축 양식의 모든 방향에 대해 보여준다. 한가지 더 최첨단 기술을 이용해 가장 공간에 펼쳐 보이는 현대 건축의 패러다임을 감상할 수 있도록 이 책 자료 판에는 현재 활동 중인 세계적인 건축 사무소 웹사이트가 소개되어 있다.

## 도시의 과학자들

제임스 트레필 저 / 지호 / 1999 / 333쪽 / 12,000원

도시의 탄생에서 도시의 죽음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의 구성구석을 탐험한 책. 현재의 도시와 미래의 도시로 나눠 무엇이 도시를 괴롭히는가 다리에 얽힌 이야기 우주로 통하는 엘리베이터, 도시의 죽음 등 16개 단락으로 나눠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다.

## 차세대 빌딩의 조건

OFFICE BUIL 종합연구소 저 / 빌딩문화 / 2001 / 226쪽 / 12,000원

건축관련 전문가들이 본 건축을 통한 미래사회의 대응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으며, 건 축분야 전체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했다. 또한 빌딩의 조건을 비롯해 환경의 세기와 오피스 건축 투자평가에 강한 빌딩 및 차세대 빌딩을 실현하는 포커스 등을 수록 했다.

## 우리 건축 100년

신영훈 역 / 현암사 / 2002년 / 384쪽 / 20,000원

한국문화예술총서 제7권 풍부한 원색 도판을 바탕으로 20세기 한국 건축이 서구 문화와 전통 문화의 교차점에서 보인 극단적인 양상을 긍정·부정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서구화 과정에서 오히려 두드러졌던 주체성·전통성 추구의 영광과 좌절을 꼼꼼히 짚고 있다. 아울러 2세기 한국인과 조화를 이룰 우리 건축의 방향성도 가늠하고 있다.

- II. 생활기술
- 4. 건설기술의 기초
- 2) 건설 구조물의 종류

## 이집은 누구인가

김진애 저 / 한길사 / 2000 / 318쪽 / 9,000원

이 책은 사람의 삶이 빠들고 사람의 정서가 녹아드는 집 그러한 감성 풍부한 집을 12가지 유형으로 소개한 에세이 이다.

## 서양 건축사

정성현, 최성원 저 / 동방미디어 / 2002 / 326쪽 / 23,000원

이 책은 선사시대부터 19세기 근대 건축에 이르기까지 4천년 서양 건축의 역사를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게 정리한 건축 이야기다. 건축물을 탄생시킨 역사적 배경과 시대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전반부에 실리고, 그와 함께 건축물의 시대별 특징과 세부적인 건축학 지식을 이야기한다.

## 세계의 건축

필립 윌킨스 저 / 공간사 / 2002 / 160쪽 / 8,000원

세계의 건축물을 시대별 지역별 건축양식별로 분류하여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또한 책이 작고 간편하지만 내용과 그림이 수록되어 있어 이해하기 편하고, 세계의 유명 건축물을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입문서이다.

## 건축의 역사

조너선 글랜시 저 / 시공사 / 2002 / 240쪽 / 29,000원

창세기에 언급된 바벨탑부터 오늘날 대도시의 풍경을 만들어 내는 유리 첩골 구조의 고층 빌딩에 이르기까지 9000년 건축의 역사를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특히 자라는 건축사에 한 획을 그은 의미 있는 건축 양식의 변화를 강조하고, 그러한 변화의 원동력이 된 건축 구조와 기술의 혁신에 대하여 설명한다.

## 주머니속의 건축

최부득 / 미술문화 / 1999 / 175쪽 / 9,000원

“삶이 고달플 때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을 찾아서 여행을 떠난다. 도시와 건축이 곳곳에서 멋들어지게 조화를 이룬다면 우리는 항상 즐거운 여행을 하듯이 삶을 꾸밀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문화의 시대에 건축은 예술이야 한다. 건축이 예술일 때 비로소 사람들은 건축에서 문화의 향기를 느끼게 될 것이다.”라고 저자는 말한다. 그는 유명 건축가들의 건축 작품들을 예로 들면서 이해하기 쉽게 건축을 이야기한다.

## 건축 이야기(The Story of Architecture)

패트릭 넛겐스 저 / 동녘 / 2001 / 352쪽 / 40,000원

이 책은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필요를 인간 정신의 가장 위대한 표현으로 변형시켰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 누구나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 생물의 건축학

하세가와 다카시 저 / 현암사 / 2002 / 264쪽 / 7,500원

이 책에는 나뭇가지에 땅속에 물위에 자라들의 몸과도 같은 동지를 만들어 살아가는 50여종의 동물들이 소개된다. 자연과 하나된 동물의 집 짓는 이야기는 비단치화된 근대 건축이 결국은 실패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진정 자연과 조화된 인간 건축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 II. 생활기술
- 4. 건설기술의 기초
- 2) 건설 구조물의 종류

## 세계의 민속 주택

**OFFICE BUILDING** 종합연구소 저 / **빌딩문화** / 2001 / 226쪽 / 12,000원  
 북극의 얼음집부터 사막의 주택까지 세계 곳곳의 민속주택을 고찰하여 풍부한 사진과 함께 기후와 지형에 맞게 변천한 민속주택의 모습을 정리한 책이다.

## 중국 고건축 기행 1

**러우장시** 저 / **컬처라인** / 2002 / 292쪽 / 25,000원  
 이 책은 20세기 주택과 관련된 중국 건축의 역사적 성격을 살펴보고 건축이론의 측면에서 설명을 하였고, 한걸음 더 나아가 그 것이 갖는 인문·문화적 의미를 깨닫는다. 즉 차이는 건축물을 단순히 생명이 없는 물질 덩어리가 아니라 인간의 구체적인 삶과 사회의 총체이며 스스로 말하는 존재로 간주하였다.

## 우리 건축 100년

**신영훈 외** 저 / **현암사** / 2002 / 384쪽 / 20,000원  
 풍부한 원색 도판을 바탕으로 20세기 한국 건축이 서구 문화와 전통 문화의 교차점에서 보이는 극단적인 양상을 긍정·부정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서구화 과정에서 오히려 두드러졌던 주체성·전통성 추구의 영광과 좌절을 꼼꼼히 짚고 있다. 아울러 21세기 한국인과 조화를 이룰 우리 건축의 방향성도 가늠하고 있다.

## 건축미학과의 만남

**권태문** 저 / **시공문화사** / 2001 / 192쪽 / 9,500원  
 건축미에 관한 주요 이론들을 고대의 건축론으로부터 현대의 건축미학까지 역사적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각 시대별로 건축작품에 표현된 미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철학자와 미학자들의 건축미학에 대한 주요 사상을 고찰하여 그 과제와 방향을 이해하고 그들의 사조를 기준으로 표현된 건축조형의 미학적 성질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한 책이다.

## 가우디 공간의 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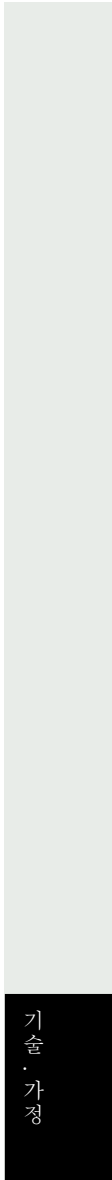
**안토니 가우디** 저 / **다빈치** / 2001 / 204쪽 / 15,000원  
 이 책은 스페인이 낳은 20세기 최고의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1852-1900)의 건축 세계를 소개하였다. 가우디는 스페인 고유의 고딕양식과 이슬람 양식을 재창조하고 대담하고 환상적인 건축공간을 완성하였다. 저자는 찬찬이살에 쓴 논문·초고와 만년에 그를 방문했던 이들에게 남긴 말들을 모아 그의 건축세계를 엿볼 수 있는 14개에 이르는 컬러 도상과 함께 살았다. 또한 자신의 생애와 작품에 대한 설명도 수록하였다.

## 르 코르뷔지에 : 인간을 위한 건축

**장 장제트** 저 / **시공사** / 1997 / 159쪽 / 7,000원  
 인간을 위한 건축으로 유명한 스위스의 화가이자 건축가 도시계획자인 르 코르뷔지에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조명하였다. 국제주의 건축의 제세대인 그는 현대의 건축기술로 한 건물에서 개인의 욕구와 공동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평생을 바쳤다.

## 서울의 궁궐 건축

**김동현** 저 / **시공사** / 2002 / 298쪽 / 13,000원  
 1970년대의 경주에서 2000년대의 서울까지 한국 전통 건축의 발달과 복원 현상을 누비며 이론적 토대를 구축해 온 김동현 선생이 자상하고 단정한 목소리로 서울의 궁궐을 이야기한 책이다. 풍부한 도판과 사진 자료, 깊이 있는 사료 분석과 알기 쉬운 구조 해설이 조선시대 궁궐 건축의 실체를 제시해준다.



기술·가정

II. 생활기술  
4. 건설기술의

- 기초  
2) 건설 구조물의  
종류

### 건축구조 뿌리에서 새순까지1

**이장남 저 / 기문당 / 2002 / 332쪽 / 12,000원**  
이 책은 지난 23년 동안 한국종합무역센터 포스코 센터 등 국내의 크고 작은 300여개 건축물의 구조설계와 구조안전단을 전문으로 해 온 저자가 전문잡지에 기고해온 글들을 모아 2권의 책으로 펴낸 것이다. 풍부한 실무경험을 토대로 건축구조의 뿌리에서 새순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되어 있다.

### 흙과 통나무로 짓는 생태 건축

**강준모 저 / 발언 / 2000 / 262쪽 / 13,000원**  
자연과 호흡하는 생활공간으로서 생태건축의 모범을 제시한 귀틀집 시공 안내서이다. 귀틀집의 역사부터 귀틀집에 쓰이는 연장 타르그라와 기공공사, 통나무 벽체 쌓는 방법 등을 실제 사진과 함께 생생하게 담았으며 전통건축 용어를 쉽게 풀어썼다.

### 내손으로 짓는 황토집 전원주택

**윤원태 저 / 켈저리인 / 2000 / 250쪽 / 13,000원**  
자연 속에 짓는 황토집의 집짓기 전과정을 그림과 함께 설명한 책으로 집짓기의 유망지역 입지 선정, 행정절차, 실제 사례 등을 실제적으로 엮었다.  
황토집을 짓는 데 필요한 기초정보(설치, 행정, 법령, 부동산 정보, 자재)입 등은 물론 황토 집 전 과정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 손수 우리집 짓는 이야기

**정호경 저 / 현암사 / 1999 / 256쪽 / 7,500원**  
본인을 주인공이라고 밝히는 키텔러 신부가 잡다한 집을 만들기 위해 체험한 잡짓는 이야기 수록한 책이다. 집 살기는 어떻게 했으며 나무재료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필요한 연장은 무엇이 있고 전기 배선과 난방, 도배, 지붕 잇기는 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설명하였다.

### 내가 지은 나무집

**김명태 저 / 창해 / 1997 / 286쪽 / 10,000원**  
뉴질랜드에 목조주택학교를 세워 전문 목수를 양성하고 있는 저자의 목조주택 갈라잡이이다. 생활편 살기편으로 나누어 목조주택의 기초작업, 프레임 제작, 외장재 붙이기, 뉴질랜드식 나무집 짓기, 작업에 필요한 공구 등을 도면, 사진과 함께 엮었다.

### 우리 한옥(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신영훈 저 / 현암사 / 2000 / 472쪽 / 28,000원**  
자나날 온기족이 오손도손 사는 삶의 터전이었던 우리 한옥 자칫서 한옥에 대한 이론뿐만 아니라 한옥 설계부터 마당 가꾸기까지 한옥짓기의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아울러 한옥 설계도와 김대벽선생의 300여 사진 자료를 함께 실었다.

# 체 육

실기편  
체력운동

## 인체 기행

권오길 / 지성사 / 2000년 / 344쪽 / 9,000원

이 책은 인체 기능에 대한 안내서이다. 우리는 인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실생활과 관련된 재미있는 인체 이야기를 담은 책이다. 마음의 본체는 심장일까. 뇌일까. 사람은 언제부터 늙기 시작할까. 문신은 왜 지워지지 않을까. 등등 인체에 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이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온갖 기관들의 기능과 생리는 물론 압, 노화, 식생활과 질병에 이르기까지 결코 적지 않은 인간 생물학 정보들이 저자의 구수한 입담에 녹아 지루하지 않게 기술되어 있다. <인체 기행>은 개정 증보판으로 원래 1991년에 초판이 나온 이래 지금까지 약 2500부가 팔린 과학계에서 보기 드문 스테디셀러이다.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철학적인 질문에 앞서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인체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신체를 이해하기 위한 훌륭한 도서라고 생각한다.

## 스포츠 마사지 30분(생활에너지를 깨우는)

송기택 외 / 넥서스 / 2002년 / 208쪽 / 15,000원

이 책은 스포츠마사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 30분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쉬운 설명과 함께 풍부한 컬러 사진을 살려 이해가 쉽도록 하고 특히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증세들을 중심으로 가장이나 직장 등에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쉽고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동작들만 골라서 구성했다.

기초 판에서부터 어디서나 간단히 즐길 수 있는 스포츠 마사지 5분 활용법, 직장이나 주부, 수험생, 여관 등 대상별 마사지의 실제 운동전후 효과를 풀어주는 마사지 기술 등을 사진을 곁들여 재미있게 소개했다.

스포츠 마사지의 기술을 익혀두면 피로 회복과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안내 도서이다.

## 발

한예환 / 예성출판사 / 2002년 / 196쪽 / 13,000원

이 책은 첫째 우리 몸과 반사점과의 연관 관계를 알기 쉽게 장과 반사점의 위치를 설명하고 둘째 중의의 기초 이론이라 할 수 있는 음양과 오행에 관하여 서술하고 경락의 기본을 수록하여 보다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셋째로는 여성의 대표적인 질환과 남성의 질환 우리가 흔히 접하는 질환과 내과 기타 질환을 그림과 민간요법 경락을 같이 수록하였으므로 독자들이 따라하기 쉽게 정리해놓았다.

## 몸의 지혜

서원 널랜드(김학현) / 사이언스북스 / 2002년 / 534쪽 / 18,000원

미국 내셔널 어워드 수상한 과학 저술가이자 예일 대학교 의과대학 외과 교수인 서원 널랜드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 있는가'라는 주제로 내용은 이 책은 알아주는 절묘한 항상성 유지 작용들을 자처하는 복잡하고 조화로운 과정들을 풍성한 임상 사례와 함께 담고 있다. 저자는 각 장에서 살아 있기 위해 그리고 내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노력하는 몸의 극적인 과정들을 소개함으로써, 몸의 신비와 지혜로움에 대한 깊은 감동을 선사한다.

192년 미국 미시간주 한 모피회사에서 선원 한 사람이 3년과 3년 갈바 사이 총을 맞았다. 총알은 위의 전 벽을 뚫었고 파열된 부위에서 반쯤 소화된 음식물이 쏟아져 나왔다. 배에 구멍이 난 채 의식을 잃은 이 청년이 살아나다고 예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염증에서 고통을 쏟아낸 뒤 청년은 1년 뒤 소생했다. 외상에 대응하는 인체의 놀라운 대처력을 보여주는 사례다. 저자는 책에 대해 "감동의 드라마이자 한편의 추리소설"이라고 말한다. 삶의 향한 인체의 맹목적 노력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깨닫게 해준다는 뜻이다.

## 물리를 알면 스키가 보인다

데이브 린드 외(강준희) / 한승 / 2000년 / 336쪽 / 13,000원

이 책은 스키를 위한 지침서다. 초보자로부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스키어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록했다.

스키를 지리학, 물리학, 공학 등을 새롭게 설명하고 있다. 스키가 미끄러지는 원리에서부터 장바에 기어지는 운동력에 대한 분석, 회전시 각도 조절에 대한 물리학적 설명 등은 스키어의 색다른 즐거움을 줄 수 있다.

이 책은 스키에 관한 책이면서 동시에 과학에 관한 책이기도 하다. 지리학이나 공학에 조예가 깊은 사람들은 이 책에서 다루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리학이나 공학적인 측면보다 스키 자체에 보다 더 흥미를 갖고 있는 독자들을 위하여 본문 안에서 스키의 기술적인 문제들을 다룸으로써 기술적인 면을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검도와 인간

이노우 마사타카(신승문) / 다문 / 1998년 / 220쪽 / 7,000원

이 책은 일본검도연맹 고문 겸 교사가 들려주는 검도와 인생론. 현대검도의 의미, 목적, 검도의 특성, 정신적 신체적 두뇌적 인격교육과 검도, 검도의 마음가짐, 검도의 전개, 검도와 장수 등을 설명했다. 검도를 통해 인간의 길을 실천할 것을 주장한 책이다.

이 책은 검술보다 훌륭한 인간을 만드는 도의 측면에 초점을 맞춰 검도의 목적과 의미를 정리했다. 저자는 현대에서 검도를 배워야 할 의미를 승부 근성의 습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검도'라는 법칙을 익혀 자신을 탐구하는데 있다고 본다.

검도는 젊은 독자에게 예의와 겸손, 기교보다는 정신적인 성숙을 강조하는 사상이 들어 있음을 시사해 준다.

## 골퍼와 백만장자

마크피셔(김호) / 디자인하우스 / 2000년 / 224쪽 / 7,500원

골퍼는 흔히 자기만의 싸움이라고 한다. 날씨나 조경 등의 변수 외에도 골퍼를 잘 차리는 장비만큼 큰 스트레스로 작용한다. 그러나 골퍼는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교감하며 남을 배려하고 자신을 수양하는 자이기도 하다. 지난 일을 잊어 버린다면 힘겨운 사람도 위험의 감수, 전부의 믿음 등 뜻밖에서도 드러난 골퍼를 동양의 노자나 유교 사상에서 바라보고 새로운 의미를 제시한다.

이 책에서 노자의 백만장자는 성공한 관료들에 대해 그들은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한다. "하루는 성공하려는 열정이, 다른 하루는 세세한 부분에 대한 거의 집착에 가까운 주의력이다. 그들은 장애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역경에 부딪칠수록 창의력을 자극 받고 열정과 인내력을 키운다고 말한다. 공을 칠 때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정신을 집중하면 잘 나갈 때 더 위기 관리를 해야 함을 말하기 위해서다.

불쑥불쑥 나타나는 골퍼의 라프와 벙글들 매끈한 간장된 샷 앞에서 실패를 달고 아껴낼 수 있는 인생 철학을 배우는 데도 이 책은 가르침을 줄 것이다.

실기편  
개인운동

## 골퍼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

책 캔필드(이상원) / 스포츠골프 / 2001년 / 324쪽 / 12,000원

책 캔필드는 마쿠의 전문 연설가이자 저술가이며 카운슬러이다. 또 세계적으로는 16개국 38개 언어로 출간된 세계적 베스트셀러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의 편자이기도 하다. <골퍼의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는 골프를 통해 얻는 인생의 교훈을 소개한 책이다. 첫 번째 타에서부터 그린에서 골퍼 정신 골프로 끈끈해지는 가족들의 유대 러프 탈출 19번 홀까지 골프를 통해 만나는 사람과 장소, 느낌 등을 생생하게 그렸다. 이를 통해 골퍼와 인생의 공통점을 찾아 골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소개했다.

## 만병을 고치는 헬스 노하우

김규동 / 산과들 / 1999년 / 270쪽 / 15,000원

이 책은 건강을 위한 헬스 노하우를 사진설명과 함께 알기 쉽게 수록한 자서전이다. 화이트테이닝의 역사를 시작으로 여성을 위한 화이트테이닝 화이트테이닝의 기초 이론 근육의 구조와 기능, 초보자를 위한 훈련법, 신체 각 부위별 운동법과 신체 교정법을 수록하고 있다. 이 책은 신체가 허전한 학생과 몸을 아름답게 꾸미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기초가 되는 화이트 테이닝의 이론적 설명과 운동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론편  
여기생활과 건강증진

## 건강 DIARY로 보는 생활건강

손석준 / 전남대출판사 / 2001년 / 434쪽 / 13,000원

이 책은 건강 다이어리를 통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소개한 책이다. 계절 변동이라는 긴 주기의 환경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계절병에 대한 건강 관리 방안을 매달 어떤 병을 조심하면 튼튼한 몸을 지켜 나갈 수 있는지 소개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부에 건강 다이어리를 통해 본 건강 봄철 건강관리 여름철 건강관리 가을철 건강관리 겨울철 건강관리로 이루어져 있고, 2부는 건강 DIARY를 통해 본 생활 건강 3부는 생활 습관병과 문화병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건강에 대한 상식을 담은 도서로 알아두면 건강을 지키는 데 유용한 도서이다.

## 운동과 건강관리

안익수 외 / 현문사 / 2001년 / 302쪽 / 12,000원

이 책은 현대인의 건강관리에 있어서 운동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은 타고나는 축면도 있지만 특히 운동을 통한 관리가 건강유지의 가장 중요한 방법임을 밝히고 있다. 오늘날은 학생시절부터 체계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고 평생건강의 개념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 책은 그러한 내용에 관하여 모두 1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설명하고 있다.

장별 구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장 운동과 건강의 이해 2장 체력과 건강 3장 운동의 기초와 학 4장 식생활과 운동 5장 비만의 예방 및 치료 6장 운동과 성인병 7장 심혈관계 질환과 운동 8장 합리적인 운동방법 9장 유산소성 훈련의 효과 및 방법 10장 화이트 테이닝의 효과 및 방법 11장 운동과 상해예방 12장 여성과 운동 13장 운동과 노화 14장 운동과 발육 발달 15장 운동과 환경, 16장 운동과 스트레스, 17장 기호식품과 건강으로 되어 있다.

실기편  
단체운동

## 월드컵 그 열정의 사회학

안민석 외 / 한울 / 2002년 / 308쪽 / 15,000원

이 책은 붉은 악마 현상과 포스트 월드컵의 정치경제학 2002 한일 월드컵의 사회 문화적 정치 경제적 측면을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접근한 19편의 논문을 수록했다. 월드컵 기간 중의 거리 응원의 의미 응원 문화의 배경 요인들과 과제 분석 월드컵 이후 정치 경제적, 스포츠 문화 등의 과제를 분석한 내용들을 각계 학자와 전문가들이 다루었다. 이 책은 화평과 화합, 질서의 축제였던 2002년 6월을 추억 속에만 남기지 말고 재인한다. 과연 13년 전인 1872년 서울 광화문과 시청을 매웠던 백타이부대와 2002년 '오! 팔승 코리아'를 외쳤던 붉은 티셔츠의 주인공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17명의 저자는 책에서 월드컵과 가디언의 사회적 경제적 의미를 되짚어보고 포스트 월드컵의 과제를 두루 다루는 등 '2002년 6월의 전모'를 파헤쳤다.

체  
육

# 음 악

전통음악감상  
한국음악의 역사

## 노래를 지키는 사람들

고예경, 나승만 / 민속원 / 1999년 / 334쪽 / 10,000원

이 책은 한마디로 남도 민요기행서이다. TV와 라디오 등 매스미디어에서 매일 홍수처럼 토해내는 대중가요에 밀려 빈사상태에 이른 우리 민요의 의미와 가치를 되살리기 위하여 민요가 살아있는 지역을 일일이 발로 뛰며 기록한 우리문화의 보고서이다.

민요연구로 유명한 두 저자가 전남도의 민요 현장을 중심으로 소민들을 직접 인터뷰하여 소리와 그 소리의 배경을 풀어냄으로써 삶의 냄새가 스며있는 민요의 참모습을 되살려 내고 있다. 민요가 잊혀져 가는 오늘날 민요의 의미와 가치를 일깨우는 따뜻하고 친절한 지침서이다.

생활음악  
음악치료

## 마음의 병을 다스리는 음악의 지혜

크리스토퍼 투에거(이유선) / 신원문화사 / 1998년 / 350쪽 / 8,000원

이 책은 마음과 영혼에 상처를 입고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가정음악요법 안내서이다. 외로움, 교제장애, 사랑의 번민, 불화와 이별, 활기찬 삶, 우울함의 극복, 새로운 시작, 수면장애와 수면을 위한 조치 등 각 증상에 맞는 음악과 음악치료법을 소개하고 있다. 예민한 감성을 가진 청소년들은 작은 알에도 상처를 받기 쉽다. 이 책은 청소년들에게 음악으로 마음의 불안을 해소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음악이 삶의 청량제로서 마음을 차유하고 살찌우는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책인 것이다.

음악산책  
뮤지컬 감상법

## 뮤지컬감상법

박용재 / 대원사 / 1998년 / 126쪽 / 4,800원

이 책은 노래가 중심이 되어 무용과 극적 요소가 조화를 이룬 종합 공연물인 뮤지컬 감상법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뮤지컬은 코미디와 환타지가 이루어지며 빠른 속도감과 넘치는 에너지로 특히 청소년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 수 있는 예술이다. 자라는 관객의 입장에서 뮤지컬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이 책에서 자라는 뮤지컬의 역사와 뮤지컬과 비교되는 우리의 전통 음악극 양식에 대한 검토를 시도하고 있어 주목된다.

미국 브로드웨이와 영국의 웨스트 엔드에 대한 안내 명작 소개, 나아가 뮤지컬 배우가 되는 방법 등 알찬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잘 알려진 아가씨와 건달들, 케츠 등의 세계적인 뮤지컬과 우리나라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제작된 실짜기 읍서에 배비장전, 명성황후 등의 한국 뮤지컬을 소개하고 있다. 뮤지컬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감상하기 위해 꼭 읽어볼 만한 책이다.



음악길잡이  
오페라 감상법

## 오페라를 만나러 가자 1-2

김선옥, 양진모 / 풀빛 / 1997년 / 325쪽 / 11,000원

이 책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페라 명작 28편을 소개한 오페라 해설서이다. 1권에서는 라 트라비아타, 이이다, 라 보엠, 나비 부인 등 사랑과 질투를 주제로한 13편의 오페라를 소개하였다. 2권에는 파우스트, 살로메, 마술피리, 탄호이저, 돈 조반니 등 종교와 신비를 주제로 한 오페라와, 토스카, 새발라이의 이별사, 파가니의 결혼, 보채르, 차나스키 등 역사와 인간을 주제로 한 15편의 오페라를 스토리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청소들의 감성과 정서 함양에 깊은 영향을 주는 오페라는 모든 예술 장르를 포함하는 종합 예술 분야이다. 그래서 스토리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책에서는 28편의 오페라 끝에 각각의 오페라에 관한 음악적 특성과 작곡가, 가수, 공연 에피소드 등에 관한 다양한 해설을 덧붙이고 있다.

음악길잡이  
지휘자의 역할

## 지휘자들의 익살

신동헌 / 빛과글 / 2002년 / 438쪽 / 20,000원

역사적으로 명지휘자의 대열에 선 지휘자들은 유명한 작곡가에 버금가는 거장의 대우를 받고 있다. 따라서 그들의 사립된 예술관 등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고 흥미로운 일이다. 무대 위에서 근엄한 표정과 멋진 몸놀림으로 장대를 숙연한 분위기로 몰아가는 클래식 음악 지휘계 거장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보고, 숨은 일화 등을 찾아내는 작업은 음악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이 책은 바로 그런 음악사 뒤편의 흥미로운 일화집이다. 일견 과묵하기까지 한 지휘계 거장들의 숨은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면 배경에 흐르는 정산사의 내력까지 알려주는 듯하다. 막힘 없이 들려주는 음악사의 야면사 관련 이야기를 접하고 있으면 음악을 만들어 내는 인절들이 바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르투로 토스카나가는 성질이 불같기로 악명이 높았고, 조지 셀은 음악의 리듬을 강조했으며, 타 지휘자인 카타린은 눈을 감고 지휘를 했는데 그런 특성과 관련된 재치와 익살이 책 전반에 소개 되어 있다.

전통음악감상  
한국의 소리

##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1-2

최상일 / 들베개 / 2002년 / 382쪽 / 19,500원

이 책은 이 땅에서 사라져 가는 소리 구전민요를 채록하여 기록했다. 옛사람들의 삶에서 노래는 생활의 일부였다. 그러나 촌락공동체의 해체와 대중문화의 확산으로 오늘날에는 아주 소수의 민요만이 남아 있으며 민요를 기억하는 세대는 이미 고령층이 되었다.

저자는 우리 민요에 대한 본능적인 애정으로 횡무자처럼 버려져 있던 민요의 발에서 아사를 잡고 뿌리를 캐는 일을 해왔다. 이 땅 곳곳을 찾아다니며 발굴 채록한 구전민요는 양적 질적으로 기히 엄청난 규모이다. 장부나 학계에서도 하지 못했던 일을 결노질 한번 없이 해오면서 저자는 조금만 늦었어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렸을 수많은 민요들과 함께 한민도의 민중문화사라고 해도 좋을 옛날 이야기들을 차곡차곡 쌓아놓았다.

계집에서는 농요와 어로요 및 기타 노동요를 담았고, 계집에서는 여례요, 유흥요, 사민요와 기타 민요를 담았으며 책바다 CD를 덧붙여 토종음악에 대한 감상과 우리의 역사와 정체성과 자긍심을 한꺼번에 되찾아 주고 있다.

전통음악감상  
한국의 소리

##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100

장애랑 / 한국방송출판사 / 2002년 / 270쪽 / 20,000원

이 책은 이 땅의 아름다운 소리들을 영상으로 만나 보게 해준다. 다큐멘터리 전문 PD인 저자가 환경부가 선정한 한국의 100가지 소리를 소개하고 글과 사진으로 엮어 출간했다. '사계', '향토', '울림', '추억', '생명'이라는 주제로 고드름 낙수 소리, 매미 소리, 갈대 소리, 시골장터 소리, 베 짜는 소리, 가을 바람에 우는 풍경 소리, 할아버지의 잔기침 소리, 몽돌이 파도에 휩쓸리는 소리 등 정겹고도 익숙한 소리가 모여져 있다.

KBS TV의 '환경스페셜 - 디지털로 여는 소리의 4계'를 통해 방송되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취재 일기 형식으로 해설했다. 또한 동영상과 소리가 담긴 미니 DVD 2장을 부록으로 수록했다.

음  
악

전통음악감상  
판소리의 이해

## 판소리 이야기

최동현 / 작가 / 2002년 / 338쪽 / 13,500원

이 책은 판소리가 무엇인지에 관해 구성 요소, 유래 가능 등을 설명하고, 소리를 하다보면 목에서 피가 넘어오거나 땀물을 먹는가 등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것들에 관해 저자의 견해를 정리했다. 또 명창 가락을 하던 사람 너무 훌륭했으나 아무도 가려주지 않는 사람 등 저자가 만난 소리꾼들에 관한 이야기들도 자세하게 실었다. 판소리 감상을 위한 음악 CD도 포함한다. 책의 구성은 크게 3부로 나누어져 있다. 제 1부에서는 판소리의 뜻과 구성 종류, 생성 악보, 목과 성음, 장단 부침세 북과 고수, 추임새, 우조와 계면조, 동편제와 서편제 등에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제 2부에서는 판소리와 소리꾼 등에 관해 궁금한 것들을 1개 세부 제목을 가지고 밝히고 있으며 제 3부에서는 저자가 만난 소리꾼 김도근, 김소희로부터 소영주, 김희량 등 11인의 명창을 소개하고 있다.

서양음악사  
고전파음악

## 모차르트, 천 번의 입맞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박은영) / 예담 / 2001년 / 224쪽 / 9,800원

이 책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모차르트의 서간집이다. 불멸의 천재이자 신이 선택한 예술가로 불리어지는 모차르트의 생생한 목소리와 예술혼을 담았다. 주로 연주 여행 중에 가족과 연인 후원자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그의 음악성과 성품이 잘 배어난 편지들을 골라 소개하였다. 이 책에는 원어의 내용 이외에도 편잡자가 주를 달아 독자의 이해를 도왔으며 그의 대표곡들을 모은 CD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 베토벤의 생애

로맹롤랑(이위영) / 문예출판사 / 1998년 / 182쪽 / 6,500원

이 책은 악성(樂聖) 베토벤의 전기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운명 이상의 것이 있다”고 한 베토벤의 외침은 인류의 마음 속에 울려 퍼졌다.

베토벤은 음악가로서 차명적인 창가를 잃어버리는 장애 속에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살았으나 스스로 불행한 사람들에게 의자가 되고자 하였다. 베토벤의 고독한 승리는 한 인간의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우리들의 것이기도 하다. 베토벤은 타인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소망 그의 불행이 타인에게 유용하게 쓰이기를 소망했다. 베토벤은 “불행한 사람들은 한낱 자와 같은 불행한 사람이 자연의 온갖 장애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란 이름 값을 하되 고자 잔력을 다하였다. 는 것을 알고 위로를 받으라.”라고 했다.

베토벤의 아름다운 이 말을 기억하자. 아울러 베토벤의 생애에서 영혼의 울림을 들어보자.

서양음악사  
서양음악의 이해

## 청소년을 위한 서양음악사

이동팔 / 두리미디어 / 2002년 / 302쪽 / 12,000원

이 책은 평소에 보기 힘든 사람들을 살려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서양 음악의 흐름을 쉽고도 친근감 있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인류의 뛰어난 유산인 서구 고전음악에 관심을 갖는 청소년들을 일차적인 대상으로 하여 아직 음악에 대한 식견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특별한 사전 지식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쓰여졌다. 그래서 읽고 나면 학생 스스로 음악 박사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은 음악 감상을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음악사적 이해라는 인식 아래 음악을 감상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구성하였다. 작곡가의 대표적인 작품을 선별하여 충실한 해설과 함께 작곡가와 작품, 그리고 역사적 상호관계를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은 청년을 위한 서양음악사이기도 하며 동시에 귀를 열어주는 음악이야기이기도 하다. 깔끔한 디자인과 이해를 돕는 시원한 원색화보도 돋보인다.

음  
악

음악길잡이  
대중가요의 이해

## 홍남부두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이영미 / 황금가지 / 2002년 / 366쪽 / 15,000원

이 책은 시의 찬미에서 노래사상요설 이태까지 대중가요의 가사를 통해 분석한 대중가  
요사 100년과 대중가요를 통해 바라본 우리 삶의 모습을 그렸다.  
저자는 대중예술 분야에서도 하위의 저급 문화로 인식되던 대중가요를 통해 당대 대중의 사회심리  
와 욕망이 반영된 시대 알기를 시도한다. 시대의 장르를 총괄하여 분석한 가요사와 함께 윤심덕  
남인규, 이마자, 조용필, 서태지(CD 등 곡집한 스타 가수들의 노래를 색다른 관점에서 감상하는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대중가요사를 1강을하지만 격조 있는 트로트의 시대 2강을발선 해매는 아리조나 카우  
보이의 시대 3강을 탭댄비전으로 바라본 꿈과 희망의 시대 4강을막서니 없는 순수의 시대 5강을  
한 슈퍼스타(은근은 언더의 시대 서태지 이후 어디로 될지 모르는 시대로 나누고 대중가요 가사  
분석을 통해 세상 바라보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로하여 대중가요이필모 대중의 사회심리와 욕망이  
반영된 정신적 산물이라고 정의하고, 대중가요 속에 녹아든 삶과 현대사를 조명하고 있다.

음악길잡이  
음악이론

## 음악을 공부하는 이들에게

임후남 / 동화출판사 / 1999년 / 322쪽 / 7,000원

이 책은 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인 음악가 11인의 삶과 음악 인생을  
위였다. 세계를 빛낸 한국 음악인의 수업 체험가 라는 부제가 말해 주듯이 인생 이야기이다.  
한국 출신의 유명 음악가들이 정상에 오르기까지의 수련과정을 소개함으로써 음악공부를 하려하  
는 학생들에게 좋은 사례와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일반인에게는 그들 음악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보다 친숙한 감동을 전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 소개한 주요 음악인들을 살펴 보면 상악으로 세계무대 진출의 첫 발자국을 남긴 소프라  
노 감흥미를 시작으로 산이 내린 목소리의 주인공 소프라노 조수미 혼을 불어넣는 거리의 악사  
바이올라니스트 강동석 외 11인 그 밖에 파야니스트 서혜경 김혜정 남매 음악인 첼리스트 장명화  
와 정명훈의 지휘 인생 등을 각각 소개하고 있다.

생활음악  
음악감상

## 음악이 있는 풍경 1-2

김정환 / 이론과실천사 / 1997년 / 417쪽 / 20,000원

이 책은 사자자 소설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환씨가 라디오 고전음악 생방송을 진행한 경  
험을 토대로 펴낸 음악감상 입문서이다.  
저자는 시와 소설 평론, 화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경험으로 클래식 음악을 사인의  
감상과 주권이 배인 시적 언어로 해설하고 있다. 고전음악에서 현대까지 드넓은 음악의 세계와 음  
악가 음악에 대한 감상을 유려한 문체로 서술하고 있으며 음악이 스스로를 표현하는 언어 음악의  
언어 그리고 음악인의 언어를 활자언어로 바꾸어 내고 있다. 음악의 역사와 세계사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연결시키는 식견이 놀랍다. 한마디로 문화사의 맥락에서 음악 언어의 해석을 시도하고 있  
다.  
1권에서는 주제와 변주, 열애 등의 주제를 묶어 마치 음악에서의 주제와 변주형식으로 서술했고,  
2권에서는 왈츠의 독백 언어의 극한 풍경 침묵, 역동, 그리고 레퀴엠으로 음악과 음악인에  
대한 화제를 펼치고 있다. 이 책을 읽으면 고전 음악이 머리와 귀와 눈을 통해 들어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생활음악  
음악치료

## 이럴 땐 이런 음악 1-2

이현석 / 들을새김 / 2000년 / 298쪽 / 12,000원

이 책은 생활 속에서 만나게 되는 2가지 상황을 설정하고 그때 그때의 상황에 어울리는 음  
악들을 클래식, 재즈, 팝, 가요를 망라하여 선정해 주는 음악 안내서이다.  
햇살이 좋은 날 오피스를 타고 여행갈때 오른 두 남녀 소심한 남자는 여자의 눈치를 살피며 무인  
가를 슬그머니 꺼낸다 분위기를 띄우고 싶을 때 듣는 음악 - 여자는 음악이 참 좋다고 말한다.  
그 음악 시대로 그들만이 감지할 수 있는 포근한 공기가 스며들고, 우여곡절 끝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진다. 상황에 맞는 음악 지금 이 순간 들으면 행복할 음악을  
안내한다. 음악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건실하게 이어주고 마음 한 구석에 근심이 있는  
사람의 걱정을 달아주며 외로움에 젖어있는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음을 말하여 준다.  
쉬우면서도 재미가 있어서 술술 넘어가지만 읽어 나가는 동안 어느새 전문가 수준의 음악적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음악길잡이  
음악감상법

## 재미있는 클래식 길라잡이

신동헌 / 서울미디어 / 1999년 / 384쪽 / 9,500원

이 책은 음악 애호가인 자자야 일반인들을 위해 흥미롭고 친절하게 클래식의 기초지식 감상법을 열거하고 음악회 에티켓, 유행기기 상식을 덧붙인 클래식 감상 입문서이다. 자자는 유년시절부터 50년 동안 클래식 디스크를 4천장 가까이 수집 섭렵하며 체득한 자신의 음악적 지식과 비론 감상의 방법을 이 책에서 유려한 필치로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다 또 흥미를 더해 주는 16여 점의 일러스트를 직접 그려 넣어 내용의 이해를 돕고 있어서 보통사람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클래식의 음악을 공부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맛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장별 내용을 살펴보면 1장 클래식 음악이란 무엇인가? 2장 클래식과 한 걸음씩 친해지기 3장 음악의 장르와 역사 4장 오페라 이야기 5장 음악가 이 정도는 알아두자 6장 세계의 명연주가 명지회자, 7장. 명곡에 얽힌 사연들로 구성되어 있다.

음악길잡이  
클래식의 이해

## CLASSICS A to Z

민은기 외 / 음악세계 / 2001년 / 288쪽 / 12,000원

이 책은 비전공자들을 위한 클래식 음악 안내서이다.

중고음악 춤 음악 오페라 관현악곡 실내악 예술가곡 독주곡 뮤지컬과 재즈 등 일반적인 장르의 구분을 따라 각 장르별에 대한 역사와 형식적 특징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음악의 역사와 장르 구조들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50개의 음악들을 선곡하여 자세한 설명과 함께 악보를 함께 수록해 도움이 되게 했다 부록에서 개괄적인 음악사의 내용과 서양음악의 위대한 작곡가들의 생애와 작품, 그리고 서양음악의 주요한 악기들에 대한 내용을 따로 정리했다. 선곡된 50곡을 담은 앨범은 같은 제목으로 판매되고 있다 책을 읽고 마음에 드는 음악을 골라 들어 볼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해 종합  
음악이론 총론

## 고등학교 음악이론

용환선 · 김재은 · 신현남 공저 / (주)교학사 / 2002 / 351쪽 / 6,000원

국악 이론 편은 악전 악곡 악기 국악 감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서양음악 이론 편은 악전 화성법 대위법 음악의 형식 악기와 연주 형태 음악의 분류 감상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음악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는데 적합한 입문서이다.

이해리듬 기악 화성  
실용음악

## 이론과 실기를 겸한 실용음악교본

서동민 저 / 음악준주사 / 2002 / 301쪽 / 12,000원

실용음악은 말 그대로 실용적으로 쓰이는 음악을 말하며 대중음악이라고 할 수 있다 실용음악 부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침서이다.

이해리듬 기악 화성  
악전

## 악보를 알면 음악이 보인다.

데이브 스튜어트 저, 신금식 역 / 업투 / 2002 / 147쪽 / 8,000원

오선보에서 화음 클래식 악기의 기보에 이르기까지 악보 보는 법을 체계적 편서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음악 기호와 음악 이론의 기초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음악 세계의 지평을 넓혀 음악적으로 풍부한 아이디어를 갖을 수 있으며 음악을 이해하는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이해 - 리듬 · 기악  
국악의 장단 및 이론

## 최신 국악총론

장사훈 저 / 도서출판 세광 / 1989 / 588쪽 / 12,000원

장단과 청의 기능 고악기 해독법 등 한국인이 알아야 할 국악이론을 상세히 담은 저서로서 올바른 감상태도에 대한 설명도 담아 일반인도 쉽게 국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활동·가창  
풍부한  
부르기

발성으로 **루제로 라이몬디 발성과 테크닉**  
레오네 마제라 지음, 김소형 옮김 / 1999 / 142쪽 / 8,000원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성악가 루제로 라이몬디의 성창을 누구보다 가까운 데서 지켜본 레오네 마제라가 쓴 그의 발성과 테크닉, 그리고 생생한 무대 뒤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전개된다.

**루치아노 파바로티 발성과 테크닉**  
레오네 마제라 지음, 김소형 옮김 / 1999 / 162쪽 / 8,000원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성악가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성창을 누구보다 가까운 데서 지켜본 저자 레오네 마제라가 쓴 그의 발성과 테크닉, 그리고 생생한 무대 뒤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전개된다.

**미렐라 프레니 발성과 테크닉**  
레오네 마제라 지음, 김소형 옮김 / 1999 / 160쪽 / 8,000원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성악가 미렐라 프레니의 성창을 누구보다 가까운 데서 지켜본 레오네 마제라가 쓴 그의 발성과 테크닉, 그리고 생생한 무대 뒤의 이야기가 흥미롭게 전개된다.

**발성법 강의노트**  
김예정 저 / 작은우리 / 2001년 3월 / 294쪽 / 17,100원  
성악전공생, 성악교사, 합창지휘자 등 성악에 관계되는 성악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지식인 과학적인 성악발성법이다.

활동·가창  
무리없는  
부르기

발성으로 **물 보면 흐르고**  
김정수 저 / 도서출판 삼호출판사 / 1999 / 226쪽 / 7,000원  
목포대 음악과 교수, 한국작곡가회 회원, 전남작곡가회 창립회장, 광주 오케스트라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다가 최근에 타계한 소안 김정수 선생의 가곡집이다.

**새 노래 제26 (어린이를 위한)**  
한국동요음악연구회 저 / 한국음악교육연구회 / 2002 / 214쪽 / 10,000원  
2002 어린이를 위한 새 노래 시리즈 제 26권이다. 한국동요음악연구회 회원들이 작곡한 99편에 이르는 동요를 수록하고 있다.

**신나는 합창**  
홍중건 저 / 세광음악출판사 / 2002 / 7,700원  
1년간 합창교육에 열정을 바쳐온 서울 상일여고 합창지도교사 홍중건 선생님께서 준비한 최신 합창곡집이다.

**얼씨구 좋다**  
정강우 저 / 도서출판 현암사 / 1998 / 572쪽 / 6,800원  
한이 흥이 되고 한이 되게 하는 신비한 우리 소리의 깊이 깊은 이야기를 무대에서 작곡·연출자로 변신을 거듭해온 우리 시대의 마지막 당골 장강우가 한 권의 책으로 우리에게 그 소리를 CD로도 들을 수 있다.

활동·가창  
무리없는  
부르기

발성으로 노래, 가창 그리고 음악표현(가창교육론)  
이도석 저 / 한국고원대학교 출판부 / 2002 / 130쪽 / 10,000원  
자자가가창 교수법 가창 교육론 등의 강좌 이첩으로 강아했던 내용 중 이론 부분의 내용을 정리한 책이다.

활동·가창 무리소리  
악곡의 특징을 살려  
창의적으로 부르기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최상일 저 / 도서출판 돌배개 / 2002 / 382쪽 / 19,500원  
점점 사라져 가고 있는 민요에 관한 정확한 자사가 없는 현실에서 현지 취재 경험과 방송경력이 풍부한 자사의 책은 우리 민요의 대중화를 한 단계 앞당길 수 있는 자사이다 할 수 있다 또한 함께 들어 있는 CD에는 생생한 민요가 수록되어 있어 그 참 매력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우리 소리 우습게 보지 말라!  
김준호 · 손심심 저 / 이른과 실천 / 1997 / 269쪽 / 8,000원  
우리 소리에 대한 열정으로 똘치진 김준호가 들려주는 우리 소리에 대한 애정과 긍지 자부심이 실려있는 이야기이다.

합창지휘자를 위한 바톤테크닉 완성  
박재무 저 / 콰이어 / 2002 / 159쪽 / 12,000원  
지휘관 느끼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론적인 체계가 있어야 한다 지휘법을 체계적이고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지휘법에 대해 보다 쉽게 잘 정리되어 있는 이 책은 교회지휘자 일반지휘자 또 지휘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도 좋은 지휘법 교재가 될 것이다.

활동·가창  
판소리

판소리의 미학과 장르실현  
조진형 저 / 도서출판 보고사 / 2002 / 270쪽 / 13,000원  
판소리의 본질을 파헤쳐 보기위해 사자장르로서의 판소리와 제시형식의 판소에 대한 자사의 박사논문과, 관련 논문들을 모아 엮어놓은 책이다.

활동·가악  
좋은 음색으로 연주  
하기

단소교본  
허화병 · 김관희 공저 / 세광출판사 / 1992 / 199쪽 / 6,000원  
단소 첫걸음, 단소교본 초급편 중급편의 충실한 학습을 통해 단소를 배운 분들을 위한 단소 교본 고급편이다.

사물놀이 배우기  
최병삼 저 / 학민사 / 2000 / 330쪽 / 17,000원  
사물놀이 연주곡을 우리 고유의 기보법인 장기보를 응용해 서양식 기보법과 함께 악보에 담아 6장으로 구성했다 또한 북과 징의 기본타법 및 양금농악 기라과 웃다리 풍물기타를 수록했다

음악의 세계  
쿠르트펠렌 저 / 도서출판 에코리브르 / 2002 / 273쪽 / 10,000원  
세계적으로 유명한 음악가 쿠르트 펠렌 아저씨와 아나들이 함께 이야기는 대화 형식의 음악 교과서로, 음악을 쉽게 알고 싶어하는 알렉산더와 클라우디아 남매의 방문을 받게 된 쿠르트 아저씨는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는 음악 책을 쓰겠다는 약속을 한다.

음악

활동-기악  
좋은 음색으로 연주  
하기

### 이생강 민속악 단소 교본

이생강 저 / 도서출판 솔과학 / 2002 / 244쪽 / 18,500원

단소를 쥐고 손가락을 사용하는 방법부터 김을 내어 소리를 내는 주법에 이르기까지 저자의 노하우를 잘 반영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제재곡의 내용은 어린이들이 익히 알고 있는 동요들을 단소로 재미있게 연주하도록 하고 또 민요를 토대로 민속악의 음악언어를 익히도록 구성했다.

### 지휘자들의 익살

신동헌 저 / 빛과 글 / 2002 / 437쪽 / 20,000원

가장으로 꼽히는 지휘자들의 사람됨 예술관 그리고 숨은 일화 등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음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만들었다.

### 피아노 실기 지도법

音樂之友社 편 / 2000 / 184쪽 / 12,000원

학생들의 성장 단계에 알맞은 피아노 학습 자습서 및 작품의 난이도별 학습 지도법 연습곡의 효과적인 사용법 각 등급의 대표곡 해설 피아노를 가르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 피아노 연주법의 역사 등 피아노 지도의 전반에 걸친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어 피아노를 가르치는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다.

### 한국악기

송혜전 저 / 도서출판 열화당 / 2001 / 432쪽 / 120,000원

우리의 전통악기들을 총 망라하여 한국 전통음악의 현장에서 사용되는 현악기 9종, 관악기 15종, 타악기 3종 등 60여 종의 국악기를 40여 컷의 도판과 함께 상세히 소개한 악기도감으로, 우리 시대의 『악학궤범』이라 불려도 손색이 없는 책이다.

활동-창작  
간단한 형식의 곡을  
만들어 적기

### 단번에 뛰어넘는 12시간 작곡교실

이정선 저 / 두비 미디어 / 2000 / 196쪽 / 16,000원

작곡을 원하는 비전공자들이 훨씬 쉽게 음악을 만들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악 교양서이다

### 3번만 읽으면 누구나 작곡할 수 있다.

이병욱·백기풍 공저 / 작은 우리 / 1999 / 222쪽 / 8,000원

악보에 대한 기초지식을 비롯해 작곡의 기초를 해설한 작곡 입문서이다. 콩글 대가라는 것 프레이징하는 것 등 악보에 강하게 되는 비결을 시작으로 음악의 얼굴인 테마와 멜로디 만들기, 작곡의 실천연습과 실례 등 작곡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 알기쉬운 경음악 편곡법

송전장 저, 길옥윤 역 / 세광음악출판사 / 1998 / 340쪽 / 9,000원

알기 쉬운 대화식 문제로 이론이 깔끔하고 명료하게 서술되어 있다. 집에 산다이어나 피아노가 있다면(따옴표 피아노) 이 책을 연주해보고 실제 기요의 코드를 따보면서 실력을 확실히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들리는 재미가 생긴다.

활동-창작  
간단한 형식의 곡을  
만들기

### 작곡입문

장호 저 / 도서출판 삼일 / 1997 / 142쪽 / 7,000원

이 책은 기존의 다양한 작곡이론서에 비해 내용이 쉽고 분야별로 체계화시켜 실습문제를 곁들임으로써 학생들이나 지도교사들 모두에게 작곡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고 있다.

활동-가창  
노래를 듣고 평가하기

### 배뱅이굿

노재명 저 / 도서출판 이룸 / 2002 / 171쪽 / 10,000원

과거 인기 노래 종목 중에 하나였던 배뱅이굿의 역사와 그 잔기를 알아보고 배뱅이굿의 명인들(김관준, 김종국, 최순경, 김주호, 이은관, 양소운, 김영택)의 음반과 녹음해설 및 창본에 대해 소개하였다.

### 가곡의 고향

이향숙 저 / 도서출판 한국문원 / 1998 / 340쪽 / 10,000원

우리 가곡의 숨결이 깃든 장소와 작곡 작가들을 소개한 책이다. 이 책을 통해 학생들은 그 당시의 역사와 음악인들의 이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자칫 식상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곡에 대한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활동-감상, 창작,  
현대음악

### 계몽의 변증법을 넘어서 : 아도르노와 쇤베르크

노명우 저 / 도서출판 문학과학지성사 / 2002 / 379쪽 / 14,000원

아도르노의 음악학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쇤베르크 음악사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것이다.

활동-감상  
국악의 이해

### 강동렬의 국악이야기

강동렬 저 / 신아출판사 / 2001 / 170쪽 / 12,000원

국악의 근원 전통 악기 판소리 장단 가요 산조 창극 등 악기와 음악 유래 전반적인 이야기들과 명창들을 소개한다.

### 국악감상

성경린 저 / 삼호출판사 / 1994 / 244쪽 / 10,000원

총론, 감상 이론으로 나누어 국악의 역사와 각 장르별 특장적인 음악과 개요를 알기 쉽게 상세히 풀어 설명함으로써 국악의 올바른 이해와 함께 감상의 길잡이 역할을 할 정통 국악 감상 도서이다.

활동-가창  
생활에서의 음악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  
하기

### 그 남자의 재즈일기1

황덕호 저 / 도서출판 돌출새김 / 2002 / 504쪽 / 12,000원

KBS FM 재즈수첩의 진행자로 활동하고 있는 재즈 갑판나스트 황덕호가 쓴 재즈 입문자들을 위한 가이드북. 딱딱한 이론서를 탈피 일기라는 형식을 통해 무엇보다 어떻게 들으면 좋을지에 대해 친절하게 조언한다.



활동-감상  
생활에서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  
하기

### 음악의 김현준의 재즈 파일

김현준 저 / 도서출판 한울 / 1999 / 374쪽 / 12,000원

재즈음악의 태동부터 재즈 감상법 스윙 시대의 음악 비밥 재즈의 형성 소울재즈와 프록재즈의 시대적 공유, 퓨전 재즈의 형성과 분과 등 재즈에 대해 기술한 책이다. 이 책은 재즈의 가치사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재즈에 관심이 있어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학생들에게 훌륭한 길잡이가 되어줄 것이다.

활동-감상  
다양한 시대와  
화권의 음악을 듣기

### 문 구조와 역사로 본 음악

송진범 저 / 도서출판 작은우리 / 1997 / 348쪽 / 9,500원

바로크 고전주의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과 현대 음악을 비교 분석하고 감상의 포인트를 제시했다 또한 음악을 구조적 관점으로 살펴본서 라틴, 멜로디 하모니 등의 음악 구성 요소를 분석하고 음악가의 작품세계를 조명했다.

### 서양고전음악 감상법

조성진 저 / 도서출판 대원사 / 1999 / 144쪽 / 4,800원

서양 고전음악은 어떤 것인지를 서양 고전음악 감상법을 담은 입문서이다 고전 음악감상의 첫 대면부터 감상이 갖추어야 할 지식 음악 감상을 위한 투자 등을 소개하고 고전음악의 장르 음악사의 주요 작곡가, 올바른 감상을 위한 방법을 사진과 함께 엮었다.

### 꾸벅꾸벅 클래식

공윤조 저 / 도서출판 김영사 / 2000 / 278쪽 / 3900원

클래식의 유려와 종류, 멋지게 듣는 방법 등을 재미있게 민화와 함께 들려주는 책으로 용어해설과 클래식 제반사항을 그림을 곁들여 쉽고 재미있게 구성한 신개념 클래식 백과이다.

활동-감상  
다양한 시대와  
화권의 음악을 듣기

### 문 노동은의 두번째 음악상자

문호근 저 / 도서출판 개마고원 / 1997 / 326쪽 / 8,500원

이 책은 오페라의 이모저모를 현재 관자에게 생생히 전해주는 극연출기의 오페라 에세이로서 여성의 정절을 시험하는 사랑의 내기 모차르트의 <코지 판 투테>를 시작으로 베토벤의 <휘발리오>, 푸치니의 <라보엠> 등 오페라 스토리와 주인공, 무대, 음악이야기를 쉽게 소개했다.

### 라루스 오페라사전

김영역 저 / 삼호뮤직 / 2002 / 570쪽 / 20,000원

유럽 전지역 및 미국에서 급속히 발전된 유럽의 양식으로서의 오페라에 접근한 책 에우리디 케 오프레오, 포페아의 대관 등 여러 세기를 거치면서 오페라가 이어지는 기본 맥락과 작품의 다양성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 140여개의 오페라를 선정하여 소개했다.

### 내가 사랑한 음악 속의 사람들

문호근 저 / 도서출판 개마고원 / 1997 / 326쪽 / 8,500원

이 책은 오페라의 이모저모를 현재 관자에게 생생히 전해주는 극연출기의 오페라 에세이로서 여성의 정절을 시험하는 사랑의 내기 모차르트의 <코지 판 투테>를 시작으로 베토벤의 <휘발리오>, 푸치니의 <라보엠> 등 오페라 스토리와 주인공, 무대, 음악이야기를 쉽게 소개했다.

활동·감상  
다양한 시대와  
화권의 음악을 듣기

## 모차르트

노베르트 엘리아스 저 / 도서출판 문학동네 / 1999 / 265쪽 / 8,000원

서양 음악에서 완전함의 극치를 이룩하며 음악적 혁명에 불을 당긴 신동 모차르트. 짧은 생을 산 천재 음악가의 내면과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삶의 비극성에 대해 사회학적으로 새롭게 조명된 책으로 그의 뛰어난 음악성이 사회적으로 어떻게 침해당했는지를 꿰뚫고 있다.

## 마법의 성 오페라 이야기 1

허영한 저 / 심설당 / 2002 / 316쪽 / 15,000원

오페라 입문서 오페라의 내용을 결장짓는 대본 대본의 줄거리 오페라의 음악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 모차르트의 귀

문국진 저 / 도서출판 음악세계 / 2000 / 270쪽 / 10,000원

단명하거나 요절한 음악가들의 일대기와 함께 병적 사인을 밝힌 책으로 차이코프스키 모차르트 베토벤 등 중독사한 음악가들 가염병으로 사망한 음악가들 슈만 멘델스존처럼 암이나 심혈관 병으로 사망한 음악가들로 나누어 엮었다.

## 모차르트 : 신의 사랑을 받은 악동

미셸 파루티 저, 권은미 역 / 시공사 / 1999 / 190쪽 / 7,000원

모차르트 개인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당시 그의 고국 합스부르크왕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를 위시하여 프랑스·영국 등 유럽 제국들의 도시를 무대로 벌어지는 역사 문화 예술 등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책이다.

## 모차르트 평전

필립 슬레르스 저 / 도서출판 효형 / 2002 / 413쪽 / 13,000원

난해한 문장으로 소문난 필립 슬레르스가 모차르트의 토막이 아닌 전체를 볼 수 있도록 찾아가는 여행의 기록이다. 알려지지 않은 많은 명곡들을 찾아 듣고, 토막이 아닌 전곡을 들으며 진정한 모차르트의 세계로 빠져들게 하는 책이다.

## 클래식 아는 만큼 들린다

최영옥 저 / 도서출판 문예마당 / 1994 / 336쪽 / 13,000원

일반인들이 가까이 하려던 왠지 멀게 느껴지는 클래식 고상하고 우아한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생각되는 클래식 음악과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원리를 재미있게 소개하며 기초적인 상식들을 알려주고 선구적인 작곡가들과 명곡들, 명연주자들을 소개한다.

## CLASSICS A TO Z 서양음악의 이해

민은기 외 공저 / 음악세계 / 2001 / 288쪽 / 12,000원

서양음악의 방대한 내용을 시대별 흐름에 따라 종교음악 춤음악 오페라 관현악곡 살롱파 야외음악 가곡 독주곡 뮤지컬과 재즈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며 각 장르별로 중요한 곡들을 선정하여 음반을 통해서 감상하고 책을 통해 곡의 설명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활동-감상  
다양한 시대와  
화권의 음악을 듣기

## 모차르트-혁명의 서곡

폴 맥가 저 / 도서출판 책갈피 / 2002 / 173쪽 / 13,000원

자서는 모순으로 가득 찬 사회의 변동과 음악의 혁명이라는 배경 안에서 진정 모차르트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모차르트가 음악가들 중에서도 가장 비정치적 인물이었다는 오해를 깨고, 18세기 유럽 사회와 시대적 분위기의 맥락 안에서 모차르트를 본격 조명할 책이다.

## 베토벤 불멸의 편지

루트비히 판 베토벤 저, 김주영 역 / 예담 / 2000 / 256쪽 / 9,800원

베토벤이 벗과 연인 동생과 후원자들에게 보낸 편지 모음. 이 편지들을 통해 소년기 창녀기 비생산기까지 거친 베토벤의 삶과 음악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 바흐 : 천상의 선율

폴 뒤 부세 저 / 도서출판 시공사 / 1996 / 191쪽 / 7,000원

바흐의 음악인생을 풍부한 자료사진과 함께 설명한 책이다.

## 베르디 - 음악과 극의 만남

알랭 뒤오 저 / 도서출판 시공사 / 1998 / 192쪽 / 7,000원

오페라를 음악극으로 승화시킨 베르디의 대작 <리골레토> <일 트로바토레> <라 트라비아타>를 만날 수 있다.

## 클래식 오딧세이

진희숙 저 / 청아출판사 / 2002 / 303쪽 / 15,000원

이 책은 해설사가 아니다. 약장 순서대로 설명하고, 그 악미를 깨는 데에 자연을 낭비하지 않는다. 때로 오딧세이란 제목에 걸맞게 여행문이기도 하고, 음악가가 아담에도 과제 푸수진 캐 테 콜베르 등 예술가들이 등장하기도 한다. 많은 음악 프로그램을 맡았던 작가답게 자연스럽고 쉬운 말투에 많은 사진과 그림이 곁들여진다.

## 오페라 감상법

조성진 저 / 대원사 / 1996년 4월 / 126쪽 / 4,080원

예술의 전당 예술감독인 저자가 오페라 명작들을 상세하게 해설해 놓았다. 특히 한국 관객들이 즐겨 찾는 오페라들을 거의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 오스트리아 음악 기행

권터 앵글러 저 / 도서출판 백의 / 2002 / 400쪽 / 12,000원

오스트리아의 여러 도시에 남겨진 음악가들의 생애와 그들의 작품, 그리고 연주자들의 발자취를 찾아본다. 특히 위대한 음악가나 그들의 작품에 결정적인 특색을 주었던 일화에서부터 한 음악가의 작품세계를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실들에 이르기까지 고전 음악의 역사가 한편의 영화처럼 펼쳐진다.

## 송영과 떠나는 음악 여행

송영 저 / 도서출판窓 / 1999 / 280쪽 / 10,000원

우리 삶에서 스스로 선택하여 듣는 진정한 '음악 듣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쓴 책

활동·감상  
다양한 시대와  
화권의 음악을 듣기

## 오페리는 누구나 즐길 수 있다

한이혜원 저 / 도서출판 삶과 꿈 / 2002 / 265쪽 / 9,000원

일반인들이 오페라를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오페라 감상법과 유명한 작품의 스토리 등장인물이 부르게 되는 곡 작곡가가 극중 상황에 맞는 작곡과 표현을 어떻게 했는지 등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 우리가 듣는 클래식은 다르다!

김경수 저 / 한국문학사 / 2000 / 254쪽 / 8,500원

영화 속의 클래식음악 그림 속의 클래식음악 등 다른 장르를 통해 들어갈 수 있는 우회로를 제공해 주고, FM을 듣거나 음반을 고르는 법도 상세히 알려준다.

## 알코올과 예술가

알렉상드르 라크루아 저 / 도서출판 마음산책 / 2002 / 172쪽 / 11,000원

알코올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소설가 시인 화가 철학자들과 그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불러모아 알코올과 예술가의 유기적이고 신비로운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 위대한 음악가, 그 위대성

알프레드 아인슈타인 저 / 음악세계 / 2001 / 282쪽 / 10,000원

음악사의 핵심이자 가장 흥미로운 주제인 '위대성'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위대성의 내적·외적 조건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모든 쟁점을 논의의 대상으로 하고 자자의 비상한 통찰과 직관으로 하나하나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 유럽음악 기행

황영관 저 / 부키 / 1999 / 298쪽 / 8,000원

고전음악의 산실인 유럽의 음악명소를 소개한 책  
지은이는 어쩌면 당시까지조차 하찮게 여겼을 대음악가들의 삶의 궤적을 끈질기게 쫓아간다

## 음악가를 알면 클래식이 들린다

신동헌 저 / 서울미디어 / 1999년 / 352쪽 / 9500원

음악가들에 얽힌 에피소드를 삽화와 함께 다채롭게 꾸민 책.

## 16일간의 음악 여행

이전영 저 / 예성출판사 / 1998 / 238쪽 / 7,000원

음악감상 지침서 제목을 알면 잘 들린다 선호하는 악기에 대하여 낭만주의 심포니 합창 음악 오페라 바르톡 음악감상과 악기의 중요성 바이올린 이야기 민족주의 음악 민화 영화 재즈 협주곡 등 분야별 감상요령을 16장에 나누어 설명했다.

## 노동하는 기타, 천일의 노래

배윤경 저 / 도서출판 이후 / 2000 / 240쪽 / 10,000원

이 책은 1960년대 후반부터 상업주의에 반대해서 잊혀져 가는 민중음악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사회의 불의를 고발하고 인권 옹호 등을 테마로 리타니메타 음악분회를 풍요롭게 한 '누에바 칸시온 Nueva Cancion'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활동·감상  
민중음악

활동-감상  
한국의 노래

### 노래여 민족이여

안준모 저 / 도서출판 푸른세상 / 2002 / 192쪽 / 10,000원

한국노래의 고전 30곡의 해설을 담은 책이다.  
해와동굴들까지도 애창하는 강한 생명력을 지닌 노래들 민족사와 관련된 노래들과 그에 대한 수상(隨想)을 엮었다.

활동-감상  
음악을 듣고 평하기

###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이야기

우관선 저 / 다른세상 / 1999 / 245쪽 / 7,000원

'네 손가락의 즉흥환상곡.'  
서울시 교육청과 한국재활재단이 초등학교생들의 독후감 모집을 위해 내놓은 책의 이름이다 태어날 때부터 두 손 다 합쳐 손가락이 4개 밖에 없는 열 네살 소녀의 스토리이다.

활동-감상  
악곡의 성격과 구성  
요소의 관계를 이해하여 듣기

### 나의 음악 이야기

아쿠다카와 야스시 저 / 도서출판 새로운 사람들 / 1999 / 276쪽 / 7,500원

이야기라는 책제목에서도 보여지듯 이 책은 전문적인 음악 해설이나 강요되는 가늠이 많지 않다 오히려 자칫 머리맡에서 다소 품격이 부족하고 권위가 결여된 잡이 있다해도 아주 편안하게 웃으면서 읽을 수 있도록 썼다고 밝혔듯이 재미있는 대화를 나누듯이 생활을 통하여 음악을 이야기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 갈 것이다.

### 뮤지컬 감상법

박용재 저 / 대원사 / 1998 / 125쪽 / 4,800원

관객의 입장에서 뮤지컬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이 책은 뮤지컬의 역사와 뮤지컬과 비교되는 우리 전통 음악극 양식들에 대한 검토도 빼놓지 않았다.

### 뮤지컬 Oh! 뮤지컬

손정섭 저 / 북스토리 / 2001 / 288쪽 / 12,000원

뮤지컬의 역사에서 감상 포인트까지 뮤지컬에 대한 모든 것이 들어 있는 매거진을 위한 뮤지컬 전문서이다.

### 쿠르트 아저씨와 함께하는 음악의 세계1

쿠르트 팔렌 저, 이군호 역 / 에코리브르 출간 / 2002 / 274쪽 / 8,000원

음악은 그 자체로 즐거운 것이며 한 분야에 국한할 수 없다 많은 음악이 우리를 즐겁게 가다리고 있다. 어린 학생들에서 부모님, 선생님이 모두 함께 즐기지만 하면 된다.

### 뮤지컬 티켓 없으면 홈쳐라!

원종원 저 / 세상의 창 / 2000 / 276쪽 / 10,000원

오페라의 유령 캣츠 자자스 크라이스 슈파스타 레미제리블 미스 사이공 이 다섯 뮤지컬을 감상한 작가의 개인적인 관람기 일 뿐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서이기도 하다.

### 또 하나의 재즈 애세이

무라카미 하루키 저 / 도서출판 까치글방 / 2002 / 112쪽 / 10,000원

악곡에 대한 해설이 아니라 재즈를 듣는 기쁨과 재즈가 지닌 힘을 정확한 문장으로 표현한 수필집 소녀 롤란스 호레이스 살버 애너 오데이 등 27명의 재즈 뮤지션들에 관한 짧은 글과 그들의 음반 사진, 아름다운 원색의 화보가 실려 있다.

활동·감상  
생활에서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하기

음악의

## 라벨의 삶과 음악

ARIE ORENSTEIN 저, 전예수 역 / 음악춘추사 / 2000년 / 350쪽 / 16,000원

오늘날 어떤 프랑스 작곡의 곡보다도 많이 연주되고 있는 로디스 라벨의 생애와 음악적 업적을 살펴본 전기 라벨 음악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을 상세히 기록했고, 그의 편지에서 인용된 문구들도 소개했다. 32편의 예화와 라벨의 작품 카달로그를 수록했다.

## 별을 움직이는 노래

서남준 저 / 도서출판 좋은 생각 / 2000 / 294쪽 / 7,000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를 타고 흐르는 기억, 자연의 후백사같은 음악에 관한 에세이다. 그리고 음악 소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갖든 인간의 영혼과 삶의 모습까지도 그려내고 있다.

## 42인의 세계적 음악치료사가 들려주는 음악치료이야기

나케네스 브루시아 등저 저 / 권혜경음악치료센터 / 1999 / 609쪽 / 25,650원

42개의 사례 연구를 수록하고 있으며 각 사례 연구는 일정 기간에 걸친 음악치료의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저자들은 모두 음악가와 임상가로서 독특한 기술과 전문영역을 갖고 있다.

## 삶이 괴로워서 음악을 듣는다

김갑수 저 / 도서출판 풀빛미디어 / 1999 / 326쪽 / 9,000원

이 책은 슬픔을 간직한 아에게 위로를 안겨주는 음악에세이다. 월드뮤직을 찾아가는 이혼 구비의 여행 재즈의 맛을 올려다 오디오와 레코드 등 4개 장으로 나누어 록, 재즈, 클래식 등 음악의 모든 것과 가수, 아티스트, 역사 등을 풍부한 사진과 함께 설명했다.

## 서태지는 우리에게 무엇이었나

이동연 저 / 문화과학사 / 1999 / 256쪽 / 8,500원

서태지의 음악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내용을 시작으로 90년대 대중문화와 대중음악의 지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서태지를 중심으로 검토한 책.

## 한국 대중가요사

이영미 저 / 시공사 / 1998 / 324쪽 / 12,000원

<화양>부터 서태지에 이르기까지 한 시대의 중요한 정신적 신물이었던 대중가요를 정리한 저서 190년대말부터 전시기에 걸친 한국 대중가요사를 가요계 뒷 얘기 체험담 사회배경 대중가요의 시대적 특성 등과 더불어 체계있게 정리한 책이다.

## 존레논 음악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

제임스 우달 저 / 도서출판 한길사 / 2001 / 232쪽 / 10,000원

주로 존레논과 오노 요코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의 삶을 연구하고 있다. 비틀즈 안에서 레논이 아닌 레논의 삶에 대한 하나의 단면에 집중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책이 제공하는 정보들을 통해 레논의 삶을 새로운 각도에서 재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 재즈를 재미있게 듣는 법

유하 저 / 도서출판 평금가지 / 1999 / 277쪽 / 7,500원

재즈와 가까워지는 데 가장 알맞은 앨범들을 추천해 놓은 것으로서 재즈 감성의 입문자들을 위한 앨범 소개서이다.

활동·감상  
생활에서의  
역할과  
가치를  
이해  
하기

## 서태지와 아이들 그리고 아무도 없는가

음악의

강명석 외 공저 / 프리미엄북스 / 1997 / 370쪽 / 7,500원

서태지와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국 대중음악의 세계를 조명한 음악서.

## 세계를 흔든 대중음악의 명반— 음반으로 본 서구 대중음악의 역사

임진모 저 / 민미디어 / 2003 / 531쪽 / 20,000원

1950년대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를 열광시킨 대중음악의 명반 11개를 재킷 화보와 함께 소개한다. 시대별로 장을 나누어 그 시대의 대표적인 명반을 소개하였으며 각각의 앨범에 녹아 있는 예술성과 시대성을 살핀다.

## 음악이 있는 풍경

김정환 저 / 도서출판 이른과 실천 / 1997 / 418쪽 / 20,000원

고전음악 음악가들의 삶이나 음악 작품 읽는 법 음악에 얽힌 자신의 추억담 등 음악과 그 주변의 모든 것을 간결하고도 화려한 문체로 그려내고 있다.

활동·감상  
소리의 개념

## 소리의 황홀

윤광준 저 / 호명출판 / 2001 / 312쪽 / 12,000원

책의 상당 부분이 오디오의 개발적인 역사·유명 음향 기기의 특징에 할애되어 있어 지칠했던 문서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지만 각 기종 등에 얽힌 저자의 추억이나 경험이 함께 소개되어 있어 어렵지 않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활동·감상·가창  
악곡의 성격과 구성  
요소의  
이해하여 듣기

## 아이 러브 뮤지컬

김기철 저 / 호명출판 / 2002 / 293쪽 / 10,800원

국내에 소개된 뮤지컬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입소문으로만 전해진 유명 작품 30여 편에 대한 탁월한 안목을 만날 수 있다.

활동·감상·이해  
전통 국악에  
대해  
입문서

## 어화둥둥 두리둥둥 —이야기 국악—

기정 저 / 세광음악출판사 / 1994 / 144쪽 / 10,000원

국악에 대한 이야기를 상·하 2권으로 그림을 그려 쉽게 소개하였다.

활동·감상  
음악가

## 음악가와 연인들

이덕희 저 / 도서출판 가람기획 / 2002 / 284쪽 / 10,000원

예술적 천재들은 그들의 광범하지 않은 삶만큼이나 사랑도 유별나게 광적이고 도박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음악의 천재들 가운데 위대한 로맨스의 챔피언들을 뽑아 예술성의 강한 원천이 되어주었던 그들의 열정적인 사랑이야기를 들려준다.

## 에펠탑의 검은 고양이

아라이만 저 / 도서출판 한길사 / 2000 / 546쪽 / 12,000원

현대음악의 아버지 그라나스스로 이웃사촌이 되어버린 가행과 이단의 작곡가 에리크 사티의 생애를 소설로 엮었다. 단순하고 노골고 순수하게 그려내면서도 전위적으로 살았던 에리크 사티의 삶과 예술이 저자의 애정 어린 시선을 통해 되살아난다.

활동-감상  
악곡의 성격과 구성  
요소와의  
이해하여 듣기

## 오페라 읽어주는 남자

김학민 저 / 명진출판 / 2001 / 232쪽 / 9,900원

지상 최고의 무대 '오페라'의 유령. 이 뮤지컬의 한국 연출자인 김학민의 음악 이야기가 베스 트셀에게 올랐다면 시절 오페라 한 편 본 적 없다는 저자를 뮤지컬 연출자로 키운 7년의 오페라 이야기에서 저자의 음악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활동-감상  
우리나라 음악의  
역사

## 우리 국악 100년

한명희 외 공저 / 도서출판 현암사 / 2001 / 392쪽 / 20,000원

당중음악에서 민요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악 100년을 정리한 책으로 국악계에 있었던 일과 국악인들이 해온 일을 중심으로 국악을 주제별로 나누고 각 주제를 시대에 따라 기술했다.

## 조선시대 음악풍속도

서인화·진준현 저 / 도서출판 민속원 / 2002 / 243쪽 / 39,000원

조선시대 음악풍속도를 알 수 있는 도상(圖像)자료를 수록한 책으로 서민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그림을 비롯하여 조선시대 전반에 걸쳐 제작되었던 궁중과 관아의 제반 행사를 그린 그림까지 모두 수록하였다.

## 우리음악 그 맛과 소리깔(우리문화총서 4)

신대철 저 / 교보문고 / 1998 / 348쪽 / 7,500원

우리 음악의 바탕이 해를 끼친 교양음악에 비해 우리음악에 나타나고 있는 제 문제들은 잘못된 교육으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 이러한 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기본지식과 함께 소개하였다.

활동-감상  
평론하기

## 윤이상—상처입은 세기의 거장

최지숙 저 / 교학사 / 2000 / 268쪽 / 8,000원

세계 곳곳에서 박수를 받는 훌륭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조국에서 받은 배담받았던 윤이상의 음악과 삶 속에 어두웠던 한국의 현대사가 그대로 녹아있다. 아국 하늘에서 조국을 그리워하며 죽어간 위대한 작곡가의 삶을 통해 조국애를 느낄 수 있다.

## 음악평론전집

김영주 저 / 현대음악출판사 / 2002 / 400쪽 / 10,000원

음악평론가 김영주의 음악평론전집 제2권 음악평론계의 원로인 저자는 지금까지의 수십년 동안 음악회를 다니며 평론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출간하였다.

활동-가창  
한국음악, 판소리

## 판소리 답사기행

이규섭 저 / 민예원 / 1995 / 320쪽 / 6,000원

판소리 여섯 마당을 개작 정리한 신재효, 여류명창의 효시 잔재선, 충청소리 중고계의 거장 이동백, 창극 주도한 원자사 주석 감창환 등 민중들의 현대성을 소리로 풀어낸 명창 4인의 삶과 소리세계를 조명한 현직 기자의 판소리 답사기.



# 미술

감상  
우리작품 감상  
하기

## 21가지 테마로 보는 우리미술

김경자 / 다른세상 / 2001년 / 256쪽 / 12,000원

한국인인 우리는 한국화보다 서양화에 더 익숙하다 왜일까 이는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 제일 좋아하는 화가로 8퍼센트가 고흐를 꼽았다 좋아한다는 건 자기 나라 남의 나라를 떠나보냈지만 만약 이들이 우리 미술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면 그래도 그런 통제가 나올까 의문을 가져볼 만하다.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서양화 기법을 배우고 서양화를 그린다 물론 한국화도 배우지만 서양화에 비교해 볼 때 그 비중이 매우 작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 선조들의 그림을 보면서도 더 어렵게 느끼는 것이다 이 책은 그런 우리들에게 한국미술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보여진다 그림 자체에서 역사? 미학? 감상? 비평 등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준다 보면 바로소 알아지는 것이 한국미술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한국인으로서 한국의 그림을 보아만 한다는 애국심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그림에는 우리 나라의 문화와 정서가 담겨 있고 철학과 사상 국민성까지도 배어나므로 뼈 속에 묻어둔 선조들의 감성을 그리고 우리 자신의 피 속에 흐르는 정신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감상  
전통예술의  
감상과 흐름

##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

최순우 / 학고재 / 2002년 / 414쪽 / 9,500원

이는 민중만 보았다 고 아무리 뛰어난 예술 작품도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면 한낱 물감에 지나지 않는다 아름다움을 가려내는 인목야야 한눈에 얻을 수는 없지만 그 식견을 슬쩍 발휘할 수는 있지 않을까 1992년에 다섯 권으로 출간된 <최순우 전집> 가운데 논문을 제외하고 누가 읽어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짧은 글들만 다시 추려서 펴낸 것으로 9년 출간보따리까지 베스트셀러에 진입했다 최순우의 한국미 신책이라는 부제에서도 알 수 있듯 이 책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우리 문화 유산의 아름다움을 일러준다.

문화재는 대개 이름부터 어려운 한자로 돼 있어 어렵다만 생각하기 쉬운데 무뎠던 돌들 무량수전은 신경질이나 거드름이 없다 등 신선한 우리말 표현을 써 한국미를 재발견하도록 도와 준다.

감상  
작품감상

## 아름다운 사람 이중섭

전인권 / 문학과 지성사 / 2000년 / 302쪽 / 15,000원

지은이는 1982년의 한 전시회에서 이중섭을 처음 만난다 특히 별겨벗은 아이들의 그림인 군동화(軍童畵)에서 강렬한 인상을 받게 되었고, 한국적 전형성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지은이가 이 책을 쓰게 된 출발점이다.

이중섭의 작품 세계와 생애를 함께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서 작품 세계를 분석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는 책이다 지은이는 특히 이중섭 예술을 지배하는 정신적 배경을 규명하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생명에 대한 찬양과 종족적 미의식과 연관한다. 본문에서는 주로 군동화가 다루어지고 있지만 책 뒤에 실린 논문에서는 소 그림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논의와 모성 콤플렉스에 대해서도 논하고 있다.

감상  
작품감상

## 오원 장승업의 삶과 예술

이양재 / 해들누리 / 2002년 / 256쪽 / 16,500원

지난 5월인가 영화 <취화선>이 개봉되자 관심을 가지고 이 영화를 보았다. 연가들의 연기라든가 영상 등등은 수준급이 넘었으나 기대를 가지고 보았던 영화의 내용과 영화의 장면 처리 속도에 뭔가 아쉬웠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리고 이번 9월초에 <오원 장승업의 삶과 예술>을 읽어보았다. 이 책에서는 오원 장승업의 삶의 궤적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었다. 이런 연구들 바탕으로 하여 영화 <취화선>은 만들어야 했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다시 책과 영화가 동시에 접목되어 바다에 스쳐 비디오편을 빌려 무려 여섯 번이나 돌려보았다. 오원 장승업을 다른 화조이자 최고의 전문연구자면서 도 일반인들이 읽고 쉽게 이해하도록 저술하였다.

일반인들은 이 책에 그려진 오원 장승업의 모습이 오원의 참 모습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감상  
전통회화의  
이해

## 옛 그림 읽기의 즐거움

오주석 / 숲 / 1999년 / 227쪽 / 9,500원

옛 그림 속엔 원형 그대로의 자연과 사람의 향기가 살아 있다. 그 냄새에 취하며 화기들과 조우하다 보면 풍진 속에서 연기한 낭만으로 세상을 바라본 한 인격체의 독특한 빛깔을 발견할 수 있어 좋다. 더 감동적인 것은 세상의 반대편에서 자신이 속한 세계를 관조한 화기들의 여유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가슴 한쪽에 자신을 개면화할 수 있는 큼직한 여백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건 그런 이유 때문이다. 옛 그림에서 들리는 창랑한 음색의 산조(散調) 한 가락이 내 속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림 혹은 어우러짐으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최상의 조건이라고 믿는 내게 영혼의 자유를 연주하는 한 곡조의 음악으로 기억되는 책이다.

감상  
우리나라 미술의  
흐름알기

## 오주석의 한국의 미 특강

오주석 / 숲 / 2003년 / 280쪽 / 15,000원

책을 보면 도판 컴퓨터 설명 이해에 필요한 도움 도판까지 모든 게 완벽하다. 그 동안은 해설을 읽으면서 앞쪽에 수록된 도판을 보며 책장을 쥐고 왔다 갔다 해야 했지만 이 책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저자가 설명하는 부분을 도판에서 떼어내어 설명이 진행되는 페이지에 딱 붙여놓았기 때문이다.

오주석은 옛 사람의 눈으로 보고 옛 사람의 마음으로 그림보는 법을 차근차근 가르친다. 먼저 서양 그림과 다른 우리 그림 보는 기본기부터 알려준다.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쓰다듬듯이 내려오면서 보는 방법이다. 알맹이 세로 읽기 방법인데 옛 선조들은 글도 그렇게 쓰고, 그림도 그렇게 그렸다.

미적체험  
미술과 문화

## 화가의 우연한 시선

최영미 / 들베개 / 2002년 / 210쪽 / 10,000원

고대 이집트의 조각품부터 마켈란젤로 같은 르네상스의 가장 드러나 세간 등 인상의 대가들 20세기의 화가 르네 마르티까지 인물 중심으로 각각 1쪽을 넘지 않는 2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마음에 드는 장부터 골라 읽기가 편하다. 시인의 감수성이 묻어나는 감각적인 문체도 읽는 맛을 더한다. 스무 개쯤의 소재를 시대순으로 묶어 나열한 작가와 작품은 미술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디선가 한 번쯤은 스쳐가며 만났을 법한 것들이다. 그래서 일단은 친근한 느낌으로 책장을 넘길 수 있다.

각 장의 서두에 붙여진 본문과 관련 문헌에서 뽑아낸 몇 줄의 글은 붙여진 소재들과 함께 대상을 바라보는 저자의 시선을 예감케 하고, 책장을 넘기기 전 독자에게 상상할 수 있는 여유를 선사한다. 화가의 우연한 시선에 포착되어 그림으로 옮겨진 대상을 바라보는 저자의 시선은 안과 인생에 대한 사려깊은 통찰과 반성이 느껴진다.

감상  
서양음악의 이해

## 청소년들을 위한 서양미술사

박갑영 / 두리미디어 / 2001년 / 304쪽 / 12,000원

이 책은 미술의 세계에 흠뻑 빠진 현직 교사나 그림동을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추어 흥미롭게 쓴 서양미술사이다. 교육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하고, 미술사를 학문적 성격으로 접근하지 않고 청소년이 알만한 널리 알려진 화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 나간다. 또 화가들의 다양한 애정거리와 작품에 대한 명확한 해설 및 간결한 용어해설을 곁들였고 이해에 필요한 도표와 보충 설명을 적절히 수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청소년들이 미술사를 흥미롭게 읽을 수 있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서양미술의 발전과정과 각 시조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특히 각 장마다 미술과 사회의 관계를 파악하는 쪽지를 넣어 청소년들에게 미술도 사회적 현상과 함께 변화했다는 사실을 인식시켜 줌으로써 사고의 폭을 넓혀 준다. 청소년들에게 왜 미술을 배우는지 그리고 서양미술을 배우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감상  
서양미술의  
양식이해

## 50일간의 유럽미술관 체험 1-2

이주현 / 학고재 / 1995년 / 256쪽 / 15,000원

작품에 대한 자신의 니얏에서 벗어나 지은이의 솔직한 감상 작품이 완성된 시대의 문화 사회적 배경에 대한 해석 등을 부담 없는 문장으로 풀어내고 있다. 각 미술관의 특징, 주조, 교통편 등을 메모 식으로 정리한 것도 특징이다. 요즘 미술에 한창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책도 알게 되었는데 유럽미술이라는 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꼭 한번 가서 보고 싶은 곳이 많았는데 유럽이라는 곳에 대해서 많이 몰랐지만 그의 예술에 대해서도 많이 몰랐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아 이런 곳이 있구나 하면서 새로운 것에 대해 알아가면서 미술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조금씩 익숙해져 갔다. 그리고 미술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되었는데 이 책은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만큼 우리나라 사람의 일반적인 관점이 살아있어서 많이 거리가 느껴지지 않고 여러 사진을 보면서 실제로 기본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유럽 미술이라는 것이 많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텐데 그런 사람에게 이 책이 좋을 듯 싶다.

표현  
개성을 살린 표현

## 거꾸로 서 있는 미술관

박정옥 / 예담 / 2002년 / 208쪽 / 9,800원

경계를 환모는 과정 속에 삶과 죽음, 선과 악의 경계를 넘어 파괴된 세계로의 일탈을 꿈꾸는 현대의 미술을 이 책에서는 네 개의 장 즉 네 개의 서로 다른 각도로 바라보면서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한 현대미술의 세계를 소개한다. 작품과 작가에 대한 애정 어린 접근을 통해 현대미술의 진면목과 그 안에 깃들인 예술의 숨은 진실과 감동을 전하는 이 책은 단순한 예술 예사의 자평을 넘어 삶을 감싸안는 저자의 따뜻한 감성과 애정이 느껴지는 미술서이다. 예술과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자의 독특한 해석이 각별한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는 "거꾸로 서 있는 미술관"은 사구 모더니티의 종착점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는 현대 작가들의 치열하고도 광활한 예술시적 모험으로 더욱 흥미진진하다. 예술의 정원에서 피아는 분방한 상상력으로 광활한 캔버스에 밑그림을 그으며 새로운 시대의 세계를 꿈꾸는 작가들 그 인에는 예술과 삶을 향한 그윽한 열정이 가득하다.

생활과 미술  
미술과  
아름다운 삶

## 그림 같은 세상

황경신 / 아트북스 / 2002년 / 335쪽 / 15,000원

지은이 특유의 톡톡 튀는 문체와 감성적인 글쓰기로 갈아낸 내밀한 마음의 풍경화다. 황경신은 미술사적인 지식에 가타지 않고 최대한 자신의 감수성과 추이에 의지하여 2명 화가들의 삶과 그림 속으로 여행을 떠났다. 그림처럼 아름다운 수 없는 세상에서 그림을 통해 그림 같은 세상을 꿈꾸는 거룩하다. 2명의 화가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누어져 있다. 봄은 클로드 레비 탄, 미티스, 모네, 샤를 파브르티우스를, 여름은 코로 해섬, 시슬레, 클레, 마르틴 비어슈타트를, 가을은 몽크, 고흐, 피사로, 휘슬러, 터너, 로트렉트를, 겨울은 베르메르, 피카소, 앙중섭의 그림을 담고 있다.

미  
술

감상  
미술문화의 이해

## 그림 읽어주는 여자

한젤마 / 명진 / 1999년 / 206쪽 / 9,800원

고전 명화에서부터 현대의 문제작까지 이르는 다양하고 풍부한 그림 선택팅을 만날 수 있는 이 책은 D라는 안내자를 통해 사람들의 다양한 심리와 욕구를 포착하고 풀어내는 새로운 시도의 알기다isy 책은 그동안 멀게만 느껴지던 그림들 결코 친해질 수 없었던 그림의 세계를 당신 가까이 불러들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림과 함께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생생하게 해 준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그림이 우리의 말과 같고 생각하고 그림 감상을 한다고 하면 남의 이야기처럼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많다. 이 책은 그림과 함께 작가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사랑과 이별 갈등 등 여러 가지 주제를 그림과 함께 생각 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림을 보면서 작가의 글을 읽으면서 작가와 공감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하면서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감상  
서양미술의 이해

## 나의 할아버지 피카소

마리나 피카소(백선희) / 효형 / 2002년 / 217쪽 / 8,500원

이 책은 한 위대한 천재의 그늘 아래서 오랜 세월 고통받은 한 평범한 인간이 자신의 고통을 뛰어넘기 위해 내지르는 해방의 외침으로 읽힐 수 있을 것이다. 그런 한편 그까 그림은 할아버지 피카소의 이 진폭한 초상이 역설적이게도 광적인 하기증에 사로잡힌 채 주변의 사람과 사물을 모조리 잡아잡겨 예술로 토해낸 화가의 위대한 예술 혼에 비치는 경의의 한 표현일 수도 있는 점이 또한 이 책의 매력이다 아닐까 싶다.

감상  
동서양미술의 이해

## 두첸의 세계명화 비밀탐사

모니카 블 두첸(김현우) / 생각의 나무 / 2002년 / 380쪽 / 28,000원

고흐의 해바라기 다 빈치의 모나리자 몽크의 절규 그림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다면 이 름만으로도 이해 할 수 있을 정도의 작품들이다 하지만 유명세에 비해 우리가 아는 것은 일부일 뿐이다. 빠져서 빠질수록 신비한 명화의 비밀 이 책은 조금 더 그림에 접근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쓰여졌다.

모두 8점의 작품이 소개된다. 지은이는 작품을 읽는 그대로 보는 것으로 아기를 시작한다. 어떤 기법을 썼는지 구도는 어떻게 되는지 등 이런 배경을 바탕으로 어떤 상황에서 작품이 탄생했으며 그들은 누구의 영향을 받았는지 또 작품이 이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감상  
서양미술  
작품감상

## 루브르 계단에서 관음, 미소 짓다

박정옥 / 서해문집 / 2000년 / 256쪽 / 12,000원

같은 주제를 다룬 서양화와 한국화를 비교하고 있는 이 책은 시대와 공간 장르를 초월하여 각각의 미술 작품이 지는 의미를 찾아보려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대사회의 불화인 수월관 음도와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얼굴의 성모는 둘 다 종교적인 열정으로 그려낸 신의 이미지를 지니 성모는 인물의 가장 아름다운 전형으로 배일로 몸을 가리고 오른손을 길게 뻗었으며 아래를 향해 반쯤 뜬눈으로 자비심을 표현하고 있다. 다만 성모의 얼굴은 인간적인 슬픔의 감정과 겸손함을 담고 있는 반면 관음의 얼굴은 모든 인간적 가치로부터 초월한 해탈의 이미지이다. 이에 대해 지은이는 서양 문화 자체가 해탈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 해석한다. 지은이가 이러한 쉽지 않은 작업을 시도한 것은 한국화의 정체성과 현대적 가치를 찾기 위해서이다. 또한 전통이나 장르로부터 자유로운 해석을 통해 그림에 자유와 생명을 부여하는 것이 이 책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미적 체험  
미술과 생활

## 머리로 보는 그림 가슴으로 느끼는 그림

박우찬 / 재원 / 1999년 / 156쪽 / 8,000원

미술 감상의 핵심은 작가가 만들어내는 형태의 제작 과정과 형태의 의미 즉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있다. 음악가는 소리로 시인은 문자로 자신의 의견 느낌 등을 표현하고 전달한다. 미술가 역시 독특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조형 언어이다. 조형이란 말 그대로 형태를 만드는 작업이란 뜻이다. 미술을 조형 예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미술이 형태를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화가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형태를 만들어 낸다. 레오나르도 다 빈치와 같이 매우 사실적으로 또는 칸딘스키와 같이 추상적으로 형태를 만들어 낸다. 왜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는데 작가가 다른 형태를 만들어내는 것일까? 그것은 화가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형태는 화가의 손으로 만들어지지만 손이란 눈으로 보고 머리로 해석한 것을 표현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미적 체험  
미술과 문화

## 천천히 그림읽기

조인한 · 진중권 / 용진출판 / 1999 / 307 / 10,000

서양미술에 대한 재가있는 일화를 곁들여 가며 그림의 형식과 내용을 다뤄 화가 개인의 심리와 사회 현상을 연관시키고, 대안 미술의 흐름을 짚어주고 있다.

미적 체험  
미술과 문화

## 긴 담장에 걸리운 맑은노래

김인후 / 현실문화연구 / 2002 / 145 / 10,000

전남 담양에 소재한 義興齋는 계곡의 자연미가 그대로 살려져 있고 풍광이 빼어나 요즘도 화가들과 사진작가들이 빈번히 찾고 있다. 소재원은 조선시대에는 선비정신의 표상으로 여겨지던 곳이다. 특히 뛰어난 유학자였던 김인후가 남긴 48수의 시조는 소재원의 진미를 느끼게 해준다. 이 시조 48수와 화가 하성흡의 그림을 어울려놓은 책이다.

미적 체험  
아름다움을  
찾아서

## 미학 오디세이

진중권 / 새길 / 2001 / 295 / 9,000

일반인들은 조금 어려워하는 미학에 대해서 좀더 친숙한 학문으로 인식시킨 미학 입문서본 이의 책이다. 예술의 연원 그리고 예술의 변천과정을 쉽게 풀어쓴 책으로 일반 예술이론서와 달리 쉬운 문장으로 기술하고 있어 읽는데 별로 어렵다거나 지루하지는 않을 것이다.

미적 체험  
미술과 문화

## 화가는 왜 여자를 그리는가 : 정은미가 만난 그림 속의 여자들

정은미 / 한길아트 / 2002 / 383 / 22,000

카바렐의 <비너스>는 명화로 칭송 받고 마네의 <올랭파>는 퇴폐적인 그림이라고 온갖 욕설과 비난을 받아야 했을까 이 책에서는 이 두 여인의 그림을 시작으로 하여 그림을 통해 역사 속 여성의 삶을 읽으려 한다.

## 뒤늦게 핀 꽃 - 위대한 예술가의 초상 2 (에두아르 마네)

마네 에두아르 / 창예 / 2000 / 252 / 15,000

마네 그는 '올랭파'라는 사실적 작품으로 프랑스 화단을 논쟁의 도가니에 몰아넣었던 장 본인이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겠다는 마네의 격렬한 미술 의지가 만들어낸 목소리였다.

## 미술과 도시

최태만 / 열화당 / 2002 / 192 / 6,000

고대로부터 중세를 거쳐 근대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도시와 미술과의 맥락이 짙을 수 없는 공조 체계에 대해서 시대정신 풍속 정치 경제적 배경 다른 문화와의 관계에 대해서 날카롭고 전문적이면서도 재미있게 다양한 도판의 설명과 함께 서술해 나가고 있다.

미적 체험  
아름다움을  
찾아서

## 예술과 과학

엘리안 스트루스 베르 / 을유 / 2002 / 288 / 22,500

인류 유신의 정교함도 이롭다는 집결체로서 예술과 과학의 가장 위대한 만남이라는 주제 아래 지난 수세기 동안 인간이 이루어낸 최고의 업적들을 저자 특유의 미학적 성찰로 가장 우아하게 한 자리에 엮어 놓았다.

미적 체험  
미술과 문화

## 미술과 문학의 만남

이기림 / 월간미술 / 2000 / 156 / 15,000

19세기 20세기 격변의 가파른 같은 화가 작품을 한 쌍으로 이루어 한 시대와 세계를 품어 했던 양자간의 인간적 교류와 예술 혼의 교류를 심도있게 그리 낸 역작이다.

미적 체험  
호남미술의 역사

## 남도 미술의 숨결

조인호 / 다지리 / 2001 / 335 / 12,000

선사시대 이래로 이 땅에 터를 잡아 생명을 이어오는 동안 혼을 사르고 역사로 위여 표정을 만들어 온 사람살이의 지취와 이를 바탕으로 자연과 삶과 문화를 고스란히 담은 남도인들의 예술적 자취를 찾아보자는 의도로 기획되었다.

미적 체험  
미술치료

## 미술 치료

캐시아.말키오디 / 조형교육 / 2000 / 322 / 14,000

미술의 정신치료 기능을 약적 근거 및 주요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생활방법과 치료를 제시하고 있는 책이다. 미술치료에 대한 총체적인 정의와 역사, 현재까지의 발달양상을 제시하며 실제로 어떻게 미술치료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개인이 스스로 실행해볼 수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상세하게 예시한다.

## 미술치료는 미술치료

주리애 / 학지사 / 2000 / 335 / 14,000

미술 치료란 무엇인지부터 미술치료사로서 만났던 환자들의 풍부한 미술치료 사례를 저자 특유의 창의성과 유머감각을 곁들여 엮은 책이다.

미적 체험  
아름다움을  
찾아서

## 명화는 이렇게 속삭인다

이주현 / 예담 / 2002 / 280 / 15,150

작가의 작품관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당시 시공간이나 작가의 성취나 살아온 이야기들 혹은 수많은 연계된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내용들이 책에 흠뻑 빠져게 한다. 더군다나 작가 개인의 주관은 여기저기서 묻어 나와 나의 생각과 대조해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 미술관에 간 율리

장미란 / 용진닷컴 / 2000 / 50 / 7,500

숨은 그림 찾기를 통해 어렵게만 느껴지던 그림들이 세롭고 친숙하게 다가온다. 어린이들의 미술 입문도 역시 놀이와 같은 즐거운 것이 좋을 것이다.

## 10cm 예술

김점선 / 마음산책 / 2002 / 166 / 10,000

글에 담은 화가 김점선의 예술과 인생이다. 글에 담은 화가 김점선의 단상에서 예술론에 이르기까지 이 책은 김점선의 그림을 이해하게 하는 단서와 길잡이다.

미적 체험  
미술과 문화

## 피카소와 함께 한 어느날 오후

클뤼버 빌뤼 / 창조집단 시빌구 / 2000 / 206 / 9,000

20세기 초 세계의 중심지인 파리에서 활동하던 화가 파블로 피카소와 아메리 모딜리아니, 이즈 키슬링, 막스 자코브, 그리고 당시 파리 최고의 패션모델인 파페레트와 그의 친구들이 몽페르나스 거리와 인근 로통드 카페 등에서 찍은 일련의 사진을 소재로 끈질기게 추적한 예술가들의 오후를 다룬다.

## 그림 읽어주는 여자

한샘마 / 명진출판 / 1999 / 208 / 9,800

국내 최유명의 미술전문 MC인 한샘마가 그림을 그리는 화가이기도 한 저자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과 서양의 현대화를 중심으로 창작자와 감상자의 입장을 절묘하게 조화시켜 그림을 읽어 나간다.

## 유혹하는 모나리자

노성두 / 한길아트 / 2002 / 336 / 15,000

유명한 작가들의 미술작품을 해석한 책이다. 30편을 작가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작품에 대한 해석을 컬러 사진과 함께 자세하게 수록했다보는 것도 흥미로울 듯하다.

## 그림 속 풍경이 이곳에 있네

사사키 미쓰오, 사사키 아야코 / 예담 / 2001 / 216 / 9,800

고호가 머무른 파리 이를 생 래미 오베르를 직접 찾다니며 화폭에 담은 장소를 체험하는 미술 기행서이다.

실제 풍경과 고호의 작품을 대조해 보면 고호가 자필 장도로 착실하게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렸다는 흥미로운 점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 나의 서양미술 순례

서경식 / 창작과비평사 / 2002 / 224 / 10,000

유럽여행길에서 만난 미술작품들을 소개하는 형식이 마음에 와서는 그치지 새로운 느낌을 주지 않지만, 그동안 많이 소개되지 않은 작품들을 대할 수 있어 여전히 신중하다. 그림과 관련된 한 감상에서 그치지 않고, 결코 순탄치 않았던 그의 가족사와 우리 근현대사의 이픔을 함께 읽을 수 있는 것도 매력적이다.

## 거꾸로 서있는 미술관

박정욱 / 예담 / 2001 / 208 / 9,800

자라는 반듯이는 동작과 애정 어린 관심으로 현재라는 퇴적 중 속에 깊숙이 숨겨진 미개척 미술을 발굴한다. 예술은 차별한 삶의 현장으로 끌어들이는 18명의 현대작가와 그들이 들려주는 메시 지 그리고 현대미술품 감상의 각별한 재미가 어우러진 책이다.

## 소리하나

이철수 / 문학동네(구)포도원(도) / 2001 / 189 / 12,000

이철수의 붓 가는 대로 길 끝 닿는대로 노래한 것 그려진 것을 보려면 그야말로 산과 들 거기 금방 태어난 화두가 있음을 짐작케 한다. 그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내면의 빛을 이야기하지만 주위에 살아있는 것들과 이롭지 않은 사람들을 하도 놓치지 않는다. 그의 밝은 눈은 사건의 강물 속에서 덧없이 흘러가는 것들과 삶과 죽음을 투명하게 꿰뚫는다.

## 회화란 무엇인가

줄리언 벨 / 한길아트 / 2000 / 277 / 20,000

자라는 회화란 무엇인지 회화의 대상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 지난 2백 년 동안 왜 회화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는지 등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밝히고자 했다.

## 그림 역사가 쓴 자서전

이석우 / 시공사 / 2002 / 352 / 12,000

역사를 공부하거나 미술을 공부하려는 사람에게 권하기보다는 가볍게 그림 감상을 하고 그림 에 담긴 혹은 그림이 그려진 시기의 세계사를 흥미롭게 감상하고픈 사람에게 적극 추천한다.

미적체험  
아름다움을  
찾아서

## 한국의 단청

곽동애 / 학연문화사 / 2002 / 514 / 50,000

‘단청을 보면 우리의 조상은 결코 백색만을 선호했던 소박한 백성이 아니었으며 뜨거운 정열적 감성을 화려한 색채예술로 승화시킨 의지적 민족이었음을 알 수 있다.’ 목조건축물에 쓰인 단청의 독특한 문양과 색채들을 세밀하게 소개한다.

미적체험  
미술과 문화

## 가세 박사의 초상

강주헌 / 예담 / 2002 / 496 / 18,000원

산사 살조란 철저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방대한 사적과 공적을 빈틈없이 보여줌으로써 예술 작품의 가치는 그 작품이 존재해 온 사적과 공간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그야말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살아 있는 미술사를 그려낸 역작이다.

미적체험  
아름다움을  
찾아서

## 마르지 않는 창작의 샘 피카소

염명순 / 아이세움 / 2002 / 208 / 9,500

그림을 통해 세계 곳곳의 위대한 미술가들을 만나고 그들의 작품 세계를 살펴보는 미술을 시리즈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림을 보는 안목과 그림에 대한 애정을 일깨워 줄 것이다.

미적체험  
미술과 문화

## 고갱이 타이티로 간 숨은이유

그리젤다 폴록 / 조형교육 / 2001 / 144 / 11,000

순수한 자연의 추구로 알려진 폴 고갱 반센트 반 고흐의 작품들 아면에 감춰진 서구 식민주의와 이방기르드의 전략을 파헤치고, 미술사에서 문화 성 인종의 차이라는 새로운 학설을 제기한 책이다.

미적체험  
아름다움을  
찾아서

## 길선의 미술

손수호 / 한울 / 1999 / 216 / 12,000

도시의 현대적 환경미술과 고풍 어린 전통의 조형물을 두루 탐방하면서 작품의 배경과 숨은 의미를 안내한 책이다. 화색빛 도시에 푸른 이미지를 던지는 조각, 천년 세월을 전하는 폐사의 심초석, 벽화에서 고궁까지 컬러 사진과 함께 엮었다.

## WITH 테니스와 이모

심현지 / 홍성사 / 2002 / 150 / 8,500

테니스와 이모가 함께한 작업은 경험을 기억하는 일과 경험을 매체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것을 다시 캔버스에 이크릴로 옮겨 그렸다. 이 과정에서 테니스가 기억하거나 유추해 내지 못하는 형상들은 작가들의 작품에서 모사를 했다.

## 겨레 과학인 우리공예

정동찬 / 민속원 / 1999 / 488 / 22,000

우리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독자뿐만 아니라 고고, 민속 공예 디자인 학문을 전공하는 학자와 학생에게는 한 걸음 더 나은 학문결과를 우리 것에서 과학의 지혜와 아이디어를 찾는 이공계 학자와 관련 벤처사업을 기획하는 모든 분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여겨진다.



미적체험  
아름다움을  
찾아서

## 원작 없는 그림들

강홍구 / 아트북스 / 2002 / 344 / 18,000

지은이는 미술이 미술관이나 박물관 속에 들어있었던 신성한 물건이 아니라고 말한다. 이 책이 미술의 진 분리를 다루는 이유도, 미술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임을 일깨워주고자 하는 데 있다. 즉 '생활의 발견'이 곧 미술의 발견으로 발전할 수 있게 도와준다.

표현  
시각 전달 디자인

## 시각 예술과 디자인의 심리학

지상현 / 민음사 / 2002 / 288 / 16,000

사람들은 무엇을 아름답다고 하는가? 왜 그렇게 느끼는가? 아름다움이 생존과 관계가 있을까? 등의 근원적 문제들을 뇌생리학과 실험심리학적 근거에서 파고들어간 미술교양서다.

표현  
공간과 입체표현

## 가우디 공간의 환상

안토니 가우디 / 예담 / 2002 / 223 / 12,750

가우디의 작품들을 구석구석 다정한 시각으로 보여준다. 당장이라도 비르셀로로 날아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며 사진들을 보노라면 '시대와 함께 유능한 예술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남기고 사라져 갔다. 그렇게 해서 아름다움은 빛을 발한다는 가우디의 말을 진심으로 이해하게 된다.

## 중국의 불교미술

구노 미키 / 시공사 / 2001 / 192 / 12,000

후한시대에서 원 시대까지의 중국 불교미술을 조각사를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으며 조각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조각사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필요한만큼만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표현  
만화와 애니메이션

## 성완경의 세계만화탐사

성완경 / 생각의 나무 / 2002 / 293 / 20,000

성완경 교수가 안내하는 세계만화 거장들의 갤러리 40여 컷의 만화작품, 그림 사진 등의 자료가 실려 있으며 각 장마다 만화의 매력에 깊이 빠진 저자의 해설이 담겨 있다.

표현  
섬유 공예

## 내 손으로 해보는 식물염색

베시 블루멘탈 외 / 예경 / 하미희 / 2000 / 16,000

저자들은 미국에서 수년간 염색 작업을 해오면서 얻게 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염료 용액을 만드는 방법과 염색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찬나 실을 염색하여 얻은 염색 효과들을 적용하여 제작한 여러 가지 상품과 공예품들을 보여주고 있다.

표현  
디자인의 세계

## 패션의 클래식

로셴 잉글리드 외 / 예경 / 황연숙 / 2001 / 123 / 17,000

단기적인 유행의 트렌드를 벗어나 세계적 명품으로 인정받으며 더 나아가 패션이론으로까지 자리매김하고 있는 의상과 소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표현  
먹과 색의 향기

## 마음으로 거니는 동양화 산책

허유 / 다빈지 / 2000 / 214 / 10,000

동양화가 허유라는 분이 일반인들을 위해 쉽게 풀이한 동양화의 이론과 실예이다. 동양화 감상의 즐거움보다는 동양화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표현  
먹과 색의 향기

### 신선이 되고 싶은 화가 장승업

조정옥 / 아이세움 / 2002 / 208 / 8,000

조선 후기의 대화가 장승업의 작품을 감상하고 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책이다. 풍부한 도판을 중심으로 하여, 그림을 보면서 장승업의 성격과 삶의 편린을 살펴보고 있다.

감상  
우리나라 미술

### 근원 김용준 전집 [5] - 민족미술론

김용준 / 열화당 / 2002 / 374 / 22,000

동경미술학교 유학시절인 1927년부터 일복 이후 1931년까지 여러 신문·잡지·학술지 등에 실렸던 김용준의 미술론과 미술평론 그 밖의 신문 등 모두 미혼한 편을 한데 모아 『민족미술론』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펴낸 것이다.

감상  
서양미술

### 고전미술과 천 번의 입맞춤 - 노성두의 그림 읽기

노성두 / 동아일보사 / 2002 / 272 / 15,000

고전 미술에서부터 르네상스 미술에 이르기까지 서양미술의 그림자를 대듬어가면서 걸작이 왜 어떻게 그 이름에 값하는 가치를 갖게 됐는지를 흥미롭게 풀어낸 서양미술 기행집이다.

감상  
그리스 미술

### 빈켈만 미학과 그리스 미술

기정희 / 서광사 / 2002 / 192 / 7,000

그리스 미술의 발견자이자 고전미의 발견자인 빈켈만 미학의 전체적 의미를 밝히고 나아가 빈켈만 미학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씌어진 것이다.

감상  
미술문화이해

### 중국미술사

마이클 שלי벤 / 예경 / 1999 / 282 / 18,000

시대 분석과 미술품 분석이 상당히 치밀하고 깊이가 있으며 사서히 실상을 드러내는 식으로 적절히 묘사되어 있다. 또한 방대한 중국 미술의 내용을 압축하여 서술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은 대가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감상  
19c 근대미술

### 인상주의

폴 스미스 / 아트 라이브러리 / 2002 / 184 / 17,000

사회학적·역사학적·정신분석학적·인류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인상주의 즉 단순한 미술유과 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지적·정신적 탐험으로 인상주의 활동을 재평가하고 있다.

감상  
우리나라미술

### 우리그림 여행

김중수 / 동녘 / 2001 / 196 / 9,800

비위 그림에서부터 고구려의 고분벽화 조선시대의 풍속화 민화 이중섭 박수근 등의 현대 화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림들을 선별하여 그림의 특징 화가에 대한 소개 그림에 얽힌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감상  
서양미술

### 고종희의 일러스트레이션 미술탐사

고종희 / 생각의나무 / 2002 / 238 / 17,000

2세기 디자인 시대에 가장 각광받으면서도 아직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못한 일러스트레이션의 세계를 조명한 책이다. 뒤러 보쉬 브뤼겔 등 미술사의 거장 10명이 남긴 명화 10점을 통해 일러스트레이션의 역사와 다양한 빛깔, 그리고 발전방향을 모색했다.

감상  
다른나라 미술

## 고대 그리스의 미술과 신화

토머스 H 카펜터, 김숙 / 시공사 / 1998 / 299 / 12,000

기원전 70년부터 기원전 33년까지 고대 그리스 사부미술 중 현존하는 신화를 소재로 한 신화 개괄서이다. 특히 신화가 문화에 등장하기 전 도기화, 보석장식, 청동조각 등에 묘사된 부분들에 대해 친숙하게 소개해준다.

감상  
우리나라 미술

## 누가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지 않으랴

임옥상 / 생각의나무 / 2000 / 319 / 9,000

이 땅의 미술사상 실천적인 작가로 손꼽히는 임옥상이 책은 그가 모욕당한 현실과 삶을 향해 30년간 꼬박꼬박 적어온 육필일기를 담고 있다.

## 우리나라의 옛그림

이동주 / 학고재 / 2002 / 436 / 17,000

옛 그림을 보는 우리의 눈도 단순히 감각적인 미감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밀접했던 철학, 생의 성격까지 생각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동양화가 제 몫을 가져야면 역시 자기 철학을 안출하려는 노력을 해야 비로소 미의 깊이에 육박할 수 있을 것이다.

감상  
미술품 감상

## 마티스: 원색의 마술사

그자비에 지라르 / 시공사 / 1996 / 176 / 6,300

인상파와는 또 다른 빛과 색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색의 마술이 책의 장점은 원색의 그림들을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적절히 편집하여 우리에게 소개한다는데 찾을 수 있다.

감상  
다른나라 미술

## 르네상스의 미술

하인리히 빌플린(안인희) / 휴머니스트 / 2002 / 426 / 28,000

예외의 대표적 미술가와 그의 작품을 꼽아내어 르네상스 미술의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내용과, 고전미술의 양식 등에 대한 빌플린 자신의 견해를 알 수 있다.

## 발견자 피카소

김원일 / 동방 미디어 / 2002 / 334 / 22,000

저자는 각 사별 화풍을 근간으로 피카소 내면의 소용돌이들을 들춰 보여 준다. 위대한 예술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자신의 삶에 진지했던 안과탐구의 한 전범으로서의 피카소를 새롭게 만날 수 있다.

감상  
미술문화이해

## 위험한 그림의 미술사

조이한 / 웅진닷컴 / 2002 / 270 / 13,000

자기 시대를 온몸으로 깬 작품에 담아 낸 카라바조, 프라디피히 마네, 몽크, 그리고 뒤샹 이 5명의 화가가 그린 위험하고 불온한 그림을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집중적으로 조명하였다.

감상  
다른나라 미술

## 20세기 시각 예술

에드워드 루시 스미스 / 예경 / 2002 / 471 / 35,000

단일한 시각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조망으로 기존의 방식뿐 아니라 최근의 연구 경향까지 아우르며 수용하고 있어 독자들은 현대미술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여러 가지 다른 맛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다.

감상  
우리나라 미술

### 조선사람들 혜원의 그림 밖으로 걸어나오다

강명관 / 푸른역사 / 2001 / 274 / 15,000

혜원 신원복의 그림이라는 하나의 코드로 조선시대 사람들의 유희 즉 삶과 놀이문화를 혜원의 생동감 있는 그림과 자사의 심도 깊은 해석으로 생생하게 그려낸 조선시대 사람들의 유희 풍속사이다.

###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그림 백가지

박영대 / 현암사 / 2002 / 408 / 25,000

선사시대 암각화부터 조선 말기 민화까지 우리 그림 10여점을 9개 꼭지로 나눠 짚어준다. 한 장 한 장을 넘길 때마다 민화 풍속화, 문인화, 초상화 등 다양한 도판을 감상하며 우리 미술에 대한 낮가림을 지울 수 있다.

감상  
미술문화 이해

### 르네상스 미술기행3

앤드루 그레이엄 딕슨 / 한길사 / 2002 / 444 / 25,000

르네상스의 기원과 대개 파렌체 미술 르네상스 사상의 한 축을 이룬 천재 사상의 기원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의 관계 등을 다루며 삶이 사상이었고 또 운동이자 예술이었던 르네상스의 복잡한 얼굴을 탐색했다.

감상  
우리나라 미술

###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유홍준 / 창작과 비평사 / 2001 / 346 / 8,000

우리가 무심히 지나칠 뿐 별다른 의미를 못 느끼는 유적들을 꼼꼼히 답사하면서 저자는 잔주를 깨닫고 신화에 스민 역사의 자취와 누대의 숨결을 발굴하여 해박한 지식과 탁월한 이야기 솜씨로 풀어놓는다.

감상  
다룬나라 미술

### 그리스미술

나이즐 스피비 / 한길아트 / 2002 / 446 / 29,000

저자 스피비는 철학자들을 인용하고, 고대의 서사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하고, 적절한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리스 미술과 그 맥락에 대해 놀랄만큼 풍부하고 명쾌하게 서술하고 있으며, 고고학적 설명이 곁들여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감상  
우리나라 미술

### 요절

조용훈/ 효형 / 2002 / 359 / 12,000

12명의 요절한 천재화가들에 대한 이야기다. 현대시를 전공한 저자는 시인들이 그들을 위해 남긴 헌시를 들어 12명 화가들의 극적인 열정과 삶을 더욱 극적으로 보여준다.

감상  
다룬나라 미술

### 고야(ART&IDEAS 3)

새러 시먼스 / 한길아트 / 2001 / 350 / 26,000

저자는 고야의 드로잉, 유화, 프레스코, 태피스트리, 판화 등을 에스파냐의 미술 전통이라는 맥락 속에서 파악하며 고야가 유럽 전역에 미친 엄청난 영향과 2세기 미술에서 고야가 갖는 의미를 추적하면서 가장 최근의 연구성과와 새로 발견된 이 복잡 미묘한 예술가의 다양한 초상화들도 소개한다.

감상  
우리나라 미술

## 우리 미술 100년

오광수·서성욱 / 현암사 / 2001 / 407 / 20,000

우리 미술 100년의 발자취를 미술가와 작품, 미술 시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다루고 우리 미술의 어제와 오늘을 풍부한 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우리 근·현대 미술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하였다.

감상  
서양미술

## 클릭, 서양미술사

캐틀 스트릭랜드 / 예경 / 2000 / 346 / 23,000

각 시대를 대표할 수 있는 귀에 익은 작가의 작품이 많고 작품의 설명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수준에서의 내용들이다. 그림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보면 좋을 책이다.

감상  
미술문화 이해

## 스탕달의 이탈리아 미술 편력

스탕달 / 이마고 / 2002 / 557 / 25,000

“작가 혹은 ‘파르미의 수도원’ 등 불후의 명작을 남긴 프랑스 문화의 거장 스탕달이 이탈리아의 르네상스 미술과 자신의 예술론에 대해 쓴 독특한 예술 입문서이다.

감상  
우리나라의 미술

## 오원 장승업의 삶과 예술

이양재 / 해들누리 / 2002 / 256 / 16,500

장승업에 대한 여러 이야기와 많은 소문들에 대해서 일찍이 바린 그런 내용이다. 영화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도 물론 나오지만 깊이는 더 깊다. 그의 삶이 어떠한가를 그림 속에 어떻게 제시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다.

감상  
중국 미술

## 중국회화 감상

박은화 / 예경 / 200 / 288 / 19,000

중국의 회화사를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5개의 시대로 나누어 각 시대의 회화를 개 관하고 각 시대마다 회화사적으로 중요한 작품을 선정하여 중국회화의 잔수를 맛볼 수 있도록 하였다.

감상  
다른나라 미술

## 빈센트가 그린 반고흐

파스칼 보나푸 / 놀와 / 2002 / 232 / 14,000

프랑스의 작가이자 미술학자인 자자 동생 데오, 여동생 발랄라 그리고 동료화가들에게 보낸 700통 가까운 빈센트 반 고흐의 편지를 모아 재구성한 고흐의 일대기이다.

감상  
초현실주의

## 어느 괴짜 천재의 기발하고도 상상력 넘치는 인생 이야기

살바도르 달리 / 이마고 / 2002 / 396 / 10,500

도판과 기점으로 접합된 삶을 살았던 초현실주의 화가 살바도르 달리가 우리에게 쓴 자서전이다. 그의 과대 망상적·몽환적 세계관이 어떻게 초현실주의 예술로 승화되었는지 보여준다.

감상  
우리나라 미술

## 우리 옛 여인들의 멋과 지혜

이성미 / 대원사 / 2002 / 164 / 18,000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동안 여인들의 지위 변화와 활약을 살펴보고, 현재 남아 있는 옛 여인들의 시·서·화와 수예품 등의 예술작품을 통해 그들의 삶을 짐작해보고 있다.

감상  
다룬나라미술

### 미켈란젤로

젠 그린 / 용진닷컴 / 1996 / 30 / 5,500

비교적 오래 살았지만 평생 위대한 작품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위대한 화가의 인생이 잘 그려지고 있다. 또한 기법 소개 등을 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직접 실습해 볼 수 있다.

감상  
우리나라 미술

### 화인열전1 : 내 비록 환쟁이라 불릴지라도

유홍준 / 역사비평사 / 2002 / 384 / 16,000

한국미술의 대표적 화가 여덟 명의 잔토 단순한 화가의 연재가 아닌 그 예술적 성취를 인생 역정 속에서 살펴본 책이다.

감상  
중국미술

### 중국 회화사 삼천년

양신 / 학고재 / 1999 / 404 / 100,000

구석기 시대부터 90년대 작년까지 중국 3000년의 미술사를 본격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감상  
미술품 감상

### 어린이를 위한 명화이야기

이정임, 전미령 / 문예마당 / 2001 / 104 / 10,000

단순히 그림을 감상하기 위한 것만 아니라 명화에 대한 재미있고 유익한 설명을 실은 것은 물론이고 그밖에 미술에 대한 여러 가지 상식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아 그림을 처음 접하는 어린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꾸몄다.

감상  
우리나라 미술

### 한국미술 그 분출하는 생명력

강우방 / 월간미술 / 2001 / 296 / 13,500

저자 강우방은 국립박물관이 지난 반세기 동안 배출한 최고의 학자 중 한 사람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한국 미술사학자로서 이 책은 30여 년 간 현장에서 한국미술을 연구해 온 저자의 경험을 토대로 한 '체험의 한국미술사'라고 할 수 있다.

감상  
미술문화 이해

### 청춘의 사진

서경식 / 창작과비평사 / 2002 / 216 / 10,000

예술가의 삶과 작품에 관한 풍부한 교양 평이하면서도 유려한 문체 강렬하고 이색적인 그림 50여컷이 어우러져 책의 품격을 한층 높이고 있다.

### 고흐가 되어 고흐의 길을 가다

노무라 아쓰시 / 마주한 / 2002 / 316 / 15,000

고흐가 태어난 네덜란드 준데르트부터 동생 테오와 함께 영입해 접들어 있는 프랑스 오베르의 묘지까지, 고흐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의 삶의 궤적을 생생히 보여주는 책이다.

감상  
우리나라 미술

### 미술은 아름다운 생명체다

정병모 / 예담 / 2002 / 296 / 15,000

한국미술의 대중화를 위해 필자는 차근차근 학술적인 논문 형식에서 탈피하여 경험담, 설화시 등을 인용하면서 보다 편하고 쉽게 읽힐 수 있는 글쓰기를 시도하였다.

감상  
서양미술

## 도발

마크 애튼슨 / 이후 / 2002 / 327 / 17,000

저자는 1990년대 파리에서 처음 등장한 아방가르드의 역사를 토대로 그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했던 아방가르드 20명의 활동을 뉴욕의 나체, '브로드웨이 부기우기', '우드스탁 네이션' 등 14개 장에 걸쳐 펼쳐낸다.

감상  
서양미술

## 그림 속으로 난 길

강홍구 / 아트북스 / 2002 / 318 / 15,300

저자는 공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일상에서 미술을 찾는다. '한자 미술 그 자체라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미술품의 사진과 그에 관한 그의 생각을 정리한 '찾아주름' 이투고 비디오, 영화 등의 대중매체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담겨 있다.

감상  
후기인상주의

## 조토에서 세잔까지

마이클 리비 / 양정우 / 시공사 / 2000 / 331 / 12,000

깊은 학문적 내용을 일반 독자가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간결한 표현으로 적절히 배합하였고, 도판의 질은 평균 이상이어서 읽는 데 지적·미적 즐거움을 준다.

## 너무 매혹적인 현대미술

신현림 / 바다 / 2002 / 255 / 8,000

대중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하며 어쩌면 전혀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 미술계를 이끌고 있는 20~30대 현역 스타작가들과 그들의 작품들을 대거 소개하고 있다.

# 영 어

## 20/80 영어법칙

**마이키 / 명진출판 / 2002년 / 240쪽 / 12,000원**

단 20%의 영어가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영어의 80%를 좌우한다.

이 책은 파레토의 20 / 80 법칙이 영어에도 적용되어 80을 만들어내는 핵심 20이 있다는 가정 하에 시작한다. 20 / 80 영어법칙을 통해 저자는 모든 영어문장의 기본은 주어+동사이며, 질문에는 묻는 대로 답하면 된다고 말한다. 또 문장 내에서 한 단어나 구를 바꾸면 수많은 새로운 문장들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쉽고 간단하게 말할수록 영어가 쉬워진다고 주장한다. 특히 자신만의 경험을 이용하여 상황연상으로 기억하는 것은 알고 있는 영어를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말한다. 이 다섯 가지가 영어의 핵심 20이며, 이것만 확실하게 이해하고 익히면 된다고 한다.

제대로 된 회화의 원리를 익혀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하고 싶은 사람에게 권한다.

## 가짜 영어 사전

**안정효 / 현암사 / 2000년 / 896쪽 / 18,000원**

소설가이자 번역가인 안정효 씨가 낸 영어사전이다. 하지만 단어를 나열하고 뜻풀이를 해 놓는 데 그치는 보통의 '사전'은 아니다. 한국인들이 남용, 오용하고 있는 국적 불명의 단어들을 찾아 그 본래의 뜻은 무엇이며, 무엇이 올바른 영어인지를 밝혀 준다. 소재는 주로 텔레비전과 신문, 기관 등 언론과 각종 인쇄물에서 수집하여 1,000 여 개의 단어를 실었다.

이 책은 영어를 잘하기 위한 사전이라기 보다는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떻게 오염되었는지를 돌아보고, 바른 우리말 사용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무심코 사용하는 영어 단어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궁금한 사람은 꼭 읽어보기 바란다.

## 게으름뱅이의 초특급 영어 공부법

**박원영 / 문예당 / 2001년 / 299쪽 / 8,500원**

자신의 경험을 통한 현실적인 영어 학습법을 제시하고 있다. 학창시절 영어를 못하던 필자가 적절한 영어 학습법을 찾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줌으로써 영어 공부를 못하는 학습자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준다.

총 3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제1장에서는 영어를 공부하는 자세, 지금까지의 공부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법 등을 다루었고, 제2장에서는 구체적인 영어 학습법을 소개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TOEFL에 대비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따라서 이 책은 TOEFL 고득점을 위한 영어 학습 지침서이다. TOEFL 12주 스텝 플랜을 짜서 실행하는 방법, TOEFL 섹션(Listening, Structure, Reading, Writing 섹션)별 유형 분석 및 대비책, CBT TOEFL 시험전략 등이 폭넓게 다루졌다. 특히 섹션별로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될 중요 부분을 정리한 '주요 Checkpoints'와 문제풀이 요령을 한번에 짚어주는 'How-to-Guess Tips' 등을 통해 단기간에 TOEFL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 그래 아직도 영어 공부한다 왜

**김명기 / 그린비 / 2001년 / 272쪽 / 9,900원**

기존 영어학습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서 이미지로 상상하고, 큰소리로 읽으면서 뇌와 혀끝에 영어를 각인시키는 '이미지 메이킹' 영어 학습법을 소개한다. 지은이는 어떤 영어 문장을 보고 절대 우리 말로 해석하려 들지 말고, 그 문장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 넣으라고 한다. 이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법도 알려주고 '그림이 있는 영어책' '그림이 없는 일반 영어책'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미지 메이킹'을 적용하는 법 등도 알려준다. 책의 후반부로 넘어가면 '그림' '상황 설명' '한글 해석'을 이용해 이미지화 하는 방법과 예제가 충분히 나와 있다. 영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싶은 사람은 꼭 읽어보기 바란다.

## 그림으로 보는 이야기 영어 속어1

**Casey Malarcher(마용천) / 컴퍼스 / 2002년 / 172쪽 / 10,000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영어속어 각 권 300개 수록  
 학습할 모든 속어를 각 단원의 스토리에 제시  
 각 단원의 스토리마다 간단한 퀴즈와 어구 설명  
 재미있는 삽화와 쉬운 예문  
 영어 정의와 유사 속어 수록  
 참고/비교 항목을 통한 관련 어휘 및 속어 학습  
 연습문제를 통해 타겟 속어 및 스토리에 나타난 어휘 복습  
 다양한 방법으로 영어에 접근하고 있으며, 쉽고 재미있어 누구나 접할 수 있다.

##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 1-2

**한호림 / 디자인하우스 / 2000년 / 480쪽 / 9,000원**

이 책은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는 연관성 있는 개념을 연결하여 암기할 때 훨씬 효과가 좋다는 원리를 이용해 만들었다. 토플 토익 서적이거나 단어만 죽 나와있는 책들과 비교해 볼 때 읽는 재미가 있고 지루함이 훨씬 덜하다.  
 저자는 대학 교수라는 직업을 내버리고 캐나다로 이민간 피짜 그래픽 디자이너로 저자 특유의 유티와 기발한 아이디어로 각종 삽화와 사진을 곁들여 기존 영어 학습서와의 차별성을 갖췄다. 대중적인 인기를 끈 덕분에 아예 시리즈로 나왔다. 어렵지 않은 어휘들로 구성되어 아무 때 아무 곳에서나 펼쳐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영어 실력이 쑥쑥 자라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다.  
 단어의 단순 암기에 질린 학생들에게 권한다.

## 날마다 먹는 영어의 비타민

**하광호 / 에디터 / 1998년 / 400쪽 / 9,500원**

이 책은 미국에서 영어교육법을 가르치는 한국인 영어학자가 하광호 씨가 지은 영문법에 관한 도서이다. 명사의 개념과 종류를 시작으로 대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 조동사, 분사, 동명사, 부정사, 태, 법, 관계대명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구와 절, 시제로 나누어 순서대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문법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 영어 입문자는 어렵게 느낄 수 있다.  
 영문법의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은 사람에게 유용한 책이다.

## 누구나 쉽게 끝내는 전화영어

**김기홍 / 오늘닷컴 / 2000년 / 204쪽 / 10,000원**

우리의 언어 발달을 통해 전화는 하나의 중요한 위치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따라서,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를 통해서 서로 의사 소통하는 사회적 현상은, 그 만큼 전화 할 때의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 책은 전화 영어의 길잡이로서 충분하다.  
 영어로 유창하게 전화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영어를 정복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편하게 영어로 전화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일상의 표현에서부터 국제전화에 이르기까지, 또한 쇼핑과 관광할 때 자주 쓰는 영어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다

## 니들이 영어를 알아

김명기 / 느낌표 / 2002년 / 363쪽 / 10,000원

이 책에는 650개 정도의 이미지 메이킹 훈련 문장과 함께 100개의 상황 설명 예문,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가진 영어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들을 바로잡아 주는 진솔한 얘기들이 많이 담겨 있다. 또한 순수 국내파로서 완벽하게 영어를 구사하는 필자 자신의 다양한 공부 방법들도 중간중간 소개되고 있어, 이 한 권의 책만으로도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기초를 확실히 다질 수 있다.

특히 '영어 학원은 실습 공간', '한영사전은 회화의 적', '영어 발음이 완벽해지는 방법',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한 압박법' 등등은 필자 자신이 직접 실천해 보고 결실을 거둔 방법들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다.

## 동사를 알면 죽은 영어도 살린다

네오퀘스트 / 김영사 / 1999년 / 464쪽 / 14,900원

인터넷에서 엄청난 인기를 받았던 영어 학습 사이트 '네오퀘스트'의 최고 인기강좌 'Native처럼 생각하자'를 책으로 엮었다. '외우는 영어는 가라!'가 이 책이 주장하는 바이다. 물론 암기하지 않고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원리를 깨우치면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부분이 많으며 암기는 이런 기초 위에서 할 때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영어의 원리를 제시하는 데 뛰어나다. 영어의 핵심고리를 명사와 동사, 그 중에서도 동사에 두고, 다시 동사의 핵심인 기본동사를 중심으로 한다. 'Native 머리 속 들여다보기', '기본 동사 그림 그리기', '기본 동사와 전치사의 만남', '상상의 나라를 퍼자'의 4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약간의 수준이 높으므로 중급 정도의 실력자에게 맞는 책이다.

## 들으면 말이 되는 이보영의 120분 영어회화

이보영 / 넥서스 / 2003년 / 248쪽 / 15,000원

총 3개의 Tape이 들어있어서 먼저 강의 테이프를 듣고 교재를 통해 정리하고 다시 한 번 Tape와 교재를 동시에 보면서 최종 복습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회화표현을 익히게 했다.

재미있는 설명과 반복된 패턴 연습을 통해 영어 리듬을 익히게 했다.

무조건 표현들만 외우는 방식이 아니라 이보영 선생님과 함께 3단계로 차근차근 하고 싶은 말을 정리해 나가면서 영어 기초회화를 익힌다. 또한 단순한 상황 나열식 영어회화에서 벗어나 영어로 말하는 데 있어 기본이 되는 기능(Function)에 따라 꼭 필요한 내용만을 정리했다.

120분 강의에서는 베테랑 영어강사 Shane이 공동 진행하여 한층 생기 넘치는 120분이 펼쳐진다.

영어 회화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한 사람, 영어 회화의 기본기를 다지고 싶은 사람 모두에게 추천할만한 교재이다.

## 들으면서 정리하는 이보영의 120분 영문법

이보영 / 넥서스 / 2002년 / 223쪽 / 15,000원

총 6 Lecture, 20 Group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Lecture마다 "꼭 알아야 될 패턴들" 연습을 통한 구문의 습득, 명쾌한 해설과 문제 풀이를 통한 확인 학습이 가능하게 되어있다.

총 3개의 Tape이 들어있어서 먼저 강의 테이프를 듣고 교재를 통해 정리하고 다시 한 번 Tape와 교재를 동시에 보면서 최종 복습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영문법을 익혀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이보영의 영리한 콤피 아이작 선생과 함께 엮어어나가는 120분 강의는 기존의 영문법 학습의 지루하고 따분함과 거리가 먼 재미있는 시간이다.

영어의 기초를 다지기에는 확실히 탁월한 책이다.

## 마이클과 함께 영어로 성공하기 1 : 자신감 편

마이클 제이 마이어스 / 명진 / 2001년 / 304쪽 / 8,900원

20년의 한국 생활과 15년의 영어 교사 경력을 가진 마이클이 제안하는 영어 학습법이다. 저자가 한국어를 배우는 동안 겪었던 일화를 바탕으로 미국과 한국의 문화 차이와 언어 차이를 재미있게 표현했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1장에서는 자신이 한국어를 배우며 얻은 외국어 학습의 포인트를 다시 영어 학습과 연결시키면서 효과적인 영어 학습법들을 끌어냈다. 2장에서는 좀더 구체적인 학습법으로 들어가 '저장한 영어를 버려라', '생활 영어는 없다', '이중사고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말, 미국인처럼 발음하고 싶다면 호흡법에 주목하라' 라는 4개의 주제 아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였다. 실용적인 영어 공부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읽어보기를 권한다.

## 말 많은 녀석이 영어도 잘한다

유수연 / 소담출판사 / 2002년 / 263쪽 / 8,000원

듣기, 쓰기, 읽기, 말하기의 감을 잡는 5개의 Part로 구성되어있다. 문화적 차이를 인식하고, 무조건 외우는 것이 아닌 동사와 전치사의 감각과 그 기본적인 쓰임새,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발음, 독해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지침들을 제시해준다.

읽으면서 영어 학습 방법을 익힐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학습해 나갈 수도 있다. 영어를 공부하는데 필수적인 영미인의 문화를 통해, 영어의 기본기를 익히고 감을 잡을 수 있다. 또한 쉽고 재미있게 풀어 쓴 동사와 전치사의 의미를 깨달아 영어의 원리를 파악할 수 있다.

## 미국인이 특 하면 쓰는 영어회화

잉글리쉬고딕템 / 넥서스 / 2003년 / 116쪽 / 12,000원

평생 한 번이나 볼까 말까한 단어, 몰라도 의사소통에 지장 없는 단어를 과감히 제외시키고 일상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영어 원어민의 일상 대화에서 가장 많이 튀어나오는 단어만을 골라 실었다. 영어 원어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Shopping, Hobbies & Recreation, Entertainment, Holidays 등 분야를 나누어, 미국 현지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어휘만을 선정했으며,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생생한 대화문을 함께 담았다. 한국인에게 생소하지만 미국인들이 밥먹듯 쓰는 단어와 유용한 회화문을 실은 "알짜 VOCABULARY + 영어회화" 책이다. 어휘 설명을 통해 배우는 미국 문화에 대한 정보는 이 책을 공부하는 또 하나의 쓸쓸한 재미를 준다.

## 셰익스피어 4대 비극

윌리엄 셰익스피어(이태주) / 범우사 / 2000년 / 534쪽 / 10,000원

셰익스피어의 희곡 가운데 너무도 유명한 4대 비극인 '햄릿', '맥베스', '리어왕', '오셀로'를 한 데 모은 책. 주로 어두운 인생의 뒤안길과 인간의 고뇌, 실망, 죽음 등을 주제로 하고 있다.

'햄릿'은 사랑하는 모친의 도덕적 타락과 숙부의 인간적인 배신 오필리어의 죽음 등으로 깊은 절망감에 빠져 비통한 최후를 맞게 되고, 이야기의 간계에 빠진 '오셀로'는 질투에 미쳐 착한 데스데모나를 살해한다. 딸들의 불효에 분노한 '리어왕'은 광야를 헤매고, '맥베스'는 마녀들의 꾀임에 넘어가 끔찍한 살인을 범함으로써 스스로 치욕적인 죽음을 당한다. 주인공들의 박약한 의지와 맹목적인 아집은 선의 힘을 쇠퇴시킨 동시에 악을 유발시켰고 이것이 비극의 전주곡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러나 셰익스피어의 비극은 인간의 높고 깊은 의식에 충격을 주고 상상적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독창성을 지니고 있어 단순히 복수극의 형태로 저질화 되지 않는다. 특히 극중 인물의 성격 묘사나 성격 창조에서 그의 우수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의 4대 비극은 그러한 우수성을 한층 더 보여주는 천재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 소설보다 더 재미있는 영어 연수 여행

임병현 / 명지사 / 1999년 / 304쪽 / 8,000원

이 책은 영어 연수 여행이나 유학, 비즈니스, 또는 관광 여행을 처음으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저자가 처음 해외에 나가서 체험하고 터득한 요령을 영어, 우리말에 구분 없이 자연스럽게 엮었다. 대화 부분은 영어로, 상황은 우리말로 자연스럽게 서술했기 때문에 쉽게 읽을 수 있다.

'유비무환'이라! 외국에 나가기 앞서 이 책을 먼저 탐독하여 간접 경험을 통해 미래를 한 번 내다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앞으로 해외 연수나 유학을 생각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이 책을 권한다.

## 스페인어로 말해보자

유연창 / 삼영서관 / 2000년 / 238쪽 / 9,800원

이 책은 <통제로 익히는 스페인어>와 자매편으로 스페인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을 위한 회화 지침서이다. 스페인 어의 일반적인 특징을 설명하고 인사, 부탁, 감사 등 기초적인 표시, 공항, 호텔, 레스토랑 등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서 주고 받는 일상 회화를 다루었다.

스페인 여행을 준비한다든가 스페인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 아직도 영어공부하니

정찬용 / 사뮈얼슨 / 2000년 / 200쪽 / 6,500원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의 속편 격인 책이다. 전편이 '어떻게 하면 외국어를 잘 할 수 있나요?'라고 묻는 부하 직원들을 위해 쓰기 시작한 책이라면, 이 책은 전편의 독자들의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이라고 집필 동기를 밝히고 있다. 이 책은 미국에 유학 UCLA에서 인류학을 공부하고 있는 K양이 한국에 돌아오는 데서 시작한다. 저자는 K양과 함께 그 동안 받은 메일들을 분류하면서 영어학습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부록으로 전편 독자들의 성공담과 질문과 답란을 수록했다.

실질적으로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싶은 사람이라면 한 번 읽어볼 만하다.

## 언플러그드보이로즐기는 틴틴 잉글리쉬

김경선 / 중앙M&B / 2003년 / 287쪽 / 9,800원

듣기만 해도 스트레스 쌓이는 단어, 영어! 속 시원히 빨리 좀 끝내고 싶은데 밀린 숙제처럼 늘 답답한 영어! 영어 때문에 고민 많은 청소년들에게 권하고 싶은 책이다. 이제부터 영어를 좀 즐기며 공부하자. 재미있는 만화, 영화나 외국인과의 회화에서 당장 확인할 수 있는 생생한 표현들, 술술 읽으면서 바로 고개가 끄덕여지는 문법, 간단한 일기처럼 보이지만 읽고 나면 필요한 단어들, 저절로 암기되는 단어장, 잘못 쓰면 큰일나는 콩글리시 총점검. 그리고 그녀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문화상식까지...

어렸을 때는 왜 이런 만화책이 없었는지 안타까울 정도로 재미있는 영어책이다.

## (독해력 향상을 위한) 영문법의 이해

이종호 / 남두도서 / 2002년 / 268쪽 / 11,000원

이 책은 문법 부분을 총15개의 단원으로 나누어 간단한 문장을 통해 그 속에 담겨 있는 문법 사항을 하나씩 점검해 나감으로써 그 동안 알고 있거나 어렵듯이 기억만 하고 있었던 문법적 내용을 스스로 확인해가면서 깨우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기본 문장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문법 사항을 짚어나가며 해당 문법 사항에 대해 보다 현실감 있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영어 동의보감

박광희 / 현암사 / 2001년 / 280쪽 / 7,800원

94년에 출간되었던 <영어병 10가지>를 인터넷 시대에 맞게 보완하여 펴낸 개정 증보판이다. 각 장마다 실려 있는 '인터넷 탕약'이라는 코너를 통해 영어 관련 사이트를 추가한 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하겠다.

이 책은 영어 학습의 고질적인 문제점 10가지를 영어병으로 꼬집어 진단하고, 리스닝 향상 비법, 회화 잘하는 방법, 영어다운 작문법, 영어사전 선택법 등 영어 각분야에 걸쳐 '처방'을 내린다. 꽤 두툽한 분량에 여러 가지 유용한 영어학습법을 꼼꼼하게 설명하고 있다. 지은이가 소개해주는 영어 관련 사이트 중에는 영문법과 관련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상담도 받을 수 있는 영문법 사이트, 영화 대본 사이트, 영어 연애 편지를 대신 써주는 사이트 등 꽤 괜찮은 것이 많다.

## 영어 아무나 한다

송승우 / 삼진기획 / 2001년 / 208쪽 / 8,000원

실질적인 영어 학습법의 노하우를 소개한 책. 미국 현지 생활의 생생한 체험을 바탕으로 <영어에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을 비롯해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 <상황에 맞는 영어를 통째로 익히라>, 등 39편의 영어 학습 방법을 수록했다. 특별부록으로 미국에서 3번 이상 들은 영어를 첨부했다.

이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성공하는 영어학습법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미국인들도 쓰지 않는 구닥다리 영어는 이제 그만 하라는 것.

둘째는 '바비큐 전법'을 이용하라는 것-단어와 문장을 따로 공부하지 말고, 영어 문장을 통째로 익혀서 자주 사용하면 저절로 입에 붙는다는 것.

셋째, 느낌보 거북이의 철학을 배우라는 것-벼락치기 공부보다는 하루에 1분 30초씩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

## 영어 알고 보니 개뿔도 아니다

이승규 / 동인 / 2001년 / 304쪽 / 7,800원

영어 못해서 재수했던 학생이 두 달 독학으로 영어회화강사가 되어, 영어 잘해서 명문대에 들어간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이 일어났다. 그것뿐인가? 미국에서 살다왔냐는 말도 모자라 아예 Native Speaker 강사로 일하고 있다.

선천적으로 언어능력이 발달하지 않아 우리말도 유창하지 못하고, 국어 성적도 형편없었던 학생이었고, 기억력도 안 좋은 상태에서 2달 동안 하루 3?4시간씩 혼자서 공부해 고급 영어과정인 토론 영어까지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 스스로 “SKY 학습법”에 자부심을 느낀 저자의 책이다.

저자는 ‘SKY 학습법’이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효과를 본 학습법이라고 자부하고 있다.

## 영어 일기 정찬용에게 물어봐라

정찬용 외 / 김영사 / 2001년 / 252쪽 / 8,900원

이 책에 수록된 두 아이의 일기 45편은 미국에 간 첫째인 1996년부터 3년간 쓴 일기 중에서 가려 뽑은 것이다. 이주 당시 7살이었던 성현은 당시에 아는 단어가 I like밖에 없었지만(※74쪽 참조) 9개월 후 완벽한 영어를 구사(※86쪽 참조)하게 되고 한국에서 영어공부를 하고 간 9살이었던 성민은 2년여가 지난 다음 완벽한 영어식 사고(※127쪽 참조)를 하게 된다.

9살, 7살의 두 형제 권성민, 성현이의 일기를 편집, 생생한 현지 어린이의 생활과 표현을 접할 수 있다. 아버지를 따라 미국에 가서 생활하는 두 형제의 표현이 문법적으로 잘못된 부분도 있고 어휘의 구사도 적절치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 필자의 수정 보완 설명이 영어를 쉽게 익힐 수 있게 한다.

영어 일기를 쓰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작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다.

##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정찬용 / 사외평론 / 2002년 / 208쪽 / 6,500원

이 책은 지은이가 영어에 콤플렉스를 느끼는 K양을 5단계의 혁신적인 영어 학습법을 통해 모국어 수준으로 영어를 구사할 수 있게 이끌어 준 경험담을 소설 형식으로 재미있게 풀어 쓴 책이다. 기존의 영어 학습서와는 달리 영어가 개입되지 않고, 영어를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나열식, 암기식, 곁핥기식 영어 학습법이 아닌 다년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신드롬이 영어 학습법이다. 누구나 이 방법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꾸준히 실천한다면 6개월이면 영어를 모국어 수준으로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저자는 자신있게 말한다.

## 영어로 읽는 성경(신약, 구약)

이소영 / 시사영어사 / 1999년 / 382쪽 / 12,000원

영어 성경을 사전 없이 읽을 수 있도록 필수 단어와 구문 설명을 조목조목 달아두었다. 성경에서 유래한 관용표현들과 성경의 어휘들, 주요 구절의 해석과 도움말을 첨가했다.

‘신약’은 풍부한 그림과 함께 영어 성경을 해설했다. 신약의 개요를 비롯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7편의 신약을 영어원문, 단어해설, 문장 해설, 신앙적 메시지, 관용표현, 그림/사진/지도, 역사 및 문화적 배경 등을 첨가해 설명했다.

또한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을 영어로 신고 설명했다. 구약 39편 중 핵심적인 구절을 영어 원문으로 신고, 단어 설명, 역사에 대한 기초 사항을 사진과 함께 엮었다. 신앙적 메시지, 해석 및 도움말, 각 장의 소개, 관용 표현, 문화적 배경 등을 함께 설명했다.

## 영어를 진짜 잘하게 하는 영문법책

Nakagawa Nobuo / 삼영서관 / 2001년 / 326쪽 / 9,500원

어려운 문법 용어를 피해 영어의 짜임새와 쓰임새를 설명하고 있는 책으로 총 25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0개의 질문과 대답형식으로 딱딱하지 않고 쉽게 문법 이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있다.

학생들의 질문과 영어 교사들이 수업을 진행할 때 품었던 의문을 토대로 하여, 고등학교 1학년생이 알 만한 정도의 용어로 제한하면서 영어 문장 구성을 이해시키려고 만든 책이다.

예문도 진부한 표현을 지양하고 네이티브 스피커가 잘 쓰는 예문을 체크해 놓았다. 영문법을 외우느라 지친 학생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다.

## 영어에는 Apple이 없다

박영숙 / 정음 / 2002년 / 342쪽 / 9,500원

호주대사관 문화공보실장으로 재직중인 저자가 회화에서 작문, 문법까지 영어학습법을 일러 준다. 미국인 남편, 아들과 대화를 나눌 때는 편안한 슬랭을 쓰다가도 직장에서는 최고급 영어를 구사해야 하는 이중적인 영어 환경에서 느낀 한국 영어 교육의 문제점을 명쾌하게 설명한다.

한국인들이 영어를 사용하면서 흔히 범하기 쉬운 오류, 고급영어를 구사하기 위한 10가지 방법, 시간에 쫓기는 현대인들을 위한 핵심 영문법, 독해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범 작문 14가지도 수록했다. 학생과 일반인 모두를 위한 효율적인 영어 학습법을 제공하는 책이다.

## 영어의 바다에 빠뜨려라

하광호 / 에디터 / 1995년 / 258쪽 / 7,000원

미국 뉴욕 주립대 영어 교육학 교수로 17년째 재직중인 저자의 체험론적 영어 학습 비법을 담은 책이다. 조기 영어 교육, 성인들의 효과적인 영어 학습, 학생들의 영어 공부를 비롯하여 영어 교사의 효과적인 영어 교수 방법을 밝히고 있다. 문법이나 회화 혹은 맹목적인 암기에만 매달려 온 우리의 영어 학습 관행을 꼬집은 책이다.

이 책은 영어 학습에 관한 직접적인 책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가 하는 하나의 철학서에 가까운 책이라 할 수 있다.

## 영어의 패러다임을 바꿔라

오세용 / 사계절 / 1998년 / 254쪽 / 9,500원

현재 미국 대학의 영문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미국문화평론가로 활동중인 저자는 이 책에서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자신의 경험뿐 아니라 학계의 연구 결과 등을 자세히 소개했다. 특히 마인드 맵을 이용한 영어 공부, 단어 암기 방법에서부터 관사 해결 방법, 미군 방송 이용법, 인터넷 사용법에 이르기까지 저자만의 노하우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영어 공부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알고 싶은 사람은 한 번쯤 읽어볼 만하다.

## 영어회화 핵심패턴 233

백선엽 / 길벗이치트 / 2002년 / 301쪽 / 17,000원

뚝뚝 튀는 젊은 영어, 실용성 150%의 Spoken English로 국내 영어 학습자들 사이에 입소문 난 베스트셀러 저자. 빠글빠글한 글자를 외우느라 고생하고도 말문을 못 여는 만년 영어 초급자들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가 이번엔 하나를 외우면 수십 개로 활용할 수 있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패턴 233개를 골라 가장 외우기 쉽고, 가장 써먹기 좋게 41개 패턴 줄기로 묶어 놓았다.

꼭 익혀야 하는 핵심패턴들을 하나의 큰 패턴 줄기로 묶어서 설명하고 있어, 한 가지 키워드를 이용해 여러 개의 패턴을 한꺼번에 외우는 효과가 있습니다. Warming Up 부분에서는 간단한 회화 문장으로 각 패턴 줄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여주고 있다.

Tip에서는 회화문에 묻히기에는 아까운 쓸쓸한 여러 가지 회화 표현들을 가르쳐 주고 있으며, 대화 내용과 관련된 미국의 최신 문화 정보나 잘못된 쓰이고 있는 영어를 바로잡아 준다.

## 영작문! 너는 생각하니 나는 바로 쓴다

정경옥, 임경현 / 두드원 / 2002년 / 472쪽 / 15,800원

작문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다른 영작문 책과는 다르다. 다른 영작문 책은 잘 쓰는 표현법을 영어로 옮겨놓고 그것을 암기하여 비슷한 경우에 암기한 것을 쓰게 한다. 그러나 이 책은 영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문법을 이야기하면서 작문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암기를 강요하는 기타 영작문 책과 달리 이해위주로 되어 있으며 이제까지의 암 기위주의 문법을 이해 위주의 문법으로 전환시켜주는 설득력이 강하다. 이 책은 작문에 대해 눈에 띄는 비법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작문을 잘하도록 도움을 주는 책으로 정도를 걷는 게 왜 중요한지를 일깨우는 책이기도 하다.

## 이동일교수의 영어이야기

**이동일 / 한울 / 2002년 / 248쪽 / 9,500원**

이 책은 영어를 성공의 도구로만 여겨 단순히 암기하는 데만 집착하는 현재의 영어 교육 풍토를 지양하고 하나의 문화로서 영어를 이해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집필되었다. 따라서 이 책은 영어를 배우는 이들과 가르치는 이들, 영어공부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라 할 수 있다.

전체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재미로 푸는 말 보따리' 편에서는 영어 단어를 중심으로 그 뜻과 기원, 재미있는 표현 등을 소개한다. '타임머신 타고 만나는 영어 이야기' 편에서는 영국의 역사와 회로애락을 같이한 영어의 일생을 전해준다. '역사'하면 자칫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짧은 분량의 흥미로운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어 부담없이 읽어 나갈 수 있다. 역사 이야기와 함께 유명한 고대문학과 중세문학의 내용도 소개해준다.

마지막으로 '영어의 달인들' 편에서는 알프레드 대왕, 초서, 셰익스피어, 존슨 박사, 머리 경 등 영어의 역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위인들의 업적과 잘 알려지지 않은 개인사를 공개한다.

## 이메일로 사람잡기 그리고 영어잡기

**박봉현 / 책만드는공장 / 2002년 / 264쪽 / 9,500원**

중년의 부동산 감정 평가사가 이메일과 채팅을 통해 전세계 친구들을 사귀면서 주고 받은 사적인 이메일을 모은 책이다. 영어를 잘 하지 못해도 이메일을 통해 전세계 사람들과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는지 그 노하우를 알려준다.

이 책의 내용은 실제로 주고받은 편지글이라 생생하다. 지난 해 가을, 9·11 테러사건 당시 미국 여행 중이던 저자는 이메일로 사귀 친구 집에 일정보다 오래 머물며 전세계의 이메일 친구들과 긴밀한 서신을 주고 받았다. 그리고 2002년 한·일 월드컵 경기가 열리던 때, 저자의 이메일 함에는 그 같은 열기와 관심을 가득 담은 해외 친구들이 이메일들이 수도 없이 쇄도했다. 책의 마지막에는 10여 명에 달하는 저자의 이메일 친구들의 최근 근황을 간단히 소개하고 있다.

## 이보영 아이작의 Talk about animals

**아이작, 이보영 / 넥서스 / 2002년 / 172쪽 / 10,000원**

이보영과 아이작의 <Anytime Books> 시리즈 5권 중 제 4편이다 이 시리즈는 감정, 스포츠, 동물, 음식, 신체의 5가지 테마에서 100개씩의 필수 이디엄을 뽑아서 생활 속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상황별 Q&A 연습과 생생한 녹음을 통해 예문 속에 녹아 있는 쉽게 소화할 수 있게 구성했으며, 동물과 관련된 100개의 필수 이디엄을 선정, 주어진 회화문을 통해 무작정 외우지 않고 감정을 실어 표현하게끔 유도하고 있다. 상황에 적절한 이디엄을 쓰는 연습을 하게 하며, 이보영과 아이작의 테마 토르가 들어 있는 듣기 테이프를 통해 생생한 이디엄을 익힐 수 있다.

## 읽으면서 해석하는 직독직해 명강의

**Moto Masahiro(김현정) / 통도원 / 2002년 / 336쪽 / 15,800원**

영어의 의미구를 이해하는 학습법을 통해 영어 어순과 문장 구성 원리를 자연스럽게 습득하여 직독직해 능력을 키워준다.

총 14단원에서 필자가 강조하는 직독법이 설명되어있다. 문장을 어디에서 끊어 읽어야 직독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과 이유를 제시했다. 특히 그동안 영어문장을 읽고 뒤에서부터 해석하던 습관을 바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면서 해석이 가능한 직독직해를 할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슬래시(/)를 이용, 문장을 의미구로 나눠 읽는 연습을 통해 네이티브 스피커의 호흡법을 익히도록 했다. 이 밖에 영문구조에서 착안, 변화법, 대조법을 바탕으로 쉽고 간결하게 영문을 음미함으로써 작가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이나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의 유추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오랜 세월 자신만의 방법으로 직역을 해왔던 사람에게는 큰 자신감을 부여함과 동시에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공하게 될 책이다

## 재미있고 흥미만점인 시사영어산책

**이중호 / 남두도서 / 2002년 / 334쪽 / 12,000원**

이 책은 영어에 대한 두려움과 거부감을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어에 관심을 갖고 접할 수 있도록 시사적인 지문 선택에 역점을 두어 출간했다.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접할 수 있는 지문 선택에 역점을 두어 주로 영자 신문과 시사 영어 잡지 등을 취합한 후 다시 분량과 난이도를 고려해서 구성하였다. 또한 실용영어와 유머 영어도 포함시켜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영어 공부에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다.

## 정철 영어혁명

정 철 / 키출판사 / 2003년 / 359쪽 / 10,000원

총 25개의 Chapter로 구성되어 있는 <영어 공부 혁명>의 개정판이다. 영어학습법 뿐만 아니라 영어 문장의 구조, 발음, 독해에 이르기까지 필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재미있는 예화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우리의 영어 교육 현실 속에서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는 '한국형 영어학습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저자의 '한국형 영어학습법'을 소개하기 위하여, 영어 학습에 관한 광범위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으며, 또한 강의 도중에 나오는 몇 가지 영어감각 실험과 소리에 관한 설명을 위한 Tape를 포함하고 있다.

영어를 배우는 이나 가르치는 사람들 모두 한 번쯤은 읽고 되새겨야 할 좋은 지침들이 너무나도 많이 담겨있다.

## 좋은 지문 다 모은 테마 영문 독해 1-7

정연재 / 영어포럼 / 2002년 / 167쪽 / 12,000원

전 7권, 26개 영역, 660개 테마로 분류된 880개의 지문을 수록한 <좋은 지문 다 모은 테마 영문 독해>는 어휘력과 독해력 그리고 상식까지 풍부해지는 영문독해의 보물창고이다.

지문은 비교적 쉬운 편이어서 초·중급 수준의 학습자가 공부하기에 적합하며, 다양한 영역의 글은 생활 문화에만 치우친 학습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책에 수록된 모든 글은 전문적이거나보다는 상식적인 수준의 글이다.

AFKN 아나운서와 EBS 강사가 전 지문을 녹음한 테이프를 붙여서 각종 듣기시험에 준비토록 하였다.

## 진짜 영어 실력을 키워라

장준수 외 / 홍익미디어플러스 / 2001년 / 263쪽 / 9,500원

이 책은 하버드 대학 재학생들의 영어 정복 비법서이다. 유학 중에 겪은 영어 학습 경험담, 미국에서 겪은 여러 가지 실수담, 한국의 학교 영어와 미국의 본바닥 거리 영어의 차이, 영어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의 학습 요령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7명의 학생들이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매너, 생활, 문화 등 일곱 가지 분야로 나누어 효과적인 학습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 일곱 사람은 모두 하버드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다. 전공이나 관심 분야가 다르고 자라난 환경도 각기 다르지만, 모두 유학 와서 영어 때문에 무척 고생을 했고 후배들에게는 그들이 겪은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게 도움을 주고 싶다는 면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어지는 것 같다.

## 권추리 보이 영단어

이강석 / 사계절 / 1999년 / 464쪽 / 10,000원

동물과 신체, 식품, 사람과 직업, 집과 건축물, 소품들까지 주제별로 접근한 영어 단어를 비롯해 의미를 생각하며 접근하기, 흥미롭게 접근하기, 다양하게 접근하기, 영단어 확장하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영단어를 소개한 영어 단어 학습서이다.

이 책은 한국식 영어를 주창하는 대열에 끼어 있는 셈이다. 저자가 외국물을 먹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그렇다. 하지만 기존의 '한국식 영어' 대부분이 '미국식 영어'의 '한국적 모방'이라는 점에서는 확실하게 다르다. steep-step (가파른-계단), computer-commuter (노트북 컴퓨터를 들고 통근을 한다) 등 쉽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영어 단어를 암기하는 6가지 기발한 방법을 수록했다. 단어가 외워지지 않아 고민인 학생은 한 번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 프리토킹에 강해지는 토론 영문독해

김학용 / 넥서스 / 2001년 / 392쪽 / 12,000원

주제 토론을 위한 고급 영문을 선정해 정보 단위의 구 중심으로 직독 직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 새로운 개념의 토론 영문 독해서이다. 품사 중심의 전통적인 문법 해석 방법에서 탈피하여 구 중심의 직독직해 방법으로 독해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독해 문장을 말하기에 변형하여 활용할 있도록 'Useful Expression'을 첨가하여 보다 효율적인 영어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다. 난이도가 높으므로 상위권의 독해 실력을 갖춘 학생에게 권한다.



## 한 번 독해로 25,000단어 휘어잡기

**안병선 / 동도원 / 2002년 / 432쪽 / 18,000원**

문법의 기초를 다지고 난 후부터 수준 높은 영어실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 조건인 어휘실력의 확충을 위한 책. 문장과 표현 중심의 교재로 재미있는 읽을 거리와 다양한 연습문제를 통해 어휘 실력을 기울 수 있도록 꾸미고 있다.

총 10주 분량의 학습 과제를 제시하고 다양한 독해 지문을 어휘설명과 문제 풀이를 통해 어휘를 습득하게 하는 교재이다. 문장을 통해 어휘를 습득하게 하는 형식으로 어휘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재이다.

독해의 기본을 어휘에 두고 문법 설명보다는 어휘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어휘가 부족한 학생들이 차근 차근 교재를 따라 학습하면 어휘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인만 빠지는 영어의 함정

**피터 김 / 도솔 / 1999년 / 336쪽 / 7,900원**

이 책은 저자의 UCLA 대학시절 그리고 기타 대학원 기간의 학창시절의 기억과, 저자가 20년간 주변의 한국 유학생들이 쓰고 말하는 영어를 관찰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엮어진 것으로, 영어가 늘지 않는 이유, 한국인이 잘 빠지는 영어의 함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1, 2부로 나누어 영어가 늘지 않는 11가지 이유와 한국인만 빠지는 영어의 함정을 다양한 실례를 들어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놓았다. 한국식 영어를 고치는 그 순간, 영어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게 저자의 소신이다

학생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영어를 지적하고 있으므로 더 쉽게 이러한 올바른 표현을 익혀 나갈 수 있게 하는 지침서이다.

## 한국인을 위한 영어 발음 교과서

**한학성 / 테스트뱅크이십일닷컴 / 2001년 / 251쪽 / 15,000원**

이 책은 지난 13년간 대한민국의 영어교육학자로서 예비 영어교사들을 양성해 온 한학성 교수가 한국인이 익혀야 할 영어 발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영어 발음 훈련서이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영어에 관한 한 외국인인 우리로서는 원어민과 똑같이 정확한 발음을 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며,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최대한 원어민의 발음에 가까울 수 있도록 학습해 보자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이 책은 모두 6개의 장으로 되어 있다. 각 장별로 영어 발음의 원칙을 하나씩 제시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100여개의 세부항목을 두고 각각의 경우에 잘못 발음되는 사례들을 저자가 설명하고 Native의 녹음을 통하여 정확하게 제시한다.

## 한권으로 끝내는 영어 속어

**Robert J. Dixon(하용천) / 컴퍼스 / 2000년 / 290쪽 / 9,000원**

이 책은 일상 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영어 속어를 다양한 문맥을 통해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방법으로 익힐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속어의 영어 정의와 유사어 수록, 연습문제를 통한 배운 속어의 복습, 읽기 연습을 통한 속어의 복습 등이 특징이다.

문맥을 통해 영어 속어를 익힌다. 속어의 영어 정의와 유사어를 예문과 함께 소개하고 사진식 찾아보기를 덧붙였다.

이 책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일반인 모두가 꼭 알아야 하는 영어 속어를 제시할 뿐만 아니라, 특히 수능, TOEFL, TOEIC, TEPS 등 각종 영어 시험에 자주 나오는 속어를 수록하여 영어 학습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 회화로 배우는 영어속어 600

**바바라 게인즈(홍구희) / 열린책들 / 2002년 / 194쪽 / 6,000원**

이 책은 미국의 생생한 구어체 영어를 통해 600개 이상의 속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도록 꾸며져 있으며, 그 우수성을 인정받아 미국의 대학에서 널리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각각의 레슨에는 그 속어의 사용법을 알 수 있게끔 대화가 준비되어 있고, 속어의 설명에는 영어와 한국어 양쪽을 붙여 두어 바꿔 말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또 연습 문제도 준비해 두어 확인 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책에 나오는 속어나 슬랭은 미국인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들로 되도록 쉬운 것부터 배열해 놓았지만 모든 부분이 독립된 구성으로 되어 있어 어디에서부터 시작 하더라도 괜찮게 만들었다.

## 희망과 지혜를 주는 101가지 이야기 1-2

**잭 캔필드 · 마크빅터한센 / 씨앗을뿌리는사람 / 2001년 / 192쪽 / 7,500원**

젊은이들의 우정과 사랑, 장래의 꿈 그리고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한영대역식으로 구성해 담았다.

생생한 현대 영어로 쓰여진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따라가다 보면, 살아 있는 영어 표현들과 영어권 문화를 자연스레 익히게 된다. 또한 영어 학습을 전제로 한 기존의 영한대역과는 달리 한영대역으로 꾸며져 있어, 우리말로 먼저 읽고 내용을 파악한 후에 영어 원문을 부담없이 즐기도록 유도하고 있다.

영문 아래에는 숙어, 단어가 풀이되어 있어, 무겁게 사전을 들고 다니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게 만들었다. 그리고 꼼꼼한 독자를 위해 메모하며 영어 독해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여백을 충분히 살렸다. 짧은 분량 또한 시간을 다투어야 하는 현대 생활에서는 편리한 점이다. 이야기 하나가 3페이지를 넘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읽을 수 있다.

## Big Fat Cat의 세계에서 제일 간단한 영어책

**무코야마 이츠코(은영미) / 나라원 / 2002년 / 182쪽 / 7,800원**

일본에서 발매 한 달만에 50만 부를 돌파했으며 일본 주요 서점과 일간지 등 무려 32개 베스트셀러 목록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일본에서는 이미 이 책에 실린 학습법이 BFC(Big Fat Cat)라는 약자로 영어 학습계에 새로운 유행을 만들고 있다. 어려운 문법 영어를 사용하지 않고, 귀여운 고양이 'BFC(Big Fat Cat)'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영어와 가까워지는 책이다. 저자는 영어를 잘하는 방법이 영어 '읽기'에 있다고 강조하며, 따라서 읽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캐릭터 등 다채로운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루하지 않게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다.

읽기를 쉽게 하기 위해 'A→B'라는 기본형의 패러다임을 이용하여 모든 구문을 설명하며, 그림 캐릭터 등을 많이 넣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쉽고, 확실하며, 재미있는 영어 책이라고 역자는 자신 있게 말하고 있으며, 귀여운 고양이 'BFC(Big Fat Cat)'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영어가 저절로 습득되는 불가사의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지금껏 이런 책은 처음이다. 이제 수험용 영어와 문법시험은 안녕이다.

## 한국인이 늘 틀리는 영어 표현 111가지

**데릭 노트 / 길벗이지톡 / 2002년 / 229쪽 / 12,000원**

스테이크보다 갈비찜과 청국장을 더 잘 먹는 갈색 눈의 별종 캐나다인 5년 여 동안 여러 대학과 회사에서 강의해 한국인의 약점을 잘 아는 실천 영어 교육의 베테랑인 데릭 노트의 책이다.

읽는 것과 그림을 보는 것을 병행할 때 영어 학습의 효과가 커진다고 하는데, 이 책의 장점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잘못된 콩글리쉬를 썼을 경우 어떤 상상을 원어민에게 불러일으키게 하며 어떤 오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재미있게 그림으로 표현해놓았다.

책이 지루하게 짜여있지 않고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아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두꺼운 책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딱 안성맞춤이다. 하루정도면 다 읽을 수 있는 분량이지만 알짜배기만 모아놓았기에 반복해서 읽으면 우리가 쓰고 있는 콩글리쉬들을 스스로 치료할 수 있을 것 같다.

모든 설명이 영어로 되어 있지만 쉬운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우리말로 설명된 것보다 명쾌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국사

## 1. 한국사의 바른 이해 1. 역사의 학습 목적

### 역사란 무엇인가

E. H. 카야 / **마치글방** / 1997 / 261쪽 / 6,000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역사의 고전이다. 역사를 '재미없는 암기과목'에서 '현재와 과거의 대화를 통한 의미 창조 과정'으로 다시 인식시킨 책이다. 그러나 이 책을 선택한 학생들은 조금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카의 강의 또한 늘 재미있고, 감동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를 보는 시각을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꼭 권해주고 싶은 책이다.

### 거꾸로 읽는 세계사

유시민 / **푸른나무** / 2000 / 372쪽 / 9,000원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은 기존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통해 세계사의 흐름에 대한 일관된 분석, 그리고 앞으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바를 시사하고 있다.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역사, 느낌을 주는 역사서로 역사에 관심이 적은 학생들에게도 권해주고 싶은 책이다.

### 우리 역사 5천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만열 / **바다출판사** / 2000 / 313쪽 / 8,500원

저자는 역사를 연대기순으로 서술하는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이슈가 되었던 쟁점과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독자의 흥미를 돋우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 역사를 바라보는 몇 가지 관점에 대한 성찰, 식민주의자들이 우리 역사를 어떻게 왜곡시켰는가에 대한 문제제기, 우리 역사의 영광된 순간들을 재현함으로써 우리 역사를 자주적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있다.

### 한국사 새로 보기

신복룡 / **풀빛** / 2001 / 288쪽 / 10,000원

한국 정치사를 전공한 저자는 우리 역사를 연구하면서 제도권 사학의 오만과 아집에 눈을 뜨게 되었고, 한국사학사를 명들게 한 식민지 사학에서 우리의 역사를 해방시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게 된다. 이 책은 역사란 다른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 모반의 역사

한국역사연구회 / **세종서적** / 2001 / 303쪽 / 10,000원

우리가 접하는 역사라는 게 사실상 승자들에 의해 일정정도 '해석되고 굴절된' 것임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승자의 기록에서 축소되고 왜곡되어 왔던 모반사건을 새롭게 바라본 이 책은 '역사 바로 보기'류의 책들이 종종 범하는 실수를 비껴 나가고 있다. 패자를 통한 한국사 이해, 바로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다.

1. 한국사의 바른 이해  
1. 역사의 학습 목적

한권으로 읽는 한국사

강덕상 외 5 / 휴머니스트 / 2002 / 220쪽 / 14,000원

뜻을 같이 하는 한국과 일본, 양국의 역사학자들이 모여 공동으로 집필한 한국사 개설서이다.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최대한 객관적으로 집필하려 한 점이 돋보이며, 한 권이란 한정된 지면임에도 문헌을 분석해 그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또 각 장마다 지금껏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들과 그 견해-단군 조선의 실제 여부, 삼한과 고대국가의 형성 시기, 근대 사회로의 이행과 시기 구분 등-를 정리하여 소개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신화와 역사로 읽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이종호 / 뚝인들 / 2001 / 288쪽 / 9,500원

저자는 불가사의를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다. 기원전 9세기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는 세미라미스의 궁중정원에 물은 어떻게 공급됐는지, 제우스 신전에 세워진 제우스 신상은 누가 조각했는지 등을 여러 가설과 자료를 근거로 꼼꼼하게 밝히고 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는 앞으로도 계속 불가사의로 남아 우리에게 꿈과 환상을 심어줄 것이다.

유물로 읽는 우리역사

이덕일, 이희근 / 세종서적 / 1999 / 326쪽 / 10,000원

이 책은 유물 속에 담긴 갖가지 정보를 찾아내 당대의 역사를 복원한 대중 역사서이다. 일반인들이 전시장이나 책에서 한번쯤 본 칠지도 등 33개의 유물·유적을 통해 당시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을 흥미롭게 그려내고 있다. 유물들 하나 하나에 담겨 있는 비밀이나 이면을 추적하여 그 시대로 들어가는 문을 발견해내려는 노력이 뛰어나다. 가야, 신라, 발해, 조선을 잇는 면면의 우리 역사를 유물을 통해 밝혀내고 있는 새로운 역사 읽기 책이다.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1~2

전국역사교사모임 / 휴머니스트 / 2002 / 224쪽 / 12,000원

현장에서 직접 교편을 잡고 있는 역사교사들이 출판한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1, 2』는 생생한 과거의 목소리가 살아 숨쉬는 역사책이다. 미래를 꿈꾸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제시하기보다 직접 느끼고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와 편집으로 꾸며져 있다.

그림과 함께 읽는 서양 문화의 역사 1~4

로버트 램 지음, 이희재 옮김 / 사군자 / 2000 / 398쪽 / 15,000원

서구 문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이 어떻게 발전해왔고 그 과정 속의 문화적 유산은 어떤 것들인지 알아보는 일도 의미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문학과 회화, 음악, 조각, 사진, 건축, 영화, 철학 등 예술의 모든 영역을 통해 서양 문화를 이해하도록 독자들을 돕는다. 강의를 위한 교재로 나온 책이지만 혼자 읽기에도 부담 없도록 꾸며져 있다.

영화처럼 읽는 한국사

젊은역사연구모임 / 명진출판사 / 1999 / 453쪽 / 12,000원

젊은 한국사 전공자들이 모여 청소년을 위해 만든 한국사 연구 대중서이다. 고리타분한 기존 역사서의 체계를 벗어나 현재의 나를 있게 한 과정을 찾아가는 역사탐험 형식으로 꾸며졌다. CD-ROM을 책과 함께 읽어가도록 편집해서, 마치 슬라이드 영화를 보는 기분으로 역사를 산책할 수 있게 했다.

세계사 100장면

박은봉 / 실천문화사 / 1996 / 456쪽 / 8,000원

저자는 전문적인 지식을 전달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그 사건’이 지녔던 의미를 되새기는 데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또 각 역사 장면마다 동시대의 한국 역사를 간략히 표로 정리해 세계사와 한국사를 비교해서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세계사에 대한 관심 있는 초보자에게 권하고 싶다.

## II. 선사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형성

### 1. 선사시대의 전개

#### 한국생활사박물관 1 : 선사생활관

한국생활사박물관 편찬위원회 / 사계절 / 2000 / 98쪽 / 16,800원

우리가 가려한 자연의 회생물로만 생각하기 쉬운 선사인들이 사실은 그들 나름대로 얼마나 지혜롭고 씩씩하게 삶을 개척해 나갔는지 '구석기실, 신석기실, 특별전시실'을 돌며 확인할 수 있다. 한마디로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카의 말을 우리 학생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책이라 할 수 있다.

#### 우리 역사 이야기 1 : 원시시대에서 임진왜란까지

조성오 / 들베개 / 1993 / 256쪽 / 5,000원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쉽게 우리 역사를 접하고 이해하도록 해보자는 의도로써 우리 역사를 서른 마디로 나누고 가능한 한 '이야기식'으로 서술하였다. 이야기식의 서술이 역사의 각 시기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넓히고, 관심의 집중과 흥미 속에서 역사를 읽을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 한국 신석기 문화

임효재 / 집문당 / 2000 / 244쪽 / 12,000원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로 30여 년 간 고고학을 연구해 온 저자의 한국 신석기문화 관련 전문연구서이다.

한국 신석기문화의 개념이 어떻게 정의되어 사용되는가에서 출발해 고고학이 생기기까지의 과정을 살핀 연구서로 고고학에 관심을 지닌 학생이라면 다소 전문적인 서적이긴 하지만 읽기를 권하고 싶다.

#### 살아있는 신화 바위그림

정동찬 / 예안 / 1996 / 400쪽 / 12,000원

선사에술로 보는 바위그림의 정의부터 기원, 바위그림의 주된 주제와 연구 현황 등 이론을 먼저 살피고 울산 대곡리 바위그림, 고령 양전리 알터 바위그림 등 전국의 바위그림을 소개하였다. 바위그림의 진실이 밝혀지는 날 우리는 하나의 자연인으로서 자연 앞에 우뚝 선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될 것이다.

#### 고고학 박물관

박정근 / 다른 세상 / 2002 / 240쪽 / 9,000원

출토된 유물들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과정과 유물을 통해 추론 내지 상상이 가능한 부분들을 서술한 '상상의 고고학 이야기' 책이다.

선사시대 연구에 20년 간 매진해온 저자가 그 동안 축적된 고고학적 상상력의 산물을 일반 독자와 공유하기 위해 쓴 책으로 다양한 고고학 가설의 학문적 개연성, 논리 전개에 대한 관심이 늘다보면 고고학의 대중화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된다.

#### 역사신문1 : 원시시대~통일신라

역사신문편찬위원회 / 사계절 / 1995 / 122쪽 / 9,500원

흔히 역사를 흘러가는 이야기로 생각하거나 골치 아픈 연대기를 외우는 지겨운 과목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책은 과거 역사를 그 시대의 시각에서 주요사건을 주요기사로 한 생생하고 심층적인 보도로 전체적인 역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역사에 취미나 흥미를 만들어 주기에 적당한 책이다.

#### 한국 고대문화의 흐름

임효재 / 집문당 / 1999 / 295쪽 / 12,000원

저자가 그간 계속해온 학술연구 성과를 보다 쉽게 풀어 썼으며 최근 30년 간 고고학 발전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글이기도 하다. 고고학의 개념, 과학적인 연대측정 방법, 고대사 복원의 한계 같은 기초적 문제는 물론 한국 선사문화, 특히 신석기·청동기문화의 전개과정을 고고학적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설명, 학생들에게 쉽게 고대문화에 다가설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II. 선사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형성  
2. 국가의 형성

고인돌 이야기

이영문 / 다지리 / 2001 / 240쪽 / 8,800원

문화유산을 찾는 것은 풍요로운 삶을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문화유산은 색다르고 생소한 지식세계로 우리를 여행하게 하는 편안한 학습의 공간이며, 정신적인 휴식 공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우리 청소년들이 선조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으면 한다.

조선의 고인돌무덤 연구

석광준 / 중심 / 2002 / 376쪽 / 15,000원

북한의 연구서로는 드물게 풍부한 도판(16개)과 그림(91개)을 수록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으며 남한의 최근 연구 자료를 아주 구체적으로 인용해 반박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남한학계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남·북한의 연구성과 교류와 토론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청동기 문화 : 빛깔있는 책들 239

이건우 / 대원사 / 2000 / 144쪽 / 4,800원

청동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우리나라 청동기문화의 기원과 그 성립과정, 청동기시대의 생활상과 청동기문화의 특징, 아울러 청동기의 제작 기술에 대해서도 기술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청동기문화에 대한 입문서로서 일반 대중들이 보다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꾸며졌다.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1 : 민족의 형성과 민족문화

전국역사교사모임 / 휴머니스트 / 2002 / 274쪽 / 12,000원

올바른 역사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역사교사들의 모임인 전국역사교사모임의 주도 하에 만들어진 생생한 과거의 목소리가 살아 숨쉬는 역사책이며 대안 교과서이다. 미래를 꿈꾸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지식을 제시하기보다는 직접 느끼고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도와 편집으로 꾸며져 있다.

단군과 고조선사

노태돈 / 사계절 / 2000 / 264쪽 / 13,000원

단군신화의 변화과정을 통해 단군신화가 최초 고조선의 건국과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나타내는 것에서, 민족전체를 대표하고, 민족 구성원 전체를 '우리가 하나의 뿌리'라는 역사의식에 근거하여 하나로 묶는 민족적 신화로 그 기능과 의미가 확대되어 감을 알 수 있다. 한국인으로 살면서 단군신화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제 단군신화에 대한 깊고 체계적인 이해에 도전해보자.

단군문화기행

박성수 / 서원 / 2000 / 480쪽 / 12,000원

백두산부터 일본열도까지 단군의 역사와 자취를 들려주는 책이다. 단군이 고조선을 건국한 우리 민족의 성지 백두산에서부터 영언산의 환웅신앙 등 바다 건너 일본 열도까지 유·무형의 단군 문화 유적을 확인하며 민족의 기상을 일깨우고 있는 책이다. 단군의 흔적을 추적해보는 작업도 매우 의미가 있어 보여 이 책을 추천한다.

우리는 단군의 자손인가

이전 / 한울 / 1999 / 190쪽 / 7,000원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한민족이 단일 민족으로 출발하였다'는 사실이 왜곡된 것이라는 것을 문헌적 사료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새로운 시각으로 역사를 인식하는 눈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I. 선사시대의  
문화와 국가의  
형성  
2. 국가의 형성

단군신화는 없었다 : 사기 삼국유사 제왕운기 심층연구

김중서 / 민족문화 / 2002 / 335쪽 / 13,000원

기존의 역사서들과는 달리 한문 한 글자 한 글자에 해석을 곁들이고, 저자의 연구과정을 그대로 공개하여 한문과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한문을 익히기면서 스스로 역사를 생각해 보고,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가게 만들었다. 특히 역사를 딱딱하다고 생각하는, 한문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쉽게 역사와 한문에 다가갈 수 있는 책으로 권하고 싶다.

고조선 역사개관

여중호 / 중심 / 2001 / 264쪽 / 10,000원

분단이후 남·북한 당국의 정식 승인을 거쳐 최초로 발행되는 북한 역사 연구서. 이 책은 「북한의 우리 역사 연구 알기 시리즈」의 제1권으로 1999년 북한의 사회과학출판사에서 처음 발행한 것이다.

이 책은 남북한의 역사학계가 서로의 연구 성과물을 공유함으로써 역사인식과 서술의 차이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고조선, 우리의 미래가 보인다

윤내현 / 민음사 / 1995 / 342쪽 / 8,500원

고조선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었고, 어떤 집에서 살았을까. 단군은 누구이며 실제로 존재했을까, 고조선은 언제 건국되었으며 국경은 어디였을까, 경제수준, 과학기술, 문화와 예술, 대외관계는 어땠을까 등 고조선에 관한 최신 연구성과를 집대성한 연구물이다.

한국생활사박물관 2 : 고조선생활관

한국생활사박물관 편찬위원회 / 사계절 / 2000 / 96쪽 / 16,800원

우리나라 초기국가시대를 연 고조선에 대해 다루고 있다. 신화와 전설의 시대로만 이해하기 쉬운 이 시대의 실제 역사상을 설명하여 당시 생활사를 이해하는 데 배경이 되는 지식을 제공한다.

한국사 이야기 1 : 고조선과 삼국의 발전

김중성 / 문예마당 / 1999 / 263쪽 / 7,000원

역사를 이해하는데 있어 이야기만큼 효과적인 형식은 없을 것이다. 역사인물에 관한 역사문 학서로서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을 이야기의 형식을 빌려 서술해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교과서 역사 밖의 흥미로운 인물과 사건에서 우리 학생들은 역사공부의 차원을 넘어서 생동감 넘치는 우리 역사의 현장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뿌리깊은 한국사 샘이깊은 이야기 1

강봉룡 / 숲 / 2002 / 402쪽 / 25,000원

한국사 속의 쟁점을 바탕으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들을 가려 뽑아 만들어졌다.

시기별로 주요 항목을 설정하고 해설을 덧붙이는 형식을 취하여 한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최소한의 사실들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마련한 장치다. 우리의 역사를 자세히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 그렇구나 우리 역사 : 고조선, 부여, 삼한시대

송호정 / 그레실 / 2002 / 276쪽 / 12,500원

유적과 유물을 통해 우리 조상들의 삶에 직접 다가갈 수 있도록 꾸며졌다. 곧 암기식 역사 교육의 틀을 깨고, 어떤 권위자가 아니라 독자 개개인이 다양한 각도에서 역사의 비밀을 푸는 주체가 되도록 유도하려 함이다. 이는 역사적 사실과 인물들을 통해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통합적인 시각으로 내다보게 하는 눈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II. 통치구조와  
정치활동  
1. 고대의 정치

한권으로 읽는 고구려왕조실록

박영규 / 용진닷컴 / 2000 / 482쪽 / 10,000원

김부식의 『삼국사기(三國史記)』를 토대로 각국의 세력 관계와 이해 관계를 통해 고구려사의 여러 쟁점을 살피고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 최초의 고구려 통사이다. 특히 저자는 기존의 삼국사 중심의 고구려사 해석이 아닌 북방의 강대국으로서 대륙의 패권을 다투었던 국가로 고구려를 해석하고, 이 과정에서 대륙 국가로서 고구려의 위상을 확립하고 28대 700년의 역사를 면밀히 복원하고 있다.

고구려 700년의 수수께끼

이덕일 / 대산 / 2000 / 350쪽 / 10,000원

고구려라는 독특한 고대국가에 대한 대중적 관심에 답하는 역사이야기 책이다. 대중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해 일반인들이 가장 궁금해 할 만한 25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하는 방식으로 풀어 썼다.

광개토대제 1~10

정 립 / 아이디어북 / 2002 / 312쪽 / 8,000원

뛰어난 예지와 탁월한 지략으로 대륙을 풍미했던 광개토대제. 그가 우리에게 주는 찬란한 민족적 자긍심과 불굴의 용기는 겨레의 긍지를 더 높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광개토대제에 대한 새로운 조명은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저절로 자긍심을 갖게 해준다.

궁예, 진훤, 왕건과 열정의 시대

이도락 / 김영사 / 2000 / 357쪽 / 9,900원

역사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는 저자가 후삼국사를 3명의 영웅을 통해본 대중역사서이다. 역사서이지만 소설처럼 짧고 박진감 넘치는 문장으로 인해 쉽게 읽히는 것이 장점이다.

금관의 비밀

김병도 / 푸른역사 / 1998 / 213쪽 / 28,000원

금관에 담긴 고대사의 비밀은 무엇인가? 이 책은 30여 년에 걸친 현장 답사와 고증, 역사적 상상력으로 김씨의 원류, 신라 왕릉의 주인공 등 한국 고대사의 수수께끼를 밝힌다. 독자의 이해와 편의를 위해 원색화보까지 있어 보는 맛이 더해진다.

대조영과 발해

이광용 / 예림당 / 2001 / 271쪽 / 10,000원

이 책을 통해 대조영의 불타는 용기와 신념, 지혜를 엿볼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우리 민족의 빛난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을 것이다. 역동적인 그림과 사실적인 자료 사진이 곁들여 있어 더욱 흥미를 준다.

미완의 문명 7백년 가야사 1~3

김태식 / 푸른역사 / 2002 / 279쪽 / 각권 29,800원

지금까지 나온 모든 가야사 관련 자료와 연구 성과물을 집대성한 역작이다. 유물 사진과 실측도들은 100여 권에 이르는 발굴 보고서와 박물관 도록 등에서 발췌·편집한 것들이다. 따라서 이 책 속의 이미지를 일별하는 것만으로도 가야 문화의 특징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 III. 통치구조와 정치활동

#### 1. 고대의 정치

#### 한권으로 읽는 백제왕조실록

박영규 / 용진닷컴 / 2000 / 420쪽 / 10,000원

당시의 국제 정세와 주변 국가, 가족 사항과 가계도, 주요 사건, 세계사 약사, 당대의 영토와 세력 관계를 반영한 지도를 넣어 당시의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도 흥미롭게 읽을 수 있도록 쉽게 저술되었지만 전문성도 갖추고 있다.

#### 사진과 함께 읽는 삼국유사

일 연 / 까치글방 / 1999 / 464쪽 / 20,000원

이 책의 특징은 『삼국유사』에 기록된 현장을 사진작가인 강운구씨가 5년 동안 100여장의 사진에 담아냈다는 데 있다. 본문과 사진을 함께 보는 것만으로도 '삼국유사 유적 답사'가 가능하도록 꾸며, 보다 생생하게 독자들에게 접근하고 있다.

#### 한권으로 읽는 삼국사기

권혁률 / 들녘 / 2000 / 544쪽 / 12,000원

전문 역사가들만의 역사서로 존재하던 '삼국사기'를 대중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내용을 나라별, 시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해 엮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학생들은 쉽게 삼국의 역사를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 왕도의 비밀 1~3

최인호 / 샐터 / 1995 / 482쪽 / 10,000원

이 소설은 우리나라가 낳은 가장 뛰어난 군주인 광개토대왕의 영광에 관한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저자가 이 소설을 집필하게 된 동기는 고구려의 토기에 새겨진 의혹의 부호 '문양'을 우연히 발견하고 문양의 의미를 쫓아 역사 속으로 뛰어들면서부터 출발한다. 광개토대왕과 장수왕대의 고구려의 위상을 살펴볼 수 있는 책으로 꼭 한번 읽기를 권하고 싶다.

#### 이야기 가야사 : 가야는 신비의 왕국이었나

김경복, 이희근 공저 / 청아 / 2001 / 319쪽 / 12,000원

그 동안 일반인이나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가야에 대한 재해석을 시도한 책이다. 가야국의 형성과 발전과정에서 멸망까지의 내용과 가야인 특히, '허왕후'의 실제, 그리고 '임나일본부'의 실제에 대하여 고고학적, 문헌적 발굴 성과로 보여준다.

#### 인물로 보는 고구려사

박영규 / 용진닷컴 / 2000 / 482쪽 / 10,000원

고구려의 역사는 그 시간적 거리로 인해 결국 우리에게 상징적이고 또 추상적인 의미로만 남아있게 되기 쉬운데, 고구려 역사 전문가인 저자는 이러한 상징적 고구려를 매우 현실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인물 위주로, 사건 위주로 서술한 점이 대중에게 쉽게 다가서게 하며, 재미있고 실감나는 고구려 역사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 일본 고대국가의 형성과 칠지도의 비밀 (상, 중, 하)

임길재 / 범우사 / 2002 / 352쪽 / 12,000원

고대 일본과 백제와의 관계를 해석하고자 한 재야 사학자의 책이다. 법학도 출신답게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내듯 수사관같은 추리기법으로 역사의 여백을 채워 가는 과정이 흥미롭다. 고대 역사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III. 통치구조와 정치활동  
1. 고대의 정치

잊혀진 왕국 가야

이점호 / 선우미디어 / 1999 / 271쪽 / 8,000원

가야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알까. 언뜻 금관가야·아라가야·대가야 등 특이한 이름이 떠오른다. 또 일제 식민사학의 핵심인 ‘임나일본부설’, 수로왕 탄생신화와 왕비 허왕후의 설화가 생각난다. 이 책은 잊혀진 왕국 가야의 실체를 하나씩 하나씩 짚어간다.

장보고와 황해 해상무역

허일 등 / 국학자료원 / 2001 / 472쪽 / 24,000원

이 책의 목적은 장보고와 그가 이끄는 선단이 수행하였던 황해 및 그 인접해역에 있어서 해상교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은 어떤 것이었는지 알아보고, 그가 수행한 황해 해상교역의 기반이 되는 한·중·일 삼국에 분포되었던 해상세력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와, 그가 이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항해술, 그리고 항로들을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이다.

천년의 왕국 신라

김기홍 / 창작과 비평사 / 2000 / 317쪽 / 12,000원

정확한 사료를 근거로 만들어진 체계적이고 대중적인 신라역사 개설서이다. 992년간의 역사 중 박혁거세 즉위에서 삼국 통일 이전까지의 역사를 다룬다. 첨성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왕실의 계보 등 기존 학계의 성과를 역사적 상상력을 가미한 문체로 정확하고 재미있게 서술한다.

풍납토성 500년 백제를 깨우다

김태식 / 김영사 / 2001 / 592쪽 / 14,800원

문화재를 담당하고 있는 현직 기자가 집필한 이 책은 풍납토성을 고리로 백제 역사를 ‘삼국 사기’의 기록대로 복원시키고 있다. 자료가 적은 백제의 초기 상황을 복원해 볼 수 있는 책으로 읽기를 권장하고 싶다.

한국고대사 그 의문과 진실

이도학 / 김영사 / 2001 / 363쪽 / 10,900원

한국 역사의 시작부인 고대사는 고조선과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와 발해를 포괄하는 장구한 세월과 광활한 공간적 범위를 자랑한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역사적 사실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고대사에 대한 여러 이견이 난무하는 지금, 고대사 연구의 쟁점과 새롭게 규명된 역사적 실체에 대한 연구 성과를 소개한다.

한권으로 읽는 삼국왕조실록

임병주 / 들녘 / 1998 / 520쪽 / 12,000원

삼국시대는 결국 신라가 통일의 위업을 달성하자 삼국의 독자적인 기풍은 하나로 융합되어 한민족이라는 우리 나라 고유의 민족적 특성을 이루었다. 이 책은 찬란했던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흥망을 현대적 감각으로 새롭게 해석하면서 동시에 우리 핏줄에 면면히 이어져오는 고대 삼국인의 꿈과 기상과 삶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한권으로 읽는 신라왕조실록

박영규 / 용진닷컴 / 2001 / 576쪽 / 12,500원

신라는 삼국 중에서 넓은 평야도 없었고 지형은 험하고 가뭄이 잦은 척박한 땅이었기에 최약체 국가였다. 하지만 신라인들은 특유의 단결력과 기상, 그리고 외교의 힘으로 끝내 3국 중에서 최후의 승리가 될 수 있었다. 저자는 그 천 년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III. 통치구조와  
정치활동  
1. 고대의 정치

거꾸로 읽는 드라마 태조 왕건

임종태 / 선재 / 2001 / 424쪽 / 10,900원

KBS 대하드라마 <태조 왕건>에 대한 방송 비평을 통해, 고려 창업에서 시작해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으로 인한 고려 소멸에 이르기까지의 방대한 역사를 기술한 역사 다큐멘터리이다. 이 책은 역사 드라마든, 다큐멘터리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세밀하고도 폭넓은 자료 조사 없이 이뤄지는 방송 프로그램 제작 풍토에 대한 저자의 비평에서 시작된다.

슬픈 공예 : 소설과 역사의 경계에서

이재범 / 푸른역사 / 2000 / 271쪽 / 8,000원

역사 기록 속의 악인 공예, 소설 속의 인간 공예에 대해 이렇듯 상반된 평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예에 관한 이야기는 과연 사실일까?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공예에 드리워진 편견을 걷어내고 그 실체에 객관적으로 접근한다. 저자는 우정어린 시선으로 공예와의 진솔한 해후를 시도하며 그의 진면목을 밝힌다.

인물로 읽는 고려사

정성희 / 정아 / 2000 / 443쪽 / 10,000원

기존의 고려사 관련 책들이 시대사 중심으로 다루었다면 인물열전을 보는 듯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을 읽다보면 지금의 우리 현실과 너무도 닮은 상황을 보게 될 것이고, 고려 사람들의 살아있는 숨결도 느낄 수 있다.

한권으로 읽는 고려왕조실록

박영규 / 들녘 / 2000 / 544쪽 / 12,000원

당시의 정세와 문물 및 왕들의 치세를 중심으로 각 정파의 사상적 배경과 대립, 그리고 고려 왕조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생생하게 다룬 새로운 역사서이다. 임진왜란으로 잿더미가 된 고려사를 복원하고 조선왕조실록의 전범이 되었던 고려왕조실록을 새롭게 조명한다.

고려 500년 의문과 진실

김창현, 김철용, 이정란 공저 / 김영사 / 2001 / 368쪽 / 10,900원

고려사를 전공한 저자들이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으로 풀어낸 고려사이다. 정치, 종교, 풍속까지 두루두루 살펴보고 친절하고 평이하게 기술하고 있다. 고려사에 대한 보편적이기도 광범위한 지식을 얻기 위해 읽어보면 좋을 책이다. 간간히 보이는 사진들도 설명을 더한다.

III. 통치구조와  
정치활동  
3. 근세의 정치

광해군 : 역사인물 다시보기

한명기 / 역사비평사 / 2000 / 312쪽 / 9,000원

광해군은 쿠데타로 왕위를 빼앗기고 죽은 뒤에도 '폭군', '패륜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물인 동시에 명·청 교체기, 혼란의 시대에 탁월한 외교정책을 펼친 군주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 저자는 우선 광해군에 대한 이러한 극단적 평가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살펴보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모두 지극히 정치적인 배경에서 비롯됐다고 말한다.

난중일기

이석호 / 예림당 / 1996 / 222쪽 / 10,000원

화살이 빗발치고 아군과 적군의 비명과 함성이 가득찬 전쟁터에서 일기를 쓸 수 있다는 그 여유로움과 차분함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지, 용맹한 장군은 싸움에만 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난중일기”는 당시의 역사적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이순신 장군 개인의 생활이나 생각, 애국·애민의 정신을 자세히 알 수 있어, 오늘날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

III. 통치구조와  
정치활동  
3. 근세의 정치

당쟁으로 보는 조선역사

이덕일 / 석필 / 1997 / 480쪽 / 10,000원

“조선은 과연 당쟁 때문에 망했는가”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선 당쟁의 현상과 내막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다.

정치인들이 국가 발전이나 국민 복리를 위한 것이 아닌, 당리당략과 개인적인 이익만을 위해 당쟁을 촉발시킨다면, 나라의 기초가 균열되고, 국운이 쇠망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이는 현실 정치에도 하나의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관 위에는 하늘이 있소이다

박홍갑 / 가람기획 / 1999 / 360쪽 / 9,000원

조선시대의 사관의 역사와 일화에 대해 조선왕조실록을 바탕으로 정리, 소개하고 있다. 정확한 사실 하나를 기록하기 위해 때로는 죽음도 불사했던 옛사람들의 자취가 새삼 존경스럽다. 비단 위정자뿐 아니라 사람 사람마다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겸손함을 배워야 할 것 같다

사회로 보는 조선역사

이덕일 / 석필 / 1998 / 448쪽 / 10,000원

대중적 역사서 저술로 인정받고 있는 이덕일씨의 조선시대 사회 연구서이다. 전문적인 연구서에 속하지만 일반 독자들이 읽기에도 특별히 어렵지 않다. 조선시대 사회의 역사는 조선시대 정치사를 이해하는 키워드이다. 조선사 깊이 읽기에 관심있는 독자라면 도전해볼 가치가 있는 책이다.

소설 소현세자(상, 하)

박안식 / 장작과 비평사 / 1996 / 252쪽 / 각권 6,000원

병자호란을 전후한 민족적 고난과 치욕의 역사를 탄탄한 문장으로 다룬 소설이다. 작가는 소현세자의 의혹에 찬 죽음을 독특한 주리기법으로 추적하면서 역사의 진실을 가린 장막들을 하나하나 걷어낸다.

장길산 1~10

황석영 / 장작과 비평사 / 1995 / 각권 6,000원

탁월한 역사적 상상력으로 뛰어난 소설가적 솜씨를 발휘하여 묘사한 대작이다. 사람냄새, 민중의 냄새, 그리고 글쓰는 이의 냄새가 가장 잘 어우러진 책이 아닐까 싶다. 조선시대의 양반화·절제된 매난국죽의 그림보다 신용복이 그린 기생도와 고양이 그림의 민화가 더 끌리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분명히 좋아할 것이다.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이덕일 / 김영사 / 2000 / 398쪽 / 10,900원

한국 역사상 가장 치열한 논란의 대상, 『조선왕조실록』에 3천번 이상 언급된 조선 최대 당쟁가 송시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나라의 운명을 좌우했던 한 인물과 그에 얽힌 당시 정치 상황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자 한 책이다.

수양대군을 위한 변명

김두봉 / 씨앤드그룹 / 1998 / 384쪽 / 7,800원

김중서와 단종을 제거하고 왕위를 차지했던 수양대군(세조). 수양대군이 주도했던 일련의 사건들과 쿠데타 과정, 복잡하게 얽힌 정치적 역학관계 등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황이 어떤 인물을 요구하고 있었는가를 살피고 있는 이 책은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왕’이라는 수양대군에 대한 시각은 전면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III. 통치구조와  
정치활동  
3. 근세의 정치

‘언론’이 조선왕조 500년을 일구었다

김경수 / 가람기획 / 2001 / 312쪽 / 9,000원

이 책은 책장을 넘기다 보면 오늘날과 대비되는 조선시대의 언론을 피부로 느끼게 된다. 오히려 왕권을 강화했던 조선의 강력한 언론정치, 옳은 일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언관들의 언론활동과 그 숭고한 정신, 이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던져준다.

역사에 지고 삶에 이긴 사람들

송광용 / 풀빛 / 2000 / 297쪽 / 15,000원

자신의 꿈과 신념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 했지만 권력의 중심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이들을 현재에 다시 재생시켜, 역사와 권력, 진리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시하고, 선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고달픈 삶을 되돌아보게 한다. 학생들에게 자신의 삶의 방향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책이다.

영조와 정조의 나라

박광용 / 푸른역사 / 1998 / 340쪽 / 9,000원

한국사 관련 대중서 중에서 전문 역사가가 쓴 몇 권 안 되는 책 중의 하나이다. 사실 우리는 영조와 정조, 그리고 조선시대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리 많이 알지 못한다. 그러한 점에서 이 책은 한국사에 대한 욕구충족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역사에게 길을 묻다

이덕일 / 이학사 / 2002 / 268쪽 / 9,000원

교과서로 배우고 암기하고, 드라마로 즐기는 역사, 그러나 그 교과서와 드라마가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을까 의문을 제기한다. 역사를 나침반 삼아 혼란 속의 길을 찾는 이 책은 우리 역사학의 문제와 현재의 위기 극복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학생들에게 권할 만한 책이다.

임진왜란은 우리가 이긴 전쟁이었다

양재숙 / 가람기획 / 2001 / 371쪽 / 7,000원

이 책에서 주장하는 바는 제목 그대로 “임진왜란은 우리가 이긴 전쟁이었다”는 것이다. 임진왜란부터 정유재란까지 7년 간을 연대기 형식으로 엮어, 왜란에 대한 기존의 시각을 달리한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한다.

정도전을 위한 변명

조유식 / 푸른역사 / 1997 / 380쪽 / 8,500원

정도전은 살았을 때는 조선 건국의 일등공신이었고 죽은 다음에는 역적으로 내몰렸다. 이 책은 가난에 슬퍼하고, 우정에 감격하고, 삶과 죽음 그리고 운명을 관조했던 시인 정도전이 가졌던 진실한 모습을 들춰내면서, “백성을 하늘로 모신다”는 그의 역성혁명 구호가, 권력을 잡기 위한 슬로건이 아니라 진심이었음을 말해준다.

제왕들의 책사(조선시대편)

신연우 외 / 생각하는백성 / 2001 / 302쪽 / 8,500원

태조대의 정도전과 정몽주, 세종대의 황희와 맹사성, 명종대의 문정왕후와 정난정 그리고 영조대의 박문수 등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인물에 대해 다루고 있다. 각 시대를 움직인 제왕과 책사들의 눈부신 활약은 우리의 정치역사이자 삶의 흔적이기도 하다. 이 책이 흥미를 끄는 것은 연대기적인 역사가 아닌 군신간의 역학관계를 통해 인간과 권력의 실상을 해부하기 때문이다.

III. 통치구조와  
정치활동  
3. 근세의 정치

조선왕조실록 어떤 책인가

이성무 / 동방미디어 / 1999 / 318쪽 / 9,000원

『조선왕조실록』은 사료로서의 고찰보다는 거기에 실려있는 내용만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저자는 실록이라는 책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그런 역사가 만들어졌는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누가 어떻게 편찬해서 지금에 이르렀는지 등의 복합적인 고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조선의 부정부패 어떻게 막았을까?

이성무 / 정아출판사 / 2000 / 370쪽 / 10,000원

조선왕조 500년의 역사가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유교적 통치 이데올로기나 과거제도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저자는 이를 조선왕조의 부정부패 방지 노력에서 찾는다.

이 책의 궁극적 목적은 부정부패를 막으려한 조선 왕조의 지혜를 현재에도 계승하는 것이다. 대간, 감찰, 암행어사, 사관 등의 독특한 제도를 통해 나라의 기강을 유지한 조선왕조의 남다른 노력을 새로운 관점에서 풀어낸 점이 흥미를 이끈다.

조선의 부정부패 그 멸망에 이른 역사

박성수 / 규장각 / 1999 / 326쪽 / 8,500원

조선 멸망의 원인을 통해 오늘날 IMF체제로의 편입 원인을 분석한 책. "대한민국 50년사는 조선왕조 500년사의 축소판"이라는 저자는 조선 망국 전야와 IMF체제 편입 전야가 너무나 닮아 있다고 분석한다. 조선을 망하게 한 부정부패의 사슬을 해방 이후에도 끊지 못해 '제2의 망국'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조선의 왕비

윤정란 / 자림 / 1999 / 283쪽 / 8,000원

기존 서사극이나 역사소설처럼, 왕비들의 삶을 암투와 질시에 초점을 맞추는 데에서 벗어났다. 유교적 여성관의 잣대를 거부하는 대신, 건국초기부터 사회기·당쟁기·세도 정치기까지 그들이 권력중심에서 보여준 정치적 입지와 역할로 평가하고 있어 흥미롭다.

조선의 정쟁 1~5

신봉승 / 동방미디어 / 2001 / 295쪽 / 8000원

전 5권으로 출간된 이 작품은 중종부터 정조까지 300여 년간의 조선조 '정쟁'을 드라마틱하게 그려낸 대하 장편소설이다.

이 소설은 '당쟁'을 '정쟁'으로 고쳐 불러야 하고 그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 인식을 바로 세우는 일임에 역점을 두고 씌어졌다.

지위진 이름 정여립

신정일 / 가람기획 / 2000 / 382쪽 / 9,000원

조선시대 최대옥사라 할 수 있는 기축옥사와 그 중심 축에 있는 정여립을 역사적으로 재조명한 책이다. 저자는 조선의 4대 옥사보다 더 많은 1천여 명이라는 막대한 희생자를 내었던 기축옥사가 왜 역사책에서 소홀히 다루어져왔는지 묻는다.

한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

박영규 / 들녘 / 1996 / 464 / 10,000원

태조 이성계로부터 순종에 이르기까지 27대에 이르는 조선왕조계보를 '태정태세문단세에서 연중인명선~' 이렇게 줄줄이 외웠던 시절이 있었다.

왕조사라고 하는 영역과 시각의 한계에 유의해서 읽는다면, 사론과 역사인식이 빈약한 우리 사회에 적으나마 자극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III. 통치구조와 정치활동  
4. 정치 상황의 변동

임꺽정 1~10

홍명희 / 사계철 / 1995 / 309쪽 / 7,000원

우리 민족의 삶과 혼을 질박하고 감칠맛 나는 우리말로 생생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연산군 시기 교리 벼슬을 지내던 이장군이 귀향을 가면서부터 이야기는 시작된다. 연산군과 조광조와 보우 등 역사적 인물을 비롯해 갖마치와 길막봉, 배돌석처럼 살아있는 민중들의 삶과 그 역사가 온전히 담겨져 있다.

정인홍과 광해군

조여항 / 동녘 / 2001 / 348쪽 / 9,800원

조선 중기의 역사를 정인홍과 광해군 등 진보파를 중심으로 재조명하고 있다. 저자는 위 내용의 관점에서 정인홍과 광해군을 통해 조선중기의 역사를 쉬운 문체로 풀어냄으로써, 자신의 의도를 책 속에 잘 담아내고 있다. 교과서 내용과도 연계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이해를 돕는다.

정조대왕의 꿈 : 갈등과 개혁의 시대

유봉익 / 신구문화사 / 2001 / 310쪽 / 10,000원

정조시대의 역사는 실패는 아니었다. 오히려 구시대적인 것의 청산과정이며 새롭고 새로운 시대의 태동을 의미한다. 즉, 정조대의 '혁신의 노력과 갈등'을 통해 조선 전통사회는 새로운 시대로 발전해 나갈 수 있었음을 살펴보았으면 싶다.

정조의 화성행차 그 8일

한영우 / 호형출판 / 1998 / 318쪽 / 18,000원

실학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민본개혁정치를 주도하며 18세기 조선왕조 문화의 찬란한 꽃을 피웠던 개혁군주 '정조'. 통치자로서의 진면목과 고뇌에 찬, 한 인간으로서의 휴머니티를 화성을 향하는 그의 걸음 걸음에서 느낄 수 있다.

사도세자의 고백

이덕일 / 푸른역사 / 1998 / 346쪽 / 9,000원

사도세자가 '정신병자'라는 기존의 통념을 깨며 복벌을 꿈꾸었던 무인군주 사도세자의 진정한 모습과, 그가 뒤주에 갇혀 죽게 된 진짜 이유를 추리 소설적 기법으로 복원해낸 새로운 형식의 역사서이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영조대의 정치 상황과 노론 소론의 대립,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이해의 심도를 높여 줄 것이다.

녹두장군 1~12

송기숙 / 창작과 비평사 / 1994 / 300쪽 / 5,000원

『녹두장군』의 미덕은 무엇보다 민중의 힘에 대한 무한한 긍정에서 나온다. 역사 속에서 패배한 동학농민전쟁이 소설 『녹두장군』에서 살아 꿈틀거리고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로 지펴 올려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동학농민전쟁의 전적지 답사와 풍성한 자료 취재 등으로 뒷받침된 당대 풍경의 실감난 복원이 이 소설을 풍성케 한다.

민란의 시대 1~5

고성훈 외 / 가람기획 / 2000 / 346쪽 / 9,000원

500년 조선왕조가 체제모순과 관료들의 극에 달한 부정부패로 말미암아 현상을 보이고 있을 때, 더 이상 물러설 곳 없이 벼랑 끝까지 몰린 조선 민중들이 보여준 피맺힌 생존투쟁의 기록이다. 19세기 '민란의 시대'에 조선 8도를 울려 흔든 민중들의 처절한 투쟁은 우리 민족의 강인한 생명력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III. 통치구조와 정치활동  
4. 정치 상황의 변동

영조와 정조의 나라

박광용 / 푸른역사 / 1998 / 340쪽 / 9,000원

백성(민중)과 같이하지 않는 정치가들만의 개혁은 매우 허약하고 허망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같은 식으로 '탕평'이라는 화두도 정치가들의 몫이 아니고 결국 '민중'들의 힘에 의해서만 구체화되고 실현될 수 있는 게 아닐까하고 생각하게 된다. 이 책을 찬찬히 읽어보면 한국으로 대표되는 그 시대의 처절한 투쟁의 시작과 과정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IV. 경제 구조와 경제생활  
1. 고대의 경제

한국사 10 : 발해

국사편찬위원회편집부 / 국사편찬위원회 / 1996 / 260쪽 / 3,500원

최근 발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상황이지만 고등학생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은 많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한국사 10권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 책이다.

장보고와 황해 해상무역

허 일 외 3 / 국학자문원 / 2001 / 432쪽 / 24,000원

이 책의 목적은 장보고와 그가 이끄는 선단이 수행하였던 황해 및 그 인접해역에 있어서 해상교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 배경은 어떤 것이었는지 알아보고, 그가 수행한 황해 해상교역의 기반이 되는 한·중·일 삼국에 분포되었던 해상세력이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한 보다 깊이 있게 규명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보고와 그의 경제 활동을 이해하는 아주 적절한 책이다.

해신 1, 2

적인호 / 열림원 / 2003 / 233쪽 / 9,000원

가진 것 하나 없던 망국 백제의 유민으로 팔시반던 장보고가 당나라의 일개 병사에서 통일신라 최고의 권력을 지니게 되기까지, 그리고 부하 장수의 칼날에 목숨을 빼앗겨버린 장보고의 일대기는 '잃어버린 역사'를 보는 씁쓸함과 역사의 물줄기 환복판에 버티고 선 영웅의 비장감을 동시에 보여준다.

신라의 역사 1, 2

이중욱 / 김영사 / 2003 / 382쪽 / 14,900원

신라에 관해 통사적으로 접근한 거의 유일한 책으로, 기존의 시대구분, 용어, 기타 다양한 주제에 관해 새로운 해석과 주장을 담고 있다.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통일 전 신라와 통일 후 신라의 경제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IV. 경제 구조와 경제생활  
2. 중세의 경제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2

한국역사연구회 / 청년사 / 1997 / 286쪽 / 8,000원

고려 시대의 경제에 관한 저서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아주 귀중한 책이라 할 수 있다. 내용은 아주 평이하고 쉽게 서술되어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경제 이외에 정치 부분도 역사에 대한 흥미를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책이다.

뿌리깊은 한국사 샘이깊은 이야기 3 : 고려

이병희 / 숲 / 2002 / 450쪽 / 25,000원

총 7권의 시리즈로 쓰여진 책으로 그중 3권은 고려의 전시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대외 관계를 다룬 책이다. 따라서 고등학생이 읽을 수 있는 고려 경제 단행본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책이다.



IV. 경제 구조와  
경제생활  
2. 중세의 경제

고려 정치제도와 녹봉제 연구

최정완 / 신서원 / 2002 / 409쪽 / 20,000원

고려의 정치 제도와 지방 제도, 녹봉제에 대한 전문 연구서이다. 따라서 보통의 고등학생이 읽기에는 어려운 감이 있다. 그러나 고려의 경제를 다룬 고등학생 수준의 저서가 없는 상황에서 소개 하고자 한다.  
전문서로서 고등학생이 읽기 쉽지 않은 책이나 이 시기의 경제를 심도 깊게 이해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알맞은 책일 것이다.

고려시대 사람들 이야기 2 : 경제 사회 생활

박용은 이정신 등저 / 신서원 / 2002 / 366쪽 / 12,000원

고려 전기의 기본적 토지제도인 전시과에 대해 기술한 '관리들에게 조를 거둘 땅과 뿔나무 할 땅을 주다', 고려시대의 사원의 경제력에 대해 설명한 '절에서 술을 팔다' 등 37가지 주제를 통해 고려시대의 경제와 사회생활 전반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서술했다.  
또한 상속 등에서 여성들의 위치를 알려 주는 등 당시의 경제를 알게 해주는 책이다.

한국사 19 : 고려후기의 정치와 경제

국사편찬위원회 / 국사편찬위원회 / 1996 / 430쪽 / 5,000원

고려 후기의 정치와 경제에 관해 다룬 책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에 대해 언급되어 있어 학생들이 교과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IV. 경제 구조와  
경제생활  
3. 근세의 경제

조선은 양반의 나라가 아니오

KBS<TV조선왕조실록>제작팀 / 가람기획 / 2001 / 352쪽 / 9,000원

'TV 조선왕조실록'은 KBS에서 97년부터 약 1년 간 50여 회에 걸쳐 방영된 역사 교양물로 이 책에서는 조선후기의 사회를 주로 다루고 있다.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내용을 흥미롭게 풀어나가는 점 등이 이 책의 장점이다.

뿌리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4 : 조선전기

김돈 / 숲 / 2002 / 367쪽 / 23,000원

한국사 속의 쟁점을 바탕으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사료들을 가려 뽑아 만들어졌다.  
근세의 경제 역시 이해와 흥미에 초점이 맞추어졌는데, 해설·자료샘·찾아읽기로 이루어져 있다. 해설에서는 역사적 시대 상황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전달하고 자료샘에서는 해설과 관련된 기본 사료를 번역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의 주를 달아놓았다.

한국사 이야기 9 : 조선의 건국

이이환 / 한길사 / 2000 / 385쪽 / 10,000원

지금까지 나온 한국사 책들이 대부분 정사가 아닌 야사 중심의 흥미거리 위주이거나 왕조만 훑고 지나가는 내용이었다. 이와 달리 이 책은 전 24권이라는 방대한 양으로 지금까지 우리 나라 역사를 자세하고도 재미있게, 철저한 고증에 의거해서 풀어내고 있다. 한국사 하면 지레 머리가 아픈 분, 한국사를 더 자세히 알고싶은 분, 누구에게나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책이다.

조선시대 생활사 1

한국고문서학회 / 역사비평사 / 2001 / 490쪽 / 13,000원

조선시대의 작고 사소한 기록을 통해 당시의 생활상을 생생하게 복원했다.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과 정신적 기질, 풍류 정서까지 읽어낼 수 있다.  
우리가 평소 궁금했던 당시인의 경제 생활, 예를 들면 옷 한벌은 얼마이고 밥 한 그릇 값은 얼마인지 등 생생한 생활 속의 이야기들을 깔끔하게 풀어내고 있다.

IV. 경제 구조와  
경제생활  
3. 근세의 경제

조선시대 생활사 2

한국고문서학회 / 역사비평사 / 2001 / 341쪽 / 12,000

한국고문서학회가 엮은 『조선시대 생활사 2』는 제도 중심에서 탈피, 고문서에 나타난 사례 중심으로 조선시대 사람들의 다양한 일상적 삶의 모습을 생생하게 그렸다. 조선시대의 경제 활동에 대한 쉬운 이해를 도운 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찾는 우리역사 2 : 조선시대

한영우 / 경세원 / 2002 / 276쪽 / 11,000원

한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의 배경이 되는 다른 사건들의 소개도 짜임새 있게 잘 되어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을 보면 국사를 ‘공부’한다는 생각보다는 마치 무슨 소설책 보듯이 읽어나갈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조선시대의 경제 전반에 관한 사항을 책의 탄탄한 구성과 친숙함으로 내용의 이해를 훨씬 빨리 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조선시대 상인과 시장이야기: 시장을 열지 못하게 하라

김대길 / 가람기획 / 2000 / 364쪽 / 9,000원

저자는 조선시대 농촌경제의 중심이었던 장시(시장)가 상업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신분, 수공업 등 당시 사회 변화상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전제한다. 이렇게 조선시대 시대상을 이해하는 새로운 틀로서 10장에 걸쳐 장시의 다양한 면면과 그에 따른 사회 변화상을 꼼꼼히 짚어낸다.

영화처럼 읽는 한국사

젊은 역사 연구 모임 / 명진출판사 / 2000 / 455쪽 / 12,000원

젊은 한국사 전공자들이 모여 만든 한국사 연구 대중서로 기존 역사서의 체계를 벗어나 찾아가는 역사탐험 형식으로 꾸며졌다. 아울러 동봉된 CD-ROM을 책과 함께 읽어가도록 편집해서, 마치 슬라이드 영화를 보는 기분으로 역사를 산책할 수 있게 했다. 또 흥미와 역사적 사실(史實)의 교훈을 놓치지 않고 짧은 보기 드문 역사서로서 역사의 상식을 넓히고 지루하기 쉬운 역사에 다가가기 좋은 책이라고 본다.

IV. 경제 구조와  
경제생활  
4. 경제 상황의  
변동

한국사 이야기 14 : 놀이와 풍속의 사회사

이이화 / 한길사 / 2001 / 347쪽 / 10,000원

한국사를 민족사·생활사·민중사 중심으로 서술한 이이화의 『한국사 이야기』 시리즈이다. 다른 책들에 비해 정치사 부분의 내용이 좀 적게 서술되어 있지만, 조선후기의 경제사, 생활사, 풍속사에 관한 풍부한 자료들을 수록한 점은 이 책의 장점이다.

우리 역사, 질문 있어요

국사편찬위원회 편사회 / 동방미디어 / 2001 / 278쪽 / 8,500원

경제구조와 경제생활 홈페이지의 ‘묻고 답하기’에는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이 많이 올라온다. 그러한 질문들 중에서 우리 역사에 대한 상식을 넓히는데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을 가려 뽑은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의 변동을 일상 생활의 경제 활동을 예로 들어가며 아주 쉽고 친절하게 독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

한국사 새로 보기

신복룡 / 풀빛 / 2001 / 285쪽 / 10,000원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부분이 사실은 역사적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신문사와의 입장 차이로 게재되지 못했던 10편을 추가 수록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저자는 <환곡과 장리쌀>이라는 서술을 통해 격동하는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의 변화 모습을 독자적인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

IV. 경제 구조와 경제생활

4. 경제 상황의 변동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사회, 경제)

한국역사연구회 / 청년사 / 2000 / 278쪽 / 8,000원

이 책은 중요하면서도 교과서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사실들을 일반 독자들에게 알리려는 목적에서 기획되었다.

이 책을 펼쳐보면 곧 역사가 이렇게 재미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주제 자체가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가급적 쉽고 지루하지 않게 쓰고자 노력한 까닭이다.

뿌리깊은 한국사 샘이깊은 이야기 5 : 조선후기

김중수 / 숲 / 2002 / 287쪽 / 23,000원

조선후기 격동하는 경제 상황의 변동을 농업, 상업, 수공업, 광업 등 분야별로 나누어 이해와 흥미를 구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해설·자료샘·찾아 읽기로 이루어져 있다. 해설에서는 역사적 시대 상황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전달하고, 자료샘에서는 해설과 관련된 기본 사료를 번역하거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의 주를 달아놓았다.

이야기 한국역사 8 : 조선후기의 사회변동

이야기 한국역사 편찬위원회 / 풀빛 / 2002 / 220쪽 / 5,000원

우리 민족의 기원과 형성에서 오늘에 이르는 5천년의 모습을, 우리 역사의 실제 모습과 내용을 중심으로 짚어졌다. 재미와 친숙한 역사이야기로, 서술방식도 역사적인 중요 인물과 사건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했다.

V. 사회 구조와 사회 생활

1. 고대의 사회

삼국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한국역사연구회 / 청년사 / 1998 / 358쪽 / 9,000원

한국역사연구회 고대사분과에서 조선시대와 고려시대에 이어 ‘어떻게 살았을까’ 시리즈를 완결 짓는다는 뜻에서 고대인의 실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책이다. 이 책은 일반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해 가능한 한 쉬운 용어와 평이한 문장을 사용하고, 때로는 소설적 기법을 가미하거나 강의 형식을 빌어 현장감을 살리려고 노력하였다.

문답으로 엮은 한국고대사 산책

한국역사연구회 고대사분과 / 역사비평사 / 1994 / 358쪽 / 12,000원

각 주제를 서술할 때 적절한 비유를 들거나 설화를 풍부하게 활용함으로써 독자들이 흥미롭게 읽어 내려갈 수 있도록 하였고, 당대 인간의 활동에 서술 비중을 두므로써 생동감을 살리려고 하였다.

한국생활사박물관 3 : 고구려생활관

한국생활사박물관 편찬위원회 / 사계절 / 2001 / 106쪽 / 16,800원

고구려의 생활사와 고구려인의 정신세계를 흥미롭게 살피고 있다. 책은 광개토태왕, 연개소문 등 중요 역사적 인물들이 아닌, 일반 백성의 삶을 중심으로 전쟁, 종교, 대외교류, 놀이와 여가, 가족 등 고구려의 다양한 모습들에 대해 설명한다.

한국생활사박물관 4 : 백제생활관

한국생활사박물관 편찬위원회 / 사계절 / 2001 / 94쪽 / 16,800원

700여 년에 걸친 백제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 설명한다. 구체적인 백제인의 생활상과, 백제인의 이상세계를 표현한 백제금동대향로를 통해 백제인들의 깊은 내면 세계를 들여다본다.

V. 사회 구조와 사회 생활

1. 고대의 사회

한국생활사박물관 6 : 발해·가야생활관

한국생활사박물관 편찬위원회 / 사계절 / 2002 / 94쪽 / 16,800원

발해는 대륙의 여러 나라 여러 민족과 공존했고, 가야는 해양의 여러 세력을 연결해 주는 '동북아시아의 교차로' 역할을 했다. 두 사회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공존과 교류 속에 피어난 개방적이고 다양한 문화의 흔적이 엿보인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폭넓은 생활권에서 외부 세계와 어울렸던 소중한 경험으로 세계화 시대의 한국인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V. 사회 구조와 사회 생활

2. 중세의 사회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사회·문화생활)

한국역사연구회 / 청년사 / 1997 / 265쪽 / 8,000원

덜 알려져 있거나 잘못 알려져 있는 고려시대의 역사적 사실을 생생히 전달하기 위해 당대의 구체적인 생활모습과 삶의 커다란 테두리를 쉽고 재미있게 그렸다. '원님이 없어도 고을은 돌아간다', '출신지에 따라 인격이 다른 사회', '공경장상의 씨가 따로 있다'며, '남성 부럽지 않은 고려 여성' 등의 내용은 교과서 내용을 공부하는 데 많은 참고자료가 된다.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2(정치·경제생활)

한국역사연구회 / 청년사 / 1997 / 286쪽 / 8,000원

고려인들의 정치와 경제생활을 다루고 있다. 젊은 학자들이 집필한 덕인지 한자도 별로 없고, 구어체의 편안한 문체로 인해 쉽게 넘길 수 있다. 그러나 당시의 제도가 어떻게, 경제제도가 어떻게, 간에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모른다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고려시대 사람들 이야기 2(경제·문화생활)

박용운·이정신·이진한 외 공저 / 신서원 / 2002 / 366쪽 / 12,000원

고려시대 사람들의 발자취와 생활, 경제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서술했다. 이 책의 구성은 크게 토지제도와 재정운영, 농업과 농민정책, 상공업과 축산업·어업, 사회제도와 민란, 가족과 여성이라는 5개의 큰 주제 아래 37개의 소주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제4장 사회제도와 민란, 제5장 가족과 여성 부분이 교과서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하다.

한국생활사박물관 7 : 고려생활관 1

한국생활사박물관 편찬위원회 / 사계절 / 2002 / 98쪽 / 16,800원

지금까지 제대로 다루지 않았던 고려 서민들의 생활상이 실감나는 그림·사진·이야기로 재현됐다. 제작진이 직접 유적지와 생활터를 답사하고 전국의 박물관과 민속관으로부터 다양한 유적·유물의 화상자료를 지원받아 마치 생활사박물관에 온 것처럼 당시의 생활상을 되살려 내고 있다.

팔만대장경도 모르면 빨래판이다

전병철 / 내일을여는책 / 2000 / 342쪽 / 8,500원

역사를 전공한 현재 고등학교 현직 교사가 쓴 역사 이야기로, '아이들에게 역사를 좀더 친숙하고 재미있게 가르칠 방법이 없을까?' 라는 고민 끝에 엮어진 책이다. 이러한 선생님들의 고민, 학생들의 고민, 그리고 역사의 상식과 용어를 잘못 알고 있는 일반인들을 위해 역사에 대해 좀더 쉽게 접근하고 역사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 역사용어와 기본 상식에 대한 이해를 먼저 선행시켜 주었다.

고려의 황도 개경

한국역사연구회 / 창작과비평사 / 2002 / 290쪽 / 15,000원

화려하고 격조 높은 불교도시,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한반도 중심부에 자리잡은 수도 개경에 대해 수도로서 그리고 고려사람들의 생활 중심지로서 살핀 책이다. 이 책은 중세의 사회라는 단원뿐만 아니라 중세의 정치, 중세의 경제, 중세의 문화와도 관련이 있는 책이다.

## V. 사회 구조와 사회 생활

### 2. 중세의 사회

#### 한국사 이야기 5 : 최초의 민족통일국가 고려

**이이화 / 한길사 / 1999 / 348쪽 / 9,000원**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왕조인 고려의 성립과 고려전기의 역사, 풍속을 다루고 있다. 고구려, 발해의 후예라는 자부심으로 고려는 북방진출의지를 강하게 지니고 있었다. 또한 고려는 신라와 달리 자주민족국가를 지향하였고, 최초의 중앙집권제 국가였으며 지방문화와 중앙문화의 교류도 활발했던 나라였다. 어느 중세국가보다 여성의 지위가 높았던 당시의 시대상도 정리해놓았다.

#### 한국사 이야기 6 : 무신의 칼 청자의 예술혼

**이이화 / 한길사 / 1999 / 340쪽 / 9,000원**

이자겸의 난으로부터 왕권강화를 위한 고려 왕들의 노력과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무신 정권 기까지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불교가 어떻게 꽃피웠고, 김부식의 귀족문화와 정치상의 향토문화가 어떻게 달랐으며, 국어책에도 자주 등장하는 소설 '국순전'이나 '공방전'의 묘미도 새롭게 맛볼 수 있다.

#### 한국사 이야기 7 : 몽골의 침략과 30년 항쟁

**이이화 / 한길사 / 1999 / 332 / 9,000원**

고려시대 최대의 전쟁인 여몽전쟁과 원의 간섭기를 다루고 있다.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팔만대장경의 제작배경을 이해할 수 있고 성리학의 수용배경, 이 시대 참여 문화와 은둔문화의 경향을 이해할 수 있다.

#### 한국사 이야기 8 : 개혁의 실패와 역성혁명

**이이화 / 한길사 / 1999 / 344쪽 / 9,000원**

제야 사학자 이이화씨가 저술한 『한국사 이야기』 시리즈 제8권으로 원의 잔재를 몰아내고 개혁을 추진하던 공민왕의 추락과 조선왕조의 역성혁명을 다루고 있다.

#### 5백년 고려사

**박종기 / 푸른역사 / 1999 / 354쪽 / 10,000원**

지방세력이 세운 실질적인 첫 통일왕조인 고려! 고려의 독자적인 발전 원리와 특성을 탐색하며 배일 속에 가려진 고려사의 실체를 복원해낸 책이다. 이 책은 한 개인이 30년에 걸친 고려사 연구성과를 토대로 1980년대 이후 축적된 연구성과를 대폭 수용하여 일관된 문체와 역사관을 가지고 집필한 최초의 완전한 고려 통사이다.

#### 역사속의 역사읽기 1

**고석규, 고영진 / 풀빛 / 2002 / 378쪽 / 11,000원**

역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짙막한 글을 읽고, 선사시대 생활의 발자취부터 삼국의 성립과 통일, 천년의 역사를 지닌 신라를 거쳐, 발해와 고려의 건국을 지나 고려 후기까지를 10개의 장으로 엮고 44개 주제를 통해 선사에서 고려까지를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 양반

**미야지마 히토시 / 강 / 1996 / 289쪽 / 7,000원**

'양반은 무엇인가' 하는 기본적인 물음에서 출발하여 양반 계층의 형성과정, 경제적 기반, 일상생활을 안동의 유력 양반 가문인 유곡 권씨의 일족인 권벌 가문을 중심으로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은 이 책을 통해 양반 계층의 형성사를 쉽고, 흥미롭게 살필 수 있을 것이다.

V. 사회 구조와 사회 생활  
3. 근세의 사회

양반나라 조선나라

박홍갑 / 가람기획 / 2001 / 326쪽 / 9,000원

조선이라는 신분제 사회에서 집권 계층인 양반들의 여러 단면들을 정치, 사회, 문화 부분에서 엿볼 수 있도록 양반사회의 명암을 10가지 주제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양반 사회의 다양한 부분들을 어렵지 않게 읽어낼 수 있기에 학생들이 조선시대 지배 신분층이었던 양반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 미암일기

전장민 / 사계절 / 2003 / 280쪽 / 12,000원

정치사를 넘어서 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을 표방하는 생활사에 관한 내용이다. 몇 시에 출근을 했는지, 용변을 본 후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였는지 등 시시콜콜한 생활 이야기 등의 문화적 함의가 깊은 내용까지 당시의 생활상이 세밀하게 펼쳐지고 있다.

조선시대 생활사 2

한국고문서학회 / 역사비평사 / 2000 / 341쪽 / 12,000원

법학, 사학, 국문학, 경제학을 전공한 연구자 18명이 각자의 전공분야에 맞춰 쓴 이 책은 출산과 육아, 가훈, 부부생활과 가정생활, 시장과 물가, 약국과 의원, 연회와 세시풍속 등 조선시대의 다양한 생활사를 5부로 나누어 풀어쓴 것이다. '한국고문서학회'라는 이름에 걸맞게 여러 사료들의 실질적 검토를 통해 조선시대의 다양한 면면들을 구체적으로 그려낸 점이 특징이다.

조선은 양반의 나라가 아니오

KBS TV 조선왕조실록팀 / 가람기획 / 2001 / 352쪽 / 9,000원4

자칫 딱딱하고 지루해질 수 있는 조선후기의 정치·경제·사회·문화사를 '직격 인터뷰', '출동 역사 돋보기', '역사추리' 등 색다른 서술방식을 도입해 흥미롭게 풀어가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어 하는 가운데 조선후기 사회를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일상에서 본 조선시대 이야기 1

정연식 / 청년사 / 2001 / 276쪽 / 12,000원

지배층에 초점을 맞춰온 기존의 역사서에서 다루지 않은 당대 사람들의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깨는데 중점을 두고 흥미롭게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당대 사람들의 생활을 엿보는데 훌륭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한국역사연구회 / 청년사 / 1996 / 278쪽 / 65,000원

조선시대 사람들의 구체적인 사회·경제생활을 언어·문자·인구변천·친족·재산상속·신앙·촌락·교육·법률·족보·상업·농업·식생활·군역 등과 관련된 23개의 제목 아래 이야기체로 흥미롭게 풀어쓰고 있다. 학생들이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활을 엿보는데 매우 좋은 책이라 생각된다.

조선시대 조선사람들

이영환 / 가람기획 / 1998 / 364쪽 / 9,000원

조선은 사회 신분을 양인과 천민으로 구분하는 양천제도를 법제화 하였다. 조선의 신분 제도는 상류층에는 피나는 생존경쟁의 장이었고, 하층민에게는 가혹한 인간의 굴레였다. 학생들이 조선시대의 왕족에서 천민에 이르기까지 신분별 생활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라 생각된다.

V. 사회 구조와 사회 생활  
3. 근세의 사회

우리문화의 황금기 진경시대 1

역사문제연구소 / 역사비평사 / 1999 / 388쪽 / 12,000원

진경시대(眞景時代)는 조선왕조 후기문화가 조선 고유색을 한껏 드러내면서 난만한 발전을 이룩하여 문화 절정기를 일컫는 문화사적 시대구분 명칭으로, 숙종대에서 영·정조대에 걸치는 125년간을 지칭한다. 이 책은 진경시대의 사상과 문화, 그리고 예술과 예술가들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최초의 연구서이다.

사치하는 자는 장 100대에 처하라

KBS TV 조선왕조실록탐 / 가람기획 / 1999 / 314쪽 / 8,000원

자칫 딱딱하고 지루해질 수 있는 조선전기의 정치·경제·사회·문화사를 '직격 인터뷰', '출동 역사 돋보기', '역사추리' 등 색다른 서술방식을 도입해 흥미롭게 풀어가고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쉽고 재미있어 하는 가운데 조선전기 사회를 들여다 볼 수 있을 것이다.

V. 사회 구조와 사회 생활  
4. 사회의 변동

나도 당당하게 살겠다

김건우 편역 / 문자향 / 2003 / 390쪽 / 12,000원

기존의 조선 여인상에 대한 고정 관념을 무너뜨린 조선 여인의 이야기를 아홉 가지 테마로 나누어 전개하고 있다. 양반가와 궁중 여인에서 기생, 노비, 무당 등 하층 여인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통념에 얽매이지 않고 주체적으로 살았던 60여 명을 삶을 소개했다. 학생들에게 권하고 싶다.

우리 민중의 생활사

전창권 / 사계절 / 2003 / 280쪽 / 12,000원

삼국시대부터 조선후기까지의 민중들의 의식주와 각종 제도를 통해 우리 역사의 큰 흐름을 잡아주고 있다. 또한 주제별로 직업별 민중들의 삶이나 각 시대별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민중 중심의 생활사에 관한 책이 많지 않은 점에서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우리 선비

정옥자 / 연암사 / 2002 / 424쪽 / 25,000원

시대적 사명감과 책임 의식으로 의리와 지조를 중요시하며 기개 있는 삶을 살다 간 선비들의 삶과 정신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란 명제를 던지고, 오늘날 지식인의 역할과 지도자의 자세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보게 한다.

조선왕실의 의례와 생활, 궁중문화

신명호 / 돌베개 / 2002 / 304쪽 / 18,000원

조선의 궁중 문화는 유교 통치 문화와 예술 문화의 정수이며, 500년 왕조사의 핵심이었다. 이 책에서는 조선시대 역사와 문화의 중심축을 이루었던 궁중 문화를 왕과 왕비의 역할과 삶,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궁중 의례와 제도 등을 중심으로 흥미롭게 살펴보고 있다.

조선의 성풍속

정성희 / 가람기획 / 1998 / 352쪽 / 9,000원

'성 윤리는 시대에 따라 변천한다', 그리고 '성 윤리의 문제는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 못지 않게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조선시대 성 풍속을 파헤쳐 엄격한 유교 정신과 신분제에 내리 눌러 그 최대 희생자가 된 여성들의 삶을 드러내고 있다.

V. 사회 구조와 사회 생활  
4. 사회의 변동

금단의 나라 조선

이J 오페르트 / 집문당 / 2002 / 312쪽/ 15,000원

이 책의 저자는 대원군이 왜국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무렵 세 차례나 중국 상해를 출발해서 조선을 방문하고, 통상을 요구했던 E.J.오페르트로서 1896년에 대원군의 생부인 남연군 묘를 도굴하려다 실패한 파렴치한 인물로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다. 이 책을 통해 서양인들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는 왜곡된 시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민란의 시대 1~5

고성훈 외 / 가람기획 / 2000 / 346쪽/ 9,000원

조선 초기 최대의 반란인 이시애의 난부터 임진왜란 외중에 일어난 이몽학의 난, 홍경래의 난, 임술민란, 광양란, 동학농민전쟁 등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크고 작은 민란들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특히 부정부패가 극에 달했던 19세기 조선 민중투쟁사를 생존권 확보를 위한 항쟁의 성격이 짙은 '민란'과 권력 장악을 위한 '변란'으로 구분해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우리 역사의 7가지 풍경

역사문제연구소 / 역사비평사 / 1998 / 388 쪽/ 12,000원

혼인, 노비, 촌락, 도적, 한말·일제시기 대중문화, 근·현대 서민의 생활, 담배와 쌀의 사회사 등 총 7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혼인의 사회사에서는 삼국시대 데릴사위제도에서 자유연애에 이르기까지 달라져온 과정을 담았다.

시장을 열지 못하게 하라

김대길 / 가람기획 / 2000 / 364쪽/ 9,000원

조선시대 장시는 농촌경제의 중심이 되었다. 특히 조선후기는 장시가 가장 번창한 시기였다. 이 책은 조선후기 장시를 통해 민초들의 삶과 상업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수공업 등 당시의 사회 변화상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고전소설 속 역사여행

노대환, 신병주 / 들베개 / 2002 / 290쪽/ 9,000원

“춘향전”, “심청전”, “홍부전”, “홍길동전” 등 조선중·후기의 고전소설 16편을 통해 당시 사회현실과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있다. 여기에는 “설공찬전”, “은애전”처럼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지라도 조선시대의 사회와 생활상을 아는데 도움이 되는 고전 작품과 “계축일기”, “한중록” 등의 수필류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사 이야기 14 : 놀이와 풍속의 사회사

이이화 / 한길사 / 2001 / 346쪽/ 8,500원

한국사를 민족사, 생활사, 민중사 중심으로 서술한 이이화의 “한국사 이야기” 시리즈 제 14권으로 조선후기 영조대의 정치상황과 조선후기 생활 풍속사를 5부에 걸쳐 설명하고 있다. 조선후기 사회경제적 변화와 아울러 생활사, 풍속사를 자세히 살펴 볼 수 있다.

다시 읽는 하멜표류기

강준식 / 용진닷컴 / 2002 / 312쪽/ 10,000원

1653년 제주도에 표류해 13년 동안 조선에서 생활한 후 네덜란드로 돌아갔던 헨드릭 하멜이 그간 자신의 행적과 조선에 대한 정보를 모아 제출한 자료를 책으로 펴낸 “하멜표류기”를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재구성한 책이다.



V. 사회 구조와  
사회 생활  
4. 사회의 변동

한국사 이야기 15 : 문화근주 정조의 나라

이이화 / 한길사 / 2001 / 350쪽 / 10,000원

정조대 정치와 당시 학문적, 문화적 변화를 중심으로 조선후기 전반적인 사회변동 양상에 대해 5부에 걸쳐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정치상황에만 국한하지 않고, 국내외의 변화 양상, 문화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여러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조선후기 르네상스'라 할 수 있는 정조대의 정치와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나의 아버지 박지원

박종채 / 돌베개 / 1998 / 308쪽 / 9,000원

연암 박지원의 아들인 박종채가 4년여 동안 심혈을 기울여 초고를 집필하여, 몇 년에 걸쳐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여 완성하였다. 아들이 쓴 아버지의 전기인 만큼 실학자 박지원의 인간적인 모습과 연암이 살았던 당대의 정치·사회 상황을 소상하고 생생하게 살필 수 있을 것이다.

VI. 민족 문화의  
발달  
1. 고대의 문화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전호태 / 사계절 / 2000 / 516쪽 / 29,000원

고구려 고분벽화에 대한 전문연구서이다. 전호태 울산대학교 박물관장이 쓴 책으로 고분벽화에 대한 단순한 자료설명이나 화첩이라기보다는 벽화고분별 기초 자료정리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갔다. 이 책을 보지 않고는 고분벽화를 이야기 할 수 없다.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 이야기

전호태 / 풀빛 / 1999 / 214쪽 / 10,000원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가 어렵다면 쉽게 읽을 수 있는 이 책을 권한다. 이 책은 고구려 역사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읽어볼 만한 책으로 400여 장의 고구려 고분 벽화 컬러도판을 곁들여 고구려 사람들의 생활상을 손에 잡힐 듯 생생하게 묘사해냈다.

고구려 문화유적 산책

김 삼 / 대륙연구소 출판부 / 1997 / 236쪽 / 6,500원

중국 집안 지역에 흩어져 있는 고구려 유적을 소개한 책이다. 우리가 중국에 가야만 볼 수 있는 고구려 유적을 소개한 책으로 보존상태의 허술함이 여러 군데에 보이고 있어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는 책이다.

고구려의 그 많던 수레는 다 어디로 갔을까?

김용만 / 바다 / 1999 / 336쪽 / 9,000원

제목이 그렇다고 해서 이 책이 '고구려 수레의 역사'에 관한 것은 물론 아니다. 이 책의 주제는 한마디로 '고구려 생활사'이고, 좀더 편하게 말한다면 '정말 고구려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이다. 이 책은 수레에 관한 책이 아니라, 후대에 전해지지 않는 고구려인의 생활상을 잘 복원한 책이다.

백제금동대향로

서정탁 / 박고재 / 2001 / 488쪽 / 25,000원

미술사와 문화사, 고고학, 동서교류사 등 다양한 접근법을 통해 백제금동대향로를 분석한다. 동시에 이 향로가 백제인들의 세계관뿐만 아니라 고대 동북아인들의 세계관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며, 고구려 고분벽화와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는 주장을 펼친 책이다.

VI. 민족 문화의 발달  
1. 고대의 문화

신라 과학기술의 비밀

황인영 / 삶과 꿈 / 1998 / 142쪽 / 9,000원

신라시대 대표적 문화유산을 과학기술적으로 조명한 책이다. 치밀하게 설계된 석조 건물 첨성대. 술잔이 놓이는 위치에 따라 멈춰 뻗도는 위치가 달라지는 포석정, 불교 미학의 정수로 꼽히며 과학기술적으로도 그 우수성을 증명받고 있는 석굴암 등을 현대 과학으로 분석하여 제작 과정을 역추적한 책으로 청소년 권장도서이다.

고구려 역사유적 답사

서길수 / 사계절 / 1998 / 488쪽 / 18,000원

물허진 200년 전 고구려 역사를 만난다. 저자가 10년 동안 열 두번의 답사에서 직접 확인한, 만주지방 고구려유적에 대한 답사 안내서이다. 여기에 고구려 정치와 예술, 생활문화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성과를 더해 평범한 답사안내서 이상의 대중적 역사책 역할을 한다.

풍납토성 500년 백제를 깨우다

김태식 / 김영사 / 2001 / 592쪽 / 14,800원

풍납토성에 대한 학계의 반응이 아직도 갈려 있어 많은 논란거리를 안고 있지만, 100년에 걸친 풍납토성 발굴기를 생생하게 담아낸 저자의 노력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책은 풍납토성이 지닌 역사적 가치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고 있어 한국 고대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흥미를 가지고 읽어나갈 수 있다.

고인돌 이야기

이영문 / 다지리 / 2001 / 240쪽 / 8,800원

저자는 고인돌을 단순한 바위덩어리가 아니라 선사시대를 열어주는 중요한 열쇠로 본다. 고인돌은 하나의 무덤이자 하나의 성역이었으며 사후세계에 대한 종교적 열망이 담겨 있는 상징물이라고 저자는 그 중요성을 설명한다. 고인돌 전문가 이영문 교수가 지은 책으로 너무 흔하여 관심을 갖지 못하는 고인돌에 발길을 돌리게 하는 책이다.

금관의 비밀

김병모 / 푸른역사 / 1998 / 214쪽 / 28,000원

금관은 대개 5~6세기 돌을 쌓아 만든 경주의 대형 무덤(적석분)에서 나왔지만, 그 주인공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 왜 나무나 새, 옥을 장식했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다. 고고학자 김병모(한양대) 교수가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책이다.

일본속의 백제 문화 1~2

송현섭 / 한겨레 / 1997 / 302쪽 / 7,000원

백제가 일본에 남겨놓은 찬란한 유적들을 소개한 책이다. 그 동안 밝혀진 고대사와 생생하게 그려지는 풍물이 사진과 함께 담겨 있다. '황무천황을 낳은 신립희', '일본국보 제1호는 백제불상', '동양의 비너스 백제관음상' 등을 재미있게 썼다.

일본천황은 한국인이다

홍윤기 / 호명출판 / 2000 / 244쪽 / 8,000원

저자는 발로 뛰면서 수집한 자료와 역사책에서 발견한 사실로 일본천황과 한국의 관계를 서술했다. 그는 4~6세기 백제왕가와 일본 천황가의 계보가 흡사하다는 것을 다양한 문헌과 '한·일 동족론'을 토대로 입증해내고 있다. 이와 함께 왕인·담징 등 수많은 학자와 승려, 기술자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문화에 끼친 영향을 심도있게 고찰했다.

## VI. 민족 문화의 발달

### 1. 고대의 문화

#### 고신라 왕릉연구

이종선 / 학연문화사 / 2000 / 458쪽 / 17,000원

고고학자인 이종선 서울시립박물관장이 최근 펴낸 “고신라 왕릉연구”는 적석목곽분들의 편년과 무덤의 주인공, 그리고 이를 통한 당시 신라사회의 구조를 해명하려고 시도하였다.

#### 화랑세기로 본 신라인 이야기

이중옥 / 김영사 / 2000 / 525쪽 / 15,900원

이 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당시의 남녀관계와 윤리문제이다. 3명의 왕을 섬기며 권력의 중심에 위치했던 미실의 이야기나 형제의 자식뿐 아니라 고모 이모 사촌자매까지 아내로 맞았던 당시의 근친혼,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아내를 상납해 정치적인 혜택을 받았다는 기록 등은 현대의 시각으로 볼 때 다소 파격적으로 다가온다.

#### 신라 미술의 대외교섭

한국미술사학회 / 예경 / 2000 / 260쪽 / 12,000원

한국미술사학회의 연구 성과를 모아 엮어 낸 대외교섭 연구서로 통일신라 미술의 국제적인 위상과 독특한 아름다움, 그리고 주변국과의 영향관계에 관한 새로운 연구 성과를 모은 논문집이다. 미술사학자들의 발표논문으로 신라를 중심으로 주변 나라들과의 미술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 로마문화 왕국, 신라

요시미즈 츠넨오 / 씨앗을뿌리는사람 / 2002 / 312쪽 / 18,500원

최근 신라문화의 근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일본과 국내 학계에 논란을 가자온 “로마문화 왕국, 신라”가 출간되었다. 이 책의 지은이 요시미즈 츠넨오는 30여년 간 수집해온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6세기 초 이전 고대 신라의 뿌리가 그리스 로마문화에 있다고 단언해 큰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 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

이도흙 / 푸른역사 / 2000 / 355쪽 / 10,000원

이도흙씨의 새 책 “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는 도무지 납득되지 않은 이야기 속에 담긴 신라인의 마음과 신화를 해체해 우리 문화의 원형을 복원하고 있는 야심찬 저작이다. 모두 21개의 토막글에 『삼국유사』 속 이야기로 들어가는 비밀스런 지도가 친절하게 안내되어 있다.

#### 새롭게 읽는 한국의 신화

조성기 / 동아일보사 / 2002 / 406쪽 / 12,000원

우리 신화의 우수성을 믿는 작가가 15년 동안의 자료 수집과 집필을 통해 단군, 주몽에서 신라의 도화녀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화의 모태를 탐구하고 있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를 뒤섞는 작업을 통해 저자는 자칫 ‘다 아는 이야기’로 경솔히 다뤄지기 쉬운 한국의 신화를 상상력을 가미해 역동적으로 꾸며냈다.

#### 한국생활사박물관 6 : 발해·가야생활관

한국생활사박물관 편찬위원회 / 사계절 / 2002 / 96쪽 / 16,800원

우리의 역사에 편입시켜도 되는지를 회의해왔던 발해가 한국사에서 확보해야할 위치를 재조명하고 중국, 러시아와 ‘발해의 역사’에 대한 소유권 분쟁을 시도했다. 또 신라, 백제, 고구려의 삼국역사에서 소외됐던 가야사를 깊이 있게 접근해 눈길을 잡는다.

VI. 민족 문화의 발달

1. 고대의 문화

역사스페셜 4 : 북한의 문화유산

이은영 / 호명출판 / 2002 / 332쪽 / 7,500원

‘한민족 특별기획 역사스페셜’에서 8회에 걸쳐 소개했던 평양, 개성, 묘향산 일대의 유적과 ‘신년스페셜-역사기획 발매 1·2’에서 다룬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냥 들고 보기만 했던 내용들을 문자화된 책으로 보면서 다시 또 새겨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매력이다.

역사스페셜

정중목 / 호명출판 / 2000 / 285쪽 / 6,500원

KBS ‘역사스페셜’의 총 70여 회 방영분 가운데 고대와 삼국시대 및 발해에 해당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엮었다. ‘발해는 왜 동해를 건너 일본과 교류했는가’, ‘왜 신라에만 여왕이 존재했을까’, ‘백제대향로의 비밀’, ‘일본 최고의 인기 상품이었던 신라산 양탄자’ 등 15가지 주제를 통해 삼국시대의 대외관계와 당대 시대상의 독특한 단면들을 흥미롭게 풀어낸다.

VI. 민족 문화의 발달

2. 중세의 문화

다시 보는 팔만대장경 이야기

박상진 / 운송신문사 / 1999 / 258쪽 / 7,500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737호로 선정되어 세계적으로도 그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일반인들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해설집이다. 문헌사적인 연구의 한계를 탈피하여 자연과학적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시각이 돋보인다. 청소년 권장도서로 한번 읽어보기를 권한다.

팔만대장경도 모르면 빨래판이다

전병철 / 내일을 여는 책 / 2000 / 342쪽 / 8,500원

현직 역사교사가 지은 책으로 일반인이 의외로 모르는 역사에 대한 상식들을 ‘이름’ 위주로 푼 책이다. 우리 주변에 잘 알려진 문화재들의 이름이 어떤 생각에서 어떤 의미로 붙여졌는지를 설명한다. 이름에 얽힌 설명 뒤엔 이들 문화재에 얽힌 사연들이 이어 나온다. 전교조 권장도서로 제목부터가 아주 재미있는 책이다.

고려 청자

정양모 / 대원사 / 1998 / 144쪽 / 4,800원

저자인 국립중앙박물관 정양모 관장의 고려 청자 연구 업적을 충실히 담고 있다. 또한 100컷이 넘는 사진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우리 나라의 대표적인 청자들을 생생히 보여준다. 100여 컷에 이르는 사진을 통해 시각적인 효과도 충분히 배려하고 있다.

한국생활사박물관 7 : 고려생활관 1

한국생활사박물관 편찬위원회 / 사계절 / 2002 / 98쪽 / 16,800원

우리 역사상 가장 개방적이고 역동적인 사회를 일구어낸 고려 전반기로 향한다. ‘포용과 축제의 땅’이라는 정리된 고려 전반기의 도도한 역사적 흐름을 네 개의 전시실과 특강실, 가상체험실 속에 담았다. 이 책 한 권을 읽고 나면, 고려 전기가 우리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들이 남긴 수많은 문화 유산들이 우리에게 건내는 말들이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된다.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 1~5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 서울대학교출판부 / 2000 / 1500쪽 / 185,000원

한국의 고고학, 건축학, 민속학과 미술사학계에 필요한 것으로 남북간 문화교류를 상징하는 책이다. 3~4권이 고려의 문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이 잘 나와 있다.

VI. 민족 문화의 발달  
2. 중세의 문화

고려시대의 불교사상

이병욱 / 예안 / 2002 / 458쪽 / 18,000원

고려는 불교의 나라이다. 이 책은 불교의 최전성기였던 고려시대의 불교계의 중심인물과 불교사상을 시대별로 잘 나타내었다.

팔만대장경에 숨어 있는 108가지 이야기

진현중 / 예음 / 1997 / 292쪽 / 7,800원

불전 설화는 일반 대중에게 붓다의 가르침을 쉽게 전파하기 위해 만든 이야기이다. 붓다의 말씀 뿐만 아니라 생활의 지혜와 슬기가 담겨 있다. 설화를 번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풀어쓰기도 했다. 요즘같이 어지러운 세상에 불전설화를 읽으며 삶의 자세를 가다듬을 만하다. 팔만대장경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속의 뜻을 모른다면 무용지물이다.

한국사 16 : 고려전기의 종교와 사상

국사편찬위원회 편집부 / 국사편찬위원회 / 1994 / 394쪽 / 4,800원

고려 전기의 불교, 유학, 도교, 풍수지리, 도참사상이 체계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다. 중고등학교 국사책을 편찬하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펴낸 한국사에 관한 방대한 책으로 16권에는 고려시대 종교와 사상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

일연

고운기 / 한길사 / 1997 / 284쪽 / 8,000원

우리 나라 역사의 숨겨진 부분을 복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삼국유사』는 고대인의 숨결까지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살아 있는 역사서이다. 일연은 바로 『삼국사기』에 묻혀 우리 역사에서 사라질 뻔했던 기층민중의 삶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이 책은 바로 일연과 『삼국유사』의 현장을 찾아 나선 13세기 여행의 보고서이다.

한국 중세의 불교의례 : 사상적 배경과 역사적 의미

김종명 / 문학과 지성사 / 2001 / 404쪽 / 16,000원

불교의례와 유교의례로 이원화되어 있었던 고려, 불교의례의 사상적 배경과 교학적 성격 및 역사적 의미를 분석한 책이다. 왕실의 후원 아래 빈번하게 개최되었던 주요 불교의례들의 경전적 기원과 의미, 의례 형태, 사회적 중요성, 의례의 특징, 의례 절차, 사상적 배경과 역사적 의미를 규명하고 있다.

한국 중세 영남불교의 이해

김윤곤 / 영남대학교 출판부 / 2001 / 362쪽 / 12,000원

영남지역의 사원과 불교문화에 대한 관심의 일단을 정리한 것이다. 영남지역 불교사원의 존재 양태에 대한 이해를 전제한 후, 국가의 지방 지배체제인 군현제와 불교사원과의 관계, 또 사원과 민의 상호관계를 구체적 사례를 분석하였다.

조선문화사

현종호 / 역락 / 2002 / 445쪽 / 18,000원

우리 민족이 창조한 문화의 발생과 발전과정을 연구한 책이다. 여기서는 철학사상, 과학기술, 미술, 문학, 음악무용 등으로 구분하였고, 미술의 경우는 건축, 회화, 조각, 공예로 다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학부 민족고전학과 참고서이다.  
북한에서 우리 문화사를 어떻게 서술하는지 잘 알 수 있는 책이다.

VI. 민족 문화의 발달  
2. 중세의 문화

의천 : 한국의 사상가 10인

이병욱 / 예문서원 / 2002 / 460쪽 / 20,000원

한국의 사상가 10인을 선정해서 그들 각각에 대한 대표적 연구성과를 모아 각각 한 권의 책으로 정리해 내기로 하고 먼저 3권을 발간했는데, 그 중 천태종의 대가인 대각국사 의천에 대한 종합 연구서이다.

운주사

이태호 / 대원사 / 1994 / 122쪽 / 4,800원

운주사는 천불천탑으로 유명한 곳이다. 그러나 미술학계에서는 이곳에 관심을 두지 않아 우리 미술교과서에는 이곳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그래서인지 이곳에 대한 연구가 미흡했으나, 최근 많은 관심이 주어지고 있다.

미술사학자 이태호씨가 많은 대중들에게 알리기 위해 운주사에 대하여 쉽게 써 놓은 책이다.

한국사 이야기 6 : 무신의 칼 청자의 예술혼

이이파 / 한길사 / 1999 / 340쪽 / 9,000원

11세기말 이자겸의 난으로부터 왕권강화를 위한 고려 전기 왕들의 노력과 100여년 지속되어 온 무신정권기까지 다루고 있다. 폭압과 공포의 무신정권 아래에서도 불교타락을 막으려는 개혁운동과 문인들의 저항,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가 발명되는 등 고려전기의 문화상을 소개한다.

역사스페셜 2

정중목 / 호형출판 / 2000 / 298쪽 / 7,000원

민중들에게 '새로운 이상향의 구심점'으로 자리잡은 운주사와 천불천탑이 언제, 누구에 의해서, 무엇 때문에 만들어졌는지를 역사적 맥락에서 꼼꼼히 살펴나가며 그 의미를 새롭게 발견해내고 있다.

그냥 듣고 보기만 했던 내용들을 문자화된 책으로 보면서 다시 또 새겨 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매력이다.

역사 속의 한국불교

이이파 / 역사비평사 / 2002 / 424쪽 / 16,000원

한국 불교의 역사를 사회사적으로 조망한 최초의 작업이다. 대개의 한국 불교사 관련 서적이 사상사에 치중해왔던 것과는 달리, 이 책은 불교가 이 땅에서 지나쳐온 역사의 실체를 파헤치는데 치중하였다. 따라서, 사회 제도와 사람들 생활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여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불교의 모습을 담고 있는 통사이기도 하다.

고려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1

한국역사연구회 / 청년사 / 1997 / 286쪽 / 8,000원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방면의 것들이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역사는 어떠한가? 몇 년도에 무엇, 몇 년도는 ○○왕 몇 년..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않았던가? 그러면서도 그 시대의 삶은 어떠했다는 말 한마디 없다. 슬픈 현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생활사라는 영역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VI. 민족 문화의 발달  
3. 근세의 문화

과학이 있는 우리 문화유산

이영호 / 펼쳐리인 / 2001 / 320쪽 / 13,000원

죽보와 풍수지리, 관소리, 민화, 토종개 등 한국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과학적으로 접근한 책이다.

저자 이종호는 과학자라는 분명한 자기 철학으로, 동서양을 넘나드는 풍부한 소재와 근거를 들어 우리 문화의 지평을 넓히는 한편 현대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옛 사람과의 간극을 좁히고자 했다.

## VI. 민족 문화의 발달

### 3. 근세의 문화

#### 성리학자 기대승 프로이트를 만난다

김용신 / 예문서원 / 2002 / 188쪽 / 7,000원

성리학자인 기대승과 정신 분석학자인 프로이트의 만남을 통해 두 사상가를 비교해 놓은 글이다. 인간의 억압받은 본능에 주목하는 프로이트에게는 성리학적 인간형이란 자아가 현실의 원리에 억눌린 데 불과하다. 이러한 극단의 두 사상가를 통하여 동·서 철학의 차이를 느껴 볼 수도 있다.

#### 세종대왕과 그의 인재들

박영규 / 들녘 / 2002 / 339쪽 / 10,000원

조선 500년 역사를 통해 가장 위대한 군주로 꼽히며, 한국인의 자부심 넘치는 표상으로 우뚝 선 세종대왕. 그의 탁월한 지도력과 태평성대를 향한 식을 줄 모르는 열정을, 동방의 르네상스를 구가한 당대 최고의 인재들을 다룬 책이다.

#### 양반나라 조선나라 : 조선의 양반문화 관료문화

박홍갑 / 기림기획 / 2001 / 326쪽 / 9,000원

조선의 양반문화와 관료문화 가운데 버려야 할 유산과 이어가야 할 정신문화의 명암들을 한 데 묶은 책이다. 이 책은 조선 양반사회에서의 여러 모습들 중에서 일반인의 상식을 뛰어넘는 10개의 테마를 주제로 잡아 각 테마별로 재미있는 일화를 듬뿍 담아 다각도로 설명하고 있어, 재미있게 조선의 문화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왕릉풍수와 조선의 역사

장영훈 / 대원사 / 2002 / 335쪽 / 15,000원

태조부터 27대 순종까지 조선왕조의 왕릉을 답사하며 엮어 가는 조선의 역사와 풍수이야기이다. 현장풍수 전문가인 저자가 수년에 걸쳐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왕릉을 직접 답사하며 찍은 사진을 바탕으로 풍수지리를 통해 가늠해 보는 조선의 역사를 소개했다.

#### 우리 궁궐 이야기

홍순민 / 청년사 / 1999 / 321쪽 / 16,000원

왕의 거처이며 정치와 행정을 총괄하던 국가의 최고 관청인 궁궐에 관한 이야기이다. 저자는 현재 남아있는 5대 궁인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경운궁(덕수궁)의 역사를 소개하고 궁궐마다 전해지는 일화를 설명하여 살아있는 궁궐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준다.

#### 조선왕실의 의례와 생활, 궁중 문화

신명호 / 들녘 / 2002 / 304쪽 / 18,000원

한국문화사를 100권으로 정리하는 시리즈 중 하나다. 책의 내용은 우리가 흔히 TV 사극을 통해 볼 수 있었던 궁중 문화의 이모저모를 소개하고 있다. 왕의 하루 일과부터 왕비의 임신과 출산, 그들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자체로 삶과 죽음의 현장인 궁궐의 모습이 생생하게 다가오는 책이다.

#### 조선의 정쟁 4 : 노론과 소론

신봉승 / 동방미디어 / 2001 / 331쪽 / 8,000원

중종대부터 정조대까지 300여 년간의 정쟁을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면서도 드라마틱하게 그려낸 대하 장편소설이다. 제4권은 조선조 정쟁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예학(禮學) 논쟁'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조선의 사림정치는 단순한 패거리싸움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사림정신의 발현'이라고 재해석하고 있다.

VI. 민족 문화의 발달  
3. 근세의 문화

지위진 이름 정여립 : ‘조선조의 광주사대’, 기축옥사의 재조명

신정일 / 가람기획 / 2000 / 382쪽 / 9,000원

‘모반자와 영웅’, ‘정여립과 기축옥사’, ‘두 진영의 사람들’, ‘실패한 혁명’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그와 관련된 기록과 유적지들을 찾아내어 정여립의 활동과 그의 사상에 대해 평가하며, 그가 꿈꾸었던 대동사상의 실체를 통해 당시의 사회·문화를 파악하고 있다.

퇴계 가훈으로 배우는 인생의 소중한 지혜

퇴계 이황 / 도서출판 새큰북스 / 2002 / 200쪽 / 8,000원

이황의 철학적이고 깊이 있는 가르침보다 개인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가정의 가훈으로 세 위도 좋을 몇몇 가르침을 정리하였다. 이 정리는 언제 누가 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퇴계 가훈」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진 퇴계 선생의 저작물을 풀어놓은 것이다.

VI. 민족 문화의 발달  
4. 문화의 새 기운

나의 아버지 박지원

박종재 저, 박희병 역 / 들베개 / 1998 / 307쪽 / 9,000원

지은이 박종재는 아버지 박지원을 후세에 제대로 전하기 위해, 이 책에서 아버지의 위대한 문필가로서의 면모만이 아니라 그 인간적 면모와 함께 목민관 시절의 흥미로운 일화들도 자세히 들려주고 있다. 또한 이 책은 박지원이 활동했던 18세기 영·정조시대의 지성사와 사회사에 대한 풍부하고 생동감 넘치는 보고서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다.

연암 박지원 소설집

리가원 / 도서출판 한양출판 / 1994 / 204쪽 / 7500원

연암은 18세기 당시에는 볼 수 없었던 양반사회에 대한 신랄한 풍자를 자신의 작품 속에 녹여 내며 당시 사회에서 천시하던 상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구자적 면모를 지닌 학자였다. 연암의 소설은 글 전체에 풍자와 사실적 수법, 그리고 해학이 넘쳐흘러 조금의 지루함도 느끼게 하지 않는다.

소설 목민심서 1~5

정약용 / 삼진기획 / 2000 / 301쪽 / 7,000원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고, 정약용 선생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 당파, 사회의 흐름까지 알 수 있다.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경제치용의 실학자 정약용이 솜털기계를 발명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되는 이 작품의 제1권에서부터 5권은 1836년 2월 22일 정약용의 회혼일 숨을 거둘 때까지의 전 생애를 다룬 책이다.

발해고

유득공 저, 송기호 편 / 도서출판 홍익출판사 / 2000 / 287쪽 / 10,000원

발해역사를 우리 역사 속에 처음 자리 매김한 실학자 유득공의 저서이다. 발해의 왕, 신하, 지리, 관청과 관직, 의식과 복장, 생산물품, 언어, 외교문서, 후예국가 등 9개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 이 책은 기존의 번역서와는 달리 가장 오류가 적은 판본으로 알려진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을 저본으로 삼았다.

송시열과 그들의 나라

이덕일 / 김영사 / 2000 / 397쪽 / 10,900원

조선후기 이후 성인 송시열을 비판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다. 그 위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는 동안 송시열은 하나의 신화가 되었다. 그리고 조선이 멸망한 이후에도 노론은 멸망하지 않았고 그 세력을 유지해 왔다.



## VI. 민족 문화의 발달

## 4. 문화의 새 기운

## 열하일기

박지원 저, 민족문화추진회 편 / 숲 / 2002 / 300쪽 / 7,500원

중국을 여행하며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서술한 책이다. 하지만 단순한 기행문이 아니라 문명에 대한 자세한 보고가 실려 있다. 청나라가 대륙을 평정해 번영과 평화를 누리던 때에 연암은 중국 땅에 들어가 그 곳의 주거, 성곽, 도로, 수레, 제도 및 생산도구 등을 부지런히 관찰하여 상세하게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의 정세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

## 오주석의 한국미 특강

오주석 / 숲 / 2003 / 280쪽 / 15,000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정리해 묶은 이 책의 제목은 『한국의 미』이지만 실제 내용은 ‘조선의 미’, 그 중에서도 ‘조선 그림의 미’라고 할 수 있다. 단원 김홍도 등 조선중·후기 화가를 주로 연구해온 저자는 그림을 통해 조선의 미를 조명하고 있다.

## 조선 사람들, 혜원의 그림 밖으로 걸어나오다

강명관 / 푸른역사 / 2001 / 247쪽 / 15,000원

그림 속 인물들의 옷차림, 갓, 옷매무새까지 들여다보며 이들이 누구인지, 어떤 지위에 있던 사람인지 밝혀내는 일까지 꼼꼼하기 그지없다. 아울러 깔끔한 참고 문헌 목록과 도판, 출처 목록을 말미에 덧붙인 것은 이 책이 그저 재미 삼아 지어지고 읽히는 데에서 벗어나 조선시대 생활사를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만한 책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 진경시대1~2

최완수 외 / 돌베개 / 1998 / 234쪽 / 9,500원

진경시대의 사상과 문화, 그리고 예술과 예술가들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최초의 연구서이다. 이 책을 통해 독자들은 조선왕조 문화의 절정기인 진경시대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적극 권할 만한 책이다.

## 오원 장승업(상, 중, 하)

민병삼 / 아세아미디어 / 2001 / 274쪽 / 8,000원

조선시대 말기 암울한 시대적 운명을 타고난 한 천재 화가의 광기 어린 삶과 자유로운 예술 혼을 통해 물질적 부와 세속적 권위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예술을 향한 순수한 열정만을 불살랐던 그의 장인정신을 읽을 수 있다. 시대를 초월하여 진정한 예술가가 걸어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다.

## 대동기문(상, 중, 하)

강효석 편, 이민수 역 / 명문당 / 2000 / 370쪽 / 12,000원

대동기문은 1926년 서울 한양서원에서 4권 1책으로 발간된 것이다. 조선시대 인물들을 역대 군주의 순서대로 나열하고 그들의 전기·일화·전설적 기행·시문 등을 간략히 서술하였다.

## 조선시대 그림속의 서양화법

이성미 / 대원사 / 2000 / 255쪽 / 14,000원

한국화를 비롯하여 동양 회화 전반에 남다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저자에 의해 조선 후기 새로운 양식의 하나인 서양화법이 우리 회화에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흥미 있게 감상할 수 있는 책이다.

## 가을 풀잎에서 메뚜기가 떨고 있구나

김성연 / 국학자료실 / 2001 / 344쪽 / 15,000원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은은한 맛을 느낄 수 있는 동양화를 일반인들도 쉽게 감상하도록 당시 회화와 작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수록해 놓았다. 특히 작가의 생애를 이해하기 쉽도록 각자의 생애 중 중요한 순간을 드라마처럼 구성하여 독자들이 각 작품과 이를 둘러싼 시대, 사회적 배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VI. 민족 문화의 발달

4. 문화의 새 기운

일상으로 본 조선시대 이야기 1~2

정연식 / 청년사 / 2001 / 248쪽 / 9,800원

‘말을 알아듣는 꽃’이 라 불린 기생들의 삶과 애환, ‘탈것’과 관련한 조선시대 사람들의 예법과 선망, 불교 승려들의 사회적 지위, ‘마마’라 불릴 만큼 두려움의 대상이던 두창 이야기 등 조선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었던 자질구레한 모습을 사료에 바탕해 충실히 복원해냈다.

고전소설 속 역사여행

신병주, 노대환 편 / 들베개 / 2002 / 290쪽 / 9,000원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고전 소설 16편, 그리고 풍속화와 문헌 등 관련 사료를 통해 조선시대 사회와 문화를 생생한 무늬로 되살려낸 이 책은 고전 소설만큼이나 다양하고 재미난 역사 여행으로 독자들을 이끌어간다.

한국의 문화유산 2

편집부 / 시공텍 / 2002 / 319쪽 / 25,000원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문화유산을 사진식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문화유산을 15개 분야로 나누어 자세하게 설명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 있다. 또한 4,000여 점의 사진과 일러스트 자료로 구성되어 그림만으로도 우리의 문화유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가보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 옛절에서 만나는 건축과 역사

김봉렬 글, 관조스님 사진 / 안그라픽스 / 2002 / 234쪽 / 15,000원

사진이 많고 편집이 시원시원하여 부담없이 책장이 넘어가는 장점이 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화엄사, 흥국사, 봉정사에서 청룡사, 정수사와 같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28개의 절에 관한 이야기이다. 우리 땅에 이런 건축이 있었구나 하는 느낌과 함께 정말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책이다.

강정일당

이영준 / 가람기획 / 2002 / 276쪽 / 9,000원

가난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나 온갖 불행을 겪고 인고의 삶을 살면서도 참담고, 선하고, 품위 있게 살며 자아실현의 길을 걸었던 강정일당의 삶과 학문을 소개한 책이다. 가정에서 여성의 직분을 다하면서도, 심성을 수양하고 진리를 탐구하여 성리학의 이치를 터득하고, 순수하고 편안한 달관의 경지에 이르렀던 그녀의 학문과 생애, 사상을 종합적으로 폈다.

실학 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 화성

김동욱 / 들베개 / 2002 / 272쪽 / 18,000원

수원 화성은 정조대에 건설된 조선의 대표적인 성곽 도시로, 18세기의 시대 정신인 실학이 도시와 성곽에 잘 드러난 아름답고 뛰어난 유적이다. 이 책은 화성 축성에 사용된 새로운 건축 사상과 기술, 축성 방법 등을 도면과 함께 보여주면서, 성곽이 아닌 ‘성곽도시’로서의 수원 화성을 안내한 책이다.

안동의 해학 : 김원길의 이야기 마당

김원길 / 도서출판 현암사 / 2002 / 142쪽 / 9,800원

구구절절 흘러나오는 안동의 이야기 속에는 안동 특유의 해학문화가 담겨 있다. 안동의 유머가 타지방의 그것과 다른 점이라면, 지배 계급에 대한 풍자보다는 시골 선비의 자기 실수담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익살의 주체는 상민이나 중인이 아닌 양반이며 그 양반이 새로운 문명을 접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같은 것들이 웃음을 유발한다.

VI. 민족 문화의 발달

판소리 더듬의 시학

4. 문화의 새 기운

정양 / 문학동네 / 2001 / 278쪽 / 10,000원

18세기에 생겨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또 그들의 슬픔과 한을 담아냈던 판소리에 대한 이야기다. 같은 작품이라도 창자(唱者)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해석되어 다르게 불러졌는데, 그 과정에서 생겨난 소리꾼들의 특징적인 더듬들에 저자가 주목하여 저술하였다.

책의 운명 : 조선~일제강점기 금서의 사회 사상사

이중연 / 예안 / 2001 / 560쪽 / 20,000원

우리 역사에서 있어왔던 금서의 역사를 한 권으로 정리한 책이다. 조선초기부터 일제강점기 까지를 편년체로 다뤘다. 저자는 금서는 단순히 책 '한 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지배사상·질서의 유지와 연관된 문제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기에 충분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금서정책이 권력의 정당성 여부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

도자기와의 만남 : 잃어버린 우리의 정신과 역사를 찾아서

전중진 / 리수 / 2001 / 239쪽 / 13,000원

고려청자와 조선백자와 같은 우리 도자기의 놀라운 아름다움의 실체를 일반인들에게 꼭 알려줘야겠다는 열정으로 쓴 매우 쉽고 재미있게 쓴 책이다. 저자는 도예가도, 미학이나 도자사를 전공한 것도 아니지만 도자기를 설명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나, 황진이

김탁환 / 푸른 역사 / 2002 / 346쪽 / 15,000원

조선의 명기라 일컫는 황진이의 이야기를 다룬 소설이다. 그러나 여는 소설과는 달리 황진이의 내밀한 심경을 형상화한 백범영 화백의 수묵화 60여 점이 수록되어 있다. 주석판에는 『나, 황진이』의 창작과정을 유추할 수 있는 6백여 개 주석과 작가의 창작 보고서, 소설 창작의 밑거름이 된 관련문헌이 수록되어 있다.

완당평전 1~3

유홍준 / 박고재 / 2002 / 408쪽 / 25,000원

우리가 흔히 추사라 알고 있는 김정희에 관한 글이다. 그는 우리 나라 최고의 서예가, 시와 문장의 대가, 금석학과 고증학에서 당대 최고의 석학, 문인화의 대가로 알려진 인물이다. 보통 사람들로서는 제대로 이해하는 것조차 어려운 정도인 추사의 예술적 경지를 미술사학자의 인문적 상상력과 방대한 자료를 합쳐 새로운 형식의 완당평전으로 내놓은 것이다.

이야기가 있는 경복궁 나들이

강경선 외 / 역사넷 / 2000 / 271쪽 / 9,000원

경복궁에 관해 좀더 쉽고 재미있게 쓰여졌으며 답사하는 사람들이 자기 발로 궁궐을 돌아다니며 그곳에서 스스로 역사와 전통의 향기를 맡으며 즐거워할 수 있게 안내하고 있다. 직접 발로 찾아가 역사의 숨결을 느끼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알맞은 안내서가 될 것이다.

VII. 근현대사의 흐름

고종시대의 재조명

1. 근현대의 정치 변동

이태진 / 태학사 / 2000 / 452쪽 / 15,000원

우리는 일반적으로 고종은 세계 정세에 어두워 문호개방도 늦었을 뿐더러 국왕의 무능력으로 근대화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여 결국 일본에 의하여 국권을 빼앗기는 민족사의 일대 오점을 남긴 시대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책은 한국의 국권을 빼앗은 일본이 그 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국권 침탈기부터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역사적 사실을 다각적으로 밝히고 있다.

Ⅶ. 근현대사의  
흐름

1. 근현대의 정치  
변동

고쳐쓴 한국근대사

강만길 / **장작과 비평사** / 1994 / 324쪽 / 8,000원

한국의 근대화 즉 개항 이후부터 일제시기를 다룸으로써, 조선사회에 내재해 있던 정치 경제 사회면의 긍정적인 전망들에 대해 철저한 해부를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21세기 한국사회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주기도 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고쳐쓴 한국현대사

강만길 / **장작과 비평사** / 1994 / 324쪽 / 8,000원

조선후기부터 최근 전두환·노태우 정권과 문민정부의 등장까지 서술하고 있는 이 책은 원저 출간 이후 10년간 축적된 역사학계의 업적과 그 동안 이용할 수 없던 북한 학계의 연구성과까지 아우르면서 원저를 전체적으로 손질하여 증보한 것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사 연구

이현희 / **예안** / 2001 / 630쪽 / 30,000원

1919년 4월 이후 중국 상해에 자리잡기 시작한 임시정부의 터 닦기에서부터 시작하여, 1920년대 이동녕·김구·이시영 등 임정지도자 40여명이 광복정책을 펴 나가기 시작한 시기의 역사적 상황과 의미를 이해시켜준다.

한권으로 보는 해방후 정치사 100장면

김삼용 / **가람기획** / 1999 / 428쪽 / 9,000원

일제의 사슬에서 풀려난 8·15해방에서부터 김대중 집권까지 파란과 격동의 해방 후 정치사 가운데 역사의 전기를 이루었다고 생각되는 102대 정치사건을 엄선, 주목을 끈 보도사진 110여 컷과 함께 엮었다.

백범일지

김구 / **돌베개** / 1997 / 500쪽 / 9,500원

27년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어온 독립운동가이자 자신의 전 생애를 조국과 민족을 위해 바친 거대한 큰 스승 백범. 일제의 침략 아래 신음하는 우리 민족의 살길을 열고자 해방된 통일조국 건설에 혼신의 힘을 다하다가 끝내 비명에 간 백범의 생애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한국사 39 : 제국주의 침투와 동학농민 전쟁

고동환 외 / **국사편찬위원회** / 1999 / 524쪽 / 6,300원

제국주의 열강의 침투 편에서 청의 간섭과 조선의 대외 관계, 항후의 사회경제적 변동 편에서는 개항 후 국제무역과 사회신분제의 동요과정을 알 수 있다.

의병과 독립군

윤병석 / **세종대왕기념사업회** / 2000 / 252쪽 / 6,000원

항일의병의 역사적 배경, 의병의 봉기와 항쟁, 의병의 항일전쟁, 독립군의 역사적 배경, 독립군의 편성과 항전, 독립군의 정비와 장기 항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이 일제식민지하의 억압에도 굴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행동한 의병과 독립군을 통하여 나라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의 모델을 제시해준 책이다.

증언 반민특위 : 잃어버린 기억의 보고서

정운현 / **삼인출판사** / 1999 / 273쪽 / 9,000원

해방 후 친일파 청산이 무산됨으로써 우리 현대사는 반민주적 반공 독재의 뒤틀린 길을 걸었다. 친일파 연구가 정운현씨가 쓴 이 책은 친일 권력층의 철저한 은폐로 가려져 왔던 반민특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던 주요 인사 7명의 증언으로 복원한 최초의 반민특위 증언집이다.

Ⅶ. 근현대사의 흐름

1. 근현대의 정치 변동

3.1운동

김진봉 / 국학자료원 / 2000 / 264쪽 / 13,000원

3·1운동은 일본의 무단통치하에서 억눌렸던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 역량을 확인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독립의지를 전세계에 천명함으로써 약소 민족 국가들에게는 독립의 의지를 갖게 해 준, 민족해방운동의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광주학생운동 연구

한국역사연구회 외 / 아세아출판사 / 2000 / 341쪽 / 16,000원

광주학생운동은 당시 학생층이 중심이 되어 일으킨 운동이었지만, 신간회와 조선청년총동맹 등 민족운동단체가 이를 지원하여 전민족적인 봉기로 발전시켰으며, 광주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세력들은 1930년대에도 국내외에서 민족운동을 주도하였다. 이 책은 광주학생운동의 발발 배경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는 검토를 하고, 또 광주학생운동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 짚어보는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독도평전

김탁환 / 휴머니스트 / 2001 / 266쪽 / 8,000원

우리는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길 때마다 흥분해서 규탄하지만 정작 독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다. 그저 “독도는 원래부터 우리 땅” 이라고 믿을 뿐 이 작은 섬이 걸어진 발자취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 책은 독도의 모든 것을 담으려 하며, 직접적 관련을 맺고 있는 울릉도를 함께 다루고 있다. 그리고 소설가가 쓴 책답게 사실과 허구가 적절히 교차되고 있다.

백두산정계비와 간도영유권

윤낙현 / 백산자료원 / 2000 / 392쪽 / 12,000원

저자는 이 책에서 만주 영토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만주를 잃어버린 고토로 인식하였기 때문인지 만주에 대한 자료 발굴과 연구를 통해서 조선과 청나라간 국경문제 논란이 되었던 간도영유권만은 회복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Ⅶ. 근현대사의 흐름

2. 근현대의 경제 변화

객주 1~9

김주영 / 문이당 / 2003 / 300쪽 / 81,000원

조선 후기 유랑 보부상의 삶과 애환을 그린 대하소설이다. 조선시대 토속어와 서민언어가 작품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읽는 재미를 한결 돋구어준다. 상리(商利)와 정의(情誼) 사이에서 고뇌하는 보부상들의 생활, 시전과 난전의 충돌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절묘하고 흥미진진하게 묘사했다.

한국 근대사회와 보부상

조재근 / 혜안 / 2001 / 335쪽 / 18,000원

조선 후기 장시와 포구에서 봉건시기에 활발하게 활동하는 영세 소상인인 보부상을 정치적 상인의 범주에 두고 정치경제사적 시각에서 그 실체를 구조적, 과학적으로 분석했다. 개항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더욱 강해지고 역할도 증대된 이유와 계속되는 보부상들의 독점과 특권 확보에 대해 자세하게 서술했다.

조선의 큰부자 1

이용선 / 하늘출판사 / 1997 / 348쪽 / 8,000원

우리의 근대 상업사는 정치·사회적 격변 속에서 시류를 따라 술하게 명멸해간 거상과 부자들의 역사이기도 했다. 그러나 돈벌이를 천시하는 봉건적 풍토 때문에 이들의 행적은 거의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 개인사에 담긴 인생 역정과 더불어 돈벌이에 얽힌 다양한 일화를 통해 개화기 경제사의 한 단면을 읽을 수 있다.

Ⅶ. 근현대사의 흐름

2. 근현대의 경제 변화

우리는 지난 100년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3

한국역사연구회 / 역사비평사 / 1999 / 285쪽 / 9,000원

우리는 근대를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어떻게 건설해 왔는가, 또 이를 이루려는 과정에서 얻은 것은 무엇이며 잃은 것은 무엇인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오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아가는가, 우리는 이러한 의문들을 살아 움직이는 인간과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살펴보았다.

남북한 경제구조의 기원과 전개

김성보 / 역사비평사 / 2000 / 404쪽 / 18,000원

1945년 8·15해방부터 195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 남북한에서 성립된 분단 농업구조의 기원과 전개과정을 밝히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일제강점기에 성립되었던 식민지적이며 지주제 중심의 농업구조가 해방 후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어떻게 해체되고 변동하였는지를 다루고자 했다.

1960년대 한국의 공업화와 경제구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 백산서당 / 1999 / 237쪽 / 8,000원

1960년대 한국의 공업화와 그 특징, 1960년대 한국의 개발 전략과 산업정책의 형성, 1960년대 기업 집단의 형성과 구조, 1960년대 한국의 노동 정책과 노사 관계 등 4편의 글을 실었다. 따라서 이 책을 통해 1960년대의 공업화 과정과 그 과정에서 형성된 재벌 그리고 불평등한 노사관계 등에 대해 살펴볼 수 있다.

이슈로 본 한국현대사

이동현 / 민연 / 2002 / 343쪽 / 12,000원

저자가 머리말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기존에 공개된 자료 외에 새로운 자료 발굴과 수많은 관련 당사자들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역사의 숨은 그림을 찾아내려고' 애썼다. 특히, 목차 중 '박정희와 삼성'은 현대의 경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한강 1~10

조정래 / 해냄 / 2001 / 345쪽 / 각권 8,000원

우리 시대의 작가 조정래는 지난 세월을 '글감옥'이라고 말했다. 20년 글감옥에 갇혀 지내며 쏟아낸 한국현대사 시리즈의 마지막 작품이 『한강』이다. 4·19, 5·16, 10월 유신과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과 6월 항쟁에 이르기까지, 세계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든 격동의 세월을 10권의 책으로 묶어 놓았다.

Ⅶ. 근현대사의 흐름

3. 근현대의 사회 변동

프랑스 외교관이 본 개화기 조선

글리브 보티에, 이브리트 프랑댕 지음 / 태학사 / 2002 / 150쪽 / 7,000원

1902년 프랑스 외교관이었던 프랑댕이 한국을 여행하고 작성한 비망록 형식의 간단한 견문기이다. 그러나 한반도를 에워싼 국제정세와 동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예리하게 분석하고, 문화에 대해서도 동양의 고유한 정서를 이해하려고 한 흔적이 보인다.

내 기억 속의 조선, 조선 사람들

퍼시벌 로웰 지음, 조경철 옮김 / 예담 / 2001 / 312쪽 / 12,000원

100여 년 전 조선을 찾은 한 미국인 천문학자의 기행기이다. 다양한 정보와 지식으로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지리, 종교 등 각종 문화 전반에 대하여 묘사한 그의 문장은 무척 세세하다. 특히 우리에게 익숙한 한지와 웃고름, 모자(갓과 망건 등)에 대한 그의 묘사는 새로운 느낌을 전해준다.

## VII. 근현대사의 흐름

## 3. 근현대의 사회 변동

## 전통과 서구의 충돌

역사문제연구소 / 역사비평사 / 2001/ 240쪽 / 9,000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진으로 참여한 이 책은 다루는 주제 또한 다양하다. 지은이들은 건축, 의학, 성, 가족, 철학 등 모두 10가지 분야에서 전통과 근대의 만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이루어진 변화의 양상들은 무엇인지 하나씩 설명해 나간다.

## 신여성들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최예실 / 생각의 나무 / 2000 / 398쪽 / 9,000원

개화기 '신여성'을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재조명한 보기 드문 저자이다. 저자는 김명순, 나혜석, 김원주 등 이른바 '신여성'이라 불리었던 여성들의 문학과 글씨 많았던 삶의 궤적을 추적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활동했던 1920~30년대 지식인 사회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녀들에게 가해졌던 문화적·심리적·경제적 억압의 정체를 두루 살피고 있다.

## 일제시대의 조선 생활상

H. B. 드레이크 지음, 신복룡 옮김 / 집문당 / 2000 / 224쪽 / 10,000원

일제에 고용된 한 영국인 교사가 1930년대의 한국인의 생활과 대일 인식을 살펴본 책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제 3자의 눈으로 본 당시 조선의 생활 풍속을 살펴보고 있다.

저자는 일본의 제국주의를 비난하는 동시에 한국인에게 망국의 책임을 물으며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일관계사를 기술하고 있다.

## 역사신문 5 : 개화기(1876~1910)

역사신문편찬위원회 / 사계절 / 1996 / 130쪽 / 9,500원

개화기(1876년~1910년)에는 서양의 근대문물이 들어오면서 철도와 전차가 생기는가 하면, 상투를 자르고 양복을 입기 시작하는 등 우리들의 생활양식과 사고방식이 크게 바뀌기 시작했다. 르포나 상보(詳報) 형식으로 당시 사건을 생생하게 재현하고, 자본주의 사회로 서서히 변모해 가는 모습을 당시 발행되고 있던 각종 신문 광고를 통해 알 수 있도록 하였다.

## 역사신문 6 : 일제강점하(1910~1945)

역사신문편찬위원회 / 사계절 / 1997 / 130쪽 / 9,500원

우리 민족에게는 어둠과 괴로움의 시대인 일제 강점기(1910년~1945년)를 다룬 사계절출판사의 "역사신문" 시리즈 마지막 권이다.

"역사신문"에서는 이 시기를 민족해방을 위한 전 민족적 노력의 시대로 보고 민족해방을 위한 각 계각층의 동향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 상투의 나라

L. H. 언더우드 지음, 신복룡 외 옮김 / 집문당 / 1999 / 312쪽 / 13,000원

1888년 한국에 도착한 후, 의사로 활약한 저자가 조선의 첫인상부터 직접 목격한 궁중 생활과 궁중의 뒷 이야기, 관서·관북지방 여행, 초대 교회의 어려움, 갑신정변과 청일전쟁, 을미사변과 아관파천 등 격동의 한말 모습을 폭넓게 기록한 책이다. 또한 글과 함께 사진 42장을 수록했다.

## 서울 근현대 역사기행

정재정 외 / 예안 / 1998 / 398쪽 / 12,000원

한국근현대사 전공자들이 쓴 이 책은 서울 시내의 건물과 공원과 길목마다에 깃들여 있는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역사문화 답사기이다. 그 동안 까맣게 잊고 살았던 지명에 얽힌 역사의 애환들이 저자들의 차분한 발걸음을 통해 문득 되살아난다. '서울, 아는 만큼 보인다'를 일깨우는 책이다.

Ⅶ. 근현대사의  
흐름

3. 근현대의 사회  
변동

우리는 지난 100년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1

한국역사연구회 / 청년사 / 1996 / 282쪽 / 9,000원

지난 100년 간 우리 한국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생활문화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책이다. 이 책에서는 지난 100년 간 우리의 삶과 문화는 우리에게 '문화'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들어왔는지, 그것을 내면화하는 과정이 어떠한지를 과학기술, 의료, 교육 등의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고 있다.

우리는 지난 100년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2

한국역사연구회 / 청년사 / 1998 / 324쪽 / 9,000원

사람과 사회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 책은 '근대'라는 새로운 시간의 등장으로 파생된 새로운 공간에서의 사람들을 다루고 있다. 근대를 통해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와 이 과정에서 생겨난 부정적인 모습들, 즉 전쟁, 매춘, 지역 감정, 환경 오염 등도 들여다보면서 지난 시기의 치열했던 사회상과 생활상을 고찰하고 있다.

나눔의 집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찾아서

나눔의 집 역사관 후원회 엮음 / 역사비평사 / 2002 / 207쪽 / 9,000원

1998년 8월 14일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이 문을 열었다. 이 책은 역사관을 널리 소개함으로써 새로운 인권 개념과 평화를 만들어 가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된 것이다. 역사관을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이들이라도 이 책을 통해 실제 역사관을 방문한 것처럼 보이게끔 사진자료도 충분히 수록하고 있다.

돌베개 : 장준하전집 1

장준하 / 세계사 / 1992 / 424쪽 / 9,000원

"돌베개"는 장준하 선생이 일본군을 탈출한 1944년부터 1945년 광복 전후까지의 일을 일기 형식으로 엮은 기록물이다. 장준하 선생은 독립투사이자 박정희 대통령 시절 독재 정권과 싸운 민주투사이다. 나라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평생동안 '돌베개'를 베었던 분을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도록 하는 귀중한 지침서이다.

신돌석 : 백년 만의 귀향

김희근 / 푸른역사 / 2001 / 272쪽 / 10,000원

전설로만 전해 내려오는 '신돌석'이란 인물을 역사적 맥락에서 새롭게 조명하는 책이다. 그에 대한 사료가 극히 적은 탓에, 지은이는 신돌석의 고향 마을부터 당시 판결문과 신문 기사 등 모든 것을 직접 찾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신돌석의 용모와 신분, 의병 활동 상황,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등 그의 삶을 구체적으로 복원해낸 지은이의 노력이 돋보인다.

전태일 평전

조영래 지음 / 돌베개 / 2001 / 320쪽 / 9,000원

불꽃같은 삶을 살다 간 노동자 전태일의 일대기로 조영래 변호사가 썼다. 청계천 평화시장의 노동자였던 전태일은 어린 여성 노동자들이 비인간적 노동환경에서 쓰러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노동운동에 눈을 떠간다. 노동법에는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어 있으나, 법이 지켜지지 않는 현실 앞에 그는 분신 자살로 경종을 울린다.

Ⅶ. 근현대사의  
흐름

4. 근현대 문화의  
흐름

우리 과학 100년

박성래, 신동원, 오동훈 / 현암사 / 2001 / 359쪽 / 20,000원

20세기 한국 과학의 흐름을 시대별 과학, 의학 기술의 발전과 과학 교육 기관의 변화를 중심으로 서술하였으며, 한국근현대사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과학자의 삶도 함께 조명하였다. 특히 해방 이후 시대에서는 원자력 개발,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포항공대 등 현대 과학사에 획을 그은 굵직한 주제에 주목하였으며, 북한 과학의 모습도 일부 소개하였다.



Ⅶ. 근현대사의 흐름

4. 근현대 문화의 흐름

역사신문5 : 개화기

역사신문편찬위원회 / 사계절 / 1996 / 130쪽 / 9,500원

“역사신문” 5권은 우리 격동의 시기였던 개화기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신문 of 장점을 살려 같은 사진이 기사로, 사실로, 만평으로, 칼럼으로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여러 각도에서 사건을 바라볼 수 있게 함으로써 역사에 대한 안목을 높여주며, 다방면에 걸쳐 전개된 역사적 격동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게 해준다.

일제는 조선을 얼마나 망쳤을까?

김상용 / 사람과 사람 / 1998 / 286쪽 / 6,800원

한·일간의 어둡고 참담한 과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대별, 주제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식민지 치하 일제가 얼마나 잔학한 행위를 일삼았는가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기성세대와 달리 한일관계의 참담한 역사를 외면하고 있는 일부 청소년 및 신세대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게 해주는 역사 교양서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 개화기~해방기

이배용 외 / 청년사 / 1999 / 281쪽 / 9,000원

50편의 짧은 에세이들은 여성으로서의 출생에서부터 교육 혼인, 출산, 시집살이, 가사노동, 애환, 사랑, 예술세계, 치장, 신앙 등 여성사의 이면을 훑어낸다. 구성을 보면 먼저 경제활동과 일상생활편, 정치활동과 민족운동편, ‘최초’를 연 여성들의 영광과 시련편, 결혼과 가족편, 경제활동과 일상생활편, 정치와 궁중생활편, 종교와 문화활동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박은식과 신채호 사상의 비교 연구

배용일 / 경인문화사 / 2002 / 360쪽 / 20,000원

박은식과 신채호의 사상을 비교 연구한 것으로 고유명사나 전문적 용어를 제외하고 읽기 쉽도록 재편집하고, 부록과 색인을 추가하여 엮은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하여 두 사상이 대립적이거나 배타적인 이념으로 형성된 별개의 사상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근대 한국독립운동사상의 양대 산맥으로서 큰 의미를 두었다.

조선어학회와 그 활동

정순기 등 / 한국문화사 / 2001 / 227쪽 / 8,000원

조선어학회 창립 당시의 사회·역사적 배경과 조선어문 운동의 실태, 조선어 맞춤법 통일안의 작성, 조선어 표준말 모음의 작성, 외래어 표기법 통일안의 작성 등을 통해 우리의 기억 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일제 식민지통치의 암담한 시기를 돌이켜보면서 조선어학회의 활동과 관련한 자료를 모아 엮었다.

역사왜곡과 우리의 역사 교육

김한중 / 책세상 / 2001 / 180쪽 / 4,900원

우리 역사 교육의 현주소를 점검하며 바람직한 역사 교육을 위한 실천적인 방안들을 제시하여, 단발적인 논의에서 그치고 마는 역사 교육이 아닌 고유한 사고 방식이나 구조를 가진 하나의 독자적 영역으로서 학문적 논의가 구축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새로 쓰는 이육사 평전

김희곤 / 지영사 / 2000 / 238쪽 / 10,000원

일제시대, 우리에게 몇몇의 저항시인이 있었으나 저작과 행적 모두에서 완전한 저항의식을 보여준 이로 이육사 만한 인물이 없을 것이다. 그 동안 주로 문학에 치우쳐 왔던 이육사에 대한 평가와는 달리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성품, 반일투쟁의 내력을 자세하게 추적할 수 있어 추천한다.

Ⅶ. 근현대사의 흐름

4. 근현대 문화의 흐름

윤동주 평전

송우예 / 세계사 / 1998 / 436쪽 / 15,000원

윤동주의 출생부터 죽음까지를 주변 사람들의 기억과, 취재한 사실을 바탕으로 매우 성실하게 기록하고 있다. 작가는, 대상에 대한 절도있는 애정과 문학적 소양을 기반으로 시인의 일생을 훌륭하게 책 속에 되살려 놓았다. 사망한 지 이미 반세기가 지났지만, 그의 시대를 함께 보낸 사람 들로부터 얻어낸 생생한 증언들은 흑백사진 속의 창백한 시인이었던 윤동주를 생동하는 인간으로 부활시킨다.

가즈오의 나라 1~2

김진명 / 애념출판사 / 2003 / 336쪽 / 각7,500원

광개토대왕비에 숨겨진 비밀을 모티브로 입나일본부설의 조작된 역사적 허위를 고발하는 작품이다. 할아버지를 죽게 한 민족의 배신자에게 입양된 한국인 아이 '가즈오'는 어느 날 출생의 비밀을 알고 정체성의 혼란과 정신적 충격으로 괴로워한다. 한편, 광개토대왕비의 비밀을 연구하던 제일 유학생 박상훈은 교묘한 방법으로 살해당한 일본의 역사학자 가네무라 준이치의 집에서 역사의 비극을 목도하게 된다.

달라진 남한말과 북한말

자중환, 전용택 / 예가 / 2002 / 407쪽 / 12,000원

우리 나라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여 남북한 정상 회담을 했다. 이처럼 남북한의 화해 무드가 조성되고, 공공연히 언젠가 통일 시대가 올 것이란 말이 나오는 이 시대에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가장 큰 과제는 언어의 통일이다. 통일을 앞둔 우리에게 이질화를 극복하고 경제, 문화, 사회, 체육, 학술 교류를 위해 떠나려는 사람들을 위해 북한 언어를 사전식으로 편집한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한국 근대교육의 태동

김기석 / 교육과학사 / 1999 / 116쪽 / 4,000원

조선문명과 서양문명의 교섭에서 비롯된 외교적, 문화적 접촉, 갈등 및 타협 등에 주목하여 우리나라 근대 교육의 기원을 밝힌 책으로서 개항과 신식 관립학교 등 개신교의 자력 수용과 신식 학교의 등장 등을 설명했는데, 한국교육의 독특한 현실을 치밀하게 분석한 연구성과를 묶어 간행하였다.

# 지 리

## ▣ 한국지리

여러지역의 생활  
산지지역

### 가야산과 덕유산(답사여행의 길잡이13)

한국문화유산답사회 편/도서출판돌베개/2000년/304쪽/9,000원

우리의 문화유산과 유적지를 체계적으로 소개하는 답사여행의 길잡이 시리즈 열 세 번째 권인 이 책은 호국불교의 성지 가야산과 덕유산 주변 지역의 답사여행 안내서이다. 우리 문화유산을 직접 느끼고 만져보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여행을 감성의 과소비가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계기로 삼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답사여행 안내서이다.

### 가족과 함께 떠나는 영월여행

최병성 외 저/도서출판 가족/2002년/194쪽 /10,000원

마지막 남은 자연의 보피는 동양이 자랑하고 있는 영월사냥을 서장 자암이 최병성과 사냥가 임종선이 영월의 강 산 유적 박물관 축제 레저뿐만 아니라 여행 코스 먹거리 숙박 교통 정보까지 꼼꼼하게 영월에 관한 모든 것을 수록했다.가족과 함께 여행할 때 참환한 여행 가이드로 풍부한 사진이 수록되어 있어 영월을 가코자 하는 이들에게 올바른 지침이 될 수 있는 책이 될 것이다.

### 답사여행의 길잡이 동해·설악

한국문화유산답사회 엮음/ 돌베개 / 1994년/ 311쪽 / 9,000원

강원도 평창과 오대산 정선 영월 그리고 동해 삼척 강릉, 명주, 양양 설악 고성 일대를 9개 코스로 엮은 여행 안내서이다. 관동은 훌륭한 옛 건축과 지방문화가 남아 있다. 그리고 키르스트 지형 해안지형 그리고 교방지 농업이 발달한 지역으로 그 사례지역을 찾아볼 수 있다. 이 책은 관동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지리적 환경을 관광 정보지도, 교통정보, 숙박 정보와 함께 흥미롭게 설명한 책이다.

여러 지역의 생활  
해안지역

### 강화도- 빗갈있는 책

이형규/ 대원사 /1996년 / 136쪽/ 4,800원

역사상 국난 극복의 상징인 강화도는 우리나라의 상징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은 강화의 지리와 환경 역사와 유적 현황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에 이르기까지 강화도에 대한 모든 것을 사진과 함께 간략하게 담고 있다.

여러 지역의 생활  
수도권

### 부끄러운 문화 답사기

기록문학회 지음/ 실천문학사/ 1997년/ 338쪽 / 7,500원

<기록문화>학생들이 3년에 걸친 답사와 취재를 통해 우리나라 지방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형의 일제 잔재물들을 모아서 그들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기록한 문화 답사기이다. 이 책은 일본의 식민 정책이 우리 국토와 우리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남아서 각 지방의 특성으로 잔존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여러 지역의 생활  
수도권

### 사라져가는 오지마을을 찾아서

**이용한 지음 / 실천문학사 / 1998년 / 290쪽 / 10,000원**  
강원도, 경상도, 충청도, 그리고 전라도의 오지마을을 찾아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생활모습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골짜기, 냇물 등의 원시형태의 집과 그 속에 간직된 애절한 전설까지 담았다. 여기에 현자의 삶 역사 흔적 마을 스케치 등 3백여 장의 사진도 소중한 볼거리이다.

여러 지역의 생활  
평야지역, 산지지역

### 서울 근현대 역사기행

**정재정의 2명 지음 / 예안 / 1998년 / 398쪽 / 12,000원**  
우리나라 수도로서 오랜 역사를 담고 있는 서울의 모습을 역사적 사건의 현장을 중심으로 사진과 함께 답사할 수 있는 책이다. 옛 역사의 생생한 흔적을 지닌 곳의 오늘날의 모습과 의미 그리고 그 지역적 특징의 유래도 알 수 있다.

### 배낭 하나에 담은 여행

**김산환 저 / 성하출판 / 2001년 / 301쪽 / 10,000원**  
지리산 주에서 삼진강 강물여행까지 우리나라 구석구석 숨은 비경을 찾아 떠날 때 2박 3일 일정으로 짜여진 국내 유일의 배낭여행 가이드 북

여러 지역의 생활  
해안지역

### 섬 내가 섬이 되는 섬

**최성민 지음 / 김영사 / 2002년 / 309쪽 / 14,900원**  
북녘 땅과 눈앞사나하는 환상의 섬 연평도. 서울 사람이 하루에 다녀올 수 있는 새로운 섬 영흥도. 찬수만 한 가운데 일렁이는 대숲 바람의 흥성 죽도. 무성한 들꽃이 피어나는 여자들의 낙원 선유도. 섬 여행을 위한 필수 정보들과 함께 재미있는 바다 이야기 따뜻한 섬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컬러사진과 함께 담았다.

여러 지역의 생활  
평야지역, 산지지역

### 산 깊은 강

**박원식 글 서준영 사진 / 산악문학 / 2001년 / 311쪽 / 18,000원**  
산간의 강을 찾아가는 취재 여행 그것은 숨겨둔 연못의 밀화처럼 흥겹고도 황홀하며 깊은 산 푸른 숲 사이를 고요히 흐르는 강물의 미모에 신성한 숲결에 그윽한 서정에 마음껏 도취될 수 있는 길라잡이가 될 것이다.

생활권 형성가능  
서비스 산업

### 걸어서가던 한양 옛길

**김정호 / 향지사 / 1999년 / 371쪽 / 10,000원**  
신라도가 붕괴되기 전 제주를 출발해 한양에 이르기까지 가졌던 크고 작은 고을들에 대한 역사 지리적 기록을 정리했다. 특히 그 곳의 지명 유래와 교통요건 등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생활권 형성 가능  
서비스산업

### 관광과 세계의 이해

**김선희 외 / 백산 / 1999년 / 282쪽 / 12,000원**  
관광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과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환경에 대한 체계적인 인식을 담은 책 기존의 경제논리에서 벗어나 문화활동으로서의 관광을 인식하고 세계 각 대륙에 대한 종합적인 지역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엮었다.

지리개념

### 고교생을 위한 지리 용어 사전

이우평 저 / (주)신원문화사 / 2002년 / 334쪽 / 6,500원

많은 학생들이 사회공부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다른 과목에 비해서 준비도 상당히 소홀히 하는 것이 사실이다. 학생들이 참고서나 문제집에만 의존하는 것 보다는 이런 좋은 책들을 곁에 두고 자주 찾아보아야만 깊이 있는 공부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추천합니다.

세계와 지리

### 고대의 여행 이야기

라이오넬 카슨 지음/ 김향 옮김/ 가람기획/396쪽/13,000원

고대인들의 여행목적과 교통수단, 관광명소, 관광상품등을 이집트 고왕국 시대의 비문에서 기록된 여행에서부터 AD 45세기 기독교도의 순례여행까지 고대 세계의 여행을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다. 오늘날 남부 유럽의 여행 풍속도와 비교 분석할 수 있고, 그곳의 역사정보와 지리정보를 함께 알 수 있는 도서이다.

전영역  
인문환경 및  
자연환경

### 교실밖 지리여행

노용희 저 / 사계절 / 2002년 / 310쪽

차라코파서는 학생들이 알아야 할 핵심 주제만을 다루었지만 학생의 흥미를 자극하는 주제가 별로 없다. 왜냐하면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인 주제 변경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 책은 교과서에서 다루기 힘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학생들이 자다가 단순한 암과 목이 아니라 사실 인식을 할 수 있는 책이다.

국토의 이해  
지역생활권의  
형성

### 국토는 향기롭다

이영권 저 / 미래사 / 1996년 / 341쪽

지리학은 지표 공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우리 국토의 곳곳을 다니면서 그 속에 스며 있는 국토공간 속에서 산인들의 문화적 흔적을 추적하고 분석하여 국토에 스며 있는 조상의 혼과 정신을 느낄 수 있다. 우리 국토의 소중한 가치를 깨우치기 위한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국토의 자연환경  
기후와 생활

### 국토와 민족 생활사 : 한국 역사 지리학 논고

최영준 저 / 한길사 / 1999년 / 374쪽 / 22,000원

우리나라의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성 형성의 배경을 밝혀보고자 선조들의 삶의 자취가 현 재의 문화 경관 속에 그리고 현지 주민들의 의식과 생활환경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민통 각 지역의 특성을 주민의 생활사를 바탕으로 밝히는 것으로 과거의 지역개발 활동과 추락 기류 등 거주 환경의 변화상을 생활사적 측면에서 고찰한 것이다.

국토의 자연환경  
지형과 생활

### 지구의 생성과 진화

유강민 지음 / 시그마프레스 / 2002년 / 354쪽 / 12,000원

초기 태양계와 지구 생성부터 생성 후 현재까지를 여러 주제로 나눠 다루고 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지구를 이해할 수 있다. 지구를 올바르게 알기 위해 각 방면의 내용을 요약해 기본적인 것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질문답변 형식으로 그 동안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흥미로운 내용들로 구성했다.

국토의 자연환경  
해안지형

### 지리로 보는 세상

지리교사 모임 "지평" 저 / 도서출판 문장 1998 / 368쪽 / 9,000원

지리를 알면 세상이 아름답게 그리고 새롭게 보인다고 이 책의 저자인 지평 선생님들의 말씀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공간의 다양함을 이해하고, 인간다운 삶의 터전을 가꾸는 사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 책은 고등학교 지리과목에서 다루는 주제들을 교과서 단원과 배치시키면서 쉽게 재미있게 풀어 가고 있다.

국토의 자연환경  
인간생활

## 풍토와 인간

와쓰지 데쓰로우 저 / 도서출판 장승 1993 / 280쪽 / 5,500원

근대 일본 사상계를 주도했던 와쓰지 데쓰로우가 남긴 불후의 명저 《풍토》를 국내 최초로 번역한 책 저자는 풍토를 문순·사막·목장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뒤 이를 각 지역의 예술민족의 기질 등과 연결하여 풍토 속의 인간 존재와 문화를 명쾌하게 포착하고 있다.

국토의 자연환경  
석회동굴

## 한국의 동굴

홍시환 저 / 대원사 / 1990년 / 127쪽 / 4,800원

우리나라 전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석회 동굴 용암 동굴 해식굴 등의 지형지물과 동굴에서 살고 있는 생물들을 지역별로 정리 소개하였다. 지역 지역적인 문제들로 일반인들이 쉬이 접근하기 어렵거나 가까이 스쳐 지나친 동굴들을 사진 도면 관련 글들을 통해 만나 볼 수 있어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유용한 교육 자료로도 쓰일 수 있다.

국토의 자연환경  
한반도의  
과정

## 한국의 자연과 인간

김정배 외 저 / 우리교육 / 1997년 / 248쪽 / 8,500원

벌에는 이동성 교집과 자가집이 한반도를 반강아 자기바로 번락스러운 날씨가 생겨나다 우리가 사는 한반도에는 얼마나 많은 지식과 정보들이 감추어져 있을까 이 책은 4명의 학자들이 자연 인간 등 한반도의 모든 것을 잡아내려 것으로 한국의 자연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추천한다

생활권의  
변화  
인구 도시  
개발

## 국토와 환경

이른과 실천 모임 엮음 / 2002년/한울아카데미/563쪽/35,000원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간에 관한 논의를 세계화 개방화시대 지식기반시대 정보화시대 지속 가능한 시대를 중심으로 진행한 책이다. 식민도시 지역계획 기술혁신과 신산업공간 주거공간, 환경정책에 관한 자세한 개념 설명과 실천 지향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생활권의  
변화  
인구, 도시

## 지리로 읽는 대구이야기

송언근 저 / 영한 / 2002년 / 244쪽 / 7,500원

대구를 대상으로 그 속에 내재해 있는 자적 의미를 찾아 해석한 책 어떻게 하면 교실 속의 지리가 아닌 삶 속의 지리가 될까 시험을 위한 지식이 아닌 내 삶의 터전을 지리적으로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이 될까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했다. 아울러 독자들에게 지리적 흥미와 호기심을 부여하고, 세상을 지리적으로 보는 안목을 기르는 계기를 마련했다.

생활권의  
변화  
인구, 도시

## 지리학 강의

한국지리정보연구회/ 한울아카데미/ 2000년/ 342쪽/ 14,000원

이 책은 지리학의 대중화와 대학의 교양과목으로 개설된 지리개론 수준의 강야에 적합한 교재이다. 제강부터 제5강까지 한 학기 강의 횟수에 맞추었다. 각 강별 제목은 계통적인 분류를 기본으로 하여 지리학의 소개 자연지리 응용지리 인문지리 지리학에서 사진과 지도의 응용에 대한 내용 순으로 구성하였다.

국토 통일  
과제와 노력  
북부지역의  
이해

## 금강산

유홍준 저 / 도서출판 학고재 / 1998년 / 343쪽 / 13,000원

금강산은 조선시대 많은 문인들에 그려진 그림이며 그 산수가 화려하게 계절별로 이름이 다른 산이기도 하다. 문화유산 답사기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유홍준씨가 쓴 책이다. 답답이 구수한 책이기도 하며 역사가로 쳐다보는 예리한 면을 이 책에서 볼 수 있다. 저자를 따라 가다보면 어느 새 산을 다 돌아 나와야 하는 아쉬움을 느낄 것이다.

국토의 이해  
지역 문화요소

### 나의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상)

유홍준 / 중앙M&B / 2000년 / 275쪽

저자는 남한의 곳곳을 답사하면서 국토에 묻어 있는 향기를 음미했다. 그러나 갈 수 없었던 북한에 제한된 여행이지만 북한 땅도 우리와 함께 숨쉬는 정취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북한의 자연경관과 문화적 유적을 찾아서 조상의 숨결을 느끼고,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또한 동일한 민족적 감정을 갖는 형제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준다.

국토의 이해  
지역 문화요소

### 나의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하)

유홍준 / 중앙M&B / 2001년 / 275쪽

저자는 남한의 곳곳을 답사하면서 국토에 묻어 있는 향기를 음미했다. 그러나 갈 수 없었던 북한에 제한된 여행이지만 북한 땅도 우리와 함께 숨쉬는 정취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북한의 자연경관과 문화적 유적을 찾아서 조상의 숨결을 느끼고,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 또한 동일한 민족적 감정을 갖는 형제라는 사실을 느끼게 해준다.

국토의 이해  
지역 문화요소

###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1

유홍준 / 장작과 비평사 / 2000년 / 349쪽

저자는 서문에서 “우라 라는 전 국토가 박물관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땅 구석구석 소중한 흔적과 삶이 꿈틀거리고 있다. 국토사랑은 국토 본연의 모습을 이해하는데서 출발한다. 문화가 자연환경의 토양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만 곳곳의 문화재에 대한 설명 중삼이다 보니까 지역의 풍토성 설명이 아쉬운 점이 있으나 조상의 숨결과 정성을 체험할 수 있다.

국토의 이해  
지역 문화요소

###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2

유홍준 / 장작과 비평사 / 2000년 / 408쪽

저자는 서문에서 “우라 라는 전 국토가 박물관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땅 구석구석 소중한 흔적과 삶이 꿈틀거리고 있다. 국토사랑은 국토 본연의 모습을 이해하는데서 출발한다. 문화가 자연환경의 토양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만 곳곳의 문화재에 대한 설명 중삼이다 보니까 지역의 풍토성 설명이 아쉬운 점이 있으나 조상의 숨결과 정성을 체험할 수 있다.

###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3

유홍준 / 장작과 비평사 / 2000년 / 384쪽

저자는 서문에서 “우라 라는 전 국토가 박물관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 땅 구석구석 소중한 흔적과 삶이 꿈틀거리고 있다. 국토사랑은 국토 본연의 모습을 이해하는데서 출발한다. 문화가 자연환경의 토양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만 곳곳의 문화재에 대한 설명 중삼이다 보니까 지역의 풍토성 설명이 아쉬운 점이 있으나 조상의 숨결과 정성을 체험할 수 있다.

여러 지역의 생활  
전체

### 내가 사랑한 사람 내가 사랑한 세상

곽재구 저 / 도서출판 한양출판 / 1995년 / 278쪽 / 8,000원

사정성 풍부한 사진의 감수성으로 국토를 남다름이 답사한 여행길에 50여 컷에 달하는 생생한 사진이 구체적인 현장의 걸음을 더해주며 마치 한 폭의 풍경화를 보는 듯한 정경을 펼쳐주는 책이다.

생활권의 형성과  
변화 도시

## 내일의 도시

피터 홀 지음/임창호 옮김/도서출판 한울/ 2000년/574쪽/28,000원

세계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공간인 오늘과 내일의 도시에 관한 도시다. 특히 세계도시의 형성 과정과 이면의 문제점들을 도시 정책과 관련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의 주요 도시들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도시의 오늘과 내일을 전망해 볼 수 있고, 도시 발전과 문제 해결에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도시다.

생활권 형성 기능  
서비스 산업,

## 다섯 가지 지독한 여행이야기

박종인 지음/ 조선일보사/ 2001년 / 320쪽 / 9,500원

자라는 여행의 추천지를 지역별 계절별이 아닌 느낌에 따라 분류하였다. 다섯 가지 여행 이야기를 들려준다. 관광 정보, 역사적 사실 사진과 지도, 다양한 교통정보가 들어 있어 그 지역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자리 정보를 수집하여 자신의 취향에 맞는 여행을 하는데 활용하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지역간 상호의존  
세계평화 유지  
예의 기어

## 동북아 경제권과 한반도 발전 전략

나라정책연구회 편저/도서출판 길벗/1994년/369쪽 /7,500원

이 책은 세계화 블록화가 진전되고 있는 오늘의 상황을 직시하면서도 그러한 추세에 대한 국지적 차원의 전략 구상을 다룬 출판물이 거의 부재한 상황에서 UR체제 AEC 동북아관 한반도라는 중층 구조를 관통할 수 있는 전략기초와 거점구상을 다루고 있다.

국토의 자연환경  
지형과 생활

## 동강에는 굽이마다 생명이 흐른다.

진성민 / 다른 세상 / 1999년 / 255쪽 / 12,000원

동강은 태백산맥의 깊숙한 곳에서 발원하여 산과 산을 돌아 영월에 이르는 60km의 장대한 강줄기이다. 이 책은 동강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사진집이다. 고인돌과 아라리가 뒤얽힌 짙은 고령의 역사 동강은 흘러야 한다. 동강의 생태와 자연 동강으로 가는 길 등을 원색사진으로 수록했다.

## 땅과 한국인의 삶

김영국 편 / 나남출판 / 1999년 / 675쪽 / 18,000원

땅과 어우러진 한국인의 삶을 총체적으로 조명한 연구물 모음이다. 한국인의 전통적 땅과 고지도 발달, 땅부자의 흥망, 한국토지법제의 형성과정과 전개 등 28 편의 글을 실었다.

## 자연 체험 여행

세한도 저 / 성하출판 / 2000년 / 296쪽 / 10,000원

꽃 강물 섬 해남이 해남이 겨울 산의 일곱 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각 여행자들의 느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여행사이다. 그저 즐기고 노는 것이 아니라 삶을 한번 더 되돌아볼 수 있고, 그것 자체가 큰 삶이 되는 것. 이는 짐을 강조하고 있다. 처음 도착하는 곳. 따스한 감정은 낯설보다는 아름다움에 대한 경탄이다.

국토의 이해  
지역 문화요소

## 땅이름 나라얼굴

오홍석 저 / 고려원미디어 / 1995년 / 493쪽

인간은 모든 사물에 이름을 부여하고 있다. 대부분은 의미를 차고 있다. 지명 역시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에 의하여 적정한 의미를 지닌 명칭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의미와 유래를 파악할 때 지역성을 보다 깊게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리적 접근에 의한 체계적 분류가 되어있는 좋은 책이다.



여러 지역의 생활  
평야지역

## 떠남과 만남

구본형 저/ 생각의 나무 / 2000년 / 289쪽 / 9,000원

비빔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잠시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과거의 추억을 더듬어보고 돌아온 여행기 남도 구석구석을 집중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내고 또한 자기 속에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며 얻은 소중한 그 무엇을 전해주고 있다.

국토와 자연환경  
지형, 산지

## 명산 답사기

김장협 저/ 나랏말싸미/ 1997년/ 286쪽

우리의 고사에서 강토의 산지 평야 강 해안 등에 관한 면밀한 관찰은 많지 않다 고야와 조 선사대에 걸쳐 지배 엘리트 계층의 명산에 대한 세심한 답사와 관찰은 오늘날 과학적 접근 못지 않은 현실감과 함께 당시의 지역적 정세와 경관을 느낄 수 있는 책이다 특히 백두산 정계비 설정 당시의 비화 등이 기록되어 있어서 볼만한 책이다.

국토와 지리 정보  
지역문화 요소

## 명찰순례1

최완수 저/ 대원사/ 1998년

우리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는데는 자연환경에 관한 기초지식이 필요하다 기후 지형 풍토성 등을 이해하면 문화의 특수성과 상대성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 문화의 핵심은 불교와 유교를 빼놓 고는 말할 수 없다 우리의 자연환경에서 꽃피운 한국적 불교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고 전국유명사 찰의 흥망 성쇠를 조망할 수 있는 역사·문화적 자취를 느낄 수 있다.

국토의 이해  
지역 문화

## 명찰순례II

최완수 저/ 대원사/ 1998년

우리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는데는 자연환경에 관한 기초지식이 필요하다 기후 지형 풍토성 등을 이해하면 문화의 특수성과 상대성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 문화의 핵심은 불교와 유교를 빼놓 고는 말할 수 없다 우리의 자연환경에서 꽃피운 한국적 불교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고 전국유명사 찰의 흥망 성쇠를 조망할 수 있는 역사·문화적 자취를 느낄 수 있다.

국토의 이해  
지역 문화요소

## 명찰순례III

최완수 저/ 대원사/ 1998년

우리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는데는 자연환경에 관한 기초지식이 필요하다 기후 지형 풍토성 등을 이해하면 문화의 특수성과 상대성을 이해할 수 있다 우리 문화의 핵심은 불교와 유교를 빼놓 고는 말할 수 없다 우리의 자연환경에서 꽃피운 한국적 불교의 모습을 이해할 수 있고 전국유명사 찰의 흥망 성쇠를 조망할 수 있는 역사문화적 자취를 느낄 수 있다.

여러 지역의 생활  
문경새재

## 문경새재 답사여행

권감하 저 / 도서출판 세시 2000년 / 279쪽 / 10,000원

KIS 도파라 태조 왕건의 배경이 되는 문경새재 답사기 단순한 답사기를 넘어 역사와 문화 사람과 자연을 갈아타는 하나의 코드로 갈무리하고 있다 또 자치의 해박한 설명이 곁들여져 사진 과 함께 펼쳐지는 문경새재의 이름다운 풍광이 더욱 돋보인다 영남 지방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자료이다.

지역간의 상호의존  
국제 사회의 갈등

## 문화의 수수께끼

마빈 해리스 저 / 한빛사 / 2001년 / 246쪽

문화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변화하는 생물이다 그러나 공통적인 현상은 자연환경에 따라 문화의 형태는 다르다는 점이다 이 책은 문화생태학적 측면에서 왜 지역마다 다른 형태의 금기나 행동 양식이 나타나는지를 설명해주는 좋은 책이다 문화인류학적 측면의 도사이지만 문화생태학적 측면의 지리서적이기도 하다.

생활권 형성 기능  
서비스업

## 베니스의 개성상인

오세영 저 / 도서출판 동방미디어 / 2002년/293쪽 / 8,000원

소설은 숭상(개성상인)의 후예인 유승양이라는 인물이 우여곡절 끝에 이탈리아로 건너가 베니스에서 상사원으로 일하면서 개성상인의 비범한 상재(商才)와 한국인의 진정한 상도(商道)를 발휘하며 온갖 역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성공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 책은 전체 3권으로 이루어진 소설이지만 약간의 긴장감과 흥미를 자극해 빠르게 탐독할 수 있어 유럽의 각종 문화와 자연환경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국토의 자연환경  
산지지형

## 산경표를 위하여

조석필 저 / 도서출판 한울 / 1998년 / 255쪽 / 8,000원

산경표는 80년대 중반부터 주목하고 있는 지리서로 우리 고유의 지리인식에서 비롯된 산줄기 이름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태백산맥 소백산맥 등 산줄기명의 왜곡 훼손은 결과적으로 땅에서 비롯된 삶의 양식과 정신적 소산을 손상시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산지 지형과 생활 관계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국토의 자연환경  
기후와 생활

## 생동하는 지구

Skinner 등저/박수인 등역/시그마프레스/1998년/564쪽 / 29,000원

지표상에 보이는 양과 자연과의 관계만이 전문가 아니면 이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관계와 우리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는 지구의 활동을 이해해야 한다 살아 숨쉬는 지구의 활동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고 있다

## 생활 기상 이야기

윤성탁 지음 / 단국대학교출판부 / 2002년 / 326쪽 / 12,000원

우리의 생활 모습의 일부이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기상에 관하여 궁금한 것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풀어놓은 책이다 특히 신문과 인터넷 그리고 TV에서 보아왔던 익숙한 사진 그림 도표를 함께 수록하여 설명함으로써 흥미롭게 기상 상식들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 세상을 변화시킨 열가지 지리학 아이디어

수잔앤슨 엮음/박익준 외 4인 역/한울/2001년/350쪽 /14,000원

이 책은 서양 지리학의 발달과정에서 축적돼 온 연구성과 가운데서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핵심적인 이론 열 가지를 소개한다. 열 가지 지리학적 아이디어의 기원과 전개과정, 핵심내용과 학술적·사회적 영향 등을 설명한다.

이 책은 지리학의 주요 아이디어가 일상적 삶과 어떤 연관을 맺고 있으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준다.

국토의 자연환경  
지형과 생활

### 생활 속의 지리

정장호 외 / 강원대학교출판부 / 1999년 / 308쪽 / 9,000원

지리와 인간생활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생활 속의 지리현상을 탐구한 책이다. 이 책은 <지리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학문이다>를 비롯해 정장호 <쓸모 있는 땅의 모습>, 김창환 <얼마에서 한 대까지>, 옥한석 <향토지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등을 8장에 담았다.

국토의 자연환경  
지리정보

### 서양고지도와 한국

서정철 저 / 대원사 / 1991년 / 104쪽 / 4,800원

우리나라와 관련된 서양 고지도의 종류와 그 속에 나타난 한국의 모습 곧 Korea라는 이름의 변천과 한국 영토의 변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역사까지도 이 책을 통해 엿볼 수 있다. 아직 문화가 개량되지 않았던 시대에 외국인 눈에 비친 우리나라의 모습을 통해 청나라의 북쪽 경계선 문제, 일본과의 독도 문제 등 영토 논쟁의 중요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서 추천한다.

생활권의  
변화  
도시

형성과

### 세계의 도시 도시계획가가 본 베스트53

국토연구원 역음/ 도서출판 한울/ 2002년 / 563쪽 / 29,000원

세계 53개의 주요 도시들은 각각의 고유한 특성에 따라 국제 금융과 업무, 환경과 생태 역사와 문화 산업과 물류의 도시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는 그 나라를 상징하는 수도와는 또 다른 개념으로 설명되고 있다.

국토의 통일  
와 노력  
북부 지역의 이해

과제

### 신 북한 지리지

배기찬 저 / 다나 / 1994 / 425쪽 / 6,000원

분단 반세기 동안 몰라보게 변화시킨 광장특활시를 비롯한 북한 지역 1개 시·도의 자리적 변모상과 함께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의 최신 정보를 포함시킨 종합 지리지이다.

### 썬강은 좌우를 나누고 한강은 남북을 가른다

홍세화 저 / 도서출판 한겨레신문 / 1999년 / 319쪽 / 7,500원

이 책은 프랑스와 한국을 비교하고 한국의 권위주의·교육·사회문제 등을 비판하는 문예비평 에세이다. 유럽문화 중심자에 있던 그는 프랑스라는 거울을 통해 한국사회의 문제를 보고 있다. 이 책은 우리 사회를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주므로 가치있는 형성에 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권하고 싶다.

국토의 이해  
지역 문화요소

### 아방강역고

정약용 저 이민수 역/ 범우사 / 1999년 / 481쪽

아방강역고(我邦疆域考) 함은 내 나라 땅을 살핀다는 뜻으로 역사적으로 우리 영토가 어디까지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고 역사적 우리 민족이 세웠던 나라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민족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책이다.

생활권 형성  
가능  
서비스 산업

### 유배지 역사 기행

신규수 지음/ 집현전/ 1995년/ 259쪽 / 6,000원

화순 능주, 강진 흑산도, 진도, 보길도, 제주도, 고금도, 신지도, 장흥, 내남도, 제도, 영월 창령포 등은 조선시대 대표적인 유배지였다. 유배지의 조건은 한양과 먼 곳이면서 자연환경이 열악하고 농업과 어업이 생계 수단인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다. 과연 오늘날도 위 자취들을 유배지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활용할 수 없다면 무엇 때문인가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그 의미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또한 유배지라는 역사적 공간을 장소 마케팅으로 활용한 사례를 이용하여 오늘날의 지역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생활권 형성과  
변화 인구

## 인구지리학

이희연 저 / 법문사 / 1998년 / 662쪽 / 25,000원

인구지리학은 인구의 여러 가지 현상을 공간적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인문지리학의 한 분야이다. 인구지리학이 어떠한 학문적 성격을 띠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구지리학이 하나의 독립된 학문영역으로 성립하게 된 배경과 그 발전과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인구지리학의 기본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구지리학의 연구영역과 연구내용 및 그 구체적인 연구대상과 연구방법론을 고찰할 필요성이 있다.

국토의 자연환경  
지형과 생활

## 강마늘에 살고 싶다

최성민 저 / 도서출판 한겨레신문사 / 1996년 / 206쪽 / 10,000원

이 책의 소개는 팔사자 작집 돌아다녀 본 경험에다가 <택리지>, <산증동국여지승람>, 삼승자지를 거론한 옛 비사들을 참고로 하여 선택된 지역들로 강 주변에 자리잡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소개하였다.

## 남도해안 2000리 길

김창년 지음 / 성하출판 / 2002년 / 315쪽 / 10,000원

전라남도가 기쁘고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글을 쓴 이 책자는 영광에서 광양까지 사슴해안을 따라 10개 시군의 자연 역사 문화 예술 인물 관광자원 등을 테마로 특산물 축제 및 사진자료 숙박업소 음식점 도로망 지도 관광안내 지도 등을 상세히 수록하여 모든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요연하게 보여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 오름나그네 1.2.3

김중철 저 / 높은 오름 / 1995년 / 368쪽 / 6,500원

오름은 그 자리에 그렇게 있어 온 자리의 몸짓으로 다와 준다. 말마는 그저 비스비스해 보던 것들도 어느 하나 그 모양에 차림새가 자란 것 아닌 것이 없으며 그 빛나는 빛이며 바람결의 감촉마저 다르게 느껴진다. 그들이 간직한 술한 이야기나 때의 귀를 기울이게 하는 정 어린 속삭임도 이 책에서 느끼게 해준다.

## 우리 명산 답산기

류인학 / 자유문화사 / 1995년 / 364쪽 / 7,000원

이 책은 수행장이며 작가인 지은이 류인학이 우리 명산을 낚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10여 년에 걸쳐 둘러보고 쓴 이야기이다. 북한산 백두산 태백산 소백산 지리산 도함산 가야산 청학산 등 우리나라 명산들을 소개하였으며, 또한 안내지도까지 들어 있다.

국토의 자연환경  
한반도 특징

## 자연사 기행

최영선 저 / 한겨레신문사 / 1995년 / 236쪽 / 10,000원

'국토 사랑', '지구 사랑'을 새롭게 일깨워주는 한반도 비경 37곳의 '자연 유적답사기'이다. 이 책은 전국 37곳의 300여 원색사진을 담고 있으며, 아울러 주변의 관광지와 가는 길을 지도와 함께 상세히 소개하고 있어 '국내 최초의 관광 지질, 지형 안내서'로서도 손색이 없다.

국토의 자연환경  
기후와 생활

## 자연지리조사법

박희두 저 / 교학연구사 / 1998년 / 320쪽 / 13,000원

연습과 실습을 병행할 수 있는 자취 전공서 컬러 화보와 도표 등 시각적 자료 제시와 한반도의 남해를 중심으로 동북부 서북부 동남부 남서부 지역으로 분류 답사 루트 중심의 자연지리 조사법을 해설한다. 부록으로 답사 루트 일정에 대한 자료가 첨부되어 있다.

지  
리

한국  
지리

국토의 자연 환경  
기후와 생활

### 자연환경과 인간

한국자연지리연구회 편 / 안을/2000년/587쪽/20,000원

자연환경과 인간 생활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하여 지구 전체를 환경이라는 틀 속에 놓고 지리학적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역사적 생태학적으로 섬세하게 살명한 책이다. 우리가 자리를 가르치고 배울 때 어려운 자연환경에 대한 기본 개념을 그 원리와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하고 있다.

생활권 형성 가능  
서비스 산업

### 장터순례

이철호 지음/ 유림/ 1991년/ 342쪽 / 9,000원

전국특산물장터 6곳의 특색 있는 물건이나 식품, 약재, 음식 장터와 가까운 곳에 있는 명승 고적 등을 각 장터의 전설이나 풍물 등과 함께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책이다. 또한 약도가 삽입되어 있어 주변의 교통여건과 관계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장가시(장사의 분포와 역할) 그리고 오늘날의 시장과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국토의 이해  
풍수지리사상

### 조선의 풍수

최길성 옮김 / 민음사 1990년 / 704쪽 / 12,000원

1971년 일본인 植山信隆이 저술 한 것으로 풍수의 연구서이다. 전통적 지리 사상과 산상으로 서 풍수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조상들의 전통 지리 사상을 이해할 수 있는 학습 지침서이다.

여러 지역의 생활  
지리산

### 지리로 보는 지리산

강성렬 저 / 도서출판 향지사 2000년 / 241쪽 / 10,000원

지리산의 형태적인 특색부터 인문적인 역사와 환경까지 한반도의 대표적 산 자락을 자세히 접근을 다룬 책이다. 단순한 산행을 위한 가이드북의 의미뿐만 아니라, 각 경관을 지리적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현장 답사집으로 보면 활용도가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생활권의  
변화  
인구

### 지구환경보고서 2002

월드워치연구소지음/ 오수길외2명 옮김/도요새/2002년/304쪽/18,000원

이 책은 <지구환경보고서>의 17번째 판으로 2002년 9월에 있을 요하네스버그 세계정상회담(WSSD)에서 의제 규정에 도움을 주고자한 보고서이다.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 모두를 위한 농업 국제 관광의 방향 전환 다시 생각해보는 인구, 그리고 삶의 질 등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어 현재 지구촌문제 상황을 쉽게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인류 생존을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의 이해  
정보화 사회와  
지리정보

### GIS 개론

김계현 저/ 대영사 / 2002년 / 277쪽 / 12,000원

GIS는 지리 지형의 개념과 정보처리 개념 그리고 시스템공학의 개념이 혼합된 학제적의 연계를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 GIS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GIS의 자료 구축과 관련된 이론과 제반 기술적 사항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차적으로는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 측면에서의 GIS 구축과 관련된 기술적 사항의 고려와 함께 활용 분야에 따른 자료의 관리와 분석적 차원의 이해 및 오차 발생과 관련된 이론이 숙지되어야 한다.

국토의 이해  
택리지

### 청소년을 위한 택리지

이중환 저/ 허경진 역 한양출판/ 1999년 / 388쪽 / 9,000원

어울려 사는 우리들의 삶을 살명해주는 가치 있는 이중환의 『택리지』는 체험적 지리서이며, 실이 숨쉬는 책이다. 시대부는 어떠한 곳에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중환이 들었던 지리 생리 인심 산수의 네 항목은 당시까지의 다른 지리서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이다. 『택리지』는 실제적인 우리나라의 지리와 그 속에 책이다.

여러 지역의 생활

##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여행

최성민 저 / 좋은생각 / 2000년 / 247쪽 / 10,000원

이 책은 <한겨레 신문>에 나왔던 글모음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되도록 사람들이 몰라서 덜 가는 곳이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도 그곳의 자연에 초점을 맞춰 그것을 감각적이고 신도들이 개념으로 해석하고자 했다.

국토의 이해  
국토 이해

## 하멜 표류기: 다시 읽는

강준식 저 / 용진닷컴 2002 / 312쪽 / 10,000원

서양인의 관점으로 정리된 최초의 노포 리포터는 잠에서 큰 의미가 있는 하멜표류기는 한국학 연구의 상징적인 고전이다. 하멜 일행이 13년간 조선에 머물며 위로는 왕으로부터 아래로는 참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인물과 접촉하며 당시 조선사회를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입장에서 관찰한 기록으로, 조선 후기 정치, 교육, 문화, 풍속 등을 공부하는데 소중한 기초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생활권의  
변화  
인구, 도시

형성과

## 한국문화지리

류제헌 저 / 살림 / 2002년 / 231쪽 / 18,000원

2세기는 문화의 시대이고 국가 간의 문화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국가 문화의 내부적 혹은 지역적 다양성은 하나의 국가가 문화적 역량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유리한 여건을 조성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문화가 다양한 지역 문화의 집합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세계화의 위협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문화의 국가 간 경쟁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것이다.

여러 지역의 생활  
평야지역,  
역, 해안지역

산지지

## 한국지리(지방편)

권혁재 저 / 법문사 / 1995년 / 650쪽 / 25,000원

우리 나라 각 지방의 자연과 생활을 각론적 관점에서 사진과 지도를 섞어 서술한 교재로서 각 지방의 특색을 살린 일반인의 반려서이다.

전단원  
기후와 인간의 삶

## 한눈에 보이는 한국지리

김길남 저 / 내일을 여는 책 / 1999년 / 285쪽 / 7,000원

현직 고등학교 지리교사 파낸 재미있고 유익한 한국지리책으로 가장 돋보이는 장점은 페이지마다 풍부하게 실려 있는 독창적인 그림들이다. 독자들은 그림을 보는 순간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그림이 전하고자 하는 지리의 비밀을 한 순간에 알게 된다. 이 책이 한국지리의 원리를 한 눈에 보여주는 책이라고 소개한다.

국토의 자연환경  
화산지형

## 한반도 30억년의 비밀

유정아 저 / 푸른숲 / 1998년 / 224쪽 / 12,000원

지구 탄생과 생명의 진화 30억 년 전 있었던 한반도의 이동을 추적한다. 한반도는 고생대 동안 적도 부근의 바다에 있었다. 판구조론을 바탕으로 강원도 석화암 층에서 흔하게 발견되는 삼엽충 화석 등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한다. 또한 바다 한반도에 살았던 고생대의 기묘한 생물들을 통해서 상상을 뛰어넘는 당시의 한반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생활권의  
변화  
인구, 도시,  
역개발

형성과

## 현대사회지리학

최병두 저 / 한울 / 2002년 / 368쪽 / 16,000원

사회지리학의 기본적인 이론을 소개하고 전반기 한국의 도시와 지역에 관해 분석한 연구서 우리나라 경제발전과정과 관련된 사회공간의 변화를 국제적 국가적 정치적 차원에서 고찰했으며 토지와 지대문제, 신도시개발문제, 토지구획의 완화문제 등에 대해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 지역개발에  
를 떠는  
국가들
- 활기 **홈볼트의 세계**  
데즈카이키라 위음, 정암 역/한울 /2000년 /364쪽 /18,000원  
이 책은 근대 지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저자의 열대아메리카 여행기이다.  
이 책은 생소한 식물명 인명 지명 등이 많이 나온다. 우리나라와 색다른 다양한 문화 자연환  
경 등을 간접 체험하면서 우리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국토의 자연환경  
지형과 생활
- 화산- 지구의 불꽃**  
모리스 크라프트 저 진미선 역/ 시공사/1997년/207쪽/7,000원  
세상을 북어 바릴 듯한 용암 솟아하는 유독가스 잔존 화산 자연의 엄청난 변화에 사람들  
은 엄청난 무력감을 느꼈으나 곧 이 엄청난 힘의 원천을 파헤치려고 수많은 사람들의 모험이 잇따  
랐고 많은 학자와 모험가들이 이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 책에서는 이러한 화산에 관한 신화와  
전설, 화산활동에 관한 원시이론에서부터 현대 화산학의 태동까지를 다루고 있다.
- 환경문제와  
문제  
지역개발과  
보전
- 지역 **환경과 사회**  
환경 **노진철 / 한울 아카데미 / 2001년 / 374쪽 / 20,000원**  
자연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은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투쟁해왔지만 이제는 상황이 반전되어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기에 이르러 급기야는 인간이 인간을 위협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하게 고질한 이 연구서는 환경문제를 사회학의 생활능력과 문제 중심적 접근방법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여 탐구하고 있다.
- 지리과목 공통
- 지표공간의 이해**  
김주환 외 저 /도서출판 푸른세상 /2001년 /320쪽 /12,000원  
이 책은 지리학 입문 교재이다.  
지리학의 기본개념과 접근방법을 비롯해 지형 기후 수문 토양 및 식생 등 기본적인 자연  
환경의 이해와 인구, 주택 문화 정치 경제 등 지표에서 일어나는 각종 인문적 현상을 지리적 관점  
에서 설명했고 지역개발 환경 문제 세계화 정보화에 따른 지리교육의 대응 등을 다루었다.
- 지식정보사회의 지리학 탐색**  
박삼욱 외 저 /도서출판 한울 /2002년/386쪽 /16,000원  
이 책은 지식정보화시대에 지리학에서 중시해야 할 몇 가지 영역을 제시한 책이다. 이러한  
주제들은 지리학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야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지리학자들은 인접학문의  
학자들과 상호교류하고 공동연구를 통해서 지식정보화시대에 지구상의 재분 할상과 변화를 파악하  
고 올바른 정책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 한국의 지리학과 지리학자**  
제29차세계지리대회조직위원회저/한울/2001년/432쪽/18,000원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즉 8·15 해방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한국의  
지리학을 전통시대의 지리학과 현대지리학으로 대별하여 알아놓았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한국  
지리학의 인적 제도적 구성과 현황을 살피고 있어 한국지리학사를 아우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  
닐 것이다.  
이 책은 한국 지리학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총서로 지리학을 이해하는데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이다.

## □ 세계지리

지역개발에 활기를  
띠는 국가들  
석유가 많은 서남  
아시아 및 북부  
아프리카

### 나는 늘 아프리카가 그림다

이지상 저 / 디자인하우스 / 2000년 / 292쪽 / 8,000원

아프리카를 직접 다녀와서 쓴 보기 드문 아프리카 여행기로서 사진과 그림을 통해서 아프리카인들의 생활상, 야생동물, 그리고 산과 강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수필형식으로 쓴 이 글은 여행지에서의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아프리카 자연 풍경과 생활상을 접하면서 느꼈던 생생한 감동이 자세히 기술되어 아프리카 여행에 관심 있는 학생들에게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일찍 산업화된  
국가들  
하나를 위해 전진  
하는 유럽연합

###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자

홍세화 저 / 도서출판 창작과 비평사 / 1995년 / 323쪽 / 6,500원

이 책은 1979년 무역회사 해외지사 근무차 유럽에 갔다가 '남민전' 사건에 연루되어 귀국하지 못하고 파리에 남아 관광안내, 택시운전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홍세화의 자전적 에세이다. 그의 영업용 택시기사 시절 이야기를 중심으로 프랑스에 망명하기까지의 목적, 그가 바라본 프랑스 사회의 단면, 학생운동에 투신했던 대학시절의 추억 등 그 애환의 어제와 오늘이 담당한 문제로 그려져 소설 이상의 흥미와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 도시로 본 중세유럽

에디트앤넨 지음/안상준옮김/한울아카데미/1987년/414쪽/15,000원

오늘날의 도시 공간을 더욱 잘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이다. 특히 도시형태, 도시경제, 도시 인구의 특성, 도시 문제 등을 중세 도시와 오늘날의 도시를 연속선상에서 비교 분석할 수 있다. 또한 중세를 '암흑의 시대'나 '낭만의 시대'로 보는 것을 지양하고 삶의 치열한 고통과 더불어 근대를 여는 약동하는 힘이 꿈틀대고 있는 시대이며, 그 중심지가 도시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와 가까운  
국가들  
빠른 속도로 성장  
하는 중국, 세계적  
인 경제 대국  
일본

###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

김호동학희 지음/ 실천문학사/ 1997년/ 338쪽 / 7,500원

이 책은 13세기 후반의 세계를 이해하는 필수적인 자료이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못 치밀한 필치로 그려져 있어 여러 도시와 주민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전해진다. 오늘날 지구촌 형성의 시발점이 된 지리상의 발견에 커다란 자극을 준 책이며, 당시 베니스인의 시각과 언어로 표현된 동양의 모습을 알 수 있다.

지역개발에 활기를  
띠는 국가들  
발전하고 있는  
동남 및 남부아  
시아

### 메가트랜드 아시아

존나이스비트저, 홍수원역/한국경제신문사/1996년/400쪽/9,500원

21세기에는 아시아가 미국주도의 상품과 소비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경쟁자로 떠오를 것으로 내다보고 현재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아시아의 모습을 8가지 트렌드로 분석했다. 특히 아시아와 세계라는 맥락 속에서 한국에 나타나고 있는 폭넓은 변화들을 살펴보고 한국이 아시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도 짚고 있다. 이 책은 세계와 우리 지역의 흐름을 파악하고, 그 흐름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리라고 본다.



## 하노이에 별이 뜨다

방현석 저 / 도서출판 해냄 / 2002년 / 262쪽 / 10,000원

월간 '달'지에 연재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베트남 남부 여행과 여행 경로 설명을 새로 추가했다. 베트남 북부에서 베트남전과 호치민, 중부에서 전쟁의 피해를 직접 겪은 사람들의 모습 등을 유심히 살피지만, 지나치게 역사적·사회적 문제에 골몰하거나 감상으로 흐르지는 않는다. 민족과 전쟁, 국가와 권력이 개인에게 어떤 힘으로 작용하는지, 인간의 문제에 대해 깊은 성찰 속에 베트남의 과거와 오늘날의 모습들을 담아냈다.

## 앙코르 기행

심인보 저 / 도서출판 새로운 사람들 / 2002년 / 241쪽 / 18,000원

이 책은 '저주의 사원'이고 '축복의 사원'인 앙코르와트의 신비한 미소를 디자이너의 눈으로 담아낸 사진 기행집이다.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일반 여행 책이 보여 줄 수 없는 인문학적 깊이의 시선으로 써 내려간 글들과, 직접 담아낸 사진들이다. 어떤 사진집으로도 담아 낼 수 없는 훌륭한 사진시집으로 이제 막 눈뜨기 시작한 앙코르의 신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문화권과 지구촌의  
형성  
세계 각 지역의  
문화

## 사진에 담긴 세계 문화기행

임정의 저 / 코리언북스 / 1999년 / 359쪽

건축물을 중심으로 한 저자의 유럽 각지의 사진과 이에 대한 설명은 유럽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준다. 물론 섬세한 역사적 유래나 예술사적 감각을 전달하는 데는 미흡하지만 사진을 통한 관점의 제시는 유럽에 대한 문화 이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 위대한 탐험

이병철 저 / 가람기획 / 1997년 / 221쪽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은 인류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지리상의 발견은 새로운 세계 질서를 유도하였고 인류의 과학기술 발달을 촉진하였다. 유럽인의 시각에서 미지 세계를 탐험하고 발견하는 시각이지만 중·고등학생들에게 도전과 모험심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일찍 산업화된 국  
가들  
산업이 발달한  
미국과 캐나다,  
양의 대륙, 오스  
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 유시민과 함께 읽는 신대륙문화이야기

제노포브스 가이드/유시민 편역/ 푸른나무/ 2002년/ 88쪽/ 8,500원

세계문화 안내서의 최고봉이랄 수 있는 영국의 제노포브스 가이드를 편역한 책이다. 미국, 뉴질랜드, 호주편이다. 호주인들의 국민성과 정체성, 성격, 예의범절, 유머감각 이밖에도 건강과 위생, 범죄와 형벌, 언어 등 광범위한 문화를 세밀하게 개관하고 미국, 뉴질랜드를 덧붙였다.

서태평양 연안  
아시아

##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

이사벨라 버드 비숍 저 / 살림 1994년 / 603쪽 / 12,000원

한말 외세의 쟁탈전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곳곳을 여행하며 잘 묘사했으며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양인의 시각이라 우리 민족이 선진국의 통치를 받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서술하는 문제점도 드러내지만, 이 책은 당시의 생활상을 생생하고도 흥미 있게 묘사한, 사료적 가치와 읽는 재미도 함께 주는 책이다.

# 일 반

## 707가지 동서양 고사성어 이야기

김희보 / 가치창조 / 2001년 / 363쪽 / 10,000원

모두 707개의 동양 고사성어와 서양 고사를 뽑아내어 그 뜻과 쓰임새, 출전과 사연을 짚막막하게 소개한 책. 동서양의 고사를 한권에 모은 것이 특징이며, 신뜻하고 깔끔한 편집으로 고루한 느낌을 없애주는 것도 장점이다.

동양의 고사는 가동성진부터 회계지차까지 가나다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한편 서양의 고사는 성서에서 유래한 성어를 모은 '성서의 향기', 신화나 예술작품에서 비롯된 성어를 모은 '신화와 예술', 역사적 사건에서 만들어진 말을 모은 '역사의 슬기' 3덩어리로 나누어 배열했다.

서양의 고사는 가나다순이 아닌 시대순으로 배열되어 있어 사전처럼 찾아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책 마지막에 찾아보기가 정리되어 있어 도움을 준다.

## 99색 99인의 중국&중국인

홍순도 / 예문 / 2002년 / 270쪽 / 8,800원

이 책은 25여년 동안 일간지 기자로 일한 저자가 직접 겪고 지켜본 중국 체험담이다. '중국'하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큰 영토, 가장 많은 인구, 세계 곳곳으로 뻗어나가 상권을 장악하는 화교들을 떠올린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두려움을 가진다.

이 책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무지몽매의 안개를 걷어주고, 중국의 실체와 현실을 마주 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정적인 중국 남자와 사회 활동이 왕성한 중국 여성의 모습 뒤에 감추어진 진실, 부패의 원천이 되고 있는 '인맥', 개인주의로 치닫고 있는 시민 의식, 걸 다르고 속 다른 중국인들의 속성 등 '중국의 현실'을 기자 특유의 날카로운 안목으로 파헤쳤다. 동시에 평생을 청렴하게 살다간 덩샤오핑 같은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도 되돌아보게 한다.

이 책을 통해 우리의 거대한 이웃, '중국'이 지닌 허와 실을 알아보는 기회를 갖을 수 있다.

## 가난한 부자

이병한 / 숲 / 2000년 / 183쪽 / 6,000원

이 책은 저자가 한국경제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칼럼'온고지신(溫故知新)'의 글들을 모아 엮은 책이다. 사서(논어, 맹자, 대학,中庸), <목민심서>, <매천야록> 등 중국과 우리의 고전 중에서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는 명문(名文) 160편이 담겨져 있다. 저자는 각 글마다 고전의 원문과 해석, 적절한 평설을 덧붙여 자연스런 감동과 깨달음을 전해준다.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 이웃에 대한 사랑, 사회 속에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법, 치자(治者)가 갖추어야 할 덕목 등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지혜를 주옥같은 명문(名文)을 통해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라

게일리버먼 외(노예숙) / 세종서적 / 2001년 / 237쪽 / 9,000원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특히 그들의 현재 모습을 보면,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생각마저 든다.

그러나 이 책은 성공한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조건에서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 그들은 위기를 기회로 삼는 기지를 발휘했으며, 간절한 꿈을 가지고 있었고, 범상치 않은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공'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자격을 지닌 사람들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책은 큰 꿈을 가지고 매진하는 청소년들에게 좋은 성공 지침서가 될 것이다.

## 간디, 맨발로 갠지스 강을 건다

**마하트마 간디(이재경) / 지식공작소 / 2001년 / 244쪽 / 8,500원**

여기 실린 글들은 1967년 인도의 나바지반 출판사에서 발간한 <The Mind of Mahatma Gandhi>를 옮긴 것이다.

The Mind of Mahatma Gandhi>는 비폭력을 외치던 세계의 위인 ‘간디’를 추모하기 위해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출판한 책이다. 수천 번의 실패를 겪는다 해도 믿음과 희망을 버리지 않겠다는 ‘믿음이 희망을 낳는다’ 등 간디가 남긴 40여 편의 글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은 대부분 생활인으로서 간디가 체험한 사건과 깨달음을 다루고 있어 간디의 사상을 더욱 가까이 느끼게 해 준다.

이 책을 통해 세계의 위인으로 추앙 받는 ‘간디’를 만나보길 권한다.

## 거꾸로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

**유시주 / 푸른나무 / 1999년 / 300쪽 / 7,500원**

신화를 이야기한 책은 많지만 그 신화가 우리의 역사나 생활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말해주는 책은 별로 없다. 그리스 신화는 성서와 더불어 서양 문화의 바탕을 이루고 있으며 그리스 신화를 이해하지 않으면 깊이 이해할 수 없는 것들도 많다. 문학과 예술이야 말할 것도 없고 역사와 사회의 발전, 과학사에까지 미치는 그리스 신화의 영향을 설명하는 책이 <거꾸로 읽는 그리스 로마 신화>이다.

이 책은 ‘신화’라는 열쇠를 이용해 서양 문화를 이해하는 문을 열어준다. 열 여덟 편의 글은 문학과 예술, 역사, 사회, 과학사에 이르기까지 서양 문화와 서양인의 의식 구조를 지배하고 있는 신화의 방대한 영향권에 대해 설명한다. 신화가 어떻게 서양 문화에 영향을 미쳤고, 역사나 생활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옛 이야기가 아닌 현실과 역사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것이다.

이 책은 신화가 그저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생동하는 생명력 있는 문화 유산이라는 것을 알게 해 줄 것이다.

## 거짓과 오만의 역사

**이희진 / 동방미디어 / 2001년 / 296쪽 / 9,000원**

잊을만하면 불거져 나오는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를 다룬 인문 서적이다. 저자는 일본의 역사 왜곡이 단순히 근현대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고대사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말한다.

지은이에 따르면 요즘 일본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의 뿌리는 ‘고대사’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1,300년 전에 편찬된 <일본서기>로, 이 책의 편찬자들은 일본 천황의 권위를 확립하려는 목적에서 역사의 과장과 왜곡을 서슴지 않았고 이러한 잘못된 역사가 현재 일본의 역사 왜곡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한다.

<거짓과 오만의 역사>는 이러한 일본 고대사에서부터 시작된 역사의 왜곡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그 허구성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책이다. 지은이는 임나일본부, 식민사학의 기원과 현재, 광개토왕비와 관련된 논란, <일본서기>와 <삼국사기>의 연표 조작 문제 등 한·일 고대사와 관련된 일본 역사 왜곡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역사적 진실을 새롭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 게르만 신화와 전설

**라이너 테즈너(성금숙) / 범우사 / 2002년 / 668쪽 / 18,000원**

그리스 로마 신화, 켈트 신화와 더불어 서구 문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게르만 신화를 재구성한 책이다. 제 1부에서는 푸른 망토를 걸치고 아홉 개의 세계를 호령하는 신들의 아버지 ‘오딘’, 인간들의 수호신 ‘토르’의 신들이 등장한다. 2부에서는 게르만 영웅 ‘지그프리트’가 불사신이 된 내력이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다. 특히 역사적 인물과 사건이 신화와 밀접하게 그려져 흥미진진한 느낌을 더해준다.

신들이 벌이는 극적인 사건들을 통해 고대인들의 세계관을 살펴보고, 동시에 게르만 민족의 꿈과 미래, 세상을 보는 시선도 생각해 보자.

## 고전산문을 읽는 즐거움

**정진권 / 학지사 / 2002년 / 358쪽 / 13,000원**

짧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우리 고전을 모아 엮어 놓은 책이다. 삼국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일세를 풍미했던 재인(才人)들의 문장을 접해볼 수 있다. 구성은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세 부분으로 엮고, 문장의 배열은 지은이의 생몰 연대순에 따랐다.

선인들의 사상적 깊이와 가치관 및 정서, 당시의 제도와 풍속 등을 이해하고, 나아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책이다.

## 공자도 모르는 게 있고 장자도 후회할 때 있다 1-2

허성도 / **사람과책** / 2000년 / 239쪽 / 7,500원

<공자도 모르는 게 있고 장자도 후회할 때 있다>는 중국의 옛 책에 담겨 있는 우언을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다시 엮고 해설한 책이다. 저자는 이를 위해 논어와 맹자, 노자와 장자, 목자와 한비자 같은 중국의 고전에서부터 허허 웃고 지나갈 소화집의 이야기들, 북송 문인인 구양수와 소동파의 글을 모은 귀전록과 동과전집에 이르기까지 중국 3천년 고전의 바다를 두루 여행한다.

이 책은 중국의 고전하면 딱딱하고 어렵다는 선입견을 여지없이 깨어버린다. 원전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필자의 생각에 따라 말을 바꾸기도 하고, 이야기를 다시 정리한 부분도 있는데, 그대로 옮겨 놓으면 원래의 뜻을 전달하기 어렵거나, 중국인과 우리의 언어 감각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손길과 눈길이 닿는 곳에 놓아두고 오랫동안 곱씹어가며 읽어야 할 책으로, 사는 것의 기본을 다시 짚어 수 있게 하는 인생담론이라 하겠다.

## 피테의 이탈리아 기행

피테(박영구) / **푸른숲** / 2002년 / 702쪽 / 15,000원

피테가 이탈리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남긴 기행문과 편지를 모아놓은 책이다. 독일의 대문호 피테의 깊은 성찰과 새로운 문물을 대하는 겸허한 태도를 엿볼 수 있다.

37세 생일 피테는 재충전을 위한 여행을 떠난다. 그는 베네치아, 로마, 나폴리, 시칠리아 등지를 여행하면서 고갈된 문학적 상상력을 채워간다. 뿐만 아니라 내면 성숙의 과정을 통해 진정한 예술가로 거듭난다. 그는 로마에 도착한 날을 '나의 제 2의 탄생일이자 나의 진정한 삶이 다시 시작된 날'이라고 했을 정도.

이 책을 통해 진정한 예술가의 혼과 만나 보자.

## 교양으로 읽는 논어

박기봉 / **비봉출판사** / 2000년 / 452쪽 / 7,000원

동양 문화권의 사상적 뿌리를 논하는 데 있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바로 '공자'다. 죽은 지 수 천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공자는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공자의 저서, <논어>의 핵심을 뽑아 정리하고, 공자의 사상을 현대적인 관점에서 풀이했다. 예컨대 남을 나와 동등한 위치에서 파악하게 하는 '인'을 오늘날의 시민윤리로, '학'을 무지한 사랑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꼽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동양의 성인, '공자'의 사상적 깊이를 느껴보자.

## 교양으로 읽는 맹자

박기봉 / **비봉출판사** / 2001년 / 437쪽 / 9,000원

공자와 더불어 유교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맹자의 사상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양서. 정치·윤리·교육·역사·철학 등을 아우르는 맹자의 뛰어난 통찰과 사색의 결실이 담겨져 있다. 시대를 앞서 갔던 사상가의 삶,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만한 인생관, 정치 철학 등을 접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당시로서는 파격적이었을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도 무척 흥미롭다. 그리고 '아무리 높은 대의 명분이 있더라도 그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차적 정당성의 강조도 눈길을 끈다.

오늘날 공직이나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이다.

## 구전문학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 / **대산출판사** / 2000년 / 348쪽 / 12,000원

북한과 독점 출판 계약을 맺어 우리 겨레의 민속 전통을 복원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재발견, 보존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펴낸 책이다. 구전문학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더불어 창조되고 발전되어 온 것이다. 그 속에는 정치 생활, 문화 생활, 윤리를 비롯한 지나온 민족 생활의 현상들이 진실하게 반영되어 있으며, 역사적으로 축적된 지식이 다양하게 집대성되어 있다.

설화를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대립구도 양상으로 파악한 점이 어색하지만, 정치 생활, 문화, 윤리를 비롯한 민족 생활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우리 겨레의 민족적 동질성을 재발견하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 또한 숨겨 좋은 입담으로 쏟아낸 조상들의 구수한 이야기가 큰 재미를 선사해 준다.

## 국화와 칼

**투스 베네딕트(김윤식) / 을유문화사 / 2002년 / 406쪽 / 9,000원**

이 책은 저자가 미 국무부의 의뢰를 받아 2년간의 자료수집과 연구 끝에 내놓은 일본 문화 연구서로 일본문화의 고전으로 꼽힌다. 95년판의 개정판으로 다시 출간되었다.

국화와 칼로 상징되는 극단적 형태의 일본문화를 다각도로 탐색하다. 국화를 사랑하는 예의 바르고 겸손한 내면에는 전쟁을 숭상하는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일본인의 특성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일본 문화의 틀'이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일본인의 외면적 행동과 내면적 사고방식, 평화를 사랑하면서도 전쟁을 숭상하는 일본인의 모순된 가치관과 행동을 분석하고 있다. 저자가 일본에 가보지 않았고도 이 정도로 그 문화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 보고서를 내놓고 있다는 것이 놀라우면서도 그것이 이 책의 한계다.

이웃나라 일본을 이해하는 데에 교과서적인 책으로 꼭 읽어 볼 만하다.

## 그 나라의 역사와 말

**백승중 / 궁리 / 2002년 / 360쪽 / 15,000원**

이 책은 '이찬갑'이라는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일제시대의 한 지식인이 남겨놓은 일곱 권의 신문 스크랩과 글 몇 편, 그리고 지인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매개로 그의 일상과 세계관을 재구성하고 있는 국내 미시사 연구의 첫 시도이다.

평안북도 갈산면 용동에 살던 이찬갑은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를 정기 구독하다 1937년 7월 <표준말 모음집>의 간행 소식을 듣고 본격적으로 신문 스크랩을 시작한다. 저자는 그가 남긴 신문 스크랩을 토대로 하여 그의 일상을 섬세한 필치로 재구성해나가고 있다. 또한 그의 소장도서 목록과 살던 집의 약도, 이기백, 홍순명, 함석헌 등 주변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 '작은 것 속에서' 역동적인 역사를 읽어내고자 하는 저자의 노력이 돋보인다.

## 길을 찾은 사람들

**김홍호 / 숲 / 1999년 / 378쪽 / 9,800원**

올바른 길을 찾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스승을 만나야 한다. 이 처럼 무엇이 삶의 목적인지, 그들은 어떻게 길을 찾아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다.

이 책은 자신의 길을 찾은 원효대사를 비롯해 울곡 이이, 만해 한용운, 도산 안창호, 공자와 맹자, 석가, 간디 등을 우리 나라와 중국, 인도의 위인 25명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이들의 사상과 삶을 들려준다. 원효, 이이, 안창호, 공자, 간디, 네루 등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인물들의 이야기지만, 이들이 일구어 놓은 업적과 인생의 지혜는 결코 고루하지 않다.

이 책은 인생의 참다운 길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해주는 이정표가 되어 줄 것이다.

## 꿈은 이루어진다

**메리 M.모리시(조한중) / 들쭉레(창현) / 2002년 / 320쪽 / 8,500원**

진정한 꿈을 발견해 그 꿈을 위해 정진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책이다. 고통스런 상황을 꿈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내고 성공적인 인생을 가꿔나간 저자와 꿈을 이루어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가 된 수십 명의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펼쳐진다. 저자는 이 세상이 실패와 낙심, 미움과 분노, 그리고 헛된 욕망으로 가득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 이면에 있는 진정한 꿈에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저자는 강조한다.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꿈에 대한 믿음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절대 버리지 말라고.

이 책을 통해 우리 안에 감춰진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보자.

## 나, 황진이(소설)

김탁환 / 푸른역사 / 2002년 / 294쪽 / 9,500원

<나, 황진이>는 ‘역사와 소설의 포용’이라는 부제를 단 주석판과 동시에 출간되었다. 소설에는 황진이의 내밀한 심경을 형상화한 백범영 화백의 수묵화 60여 점이 수록되어 있고, 주석판에는 소설의 창작과정을 유추할 수 있는 6백여 개 주석과 작가의 창작보고서, 소설 창작의 밑거름이 된 관련문헌 등이 수록되어 있다. 소설에서는 그림과 소설의 만남이라는 새로운 실험을, 주석판에서는 야사 위주의 짜깁기로부터 탈피하여 철저한 고증과 문체미학을 추구하는 역사소설의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였다.

황진이가 스승 화담을 회고하는 형식의 1인칭 소설로 황진이가 쓴 황진이의 일대기이기도 하다. 황진이에 대하여 이 한 권이면 족하다.

저자는 “황진이의 마음으로 16세기 지식인들의 사상적, 미적 성취를 살피고 그들의 고뇌를 이해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며, 16세기를 살았던 시인 황진이의 고백의 형식으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다.

## 나는 내 것이 아름답다

최순우 / 학고재 / 2002년 / 280쪽 / 9,500원

<무량수전 배흘림 기둥에 기대서서>의 저자 최순우의 산문집이다. 저자는 한국적 미의 소중함과 멋, 풍류를 보여준다.

1장에서는 아름다움을 가려내는 안목은 어떻게 길러지는지를, 2장에서는 우리 곁에 있는 아름다움을, 3장에서는 개인적인 사연을, 4장과 5장에서는 도자기와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저자는 ‘잘생긴’ 것들 한국미의 본질로 파악했다. 그는 수더분하게 잘 생긴 조선타자기를 ‘잘생긴 며느리’라고 말한다. 그리고 말이 없는 돌들이 말보다 진한 인간의 슬픔과 자연의 즐거움을 일깨워준다고 했다.

이러한 저자의 눈을 통해 우리 것에 대한 소소한 아름다움을 느껴보고, 한국미의 진면목을 발견하는 기회를 가지기를 바란다.

## 나는 빠리의 택시 운전사

홍세화 / 창작과비평사 / 1995년 / 324쪽 / 8,500원

이 책은 1979년 무역회사 해외지사 근무차 유럽에 갔다가 ‘남민전’ 사건에 연루되어 귀국하지 못하고 빠리에 남아 관광안내, 택시운전 등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홍세화의 자전적 에세이다.

그의 영업용 택시기사 시절 이야기를 중심으로 프랑스에 망명하기까지의 곡절, 그가 바라본 프랑스 사회의 단면, 학생운동에 투신했던 대학시절의 추억 등 그 애환의 어제와 오늘이 담담한 문체로 그려져 소설 이상의 흥미와 감동을 불러일으킨다.

이 책은 군사독재 시대에 있었던 사회적인 아픔을 직접 경험한 사람의 현재화된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주고 있다.

## 나무야 나무야

신영복 / 돌베개 / 1996년 / 158쪽 / 6,500원

신영복 교수가 국토와 역사의 뒤 안에서 띄우는 사색의 글을 모은 책이다. 역사와 현실이 숨쉬는 이 땅 곳곳을 직접 발로 밟으면서 써 내려간 25편의 글들은 우리의 삶에 대한 따뜻한 사회와 역사를 읽는 진지한 성찰로 가득 차 있다.

‘국토와 역사의 뒤 안에서 띄우는 엽서’라는 부제처럼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다. 그의 그림이 예쁘게 그려진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엽서의 묶음이란 느낌을 주는 책이다. 국토의 몇몇 곳을 찾아가면 그의 발길에는 언제나 역사를 생각하는 진중함이 배어 있으며, 그의 사색 속에서 국토와 역사는 서로를 규정지으며 불가분의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버린다. 그리고 그 시·공간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살아 숨쉬는 국토와 역사의 무대에서 결코 소외될 수 없는 주인공임을 확인할 수 있다.

## 나설 때와 물리설 때

홍성유 / 북@북스 / 2001년 / 330쪽 / 8,000원

<장군의 아들>의 작가 백과 홍성유가 쓴 장편 소설이다.  
홍건적이 극성을 부리던 고려 말, 잃어버린 민족의 기개를 되찾고자 북녘땅을 달리던 사나이들의 야망과 좌절을 그렸다.  
홍건적과 왜구가 출몰하던 고려 말, 보부상 출신 백현이는 영웅다운 기백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홍건적을 물리치는 데 앞장선다. 그러나 승전 후 벌어지는 암투를 겪으며 무사로서의 삶에 심각한 회의를 느끼고, 다시 일개 보부상으로 돌아간다. 이러한 '백현아'의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 참다운 영웅이란 나설 때와 물리설 때를 가려 실행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 내 삶을 떨리게 하는 것들

한수산 / 해냄 / 2001년 / 256쪽 / 8,500원

일상에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슴 떨림을 선사하는 산문집이다. 작가는 우리의 삶을 떨리게 하는 것은 큰 사건이 아니라 사소한 것들이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1장은 마음에 여운을 주는 정감 있는 글들로 채워졌다. 2장은 생을 열정적으로 살다간 예술인들을 소개되었다. 3장에는 사람 사는 이야기와 세상 풍경이 펼쳐지고, 4장에는 작가의 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그려진다. 작가는 사소한 것 하나에서도 삶의 가치를 발견해낸다. 그리고 자신의 글이 주인을 위해 헌신하는 칫솔 만한 사회성이나 유용성이 있는지를 묻는다.  
이 책을 읽고 소중한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자.

## 녹차문화 홍차문화

즈노야마 사가에(서은미) / 예문서원 / 2001년 / 228쪽 / 7,000원

맛과 향이 전혀 다른 녹차와 홍차, 이 두 차를 통해 동서양의 문화적 차이점과 '차' 속에 숨겨진 갈등의 세계사를 보여주는 책이다.  
1부에서는 16세기 경 동양의 녹차가 유럽으로 건너간 뒤 유럽 자본주의 근대화에 미친 영향과 녹차 문화가 어떻게 홍차 문화로 바뀌게 되었는지를 서술한다. 2부에서는 홍차와의 치열한 접전 끝에 녹차가 세력을 잃고 마는 과정을 밝힌다. 저자는 차를 둘러싼 굵직한 갈등사 외에도 다양한 에피소드를 펼쳐놓는다. 지나친 차 애호로 '깁다망국론(喫茶亡國論)'까지 일었던 사건, 차는 사람을 나약하게 만든다는 비판이 들끓던 이야기 등이 꽤 흥미롭다.  
이 책을 통해 한 잔의 차 속에 담겨진 문화사적 의미를 음미해 보자.

## 논개(진주문화를 찾아서 1)

김수업 / 지식산업사 / 2001년 / 150쪽 / 7,000원

1593년 6월 29일 진주성 함락 후 벌어졌던 왜군들의 전승 축하연 때 적장을 살해해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설과 역사를 넘나들고 있는 의기 논개의 일생과 업적을 엮었다. 논개의 드러나지 않은 죽음의 실상을 비롯해 백성과 관청이 힘을 모아 세운 의암사적비 및 기생 독립운동 진주 교방 등에 대한 이야기를 생생한 사진과 함께 수록했다.  
1. 죽음으로 태어난 논개 2. 논개의 죽음을 맨 먼저 불든 유몽인 3. 드러나지 않은 죽음의 실상 4. 뒷사람들이 펼쳐나간 상상력 8. 백성과 관청이 힘을 모아 세운 '의암사적비' 11. 논개를 살려낸 '진주 정신' 12. 뒤늦게 드러난 논개의 후손 15. 우에쓰카 소동과 '논개영정 폐출운동' 16. 관기들이 바친 논개 제사 18. 또 한 사람의 논개인 산홍 19. 기생 독립운동·진주 교방 20. 논개에게 용서를 베푼 시인 한용운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한용운은 시인으로 논개의 애인이 되었노라며 "용서하여요 사랑하는 오오 논개여."라고 노래했다. 관기였던 논개에게 천주에 죽지 않는 논개라고 한 까닭을 읽을 수 있다.

## 누가 내 치즈를 훔겼을까

스펜서 존슨(이영진) / 진명출판사 / 2000년 / 128쪽 / 7,000원

스니퍼, 스커리라는 작은 생쥐와 햄과 허리는 꼬마 인간이 이 이야기의 등장 인물이다. 미로 속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창고 속에 있는 치즈. 그러나 그 치즈가 어느 날 사라지면서 이들은 새로운 상황과 맞닥뜨리게 된다. 스니퍼와 스커리는 재빠르게 새로운 치즈를 찾아 나서지만, 햄과 허는 안주의 유혹에 발목이 잡혀 쉽사리 움직이지 못한다. 하지만 곧 허는 '변화'라는 험난한 여정을 떠난다.  
'새로운 치즈를 마음속으로 그리며 치즈가 더 가까워진다', '과거의 사고방식은 새로운 치즈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 '허'가 미로의 벽에 남기기 시작한 글귀들은 우리들에게 변화의 중요성과 변화에 임하는 자세를 가르쳐준다.

## 느림

밀란 쿤데라(김병욱) / 민음사 / 1995년 / 182쪽 / 7,000원

<느림>은 체코 출신 프랑스 작가 밀란 쿤데라의 소설로 '어쩌서 느림의 기쁨이 사라졌는가'라는 지배적인 테마를 둘러싼 공상의 혼합물이다.

오래된 성을 개조해서 만든 호텔에서 하룻밤을 투숙하게 되는 소설가와 그의 아내, 같은 호텔에서 열린 국제곤충학회에 참석한 인사들과 18세기 소설의 남녀 주인공의 이야기가 일관된 분위기 속에서 전개된다. '느림'이라는 제목에서 느껴지듯이 이 소설은 '속도'로 대표되는 현대를 조소하면서 느림의 즐거움을 묘사한다. 현대인들은 결국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속도에 몸을 맡기고 있지만 결국 그만큼 잃은 것도 많다는 것이다. "나는 마차 쪽으로 천천히 가는 나의 기사를 좀더 바라보고 싶다. 그가 걷는 걸음걸이의 리듬을 음미해 보고 싶다. 그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그의 걸음걸이들은 느려진다. 저 느림 안에서 나는 행복의 어떤 징표를 알아보는 듯하다."

책 크기도 작고, 180면으로 분량이 얼마 되지 않으면서 정말 재미있는 책이다.

## 느림의 지혜

스튜어트 브랜드(박근서) / 해냄 / 2000년 / 262쪽 / 8,000원

1000년에 겨우 한 바퀴를 도는 시계, 그래서 무려 1만년동안 작동하는 시계가 미국 사막지대에 만들어진다. '시간'과 '책임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시계를 만드는 사람들이 펼쳐내는 인문학적, 기계공학적인 상상력을 흥미있게 소개했다. 미국의 롱 나우(Long Now, 보다 긴 지금)재단이 1998년부터 추진 중인 프로젝트다.

재단 이름인 '롱나우'는 "보다 긴 지금"을 사고하도록 이들이 만든 신조어이다. 이 책의 저자 브랜드는 "현대 문명의 속도전은 거의 병적인 만큼 심각한 수준"이라며 "느림의 지혜를 깨달아야 한다"고 역설한다.

이 재단의 스튜어트 브랜드 공동의장은 이 책에서 만난 시계를 만들기 위한 각종 상상력을 총동원했다. 가속화되는 문명의 속도에 질려 삶의 리듬감을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느림'이라는 화두를 던져 긴 안목과 책임감을 촉구한다. 1999년 말 만든 웹 사이트 상의 만난 시계는 2000년을 맞으며 두 차례 종을 쳤다.

무엇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도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읽고 삶을 곱씹어 볼 기회를 가져야 할 책이다.

## 대화의 기술

플랫 데일(조영희) / 푸른숲 / 2002년 / 298쪽 / 9,500원

변변히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고 늘 양보하거나 체념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에게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단호하게 나를 표현하는 대화의 기술을 알려주는 책이다.

특히 여성들 중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자기 주장을 하면 너무 공격적으로 보이거나 상대방이 불쾌하게 여길 것이라고 생각하여 혼자서 속앓이를 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사람들에게 친절한 어조로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단호하게 의사 표현하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준다.

다그치기보다는 용기를 북돋워주면서 그 방법을 알려주는 점이 장점이 책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 특히 여성들에게 권할 만하다.

## 도스토예프스키의 유럽인상기

도스토예프스키(이길수) / 푸른숲 / 1999년 / 406쪽 / 9,800원

이 책은 자본주의의 멸망을 한 세기 앞서 예견한 도스토예프스키의 19세기 유럽 문명에 대한 통렬한 비판서이다.

1860~70년대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등 서구 유럽사회를 여행하면서 느낀 것은 바로 부르주아의 탐욕과 중산층의 타락이었다. 19세기 유럽 사회에 널리 유포된 자본주의의 속물 근성과 부르주아의 비속함을 묵도한 그는 이 책에서 당시 러시아 지식 사회의 유럽 숭배 풍조를 신랄하게 비난하고, 유럽의 지나친 합리주의와 물질문명의 폐해로 인한 비극적 종말을 예견하고 있다.



## 독서클럽 이야기

**임영규 / 인간과자연사 / 2003년 / 340쪽 / 12,000원**

이 책은 저자의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하여 독서클럽이란 형태로 특기적성교육 시간에 적용하여 풀어낸 학교 독서교육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오랜 세월 동안 학교현장에서 독서교육을 실시해 오면서 교과와 연계된 독서교육이 되어야만 실제적으로 독서교육을 학교에서 적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독서클럽 활동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근의 입시경향 속에서 사고력과 논리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창의적인 방법의 독서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저자는 읽기 전·중·후 활동과 이야기식 토의, 통합적 토의, 토의방식 토의의 독서토론 모형을 도입하여 독서와 토론이 어우러진 동아리 활동을 전개하였다. 여기에는 이러한 다양한 작품에 대한 학생들의 활동자료와 토의 및 발표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동아리활동이나 사고력 및 논리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 있다.

이 책은 독서와 논술 및 구술능력 향상에 관심이 있는 학생과 교사, 학부모님들의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다.

## 독일인의 사랑

**막스 밀러(도희서) / 태동출판사 / 2002년 / 191쪽 / 7,500원**

<독일인의 사랑>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아무 이유도 없는... 단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들의 진실한 사랑 이야기이며, 내 방 책장 한 쪽에 꽂아 두고 싶고, 소중한 이에게 선물로 주고 싶은 이야기이다. 이 책을 읽으면 순수한 사랑의 의미를 가슴으로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주인공은 성주의 딸이자 병에 걸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마리아와 정신적인 사랑을 나누게 된다. 그들은 이 사랑이 결코 세속적인 틀에 의해서는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결국 마리아는 죽게 되지만 이 애절한 사랑은 주인공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는다.

“왜 당신을 사랑하나구요? 마리아! 어린아이에게 왜 태어났느냐고 물어 보세요. 그리고 들뜬에 편 꽃들에게 왜 피었느냐고 물어 보세요. 태양에게 왜 빛나느냐고 물어 보세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감동을 주는 본문의 한 구절이다.

## 드라이빙 미스터 아인슈타인

**마이클 패터니티(최필원) / 문학세계사 / 2002년 / 296쪽 / 8,200원**

11일간 아인슈타인의 뇌와 함께 한 여행을 그린 소설이다.

1955년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76세의 나이로 숨을 거둔다. 당시 그를 부검했던 토마스 하비 박사는 아인슈타인의 뇌를 분리해낸다. 그렇게 해서 천재의 뇌는 하비 박사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다. 42년 후, 노인이 된 하비 박사는 아인슈타인의 뇌를 돌려주기 위해 아인슈타인의 손녀 에블린을 찾아 버클리로 떠나는 여정을 시작한다.

이 책은 전세계인들이 아인슈타인에 열광하는 이유와 그의 사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온갖 아인슈타인 현상을 아주 유머러스하게 펼쳐놓는다. 또한 전기와 명상적 요소를 한데 섞어 아인슈타인이라는 키워드와 사상, 생애도 보여준다. 이 책을 통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아인슈타인 열풍의 단면을 접해볼 수 있을 것이다.

## 톨스토이의 사랑 이야기

**톨스토이(최현) / 청년사 / 2001년 / 255쪽 / 7,800원**

이 책은 그간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선보여준 여러 작품들보다도 훨씬 인간적으로 우리에게 감동과 교훈을 준다. 이 책은 톨스토이의 일곱 가지 사랑 이야기가 25점의 명화와 함께 담겨져 있는 책이다. ‘두 노인의 순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일리아스의 행복’, ‘불은 커지기 전에 꺼야 한다’, ‘세 사람의 은자’, ‘쫓겨’,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등과 같은 명작을 통해서 톨스토이는 끊임없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묻고 있는 듯하다. 이 책에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키워드로 삶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했던 톨스토이의 글과, 자신의 화폭에 세상을 담기 위해 치열하게 살았던 화가들의 작품을 만나면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고전이며 명작이긴 하지만 읽히기 쉽지 않은 그의 대표작 ‘안나 카레리나’ ‘전쟁과 평화’ 등에 부담을 느끼고 있던 사람이라면 이 책을 통해서 톨스토이를 접해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 로마에서 길을 잃다

김미진 / 해냄 / 2002년 / 260쪽 / 10,000원

이탈리아를 자유롭게 여행하며 쓴 기행문이다. 작가는 이탈리아 여행길에서 마주친 미술, 문학, 사람들에 관한 느낌을 진솔하게 풀어놓는다. 화려한 로마, 물의 도시 베네치아, 꽃의 도시 피렌체, 카프리 섬과 니폴리 등 유명한 도시뿐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마을, 전통이 살아 숨쉬는 카페에 대한 이야기가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진다.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작자의 솔직함이다. 처음 만난 사람과 마음이 통할 때 오는 기쁨, 여행 중의 고단함, 그리고 내면적 갈등이 담백하게 그려졌다. 작자와 함께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도시 속으로 당당하게 발걸음을 옮겨보자.

## 리더와 리더십

이준형 / 인간사랑 / 2002년 / 451쪽 / 15,000원

수직적 조직구조보다 수평적 조직구조가 더 요구되는 요즘 시대에 때마침 '리더와 리더십'이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각 조직에서의 리더의 중요성과 리더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 또한 보다 훌륭한 리더가 되기 위한 방법이 망라되어 있다.

제1장 글로벌 시대와 지식사회, 제2장 리더와 리더십의 의미와 개념, 제3장 리더의 자질, 4장 능력과 기술 및 행동 특성, 제5장 리더(십)의 유형, 제6장 비전과 목표설정, 제7장 조직과 집단, 제8장 리더십과 의사소통, 제9장 리더십과 의사결정, 제10장 리더십과 윤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대가 달라지는 만큼 리더십도 달라져야 한다. 지도자의 위치에 있거나 리더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꼭 한 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탈무드의 지혜

적복연 / 글읽는세상 / 2001년 / 184쪽 / 7,500원

<탈무드>는 유대교의 율법, 전통적 습관, 축제·민간전승·해설 등을 총망라한 유대인의 정신적, 문화적인 유산으로 유대교에서는 '토라(Torah)'라고 하는 <모세의 5경> 다음으로 중요시되는 것이다. 탈무드는 세상을 맑게 해주는 지혜의 샘물이라 불리운다. 아인슈타인, 프로이트, 키신저, 스티븐 스펄버그 등은 이 샘물을 마시며 성장하여 놀라운 천재성을 발휘했다.

노벨상 수상자의 25%가 유대인이라고 한다. 이처럼 유대인들이 타 민족보다 우수한 것은 밑바탕에 탈무드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탈무드를 중심으로 우리들의 삶을 재조명해 보고 지혜로운 이야기를 통해 보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는데 유용한 지혜를 얻게 될 것이다.

“누군가에게 덕을 끼치며 산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뭔가를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그는 그 분야에서는 부자입니다. 뭔가 소유한 것이 있다면 나누어주시시오. 줄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본문 중에 기억에 남을 문장이다.

##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1-3

잭 캔필드(류시화) / 이레 / 1996년 / 238쪽 / 7,000원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진 책이다. 시인 류시화가 번역한 책이어서 시적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게도 해준다.

제1부 사랑에 대하여, 제2부 아이들에 대하여, 제3부 죽음에 대하여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 43가지 이야기가 들어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는 부부, 가족, 낯선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로 사소한 배려나 도움이 상대의 삶에 기쁨을 안겨준다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들을 읽고 나면 단순한 친절이 다른 사람의 삶에 큰 힘이 되어 줄 수도 있고, 내가 하는 일들이 비록 작아도 남을 위해서 한다면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생각과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 오겠다는 생각이 든다..

읽을 때마다 가슴 찡하게 하는 책이어서 책꽂이에 꽂아 두고 읽을 책이다.

## 멸치

김주영 / 문이당 / 2002년 / 270쪽 / 8,500원

<홍어>의 작가 김주영의 신작 장편소설이다. 모성에 대한 그리움, 가족의 의미가 성장기 소년의 입을 통해 서정적으로 그려진다.

'나의 어머니는 실속 없는 멧돼지 사냥꾼인 아버지에게서 환멸을 느끼고 집을 나갔다. 외삼촌 달구는 유수지에서 움막을 짓고 살아가며 이복누이인 '나의 어머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린다. 외삼촌뿐만 아니라 나도 아버지도 모두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린다는 한 가지 소망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서로 의심하고 분개하며 반목한다. 하지만 그 반목에서 오는 긴장감은 이들을 결속시킨다.

이 책을 통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한 소년의 성장일기가 가족의 지닌 의미를 생각해보게 한다.

## 명화와 의학의 만남

문국진 / 예담 / 2002년 / 274쪽 / 16,500원

의학적 관점에서 풀어본 명화이야기다. 저자는 미술을 감상의 대상이자 탐구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림 속에서 삶과 죽음, 그리고 인생을 읽어낸다.

통풍을 앓는 프랑스 국왕 루이14세와 신성로마제국 황제 카를5세의 초상화, 프랑스 화가 이 아생트 리고의 '루이14세의 초상'에는 루이 14세의 아픈 발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반면 이탈리아의 16세기 화가 티치아노가 그린 카를5세 초상화는 통풍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리고는 권력에 아부했고 티치아노는 사실을 사실대로 그린 화가라는 게 저자의 결론이다. 그 외에도 저자는 살아 있는 신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추하게 보이는 부분까지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렘브란트의 그림 '욕실에서 나온 밧세바'의 여인의 몸매를 관찰해 유방암을 앓는 것으로 진단하고, 그 누드 모델이었던 렘브란트의 두 번째 부인이 그 질병을 지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등 이 책은 명화 속 아름다운 부분 뿐만 아니라 추한 부분까지 과학적으로 접근한다. 이 책은 예술 작품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것이다.

## 몽유도원도

적인호 / 열림원 / 2002년 / 144쪽 / 7,500원

'삼국사기'에 나오는 '도미전'을 바탕으로 쓰여졌다. 백제왕 여경은 꿈속에서 본 여인을 잊지 못해 현실에서 그 사랑을 이루려 한다. 그러나 현실 속 여인에겐 이미 남편이 있고, 이들 부부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기만 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여경은 포기하지 않고, 현실 권력을 앞세워 도미의 눈을 멀게 하고, 그 여인(아랑)을 차지하려 한다. 하지만 여인은 눈먼 남편과 함께 고구려로 도망한다.

어떠한 폭력에도 굴하지 않는 아름다운 사랑과 꿈속에서 본 도원경을 현실에서 찾으려하는 욕망의 무상함이 긴 여운을 남기는 소설이다.

## 물구나무 서서 본 일본

조양욱 / 해냄출판사 / 2001년 / 215쪽 / 18,000원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을 바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노인 대국이 되어 가는 일본의 모습, 일본인의 기록 정신 등 일본 사회의 특징이 조목조목 펼쳐진다.

저자는 주일특파원으로 활동하면서 경험한 일본과 일본인을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분석한다. 또한 이십우화와는 달리 낮잠을 자는 거북이가 되어 가는 우리의 모습을 반성한다. 그러면서 애증의 역사를 함께 해온 일본에 대한 미움을 견어내고 일본인이 지닌 장점을 배울 것을 당부한다.

이 책을 통해 일본 문화의 현주소와 일본 사회의 특징,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생각해보자.

## 민속놀이와 명절(상,하)

조선의 민속전통 편찬위원회 / 대산 / 2000년 / 244쪽 / 9,800원

민속 명절을 쇠는 것은 민족의 고유한 관습을 살려나가며 생활을 낙천적, 문화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데 커다란 의미가 있으며 체력 단련과 지능 향상 그리고 민족적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게 한다. 재미있는 읽을 거리와 자료 가치가 높은 '조선의 민속전통' 시리즈로 우리 거리의 생활과 풍속, 정서가 담긴 민속놀이와 명절을 집대성한 책이다.

민속놀이와 명절을 주제로 한 이 책에서는 철에 따른 우리의 민속명절과 예로부터 다양한 형태로 창조되고 발전해 온 민속놀이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한다. 무술을 연마하면서 생긴 무술 연마놀이, 몸을 단련하는데 유익한 체력단련놀이, 머리를 쓰며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지능겨루기놀이, 탈을 쓰고 춤을 추거나 행동을 보여 주는 탈놀이, 인형을 조종하며 재미있는 줄거리를 보여 주는 인형놀이 등 많은 민속놀이들이 상·하권으로 나누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 바다의 도시이야기(상,하)

시오나 나나미(정도영) / 한길사 / 1996년 / 522쪽 / 15,000원

<바다의 도시이야기>는 <로마인 이야기>로 널리 알려진 일본의 여류 역사저술가 시오노 나나미가 베네치아 공화국의 융성과 몰락과정을 그린 역사평석서다. 81년 일본에서 출간됐을 당시 '비즈니스맨의 필독서'로 불리며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으며, 82년 시오노에게 '산토리 학예상'을 안겨준 책이다.

로마제국 붕괴 후인 7세기 초에 건설된 이탈리아의 해상 도시국가 베네치아는 14세기 초 지중해의 무역을 독점하며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다. 철저한 정교분리정책과 공화제를 채택한 베네치아는 1787년 몰락할 때까지 근대 유럽문명의 모태가 되기도 했다.

이 책은 자원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는 베네치아가 어떻게 지중해의 해상무역 강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를 재미있게 서술하고 있다. 이 책은 정치안정을 바탕으로 무역을 발전시키고 예술과 시민 자유를 진흥시킨 베네치아 1천 년의 역사를 통해 오늘날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

## 바이마르 문학 기행

노르베르트 윌러스 외(박중대) / 백의 / 2000년 / 672쪽 / 17,000원

'바이마르'는 독일문화의 한 메카이다. 무엇보다 독일어와 그 때까지 낙후되어 있던 독일의 민족문학을 단숨에 세계어와 세계문학으로 끌어올린 괴테와 쉴러의 숨결이 담긴 도시이다. 베를린에서 라이프찌히를 거쳐 에어푸르트로 가는 길 언저리에 위치한 자그마하고 초라한 시골 도시, 유려한 역사의 숨결이 배어 있는 곳도 아닌 곳. 괴테는 그 평범한 시골도시 바이마르를 '일름강의 아테네'라 불리게 만들었고, 쉴러는 바이마르 클래식 시대를 열었다. 이 책은 그 때와 그 곳을 찾아가는 기행서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황태자 칼 아우구스트 왕자는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쓴 작가 괴테를 바이마르로 초청한다. 이 초청을 받아들임으로써 괴테의 바이마르에서의 삶이 시작되고 바이마르도 새로운 시대를 맞게 된다.

이 책은 괴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그리고 괴테의 문학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인간 괴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괴테의 인간적 면모를 주의 깊게 따라가 보는 것도 읽는 재미를 배가시킬 것이다.

## 박물관 알고 가면 재미있다

이내옥 / 한겨레신문사 / 2000년 / 307쪽 / 9,000원

이 책은 현재 국립진주박물관장으로 있는 저자가 펴낸 박물관 유물 이야기이다. 전국의 국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우리 문화재 58 가지를 선택하여 역사적, 문화적 배경 등 작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전시, 이전, 관리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준다.

1,500여 년 전 프레스코화 기법으로 그린 쌍영총 무덤벽화에서 고구려의 높은 예술성과 남성적인 강인함을, 비슷한 시기의 무령왕 지석에서는 백제 문화의 자유분방함을 읽는다. 고철로 팔려 나갈 뻔했던 농경무늬청동기에서는 청동기시대 생활의 한 단면을 보고, 조선시대 목각인형 동자상을 보며 석굴암 본존불이나 하회탈 초랭이와는 또 다른 친진난만한 우리의 얼굴과 만날 수도 있다.

박물관 진열장 앞에 붙어있는 짧고 건조한 설명에서는 얻을 수 없는 유물들의 사연을 들려주는 책이다.

## 반갑다 마인드 맵

한국부안센터 / 세계절출판사 / 2002년 / 198쪽 / 8,500원

마인드 맵이란 읽고, 분석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는 그 모든 것들을 마음 속에 지도로 그리는 방법이다. 이 책은 이미지와 핵심 단어, 색과 부호를 사용하여 좌뇌와 우뇌의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두뇌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사고력 중심의 두뇌 개발 프로그램인 마인드 맵을 손쉽게 익힐 수 있는 한국 최초의 마인드 맵 활용서이자 입문서이다.

1부 기존 학습법, 무엇이 잘못됐나? 1. 궁지에 몰린 기존 학습법 2. 기억의 한계 3. 읽기의 한계 4. 듣기의 한계 5. 노트 필기의 한계 2부 마인드 맵, 과연 무엇인가? 6장 밝혀지는 두뇌의 비밀 7장 마인드 맵이란? 8장 마인드 맵의 도우미 9장 마인드 맵의 첫걸음 3부 마인드 맵, 어떻게 내 것으로 하나? 10장 마인드 맵 만들기 11장 마인드 맵과 친해지기 12장 마인드 맵과 놀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발상의 전환에서 창조의 결실까지

조동일 / 인간과자연사 / 2001년 / 160쪽 / 6,500원

이 책의 주된 목적은 우리 나라의 교육이 '창조하는 교육'이 되게 하는 길을 제시하는데 있다. 교육이 창조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이 찬성하며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창조하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은 창조를 방해하고 있는 교육이다. 이 책은 왜 그렇게 잘못되고 있는가를 밝히고 어떻게 하면 바로잡을 수 있을까 말하고자 한다.

발상 전환의 현상, 질문하는 방식과 의도, 수학능력시험과 구술고사, 전환의 의의, 짓밟히는 능력, 망하고 있는 대학, 살아남 길이 있는가, 수학공부와 문학공부, 2와 둘에 관한 질문, 자료 찾아 대답하기, 철학 불러오기, 수학으로 이루는 결실, 철학으로 이루는 결실, 문학으로 이루는 결실 등이 주요 구성 내용이다.

## 백남준 그 치열한 삶과 예술

이용우 / 열음사 / 2002년 / 318쪽 / 12,000원

이 책의 저자는 "나는 이 책을 쓰면서 독자들에게 백남준을 편하게 이해하는 통로를 마련해 주고 싶다. 백남준을 소개하는 상품 같은 라벨을 떠나 한 인간 백남준과 만나게 하고 그의 예술을 소박하게나마 이해하는 진정한 독자층을 넓혀주고 싶은 것이다. 우리 주변에서 백남준을 모르는 사람은 드물다. 그러나 백남준의 예술이 무엇인가를 보통사람들의 지식으로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 책의 성격을 쉽게 알게 해주는 말이다.

## 보보스(디지털 시대의 엘리트)

데이비드 브룩스(형선호) / 동방미디어 / 2001년 / 296쪽 / 9,000원

'보보'란 부르주아 보헤미안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엘리트이다. 이들이 아이디어와 지식으로 미국을 지배하는 새 기득권층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혁신의 제조자, 기존질서를 무수한 전위부대, 상징권력을 장악한 새로운 엘리트계층으로 겉모습과 사회적 체면보다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개인주의를 중시한다.

보보라는 새로운 엘리트가 21세기에 세계 초강대국 미국을 주도할 계층이라 할 때 이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여진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21세기를 주도할 계층은 누구인가? 그들은 어떤 공통점과 연대감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 부여된 과제들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 미국의 보보와 같은 역량과 책임감을 가진 주도 계층이 우리에게 과연 존재하는가? 등과 같은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져준다.

## 불꽃처럼 살다간 여인 전해린

정공재 / 곱과희망 / 2002년 / 359쪽 / 10,000원

시인 정공재가 전해린의 삶과 그녀만의 독특한 문학세계를 편지글과 짙한 일화를 통해 소개한 평전이다. 여성 법학도이자 독일문학가로서 두 권의 유고집 <그리고 아무말도 하지 않았다> <이 모든 괴로움을 또다시>를 남기고 서른 한 살에 요절한 그녀의 삶과 글을 접할 수 있다.

1960년대 젊은이들의 우상이었던 전해린의 일생을 조명한 평전으로 열정적인 삶을 그녀가 남긴 일기와 편지글, 수필과 시 등을 보여준다. 문학 소녀였던 전해린이 서울 법대를 중퇴하고 독일로 가서 낭만적인 분위기와 학구열에 휩싸여 지내는 모습, 실존에 몸부림치는 지성인의 처절한 내면, 그리고 스스로 선택한 죽음 등 전해린의 '불꽃같은 삶'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 비둘기를 잡아먹던 시절

웬밍웨이 외(김만중) / 거승미디어 / 2002년 / 238쪽 / 7,000원

이 책은 스물 두 살의 발자크가 마흔 다섯 여인과 사랑에 빠져 고뇌하면서 번민하는 순간을 그리기도 했고, 장자크 루소가 존경하면서도 사랑했던, 그리고 평생 '마망'이라 불렀던 바랑 부인을 만나는 순간을 한 장의 스틸 사진처럼 그리고 있다. 또한 현대 무용의 창시자 이사도라 던컨이 그 많은 남자와 염문을 뿌렸지만 평생 잊혀지지 않는 첫사랑에 대한 기억을 자전적 고백 수기로 그려 놓고 있으며, 그밖에도 죽음을 눈앞에 둔 빅톨 위고, 앙드레 지드 등의 이야기와 피츠 제럴드의 말년 불우한 모습을 그를 흠모했던 세일러 그레이엄 여사가 적은 글도 있다. 생텍쥐베리, 고흐, 울프, 릴케, 위고, 까뮈, 피카소, 프로이트 등 31명의 전기문이다.

이 책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야기보다는 그 동안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들이 실려 있어 독자들의 흥미를 끌 것으로 기대한다. 위대한 인물들에 대한 전기를 읽다보면 위대한 영광 뒤에 감춰진 그들만의 고통스런 날들을 감내하던 시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빠빠라기

투이아버(유예자) / 동서고금 / 2000년 / 178쪽 / 6,000원

이 책은 남태평양 사모아 섬의 추장인 투이아버가 인류의 문명을 처음으로 접하고, 이를 보고 고하는 연설문이다. 투이아버는 하얀 돛단배를 타고 나타난 문명인을, 하늘을 찢고 나타난 자라는 의미를 지닌 ‘빠빠라기’라고 불렀다.

이 책에는 순수한 투이아버의 눈에 비친 우리 빠빠라기들의 모습이 펼쳐진다. 투이아버가 볼 때 우리는 불쌍한 문명인에 불과하다. 발이 숨을 못 쉬도록 이상한 카누(신발)을 썩워 놓고, 답답한 돌상자 안에 들어가 사는 이상한 존재들.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살면서, 자신만이 옳다고 우기는 현대 문명인인 우리들의 모습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좋은 기회를 이 책은 제공하고 있다.

## 사나이 중의 사나이 군자

류훈 / 교학사 / 2001년 / 168쪽 / 7,000원

<사나이 중의 사나이 군자>는 쉽고 빠르고 재미있게 공자의 가르침을 전달하고자 한 책이다. <논어> 가운데 ‘군자(君子)’와 관련된 글을 추려 만화와 삽화를 곁들인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하였다. 원문과 함께 직역과 주석을 덧붙였으며, 교훈과 유사한 삶을 산 ‘역사 인물’도 수록하였다. 공자가 생을 마치자 제자들이 모여 스승에 대한 질문과 답을 추려 엮은 <논어>의 내용을 바탕으로 가르침의 의미를 만화와 이야기로 재미있게 엮어 힘들게만 여겨지던 고전에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고서를 찾아 주석을 달고 풀이를 붙여 알기 쉽게 서술했다. 부록으로 공자의 연표와 제자를 수록했다.

소인이 출세하는 세상에 사나이 중의 사나이를 군자로 떠받드는 사회가 오기를 기대하는 지은이의 염원도 읽어야 할 것이다.

##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1-2

톨스토이(방대수) / 책만드는집 / 2000년 / 158쪽 / 6,500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러시아의 민간 전설을 토대로 톨스토이가 쓴 작품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바보 이반’ 등을 아끼자기한 일러스트와 함께 꾸민 책이다.

이 책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한다. 그리고 인간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기도 한다.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을 주므로 그저 가볍게 읽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책이다. 또한 예쁜 그림과 어울려 있어 친구에게 선물하기에도 좋다.

##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

후지하라 가즈히로(은영미) / 새로운제안 / 2002년 / 128쪽 / 7,800원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데 필요한 기본 사항을 알려주는 책이다. 저자는 인간관계의 묘미가 인생의 즐거움을 배가시켜 준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질문함으로써 감동의 느낌표를 만드는 방법, 사소한 실수를 커다란 기회로 만드는 방법, 개개인의 장점을 커다란 하나의 힘으로 만드는 방법 등을 시원스럽고 간단명료하게 가르쳐 준다.

올바른 대인관계를 구축하는 소프트웨어가 이 책 속에 들어 있다. 가까이 두고 3회 정독할 필요가 충분히 있는 책임은 분명하다. 이 책을 통해 풍요로운 인간 관계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

## 산은 내게 말한다

라인홀트, 메스너(강현주) / 예담 / 2002년 / 224쪽 / 8,500원

이 책은 최고의 등반가라고 불리는 라인홀트가 30여 년간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통해 누아넨 삶의 지혜를 전한다.

고산(高山) 등반에 성공했을 때의 감격뿐 아니라 사랑하는 동생을 잃었을 때의 심정, 발가락과 손가락 일부를 잘라내야 했던 상황도 담담하게 되새긴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이 과학을 이용하여 정복해 버리기에 산은 너무도 소박하다. 그리고 인간에게 그럴 권리도 없다. 이 세상에 최고의 등반가, 가장 빠른 등반가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신문 기자가 만들어낸 말일 뿐이다.”

이 책은 실패가 갖는 의미를 깨우쳐 줄 것이다.

## 살림의 논리

장택희 / 녹색평론사 / 2000년 / 228쪽 / 7,000원

저자는 살림이란 말 그대로 살리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잠자고, 말하고, 대소변 보는 것 등을 잘하는 것이라 본다. 문제는 이런 것들에 필수적인 공기며 물, 강과 바다, 갯벌과 연안이 망가져 살림에서 떨어져 간다는 것이다.

이들테면 아이의 건강에 누구보다 신경을 쓰면서도 태연히 가공식품을 먹이는 초보 부모들에게 생명에 대한 경외심과 먹을 것에 대한 조심스러움 등을 최선을 다해 전달하는 것이다. 아이에게 소시지를 권하는 어머니들이나 수입 밀가루를 보면 참지를 못한다. 소시지에 아질산나트륨이라는 몸에 해로운 발색제가 들어있고, 한달 이상 배를 타고 오는 밀가루에는 벌레조차 살지 않기 때문이다.

저자는 그래서 '살림'을 강조한다. 세상을 살리는 '살림'이다. 한끼의 고마운 식사에 혹시 '죽임'의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따지는 일이야말로 나와 가족과 세상을 살리는 일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 생의 한가운데

루이제 린저(강두식) / 범우사 / 2002년 / 374쪽 / 9,000원

루이제 린저의 <생의 한가운데>는 그녀의 <도덕의 모험>과 함께 '나나 소설'이라고 불린다. 작가는 '나나 부수판'이라는 인물을 통해 전후 독일의 암담하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참된 삶을 추구하는 여성의 한 전형을 성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소설을 두고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작가가 삶의 의미를 부단히 추구하고 모색하는 매혹적인 인간상을 그려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절망의 발을 갈아 희망의 짝을 키우며 삶에 녹아든 죽음의 향수, 영원히 마침표를 달지 않을 나나의 삶에 대한 이 태도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허식과 오류 속에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한다. 또한 이 왜곡의 시대에 '사랑'은 과연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지, 사랑의 빛으로 재조명되는 인간의 본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독자에게 의미심장한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

## 생활 속의 맞춤법 이야기

상기지 / 역락 / 2000년 / 302쪽 / 9,000원

<생활 속의 맞춤법 이야기>는 한글학회 책임연구원인 저자가 우리 생활 속의 바른 말, 글살이를 위한 지침을 알기 쉽게 풀어쓴 책이다. 솟음을 수놓으로 적는 까닭, 사이시옷의 함정, 자주 틀리는 낱말 몇 개, 알쏭달쏭한 띄어쓰기 등 한글 맞춤법에 대해 수록하고 아름다운 우리말과 어원 엮이기, 외래어 및 로마자 표기문제 등을 신고 예문과 함께 해설했다.

1. 참 쉬운 한글 맞춤법 2. 참 아름다운 우리말 3. 우리말 우리 글 길들이기 4. 외래어·로마자 적기 [붙임]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마자 표기로 자기 이름을 제대로 표기했는지를 살펴 볼 수 있기도 한 이 책은 책상 위에 놓아두고 늘 활용해야 할 책이다.

## 서얼단상

고정석 / 개마고원 / 2002년 / 464쪽 / 13,000원

<서얼단상>은 고정석의 산문집으로 - 한 전라도 사람의 세상 읽기 -라는 부제를 달았다. '서얼'과 '전라도 사람'이라는 단어에서 이미 이 책의 더듬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는 금세 판명된다. 의견상 '근대 이후'를 살고 있음에도 우리 사회 곳곳에는 아직도 전근대적인 혈연, 지연, 학연의 패거리가 물려다니며 행패를 부리는 것이 현실이다. '전라도' '조선일보' '개인을 위한 변명, 소수를 위한 옹호' 등 만만치 않는 주제들이 '공익을 위한 자유'를 옹호하는, '서얼 출신' 저자의 눈을 통해 분석되며 해석된다.

저자는, 소수의 누군가를 차별하고 따돌린다는 것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기 위한 것이라는, 일종의 '희생양 만들기'임을 보여주면서 작금의 모든 차별이 '비이성적'인 행태임을 고발한다. 그리고 그는 "중심에 들지 못하고 주변에서 서성이는 경계인"이라는 자괴감에서 벗어나 "변방을 넓혀 중앙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 세계최고의 우리 문화 유산

**이종호 / 펼쳐라인 / 2001년 / 335쪽 / 13,000원**

<세계 최고의 우리 문화 유산>은 저자 이종호 박사가 포석정을 비롯해 석굴암, 고인돌 등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밝힌 책이다.

다른 문화권과 비교해 결코 떨어지지 않는 뛰어난 청동기 문화를 꽃피웠던 우리의 고대문화를 밝히는 결정적인 증거물이자, 세계에 자랑할 만한 위대한 유산 '고인돌'부터 고구려가 중국과 교류하면서 불교를 비롯한 종교와 문화를 수입한 후 자신의 문화로 흡수시킨 금지를 드러내기 위해 축조한 '고구려 벽화'까지를 고대문화, 과학문화, 생활문화, 예술문화 등 네 주제로 나눠 풍부한 사진자료와 함께 소개했다.

제1부 고대문화에서는 고인돌, 비파형 동검, 개마무사, 단군, 대동강 고대문명을 제2부 과학 문화에서는 고인돌 별자리, 포석정, 세계 출판 역사의 신기원- 금속활자,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끈 숨은 공신-화약, 화학무기와 세계 최초의 시한폭탄-화포와 비진천뢰, 제3부 생활문화에서는 초가 집과 온돌, 막걸리, 전 세계를 평정하고 있는 발효 식품의 진수 김치, '국물 음식문화'의 필수품-장, 제4부 예술문화에서는 바위그림, 석굴암, 금관, 고분벽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

**움베르트 에코(이세욱) / 열린책들 / 1999년 / 444쪽 / 9,500원**

가장 저명한 기호학자인 동시에, 뛰어난 철학자, 역사학자, 미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볼로냐 대학의 교수인 움베르트 에코는 기호학에서부터 철학, 예술, 소설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작가이다.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은 현대 문명에 대한 유쾌한 비판이 담긴 패러디의 극치이다. 우리가 사는 삶의 실상과 이 빠른 변화의 시기에 상처받지 않고 살기 위한 처세법을 유쾌하게 이야기하는 제1부 실용 처세법, 현대의 온갖 난해한 과학-문화 이론에 대한 무자비한 조롱인 '카코페디아', 에코답게 우리의 상식과 IQ를 시험하는, '어떻게 지내십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170여 가지 대답', 일종의 정신 착란적 공상 과학 소설인 '성조기' 등이 실려 있고 마지막으로 에코의 고향 회상기가 실려 있다. 에코의 고향 회상은 이 책에 유머러스한 분위기와는 달리 서정적이고 시적이기까지 하다. 그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고향에 대한 수줍은 애정을 고백한다.

## 세잔, 줄라를 만나다

**레몽 장(김남주) / 여성신문사 / 2001년 / 202쪽 / 11,000원**

자연주의 문학의 대가인 에밀 줄라와 현대 미술의 선구자인 폴 세잔은 중학교 동창이었다. 파리에서 살다가 엑상프로방스로 전학온 에밀 줄라는 말더듬은 버릇 때문에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되었는데, 이 때 그의 편에 있어준 사람이 세잔이었다. 그게 고마웠던 줄라는 어느 날 사과(그 유명한 세잔의 사과!) 한 바구니를 들고 세잔의 집으로 찾아간다. 우정은 그 사과 한 바구니로 시작되었다.

이 책은 뛰어난 이야기꾼으로 잘 알려진 레몽 장이 이 둘의 우정과 결별을 섬세한 필치로 묘사한 책이다. 엑상프로방스에서의 유쾌한 어린 시절에서부터 <작품(L'oeuvre)> 출간을 계기로 결별하기까지 둘의 관계를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글 중간 중간에서 볼 수 있는 세잔의 그림들은 이 책을 읽는 또 하나의 맛이다. 세잔과 줄라를 죽을 때까지 결별하게 만든 줄라의 <작품>. 도대체 <작품>이 어떤 것이기에 세잔은 줄라에 대한 모든 감정을 목살하고 그토록 단호하고 간결한 편지로 결별의 인사를 대신한 것일까? 레몽 장의 유려한 필체와 구성력을 맞볼 수 있는 책이다.

## 소망 없는 불행

**페터 한트케(윤용호) / 민음사 / 2002년 / 190쪽 / 7,000원**

너무도 외로운 나머지 자살을 선택한 어머니의 삶을 관찰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어머니의 일생을 전후의 시대적 상황, 가난, 소외감과 함께 조명해 나간다.

'여성'이라는 성을 명에처럼 지고 반복되는 가사 일에 찌들어갔던 어머니, 젊었던 시절에는 꿈을 좇아 가출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은 생활고와 남편과의 불화로 신경쇠약을 앓다가 죽음을 선택한 어머니. 저자는 이런 어머니의 모습을 '소망 없는 불행'이라고 냉정하게 표현한다.

이 책을 통해 차가운 묘사 속에 감추어진 슬픔의 근원을 찾는 여행을 떠나보자.



## 소박한 삶

레기네 슈나이더(조원규) / 여성신문사 / 2002년 / 288쪽 / 8,000원

소비사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가한 책으로 '소박한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의 경험담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시한다.

저자는 '조금 느리게, 그리고 검소하게' 살면 내적 자유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조언한다. 그러면서 삶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건어내기,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기, 단순함을 선택하기,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 구분하기 등, 소박함의 10가지 모습을 제시한다.

이 책을 통해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삶의 여유를 발견하자. T.V, 인터넷, 각종 카탈로그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광고의 유혹을 절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이다.

## 소원을 들어주는 딱정벌레

베른하르트 랑엔슈타인(송래홍) / 이문과 실천 / 2002년 / 141쪽 / 8,000원

늪은 방랑자와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로운 딱정벌레를 주인공으로 한 이 이야기는 기지와 유머가 넘치는 불가사의한 이야기이며, 잊혀지고 억눌린 소원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또한 이 세상과 행운을 찾아가는 노정에 뒤엉켜 존재하는 운명적인 그리움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 책에 나오는 늪은 방랑자와 딱정벌레의 여정은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 '연금술사'를 연상시킨다. 늪은 방랑자가 소원을 들어주는 힘을 가진 딱정벌레와 불행한 나라를 여행하며 사람들 소원을 들어주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동시에 방랑자가 자신을 찾아 나가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자신이 없고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늪은 방랑자에게 '논리적으로' 훈계하는 딱정벌레의 대화 내용은 '자신'의 '자신'에 대한 인식도 절끔하게 할 것이다.

## 소유냐 삶이나

에리히 프롬(정성환) / 홍신문화사 / 1991년 / 248쪽 / 6,000원

이 책은 존재의 방식에 대한 깊은 사유의 결과물이다. 이 책은 독자로 하여금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삶의 방식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한다. 글을 읽으면서 스스로가 얼마나 소유에 얽매어 있으며, 자신의 삶에서 소외되어 있는지, 소유가 결코 가져다 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어린 시절 매순간 충만히 깨어있던 자아가 커가면서 미래에 대한 집착과 과거에 대한 기억에 얽매어 어떻게 현재를 잃어버리고 사는지 알게 하는 책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내용을 담은 학문적인 글인데다 번역에서 오는 모호함으로 처음부터 쉽게 마음에 와 닿지 않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몇 번이고 읽다보면 삶의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삶에 대한 태도와 방식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갖게 될 것이고 그런 생각들은 분명 자신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리라 확신한다.

저자의 다른 책 <사랑의 기술>, <존재의 기술>, <자유로부터의 도피> 등을 읽어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자신 삶의 주인으로서 진정한 자유를 원하는 사람에게 꼭 읽으라고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 습관으로 본 일본인 일본 문화

간자키 노리타케(김석희) / 청년사 / 2000년 / 203쪽 / 8,000원

옛부터 전해오는 일본인들의 자질한 습관의 기원과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일본인과 일본문화에 대해 접근한 책이다.

저자는 순가락이 없는 일본의 음식문화, 남녀혼탕이 낯설지 않은 목욕문화 등을 비롯해 '따뜻한 술', '끊임없이 반복하는 절', '복잡다단한 종교', '성냥갑만한 집', '씩씩이하는 단체관광' 등을 주제로 삼아 일본문화를 살펴본다. 저자는 자질한 개인의 문화적 습관들이 모여 한 민족의 문화를 만든다며 현재 일본인들의 사소한 습관의 기원을 찾아간다. '일본에 왜 순가락이 없을까' 저자에 따르면 쌀이 부족했던 과거에 일본인들의 주식인 잡곡밥이나 잠탕 죽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릇을 입까지 들고 가 젓가락으로 밥을 쓸어 넣는 식으로 밥을 먹었던 것이다. 남녀 구분 없는 혼탕이나, 뜨거운 탕 속에 몸을 담그는 목욕문화도 일본의 지리적 환경에서 나왔다. 습하고 더운 지방이라 남녀가 옷을 입지 않고 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전국 각지에 온천이 많아 뜨거운 물 속에 몸을 담그는 목욕문화가 생겼다는 것이다.

## 습관을 알면 문화가 보인다

**피터 콜릿(이윤식) / 정림출판 / 1999년 / 398쪽 / 9,000원**

이 책은 영국 옥스퍼드대학 실험심리학과 교수가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양식을 비교하면서 그 특징을 살펴 본 문화비교론서이다. 세계화의 교류가 빈번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체스처가 달라 빛어지는 오해들을 없애기 위한 문화 안내서이기도 하다. 영국인은 왜 소리를 내어 키스하는지, 이탈리아인에게 가장 심한 욕은 무엇인지 등을 위트 있는 필치로 설명하고 있다.

어느 나라나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각종 습관을 정확히 알았을 때 문화의 뿌리가 보인다는 것이다. 가령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앞차가 녹색 신호인데도 출발하지 않는다고 경적을 울리는 데 걸리는 시간이 독일은 7초지만 이탈리아는 4초에 불과하다는 데에서 문화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나라의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 시계 밖의 시간

**제이 그리피스(박은주) / 당대 / 2002년 / 592쪽 / 23,000원**

이 책은 어느 책과 달리 시간과 기타 주제들과의 관련을 아주 쉬운 문제로 풀어내고 있다. 철학, 과학, 예술, 종교, 문화, 광고, 놀이 등 삶의 온갖 영역에서 시간이라는 문제는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가?

이 책은 이렇게 동서고금을 아우르며 삶 속에서 시간이 행사해온 힘과 영향력, 무늬와 상처를 살펴보는 책이다. 권력과 시간, 성과 시간, 혹은 돈과 시간은? 속도나 젠더의 문제 같은 철학적이고 사회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축제와 시간, 야성과 시간 등 문화사적으로 흥미롭고 풍성한 측면을 잘 집어냈다. 허다한 책으로부터 수많은 구절을 인용하여 시간에 관한 사람들의 성찰의 역사를 보여줌과 동시에, 삽화로 깔린 컬러 도판들은 시간 개념이 지금 이 순간에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감각적으로 보여준다.

## 시대를 앞서간 여자들의 거짓과 비극의 역사

**로사 몬테로(정창) / 작가정신 / 2001년 / 298쪽 / 8000원**

이 책에 소개된 15인의 여성은 하나같이 독특한 삶을 살았고, 인생의 부침을 겪었다. 그 시대의 관습에서 벗어나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했기에 동시대인들의 눈에는 '비정상적인 여자'로 비쳐졌다. 그러나 그 시대의 사회적 편견과 고정관념에 맞서 싸우거나 때로는 힘이 주저앉아야 했던 이들의 삶 자체가 그 시대의 산물이자 그 시대를 투영하는 거울이다.

저자는 역사 속에서 상실된 여성들의 삶을 다양하게 탐색하고 있다. 저자는 여성 15인의 전기, 자서전, 서간문, 일기, 그들을 다룬 모든 형태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그 동안 묻혀 있던 그들 삶의 다른 모습들을 유려한 문체로 회복해 놓았다. 같은 여성으로서 이러한 독특한 삶을 살았던 여성을 바라보면서도 저자는 그 여성들을 두둔하거나 옹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의 단점과 어두운 면, 세상에 알리기 꺼려했던 일들까지 있는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한 인간으로서의 그들의 삶에 접근하려 노력했다.

## 시지프 신화

**알베르 카뮈(김화영) / 책세상 / 2002년 / 230쪽 / 7,500원**

<시지프 신화>는 프랑스 작가 알베르 카뮈의 대표적인 철학 에세이로 1942년 발간되었다. 그는 인간 존재와 세계와의 관계를 '부조리'한 것으로 파악하고, 부조리는 인간에 있어서의 출발점이며 이 출발점을 부단히 의식함으로써 비로소 인간적 자유가 얻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부조리한 자유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 산꼭대기까지 밀어 올리면 떨어져 내리는 바위를 끊임없이 밀어 올리는 그리스신화의 인물 시지프스의 노동이다. 그는 이것을 그저 무의하다고 볼 것이 아니라, 행복이라고 달관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부조리에 대한 추론을 시작으로 철학적 자살, 부조리한 인간, 철학과 소설, 키릴로프 등 철학적 에세이를 엮은 20세기 실존주의 문학의 대표작으로 쉽게 다가가기 힘들지만 청소년기에 꼭 한번 읽어 볼만한 책이다.

## 신문 읽기의 혁명(개정판)

손석준 / 개마고원 / 2003년 / 288쪽 / 8,500원

이 책은 신문에 대한 일대 계몽이 절실한 만큼 신문독자 대다수가 신문에 대해 무지할뿐더러 신문을 잘못 읽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편집을 읽어야 기사가 보인다’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판단력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할 만한 책이다.

편집국의 심장, 편집부를 파헤치고, 신문편집과 정치권력의 관계를 여러 신문을 비교해가면서 설명해 주고 있다. 1판과 5판 사이의 독법은 가장 깨끗한 체하는 기자들이 가장 깨끗하지 못한 경우도 많음을 보여준다. 신문사주와 편집 주체도 다루고 있다.

가장 부패한 지식인들의 전당인 언론을 바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꼭 필요한 책이다. 쉽게 읽을 수 있어서 좋다.

## 신의 나라 인간 나라

이원복 / 두산동아 / 2002년 / 260쪽 / 10,000원

세계 역사를 알기 쉽게 설명한 만화 시리즈, <먼나라 이웃나라>의 저자 이원복 교수가 이번에는 세계 정신 문화의 뿌리를 찾아 떠난다. 전3권 완결 예정인 이번 <신의 나라 인간 나라>시리즈는 인류 문명의 형성에 골간이 되는 정신 세계를 크게 ‘종교, 신화, 철학’으로 나누고 그 각각이 현대문명에 끼친 영향을 고찰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시리즈, ‘세계의 종교’ 편에서는 종교의 탄생 배경과 의미, 그리고 역사를 다룬다. 고대의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유교로 장을 나누어 각 종교의 변천사를 정리했으며 참고자료를 바탕으로 한 친절한 설명이 각 종교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는다. 컬러 만화의 형식과 이원복 교수 만화 특유의 유머, 그리고 감칠맛 나는 설명, 적재 적소에 배치된 도표 등은 어렵고 무겁게만 느껴지던 ‘종교’라는 대상을 좀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게 한다. 더불어 각 시대별, 지역별 역사를 아우르며 종교사를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넓게 보는 시각’은 이원복 교수 만화의 큰 매력이 아닐 수 없다.

## 신화속으로 떠나는 언어여행

아이작 아시모프(김대웅) / 용진닷컴 / 2002년 / 304쪽 / 8,000원

이 책은 옛 소련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귀화, 460여권의 과학기술서를 펴낸 명망 높은 대중 과학자 아이작 아시모프의 20세기 지적 탐구의 결과물이다. 저자 아시모프는 그리스 신화가 인류의 언어와 문화뿐 아니라 천문학, 화학, 생물학 등 과학 분야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규명하고 있다.

그리스 신화는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상황에 적합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신화에서 단어를 차용해오게 되었다. 실례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과학자들은 최초로 우라늄의 핵 분열에 성공했는데 이때 발산되는 방사성 열에서 새로운 원소를 발견했다. 그것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프로메테우스(Prometheus)라는 인물의 이름에서 인용한 ‘프로메튬(promethium)’이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다. 프로메테우스는 태양에서 방사하는 태양열을 훔쳐 와 인류에게 불을 건네 준 인물이었다. 전 마스크업이 격찬한 책이다.

## 신화 그림으로 읽기

이주현 / 학고재 / 2000년 / 284쪽 / 13,500원

서양 문명의 정신적 뿌리가 된 그리스 신화를 그림으로 풀어낸 책이다. 여행을 하면서 수집한 그림과 신화의 배경이 된 곳곳을 찍은 사진들이 서양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1부에서는 왜 서양 미술이 사실주의에 기반을 두게 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2부는 미술 작품에 단골 손님으로 등장하는 아프로디테, 에로스, 아폴론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3부는 서양 미술에서 보이는 우의와 상징, 그리스에 대한 동경을 다루었다.

입담 좋은 작가가 풀어놓는 그림과 신화의 이야기를 통해 서양 문명을 가깝게 느껴볼 수 있을 것이다.

## 실사구시의 눈으로 시대를 밝힌다

오가와 하루미사(광용성) / 강 / 1999년 / 228쪽 / 9,000원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학사상가들의 사상과 삶을 알기 쉽게 풀어쓴 책이다.

근대 이전 아시아인의 서양 콤플렉스를 극복한 학자 홍대용, 요동벌판을 처음 보고 '통곡하고 싶다고 하던 박지월, 선비가 되고 싶던 여성, 그 외 이순신, 김구에 이르기까지 실학자 또는 실학적 인물들의 이야기가 깊이 있게 그려졌다. 저자는 이 인물들을 실학자로 묶는 공통 분모는 바로 진실한 마음으로 실질적인 일을 행하는 삶을 살았고, 자신의 일궈낸 성과를 결코 자랑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실학자들의 이야기는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돌아볼 만한 가치가 있다.

##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

헬렌 니어링(이석태) / 보리 / 2000년 / 247쪽 / 6,800원

이 책은 헬렌 니어링과 남편 스코트 니어링의 삶과 사랑이야기를 그려내고 있다. 젊은 시절 크리스나무르티의 연인이기도 했던 헬렌 니어링은 스물 여섯 살에 스코트 니어링을 만나 삶의 길을 바꾸게 된다. 타고난 '비순응주의자'로서 미국의 산업주의 체제와 그 문화의 야만성에 끊임없이 도전했던 스코트 니어링과 자유로운 영혼 헬렌 니어링이 53년 동안 함께한 '땅에 뿌리박은 삶'은 수많은 이들에게 충만한 삶에 대한 영감을 주었다. 스코트가 백 번째 생일을 맞던 날 이웃 사람들이 이 밧발을 들고 왔는데 그 밧발 하나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한다. '스코트 니어링이 백 년 동안 살아서 이 세상이 더 좋은 곳이 되었다.' 이 책 속에서 헬렌은 스코트와 함께 보낸 반 세기에 걸친 삶과 평온하고도 위엄을 간직한 죽음을 통해 사랑과 삶 죽음이 하나됨을 보여준다.

조화로운 삶, 참으로 이 세상에 보탬이 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온몸으로 보여준 두 사람의 사랑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나는 노벨 평화상

김소기 / 김영사 / 2001년 / 248쪽 / 6,900원

사람마다 단체마다 인류를 위해 한 일은 다르지만,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의 생각과 행동에는 인류의 평화를 무척 사랑한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인류 평화와 평등한 인권의 보장을 위해 일을 해왔다. 그렇다면 인류의 평화와 평등한 인권이란 과연 무엇일까? 왜 그들은 이것을 위해 자신을 바쳐 노력했을까?

노벨 평화상 수상자들의 생활과 여러 사건들, 그들의 업적을 생생하게 엮은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그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화들을 통해, 감춰진 그들의 아름답고 소중한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며, 또한 그 마음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들의 지혜와 용기와 결단과 의지와 꿈을 감동으로 느낄 수 있다.

## 아름답고 평등한 퀴리부부

에브 퀴리(장진영) / 동서고급 / 2000년 / 551쪽 / 15,000원

이 책은 화학원소 '라듐' 발견자이자 2회에 걸친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퀴리부인의 둘째 딸 에브 퀴리가 쓴 퀴리 부부 평전이다. 제목은 '퀴리부부'이지만, 저자의 아버지 피에르 퀴리보다는 어머니인 마리 퀴리에 대한 회상이 많다. 퀴리 부인이 피에르를 만나 라듐을 발견하고 노벨상을 수상하기까지의 역경과 화학자 퀴리가 아닌 '인간 혹은 여자로서의 퀴리'를 만날 수 있다.

이 책에 쓰여진 이야기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이야기 속에 나오는 대화들도 실제로 했던 말들이다. 퀴리 부인의 친척들이 갖고 있었던 편지들과 그들의 증언, 퀴리가 남긴 여러 가지 메모와 간단한 이력서, 공문서들 그리고 무엇보다 저자가 어머니 퀴리와 나누었던 많은 추억들을 되새겨 최근의 일까지 정리했다. 세계 최초로 노벨상을 세 번(한 번은 퀴리 부부와 또 한 번은 퀴리 부인이 그리고 세 번째는 큰딸 이렌느가 수상)이나 받았던 영광스런 가족사를 읽을 수 있다.

## 안데르센의 지중해 기행

한스 안데르센(송은경) / 예담 / 2001년 / 287쪽 / 9,800원

이 책은 동화작가 안데르센의 지중해 여행 기록이다. 동화적 상상력이 가득찬 이 기행문에는 19세기 남유럽과 동방의 모습이 환상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책에는 천진하고 명랑한 안데르센의 마음결이 드러난다. 기차를 처음 타보고 들떠 하는 장면이라든가, 신화의 평인 아테네가 너무 좋아 매일 아크로폴리스에 올랐노라고 고백하는 장면에서 그의 순수한 열정을 느낄 수 있다.

안데르센은 여행기를 쓰면서 책 중간 중간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자신의 동화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동화 읽는 재미도 있다. 그리고 표지에서부터 내용 중간에 삽입된 그림(수채화로 여행지의 풍경을 그렸다)은 충분히 동화적이고 한참동안이나 시선을 붙잡게 한다.

## 압록강은 흐른다

**이미륵(전예린) / 범우사 / 2000년 / 210쪽 / 6,000원**

우리 나라에서보다 독일에서 더 유명한 이미륵의 <압록강은 흐른다>는 원래 40여 개의 이야기기를 모아서 엮은 것이나, 이 책에는 24개의 글을 골라서 실었다. 이 글들은 이미륵의 자전적 이야기기이면서도, 어느덧 잊혀져 가는 우리 자신들의 원형을 망각의 바다로부터 건져내어 은밀하게 일깨우고 있다. 독일의 고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되고 있는 <압록강은 흐른다>는 우리 문학수준을 서구에 알리는 공헌을 했다. 간결하고 꾸밈이 없으면서도 깊은 감동을 자아내는 이 글들은 이국에서 피운 한국 문학의 탐스러운 꽃이라 하겠다.

한국적인 아름다움이 담겨있는 글이라서 감동을 준다. 특히 청소년기의 삶에서 감동을 준다.

## 연금술사

**파울로 코엘료(최정수) / 문학동네 / 2001년 / 278쪽 / 8,000원**

1987년 출간이후 전세계 120여 개국에서 번역되어 2,000만 부가 넘는 판매량을 기록한 책이다. 신부가 되기 위해 라틴어, 스페인어, 신학을 공부한 산티아고는 어느 날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양치기가 되어 길을 떠난다.

주인공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로 가던 길에 만나는 아랍의 연금술사를 통해 불멸의 영성(靈性)을 깨닫고, 처음에 꿈을 꾸었던 스페인으로 돌아와 탄생의 환희를 느낀다. 집시여인, 늙은 왕, 도둑, 화학자, 낙타몰이꾼, 아름다운 연인 파티마, 절대적인 사막의 침묵과 죽음의 위협 그리고 마침내 연금술사를 만나 자신의 보물을 찾게 된다.

연금술이란 진정 무엇일까? 단지 철이나 납을 금으로 바꾸어내는 신비로운 작업일까? 이 책은 아니라고 말한다. 진정한 연금술은 만물과 통하는 우주의 언어를 꿰뚫어 궁극의 '하나'에 이르는 길이며, 마침내 각자의 참된 운명, 자아의 신화를 사는 것이다. 마음은 늘 우리에게 말한다. 나에게 진정한 보물이란 무엇인가? 이 책을 통해서 진정한 가치와 도금향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다.

## 영원한 제국

**이인화 / 세계사 / 1993년 / 358쪽 / 7,500원**

조선조 헌종 때에 이인몽이 쓴 <취성록>을 토대로 추리 형식을 가미한 장편 역사 소설이다. 사도세자의 죽음을 애도한 시 '올빼미'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살인 사건과 갑작스런 정조의 죽음에 대한 음모를 그려냈다.

영조의 글을 정리하던 관리가 살해된다. 이 살인 사건의 실마리는 2권의 책. 평소 정조를 흠모하던 이인몽은 규장각에서 숙직을 하다가 이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 그때부터 정치 개혁을 단행하려던 정조와 그에 맞선 노론 사이의 다툼을 배경으로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천주교 박해, 의문을 남긴 정조의 죽음 등 시종 무거운 사건들이 이어지지만, 정쟁이 극에 달했던 우리 역사의 단면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 영화속의 철학

**박병철 / 서광사 / 2001년 / 334쪽 / 12,000원**

<영화 속의 철학>은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철학의 주요 주제들을 14편의 영화와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

영화 '레인메이커'를 통해 법과 정의를, '가타카'를 통해 과학기술의 미래를, '래리 플린트'를 통해 자유의 한계를, '데드맨 워킹'을 통해 사형제도의 윤리성과 그 성격을 묻는 식이다.

저자는 비교적 친근한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 철학의 어려움에 지레 겁먹은 이들이 좀 더 철학에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각 주제의 끝 부분에는 더 읽어 볼만한 책과 감상할 영화들을 소개했다. 영상매체에 흥미를 빼앗긴 현대에 꼭 읽어보아야 할 책이다.

## 영화로 본 새로운 역사 1-2

**마크 C 린즈(손세호 외) / 조함공동체소나무 / 1998년 / 248쪽 / 12,000원**

영화 속에 가려진 역사적 진실을 파헤치는 책이다. 우리가 흠뻑 빠져보던 헐리우드 영화가 어떻게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1권은 선사시대부터 19세기말까지를, 2권은 19세기말부터 현대까지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역사'와 '할리우드 영화'를 비교·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보여주고, 화려한 영상 속에 가려진 역사적 진실을 끄집어낸다. 역사지도 및 자료 사진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역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진짜 역사'를 마주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책을 권한다.

## 오체 불만족(완전판)

오토다케 히로타다(전명빈) / 장애 / 2002년 / 326쪽 / 9,000원

오토다케 히로타다는 1976년 도쿄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팔다리가 없었고 성장하면서 10센티미터 남짓 자라났다. 그런 팔다리로 달리기, 야구, 농구, 수영 등을 즐기며 초·중·고등학교를 마치고 지금은 일본의 명문대학인 와세다대학 정경학부 정치학과에 재학중이다.

그는 자신의 장애를 단순한 '신체적 특징'이라고 말한다.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팔다리가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하고 '마음의 장벽 없애기' 운동에 매진하고 있다.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솔직하고 위트 있고 감동 깊게 담은 <오체 불만족> 은 장애인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는 부모와 주위 사람들에게 달려있다고 말한다. 오토다케의 부모와 주위 사람들 특히 학교 선생님들의 따뜻한 배려가 감동을 준다.

이 책은 청소년들보다 어른들이 먼저 읽어야 할 책이다.

## 오택진, 이동진의 시네마 기행

오택진, 이동진 / 생각의 나무 / 2002년 / 390쪽 / 2,000원

영화 속에 등장했던 장소들을 찾다니며 우리 가슴 속에 묻혀 있던 아련한 추억의 궤적을 더듬어보는 책이다. 조선일보에 '시네마 기행'이란 제목으로 연재되었던 내용을 대폭 보완하여 만든 것으로, 두 기자가 직접 발로 뛰며 모은 아름다운 사진과 충실한 영화 정보가 펼쳐거리듯 생생하게 담겨 있다.

프랑스 도빌에서부터 시작한 두 기자의 여정은 미국 LA 그리피스 파크에서 끝난다. 영원히 머무르고만 싶은 '지중해'의 카스텔리리조 섬, '위트니스'의 배경이 되었던 랭카스터의 아미시 마을, 청춘 남녀의 아름다운 수다로 더 기억되는 오스트리아 빈 등 모두 31 곳의 촬영지를 돌며 삶의 향혼을 전해준다.

미국편은 오택진, 유럽편은 이동진이 썼다. 아름다운 풍광을 담은 사진은 책을 더욱 맛깔스럽게 만들고, 각 여행지마다 해당하는 영화에 대한 정보를 따로 실어 읽을거리가 더 풍부해졌다. 영화와 여행, 사람과 장소가 만나 묘한 매력을 발산하는 반가운 책이다.

## 왕 샤오링의 한국 리포트

왕 샤오링 / 가람기획 / 2002년 / 266쪽 / 8000원

중국인 유학생 왕 샤오링이 쓴 한국문화론.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중국의 실상과 중국인의 저력, 그리고 외국인인 눈에 비친 한국인의 잘잘못 등을 꼼꼼하게 서술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이라는 신분인 만큼 그녀의 시선은 객관적이고, 그리고 꽤 적나라하다. 구석구석 꿰뚫는 그녀의 시선이 마치 치부를 들킨 사람처럼 부담스럽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가 망각하고 있었거나, 아님 알고도 덮어두던 고질적인 문제들에 일침을 가해주는 그녀의 말은, 입에는 쓰지만 결국 '약'인 것이다.

중국 열풍이 시작되면서 중국 관련 서적들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책들이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과 다르게 이 책은 일반인의 시각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을 비교했다. 진지한 문제의식으로 출발하되, 그것을 대학생다운 신선한 감각과 단정한 문체로 풀어낸 점이 돋보인다.

## 우리 문화 길라잡이(한글판)

국립국어연구원 / 학고재 / 2000년 / 479쪽 / 25,000원

이 책은 국어연구원의 학예연구사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철저한 감수를 받아 집필한 것으로 우리 문화를 알고자 하는 일반인을 위한 종합 문화 지침서이다. 지나치게 전문적인 용어는 피해 쉽고 재미있게 풀어써서 청소년이 읽기에도 무난하도록 엮었다. 한국 문화 전반에 대한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 문화를 제대로 알리고 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

한국 문화를 대표하는 233가지를 음식·복식·주생활·세시풍속·민속신앙·문학·음악·미술·춤·놀이·무예·특산물·상징 등 13개 분야로 나눠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으며 각각의 문화 요소와 관련된 속담을 소개하고 있어 읽는 재미를 더한다. 한국 음식 중의 하나인 '죽'을 설명하면서 '식은 죽 먹기' 같은 속담을 소개하는 식이다. 어휘의 폭넓은 이해를 돕기 위해 그 어휘의 기본 정의, 특징, 유래, 역사, 관련 설화, 어원, 속담 등을 간결하고 재미있게 서술하였고 그 어휘와 관련된 옛 그림이나 생생한 사진을 곁들여 시각적인 즐거움을 준다.

## 우리생활 100년 : 집

김광연 / 현암사 / 2001년 / 383쪽 / 20,000원

이 책은 한옥에서 양옥으로 바뀐 우리 삶의 변화를 살핀 연구서이다. 물장수, 등짐장수, 각설이꾼, 두부장수, 매사냥꾼 등 사라져 가는 열 다섯 가지 생업의 세계를 통해 우리 생활의 변화를 흥미진진하게 살폈다. 아울러 터주, 문, 조왕, 외양간, 지붕 등을 통해 집지킴이의 세계를 살피고, 풍수지리의 원리와 흐름 등을 소개했다.

1. 주거 생활의 변천 2. 집지킴이의 세계 3. 풍수지리의 세계 4. 생업의 세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촌에서도 고층 아파트 짓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요즘, 우리 삶의 변화를 되짚어 보며 편리를 좇으며 잃어버린 우리네 심성을 되찾아 주고, 바람직한 주거·생활 문화의 방향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해 보게 만드는 책이다.

## 우리 역사 속 왜

강만길 외 / 서해문집 / 2002년 / 312쪽 / 9,500원

이 책은 수많은 역사적 사건 중에서 당연시하거나 쉽게 지나치지만, 정작 되돌아보면 답이 잘 나오지 않는 사건들을 주로 다루었다. 흥미와 역사적 문제의식의 발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재미있는 책으로 일반인이나 청소년이나 모두 쉽게 읽을 수 있다.

이 책에서는 교과서를 통해 외우고 사실에 대해 '왜?'라는 의문을 제시함으로써 역사적 진실에 조금씩 다가가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임진왜란 때 의병의 봉기를 구국의 관점보다 자신의 가족과 터전을 지키기 위한 자위적인 것으로 보고, 장지연이 시일야방성대곡을 쓴 이유를 국가에 충성이라는 관점보다 장지연의 유교적 사상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파악하는 등 전향적인 관점이 적용된 것도 흥미롭다. 특히 박정희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잣대를 가함으로써 한국 현대사를 보는 역사학도의 시선을 드러낸 것도 주목할만하다.

##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신화 101

요시다 아즈미코(김수진) / 아세아미디어 / 2002년 / 416쪽 / 12,000원

이 책은 나라 또는 지역별로 나뉜 11개의 챕터 안에 총 101가지의 신화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대 오리엔트부터 그리스, 로마, 게르만, 켈트 등의 서양 신화와 중국, 일본 등의 동양 신화 등 특정 지역에만 치우치지 않도록 각 나라마다 똑같은 비중을 두어 이야기를 균등하게 분포 시켜 놓았습니다.

신화 속에서 뚜렷하게 구별되는 민족성과 문화는 현재로 그대로 이어져 각 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읽는 이들은 이를 통해 공통되는 신화의 소재와 주제가 나라마다 어떤 방식으로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지 비교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저자가 일본인이라 한국의 고조선 건국신화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에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긴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 우리가 어제 죽인 괴물

이윤기 / 시공사 / 2002년 / 232쪽 / 7,500원

소설가 이윤기의 산문집이다. 담백한 어조로 풀어놓는 일상적 이야기들이 진솔하게 느껴진다.

작가는 '불량인간' 취급을 받았던 학생시절을 떠올리고, 자신을 열 받게 하고, 규칙을 위반하게 하는 이 땅에 대한 분노를 털어놓는다. 그리고 그가 어제 죽인 괴물은 '심심풀이'와 '얼렁뚱땅'이라고 고백한다.

작가는 신화 연구가답게 신화에 대한 이야기도 빠뜨리지 않는다. 그는 '신화는 과학의 적이 아니다'에서 사람들의 꿈(신화)을 읽지 않는 과학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반문한다. 작가가 살아오면서 축적해 온 삶의 내공을 느끼게 해주는 책이다. 다시 태어나도 이 길을 걸어가겠다는 열심히 살아온 사람의 책. 이 책을 통해 삶의 태도를 점검해보는 기회를 갖자.

##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1-2

리처드 칼슨(정영문) / 창작시대 / 1998년 / 272쪽 / 7,500원

저자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명사 중 한 사람으로서 피폐해진 현대인의 정신을 치료해 주는 심리 치료사이며, 특히 '자기 이해' 분야에서 널리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 책은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다섯 가지 원리로 묶어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우리 마음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는 '만족'과 '기쁨'의 상태이며, 이러한 감정이 전제되어 있다면 늘 합리적인 판단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며 행복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명쾌하게 짚어 주고 있다. 또한 행복은 외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문제이며,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만이 진정한 변화라고 주장한다.

'스트레스도 잘 활용하면 약이 된다', '행복해지려면 건강증 환자가 되어라' 등 삶에 대한 수십 가지의 지침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마지막 장에서는 여섯 가지 질문을 통해 행복에 대한 자기 점검을 최종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하였다.

##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

루 살로메(송영택) / 문예출판사 / 2001년 / 252쪽 / 7,500원

<우리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가>는 "루 살로메와 더불어 통 속에서 살린다"라고 외친 니체의 청혼을 거절하고, 릴케로부터 '눈빛을 꺼주소서'를 비롯한 수많은 사랑의 시를 받았으며, 프로이트, 바그너 등 20세기 유럽의 지성들을 매혹시킨 전설의 여인 루 살로메가 23세에 발표한 소설이다. 이 작품은 '신앙과 이성간의 갈등을 대담하게 파헤친 용기와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준 작품'이라는 격찬을 받으며 그녀를 일약 유명 작가로 발돋움하게 했다.

하느님을 버리고 온갖 방황, 사랑, 고뇌에 찬 청년 시절을 보낸 한 젊은이가 자신만의 하느님을 찾기까지의 과정을 명징하게 그려내고 있는 이 작품은 헤세의 '지와 사랑'에 비견되기도 한다. 작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 소설만이 던져줄 수 있는 절실한 공감과 몽클한 감동을 도처에서 느낄 수 있다.

## 이 세상에서 가장 게으른 농사꾼 이야기

이영문 / 양문 / 2001년 / 248쪽 / 7,800원

건강한 자연과 땅에서 일군 지혜와 함께 저자 자신이 만든 '태평농법'의 모든 것을 들려 준다.

'태평농법'은 경비와 노동력을 줄이고도 효과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농법은 비료나 농약 같은 화학물질을 전혀 쓰지 않는다. 때문에 각종 미생물과 해충의 천적이 논과 밭에서 자유롭게 활동한다. 이 농법으로 생산된 농산물은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다. 그래서 태평농업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태평농법은 무경운 건답직파 이모작재배 농법으로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경 하곡 수확과 동시에 추곡을 파종하고, 10월 중·하순경에 추곡 수확과 동시에 맥류를 파종하는 방식이다.

저자는 스스로를 '게으른 농부'라 칭하지만, 그도 새벽 다섯 시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전형적인 농부의 생체리듬을 지녔다. 농부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책이어서 도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 이윤기의 그리스로마신화 1

이윤기 / 용진닷컴 / 2000년 / 352쪽 / 12,000원

흔히 접해왔던 그리스·로마 신화보다 좀 더 저자의 풍부한 해설이 돋보이는 책이다.

기존의 그리스·로마 신화에 대한 책과는 달리 저자는 신화의 근원에 대한 해설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으며 저자의 감정어린 미문들과 직접 찍어 선별한 도판 등을 통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신화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필독서에 해당하는 책으로 신화를 통해서 보다 근원적인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갖고 아울러 신화를 통해 교양을 높일 수 있는 가치 있는 책으로 여겨진다.



##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헤르만 헤세(장예경) / 용진닷컴 / 2000년 / 192쪽 / 6,500원**

헤세는 생시에, 한 독자가 그의 작품에서 39가지의 단상을 뽑아 모은 모음집을 <삼분 독서>라는 제목으로 펴냈다. 밀려드는 편지와 선물에 일일이 답장하기가 힘들어 고안해 낸 것이었다. 이 책은 그 <삼분 독서>의 증보판인 셈이다. 여러 글들에서 주옥같은 문장들을 가려 모았기 때문에, 헤세 사상의 정수를 엿볼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영혼에 다가가려는 헤세의 노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작은 제목들을 달아 몇 개의 장으로 나누어 놓았으므로, 헤세의 전 작품에 담긴 다양한 메시지 또한 접해 볼 수 있다. 내 안에 숨어 있는 또 다른 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간직하고 있을 원초적인 조화와 균형, 참된 인간의 모습을 찾아가는 '구도의 길'로 안내한다.

이 책은 삶의 진실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이다.

## 자부심을 키워주는 50가지 원칙

**잭 캔필드 외(윤은기) / 물푸레 / 2001년 / 324쪽 / 9,500원**

사람은 인생의 60%를 직장에서 보내게 된다. 만일 직장인들이 생산적이고, 즐겁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러한 직장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책에는 택시 운전사부터 정치 지도자, 야채 코너 종업원에서 기업 컨설턴트, 작가, 최고 경영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몸으로 체득한 '살맛 나는 일터의 비결'이 담겨있다. 저자 잭 캔필드는 정곡을 콕 찌르면서도 가슴 몽클하게 다가오는 따뜻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끌어모아 멋지게 엮어냈다. 이 책에 소개되는 글들은 각각의 저자들의 체험담이기 때문에 부담없이 읽히는 일화 형식이 대다수이지만, 가끔씩은 자식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이나 가벼운 연설문 같은 인상을 주는 글도 있다. 그러나 모든 에피소드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

직장 역시 사람과 사람의 소중한 만남이 있는 곳이며, 그러한 관계들 속에서 삶의 귀중한 교훈을 찾을 수 있다.

##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

**대니 서(임지현) / 문학사상사 / 2000년 / 297쪽 / 7,500원**

개개인들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을 담고 있는 대니 서의 두 번째 책이다. 대니 서는 기적은 특별한 어떤 이가 대단하게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15분씩만 투자하면 이루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보통 사람들의 좋은 의도는 실천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 그리고 그가 일궈낸 기적의 순간들을 풀어놓는다. 열두 살 어린 나이에 결성한 환경 보호 단체 '지구 2000년'의 활발한 활동, 여러 가지 사회 봉사 아이디어들.

이 책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된 대니 서의 실천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느껴보길 바란다.

## 적극적 사고방식

**노먼 빈센트 필(이갑만) / 세종서적 / 2001년 / 383쪽 / 10,000원**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두려움과 절망, 자포자기의 감정을 극복하고 희망과 자신감을 되찾는 방법을 제시한 자기 계발서의 고전이다.

긍정적인 성경구절을 자동차 계기판 옆에 붙여 놓아 불안감을 떨쳐버린 세일즈맨의 이야기, 사업에 실패하여 절망에 빠진 이가 희망을 되찾은 이야기 등 여러 예화를 통해 행복을 만드는 방법,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종교적인 관점에서 서술한 내용들이 많아 기독교인들이 읽는다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 정조대왕의 꿈

유봉학 / 신구문화사 / 2001년 / 309쪽 / 10,000원

역사는 위대한 한 개인이 만드는 것인가? 아니면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구조의 힘이 존재하는 것인가? 행위와 구조라는 역사 변수에 관한 논쟁은 그 자체로 해묵은 것이지만, 이것이 특정 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될 때는 더 이상 역사학의 문제가 아니다. 소설과 영화로 일반화된 정조의 독살설과 그에 대한 우상화가 단적으로 이를 말해준다.

이 책은 문학적 허구라는 베일에 숨어서 역사적 왜곡과 정치적 폭력을 미화하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는 영웅 사관류의 역사관을 비판한다. 정조의 죽음을 둘러싼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려는 노력과 정조시대의 개혁, 사상, 문화에 대한 역사적 규명을 통해 지은이는 정조시대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오늘날에 잘못된 지도자상이나 특정 세력에 의한 허황된 정치론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어떤 역사관을 갖느냐에 따라 현실은 전혀 다른 방향에서 해석될 수 있다. <정조대왕의 꿈>은 올바른 역사인식과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준다.

## 제자리를 떠난 문화재에 관한 조사보고서 하나

이순우 / 하늘재 / 2002년 / 296쪽 / 12,000원

문화재는 제 자리에 있을 때 그 가치가 가장 빛난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제자리를 지키지 못한 문화재는 불행하다.

이 책은 제자리를 잃고 원래 있던 곳마저 알 수 없게 되어버린 불행한 문화재들에 관한 보고서이다. '문화재에 대해선 쥐빨도 모른다'는 저자는 옛 절터를 둘러보다 각자의 자리를 떠나 사라져 버린 석탑과 부도, 탑비와 석등 그리고 석불, 철불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기록과 현지 답사를 통해 이 책을 펴내게 되었다. 현재 경북궁 내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염거화상탑의 원위치와 천수사 삼층석탑의 정체, 보원사지 철불과 봉림사 진경대사탑, 그리고 일본에서 반환된 지광국사 현묘탑의 반출 경위 등을 추적하고 있다.

저자는 서문을 통해 지금까지의 기록의 진위를 가려내고자 했으며, 또한 이 책이 새롭게 범했는지 모르는 오류들을 지속적으로 고쳐나갈 것을 밝히고 있다.

## 중국 차 문화기행

박명애 / 푸른사상 / 2002년 / 226쪽 / 11,000원

저자는 중국 각 민족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는 차(茶) 문화를 알아야 중국인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만큼 중국인들은 차를 즐기고, 생활 깊숙이 박혀 있는 그들만의 습관과 심성이 차 문화와 관련이 깊다는 것이다.

이 책은 문헌적인 근거보다는 저자가 여행지에서 보고 듣고 취재한 내용을 기초로 중국 서민들의 생활 속에 자리잡고 있는 차 문화를 이야기한다. 따라서 이 책은 차 문화에 관한 보고서 형식이 아니라 사람 사는 풍경 속에 어우러진 각 지방의 차 문화를 진솔하게 소개하고 있는 차 문화에 관한 산문이라 할 수 있다.

생활 습관을 통해 문화를 진단해 보는 예리한 안목이 돋보이는 책이다.

## 중국의 은자들

아나미 리즈코(김석희) / 한길사 / 2002년 / 224쪽 / 12,000원

이 책은 신화와 전설의 시대부터 청나라 시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에 출현한 특기할 만한 은자(隱者)들을 골라, 각양각색의 삶의 궤적들을 더듬어 본 것이다.

허유를 비롯한 신화와 전설 속의 은자(隱者)들을 통해 중국 은자(隱者)들의 원형적 이미지를 탐색하고, 도가의 시조인 노자와 장자에 초점을 맞춰 후세에 영향을 준 그들의 은자(隱者) 사상을 검토했다. 고대부터 근세에 이르기까지 이 책에 등장하는 중국의 은자(隱者)들은 뜻에 맞지 않는 현실을 부정하고 스스로 은둔이라는 생존방식을 택한 사람들이다. 의기양양하게 현실 사회에서 물러나 강인한 반항 정신을 간직한 채 일탈의 생애를 보내는 그들의 모습에는 '은자(隱者)'라는 말에서 연상되는 정적인 소극성이나, 현실도피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들 나름의 깨끗한 지조를 엿볼 수 있는 책이다.

## 지와 사랑

**헤르만 헤세(김재경) / 예원출판사 / 2002년 / 350쪽 / 6,500원**

시인이자 위대한 소설가인 헤르만 헤세는 서정적인 필치와 심오한 사상으로 독일과 유럽 문화에 생명의 꽃을 피우고자 노력했던 20세기 독일 문학의 생명수와 같은 존재이다.

‘지(知)와 사랑’은 나르치스와 골트문트라는 대비되는 인물의 우정을 통해 자연과 정신, 이상과 현실, 지와 예술의 양극 사이를 오가는 삶의 본질을 가장 극명하게 표현한 작품이다. 현실과 예술의 조화를 끊임없이 추구한 헤세는 이 작품을 통해 현대인의 영혼 속에 깃들인 정신적인 측면과 육체적인 측면을 어떻게 조화시키고 합일시킬 것인가를 제시해 주고 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멋진 삶인가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에 제시된 두 가지 극명히 대비되는 삶의 방식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열정과 의욕을 갖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질문의 7가지 힘

**도루시 리즈(노혜숙) / 더난출판사 / 2002년 / 288쪽 / 10,000원**

이 책은 일상생활 속에서 적절하게 던지는 질문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뒤바꿔 놓을 수 있는가에서 출발하여 질문의 7가지 힘을 설명하며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질문방법을 알려준다.

저자는 질문을 통해 생각할 기회를 갖게되며,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며, 생각을 자극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고 말한다.

1. 왜 질문이 중요한가, 2. 질문을 하면 답이 나온다, 3. 질문은 생각을 자극한다, 4. 질문을 하면 정보를 얻는다, 5. 질문을 하면 통제가 된다, 6. 질문은 마음을 열게 한다, 7. 질문은 귀를 기울이게 한다, 8. 질문에 답하면 스스로 설득이 된다, 9. 질문은 조직을 변화시킨다, 10. 가족의 결속력을 다지는 질문, 11. 질문의 재발견 : 호기심 되찾기, 12. 50가지 현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은 갈수록 질문을 하지 않는 현대의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책이다.

## 초강국으로 가는 중국

**윌리엄 H 오버홀트(윤인용) / 한연 / 1994년 / 456쪽 / 12,000원**

우리는 막연히 21세기에 동북아에서 러시아와 힘의 공백을 대치할 국가로 중국을 말하지만 논리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는 수년간의 아시아 정치, 경제, 사회문제들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로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별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중국이 경제성장을 위해 주변국에 대한 지정학적인 야망을 포기하게 되었다고 단정 짓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로 미국과 중국을 거론하면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우호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제시하고 있다. 중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꼭 읽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관계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 필독서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저자가 저서에서 주요 데이터를 중국사회과학원에서 발표된 자료들을 중국, 영국 등 연구기관의 자료를 재인용하여 중국을 바라보는 객관적인 면에서 조금 떨어지나 저자의 의견에 중국을 연구하는 모든 이들이 공감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계학계차원의 중국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받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이다.

## 폴크스바겐을 타고 나는 날았다

**다니엘 피드베르(김평희) / 참술 / 1999년 / 296쪽 / 7,500원**

다니엘 피드베르는 1942년 프랑스 랭스에서 출생하여 파리 소르본느 대학에서 독문학을 전공한 후 고등학교 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지만, 곧 시트로엥 자동차의 세일즈맨으로 변신한다.

한달에 42대의 자동차를 파는 등 뛰어난 영업수완을 바탕으로 몇 년 만에 시트로엥 제네바 지사장이 되고, 이어 시트로엥 독일법인 사장으로 승진한다. 이후부터 르노 독일법인 사장, 포드 독일법인 사장, 세계 최대의 자동차회사인 폴크스바겐의 사장 등으로 끊임없는 그의 스카웃 인생이 시작된다. 한 때 폴크스바겐의 차기 회장으로 거론되기도 했었던 그는 현재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를 만나기 위해 유럽의 경영인, 정치인들이 줄을 서 있다. 순진하고 정직하며 따뜻한 인간미를 지닌 경영인, 늘 미래를 통찰했던 뛰어난 경영인의 삶의 방식, 성공의 노하우가 여기에 숨어 있다.

이 책은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야 할지 돌아보게 하는 책이다.

## 프랑스 문화예술, 악의 꽃에서 샤넬 NO. 5까지

고봉만 / 한길사 / 2001년 / 512쪽 / 16,000원

이 책은 프랑스 문화·예술의 다양한 주제들을 한데 담은 ‘종합선물세트’다. 16명의 저자들은 문학, 연극, 음악, 미술, 건축 등 기존의 고급문화뿐 아니라 만화, 영화, 패션, 향수 등 대중문화에 이르기까지, 프랑스 문화 예술이 걸어온 역사를 풍부한 사진자료와 함께 간결하게 설명한다.

그러나 이 책의 목적은 단순히 프랑스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기호(嗜好)들을 나열하는 데 있지 않다. 저자가 의도한 바는 그가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문화와 예술을 통해 ‘그 이상의 것’을 탐색해보고자”하는 것이다. 즉, 프랑스 문화의 다양한 ‘각론’을 살펴봄으로써 ‘본론’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 같은 욕심을 한꺼번에 채우려는 게 다소 무리인 듯 하지만, 어쨌거나 프랑스 문화 예술의 다양한 갈래와 흐름, 그리고 그 특징들을 손쉽게 살펴볼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이 책의 매력이라 할 수 있다.

## 한 권으로 읽는 융

에드워드 암스트롱 베넷(김형섭) / 푸른숲 / 2001년 / 237쪽 / 8,000원

인간 행동의 밑바탕은 무엇일까? 의식과 무의식은 무엇일까? 꿈은 왜 꾸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한번쯤 안 가져 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인간 행동의 바탕이 정신이라면 정신은 어떻게 작용하고 그 정신 작용을 인간은 얼마나 자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 조금이나마 접근할 수 있는 책이다.

이 책은 융의 친구이자 런던대학 정신의학과 교수인 저자가 융 사상의 정수를 한 권으로 압축해 놓은 것이다. 총 18권에 이르는 융의 저서를 두루 섭렵하여 그의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서술했다. 원형 / 집단무의식 / 외향성 / 내향성 / 꿈의 분석 / 아니마 / 아니무스 등의 핵심 개념들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서술하고 있어 어렵다고 하는 심리학에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기에 심리학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읽어 볼 만한 책이다.

## 한 권으로 읽는 프로이트

데이비드 스탠포드 클라크(최창호) / 푸른숲 / 2002년 / 278쪽 / 8,000원

개론서는 그 거친 축약으로 인해 독자에게 왜곡된 지식을 줄 우려가 있고 독자가 원전을 등한시하게 함으로써 천박한 지식을 얻는 수준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초보자에게는 그 분야의 입문서로서 동기부여를 해 주고, 또는 일정한 지식이 있는 독자에게는 요긴한 자기 정리 및 확인의 구실을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프로이트는 방대한 양의 저술을 남겨 그의 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살펴보기란 만만한 일이 아니지만 교육가, 의사, 광고인, 화가, 작가, 문화비평가, 영화인 등 많은 사람들이 프로이트를 알 필요가 있고 또 알고 싶어 한다. 한번쯤은 읽어 볼 필요가 있는 프로이트를 개략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바로 이 책이 그 답이 될 것이다. 다만, 한번 읽은 것으로 프로이트를 다 이해했다고 생각하지는 말아야 한다.

## 한국의 신화

황패방 / 단국대학교출판부 / 1992년 / 304쪽 / 5,500원

신화는 신격(神格)을 중심으로 한 구비전승의 설화(說話)로서 민족적인 범위에서 전승되는 특징을 지닌다. 신화는 꾸며낸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 오히려 근래에 와서는 신화야말로 과학이나 역사가 제시 못하는 사실, 즉 가장 근원적인 진실을 보여준다고 믿고 있다. 이 말은 ‘신화가 단순히 아주 오랜 옛날에 있었던 일을 알려 주고, 과거에 대한 지식을 전해주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거는 물론 현재와 미래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신화의 세계 안에서 모든 민족은 인류라는 공통 분모 위에 존재한다. 어떤 민족에 관한 신화의 우월성 내지 열등성 논의도 불가능하며 또 무의미한 일이다.

이 책은 우리 문화 형성의 초기 성과로 나타난 구전신화와 문헌신화들을 모아 엮어낸 책으로 우리 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우리 민족의 민족성, 가치관, 사상의 기저를 알기 위해서 꼭 읽어볼 것을 권한다.

## 한권으로 읽는 세계 신화

이아미연구회 / 민중출판사 / 2000년 / 318쪽 / 9,000원

신화(神話)를 뜻하는 myth는 그리스어 mythos에서 유래했으며 '신성한 서술(敍述)'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기원에 관한 신성한 이야기인 신화, 그것은 단순히 태고에 있었던 사실에 관한 서술에 그치지 않고, 현재의 자연·문물·인간의 행동에 대해서까지도 규제력을 갖는 경우가 많다. 즉 신화는 여러 현실적 존재인 우주, 인간, 동·식물, 특정한 인간의 행위, 자연 현상, 제도 등이 어떻게 출현하였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창조'에 관한 설화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세계 여러 나라의 신화들(건국신화 중심의 한국신화, 소박하고 건강한 중국신화, 인류문화의 재창조라 할 오리엔트 신화, 비극과 현실이 어우러진 그리스 신화, 공상 속의 기묘한 세계 게르만 신화 등)를 재미있게 엮어 수록하고 있다.

신화에는 한 민족과 나라의 민족성이 반영되어 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신화들을 통해 신화의 진실성과 현실세계를 지배하는 신성함을 확인해보도록 하자.

## 해리 포터, 청바지를 입은 마법사

앤드류 블레이크(이택광) / 이후 / 2002년 / 180쪽 / 10,000원

1997년에 처음 나온 <해리 포터>는 전대미문의 판매율을 기록하며, 베스트셀러로서의 입지를 확실히 굳혔다. 아무도 무명의 영국 작가가 쓴 소설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두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영국과 지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거리가 먼 우리까지도 해리 포터의 열풍을 느끼고 있다. 그렇다면 해리 포터의 어떠한 점이 인기몰이를 가능하게 했는가? 이 책은 해리 포터가 성공 배경을 문화·사회적 관점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해리 포터의 성공은 현대인들의 과거에 대한 향수를 자극했기 때문이라고.

이 책을 통해 이전 영화로까지 만들어져 어른들에게까지 익숙해진 해리 포터 이야기를 객관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

## 행복한 바보들이 사는 마을 켈름

아이작 B. 싱어(황명길) / 두레 / 1999년 / 250쪽 / 6,500원

바보들의 마을 켈름에는 일곱 명의 현자가 있어 마을 문제를 언제나 현명(?)하게 해결해주곤 한다. 위대한 지도자 황소의 뺨을 후려친 잉어에게 익사라는 형벌을 내리기도 하고, '신크림'이 부족하게 되면 물을 '신크림'이라고 부르고, '신크림'을 물이라고 부르는 법률을 제정하기도 한다. 현자들은 자신이 내린 결정에 후회해 하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높은 지혜를 칭송한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바보 같은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자족할 줄 알며,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다.

너무나 똑똑해 '똑' 부러질 것만 같은 현대인들에게 순수한 바보들이 전하는 삶의 평안과 여유의 메시지가 결코 가볍지않은 양게 다가온다.

## 행복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

리처드 칼슨 / 장애 / 2000년 / 232쪽 / 7,500원

<행복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의 지은이, 리처드 칼슨이 10대 청소년을 위해 쓴 책이다.

세상을 비난하고, 남들을 뼈뺀 시선으로 보며 분노를 폭발시키는 이유들은 대부분 사소한 것들이다. 지은이의 말대로 사소한 것들에 대해 모두 비상사태나 되는 것처럼 반응한다면 삶은 피곤해지고 정말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도 전에 지쳐버리고 말 것이다. 특히 10대는 순간적인 감정으로 크게 후회할 일을 저지를 수도 있는 충동적인 시기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 책은 이런 10대들을 위해 '사소한 것들에 목숨을 걸지 않고' 초연해질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제안하고 밝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게 해준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의 대처 방법, 연인과의 이별, 슬럼프, 나쁜 감정으로 살다보면 끊임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나 감정 변화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지 가르쳐준다.

10대 청소년 시절에 꼭 읽어 볼 만한 책이다.

## 향료 전쟁

**가일스 밀턴(손원재) / 생각의나무 / 2002년 / 560쪽 / 19,500원**

육식을 주식으로 삼는 서양인들에게 향료는 생필품이나 다름없었고, 또한 이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모험을 감행해야 했기에 '향료 전쟁'은 불가피했다.

이 책은 반다제도의 육두구 원산지를 둘러싼 16-17세기 유럽의 상인들과 모험가들의 사투를 서사적으로 그려낸다. 특히 충성심과 의무로 무장한 영웅의 등장, 상상을 초월하는 역경과 우연, 신세계를 향한 기막힌 모험담이 재미와 감동을 준다. 그러나 저자가 그린 위대한 영웅이 과연 피정복자들에게도 영웅으로 비춰졌을 지는 생각해볼 일이다.

네델란드 상인들은 미개하고 비열하게 묘사하면서 유독 영국만은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대담하고 용기있는 사람들로 묘사된다. 일부 편파적인 내용만 잘 볼 수 있다면 좋은 내용을 많이 담고 있는 책이다.

## 현대인의 정체성

**알프레드 그루세프(심재중) / 한울 / 2002년 / 174쪽 / 14,000원**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인가?', '누가 우리를 규정하는가?' 모든 개인은 복합적인 정체성을 갖는다. 제도와 단체 속에서, 국가 사회 내부에서, 또는 초국가적인 영역에서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형성되는 복합적인 정체성, 그 체험을 결정짓는 것은 부분적으로는 개인적인 기억이지만, 이른바 '집단적인 기억'이 더 많이 차지한다. 그런데 집단적인 기억이란 가정, 학교, 미디어 등을 통해서 전수되고, 그것들의 영향 아래 정체성이 형성된다.

한 개인이나 집단이 가진 정체성의 형성 배경과 그 영향을 심층적으로 다룬 책이다. '나'라는 자아개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지금 형성된 나의 자아 개념은 과연 바르게 형성된 것인지 반성하는 계기로서 이 책은 가치가 있다.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꼭 읽어볼 만한 책이다.

##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전우익 / 연암사 / 1993년 / 130쪽 / 6,500원**

경북 봉화에서 농사지며 홀로 자연에 순응한 삶을 살아가는 저자가 지인들과 9년간 주고 받은 편지글을 책으로 묶었다. 농사꾼으로 자처하며 시종 농사짓는 이야기를 주제로 잡고 있지만 그 속에 자연의 섭리와 세상살이의 바른 이치가 모두 담겨있다. 어지러운 세상을 농사의 단순하고 소박한 언어에 비추어, 우리가 잊고 있는 참 삶을 깨우쳐주는 편지글 12편이 수록되어 있다.

1.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 2. 깊은 산 속의 약초 같은 사람/신경림 3. 삶이란 그 무엇인가에, 그 누군가에 정성을 쏟는 일 4. 뽕잎 얼어붙은 겨울 추위가 봄꽃을 한결 아름답게 피운다 5. 물이 갈라지듯 흙덩이가 곡선을 그으며 6. 엄동설한 눈 속에 샷샷 하나 받치고 7. 구경꾼과 구경거리 8. 다양한 개인이 힘을 합쳐 이론 민주주의 9. 실패를 거울삼고 10. 뿌리 없는 것이 뿌리 박은 것을 이긴다 11. 삶이란 아름다움이다 12. 맞고 보내는 게 인생 13. 스님과 노신 14. 한해를 보내면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화

**탁닛한(최수민) / 명진출판 / 2002년 / 230쪽 / 8,900원**

<첫 사랑은 맨 처음 사랑이 아니다> 등의 수필집으로 국내 독자에게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탁닛한 스님의, '화'에 대한 수필집이다.

베트남의 승려이자 시인, 평화운동가인 그는 중부 베트남에서 태어나 열 여섯 살에 수도승이 되었으며, 콜롬비아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으로부터 비교 종교학을 강의해 달라는 초청을 받고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곳에서 종교간의 대화와 화해, 그리고 인류에 대한 종교의 헌신을 주장하여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추천으로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올랐다.

세속에서 초탈한 스님이라고 해서 '화내서 무얼하나? 잊어라'고 보통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권장하는 것이 아니다. '신체의 장기와도 같아서 함부로 떼어낼 수 없는' 화, '마음의 상처에서 생겨 끝내 습관이 되고 마는' 이 화는 '마음의 씨앗'이다. 이를 인정하고 찬찬히 들여다보고 결국 다스릴 수 있는 것이다. 탁닛한 스님이 말하는 '마음 밭 갈기'이다.

## 황석영의 맛과 추억

**황석영 / 디자인하우스 / 2002년 / 224쪽 / 9,000원**

한국문학의 거장 황석영과 함께 하는 맛과 추억 여행. 배고픈 어린 시절에 먹었던 구수한 장떡, 기나긴 감옥 생활 중에 맛본 눈물의 부침개, 땅명지 독일에서 끼니로 때우던 가자미 버터 구이,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과 함께 먹던 언 감자국수 등을 자신의 삶과 함께 과거의 기억 너머로 잊혀졌던 그 때 그 음식들을 하나씩하나씩 다시 상위에 올리며 저자의 맛깔스런 입담과 어울려 인생을 다시금 곱씹고 있다.

2001년 5월에 발간되었던 <노티를 꼭 한 점 먹고 싶구나>의 개정판으로 표지와 구성 순서만 조금 바뀌었을 뿐 내용은 같다. 소설가 황석영이 자신의 삶 속에 자리하고 있는 맛의 기억에 얽힌 애뜻한 추억들을 모아 특유의 입담으로 풀어냈다.

밀가루 고추장 풀어 지진 장떡, 감방에서 나눠 먹던 눈물의 부침개, 모포 뒤집어쓰고 격격 목이 메도록 쑤셔 넣던 건빵 한 봉지 그리고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찾았던 노티 한 점 등... 잃어버린 음식, 흘러간 사랑 등 황석영의 인생 이야기가 담겨 있다.

## 흙 속에 저 바람 속에

**이어령 / 문학사상사 / 2002년 / 376쪽 / 12,000원**

1963년 '경향신문'에 연재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이어령 교수의 에세이집이다. 당시 백인수 화백이 그렸던 삽화와 40여 년이 지난 뒤의 달라진 생각을 정리한 '그 후 40년'이 수록되어 있다.

저자는 예리한 통찰력으로 '울음, 굶주림, 웃놀이, 돌담, 하얀 옷, 끼리끼리' 등 일상적 소재 속에서 한국 문화의 본질과 한국적 정서를 찾아내고, 이질적으로 보이는 동서고금의 사상들을 조화롭게 풀어나간다. 이를테면 주사위와 달리 웃은 4개의 가락들이 모두 얽혀서 한 의미를 형성하는데, 이러한 관련성의 운명이 바로 우리 사회의 풍토라는 것. 아울러 이 책은 현재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시점까지도 제시한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의 순수함을 알 수 있다.





교육자료 TL 2003-2

---

**교과연계 도서목록(중·고등학교)**

---

발 행 2003년 12월 일

발행인 김 영 찬

발행처 **한국교육학술정보원**  
(www.keris.or.kr)

주 소 ㉠137-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467-80

전화 : (02)3488-6200

팩스 : (02)3472-8909

등 록 제22-1584호(1999년 7월 3일)

인쇄처 신성인쇄상사

전화: (02)2272-0345(代)

---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비매품>

\*에듀넷 : [www.edunet.net](http://www.edunet.net)

\*리 스 : [www.riss4u.net](http://www.riss4u.net)